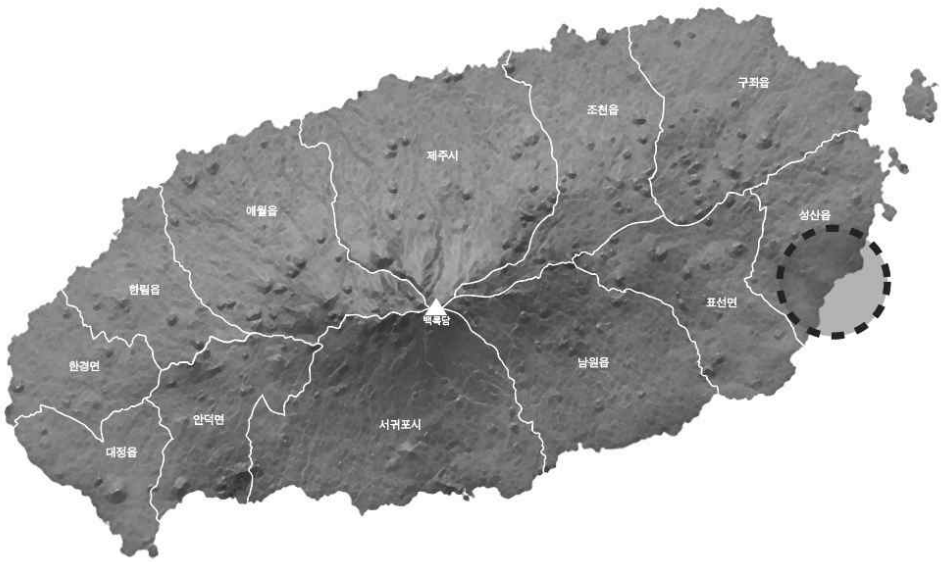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558-01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3
–성산읍 온평리

구술: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채록·전사: 김순자
표준어 대역: 허영선, 김순자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21-28)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6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38
3. 밭일 ····· 84
4. 들일 ····· 148
5. 바다일 ····· 202
6. 의생활 ····· 250
7. 식생활 ····· 291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9년 3월 25일~2019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욱,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룡

5. 사업 추진 과정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여가 소요

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 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8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신촌리' 구술 자료가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	■								
추가 전사			■	■						
표준어 대역			■	■	■	■	■	■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	■	■	■	■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안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김순자, #1 송옥금, #2 강문홍, #5 강백년)

1. 조사 마을

101001 @ 이거 녹음 헐 거난예, 이름부떠예, 삼춘[1] 일름이 어떵 뒈마씨?(이거 녹음할 거니까요, 이름부터요, 삼촌 이름이 어떻게 돼요?)

101001 #2 강문홍.(강문홍.)

101001 @ 강문홍. 멧 년 생이우과?(강문홍. 몇 년 생입니까?)

101001 #2 삼팔년.(삼팔년.)

101001 @ 삼팔년예.(삼팔년요.)

101001 #2 이월 십육일.(이월 십육일.)

101001 @ 예, 그 주소는 어떵 뒈마씨? 삼춘네 집 주소?(예, 그 주소는 어떻게 돼요? 삼촌네 집 주소?)

101001 #2 우리 주소가.(우리 주소가.)

101001 @ 예.(예.)

101001 #2 성산읍 온평리.(성산읍 온평리.)

101001 @ 예.(예.)

101001 #2 저, 지금 새 주소는 상하로 칠십일 번지고.(저, 지금 새 주소는 상하로 칠십일 번지고.)

101001 @ 예.(예.)

101001 #2 구 주소는 구사사 번지.(구 주소는 구사사 번지.)

101001 @ 예, 삼춘네 그 가족 관계는 어떵 됨수과? 자제 분들이영 우리?(예, 삼촌네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제 분들이랑 우리?)

101001 #2 딸 하나 아덜 둘.(딸 하나 아들 둘.)

101001 @ 예, 알아수다.(예, 알았습니다.)

101001 @ 삼춘, 이 온평리는 옛날에 뭐렌 불러난마씨?(삼촌, 이 온평리는 옛날에 뭐라고 불렀었어요?)

101001 #2 열운이[2].(‘열운이’.)

101001 @ 열운이.(‘열운이’.)

101001 #2 열운이.(‘열운이’.)

101002 @ 게믄 열운이 그 형성은 어떵 뒛덴 골읍니까?(그러면 ‘열운이’ 그 형성은

1) ‘삼춘’은 제주에서 삼촌(三寸)의 변음이다. 아버지의 형제를 부를 때도 쓰지만 나이든 어른들을 일컬을 때도 사용한다.

2) ‘열운이’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옛 지명이다.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101002 #2 열운이 형성 그거는 뭐 여기 열운이가 제일 처음은 강칩[3], 현칩[4], 이제 고칩[5], 송칩[6]은 뭐 뒈고, 요렇게 뒈 가지고 잇엇고.('열운이' 형성 그거는 뭐 여기 '열운이'가 제일 처음은 '강칩', '현칩', 이제 '고칩', '송칩'은 뭐 되고, 요렇게 돼 가지고 있었고.)

101002 @ 예.(예.)

101002 #2 여기 강칩이엔 헌 게 한 군데만 잇는 거 아니라.(여기 '강칩'이라고 한 게 한 군데만 있는 거 아니야.)

101002 @ 예.(예.)

101002 #2 저 어디 돌개[7]라는 그런 바다 옆에 잇는 거기 그 강칫[8] 하르방이 혼 사름 왓고.(저 어디 '돌개'라는 그런 바다 옆에 있는 거기 그 '강칫' 할아버지가 한 사람 왔고.)

101002 @ 예.(예.)

101002 #2 나머지 또 요쪽 어디 그 자손들이 요쪽이 황루알[9]에 곳에 완 정착을 헷고.(나머지 또 요쪽 어디 그 자손들이 요쪽이 '황루알'에 곳에 와서 정착을 했고.)

101002 @ 예.(예.)

101002 #2 여기 강씨도 파가 한 세 파가 ᄀᆞ튼 하르방 ᄌᆞ순인데 형제간 따로따로덜 살안 이렇게 헷고. 현칩의가 상하동으로 헤 가지고 두 군데 친촉 형성이 뒛고, 여기 그 보면은 이 저 밧이나 재산이 많은 디는.(여기 강씨도 파가 한 세 파가 같은 할아버지 자손인데 형제간 따로따로들 살아서 이렇게 했고. '현칩'이 상하동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 친족 형성이 됐고, 여기 그 보면 이 저 밭이나 재산이 많은 데는.)

101002 @ 예.(예.)

101002 #2 상동에는 현칩이라고 헤 가지고 그, 그 현칩의 형제간덜이 많이 있어.(상동에는 '현칩'이라고 해 가지고 그, 그 '현칩'의 형제간들이 많이 있어.)

101002 @ 아.(아.)

101002 #2 만허니까 옛날은 돌담을 강 다으면은 그게 우리 땅.(많으니까 옛날은 돌담을 가서 쌓으면 그게 우리 땅.)

101002 @ 예, 예.(예, 예.)

101002 #2 요런 식으로 뒈어난 모양이라. 우리는 거 듣지는 안 헷는데.(요런 식으로 되었던 모양이야. 우리는 거 듣지는 안 했는데.)

101002 @ 예.(예.)

101002 #2 고칩이라는 곳은 저쪽 신산 쪽으로 가는 쪽에 가면 이제 뭐헷고. 강칩이

3) '강칩'은 강씨 일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강+집'이 합쳐되면서 '집'이 '칩'으로 거센소리로 바뀌었다.
4) '현칩'은 현씨 일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집'이 합쳐지면서 '집'이 '칩'으로 거센소리로 바뀌었다.
5) '고칩'은 고씨 일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고+집'이 합쳐지면서 '집'이 '칩'으로 거센소리로 바뀌었다.
6) '송칩'는 송씨 일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송+집'이 합쳐지면서 '집'이 '칩'으로 거센소리로 바뀌었다.
7) '돌개'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바닷가 지경 이름의 하나다.
8) '강칫'은 '강칩'의 이음이다. 강씨 일가의 한 명이라는 의미다.
9) '황루알'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바닷가 지경 이름의 하나다.

는 요쪽 이제 입구로 들어오는 그쪽에 가면은 도로가[도롣까] 옆으로 해안가 있는데 그쪽에 이 농토가 많은 거 보니까.('고칩'이라는 곳은 저쪽 신산 쪽으로 가는 쪽에 가면 이제 뭐했고. '강칩'은 요쪽 이제 입구로 들어오는 그쪽에 가면은 도로가 옆으로 해안가 있는데 그쪽에 이 농토가 많은 거 보니까.)

101002 @ 음.(음.)

101002 #2 그게 이제 그 친촉덜 형제간덜이 많은 데로 자기네 그 구역을 정허는 헤난 모양이라.(그게 이제 그 친족들 형제간들이 많은 데로 자기네 그 구역을 정하는 했던 모양이야.)

101002 @ 예, 예.(예, 예.)

101002 #2 그렇게 허고 또 온평리, 제일 처음에 열운이라는 거는 저 어디 묵은열운이[10] 거기가 처음 왓다는 거 같아 베여. 우리 셍각에는.(그렇게 하고 또 온평리, 제일 처음에 '열운이'라는 거는 저 어디 '묵은열운이' 거기가 처음 왔다는 거 같아 보여. 우리 생각에는.)

101002 @ 묵은열운이예?('묵은열운이'요?)

101002 #2 묵은열운이. 거기서 가보면 거기는 옛날 그 석기시대부떠 그 저 뭐혜 가지고 살림헤난 조개껍질 같은 거 그런 것덜이 잇어, 잇어가지고 여기가 처음 살림 살아난 거 아니냐. 요런 그런 우리 설에는, 설만 들엇지, 실지는 모르겟고.('묵은열운이'. 거기서 가보면 거기는 옛날 그 석기시대부터 그 저 뭐해 가지고 살림했던 조개껍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처음 살림 살았던 거 아니냐. 요런 그런 우리 설에는, 설만 들었지, 실제는 모르겠고.)

101002 @ 예.(예.)

101002 #2 이 저 무슨 마을지 ᄀᆞ튼 디도 대개 이 부분 온평리, 열운이 요런 걸로만 알안.(이 저 무슨 마을지 같은 데도 대개 이 부분 온평리, '열운이' 요런 걸로만 알았어.)

101003 @ 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이 열운이는 옛날부터 어떤 일들을 헹 살아신고, 이 동네는예?(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열운이'는 옛날부터 어떤 일들을 해서 살았는가, 이 동네는요?)

101003 #2 젤 처음에는 보리.(젤 처음에는 보리.)

101003 @ 예.(예.)

101003 #2 보리 허고 보리 갈고 조 갈고. 요것이 이제 주 그 곡식. 우리가 먹고 살기 위헤서 요거를 헷고. 글후로 가가지고 유채가 나오기 시작헷어.(보리 하고 보리 갈고 조 갈고. 요것이 이제 주 그 곡식.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요거를 했고. 그 이후로 가가지고 유채가 나오기 시작했어.)

101003 @ 예.(예.)

101003 #2 유채가 나오고 고구마가 나오기 시작헷는데.(유채가 나오고 고구마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101003 @ 예.(예.)

---

10) '묵은열운이'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옛 지명의 하나다.

101003 #2 유채를 간 다음에 유챗그르[11]에는 고구마를 심엇고.(유채를 간 다음에 '유챗그르'에는 고구마를 심었고.)

101003 @ 예.(예.)

101003 #2 그때부터 돈맛을 알기 시작헌 거. 유채 갈기 시작헐 때부떠 돈이라는 거.(그때부터 돈맛을 알기 시작한 거. 유채 갈기 시작할 때부터 돈이라는 거.)

101003 @ 예.(예.)

101003 #2 그 전에는 돈이라는 거 우리 헐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집에 닭 길러 가지고 계란 한두 개 그걸 가져가지고 그것도 돈을 우리가 먹지는 안 헷어.(그 전에는 돈이라는 거 우리 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집에 닭 키워 가지고 계란 한두 개 그걸 가져가지고 그것도 돈을 우리가 먹지는 안 했어.)

101003 @ 예.(예.)

101003 #2 이 장이 어디냐 허면은 동남장[12]허고 성산장[13]이 있엇는데, 여기서 그때는 포장도 안 뭴 때 걷고 가서 이 옥수수.(이 장이 어디냐 하면 '동남장'하고 '성산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때는 포장도 안 될 때 걷고 가서 이 옥수수.)

101003 @ 예.(예.)

101003 #2 강냉이. 요거는 빨리 나와 가지고 그게 심엇는데 하나씩 그것도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우잣에 다 심어서.(강냉이. 요거는 빨리 나와 가지고 그게 심었는데 하나씩 그것도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터앝에 다 심어서.)

101003 @ 예.(예.)

101003 #2 그거를 것도 다 아껴서 먹지를 안 헤. 그거를 뜯어가지고 장에 가서 그거 허민 돈, 돈이 정말 귀헌 때라 놓니까.(그거를 것도 다 아껴서 먹지를 안 해. 그거를 뜯어가지고 장에 가서 그거 하면 돈, 돈이 정말 귀한 때라 놓으니까.)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2 그거를 벌어서 이제 뭐허면은 학비에도 보태는 것도 잇엇고, 어디 돈 내라 허민 돈 내고. 여기는 옛날에 그 제서를 보러 갈 때도 직접 돈 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쌀이나 무슨 곡식 뭐헤 가지고 맞바꿈 허는 식으로 헨 우리 살 때는 살앗고.(그거를 벌어서 이제 뭐하면 학비에도 보태는 것도 있었고, 어디 돈 내라 하면 돈 내고. 여기는 옛날에 그 제사를 보러 갈 때도 직접 돈 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쌀이나 무슨 곡식 뭐해 가지고 맞바꾸기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살 때는 살았고.)

101003 @ 예에.(예에.)

101003 #2 이제 그 돈 나오기 시작헌 거는 우리가 이제 춤 초등학교 졸업헤 가지고 중학교 시절부떠는 그때는 돈이 뭐 기성회비니 육성훼비니 이런 걸 헤 가지고 학교도 돈이 있어야 가고. 나도 이년 동안은 돈이 부모들이 돈 없으니까.(이제 그 돈 나오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이제 참 초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중학교 시절부터는 그때는 돈이 뭐 기성회비니 육성회비니 이런 걸 해 가지고 학교도 돈이 있어야 가고. 나도 이년 동안은

11) '유챗그르'에는 유채를 심었다가 벤 자리를 말한다.
12) '동남장'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섰던 오일장 이름이다.
13) '성산장'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섰던 오일장 이름이다.

돈이 부모들이 돈 없으니까.)

101003 @ 음.(음.)

101003 #2 학교를 중학교를 늦게 이제 가가지고.(학교를 중학교를 늦게 이제 가가지고.)

101003 @ 음.(음.)

101003 #2 여기서 흔 십오 리 뭔 디를 걸어가지고 다니고 그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고무신, 검은 고무신도 힘들었어.(여기서 한 십오 리 된 데를 걸어가지고 다니고 그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고무신, 검은 고무신도 힘들었어.)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2 힘들게 헤 가지고 검은 고무신도 아껴 썻고. 게, 항상 걸어다녓고 요런 식으로 헤서 살앗는데 글후에 유채 고구마 나오기 시작허니까 그때부떠는 절간을, 고구마는 절간 헤 가지고 널면은 그 주정공장에 팔고. 고구마 그때부터 이제 남으 땅도 쫌 살 수 잇엇고.(힘들게 해 가지고 검은 고무신도 아껴 썼고. 게, 항상 걸어다녔고 요런 식으로 해서 살았는데 그 이후에 유채 고구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절간을, 고구마는 절간 해 가지고 널면 그 주정공장에 팔고. 고구마 그때부터 이제 남의 땅도 좀 살 수 있었고.)

101003 @ 예에.(예에.)

101003 #2 유채, 고구마 시기가 뒈어서, 허고. 헤녀덜 물질헌 사름덜은 육지 가가지고 물질헤 가지고 벌고 오고. 여기서 농사 진 사름은 농사지어 가지고 흔 거를 합헤 가지고 돈 불려. 그때는 밧 깝도 그렇게 가질 안 헷으니.(유채, 고구마 시기가 되어서, 하고. 해녀들 물질하는 사람들은 육지 가가지고 물질해 가지고 벌고 오고. 여기서 농사지은 사람은 농사지어 가지고 한 거를 합해 가지고 돈 불려. 그때는 밭 값도 그렇게 가질 안 했으니.)

101003 @ 예.(예.)

101003 #2 농사 못 지는 밧은 그대로 가져가라. 저 밧덜이 많은 사람은 말만 잘 허민 이건 그대로 헤 먹으라. 나도 반작을 남으 집 내버린 밧을 계속 가꾸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앗는데.(농사 못 짓는 밭은 그대로 가져가라. 저 밭들이 많은 사람은 말만 잘 하면 이건 그대로 해 먹어라. 나도 병작을 남의 집 내버린 밭을 계속 가꾸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101003 @ 예.(예.)

101003 #2 글후에는 또 이제 그게 끗나니까 츠츰 당근이 나오고 이게 다 모든 게 서귀포시로부떠 차츰, 서귀포 농사짓는 게 어떠게 뒈냐면 서귀포에서 문저 헌 거를 여기는 나중에 물려받는 거라.(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게 끝나니까 차츰 당근이 나오고 이게 다 모든 게 서귀포시로부터 차츰, 서귀포 농사짓는 게 어떻게 되냐면 서귀포에서 먼저 한 거를 여기는 나중에 물려받는 거야.)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2 나중엔 또 감귤이 표선[14]까지 왔다는 거라.(나중엔 또 감귤이 표선까지

왔다는 거야.)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2 표선까지 와가지고 표선서 끗낫는데 여기 멧 사람 일본 그 다니는 분들이, 묘목은 어디서 나왓느냐 허면 일본서 나온 거라. 게믄 여기 쫌 잘사는 사름덜 우리 감귤 헤서 살겟다, 못사는 사름은 엄두도 못 내고 감귤 심는 것도.(표선까지 와가지고 표선서 끝났는데 여기 몇 사람 일본 그 다니는 분들이, 묘목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일본서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 좀 잘사는 사람들 우리 감귤 해서 살겠다, 못사는 사람은 엄두도 못 내고 감귤 심는 것도.)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2 헤 가지고 헷는데, 그 묘목을 업자들안티 저 일본서 온 것이라 헤도. 그 돈이 많은 사름덜, 일본 다니는 친촉이나 뭐 헌 사름덜 하루 멧 본 쫌 게믄 우리도 갈라 달라 헤 가지고 그런 심고. 친촉 잇는 사름덜은 멧 본 돈 줘서 가져가라 이렇게 허면서 조성헌 게 감귤이고.(해 가지고 했는데, 그 묘목을 업자들한테 저 일본서 온 것이라 해도. 그 돈이 많은 사람들, 일본 다니는 친척이나 뭐 한 사람들 하루 몇 본 좀 그러면 우리도 나눠 달라 해 가지고 그런 심고. 친척 있는 사람들은 몇 본 돈 줘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조성한 게 감귤이고.)

101003 @ 예.(예.)

101003 #2 그다음, 그다음부터 나도 이제 뭘 헷느냐면 농사 남으 집 살면서.(그다음, 그다음부터 나도 이제 뭘 했느냐면 농사 남의 집 살면서.)

101003 @ 으.(으.)

101003 #2 뽕나무를 교육을 받앗어.(뽕나무를 교육을 받았어.)

101003 @ 아아.(아아.)

101003 #2 그다음, 그다음 나도 뭘 헷느냐 남으 집 살면서 뽕나무. 뽕나무를 밧데 천사벡 펭짜리 밧을 어떻게 어떻게 둘이가 부부가 노력 헤 가지고 웨상밧을 사가지고. 그땐 밧 천사벡 평 헷자 돈 팔만 원.(그다음, 그다음 나도 뭘 했느냐 남의 집 살면서 뽕나무. 뽕나무를 밭에 천사백 평짜리 밭을 어떻게 어떻게 둘이 부부가 노력 해 가지고 '외상밭'을 사가지고. 그땐 밭 천사백 평 했어도 돈 팔만 원.)

101003 @ 아아.(아아.)

101003 #2 구만 원 헷거든.(구만 원 했거든.)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2 그 밧도 이제 일 년에 못 무니까.(그 밭도 이제 일 년에 못 무니까.)

101003 @ 예.(예.)

101003 #2 이 년 삼 년 물러줄 걸로 헤 가지고 길도 없는 밧.(이 년 삼 년 물어줄 걸로 해 가지고 길도 없는 밭.)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2 길이 없는 저 명지[15].(길이 없는 저 '명지'.)

---

14) '표선'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101003 @ 예.(예.)

101003 #2 요새 말허는 명지 그걸 사가지고 뽕나무 교육을 어디서 허느냐 농촌진흥청에 가가지고 받으니까 거기 집을 지어야 뭰다는 거라 또.(요새 말하는 '명지' 그걸 사가지고 뽕나무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농촌진흥청에 가가지고 받으니까 거기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또.)

101003 @ 아.(아.)

101003 #2 뽕나무 누에 키우곡 허민 그 뭐헐 걸 키운다 허니까. 도저히 이거는 우린 못허겟다 헨 뽕나무를 삼 년 키워가지고 이거 안 뒈겟다, 나 파버려야지. 거기 집 지어야 지원헤 주고 뭐 헌다 허는데 거기 수도도 안 갓지 뭐 나무만 심으민 뭴 걸로 알앗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보니 요런, 요런 것 때문에 이젠 '아, 이거 정부에서 허는 거 이거 잘못 뒛구나.' 허연. 온평리도 흔 으덟 사름을 헷다가 다 이제 방화 부떳다고 거 산에 산불 나서 헷다고 헤서 폐원헤버리고 거기 농사를 헤연 고구마 놓고 유채 갈고 거기서 좀 토지를 쪼금쪼금 이제.(뽕나무 누에 키우고 하면 그 뭐할 걸 키운다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우린 못하겠다 해서 뽕나무를 삼 년 키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나 파버려야지. 거기 집 지어야 지원해 주고 뭐 한다 하는데 거기 수도도 안 갔지 뭐 나무만 심으면 될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보니 요런, 요런 것 때문에 이젠 '아,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 이거 잘못 됐구나.' 해서. 온평리도 한 여덟 사람을 했다가 다 이제 방화 붙었다고 거 산에 산불 나서 했다고 해서 폐원해버리고 거기 농사를 해서 고구마 놓고 유채 갈고 거기서 좀 토지를 조금조금 이제.)

101003 @ 음.(음.)

101003 #2 확보헷는데. 게난 여자 여기는 물질을 허민 집읫사름[16]은 바다에.(확보했는데. 그러니까 여자 여기는 물질을 하면 '집읫사름'은 바다에.)

101003 @ 예.(예.)

101003 #2 저 육지 나가고 어린애 낳민 또 두고 또 말귀 알아들 정도 뒈민 두고 육지 가가지고 삼 개월 육지 어디 저 충청도나 그런 디 가 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디 여기서 베로 헤 가지고 보리쌀이나 뭐 양식도 가지고 가.(저 육지 나가고 어린애 낳으면 또 두고 또 말귀 알아들 정도 되면 두고 육지 가가지고 삼 개월 육지 어디 저 충청도나 그런 데 가 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디 여기서 배로 해 가지고 보리쌀이나 뭐 양식도 가지고 가.)

101003 @ 예, 예, 예에. (예, 예, 예에.)

101003 #2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앗고.(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았고.)

101003 @ 음, 그러면은 여기 아무래도 이제 해안 마을이니까 여기 바당 일들도 하영 헤실 거 아니라예?(음, 그러면은 여기 아무래도 이제 해안 마을이니까 여기 바다 일들도 많이 했을 거 아닌가요?)

101003 #2 옛날 바다를 우리가 퉤비헐랴면은 그 엿날에는 이 어촌계가 아니라 개

15) '명지'는 입구가 없는 땅을 말한다.

16) '집읫사름'은 온평리에서 제보자가 아내를 가리키면서 쓴 말이다.

금[17]이라고 헤 가지고.(옛날 바다를 우리가 퇴비하려면 그 옛날에는 이 어촌계가 아니라 '개금'이라고 해 가지고.)

101003 @ 예.(예.)

101003 #2 동네마다 여기는 멧 곤데 바다, 여기 이제 청소도 허고 예를 들어 거기 사람이 바다에서 죽으면 그거 장사도 치와서 헤야 뒈고.(동네마다 여기는 몇 군데 바다, 여기 이제 청소도 하고 예를 들어 거기 사람이 바다에서 죽으면 그거 장사도 치워서 해야 되고.)

101003 @ 으음.(으음.)

101003 #2 이렇게 헷는데, 그 여기 온평리는 고성[18] 바당 잇고 저 난산[19] 바당 잇어.(이렇게 했는데, 그 여기 온평리는 고성 바다 있고 저 난산 바다 있어.)

101003 @ 예.(예.)

101003 #2 산간 부락도 바다를 그 경계로 헤 가지고 쪼금씩 다 나눠줫는데.(산간 부락도 바다를 그 경계로 해 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줬는데.)

101003 @ 아.(아.)

101003 #2 그 일제 때 그 막 여기 사람이 죽어 올르고 뭐허니까 그런 거 뭐허니까 우리 청소 안 한다, 안 한다 헤 가지고 온평리가 신양리[20]허고 신산리[21] 경곗[경곋] 사이에 바다가 그렇게 넓어져 분 거지.(그 일제 때 그 막 여기 사람이 죽어 오르고 뭐하니까 그런 거 뭐하니까 우리 청소 안 한다, 안 한다 해 가지고 온평리가 신양리하고 신산리 경계 사이에 바다가 그렇게 넓어져 버린 거지.)

101003 @ 아아, 지금도 그 바다가 잇구나예?(아아, 지금도 그 바다가 있군요?)

101003 #2 바다가 온평리가, 주장을. 경계에선 온평리 경계에서 신양리 경계서 이제는 난산리도 이제는 관리 안 허고 저 고성도 관리 안 허고 경 헤 가지고 이제 그 바다는 온평리는 이제 학교가 뭐허게 뒈니까.(바다가 온평리가, 주장을. 경계에선 온평리 경계에서 신양리 경계서 이제는 난산리도 이제는 관리 안 하고 저 고성도 관리 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바다는 온평리는 이제 학교가 뭐하게 되니까.)

101003 @ 예.(예.)

101003 #2 학교를 처음은 저 뭐 독자[22]가 뭐 헤 가지고 여기 세완 쪼그마한 학교가 잇엇는데, 거기 불 타 버리고 그 학교를 지을라고 허니까 이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해녀들이 부락훼의를 헤서 바다를 양쪽으로 끊어서 이제 내놓자.(학교를 처음은 저 뭐 독지가가 뭐 해 가지고 여기 세워서 조그마한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불 타 버리고 그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해녀들이 부락회의를 해서 바다를 양쪽으로 끊어서 이제 내놓자.)

---

17) '개금'은 바다를 몇 구역으로 나눌 때의 경계를 말한다. 즉 '개금'은 '개+금'으로, '개'는 바다, '금'은 다른 것과 경계 짓기 위해 그은 선이라는 의미다.
18) '고성'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를 가리킨다.
19) '난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를 가리킨다.
20) '신양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를 가리킨다.
21) '신산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를 가리킨다.
22) 제보자는 '독지가'를 '독자'로 잘못 발음하였다.

101003 @ 예에.(예에.)

101003 #2 가서 여기서 수입금은 이제 저 학교에 뭐헤 가지고 학교를 짓자 요렇게 헤 가지고 청년훼가 주장 헤 가지고, 청년훼는 감시반이라.(가서 여기서 수입금은 이제 저 학교에 뭐해 가지고 학교를 짓자 요렇게 해 가지고 청년회가 주장해 가지고, 청년회는 감시반이야.)

101003 @ 예.(예.)

101003 #2 딱 모입서. 청년훼장이 모이면은 요기 여기 멧 시간 동에 물에 들어가세요. 들어갓단 나오세요. 오래 살아도 거 안 뒈고 위험허니까.(딱 모이십시오. 청년회장이 모이면 요기 여기 몇 시간 동안 물에 들어가세요.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오래 살아도 거 안 되고 위험하니까.)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2 게 가지고 거기서 다 공동 작업을 헤 가지고 그때는 잔디밧이라. 해안가는 다 잔디밧이니까 이쪽이나 이쪽은 다 잔디밧듸 거기서 말려 가지고 이거를 저 판매허면은 이건 학교 기금으로 허고 나머지는.(그래 가지고 거기서 다 공동 작업을 해 가지고 그때는 잔디밭이야. 해안가는 다 잔디밭이니까 이쪽이나 이쪽은 다 잔디밭에 거기서 말려 가지고 이거를 저 판매하면은 이건 학교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101003 @ 으음.(으음.)

101003 #2 이제 그 뭐 나머지 바당은 이제 물질 금헷다가 거기 거는 수입을 헤 가지고 자기가 자기 즈물아지는 한 이제.(이제 그 뭐 나머지 바다는 이제 물질 금했다가 거기 거는 수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캐지는 한 이제.)

101003 @ 예, 예, 예.(예, 예, 예.)

101003 #2 자기 거가 뒈고. 게니까 상 중 하 그런 거는 뭐 저 양쪽 끗은 공동 배분헤 가지고 이거 학교를 지은 거.(자기 것이 되고. 그러니까 상 중 하 그런 거는 뭐 저 양쪽 끝은 공동 배분해 가지고 이거 학교를 지은 거.)

101003 @ 예, 이거 온평리가 보면은 학교 바당이 유명허잖아예?(예, 이거 온평리가 보면 학교 바다가 유명하잖아요?)

101003 #2 으, 학교 바당에. 학교 비석도 이제 해녀 비석을 저기 학교에 세와 실 거라.(으, 학교 바다에. 학교 비석도 이제 해녀 비석을 저기 학교에 세워 있을 거야.)

101004 @ 예, 그다음에 이 마을 주변에 뭐 오름도 잇수가?(예, 그다음에 이 마을 주변에 뭐 오름도 있습니까?)

101004 #2 이딘 온평리 오름이 없어부니까 멀껑헌 열운이엔. 경허기 때문에 이번 공항도 온평도 경계 가서 사민 쭉 바다 보면은 어디 하나 건드리지 아녀 가지고 밀어자치민 공항 뒈게끔 뒈어 버리니까 온평리 지경을 헷는데, 이게 문제가 큰 거주.(여긴 온평리 오름이 없어버리니까 멀건 '열운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항도 온평도 경계 가서 서면 쭉 바다 보면 어디 하나 건드리지 않아 가지고 밀어젖히면 공항 되게끔 되어 버리니까 온평리 지경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큰 거지.)

101004 @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여기는 내천, 내창들은 잇어마씨?(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여기는 내천, 내들은 있어요?)

101004 #2 내창은, 내창이 쪼금 쪼끔벳긔 없. 게난 내창도 없는 디가 온평리.(내는, 내가 조금 조금밖에 없. 그러니까 내도 없는 데가 온평리.)

101004 @ 아아.(아아.)

101004 #2 골목길로 물길로 다 내가 돌아.(골목길로 물길로 다 내가 돌아.)

101004 @ 음, 큰 내는 없고예?(음, 큰 내는 없고요?)

101004 #2 큰 내가 없고. 이 신산리나 어디 동남 같은 데는 내창이. 신산리도 그 앙에굴[23]이라는 그거 온평리 경계로 내창이 그게 그 물덜도 온평리 물덜도 그레 가고 저레 가고 다 밑으로만 내려완 온평린 내창이 없는디.(큰 내가 없고. 이 신산리나 어디 동남 같은 데는 내가. 신산리도 그 '앙에굴'이라는 그거 온평리 경계로 내가 그게 그 물들도 온평리 물들도 그리 가고 저리 가고 다 밑으로만 내려와서 온평린 내가 없는데.)

101004 @ 아아.(아아.)

101004 #2 그래서 지금 다 내창도 만들고 그 저 저류지들을 만들어 부니까 지금. 그 전에는 이 온평리는 그 내 큰 뭐 내창이 엇어도 비 큰비가 와도 뭐 그 피해 보지는 안 헷엇지.(그래서 지금 다 내도 만들고 그 저 저류지들을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그 전에는 이 온평리는 그 내 큰 뭐 내가 없어도 비 큰비가 와도 뭐 그 피해 보지는 안 했었지.)

101004 @ 내 터지는 일이 엇이난예?(내 터지는 일이 없으니까요?)

101004 #2 엇이니까.(없으니까.)

101004 @ 아, 음.(아, 음.)

101004 #2 저 난산리 같은 데는 그 온평리 우로 이렇게 뚝이 막아지니까 저쪽 신산으로 물이 가게 뒈고 이쪽으론 신양리 쪽디레 빠져, 고성디레 가게 뒈어 버리니까. 지형이 뒈어 버리니까.(저 난산리 같은 데는 그 온평리 위로 이렇게 둑이 막아지니까 저쪽 신산리로 물이 가게 되고 이쪽으론 신양리 쪽으로 빠져, 고성으로 가게 되어 버리니까. 지형이 되어 버리니까.)

101004 @ 예.(예.)

101004 #2 내 큰 내창이 엇인 거.(내 큰 내가 없는 거.)

101004 @ 예, 게믄 막 물 부족은 헤신가마씨?(예, 그러면 막 물 부족은 했는가요?)

101004 #2 물은 부족해. 물은 많이 부족헷지. 여기 혼인지물 옛날에는 물을.(물은 부족해. 물은 많이 부족했지. 여기 혼인지물 옛날에는 물을.)

101004 @ 예.(예.)

101004 #2 요기 통이 샘 통이 하나 잇엇는데, 그디가 저게 이제 온평리 부락민들이 뭐헌데, 그 온평리 그 강○○이라는 그 하르방이 강칩의 젤 해안가 지금 저기 사는 그디서 그 하르버지가 그 통을 이제 뭐헷다고 이렇게 우리가 들엇는데.(요기 통이 샘 통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저게 이제 온평리 부락민들이 뭐하는데, 그 온평리 그 강○○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강씨 댁의 젤 해안가 지금 저기 사는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그 통

23) '앙에굴'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지경의 내 이름이다.

을 이제 뭐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101004 @ 예.(예.)

101004 #2 그 물을 저게 멧 메다냐 허민 열두 발. 요렇게 열두 발. 거기 물이 통을 판 거라.(그 물을 저게 몇 미터냐 하면 열두 발. 요렇게 열두 발. 거기 물이 통을 판 거야.)

101004 @ 예에.(예에.)

101004 #2 ᄉᆞ방에 통을 파서 그 물을 먹은 거지.(사방에 통을 파서 그 물을 먹은 거지.)

101004 @ 음.(음.)

101004 #2 그 물 먹고 나머지는 민물. 여기 온평리는 혼인짓물[24] 저 어디 바다 쪽으로 가민 도는물[25] 저 밑으로 가면은 애기죽은날물[26], 거기는 소도 멕이고 요만큼헤 가지고 사람도 먹고 거 물이 많이 없엇을 때 먹엇고.(그 물 먹고 나머지는 민물. 여기 온평리는 혼인지물 저 어디 바다 쪽으로 가면 '도는물' 저 밑으로 가면은 '애기죽은날물', 거기는 소도 먹이고 요만큼해 가지고 사람도 먹고 거 물이 많이 없었을 때 먹었고.)

101004 @ 예.(예.)

101004 #2 요 혼인지는 또 크게 그 통을 따로 헷고. 소 먹는 물이 따로 잇고. 거기는 통이 두 개가 잇엇어.(요 혼인지는 또 크게 그 통을 따로 했고. 소 먹는 물이 따로 있고. 거기는 통이 두 개가 있었어.)

101004 @ 예.(예.)

101004 #2 두 개가 있엇는데 그거 두 물을 이제 먹고. 옛날엔 그 큰일은 나면은 물을 다 여기 허벅으로만 질엇는데. 물마차가 나오면은.(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 두 물을 이제 먹고. 옛날엔 그 큰일은 나면은 물을 다 여기 허벅으로만 길었는데. 마차가 나오면.)

101004 @ 예.(예.)

101004 #2 나온 후에는 이 드럼, 드럼통이라는 걸 가져서.(나온 후에는 이 드럼, 드럼통이라는 걸 가져서.)

101004 @ 예, 예, 예.(예, 예, 예.)

101004 #2 그 오늘은 누구네 잔치 헌다든가 무슨 뭐 집일 헌다든가 허믄 그 물마차에 그 물 그디 거기 가서 떠 놔가지고 집에 왕 공급도 허고.(그 오늘은 누구네 잔치 한다든가 무슨 뭐 집일 한다든가 하면 그 마차에 그 물 거기 거기 가서 떠 놔가지고 집에 와서 공급도 하고.)

101004 @ 음.(음.)

101004 #2 그때는 수도가 엇을 때니까.(그때는 수도가 없을 때니까.)

101004 @ 예. 예.(예, 예.)

---

24) '혼인짓물'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에 있는 물 이름이다.
25) '도는물'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지경에 있는 물 이름이다.
26) '애기죽은날물'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물 이름의 하나다.

101004 #2 그렇게 하다가.(그렇게 하다가.)

101004 @ 음, 그 혼인지 물 이름은 뭐우과? 여기서는 불리는?(음, 그 혼인지 물 이름은 뭡니까? 여기서는 불리는?)

101004 #2 여기 훼죽물통[27]엔 허주. 이딧말로 훼죽물통.(여기 '훼죽물통'이라고 하지. 여기 말로 '훼죽물통'.)

101004 @ 훼죽물통예?('훼죽물통'요?)

101004 #2 먹는 물통, 소 먹는 물통.(먹는 물통, 소 먹는 물통.)

101004 @ 예, 그 훼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우꽈?(예, 그 '훼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1004 #2 혼인지[28]를 말허는 거라. 지경 이름을 여기 사투리로 훼죽[29], 훼죽.('혼인지'를 말하는 거야. 지경 이름을 여기 사투리로 '훼죽', '훼죽'.)

101004 @ 훼죽, 혼인지를 이제 그렇게?('훼죽', '혼인지'를 이제 그렇게?)

101004 #2 혼인지를 훼죽이라고 허고.('혼인지'를 '훼죽'이라고 하고.)

101004 @ 훼죽물통?('훼죽물통'?)

101004 #2 훼죽물통.('훼죽물통'.)

101004 #2 예, 혹시 여기는 그 바위 같은 것도 잇어마씨? 큰 바위 같은 거?(예, 혹시 여기는 그 바위 같은 것도 있어요? 큰 바위 같은 거?)

101004 #2 바위는 없고 동굴덜은 잇어.(바위는 없고 동굴들은 있어.)

101004 @ 아, 동굴들은 잇고예?(아, 동굴들은 있고요?)

101004 #2 동굴은 서궁궤굴[30] 무슨 뭐 어디 온평리 경계 가면은 모낭궤굴이라는 거 잇고. 거기는 이 저 모낭궤굴[31]이 커. 거기 가보면은 그게 바다 쪽으로 뚤버졋다는데 그 사삼사건 당시에 거기 사람이 숨어서.(동굴은 '서궁궤굴' 무슨 뭐 어디 온평리 경계 가면은 '모낭궤굴'이라는 거 있고. 거기는 이 저 '모낭궤굴'이 커. 거기 가보면 그게 바다 쪽으로 뚫어졌다는데 그 사삼사건 당시에 거기 사람이 숨어서.)

101004 @ 으음.(으음.)

101004 #2 잇엇고. 사람이 또 거기 뭐헤나기 때문이 방위허기가 곤란허니까 거기 지금 돌로 다 메꽈버렷어, 지금.(있었고. 사람이 또 거기 뭐했었기 때문에 방위하기가 곤란하니까 거기 지금 돌로 다 메워버렸어, 지금.)

101004 @ 아아.(아아.)

101004 #2 메꽈버리고 그 베껏듸론 쓰레기 갖다 놓고. 우리가 옛날에는 솔 가꾸는 목동이니까 한 열이틀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소를 집집마다 여기 소가 잇엇으니까.(메워버리고 그 바깥으론 쓰레기 갖다 놓고. 우리가 옛날에는 솔 가꾸는 목동이니까 한 열이

27) '훼죽물통'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에 있는 물의 이름이다.
28) '혼인지'는 예전 고량부 삼성인 벽랑국 세 공주를 맞아들여서 혼인을 올렸다는 전설지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다.
29) '훼죽'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가 있는 지경 이름이다.
30) '서궁궤굴'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소재한 굴 이름이다.
31) '모낭궤굴'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소재한 굴 이름이다. 달리 '모낭궤'라고 한다. '모낭궤굴'은 '굴'의 의미인 '궤'에 '굴'이 덧붙은 형태다.

틀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소를 집집마다 여기 소가 있었으니까.)

101004 @ 예.(예.)

101004 #2 소 길를 때니까. 당번제로 헤 가지고 하루는 정심을 싸고 아침 다섯 시에 저녁 다섯 시까지 소를 몰고 멕이고 오면 그 모낭궤[32]엔 헌 거기도 물통이 잇고. 저기 수산에 가면 지꾸물[33]이라는 데 잇고, 혼인지허고 거기서 이제 소를 길루면 그 처음 모인 자리에서 소 물을 멕이고 저 수산[34] 우의까지.(소 기를 때니까. 당번제로 해 가지고 하루는 점심을 싸고 아침 다섯 시에 저녁 다섯 시까지 소를 몰고 먹이고 오면 그 '모낭궤'라고 한 거기도 물통이 있고. 저기 수산에 가면 '지꾸물'이라는 데 있고, 혼인지하고 거기서 이제 소를 키우면 그 처음 모인 자리에서 소 물을 먹이고 저 수산 위에까지.)

101004 @ 예.(예.)

101004 #2 가 가지고 하루 동안 소를 멕영 올 때는 또 혼인지물 멕이고 들어오는 거라.(가 가지고 하루 동안 소를 먹여서 올 때는 또 혼인지물 먹이고 들어오는 거야.)

101004 @ 예.(예.)

101004 #2 그렇게 허면서 이제 헤난 곳이고. 바위 굴덜 조그만헌 굴덜은 여라 곤데가 잇는데, 서 지금 서궁궤굴도 이제 봉헤 가지고 그디 표시만 헷지. 개발을 헷으면 다 쓸 건데.(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곳이고. 바위 동굴들 조그마한 동굴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서 지금 '서궁궤굴'도 이제 봉해 가지고 거기 표시만 했지. 개발을 했으면 다 쓸 건데.)

101004 @ 예. 아까.(예. 아까.)

101004 #2 이 온평리 지경이 동굴이 많아.(이 온평리 지경이 동굴이 많아.)

101004 @ 아아, 그렇구나. 아까 무슨 굴마씨?(아아, 그렇구나. 아까 무슨 동굴요?)

101004 #2 모낭궤.('모낭궤'.)

101004 @ 예.(예.)

101004 #2 서궁궤.('서궁궤'.)

101004 @ 서궁궤?('서궁궤'?)

101004 #2 허고 그 나머지덜[떨]은 무슨 뭐 굴 이름덜이 없고, 저쪽 수산으로 가면은 무슨 굴이라는 게 잇는데 굴 두 개는 확실하게시리 지금 온평리 그 지경에 잇는 모낭궤허고 서궁궤굴[꿀]은 지금. 서궁궤는 이건 바위로 이렇게 이건 그디 가면 우에는 다 바위로 뒈어 잇는데 이 구멍이 이렇게 뚤리고 이쪽을 뚤벗는데 이 길이 사람이 이렇게 서면은 즉각 가지고 그 안네는 물이 막 바당물처럼 있어.(하고 그 나머지들은 무슨 뭐 동굴 이름들이 없고, 저쪽 수산으로 가면은 무슨 동굴이라는 게 있는데 동굴 두 개는 확실하게끔 지금 온평리 그 지경에 있는 '모낭궤'하고 '서궁궤굴'은 지금. '서궁궤'는 이건 바위로 이렇게 이건 거기 가면 위에는 다 바위로 되어 있는데 이 구멍이 이렇게 뚫리고 이쪽을 뚫었는데 이 길이 사람이 이렇게 서면은 즉각 가지고 그 안에는 물이 막 바닷물처럼 있어.)

---

32) '모낭궤'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소재한 굴 이름이다. 달리 '모낭궤굴'이라고 한다.
33) '지꾸물'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34) '수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를 가리킨다.

101004 @ 아아, 게문 옛날 삼춘네 어린 때는 거기 들어강 놀고?(아아, 그러면 옛날 삼촌네 어릴 때는 거기 들어가서 놀고?)

101004 #2 거기 들어가 가지고. 밧데 가서 일허다가 물 떠오라 허면 거기 가서 떠오고, 건 먹기만 헷지 놀* 그 안에 강 놀지는 안 헷고.(거기 들어가 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다가 물 떠와라 하면 거기 가서 떠오고, 건 먹기만 했지 놀* 그 안에 가서 놀지는 안 했고.)

101004 @ 아아.(아아.)

101004 #2 나중에는 이 온평리 사람이 특작 허는 사람이 요 저 서궁궤굴에는 저장을 헤본다고 헤서 베추를 흔 차 실고와 가지고.(나중에는 이 온평리 사람이 특작 하는 사람이 요 저 '서궁궤굴'에는 저장을 해본다고 해서 배추를 한 차 싣고와 가지고.)

101004 @ 으음.(으음.)

101004 #2 놔둬난 그런 역사도 잇는데. 거기도 습기가 창 오레 허민 저장이 안 뒈가지고 나중에 쓰레기가 뒈버릴 정도가 뒈여.(놔뒀던 그런 역사도 있는데. 거기도 습기가 차서 오래 하면 저장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쓰레기가 돼버릴 정도가 되어.)

101005 @ 예예, 아무래도 습기가 많아서예. 그다음에 혹시 이 마을에 기관은 어떤 기관들 잇어마씨? 뭐.(예예, 아무래도 습기가 많아서요. 그다음에 혹시 이 마을에 기관은 어떤 기관들 있어요? 뭐.)

101005 #2 온평리 기관은 없엇어.(온평리 기관은 없었어.)

101005 @ 어.(어.)

101005 #2 옛날부터 그건 우리가 들은 말인데, 그 모든 행정은 고칩의서 그.(옛날부터 그건 우리가 들은 말인데, 그 모든 행정은 고씨 댁에서 그.)

101005 @ 으음.(으음.)

101005 #2 이 온평리를 휘잡앗지, 옛날도. 고 참사라 헤 가지고 저 일본시대부터 저 우선 일본 앞잽이 뭐허고. 무슨 공출을 헌다든가 뭐헐 때는 요디 동산 잇엇어.(이 온평리를 휘어잡았지, 옛날도. 고 참사라 해 가지고 저 일본시대부터 저 우선 일본 앞잡이 뭐하고. 무슨 공출을 한다든가 뭐할 때는 요기 동산 있었어.)

101005 @ 예.(예.)

101005 #2 거기 가민 고칩의 그 사람이 고 참사라고 헤 가지고 그디 모여 가지고 이장이든 누구든 거기서 이제 오라 헤 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도 거기서 뭐 벌 그런 식으로 헷는데. 거기서 말허기를 저 지방에, 부락에 행정기관이나 뭐 잇으면 복잡허다.(거기 가면 고씨 댁에 그 사람이 고 참사라고 해 가지고 거기 모여 가지고 이장이든 누구든 거기서 이제 와라 해 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도 거기서 뭐 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저 지방에, 부락에 행정기관이나 뭐 있으면 복잡하다.)

101005 @ 으음.(으음.)

101005 #2 피헤를 간다. 그래서 신산리.(피해를 간다. 그래서 신산리.)

101005 @ 음.(음.)

101005 #2 게난 신산리가 문저 지서도 생겨불고 학교도 생겨불고 뭐 모든 신산리허

고 난산리. 이 온평리는 길도 저 밑으로 헤야 발전뒛을 건데.(그러니까 신산리가 먼저 지서도 생겨버리고 학교도 생겨버리고 뭐 모든 신산리하고 난산리. 이 온평리는 길도 저 밑으로 해야 발전됐을 건데.)

101005 @ 음.(음.)

101005 #2 그쪽에 그 온평리 그 동산 서천묵동산[35]이라는 게 잇어. 그 동산을 깨 버리면은 온평리가 망헌다고 헤 가지고 그때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길을 못 빼게 헷어. 게난 도롯가[도롣까]를 이렇게 빼여 분 거라. 이렇게 헤서 이렇게 헤 가지고.(그쪽에 그 온평리 그 동산 '서천묵동산'이라는 게 있어. 그 동산을 깨 버리면 온평리가 망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길을 못 빼게 했어. 그러니까 도로가를 이렇게 빼 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101005 @ 으음. 서천묵동산?(으음. '서천묵동산'?)

101005 #2 서천묵동산.('서천묵동산'.)

101005 @ 서천묵동산? 음.('서천묵동산'? 음.)

101005 #2 기 잇는 동산이라고 헤 가지고.(기 있는 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101005 @ 예, 예.(예, 예.)

101005 #2 조금.(조금.)

101005 @ 그다음에 삼춘예, 그, 그러면 여기 학교 잇고.(그다음에 삼촌요, 그, 그러면 여기 학교 있고.)

101005 #2 학교허고 뭐 다른 것 없어.(학교하고 뭐 다를 것 없어.)

101005 @ 마을훼관 노인훼 청년훼 정도?(마을회관 노인회 청년회 정도?)

101005 #2 으, 그 정도지 뭐 지금까지 헤 놓은 게.(으, 그 정도지 뭐 지금까지 해 놓은 게.)

101006 @ 그다음에 예전에는 웨 마을에 일허젠 허민 다 접들 들엉 헷잖우꽈양?(그다음에 예전에는 왜 마을에 일하려고 하면 다 계들 들어서 했잖습니까?)

101006 #2 그 접 들언 헷주.(그 계 들어서 했지.)

101006 @ 어떤 접덜이 잇어낫수가?(어떤 계들이 있었었습니까?)

101006 #2 여기 제일 처음에는 그 ᄆᆞ쉬접[36]엔 헌 게 그게 접이난, 흔 동네에 두 개 잇는 디 잇고 세 개 잇는 디가 잇고 하나 잇는 디가 잇고. 그다음은 이제 보통 여기서 허는 게 그, 저 상예접이라. 장사 나면은 동네별로.(여기 제일 처음에는 그 'ᄆᆞ쉬접'이라고 한 게 그게 계니까, 한 동네에 두 개 있는 데 있고 세 개 있는 데가 있고 하나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은 이제 보통 여기서 하는 게 그, 저 상여계야. 장사 나면은 동네별로.)

101006 @ 예.(예.)

101006 #2 일골[37]에 장사 나면 일골 사름은 어떤 일이 잇어도 가 장사에 참석 안허

35) '서천묵동산'은 서귀포서 성산읍 온평리 지경의 동산 이름이다.

36) 'ᄆᆞ쉬접'은 마소를 공동으로 돌보기 위하여 꾸린 동아리다. 동아리에서 한두 명씩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동아리의 마소를 목초지로 끌고 나가 돌본다. 여기에서는 공동으로 소를 돌보기 위해 꾸린 동아리를 말한다. 말을 키우는 동아리는 따로 '물접'이라고 하였다.

민 욕먹어.(‘일골’에 장사 나면 일골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 장사에 참석 안하면 욕먹어.)

101006 @ 으음.(으음.)

101006 #2 이 동네. 누구 안 나왓다 나왓다 헌 걸 벌써 알아서 그 집에 무슨 일 나면 가지 말라 요런 식으로 헷고. 또 그 전전에는 이 ᄀᆞ레, ᄆᆞᆯᄀᆞ레, 돌ᄀᆞ레이.(이 동네. 누구 안 나왔다 나왔다 한 걸 벌써 알아서 그 집에 무슨 일 나면 가지 말라 요런 식으로 했고. 또 그 전전에는 이 맷돌, 연자매, 연자매.)

101006 @ 예, 예, 예.(예, 예, 예.)

101006 #2 돌ᄀᆞ레도 동네마다 잇어.(연자매도 동네마다 있어.)

101006 @ 예.(예.)

101006 #2 그게 접이 하나라. 그, 그 ᄆᆞᆯᄀᆞ레 안에는 그 사름덜이 에 일 년에 한번 집도 일고 청소도 허곡 또 이제 허는데, 딴 디 가가지고는 그 보리를 찧지를 못혜.(그게 계의 하나야. 그, 그 연자매 안에는 그 사람들이 에 일 년에 한번 집도 이고 청소도 하고 또 이제 하는데, 딴 데 가가지고는 그 보리를 찧지를 못해.)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2 우리 동네 접 안네만 가가지고 거기도 접에 다 순위가 뭐냐 허면은 오늘 나가 보리를 ᄀᆞᆯ겟다[38] 허면은 속박[39]에 보리 하나 가지고 가서 엎어놔야 뒈. 그게 일번.(우리 동네 계 안에만 가가지고 거기도 계에 다 순위가 뭐냐 하면은 오늘 내가 보리를 찧겠다고 하면은 ‘속박’에 보리 하나 가지고 가서 엎어놔야 돼. 그게 일번.)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2 그런 식으로 헤서 여기는 그런 예가 잇엇고. 그다음에 여기 접이라는 거는 개발뒈기 시작헨 돈 좀 나오기 시작허니까 쓰레트접[40]이라는 걸 헷어.(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그런 예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계라는 거는 개발되기 시작해서 돈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슬레이트계’라는 걸 했어.)

101006 @ 아.(아.)

101006 #2 쓰레트접.(‘슬레이트계’.)

101006 @ 예.(예.)

101006 #2 게믄 동네마다 이제 열 사름, 뭐 열다섯 사름 이렇게 모이민 올히 이번 달에 돈 내서 쓰레뜨 허자. 우리는 쓰레트지붕을 허겟다.(그러면 동네마다 이제 열 사람, 뭐 열다섯 사람 이렇게 모이면 올해 이번 달에 돈 내서 슬레이트 하자. 우리는 슬레이트지붕을 하겠다.)

101006 @ 음.(음.)

---

37) ‘일골’은 한 마을을 여러 개로 나눈 단위의 하나. 보통 한 골목을 기준으로 ‘일골’, ‘이골’ ‘삼골’처럼 순번을 매겨서 골 이름을 정한다.

38) 여기에서 ‘ᄀᆞᆯ겟다’는 방아를 찧겠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39) ‘속박’은 기름하면서도 둥글게 파서 곡식을 담거나 불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 예전에는 나무를 파서 만드는데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지역에 따라서 ‘손박’, ‘솔박’, ‘좀팍’, ‘좀팍세기’ 등으로 부른다.

40) ‘쓰레트접’은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지붕으로 갈기 위해 조직된 동아리. 계원들이 함께 돈을 모은 후에 순번에 따라서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였다.

101006 #2 신청을 허는 거라.(신청을 하는 거야.)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2 그런 접을, 이 잇엇고. 그다음에는 뭐 다른 건 뭐 별로 무슨 형제접[41]이다 뭐다 친허민 뭐뭐 갑장훼니 뭐 그런 것덜이 츠츰 접 후에는 셍기기 시작헨.(그런 계를, 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뭐 다른 건 뭐 별로 무슨 '형제접'이다 뭐다 친하면 뭐뭐 갑장회니 뭐 그런 것들이 차츰 계 후에는 생기기 시작했어.)

101006 @ 예.(예.)

101006 #2 어느 것도 다 한철 유행이라. 갑장훼 헌 것도 한 철 유행. 글후에 나서 이제는 요 근간에 와서는 동창훼니 학교 뭐니 그런 식으로 자꾸 발전이 뒈어가는 거고.(어느 것도 다 한철 유행이야. 갑장회 한 것도 한 철 유행. 그 이후에 나서 이제는 요 근간에 와서는 동창회니 학교 뭐니 그런 식으로 자꾸 발전이 되어가는 거고.)

101006 @ 예, 맞습니다. 그 게믄예, 아까 ᄆᆞ쉬접 삼춘.(예, 맞습니다. 그 그러면요, 아까 'ᄆᆞ쉬접' 삼촌.)

101006 #2 으.(으.)

101006 @ 그건 어떵 식으로 운영허는 거마씨?(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101006 #2 ᄆᆞ쉬접은 그 동네에 영 헤 가지고 뭐 돈 내거나 영허진 안 허고 정허연 허는데 이제 소를 오늘은 누구네 집, 집 순위별로 헤 가지고.('ᄆᆞ쉬접'은 그 동네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돈 내거나 이렇게 하진 안 하고 정해서 하는데 이제 소를 오늘은 누구네 집, 집 순위별로 해 가지고.)

101006 @ 예.(예.)

101006 #2 이제 오늘은 소를 누구가 멕일 거고, 내일은 누구가 멕일 거고 예를 들어 여름에는 바령[42]을 헷거든.(이제 오늘은 소를 누구가 먹일 거고, 내일은 누구가 먹일 거고 예를 들어 여름에는 '바령'을 했거든.)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2 바령을 허면은 그 밧을, 바령밧[43]을 내놓아가지고 그거, 그 게 걸름허는 밧, 바령밧은 거름이 뒈여.('바령'을 하면 그 밭을, '바령밧'을 내놓아가지고 그거, 그 게 거름하는 밭, '바령밧'은 거름이 되어.)

101006 @ 예.(예.)

101006 #2 소 갖다 멕이고 와서 바령밧 주인안테 그거를 넘겨줘.(소 갖다 먹이고 와서 '바령밧' 주인한테 그거를 넘겨줘.)

101006 @ 음.(음.)

101006 #2 소 이거 멧 개니까 마트시오. 낼 누구 올 거니까 그때ᄁᆞ지 요거 감시 잘 허렌. 그 잘 바령밧도 담이 약헌 데는 그 밧 임제가 직을 지켜가지고 걸름허기 위헤서.(소 이거 몇 개니까 맡으세요. 낼 누구 올 거니까 그때까지 요거 감시 잘하라고. 그 잘 '바령밧'도 담이 약한 데는 그 밭 임자가 직을 지켜가지고 거름하기 위해서.)

---

41) '형제접'은 친한 사람들의 자식이 서로 형제처럼 지내라고 해 가지고 부모들이 함께 꾸린 계를 말한다.
42) '바령'은 밭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마소를 밭에 가두는 일을 말한다.
43) '바령밧'은 밭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마소를 가두어 기름지게 하는 밭을 말한다.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2 지켯다가 낼 아침 거기 즘자고 뭐 하다가 아침에 오면 요건 소 멧 머리 난 오늘 멕이레 가라 이렇게 헤 가지고 요런 식으로 헷고. 그거를 허다가 칠월 벡중 뒈면은 그때는 다 제물헤 가지고 가서 칠월 열나흘날은 어디 좋은 디 가서 제사를, 벡중 제사를 지내줘.(지켰다가 낼 아침 거기 잠자고 뭐 하다가 아침에 오면 요건 소 몇 마리니까 오늘 먹이러 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했고. 그거를 하다가 칠월 백중 되면 그때는 다 제물해 가지고 가서 칠월 열나흗날은 어디 좋은 데 가서 제사를, 백중 제사를 지내줘.)

101006 @ 예에.(예에.)

101006 #2 경 허곡 또 십이월달 뒈면은 그 접 안네서.(그렇게 하고 또 십이월 되면 그 계 안에서.)

101006 @ 음.(음.)

101006 #2 송아지가 에, 상강일이 넘으면은 소를 집의 와서 메게 뒈니까. 이 송아지 난 소덜이 이제 사월 오월부떠 난 송아지가 십이월달 뒈면은 막 크거든.(송아지가 에, 상강일이 넘으면 소를 집에 와서 매게 되니까. 이 송아지 난 소들이 이제 사월 오월부터 난 송아지가 십이월 되면 아주 크거든.)

101006 @ 네.(네.)

101006 #2 그러면은 그 급피[44]라고 헤 가지고 곡식을 새 곡식 옛날 조.(그러면은 그 '급피'라고 해 가지고 곡식을 새 곡식 옛날 조.)

101006 @ 예.(예.)

101006 #2 요거 수확허고 산디 요런 걸 수확헌 걸 가져가지고 제물을 헤 가지고 가서.(요거 수확하고 밭벼 요런 걸 수확한 걸 가져가지고 제물을 해 가지고 가서.)

101006 @ 예.(예.)

101006 #2 그 송아지 넥인을 줫어.(그 송아지 낙인을 줬어.)

101006 @ 아.(아.)

101006 #2 이 요거는 누게네 송아지 이제 이제 송아지다 이제는.(이 요거는 누구네 송아지 이제 이제 송아지다 이제는.)

101006 @ 으.(으.)

101006 #2 뭉아지는, 망아지도 또 낵인을 줫고 망아지는 뭐를 헷느냐민 코를 요렇게 째더라고.(망아지는, 망아지도 또 낙인을 줬고 망아지는 뭐를 했느냐면 코를 요렇게 째더라고.)

101006 @ 아.(아.)

101006 #2 이 양쪽으로 이 숨을 잘 쉬어지게끔 ᄒᆞ기 위헤 가지고 낵인 한번 주고 코를 이렇게 째어. 그것도 그 주인 그 예를 들어서 접 주인.(이 양쪽으로 이 숨을 잘 쉬어지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낙인 한번 주고 코를 이렇게 째어. 그것도 그 주인 그 예를 들어서 계 주인.)

---

44) '급피'는 가장 이르게 익은 곡식을 일컫는 말이다.

101006 @ 예.(예.)

101006 #2 거기서 제일 경험자가 그거를 뭐혜 가지고.(거기서 제일 경험자가 그거를 뭐해 가지고.)

101006 @ 음.(음.)

101006 #2 그거를 다 우리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접 안네서 잘허는 사름이 그걸 헤줘가지고.(그거를 다 우리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계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그걸 해줘가지고.)

101006 @ 음, 게믄 뭐 누구네 거다 헤갖고 표시를 헤주고예?(음, 그러면 뭐 누구네 거다 해갖고 표시를 해주고요?)

101006 #2 게난 그 접마다 요거는 현칩의 송아지덜이다 요거는 무슨 저 무슨 강칩의 소 접에 송아지덜이다 요런 식으로 헤서.(그러니까 그 계마다 요거는 '현칩'의 송아지들이다 요거는 무슨 저 무슨 '강칩'의 소 계에 송아지들이다 요런 식으로 해서.)

101006 @ 게믄 그게 어느 적 시대우꽈?(그러면 그게 어느 적 시대입니까?)

101006 #2 그게 우리가 한 스무 살로부떠. 나가 이제 팔십 다 뒈시난에.(그게 우리가 한 스무 살로부터. 내가 이제 팔십 다 되었으니까.)

101006 @ 예. 그러면 한 육십년대?(예. 그러면 한 육십년대?)

101006 #2 육십년대. 다 그게 유행이 그렇게 뭰 거라.(육십년대. 다 그게 유행이 그렇게 된 거야.)

101006 @ 아, 게믄 그 당시에 ᄆᆞ쉬접이 이 온평리에 멧 개 정도 잇어신고예?(아, 그러면 그 당시에 'ᄆᆞ쉬접'이 이 온평리에 몇 개 정도 있었는가요?)

101006 #2 한 아옵이, 이ᄉᆞ 팔 아옵 개나 열 개 정도 뒈엇어.(한 아홉이, 이사 팔 아홉 개나 열 개 정도 되었어.)

101006 @ 아아.(아아.)

101006 #2 접이.(계가.)

101006 @ 마을마다 자기들만씩 접을 지은 거로구나예?(마을마다 자기들만큼씩 계를 지은 거로군요?)

101006 #2 게난 ᄆᆞ쉬접이 잇고 그 ᄆᆞᆯ접[45]이 잇는데 ᄆᆞᆯ덜은 다 안 멧으니까 ᄆᆞᆯ덜은 ᄒᆞᆫ 집의 일고ᄋᆞ덥 머리썩 열 머리썩 서너 사람이 동아리가 뒈어 가지고 ᄆᆞᆯ 허는 사름덜은 저 우에 가 가지고 내 버리면은 옛날에는 산에 올려 내 버려.(그러니까 'ᄆᆞ쉬접'이 있고 그 'ᄆᆞᆯ접'이 있는데 말들은 다 안 맸으니까 말들은 한 집에 일고여덟 마리씩 열 마리씩 서너 사람이 동아리가 되어 가지고 말 하는 사람들은 저 위에 가 가지고 내 버리면 옛날에는 산에 올려 내 버려.)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2 내 버리면은 뭐 겨울 나가야 찾고 일헐 때 뒈민 그 일허는 ᄆᆞᆯ이나 강 잡아오고 이렇게 헷는데.(내 버리면 뭐 겨울 나가야 찾고 일할 때 되면 그 일하는 말이나 가서 잡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

45) 'ᄆᆞᆯ접'은 말을 공동으로 돌보기 위하여 꾸린 동아리다. 'ᄆᆞᆯ'은 말[馬], '접'은 '계'를 말한다.

101006 @ 음.(음.)

101006 #2 게난 ᄆᆞᆯ덜은 그렇게 내버려도 다 자기네끼리 형제끼리 모여 다니니까.(그러니까 말들은 그렇게 내버려도 다 자기네끼리 형제끼리 모여 다니니까.)

101006 @ 예.(예.)

101006 #2 소는 따로따로 가지마는 말은.(소는 따로따로 가지마는 말은.)

101006 @ 아.(아.)

101006 #2 경 아녀고 일할 때 뒈면 어디 쯤 돌아다니다가 그 일 잘허는 ᄆᆞᆯ은 잡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리고.(그렇게 않고 일할 때 되면 어디 쯤 돌아다니다가 그 일 잘하는 말은 잡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리고.)

101006 @ 음, 그러면 ᄆᆞ쉬접은 쉐 허는 거를 ᄆᆞ쉬접엔 허는 거?(음, 그러면 'ᄆᆞ쉬접'은 소 하는 거를 'ᄆᆞ쉬접'이라고 하는 거?)

101006 #2 ᄆᆞ쉬접엔 허고.('ᄆᆞ쉬접'이라고 하고.)

101006 @ 겨난 ᄆᆞᆯ만 따로 헌 거는 ᄆᆞᆯ접.(그러니까 말만 따로 한 거는 'ᄆᆞᆯ접'.)

101006 #2 ᄆᆞᆯ접.('ᄆᆞᆯ접'.)

101006 @ 예, 그다음에 상예접은 어떤 식으로 헤여?(예, 그다음에 상여계는 어떤 식으로 해?)

101006 #2 뭐?(뭐?)

101006 @1 상예접은?(상여계는)

101006 #2 상예접[46]은 그 저 골마다.(상여계는 그 저 골마다.)

101006 @ 예.(예.)

101006 #2 장사 나면은 그날 가가지고 장사 지내주고.(장사 나면 그날 가가지고 장사 지내주고.)

101006 @ 예.(예.)

101006 #2 이제 옛날에 그 장난삼아 이제 쪼금 산다는 사람 술이 귀헷거든.(이제 옛날에 그 장난삼아 이제 조금 산다는 사람 술이 귀했거든.)

101006 @ 예.(예.)

101006 #2 장사 다 동네 장사 끝나면 오널은 누구 모셔가서 술 ᄒᆞᆫ 잔 얻어먹자.(장사 다 동네 장사 끝나면 오늘은 누구 모셔가서 술 한 잔 얻어먹자.)

101006 @ 으음.(으음.)

101006 #2 쪼끔 무신거 잘헌다 뭐 헌다 허면 옛날 저 나무를 그 드르에서 장사 끗나민 나무를 끊엇어.(조금 무엇 잘한다 뭐 한다 하면 옛날 저 나무를 그 들에서 장사 끝나면 나무를 잘랐어.)

101006 @ 예.(예.)

101006 #2 독게를 만들아.(독교(獨轎)를 만들어.)

101006 @ 예.(예.)

---

46) '상예접'은 '상예' 즉 '상여(喪輿)'를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꾸린 계를 말한다. 표준어 '상여계'에 해당하는 말이다.

101006 #2 요런 열십 자 헤 가지고 사다리 만들엇지. 그 우에 올려놔가지고 노래 불르면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은 보통은 그런 장난덜을 허고.(요런 열십 자 해 가지고 사다리 만들었지. 그 위에 올려놔 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은 보통은 그런 장난들을 하고.)

101006 @ 예, 게믄 건 골마다 헤 갖고 허는 거라예?(예, 그러면 건 골마다 해 갖고 하는 거네요?)

101006 #2 골마다덜 거.(골마다들 거.)

101006 @ 아까 돌ᄀᆞ레접은?(아까 '돌ᄀᆞ레접'은?)

101006 #2 으.(으.)

101006 @ 돌ᄀᆞ레접.('돌ᄀᆞ레접'.)

101006 #2 돌ᄀᆞ레접[47]은 그거는 ᄀᆞ레 ᄀᆞᆯ 때마다 여름 봄 봄허곡 겨울허고 그거 자꾸 사용허니까.('돌ᄀᆞ레접'은 그거는 맷돌 갈 때마다 여름 봄 봄하고 겨울하고 그거 자꾸 사용하니까.)

101006 @ 예.(예.)

101006 #2 게 가지고 봄나면은 이제 ᄀᆞ레왕 수리헌다고 헤 가지고 잘못뭰 디는 이런 디 떨어진 딘 흑도 헤 가지고 옆으로 바르고. 게난 그 저 옛날도 농사를 많이 헌 사름은 ᄆᆞᆯᄀᆞ레에 거기 말을, 말이나.(그래 가지고 봄되면 이제 연자맷간 수리한다고 해 가지고 잘못된 데는 이런 데 떨어진 덴 흙도 해 가지고 옆으로 바르고. 그러니까 그 저 옛날도 농사를 많이 한 사람은 연자매에 거기 말을, 말이나.)

101006 @ 으.(으.)

101006 #2 소를 이 메워가지고 사람 힘으로 다 밀질 못허니까.(소를 이 메워가지고 사람 힘으로 다 밀질 못하니까.)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2 그렇게도 허는 사름이 잇고. 그렇지 않으믄 또 접 서르 보리 ᄀᆞᆯ 사름끼리 동아리 헤서 서로 밀어가지고 그 보리를 갈아 가지고.(그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계 서로 보리 갈 사람끼리 동아리 해서 서로 밀어가지고 그 보리를 갈아 가지고.)

101006 @ 으음. 게난 이제 혼자 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으음.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101006 #2 같이 접 헹 의논헤영 오널 느네 보리 ᄀᆞᆯ차? 우리도 ᄀᆞᆯ커메 ᄀᆞ치 동아리 헹 허게. 소 잇는 사름은 소 메와가지고 앞뒤에 흔 네 사름은 가져야 뒈니까.(같이 계 해서 의논해서 오늘 너의 보리 찧을래? 우리도 찧겠으니 같이 동아리해서 하자. 소 있는 사람은 소 메워가지고 앞뒤에 한 네 사람은 가져야 되니까.)

101006 @ 음.(음.)

101006 #2 그치룩헨 이제 보리를 ᄀᆞᆯ아나고.(그처럼해서 이제 보리를 찧었었고.)

101006 @ 예.(예.)

---

47) 'ᄃᆞᆯᄀᆞ레접'은 'ᄃᆞᆯᄀᆞ레' 즉, 연자매를 공동으로 꾸리기 위해 만든 계다.

101006 #2 경 허당 기계가 나와부니까 그것도.(그렇게 하다가 기계가 나와버리니까 그것도.)

101006 @ 다 엇어지고예? 아, 그다음에, 삼춘 아까 쓰레트접이렌 허멍예?(다 없어지고요? 아, 그다음에, 삼촌 아까 '슬레이트계'라고 하면서요?)

101006 #2 쓰레트는 그 돈을 얼마씩 돈 수입이 뒈기 시작. 고구마 허지 유채 팔지 허면은 짬짬이 예금이라는 게 그전엔 없엇거든.(슬레이트는 그 돈을 얼마씩 돈 수입이 되기 시작. 고구마 하지 유채 팔지 하면 짬짬이 예금이라는 게 그전엔 없었거든.)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2 예금이 없었으니까 돈 쪼금 헤지니까 그게 예금이라.(예금이 없었으니까 돈 조금 해지니까 그게 예금이야.)

101006 @ 음.(음.)

101006 #2 아이고, 저 곤란헤도 나, 나도 들키여, 나도 들켜 헤가민 그디 오야[48]가.(아이고, 저 곤란해도 나, 나도 들겠다, 나도 들겠다 해가면 거기 계주가.)

101006 @ 음.(음.)

101006 #2 다 누구는 얼마, 얼마 헤 가지고 흔 사름이 얼마 낼 거를 결정을 헤 버리면.(다 누구는 얼마, 얼마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 낼 거를 결정을 해 버리면.)

101006 @ 예.(예.)

101006 #2 그다음은 순번은 또 이제 미리 신청헤 가지고 누구네 헐 거여 허민 허곡 서로 허켄 허민 서로 제비 뽑아 가지고.(그다음은 순번은 또 이제 미리 신청해 가지고 누구네 할 거다 하면 하고 서로 하겠다고 하면 서로 제비 뽑아 가지고.)

101006 @ 음.(음.)

101006 #2 이번 달 못허민 다음 달 허라 이치룩 서로덜 양보허면서.(이번 달 못하면 다음 달 하라 이처럼 서로들 양보하면서.)

101006 @ 으으음. 그 돈을 모은 거를 다른 사름 빌려주는 거?(으으음. 그 돈을 모은 거를 다른 사람 빌려주는 거?)

101006 #2 받아가지고.(받아가지고.)

101006 @ 예.(예.)

101006 #2 이제 뭐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예금도 헐 수 잇엇으니까 저금헌 돈을 메칠날꼬진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 헷당.(이제 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예금도 할 수 있었으니까 저금한 돈을 며칟날까진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했다가.)

101006 @ 예.(예.)

101006 #2 그걸 춪앙 메칠날 거. 이거 예금허민 메칠날 춪겟다 허는 예금을 딱 헤야 뒈니까.(그걸 찾아서 며칟날 거. 이거 예금하면 며칟날 찾겠다고 하는 예금을 딱 해야 되니까.)

101006 @ 예, 예, 예. (예, 예, 예.)

48) '오야'는 일본어 'おや'다. 여기에서는 '계주(契主)'의 의미로 쓰였다.

101006 #2 그날 아니민 츶지 못허니까.(그날 아니면 찾지 못하니까.)

101006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1006 #2 이자는 적엇지만 그치룩 그 전에는 그렇게 다 활용을 헷으니까.(이자는 적었지만 그처럼 그 전에는 그렇게 다 활용을 했으니까.)

101006 @ 아.(아.)

101006 #2 보통은 십이월달에 그 예금 헷당은에.(보통은 십이월에 그 예금 했다가.)

101006 @ 예.(예.)

101006 #2 십이월달에 찾아다가 헤 버리면 그 결산도 뒈고.(십이월에 찾아다가 해 버리면 그 결산도 되고.)

101006 @ 음, 게믄 그 순서대로 헤갖고 오늘은 이 사람네 집 쓰레트집.(음,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해갖고 오늘은 이 사람네 집 슬레이트집.)

101006 #2 게난 저게 십년이나 멧 년을 가는 거라. 일 년에 막 다 헤주는 건 아니고.(그러니까 저게 십년이나 몇 년을 가는 거야. 일 년에 막 다 해주는 건 아니고.)

101006 @ 예, 예. 그렇지. 순번 정헤갖고.(예, 예. 그렇지. 순번 정해갖고.)

101006 #2 순번 정허민 십이번 뒈는 사름도 잇고. 보통 열두어 사름 이렇게 대개 쓰레트접덜은 잇엇고.(순번 정하면 십이번 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열두어 사람 이렇게 대개 '슬레이트계'들은 있었고.)

101006 @ 그렇게 이제 하고예. 나중에 뭐 형제접 허는 거는 뭐마씨?(그렇게 이제 하고요. 나중에 뭐 '형제접' 하는 거는 뭐예요?)

101006 #2 아이 형제들은 친헌 사름들이 그 저 형제 헷저 뭐헷저 허는디 요새 허민 동창훼나 뭐나 마찬가지.(아이 형제들은 친한 사람들이 그 저 형제 했다 뭐 했다 하는데 요새 하면 동창회나 뭐나 마찬가지.)

101006 @ 으.(으.)

101006 #2 그거 혼 ᄀᆞ리 갑장훼[49]가 유행이 뒈기 시작허여 가지고.(그거 한 고비 갑장회가 유행이 되기 시작하여 가지고.)

101006 @ 예.(예.)

101006 #2 그 갑장들끼리 우리도 그 저 한 결혼헌 후에야.(그 갑장들끼리 우리도 그 저 한 결혼한 후에야.)

101006 @ 으.(으.)

101006 #2 결혼헌 후에 한 스물댓 뒈야. 우리 갑장훼 허자 헤 가지고 가족덜 생긴 후에.(결혼한 후에 한 스물댓 되어야. 우리 갑장회 하자 해 가지고 가족들 생긴 후에.)

101006 @ 예.(예.)

101006 #2 그때야 갑장훼 시작헤 가지고 혼 육십오 세 뒈자 우리 그만허자 헤 가지고.(그때야 '갑장회' 시작해 가지고 한 육십오 세 되자 우리 그만하자 해 가지고.)

101006 @ 아이고.(아이고.)

101006 #2 구경도 다니고 지금도 갑장훼 허는 사름 칠십ᄁᆞ지 허는 사름이 잇어. 지

49) '갑장훼'는 갑장끼리 모여서 일을 서로 돌아보기 위하여 결성한 계를 말한다. 달리 '갑장접'이라고도 한다.

금.(구경도 다니고 지금도 '갑장회' 하는 사람 칠십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101006 @ 게난 오랫동안 끊임없이 허는 거라예?(그러니까 오랫동안 끊임없이 하는 거네요?)

101006 #2 무신 일 나면 갑장훼는 그 집에 무슨 대소사에 부주도 헤야 뒈고, 갑장훼는 뭐 틀림없이 거 저장헷당 돈을 다 서로 풀고 서로 게난 서로 이익이라.(무슨 일 나면 '갑장회'는 그 집에 무슨 대소사에 부조도 해야 되고, '갑장회'는 뭐 틀림없이 거 저장했다가 돈을 다 서로 풀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야.)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2 오늘은 결혼, 올히는 누구네 딸 결혼식 헌다 허민 그디 얼마씩 내영 가야 헨다 규정이 잇으니까.(오늘은 결혼, 올해는 누구네 딸 결혼식 한다 하면 거기 얼마씩 내어서 가야 한다 규정이 있으니까.)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2 돌아가신 데 얼마, 결혼식에 얼마.(돌아가신 데 얼마, 결혼식에 얼마.)

101006 @ 으.(으.)

101006 #2 이제 이런 게 잇어부니까 그것도 접이지 뭐.(이제 이런 게 있어버리니까 그것도 계지 뭐.)

101006 @ 예, 맞습니다.(예, 맞습니다.)

101006 #2 갑장접[50].('갑장접'.)

101006 @ 아, 그런 식으로 옛날은 다 이런 공동체로.(아, 그런 식으로 옛날은 다 이런 공동체로.)

101006 #2 공동체를 운영헌 거.(공동체를 운영한 거.)

101007 @ 예, 이 마을에 그 풍습예, 특별한 풍습이렌 허민 뭐가 잇인고예?(예, 이 마을에 그 풍습요, 특별한 풍습이라고 하면 뭐가 있는가요?)

101007 #2 옛날에는 여기 풍습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본향당[51]이라는 게 잇엇고.(옛날에는 여기 풍습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본향당'이라는 게 있었고.)

101007 @ 예, 예.(예, 예.)

101007 #2 본향당.('본향당'.)

101007 @ 예.(예.)

101007 #2 이 저 정월 보름 뒈면은 이제 여기 다 일반 세배를. 옛날은 세배를 허지 아녓어이.(이 저 정월 보름 되면 이제 여기 다 일반 세배를. 옛날은 세배를 하지 않았나.)

101007 @ 예, 예.(예, 예.)

101007 #2 정월보름 뒈면은 그때는 이 저 여기 본향당에 세배 간다고 헤 가지고 거기 가고.(정월보름 되면 그때는 이 저 여기 '본향당'에 세배 간다고 해 가지고 거기 가고.)

---

50) '갑장접'은 나이가 같은 갑장끼리 일을 돌아보기 위해 꾸린 계다. 달리 '갑장훼'라고도 한다.
51) '본향당'은 마을의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하는 신인 '본향(本鄕)'을 보신 당(堂)을 말한다.

101007 @ 음.(음.)

101007 #2 그 전에는 어디 사람이 아프든 뭐허든 다 믿을 디가 없으니까 거기를 믿은 거라.(그 전에는 어디 사람이 아프든 뭐하든 다 믿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믿은 거야.)

101007 @ 예, 예.(예, 예.)

101007 #2 거길 믿고. 서궁궤는 뭐냐 허면 묵은열운이라는 디가 그.(거길 믿고. '서궁궤'는 뭐냐 하면 '묵은열운이'라는 데가 그.)

101007 @ 예.(예.)

101007 #2 거기는, 거기도 당을 하나 잇어. 거기는 무슨 당이냐 허민 저 뱀당이라고 허는 식으로 이제 말을 헤 가지고 무슨. 뱀이 이쪽으로 지나가당 어디 건드린다든가 뭘 봉 잘못헷어 가지고 뭐 줴를 지엇다고 빌러 거기를 가는 거라.(거기는, 거기도 당을 하나 있어. 거기는 무슨 당이냐 하면 저 '뱀당'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해 가지고 무슨. 뱀이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어디 건드린다든가 뭘 봐서 잘못했어 가지고 뭐 죄를 지었다고 빌러 거기를 가는 거야.)

101007 @ 예에.(예에.)

101007 #2 거기 갓다 오면은 편안허다 이렇게 다 믿엇고.(거기 갔다 오면 편안하다 이렇게 다 믿었고.)

101007 @ 으.(으.)

101007 #2 요기 가면은 항상 저 정월, 건 여자들이 잘 알 건데.(요기 가면 항상 저 정월, 건 여자들이 잘 알 건데.)

101007 @ 예.(예.)

101007 #2 정월달에 흔번 세배 가고 칠월달에 또 이제 마풀림[52]헌다고 헤서 가고. 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 사이에 보름이나 초일뤠에 보름은 어떵 거기 몸이 아픈다던가 군인을 간다든가 허면은 초일뤠나 보름날은 거기 가가지고 거기 당지기가 잇어.(정월달에 한번 세배 가고 칠월에 또 이제 '마풀림'한다고 해서 가고. 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 사이에 보름이나 초이레에 보름은 어떻게 거기 몸이 아프다든가 군대를 간다든가 하면은 초이레나 보름날은 거기 가가지고 거기 당지기가 있어.)

101007 @ 예.(예.)

101007 #2 거기 가면 돈 자기가 성의대로 내놓고 정성헤 달라고 ** 이야기헤서 빌고 이렇게 허는 풍속이 잇고. 또 뭐 다른 풍속은 또 이제 그 옛날은 여기 미신들을 많이 믿기 때문에 어디 강 물으면은 아 그디는 조상을 잘못 써서 뭐 조상 제사를 졸바로 안 헷다 허면은 와 가지고 굿을 한 삼일, 오일 이렇게 헤 가지고 집에서. 그런 걸로 이제 살아왓는데 이제는 의료나 모든 게 다 발전헨 이거는.(거기 가면 돈 자기가 성의대로 내놓고 정성해 달라고 ** 이야기해서 빌고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고. 또 뭐 다른 풍속은 또 이제 그 옛날은 여기 미신들을 많이 믿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으면 아 거기는 조

52) '마풀림'은 백중 때에 당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보통 이날의 신의 옷을 꺼내 '마' 즉 곰팡이를 떨어내는 의식을 한다.

상을 잘못 써서 뭐 조상 제사를 제대로 안 했다 하면 와 가지고 굿을 한 삼일, 오일 이렇게 해 가지고 집에서. 그런 걸로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의료나 모든 게 다 발전해서 이거는.)

101007 @ 예.(예.)

101007 #2 헷기 때문에 그전엔 신을 믿은 거고. 또 자기만의 어디 정성 드리는 그런 습관덜토 멧 군데 잇어.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만이 딴 사름 몰레 가가지고 정성 드리는 그런 곳도 잇엇고.(했기 때문에 그전엔 신을 믿은 거고. 또 자기만의 어디 정성 드리는 그런 습관들도 몇 군데 있어.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딴 사람 몰래 가가지고 정성 드리는 그런 곳도 있었고.)

101007 @ 음. 그다음에 혼인지 축제는 언제부터 헌 거라마씨? 이건?(음. 그다음에 혼인지 축제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건?)

101007 #2 이거 한 십 년벳긔 안 뒈고. 이디 혼인지가 그 그렇게 뭘 안 헤 가지고 이 혼인지도 뭐 삼성에서 헷닥 저 삼성혈에서도 흔 번, 고량부[53] 삼성혈에서도 흔번 관리헤봣다가 또 안 뒈민 서귀포시에서도 관리헷다 부락에서도 이. 게난 우리 부락에서는 이거 그자 협조허는 뭐벳긔 안 뒌 거라.(이거 한 십 년밖에 안 되고. 여기 혼인지가 그 그렇게 뭘 안 해 가지고 이 혼인지도 뭐 삼성에서 했다가 저 삼성혈에서도 한 번, 고량부 삼성혈에서도 한번 관리해봤다가 또 안 되면 서귀포시에서도 관리했다 부락에서도 이. 그러니까 우리 부락에서는 이거 그저 협조하는 뭐밖에 안 된 거야.)

101007 @ 예, 예, 예.(예, 예, 예.)

101007 #2 요렇게 허민 허고, 여기서 잘헤주겟다고 허민 그런가 헷더니 군에선 이제 여기 이제 군수가 뒈니까 그때 많이 이거 개발이 뒈어서.(요렇게 하면 하고, 여기서 잘 해주겠다고 하면 그런가 했더니 군에선 이제 여기 이제 군수가 되니까 그때 많이 이거 개발이 되어서.)

101007 @ 음.(음.)

101007 #2 여기 동네 사름이라 놓니까 거기도 지원헤 주고 문화재로 뭐헤근에 허자헤 가지고 헷는데. 또 글후에는 뜸허게시리 처음 시작헐 때는 막 관광객덜토 오고 이거 관광지 뭘로 헨 허니까 육지서덜토 많이 와 가지고 차가 그 혼인지 주차장에 저쪽 우에 동산에만 주차헷는데.(여기 동네 사람이어 놓으니까 거기도 지원해 주고 문화재로 뭐해서 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또 그 이후에는 뜸하게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관광객들도 오고 이거 관광지 무엇으로 해서 하니까 육지에서들도 많이 와가지고 차가 그 혼인지 주차장에 저쪽 위에 동산에만 주차했는데.)

101007 @ 음.(음.)

101007 #2 학생덜이 완, 요새 완은 완전히 뜸뜸허게 끊어져분 거라.(학생들이 와서, 요새 와서는 완전히 뜸하게 끊어져버린 거야.)

101007 @ 아아 게난.(아아 그러니까.)

101007 #2 이 혼인지엔 헌 이미지가 없어졋는디. 막 발전은 시겨놧는데.(이 혼인지

53) '고량부'는 제주의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고씨, 양씨, 부씨를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다.

라고 한 이미지가 없어졌는데. 아주 발전은 시켜놨는데.)

101007 @ 게난 누가 저기 행정을 마트느냐에 따랑 달라지는 거라예?(그러니까 누가 저기 행정을 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101007 #2 다 달라지는 거.(다 달라지는 거.)

101008 @ 예. 그다음에 이 동네 특산물엔 허민 뭐가 잇인고예?(예. 그다음에 이 동네 특산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01008 #2 지금 특산물엔 헌 게 무우벳긔 엇주. 그 전에는 젤 처음에는 나가 말헷지만 유채가 특산물. 그다음은 저 고구마.(지금 특산물이라고 한 게 무밖에 없지. 그 전에는 젤 처음에는 내가 말했지만 유채가 특산물. 그다음은 저 고구마.)

101008 @ 음.(음.)

101008 #2 고구마가 젤 먼절 거여. 고구마 다음 유채. 고구마 갈아난 다음 유채를 갈앗으니까. 젤 처음엔 보리로부터 시작, 보리 서숙 다음엔 유채 요거 나오기 시작헤서.(고구마가 젤 먼저일 거야. 고구마 다음 유채. 고구마 갈았던 다음 유채를 갈았으니까. 젤 처음엔 보리로부터 시작, 보리 서속 다음엔 유채 요거 나오기 시작해서.)

101008 @ 음.(음.)

101008 #2 그다음은 콩도 여기는 많이 안 갈아.(그다음은 콩도 여기는 많이 안 갈아.)

101008 @ 예.(예.)

101008 #2 콩도 적당히 자기 수용헐 수 잇는 장이나 담을 수 잇는 거 정도로 허고, 그 토지가 없는 사름은 콩ᄀᆞ튼 것도 갈지 안 허고.(콩도 적당히 자기 수용할 수 있는 장이나 담글 수 있는 거 정도로 하고, 그 토지가 없는 사람은 콩같은 것도 갈지 않고.)

101008 @ 예.(예.)

101008 #2 그다음에야 나믄 과수가 이제는 대량 또 헷는데 과수가 이제 헌 다음엔 또 하우스 멧 사람만 허고 잇고 현재. 지금은 나이가 들어 버리니까 농사 질 젊은 사름덜만 허니까 밧덜을 다 세 줘 버리니까 지금 다 농사짓는 사름덜이 칠십 팔십 뭔 사름덜 농사를 못 지니까. 나 역시 못 지으니까 밧 잇는 것덜 그 저 삭 줘 가지고.(그다음에야 나면 과수가 이제는 대량 또 했는데 과수가 이제 한 다음엔 또 하우스 몇 사람만 하고 있고 현재. 지금은 나이가 들어 버리니까 농사 질 젊은 사람들만 하니까 밭들을 다 세 줘 버리니까 지금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칠십 팔십 된 사람들 농사를 못 지으니까. 나 역시 못 지으니까 밭 있는 것들 그 저 삭 줘 가지고.)

101008 @ 예.(예.)

101008 #2 무수 가는 디 삭 주민 일 년 동안 받앙 그거 뭐 십오만 원, 평당 십오만 원 받으민 그걸로 살림허는 거.(무 가는 데 삯 주면 일 년 동안 받아서 그거 뭐 십오만 원, 평당 십오만 원 받으면 그걸로 살림하는 거.)

101008 @ 예에, 그런 식으로 아까 삼춘, 서숙[54]이렌 헨게마는 서숙을 뭘 서숙이렌 허는 거우과?(예에, 그런 식으로 아까 삼촌, '서숙'이라고 하더니만 '서숙'을 뭘 '서숙'이

54) '서숙'은 기장과 조를 이르는 '서속(黍粟)'을 말하는데, 제주에서는 보통 조를 일컬을 때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까?)

101008 #2 조, 조를, 조허고 그 뭐 콩 잡곡.(조, 조를, 조하고 그 뭐 콩 잡곡.)

101008 @ 예.(예.)

101008 #2 조를 서숙이엔 허주, 서숙.(조를 '서숙'이라고 하지, '서숙'.)

101009 @ 아 보통은. 옛날은 서숙 갈앙예, 예. 이 마을 자랑거리렌 허민 뭐가 잇이코예?(아 보통은. 옛날은 '서숙' 갈아서요, 예. 이 마을 자랑거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01009 #2 자랑거리엔 여기 무신 거. 그 전에는 온평리 미역이 좋덴 헤낫어.(자랑거리라고 여기 무슨 거. 그 전에는 온평리 미역이 좋다고 했었어.)

101009 @ 예에.(예에.)

101009 #2 저 충청도ᄁᆞ지도 막 온평리 미역엔 허민 많이 그 알아 줫고.(저 충청도까지도 막 온평리 미역이라고 하면 많이 그 알아 줬고.)

101009 @ 음.(음.)

101009 #2 다른 거 특별허게 자랑거리 헐 뭐는 엇, 지금 무신 없는 걸로 봐.(다른 거 특별하게 자랑거리 할 뭐는 없, 지금 무슨 없는 걸로 봐.)

101009 @ 음.(음.)

101009 #2 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랑헐 만헌 게 하나토 나타날 게 엇으니까.(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나타날 게 없으니까.)

101009 @ 거기 이제 고량부 그 휀죽 거기도 자랑거리고.(거기 이제 '고량부' 그 '휀죽' 거기도 자랑거리고.)

101009 #2 그런 거는 뭐 다 뭐헌 거고.(그런 거는 뭐 다 뭐한 거고.)

101009 @ 예.(예.)

101009 #2 부락에서 특별히 뭐헹 자랑헐 수 잇다는 거는 없는 거 같아. 우리 지원만 받앗고 요거 이런 훼관도 요번에 이 저 여기 이 훼관을 기증헤준 이두우 선생 저 아들이 왓더라고.(부락에서 특별히 뭐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거는 없는 거 같아. 우리 지원만 받았고 요거 이런 회관도 요번에 이 저 여기 이 회관을 기증해준 이두후 선생 저 아들이 왔더라고.)

101009 @ 예.(예.)

101009 #2 혼 이 저 이십 년인가 만인가, 그 사름은 평셍 처음. 어린 때 학생인 때 와나ᄀᆞ렌 허면서 이디 왓는데, 이거를 요번에 와가지고 삼 층이 그 이두우 선생 저.(한 이 저 이십 년인가 만인가, 그 사람은 평생 처음. 어릴 때 학생일 때 왔었다하면서 여기 왔는데, 이거를 요번에 와가지고 삼 층이 그 이두후 선생 저.)

101009 @ 예.(예.)

101009 #2 주택으로 헤 가지고 저까지 길을 헤준 거를 우리 사무실이나 이 노인정ᄀᆞ튼 거 다 비가 새라도 어떵 건드리지 못헐 건디 요번 완 그 아들이 기증헤주는 걸로 헨 우리 기증서 받앗기 때문에 여기도 고칠 수도 잇고.(주택으로 해 가지고 저까지 길을 해준 거를 우리 사무실이나 이 노인정 같은 거 다 비가 새어도 어떻게 건드리지 못할

건데 요번 와서 그 아들이 기증해주는 걸로 해서 우리 기증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고칠 수도 있고.)

101009 @ 아.(아.)

101009 #2 우리 돈만 가지면은 또 뭐 헐 수도 잇으니까. 요번에 기증서 받고 요번 이십 메칠날 와가지고.(우리 돈만 가지면 또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요번에 기증서 받고 요번 이십 며칟날 와가지고.)

101009 @ 으음.(으음.)

101009 #2 지금 이 사무실도 그 분이 이건 흔 삼십 년 전에 지어 줜. 이거 췌고 온평리서 이거 건물이 제주도에서 췌고 좋은 건물이엿는데.(지금 이 사무실도 그 분이 이건 한 삼십 년 전에 지어 줬어. 이거 최고 온평리서 이거 건물이 제주도에서 최고 좋은 건물이었는데.)

101009 @ 삼십년 전이면예.(삼십년 전이면요.)

101009 #2 이거 일본 사름덜이 설계헌 거라고 허던데.(이거 일본 사람들이 설계한 거라고 하던데.)

101009 @ 아아, 게문 그분은 재일동폽니까?(아아, 그러면 그분은 재일동폽니까?)

101009 #2 여기서.(여기서.)

101009 @ 으.(으.)

101009 #2 살다가 일본 가가지고.(살다가 일본 가가지고.)

101009 @ 으음.(으음.)

101009 #2 이칩인디. 이두우 선생인데, 많이 이 온평리 저 학교도 저 뭐 헤줫고 이 포장도 다 뭐 헤줫고 이 대지 사 놓고.('이칩'인데. 이두후 선생인데, 많이 이 온평리 저 학교도 저 뭐 해줬고 이 포장도 다 뭐 해줬고 이 대지 사 놓고.)

101009 @ 그럼 그 아드님은 어디?(그럼 그 아드님은 어디?)

101009 #2 일본서 태어난.(일본서 태어났어.)

101009 @ 일본에서 오신 거예? 아아.(일본에서 오신 거요? 아아.)

101009 #2 의학박사고 의사 혜연 지금도 강의허레 다닌다고 흔 오십 대가 아직 안 뭰 것 같던데.(의학박사고 의사 해서 지금도 강의하러 다닌다고 한 오십 대가 아직 안 된 것 같던데.)

101009 @ 아아. 아까 이두?(아아. 아까 이두?)

101009 #2 두후. 저기 비석.(두후. 저기 비석.)

101009 @ 이두후?(이두후?)

101009 #2 선생.(선생.)

101009 @ 이두후 선생예, 이제는 마을에 기증을 한 거네예?(이두후 선생요, 이제는 마을에 기증을 한 거네요?)

101009 #2 예, 기증 다 헷고. 겨고 그 두후 선생이 장학회를 헤 가지고 여기 그 두후장학, 학교 초등학교 온평리 초등학교 졸업생은.(예, 기증 다 했고. 그러고 그 두후 선생이 장학회를 해 가지고 여기 그 두후장학, 학교 초등학교 온평리 초등학교 졸업생은.)

101009 @ 예.(예.)

101009 #2 졸업생은 그 두후 장학금을 받아서 중학교를 갓고 고등학교까지.(졸업생은 그 두후 장학금을 받아서 중학교를 갔고 고등학교까지.)

101009 @ 아아.(아아.)

101009 #2 그 저 지원을 받아가지고 훼비를 내주엇으니까 장학훼주.(그 저 지원을 받아가지고 회비를 내주었으니까 장학회지.)

101009 @ 예, 예, 예. 그럼 그 장학훼는 지금도?(예, 예, 예. 그럼 그 장학회는 지금도?)

101009 #2 아이 그거 없어져볏어. 할아버지 두우 아버지가 돌아가버리니까 글후로부떤 그럭저럭 허여가지고. 그 할아버지 살앗을 때까지만 허다가 유명무실 뒈게 뒈분 거. 제자들토 흔 삼사십 명 뒐 거라.(아니 그거 없어져버렸어. 할아버지 두후 아버지가 돌아가버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그럭저럭 하여가지고. 그 할아버지 살았을 때까지만 하다가 유명무실 되게 돼버린 거. 제자들도 한 삼사십 명 될 거야.)

101009 @ 예.(예.)

101009 #2 대학교꼬지 졸업덜 헷으니까.(대학교까지 졸업들 했으니까.)

101010 @ 그다음에 이 마을과 관련헤서 뭐 덧붙이고 싶은 이런 말씀 잇어마씨?(그다음에 이 마을과 관련해서 뭐 덧붙이고 싶은 이런 말씀 있어요?)

101010 #2 그거는 (웃음) 덧붙일 게 뭐?(그거는 (웃음) 덧붙일 게 뭐?)

101010 @ 예, 그거는 엇고예. 잠깐.(예, 그거는 없고요. 잠깐.)

2. 제보자 일생

102001 @ 삼춘 그, 태어난 거예, 어릴 때.(삼촌 그, 태어난 거요, 어릴 때.)

102001 #1 음.(음.)

102001 @ 그 낳고 이제까지 그 과정예, 살아온 과정 간단허게 좀 ᄀᆞᆯ아봅서.(그 낳고 이제까지 그 과정요, 살아온 과정 간단하게 좀 말해보십시오.)

102001 #1 아이고, 간단허게 ᄀᆞᆯ아질 건가.(이고, 간단하게 말해질 건가.)

102001 @ 웃음.(웃음.)

102001 #1 하도 질주게.(하도 길지.)

102001 @ 예.(예.)

102001 #1 우리 고셍. 처음 나난 고생만 허멍 살아오난에, 아이고, 우리 아옵 술 뒈난에 우리 아부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 부난, 우리가 구 남맨디양.(우리 고생. 처음 나니까 고생만 하면서 살아오니까, 아이고, 우리 아홉 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 버리니까, 우리가 구 남맨데요.)

102001 @ 음.(음.)

102001 #1 구 남맨디 교통사고로 돌아가 부난 큰오빠 군대 가 불고, 둘째오빠가 요

디 그디 마트에 그디 주인이 둘째오빠주게. 그 오빠가 열여섯 설에라양, 열여섯 술에 밑에 동생이 여섯이라예. 어머니 두 분에.(구 남맨데 교통사고로 돌아가 버리니까 큰오빠 군대 가 버리고, 둘째오빠가 요기 거기 마트에 거기 주인이 둘째오빠지. 그 오빠가 열여섯 살에요, 열여섯 살에 밑에 동생이 여섯이니까요. 어머니 두 분에.)

102001 @ 음.(음.)

102001 #1 게난 그 오빠가 엿날이난 보상도 하나 엇고 그런 거 뭐가 엇지 아녀우과게. 엇언 허난예 그 훼사에서가 우리 오빠를 데려당 공부시겨주켄. 고등학교 다 시겨주켄 허멍 헤도예, 동생덜 따문 못 가쿠덴 헨 우리 오빠가 안 간 우리 키왓수다게. 경 허난 어머니는게 어떵헐 거우과? 물질도 제대로 못허곡 저 고성 어른이우다. 우리 웨가가.(그러니까 그 오빠가 옛날이니까 보상도 하나 없고 그런 거 뭐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하니까요 그 회사에서가 우리 오빠를 데려다가 공부시켜주겠다고. 고등학교 다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해도요, 동생들 때문 못 가겠다고 해서 우리 오빠가 안 가서 우리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는 어떡할 겁니까? 물질도 제대로 못하고 저 고성 어른입니다. 우리 외가가.)

102001 @ 으.(으.)

102001 #1 경 헌 어른인디, 족은할망[55] 헨 저끗듸 사름 헤연에 아부지 산 땐 고생만 고생만. 거 무사 남ᄌᆞ덜은 족은각시[56] 허민 큰각시[57] 저들루고[58] 옛날은 경 두드려 페고. (웃음). 경허멍 살아신디 나도예, 졸업장을 못 받앗수다.(그렇게 한 어른인데, '족은할망' 해서 곁에 사람 해서 아버지 산 땐 고생만 고생만. 거 왜 남자들은 '족은각시' 하면 '큰각시' '저들루고' 옛날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웃음).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나도요, 졸업장을 못 받았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게난 우리 큰오빠가 저 군인 간 뭐허난 부산 살 때난 부산 각시 살멍 날 오렌 허영 부산서 초등학교 헷주. 경헤연 오 학년ᄁᆞ장 헨에 이디 들어왓수다게.(그러니까 우리 큰오빠가 저 군대 가서 뭐하니까 부산 살 때니까 부산 각시 살면서 날 오라고 해서 부산서 초등학교 했지. 그렇게 해서 오 학년까지 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들어완에 이디 완에 들어가민 일 년만 육 학년 허민 졸업장 받을 건디.(들어와서 여기 와서 들어가면 일 년만 육 학년 하면 졸업장 받을 건데.)

102001 @ 음.(음.)

102001 #1 졸업장도 엇인 사름이우다. 완전 베우지 못헷수다. (웃음). 경 헌 사름인디. 게난 우리 아옵 설에 아버지 돌아가셔 부난에, 열두 설 때 놈의 검질메레 가곡. 조팟듸영 산듸밧듸영. 요만이 헌 때부터양 진짜로 고생만 허멍 살앗수다.(졸업장도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 배우지 못했습니다. (웃음).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홉

55) '족은할망'은 작은할머니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아버지의 작은 부인인 첩을 가리키는 말이다.
56) '족은각시'는 본처인 '큰각시'에 대비해서 첩을 일컫는 말이다.
57) '큰각시'는 후처인 '족은각시'에 대비하여 본처를 가리키는 말이다.
58) '저들루고'는 '걱정하게 하고'의 의미다.

살에 아버지 돌아가셔 버리니까, 열두 살 때 남의 김매러 가고. 조밭이랑 밭벼밭이랑. 요만큼 할 때부터요 진짜로 고생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밧듸 간 검질멜 땐 졸아 불민양, 우리 어머니 골개기 등따리 탁 두드려. 졸암덴. 경 허민 막 울멍양 조로운디 울멍 검질메곡 경허멍 커왓수다. 게난 물질은게 열 설 열혼 설 뒈난에 바당에 바당 ᄌᆞ껏듸난 ᄂᆞ려간 늣개통[59]에 강 휘는 거 벱곡양, 으, 물 아래 들어가렌 허영 재미로 들어강 오래 츰으민 아이고, ᄂᆞ 막 숨 질다, 숨 질다 허멍, 야인, 물질 잘허켜, 잘허켜 경 허멍 고셍고셍허멍 살안에 열다섯 넘어가난 기자 놈의 밧듸 일허레 가곡 뭐허곡 허멍양 고셍은 말도 못허게 살앗수다게.(밭에 가서 김맬 땐 졸아 버리면요, 우리 어머니 호미 등때기 탁 두들겨. 졸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막 울면서요 졸린데 울면서 김매고 그렇게 하면서 커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열 살 열한 살 되니까 바다에 바다 곁이니까 내려가서 '늣개통'에 가서 헤는 거 배우고요, 으, 물속에 들어가라고 해서 재미로 들어가서 오래 참으면 아이고, 너 아주 숨 길다, 숨 길다 하면서, 얜, 물질 잘하겠다, 잘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고생고생하면서 살아서 열다섯 넘어가니까 그저 남의 밭에 일하러 가고 뭐하고 하면서요 고생은 말도 못하게 살았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경 허연 살안 다 컨에, 열ᄋᆞ답 나난에 충청도 육지 물질 허레 가게 뒈연 물질허레 가신디. 열, 저 충청도 가면은 안민돈디 줌숫베[60]가 열ᄋᆞ섯 척 잇어예. 열ᄋᆞ섯 척 해녓배가 이신디 그 중에서 나가 열여듭 술에 간에 팔 등을 헌 거라양.(그렇게 해서 살아서 다 커서, 열여덟 되니까 충청도 육지 물질 하러 가게 되어서 물질하러 갔는데. 열, 저 충청도 가면은 안면돈데 '줌숫베'가 열여섯 척 있어요. 열여섯 척 '해녓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열여덟 살에 가서 팔 등을 한 거예요.)

102001 @ 음.(음.)

102001 #1 팔 등을 허난, 놈은 딴 사름덜은 전복 가고 이녁 잡는 거 이녁 얽어근엥에 하나 얽어도 난 세 개 얽어야 뒈여. ᄒᆞ루. 겐디 어린 때난 건지 그렇게 점복이고 뭐고 어디 가도 기자 일등만 헤집디게게. 게난 이젠 처음 갈 때는 전주가 열ᄋᆞ덥 설에 뭐허레 감시닌 체크[61] 거놓렌 헤난 애기 돌레 가는 걸로 헤여근에 그땐 막 저 경비선 나와근에게 줌수덜 단속허여서양. 허가증 잇냐 없냐 그거. 게민 그 경비선 와 가민 감빵 안네 옴막 들어가 베예.(팔 등을 하니까, 남은 딴 사람들은 전복 가고 이녁 잡는 거 이녁 얽어서 하나 얽어도 난 세 개 얽어야 되어. 하루. 그런데 어릴 때니까 건지 그렇게 전복이고 뭐고 어디 가도 그저 일등만 해집디다. 그러니까 이젠 처음 갈 때는 전주가 열여덟 살에 뭐하러 가고 있느냐고 체크(?) 거노라고 하니까 아기 돌보러 가는 걸로 해서 그땐 막 저 경비선 나와서 잠수들 단속했어요. 허가증 있느냐 없느냐 그거. 그러면 그 경비선 와 가면 뱃장 안에 움쑥 들어가 버려요.)

---

59) '늣개통'은 '늣+개통' 구성으로, '늣'은 이끼, '개통'은 바닷가에 생긴 물통이라는 의미다. 즉 '늣개통'은 바다 이끼가 생기는 바닷가 물통이라는 뜻이다.

60) '줌숫베'는 물질을 하는 잠수, 즉 해녀들을 태우고 다니는 배를 말한다. 달리 '해녓베'라고도 한다.

61) 여기에서 '체크'는 '트집 잡는'의 의미로 쓴 것 같다.

102001 @ 음. (음.)

102001 #1 곱아살 거난. 들어가불멍 헨 다 검사허영 가 불민 나왕은에 물질허곡 허멍 헨. 경 허멍 헌디 충청도 칠 년을 뎅겻수다양. 쳇헤에 간 경 허난 오지 말렌 헷단에 올 딘 뒈난 전주가 막 광목 흔 통썩 무신 것덜 막 헤영 주멍 내년부떠랑 해녀 모집헨 뎅기라, 뎅기라 허멍 헨 해녀 모집헨에 칠 년을 가와신디, 오 년차 간 때에, 육 년차 간 때는, 오 년차 간 때는 해녀 이딧 아이 둘아가신디 아 물에 들엇단에 오꼿 사, 저 심장마비로 죽어분 거 아니우과?(숨어야 할 거니까. 들어가 버리면서 해서 다 검사해서 가 버리면 나와서 물질하고 하면서 했어.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충청도 칠 년을 다녔습니다요. 첫해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오지 말라고 했다가 올 덴 되니까 전주가 막 광목 한 통씩 무슨 것들 막 해서 주면서 내년부터는 해녀 모집해서 다녀라, 다녀라 하면서 해서 해녀 모집해서 칠 년을 다녀왔는데, 오 년째 갈 때에, 육 년째 갈 때는, 오 년차 갈 때는 해녀 여기 아이 데려갔는데 아 물에 들었다가 그만 사, 저 심장마비로 죽어 버린 거 아닙니까?)

102001 @ 으음.(으음.)

102001 #1 게연 가일 죽어 부난 이녁이 둘앙 가노난에 어떵헐 거우과? 그걸 건져사 뭘 거난양, 아이고, 건지젠 허난예 물아래 들어 강 솔피젠 헤도양 탁탁 숨 끊어지멍 못 헙디다게. 경 헨 제우, 우리 씨누이가 족은씨누이가 나가 영 앚안 돌 우의 앚앙 그레나 보라. 아이고, 제게 나와사 살릴 걸 허멍 허난. 가이가 영 들어갓단 아이고, 이디 잇수덴. 영 영 허멍 나와 가난. 놀래게 말라, 놀래게 말라. 저 기관장이 사공이 이물사공이 우리 씨누이 서방이라신디.(그래서 갤 죽어 버리니까 이녁이 데려서 가놓으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걸 건져야 될 거니까요, 아이고, 건지려고 하니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살피려고 해도요 탁탁 숨 끊어지면서 못합디다. 그렇게 해서 겨우, 우리 시누이가 작은시누이가 내가 이렇게 앉아서 돌 위에 앚아서 그리로나 봐라. 아이고, 재우 나와야 살릴 걸 하면서 하니까. 걔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와 가니까. 놀라게 말라, 놀라게 말라. 저 기관장이 사공이 이물사공이 우리 시누이 서방이었는데.)

102001 @ 음.(음.)

102001 #1 영 보걸랑양 물 우의 나와도 안 보여십디게.(이렇게 보니까요 물 위에 나와도 안 보였습디다.)

102001 @2 음.(음.)

102001 #1 난 글로 왓다갓다헤도. 그때는 속곳 입곡 흰 수건 쓸 땐디, 수건이 이 정도로 물 우의 나와십데게. 게난 그 죽은 아이가 심장마비니까 어쩔 수 엇덴 병원에 가난. 영 손 영 헨에 영 앚아십디게게. 게난 우리 씨누이 서방은 간 준둥이 폭 안으난 난 또 다리 양착 들런 올려놘 거꾸로 병원에 갑서. 막 살아나카부덴 막 훌트멍 간 거 아니? 경 훌트멍 가도 병원에 올라간 허난에양, 심장마비난 못 고칩네덴. 못 살룹니다. 물른밧[62]듸서 헤도 심장마빈 죽어 붑니덴 그치록 허멍 막 얼먹언양.(난 그리로 왔다갔다

62) '물른밧'은 마른 밭이라는 뜻으로, 바다에 대비해서 뭍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도. 그때는 속곳 입고 흰 수건 쓸 땐데, 수건이 이 정도로 물 위에 나왔습디다. 그러니까 그 죽은 아이가 심장마비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누이 서방은 가서 잔등이 폭 안으니까 난 또 다리 양쪽 들어서 올려놔서 거꾸로 병원에 가십시오. 막 살아날까보다 막 훑으면서 간 거 아니? 그렇게 훑으면서 가도 병원에 올라가서 하니까요, 심장마비니까 못 고칩니다고. 못 살립니다. '몰른밧'에서 해도 심장마빈 죽어 버린다고 그처럼 하면서 매우 언걸먹어서요.)

102001 @ 음.(음.)

102001 #1 병원. 그디 허난양, 처녀 죽으건 물르레 데껴불주, 베에 시껑 뎅겸젠양 막 그치룩 곳듸 들어오지도 못허게, 베. 게난 바당에서만 수속 붋나 뭐 헌다 막 지서여 어디여 뭐 안 뎅긴디 잇수가? 조수 받으레. 경허멍 허단보난에 닷 쉐 걸린 거라. 게 바당에서만 닷 쉐 살안에 일로 베 빌언 일로 시껀 왓주. 온평리로. 욜로 시껀 오난 오늘ᄀᆞ치룩 막 쎄엿수다. 새에 완 온평리 줌녀 어른덜 곳듸[63] 나간 헨에 들어오지 못헌덴 막 이치룩 헤연.(병원. 거기 하니까요, 처녀 죽거든 물로 던져버리지, 배에 실어서 다니고 있다고요 막 그처럼 육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배. 그러니까 바다에서만 수속 밟는다 뭐 한다 막 지서다 어디다 뭐 안 다닌데 있습니까? 조서 받으러.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닷 새 걸린 거야. 게 바다에서만 닷 새 살아서 일로 배 빌려서 일로 실어서 왔지. 온평리로. 욜로 실어서 오니까 오늘처럼 아주 세었습니다. 새에 와서 온평리 잠녀 어른들가에 나가서 해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막 이처럼 해서.)

102001 #1 양 그거 헨 이제 저 시끈 거. 아이고, 그것도 그 딴 베에서가 광목 옥영목 ᄒᆞᆫ 통 헤다 줜 죽은 사름 옷 다 만들안. 베에서 호상 다 만들안. 이제 그거 다 베 임제덜이 다 매장[64]허고 ᄆᆞᆫ딱 헤연. 관을 와사 갈 건디 어떵 허린 나가 막 산천 꼭데기에 속곳 ᄇᆞ랑에 물옷 ᄇᆞ랑에. 경 헤연 올라간에 막 그디 허난양, 그디 사름도 ᄆᆞ음이 좋은 사름이 잇언에예 자기네 문짝을 떼연 줍디다게.(예 그거 해서 이제 저 시침질한 거. 아이고, 그것도 그 딴 배에서가 광목 옥양목 한 통 해다 줘서 죽은 사람 옷 다 만들었어. 배에서 수의 다 만들었어. 이제 그거 다 배 임자들이 다 '매장'하고 몽땅 했어. 관을 와야 갈 건데 어떻게 하리 내가 막 산천 꼭대기에 속곳 바람에 물옷 바람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막 거기 하니까요, 거기 사람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요 자기네 문짝을 떼어서 줍디다.)

102001 @ 음.(음.)

102001 #1 문짝을 떼연 주멍. 이걸로 저 관 짜근엥에 헨 가렌. 여기서는 오십이 낫던 칠십이 낫던 총각이든 처녀든 뒈면은 그냥 들이쳐분덴마씸게.(문짝을 떼어서 주면서. 이걸로 저 관 짜서 해서 가라고. 여기서는 오십이 되던 칠십이 되던 총각이든 처녀든 되면 그냥 집어넣어버린다고요.)

---

63) '곳듸'는 '가에'라는 의미다. 여기에서는 육지라는 의미로 쓰였다.

64) '매장'은 사람이 죽으면 몸이 오그라들지 말라고 수의로 갈아입히기 전에 베 따위로 몸을 임시로 묶는 일을 말한다.

102001 @2 바당더레.(바다로.)

102001 #1 예. 뭐허레 거 시껑 뎅기멍 영 고셍헴시넨 허멍 경 헨 그거 허연 오란에 그 가이 친정은 페선[65]인디. 게 성산[66]으로 이디 베 못 들어선 성산포로 가난에 글로 다 와선게. 경 헨 묻으레 간 그디ᄁᆞ장 가난에양 그 사름 막 싱싱헌 집안이란게. 다 헤싼 봅디다. 나가 영 정 헷수덴. 멩지론 못허고 저 광목으로 영허연 허곡. 나가 삐얌을 때린 거라양, 그 물 우의 건지멍 가이를. 나가 그걸 마음에 막 걸려집디다게.(예. 무엇하러 거 실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거 해서 와서 그 걔 친정은 표선리인데. 게 성산으로 여기 배 못 들어서서 성산포로 가니까 글로 다 왔던데. 그렇게 해서 묻으러 가서 거기까지 가니까요 그 사람 아주 싱싱한 집안이던데. 다 헤집어서 봅디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고. 명주론 못하고 저 광목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내가 뺨을 때린 거예요, 그 물 위에 건지면서 걔를. 내가 그걸 마음에 아주 걸립디다.)

102001 @ 음.(음.)

102001 #1 죽은 사름 우의 매질헌다고 아이고 나가 무사 경 헤져신고 헤연 걸려젼게양. 그 말 아녕은 안 뒐 거난 이제 그 장지에 가난 그디 막 하르방덜이영 할망덜이영 짝허게 봉분 염에 앚안에게 어떵헌 걸 ᄀᆞᆯ으렌 허난 이젠 ᄀᆞᆯ아십주. 나가 줴 진 거는 삐얌을 때렷수덴.(죽은 사람 위에 매질한다고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해졌는가 해서 걸리던데요. 그 말 안 해서는 안 될 거니까 이제 그 장지에 가니까 거기 아주 할아버지들이랑 할머니들이랑 짝하게 봉분 곁에 앉아서 어떠한 걸 말하라고 하니까 이젠 말했습죠. 내가 죄 진 거는 뺨을 때렸습니다고.)

102001 @ 음.(음.)

102001 #1 삐얌을 때렷수덴. 이거 온 디가 어디라렌 누굴 애멕이젠 허멍 이 따위 짓을 허멍 귀뚱베길 뚜렷수덴 허난. 할머니 ᄒᆞᆫ 분이 앚앗단 "아이고, 어떠난 어린 사름이 경 그런 생각을 나넨양." 경 헤야 뒌덴 헙디다게.(뺨을 때렸습니다고. 이거 온 데가 어디라고 누굴 애먹이려고 하면서 이 따위 짓을 하면서 귀퉁일 때렸습니다고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앉았다가 "아이고, 어떠니까 어린 사람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나더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디다.)

102001 @2 예, 맞수다. 정 떨어져야 뒌다고. 정 떨어지게.(예, 맞습니다. 정 떨어져야 된다고. 정 떨어지게.)

102001 #1 난 그거 저것도 몰르고 어린 때난 무시거 알아게. 아이고, 어떵허난 생각이 나닌. 아이고, 건 욕허는 게 아니고 잘 헤엿저, 잘 헤엿저 허멍 권당 할망덜이 헤줘. 경 허멍 허멍 묻어난에 경 유월 열ᄒᆞ루날인디 원 잊어불지도 안 허주. 우리 가이 베 시껑 뎅길 땐 그냥 같이 눴수게.(난 그거 저것도 모르고 어릴 때니까 무엇 알아. 아이고, 어떡하니까 생각이 나더냐고. 아이고, 건 욕하는 게 아니고 잘 했다, 잘 했다 하면서 권당 할머니들이 해줘. 그렇게 하면서 하면서 묻으니까 그렇게 유월 열하루인데 전혀 잊

65) '페선'은 서귀포시 표선읍 표선리를 말한다.
66) '성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를 말한다.

어버리지도 안 하지. 우리 걔 배 실어서 다닐 땐 그냥 같이 혔습니다.)

102001 @ 으, 그래 경 뒈지예?(으, 그래 그렇게 되지요?)

102001 #1 어. 벳장에 시끄난게 밥 먹을 땐 그디 영 그디 강 앚앙 밥 먹으멍, 야, 그만 장 밥 먹으라. 경 곧곡. 기자 산 걸로 허렌 허영양. 야, 밥 먹으라. 그축헤영 허고 그디 흔듸 이디 영 가이 놔둰 이디 흔듸 벳장이 닷 새 동안 둰 헷어. 경허연 고셍은양 말도말도 못허고 헤신디 물질을 잘헤여노난양, 이 집의도 물질 잘허난 씨집갓수다, 나.(어. 뱃장에 실으니까 밥 먹을 땐 거기 이렇게 거기 가서 앉아서 밥 먹으면서, 야, 그만 자서 밥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저 산 걸로 하라고 하면서요. 야, 밥 먹어라. 그렇게 해서 하고 거기 함께 여기 이렇게 걔 놔두고 여기 함께 뱃장에 닷 새 동안 눠서 했어. 그렇게 해서 고생은요 말도말도 못하고 했는데 물질을 잘 해놓으니까요, 이 집에도 물질 잘하니까 시집갔습니다, 나.)

102001 @ 음.(음.)

102001 #1 이디도 웬간헌 집안이우다게.(여기도 엔간한 집안입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사름덜이 다 노랩니께. 느 그 집의 강 못 산다. 못 산다.(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너 그 집에 가서 못 산다. 못 산다.)

102001 @ (웃음).(웃음.)

102001 #1 경 혜연, 경 허멍 헌 집안인디, 옛날엔 물질 잘허민 물질 잘헌 사름만 헤낫수게. 듬북, 고지기[67] 즈물곡 메역허고예.(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한 집안인데, 옛날엔 물질 잘하면 물질 잘한 사람만 했었습니다. 듬북, '고지기' 캐고 미역하고요.)

102001 @2 메역허곡.(미역하고.)

102001 #1 예. 경 허난 그 맛으로. (웃음). 막 좋은 디서 막 연애허는 중 몰르난 총각은 흔 번에[흔뻐네] 중진을 오게 뒈난 다섯 사름이 완 앚으난 어떨 거우과? 우리 삼방에 딱 완 앚으난, 우리 언니는 야, 선생, 선생신디 가라. 또 어느 사름은 어디 가라. 아이고, 이디 연애 헤 놓난에 이젠 만약에 그걸 알아 놓민 보통 집안이 아니라노난 나는 완전 매장 시경 요만이 헌 거면은 이만이 헷젠 헐.(예. 그렇게 하니까 그 맛으로. 웃음. 아주 좋은 데서 막 연애하는 줄 모르니까 총각은 한 번에 중진을 오게 되니까 다섯 사람이 와서 앉으니까 어떨 겁니까? 우리 마루에 딱 와서 앉으니까, 우리 언니는 야, 선생, 선생한테 가라. 또 어느 사람은 어디 가라. 아이고, 여기 연애 해 놓으니까 이젠 만약에 그걸 알아 놓으면 보통 집안이 아니어 놓으니까 나는 완전 매장 시켜서 요만큼 한 거면 이만큼 했다고 할.)

102001 @ 경 허지예?(그렇게 하지요?)

102001 #1 사람이라 노난 그게 딱 생각난. '아, 이거 나 진짜 사름 안 뒌다.' 딴 디 가벵은, 안 뒌다 헨에 이 집의 씨집을 온 거우다. 웃음. 아이고, 경 헨 씨집완 씨어멍네 영게 일 년, 딱 일 년 살앗주. 나가 세 번차 막둥인디. 큰메누리 셋메누린 원 씨집가민 그자 뭐헤벼나신디. 군인[68] 가 부난에 딱 일 년. 섣둘 초이틀날 음력으로 씨집가신디

67) '고지기'는 모자반의 일종이다. 보리밭의 거름용으로 쓰였다.

정월 스무나을날 제대헹 옵디다게. 제대헨 옵** 씨집간 후제 물질 간에 씨집간 후제 물질 흔 해 간에 벌언 완에. 그때 돈 삼만 원 막 커양.(사람이어 놓으니까 그게 딱 생각났어. '아, 이거 나 진짜 사람 안 된다.' 딴 데 가 버려서는, 안 된다 해서 이 집에 시집을 온 겁니다. 웃음. 아이고, 그렇게 해서 시집와서 시어머니랑 일 년, 딱 일 년 살았지. 내가 세 번째 막둥인데. 큰며느리 둘째며느리 원 시집가면 그저 뭐해 버렸었는데. 군대 가 버리니까 딱 일 년. 섣달 초이튿날 음력으로 시집갔는데 정월 스무나흗날 제대해서 옵디다. 제대해서 옵** 시집간 후에 물질 가서 시집간 후에 물질 한 해 가서 벌어서 와서. 그때 돈 삼만 원 아주 커요.)

102001 @ 음.(음.)

102001 #1 삼만 원 앗안 완 씨아부지안티 드려십주. 드리난에 나 쓰단 보난 요거 뿐이우다 허연 드리난에 아이고, 착허다 이거 영 하영 헨댜 고셍허멍 헨에. 초가집 하나가 그 우리 씨집의 바로 옆집이 집이 하나 나옵디다. 저 무시거냐 뭐하단에 이장질 허단에 풀아먹은 집. 담보 젭힌 집.(삼만 원 가져 와서 시아버지한테 드렸습지요. 드리니까 나 쓰다가 보니까 요거뿐입니다 해서 드리니까 아이고, 착하다 이거 이렇게 많이 했느냐 고생하면서 해서. 초가집 하나가 그 우리 시집의 바로 옆집이 집이 하나 나옵디다. 저 무엇이냐 뭐하다가 이장노릇 하다가 팔아먹은 집. 담보 잡힌 집.)

102001 @ 음.(음.)

102001 #1 게난 그 아부지가 그거 이거 계약금 걸어근에 요 집을 사, 사근에 이디 저 츠츠츠츠 벌멍 우리도 보태곡 허영 물어지난에 경 허연 허렌 이제 제대헹 올 때도 뒈여가곡 뚜로 살아살 거난 경 허렌 헤연. 경허연 그 집을 산 거라양. 그 삼만 원 벌어온 걸로 계약금 걸언. 웃음.(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거 이거 계약금 걸어서 요 집을 사, 사서 여기 저 차차차차 벌면서 우리도 보태고 해서 물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하라고 이제 제대해서 올 때도 되어가고 따로 살아야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산 거예요. 그 삼만 원 벌어온 걸로 계약금 걸어서. 웃음.)

102001 @ 음.(음.)

102001 #1 경 허연 그디 제대헨 오난에 또 원래 또 남즈가 막 저 족은아들이고 헌디 마음이 막 약허여.(그렇게 해서 거기 제대해서 오니까 또 원래 또 남자가 아주 저 작은아들이고 한데 마음이 아주 약해.)

102001 @ 음.(음.)

102001 #1 존셈으로 마음 막 약헙니다게. 지금 상황에는 나가 완전 대장이주. 웃음.(잔셈으로 마음 아주 약합니다. 지금 상황에는 내가 완전 대장이지. 웃음.)

102001 @ 웃음.(웃음.)

102001 #1 젊은 땐 말도 못 헤보고. 웃음. 경 허멍 헨 살아완에양 고셍사, 아 게난 막 펜안히 살 때 뒈니까 아방[69]이 벵들기 시작헌 거라예.(젊은 땐 말도 못 해보고. 웃음. 그렇게 하면서 해서 살아와서요 고생이야, 아 그러니까 아주 편안히 살 때 되니까

68) 여기에서 '군인'은 군대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69) '아방'은 표준어 '아버지'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나,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남편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102001 @ 음.(음.)

102001 #1 으, 겐 위암으로부터 시작헤연에 잘못뒈연 두 번 허는 통에 죽넨만 막 벵원에서 서울서. 막 그디 환자덜 다 사름마다 “아이고, 저 사름, 아이고 저 사름 족헌 사름 안 뒈겟어, 안 뒈겟어.” 하르방덜토 다 경 허고. 막 죽넨 헨에 이제 얼마 안 산덴 헨에, 이디서 올라오렌. 나만 우리 아덜덜 둘 잇어도 어리곡 허난에 뭐 못헌덴 올라오렌 연락허연. 표, 비행기표 헹 놧다근엥에 전화만 딱 가면 올라오렌 다 허여낫수다.(으, 그래서 위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잘못되어서 두 번 하는 통에 죽는다고만 막 병원에서 서울서. 막 거기 환자들 다 사람마다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안타까운 사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할아버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아주 죽는다고 해서 이제 얼마 안 산다고 해서, 여기서 올라오라고. 나만 우리 아들들 둘 있어도 어리고 하니까 뭐 못한다고 올라오라고 연락해서. 표, 비행기표 해서 놨다가 전화만 딱 가면 올라오라고 다 했었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경 헌 사름. 저 사름 경 허멍 창지 잘못 뒈여 부난 족은창지 딱 이만이 큰 자로 ᄒᆞᆫ 자 끊어벳수게. 썩언.(그렇게 한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하면서 창자 잘못 되어버리니까 작은창자 딱 이만한 큰 자로 한 자 끊어버렸습니다. 썩어서.)

102001 @ 음.(음.)

102001 #1 잘못 뒈연.(잘못 되어서.)

102001 @ 게난 명은 다 잇인 거라. 경 허난 이제까지 사는 거 아니예?(그러니까 명은 다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까지 사는 거 아닌가요?)

102001 #1 겐디 사름마다 곧주. 나보고, 느가 멩을 자꾸 잇어주난.(그런데 사람마다 말하지. 나보고, 네가 명을 자꾸 이어주니까.)

102001 @2 으음. (으음.)

102001 #1 으, 멩을 자꾸 잇어주난 살앗저게, 살앗저게. 막 경 헙디다.(으, 명을 자꾸 이어주니까 살았지, 살았지. 아주 그렇게 합디다.)

102002 @ 알앗수다. 게믄 삼춘네 그 부모님은 어떤 일 헤난 거라마씨? 여기서.(알았습니다. 그러면 삼촌네 그 부모님은 어떤 일 했던 거예요? 여기서.)

102002 #1 우리 어무니네?(우리 어머니네?)

102002 @ 음.(음.)

102002 #1 이디서 뭐 농사허여십주.(여기서 뭐 농사했습죠.)

102002 @2 친정.(친정.)

102002 #1 예게, 농사주 무시거 헙니까? 감저 놓고. 옛날이나 감저 허곡 보리 갈곡 헨 살앗주게 무시거 헤엿수가게? 돈 안 주난에.(예, 농사지 무엇 합니까? 고구마 놓고. 옛날이나 고구마 하고 보리 갈고 해서 살았지, 무엇 하였습니까? 돈 안 주니까.)

102002 @ 으.(으.)

102002 #1 감저도 놓민 누게 돈 줫수가?(고구마도 놓으면 누구 돈 줬습니까?)

102002 @2 먹을 걸로.(먹을 걸로.)

102002 #1 예, 먹을 걸로.(예, 먹을 걸로.)

102002 @ 음, 거난 이제 농사지으멍.(음, 그러니까 이제 농사지으면서.)

102002 #1 으, 농사지으멍.(으, 농사지으면서.)

102002 @ 음.(음.)

102002 #1 그 옛날 보릿고개에 그런 때 보리 다 썩어불고 다 그땐 먹을 것덜 엇이난에 감저, 고구마. 그 구뎅이 팡은에 막 크게 눌엇당 그걸로 살앗수게게.(그 옛날 보릿고개에 그런 때 보리 다 썩어버리고 다 그땐 먹을 것들 없으니까 고구마, 고구마. 그 구덩이 파서 아주 크게 가리었다가 그걸로 살았습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감저 쩡 먹으멍.(고구마 쪄서 먹으면서.)

102002 @ 예, 그건 이제 이땅 나중에 하고.(예, 그건 이제 이따가 나중에 하고.)

102002 @ 어.(어.)

102003 @ 어머니 고향은 어디라마씨?(어머니 고향은 어디예요?)

102003 #1 고성[70], 고성.(고성, 고성.)

102003 @ 고성?(고성?)

102003 #1 으.(으.)

102003 @ 어머니는 고성서 여기 씨집온 거예?(어머니는 고성서 여기 시집온 거요?)

102003 #1 음.(음.)

102004 @ 어릴 때 우리 놀레 하영 다녓잖아예. 삼춘은 일도 하영 헷주마는. 어릴 때는 어떤 놀이 허멍 놀아마씨? 어떤 놀이 허멍?(어릴 때 우리 놀러 많이 다녔잖아요. 삼촌은 일도 많이 했지마는. 어릴 때는 어떤 놀이 하면서 놀아요? 어떤 놀이 하면서?)

102004 #1 아아.(아아.)

102004 @ 노는 거?(노는 거?)

102004 #1 그땐 누게 땔감 허레.(그땐 누구 땔감 하러.)

102004 @ 예.(예.)

102004 #1 계속 땔감 허레 드르 나가난에 낭허레양. 나가민게 막 어린 때난에 재미로 낭 흔 짐이민 멧 짐 헹 올 건디 그디 강 버덕[71] 좋은 디 강 막 가이셍[72]도 허곡 고무줄도 허고 경 허멍 놀다근엥에 흔 짐 헹 오곡 허멍 살앗주.(계속 땔감 하러 들에 나가니까 나무하러요. 나가면 아주 어릴 때니까 재미로 나무 한 짐이면 몇 짐 해서 올 건데 거기 가서 '버덕' 좋은 데 가서 막 '가이셍'도 하고 고무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놀다가 한 짐 해서 오고 하면서 살았지.)

102004 @ 으, 고무줄이영 가이셴이영.(으, 고무줄이랑 '가이셴'이랑.)

102004 #1 으으.(으으.)

102004 @ 응, 그거 말고 노는 건 어떤 거?(응, 그거 말고 노는 건 어떤 거?)

---

70) '고성'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를 말한다.

71) '버덕'은 '너른 들판'처럼 사람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72) '가이셍'은 아이들 놀이의 한 가지.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102004 #1 멧 설 정도예?(몇 살 정도예에?)

102004 @ 그냥 흔 열 설 이럴 때?(그냥 한 열 살 이럴 때?)

102004 #1 게난 그때도 기자 그거주게. 노는 거엔 헌 건 공기허곡.(그러니까 그때도 그저 그거지. 노는 거라고 한 건 공기하고.)

102004 @ 으.(으.)

102004 #1 이, 공기허곡 가이셍허고, 가이셍허곡 고무줄허곡.(이, 공기하고 '가이셍' 하고, '가이셍'하고 고무줄하고.)

102004 @ 음.(음.)

102004 #1 숨바꼭질허고.(숨바꼭질하고.)

102004 @ 으, 숨박꼭질은 여기서 뭐렌 골아낫수가? 옛날.(으, 숨바꼭질은 여기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옛날.)

102004 #1 곱을레기.('곱을레기'.)

102004 @ 곱을레기?('곱을레기'?)

102004 #1 으, 곱을레기허곡.(으, 숨바꼭질하고.)

102004 @ 으. 그치룩 허멍.(으. 그처럼 하면서.)

102004 #1 경 허멍 컷주.(그렇게 하면서 컸지.)

102005 @ 삼춘 여기 그 일제시대 공출헤난 것도 기억헤졈수가?(삼촌 여기 그 일제강점기에 공출했던 것도 기억해집니까?)

102005 #1 우리 어릴 때주, 그건.(우리 어릴 때지, 그건.)

102005 @ 음.(음.)

102005 #1 공출헤난 건.(공출했던 건.)

102005 @ 어머니네라도 이렇게 공출 어떵 허난 막 힘들엇저 이런 말?(어머니네라도 이렇게 공출 어떻게 하니까 아주 힘들었지 이런 말?)

102005 #1 예, 공출게 곡석 그런 거 허민게 얼마 멧 할 갖당 바찌는 거.(예, 공출 곡식 그런 거 하면 얼마 몇 할 갖다가 바치는 거.)

102005 @ 음, 삼춘네는 안 헤보고?(음, 삼촌네는 안 해보고?)

102005 #1 무사게. 우리 어머니네사 헷주게.(왜. 우리 어머니네야 했지.)

102005 @ 으.(으.)

102005 #1 우리 부모덜사 헷주마는 우린 안 헷주게. 우리 어리난에.(우리 부모들이야 했지만 우린 안 했지. 우리 어리니까.)

102005 @ 어리난에.(어리니까.)

102005 #1 어린 때난에.(어릴 때니까.)

102005 @ 예, 공출 때문에 뭐 굶어보거나 이런 건.(예, 공출 때문에 뭐 굶어보거나 이런 건.)

102005 #1 공출 때문에 굶어보진 아녓주. 감저 놓난에 고구마로덜 먹으난.(공출 때문에 굶어보진 않았지. 고구마 놓으니까 고구마로들 먹으니까.)

102005 @ 음.(음.)

102005 #1 고구마 먹고게 무신거 야채 그런 거 ᄂᆞ물 그런 건 아녀난. 옛날 징뀌만 헹 먹지 안 헷수가? 징뀌.(고구마 먹고 무엇 야채 그런 거 나물 그런 건 않으니까. 옛날 김치만 해서 먹지 않았습니까? 김치.)

102005 @ 예, 징뀌.(예, 김치.)

102005 #1 고춧ᄀᆞ르도 안 놓곡 베추 쫀물에 둥갓당 그거 헨 징뀌.(고춧가루도 안 넣고 배추 짠물에 담갔다가 그거 해서 김치.)

102005 @ 응.(응.)

102005 #1 징뀌엔 허주, 그거게.(김치라고 하지, 그거.)

102005 @ 예, 예. (예, 예.)

102005 #1 경 허곡 드르달래엔 허주. 요새는 옛날은 마늘[73], 드릇마늘.(그렇게 하고 달래라고 하지. 요새는 옛날은 마늘, 달래.)

102005 @ 음.(음.)

102005 #1 마늘 캐여당은에 그거 지시 담으민 그거 새금새금 맛잇주. 그 달래가.(달래 캐다가 그거 장아찌 담그면 그거 새금새금 맛있지. 그 달래가.)

102005 @ 예.(예.)

102005 #1 그거 반찬엔 헌 건 그치룩 헹 먹곡게. 톨 헤다근엥 솖아근에 톨밥[74] 헹 먹곡.(그거 반찬이라고 한 건 그처럼 해서 먹곡. 톳 해다가 삶아서 '톳밥' 해서 먹고.)

102005 @ 으음.(으음.)

102005 #1 감저밥 헹 먹고 그거랏수게게.(고구마밥 해서 먹고 그거였습니다.)

102005 @ 삼춘네도 톨밥도 헹 먹엇구나.(삼촌네도 '톳밥'도 해서 먹었구나.)

102005 #1 예. 또 뭇 잇지예.(예. 또 무릇 있지요.)

102005 @ 예.(예.)

102005 #1 뭇 알지예?(무릇 알지요?)

102005 @ 예.(예.)

102005 #1 그거 삶으민 그렇게 맛 좋아. 페 놔근에.(그거 삶으면 그렇게 맛 좋아. 패 넣어서.)

102005 @ 페 놩은에?(패 넣어서?)

102005 #1 으, 그거 허영 우리 옆집의 할망 그거 헹은에 저 막 풀레 뎅기곡.(으, 그거 해서 우리 옆집의 할머니 그거 해서 저 막 팔러 다니고.)

102005 @ 아.(아.)

102005 #1 그거 경 맛 좋아. 보리, 보릿ᄀᆞ르 막 엉긴 거 등개ᄀᆞ르[75] 놔근에.(그거 그렇게 맛 좋아. 보리, 보릿가루 아주 엉킨 거 '등개가루' 놔서.)

102005 @ 으.(으.)

102005 #1 그 국물에 ᄆᆞᆯ아근에 헹 먹으민 아이고, 이젠 몰라 벨미로나 주민 먹으카?(그 국물에 말아서 해서 먹으면 아이고, 이젠 몰라 별미로나 주면 먹을까?)

---

73) 여기에서 '마늘'은 달래를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74) '톨밥'은 톳에 보리쌀 따위를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75) '등개ᄀᆞ루'는 보리를 찧거나 쓿을 때 나오는 가루다. '등개'라고도 한다.

102005 @ (웃음).(웃음.)

102005 @2 못 먹을 거우다.(못 먹을 겁니다.)

102006 @ 사삼사건으로 뭐 피해 보거나 이런 거는 엇어마씨?(사삼사건으로 뭐 피해 보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102006 #1 우리, 우린 엇고, 우리 저 셋아버지 아덜넨 다 돌아가셧주. 그 사건 때.(우리, 우린 없고, 우리 저 둘째아버지 아들넨 다 돌아가셨지. 그 사건 때.)

102006 @ 음, 어떤 식으로 헹 돌아가셧덴 헙디가?(음, 어떤 식으로 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디까?)

102006 #1 심어단.(잡아다가.)

102006 @ 음.(음.)

102006 #1 심어단에, 그때 이디 우리 이 우리 온평리 부락에 세 사람.(잡아다가, 그때 여기 우리 이 우리 온평리 부락에 세 사람.)

102006 @ 음.(음.)

102006 #1 흔 사름은 저 우연에서[우연네서] 밧 갈암시난 쉐 헤연양, 농사 허젠 밧 갈암시난에 어멍이 아이고, 막 절로 잡으레 왐젠 헤라. 허난 쉐 벳겨둥, 멍에영 벳겨둥이라도 곱아시민 헐 건디 밧 갈단 내벼둰 몸뚱이만 강 굴묵[76]에 간 곱으난, 옛날 굴묵 살를[77] 때난.(한 사람은 저 텃밭에서 밭 갈고 있으니까 소 해서요, 농사 하려고 밭 갈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막 절로 잡으러 온다고 해라. 하니까 소 벗겨두고, 멍에랑 벗겨두고라도 숨었으면 할 건데 밭 갈다가 내버려두고 몸뚱이만 가서 '굴묵'에 가서 숨으니까, 옛날 '굴묵' 땔 때니까.)

102006 @ 으.(으.)

102006 #1 굴묵에 몬지락[78] 데며놓은 디 그 구석에 강 곱으난에게.('굴묵'에 '몬지락' 쌓아놓은 데 그 구석에 가서 숨으니까.)

102006 @ 으음.(으음.)

102006 #1 쉐멍에 씌운 냥 잇이난 멀리 안 간 걸로 알안 심엉 간에 죽여볏주게. 건 다 저 터진목[79]에서 죽엇주.(소멍에 씌운 대로 있으니까 멀리 안 간 걸로 알아서 잡아가서 죽여버렸지. 건 다 저 '터진목'에서 죽었지.)

102006 @ 음, 터진목에서?(음, 터진목에서?)

102006 @2 으.(으.)

102006 #1 예.(예.)

102006 @ 게난 온평리에선 세 명?(그러니까 온평리에선 세 명?)

102006 #1 으, 우리 오빠도 우리 셋아버지 아들 저 큰아덜이라신디 그디 간 총 쏘안 죽여 부난 피 잘잘 나는 거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겁절에 이꺼장 업엉 완.(으, 우리 오빠도 우리 둘째아버지 아들 저 큰아들이었는데 거기 가서 총 쏘아서 죽여 버리니까 피

76) '굴묵'은 방에 불을 때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아궁이, 또는 아궁이가 있는 공간을 말한다.
77) 여기에서 '살를'은 방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는 의미로 쓰였다.
78) '몬지락'은 까끄라기나 허드레한 검불 따위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다.
79) '터진목'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의 바닷가 지명이다.

잘잘 나는 거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겁결에 이까지 업어서 왔어.)

102006 @ 으음.(으음.)

102006 #1 업언 완 보난에 막 온몸이 우리 어머니 옷이 다 절아벤 헨에 저디 완에 메에 완 묻언.(업어서 와서 보니까 막 온몸이 우리 어머니 옷이 다 절어버려서 해서 저기 와서 메어 와서 묻었어.)

102006 @ 음.(음.)

102006 #1 우린 또 그 폭도 드는 해는.(우린 또 그 폭도 드는 해는.)

102006 @ 음.(음.)

102006 #1 폭도. 폭도 드는 헤는 입초 사근에 이디 만리성[80] 이제 다 헐어져 부난 헌디 거기 상은에 아홉 시 전달, 열 시 전달허멍 연락허멍 헐 때는 폭도 내려왐쩌 허민 우린 바당에 간 살앗수게. 밤이. 바당에 강 동산 엠에 엉덕 신 디 이시난 그디 강은에게 곱앙.(폭도. 폭도 드는 해는 입초 서서 여기 '만리성' 이제 다 헐어져 버리니까 하는데 거기 서서 아홉 시 전달, 열 시 전달하면서 연락하면서 할 때는 폭도 내려오고 있다 하면 우린 바다에 가서 살았습니다. 밤에. 바다에 가서 동산 옆에 언덕 있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숨어서.)

102006 @ 게믄 여기 그 성을 만리성이렌 헤낫수가?(그러면 여기 그 성을 '만리성'이라고 했었습니까?)

102006 #1 음.(음.)

102006 @ 옛날부터?(옛날부터?)

102006 #1 으.(으.)

102006 @ 요즘 환해장성 허는 거예?(요즘 환해장성 하는 거요?)

102006 #1 예.(예.)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그걸 쭉허게 바당에 쭉허게 잇엇주게. 신양리 ᄀᆞ음ᄁᆞ장 우리 신산리 ᄀᆞ음[ᄁᆞ음]으로. 것도 이젠 다 허물어져벳수게게.(그걸 쭉하게 바다에 쭉하게 있었지. 신양리 금까지 우리 신산리 금으로. 것도 이젠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102006 @ 으음. 만리 거는 옛날은 만리성?(으음. '만리' 거는 옛날은 '만리성'?)

102006 #1 음, 겐디 그 저 전달헤근에 입초 상 연락 받는 디는 연디ᄆᆞ르[81]엔 헹양게난 연뒷동산엔 허주. 그 동산은 잇어, 지금도.(음, 그런데 그 저 전달해서 입초 서서 연락 받는 데는 '연디ᄆᆞ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연뒷동산'이라고 하지. 그 동산은 있어, 지금도.)

102006 @ 음.(음.)

102006 #1 돌벡으로 쌓은 거. 그 동산은 기자 잇수다. 읍에서 와근엥에 영 풀 비고 뭐 헴실 거라 그.(돌벽으로 쌓은 거. 그 동산은 그저 있습니다. 읍에서 와서 이렇게 풀

80) '만리성'은 제보자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환해장성을 일컫는 말이다.

81) '연디ᄆᆞ루'는 연대(煙臺)가 있는 마루라는 의미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말등포연대'가 있는 곳을 말한다. 제보자는 '연디ᄆᆞ루'를 '연뒷동산'이라고도 하였다. '말등포연대'는 조선시대 정의현에 소속되었던 연대다.

베고 뭐 하고 있을 거야 그.)

102006 @ 저 우에?(저 위에?)

102006 #1 아니 저쪽에?(아니 저쪽에?)

102006 @ 으, 그 연뒷동산 이름이?(으, 그 '연뒷동산' 이름이?)

102006 #1 예, 연듯동산, 연듯동산.(예, '연듯동산', '연듯동산'.)

102006 @2 우리 지난번에 갓던 덴가?(우리 지난번에 갔던 덴가?)

102006 @ 예, 예.(예, 예.)

102006 #1 아, 가납디가?(아, 갔었습니까?)

102006 @ 예.(예.)

102006 #1 소남밧듸.(소나무밭에.)

102006 @ 예, 소남밧듸.(예, 소나무밭에.)

102006 # 1 그 동산은 잇주. 그 시국[82]에 헤난 거.(그 동산은 있지. 그 시국에 했던 거.)

102006 @ 게난 그 시국 때 삼춘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헌 거라마씨. 아까 아옵 시 전달허멍 헷는데.(그러니까 그 시국 때 삼촌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아까 아홉 시 전달하면서 했는데.)

102006 #1 게 아까 나 안 골읍디가? 감저로만 먹언 살앗주기게. 게난 그 고구마만 먹으니까 배가 막 아파양, 막 저 훼충도 셍기곡예.(게 아까 나 안 말합디까? 고구마로만 먹어서 살았지. 그러니까 그 고구마만 먹으니까 배가 아주 아파요, 막 저 회충도 생기고요.)

102006 @2 으.(으.)

102006 #1 아이고, 경 허영 고셍헷주. 베 아팡 감저만 먹으니까. 막 훼충 셍경 막 대변 보민 게우리 막 나오곡.(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고생했지. 배 아파서 고구마만 먹으니까. 막 회충 생겨서 막 대변 보면 거위 막 나오고.)

102006 @ 으음.(으음.)

102006 #1 지렁이가 준준헌 것도 아닌 막 이만씩 홁은 거. 그 게우리.(거위가 자잘한 것도 아닌 막 이만씩 굵은 거. 그 거위.)

102006 @ 게우리가.(거위가.)

102006 #1 소곱에서.(속에서.)

102007 @ 소곱에서. 삼춘은 아까 결혼은 연애결혼?(속에서. 삼촌은 아까 결혼은 연애결혼?)

102007 #1 으.(으.)

102007 @ 연애헷던 얘기 쫌 헤 봅서?(연애했던 얘기 좀 해 보십시오?)

102007 #1 웃음.(웃음.)

102007 @ 어떵 헤연 만낭은에 결혼?(어떻게 해서 만나서 결혼?)

102007 #1 아니, 게난 (웃음) 우리가 게난 졸업을 못허고 허니까 동네 선생님 빌언

82) 여기에서 '시국'은 제주4·3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를 말한다.

근엥에 밤에 야학을 헷주.(아니, 그러니까 (웃음) 우리가 그러니까 졸업을 못하고 하니까 동네 선생님 빌려서 밤에 야학을 했지.)

102007 @ 예.(예.)

102007 #1 야학소양.(야학소요.)

102007 @ 예.(예.)

102007 #1 딴 부락에 헤신디 말아신디 모르쿠다마는.(딴 부락에 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2007 @2 헷수다.(했습니다.)

102007 #1 방에서덜.(방에서들.)

102007 @ 으.(으.)

102007 #1 게 야학허는디게 그때 아옵 사람이 헷주. 처녀덜 아옵 사람이. 겐디 선생님 흔 사름 빌어근에. 옛날 막 한문허고 무시거허곡 헌 어른. 노인네 빌엉 허민. 게민 방에 책상 놩은에 뱅허게 모여앚아근에 허민 영영 다 영 책상 아래 발 찔러야 여기 여라이 앚을 거 아니우과?(게 야학하는데 그때 아홉 사람이 했지. 처녀들 아홉 사람이. 그런데 선생님 한 사람 빌려서. 옛날 아주 한문 하고 무엇하고 한 어른. 노인네 빌려서 하면. 그러면 방에 책상 놔서 뱅하게 모여앉아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책상 아래 발 찔러야 여기 여럿이 앉을 거 아닙니까?)

102007 @ 으.(으.)

102007 #1 경 헤영 발 찔러 앚이민. 이 양반이 놀렐 자꾸 가. 고등학교 뒌 사람이. 겐디 딴 남자덜은 가민 총각덜은 가민 좀 막 개구쟁이허곡 막 저 공부허곡 허는디 방헤도 허는디, 이 양반은 얌전. 게 벨명이 얌전과라수다게.(그렇게 해서 발 찔러 앉으면. 이 양반이 놀러를 자꾸 가. 고등학생 된 사람이. 그런데 딴 남자들은 가면 총각들은 가면 좀 막 개구쟁이하고 아주 저 공부하고 하는데 방해도 하는데, 이 양반은 얌전. 게 별명이 '얌전과'였습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총각인 때.(총각일 때.)

102007 @ 음.(음.)

102007 #1 얌전허게 헤근엥에 몰르는 학생, 저 글 몰른 사름 이시민 어떵 허는 거옌 가르켜주고 무시거 허곡 막 경 경 허여. 겡 이젠 어떤 때 쉬험 내민, 이 사름이 쉬험질 내민 우리가 시험 봥 갈 거 아니. 게민 잘헌 사름안티 막 선물 책도 상 강 주곡 막 그치룩 허고. 경 헨 허는디 어느 날 ᄒᆞ른, ᄒᆞ루ᄎᆞ냑은 화장실 가는디 아, ᄌᆞ름에 영 헨 나왓어. 나 간 영 나오난 펜질 줍디다.(얌전하게 해서 모르는 학생, 저 글 모른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무엇 하고 아주 그렇게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젠 어떨 때 시험 내면, 이 사람이 시험질 내면 우리가 시험 봐서 갈 거 아니. 그러면 잘한 사람한테 막 선물 책도 사서 가서 주고 막 그처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하룻저녁은 화장실 가는데 아, 꽁무니에 이렇게 해서 나왔어. 나 가서 이렇게 나오니까 편질 줍디다.)

102007 @ 음.(음.)

102007 #1 나 뭐닌게? 거 무시거 쥠시? 허멍 허난. 이거 저 익어 보렌.(나 뭐냐고? 거 무엇 주고 있니? 하면서 하니까. 이거 저 읽어 보라고.)

102007 @ 으.(으.)

102007 #1 나 말덴 허난. 게민 이디 던져 불켄. 그 "무뚱[83]에 마당에 던져 내불켄, 게민 딴 사름덜 봉그민 소문날 거 아니?(나 말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던져 내버리겠다고. 그 '무뚱'에 마당에 던져 내버리겠다고, 그러면 딴 사람들 주우면 소문날 거 아니?)

102007 @ 음.(음.)

102007 #1 던져뒁 가 부난 걸 안 가졍 올 수가 잇수가? 안 가졍?(던져두고 가 버리니까 걸 안 가져서 올 수가 있습니까? 안 가져서?)

102007 @2 웃음.(웃음.)

102007 #1 걸 가지민 소문날 거난에, 아 경 허멍 허단 보난에 그걸 자꾸자꾸 선물도 헤왕. 옛날에 막 저 꽃쁘로치.(걸 가지면 소문날 거니까, 아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걸 자꾸자꾸 선물도 해와서. 옛날에 아주 저 꽃브로치.)

102007 @ 으음.(으음.)

102007 #1 쁘루치허곡 마후라 고운 거.(브로치하고 머플러 고운 거.)

102007 @ 음.(음.)

102007 #1 그런 것도 상 왕은에 그런 거 그냥 주지 아녕 영 허민 이 양말 속에이 영 허게 톡 허게.(그런 것도 사서 와서 그런 거 그냥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 양말 속에 이렇게 하게 톡 하게.)

102007 @ 끼어줘?(끼어줘?)

102007 #1 경 앚이민 뀌어줘.(그렇게 앉으면 끼어줘.)

102007 @ 으.(으.)

102007 #1 경. 집의 강 보민 그거라.(그렇게. 집에 가서 보면 그거야.)

102007 @ 음.(음.)

102007 #1 게난 이젠 홀 수 엇이 이젠 오 년을 계약헷어양.(그러니까 이젠 할 수 없이 이젠 오 년을 계약했어요.)

102007 @ 음.(음.)

102007 #1 오 년 후에랑 결혼을 허자. 우리 딱 오 년 허면은 저 스물셋, 스물넷 될 거니까 그때랑 허자 헌 거라.(오 년 후에는 결혼을 하자. 우리 딱 오 년 하면은 저 스물셋, 스물넷 될 거니까 그때랑 하자 한 거야.)

102007 @ 음.(음.)

102007 #1 경 헌 건디 그대로 아무도 몰르게, 방안에 앚은 친구들이 아무도 몰른 거라. 아무도 몰르곡 나도 막 장난으로 막 헤 불주게.(그렇게 한 건데 그대로 아무도 모르

83) '무뚱'은 마당의 방이나 현관 따위의 앞을 말한다. 방 앞이면 '방무뚱'이 되고, 부엌 앞이면 '정지무뚱'이 된다.

게, 방안에 앉은 친구들이 아무도 모른 거야. 아무도 모르고 나도 막 장난으로 막 해 버리지.)

102007 @ 으.(으.)

102007 #1 그 아부지 이름이 현○○, ○○인디.(그 아버지 이름이 현○○, ○○인데.)

102007 @ 으.(으.)

102007 #1 씨아부지 이름이. 게민 막 무시거 헐 땐 이 ○○이 아덜아, ○○이 아덜아 허멍게 그치룩 허멍 허연. 게난 아무도 눈치 못 챈 거라.(시아버지 이름이. 그러면 아주 무엇 할 땐 이 ○○이 아들아, ○○이 아들아 하면서 그처럼 하면서 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챈 거야.)

102007 @ 으.(으.)

102007 #1 아, 겐디 흔 해 두 해 삼 년 넘언에 사 년짜 뭰디양 중진을 오기 시작허난예, 우리 큰언니 씨아부지도 왓지 옆에 이장님도 오지.(아, 그런데 한 해 두 해 삼 년 넘어서 사 년째 됐는데요 중진을 오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큰언니 시아버지도 왔지 옆에 이장님도 오지.)

102007 @ 다섯?(다섯?)

102007 #1 예. 아이 그치룩 허고 오고양, 나가 그땐 둑세기 사레, 개랄 사레 그 장스로, 개랄 장시 우리 친구 언니허곡 둘리가 난산리로 어디로 개랄 사레 가민양 아이 막 총각덜이, 혼번은 난산리 간에 둑새기 잇수가? 둑새기 폽서 허난 예, 잇수다, 잇수다 허멍 총각이 막 올레더레 따라오멍 둑새기 상 갑서. 상 갑서 아, 경 헹 보건 장난으로양 둑새기[84] 이녁 스나이난에 둑새기.(예. 아니 그처럼 하고 오고요, 내가 그땐 달걀 사러, 달걀 사러 그 장사로, 달걀 장사 우리 친구 언니하고 둘이가 난산리로 어디로 달걀 사러 가면요 아니 막 총각들이, 한번은 난산리 가서 달걀 있습니까? 달걀 파십시오 하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면서 총각이 막 오래로 따라오면서 달걀 사서 가십시오. 사서 가십시오 아, 그렇게 해서 보건 장난으로요 불알 이녁 사나이니까 불알.)

102007 @2 음음음.(웃음)(음음음.(웃음.))

102007 #1 (웃음) 아이, 그 사름이 이젠 나 봐지민 가끔 질레서 보민 나만 막 웃주.((웃음) 아니, 그 사람이 이젠 나 봐지면 가끔 길에서 보면 나만 막 웃지.)

102007 @ 으, (웃음).(으, 웃음.)

102007 #1 아이고, 츰. (웃음). 그치룩 헨 허멍 헤나곡. 아니, 솔직히 어디 나가민 막 스나이덜이 경. 웃음.(아이고, 참. (웃음). 그처럼 해서 하면서 했었고. 아니, 솔직히 어디 나가면 막 사나이들이 그렇게. (웃음).)

102007 @ 예쁘곡 허난 얼마나 헷일 거야.(예쁘고 하니까 얼마나 했을 거야.)

102007 #1 경 헤여, 막. 경 그치룩 허멍 헨 헌디 중진애비가 다섯이 온 거 아니우과?(그렇게 해, 막. 그렇게 그처럼 하면서 해서 했는데 중신아비가 다섯이 온 거 아닙니까?)

102007 @ 으.(으.)

---

84) 여기에서 '둑세기'는 남자의 고환인 즉, '불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102007 #1 ᄒᆞ루 쳇 번 온 땐 서이가 완 딱 앚이난 어떵 헐 거우과? 아, 겡 이젠 그 다음은 말헷어.(하루 첫 번 올 땐 셋이 와서 딱 앉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그래서 이젠 그다음은 말했어.)

102007 @ 음.(음.)

102007 #1 이만저만헨에 막 중진을 오난 부모덜이든 형제간이든 막 다 그디만 가렌 허곡 이걸 어떵 하민 좋을 거넨 허난에 이젠. 속솜혜연에 기자 들언, 들음만 헨 간게양 아 뒷날은 보낸 거 아니우과?(이만저만해서 막 중매를 오니까 부모들이든 형제간이든 막 다 거기만 가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고 하니까 이젠. 조용해서 그저 들어서, 들음만 해서 가더니요 아 뒷날은 보낸 거 아닙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중진애비가 중진애빌 보내십디다게. 보내난 이젠 대답을 헤집니까게. 아이고, 경 허연 이시난 또 딴 사름이 또 왓어. 무시거 아무 말도 못헨. 아, 경 헤연 완 아이 나 씨집 안 가쿠다. 안 가쿠다 경 헤뒨에 그냥 가 부난에 우리 저 오빠가, 세 번째 오빠가 허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네ᄀᆞ라영. 이디 막 털엇수다. 막 반대헷주. 우리 큰오빠네나 셋오빠네나 막 반대헷주. 우리 어머니도 막 반대헷주. 우리 작은오빠가 어머니네안티, 게난 난 뒤에 간 문 에염에 간 산 들엇어양. 웃음.(중신아비가 중신아빌 보냈습디다. 보내니까 이젠 대답을 해집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서 있으니까 또 딴 사람이 또 왔어. 무엇 아무 말도 못해서. 아, 그렇게 해서 와서 아니 나 시집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두고 그냥 가 버리니까 우리 저 오빠가, 세 번째 오빠가 하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더러. 여기 막 틀었습니다. 아주 반대했지. 우리 큰오빠네나 둘째오빠네나 아주 반대했지. 우리 어머니도 아주 반대했지. 우리 작은오빠가 어머니네한테, 그러니까 난 뒤에 가서 문 옆에 가서 서서 들었어요. 웃음.)

102007 @ 웃음.(웃음.)

102007 #1 아이그, 진짜. 겐 들으난에 우리 작은오빠가 허는 소리가 주컬라근엥에 ○○일 줘 불주, 이제 만약에 안 주민 큰 챙피 보곡 크게 싸움덜 납니덴.(아이고, 진짜. 그래서 들으니까 우리 작은오빠가 하는 소리가 주려거든 ○○일 줘 버리지, 이제 만약에 안 주면 큰 창피 보고 크게 싸움들 납니다고.)

102007 @ 음.(음.)

102007 #1 경 허는 거라. 셋째오빠가. 아 게난 이제 나가 ᄒᆞ꼼 이젠. 웃음. 경 헤신디 고등학교 선생 뒌 사름은 아, 다 갑장이주.(그렇게 하는 거야. 셋째오빠가.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이젠. 웃음.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선생 된 사람은 아, 다 갑장이지.)

102007 @ 음.(음.)

102007 #1 뒌 사름은 딱 오란 나ᄀᆞ라 쪼금 얘기허겐 헨에 벳겻듸 나가난에 ᄒᆞᆫ짝에 간 허는 소리가 이녁이 절대 이제 ○○이영 싸왕은 자기가 이길 테니까 자기안티 이제.(된 사람은 딱 와서 나더러 조금 얘기하겠다고 해서 바깥에 나가니까 한쪽에 가서 하는 소리가 이녁이 절대 이제 ○○이랑 싸워서는 자기가 이길 테니까 자기한테 이제.)

102007 @ 와라.(와라.)

102007 #1 으, 와라. 가민 가만히 선생 각시난 ᄀᆞ만이 살 거고, 육지, 육지 강 허주게. 경 헐 거니까 저 아무개ᄀᆞ라도 ○○이보다는 호강스럽게 살게 헤줄 테니까 나만 승낙을 허라는 거라. 게건 나가 허는 말이 이기지 못헌덴, 그 집이 이길 사름이 누가 이시닌게. 절대 이기지 못헌덴 허난 이제 아 게도 이겨지켄. 아이고, 이기지 못허난 포기허렌게. 난 연애헌 것도 아니고, 너영 연애헌 것도 아니고, 그냥 영 중진에비 보내여봔 영 허는 거난에 포기헤산덴 안 뒌덴 허난. 경 허멍 헨 그 ᄉᆞ나이 멀렷단양, 우리 아주 멋지게 헷수다. 그 ᄉᆞ나이는 부신랑[85]으로 허고예, 우리 결혼헐 때.(으, 와라. 가면 가만히 선생 각시니까 가만히 살 거고, 육지, 육지 가서 하지. 그렇게 할 거니까 저 아무개보고도 ○○이보다는 호강스럽게 살게 해줄 테니까 나만 승낙을 하라는 거야. 그러건 내가 하는 말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 집에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 그래도 이겨지겠다고. 아이고, 이기지 못하니까 포기하라고. 난 연애한 것도 아니고, 너랑 연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중신아비 보내어놔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포기해야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서 그 사나이 말렸다가요, 우리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그 사나이는 '부신랑'으로 하고요, 우리 결혼할 때.)

102007 @2 으음.(으음.)

102007 @ 웃음.(웃음.)

102007 #1 또 남자영 좋아헷단 여준양, 남잔 좋안 아녀도 여자가 좋아헷던 여잔양 부신부[86]로 헨에 우리 결혼헷수다.(또 남자랑 좋아했던 여자는요, 남잔 좋아서 않아도 여자가 좋아했던 여자는요 '부신부'로 해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102007 @ 으음.(으음.)

102007 #1 사진 ᄀᆞ찌 찍으난 ᄀᆞ찌 뒌 거 아니.(사진 같이 찍으니까 같이 된 거 아니.)

102007 @ 으.(으.)

102007 #1 우리 진짜 멋지게 헷어. 그게 이젠 소문이 나분 거라. ○○이영 연애헴다. 연애허건 디가 이거 사 년 지나고 오 년차 뒛다, 경. 아이고, 그땐 우리 어머니네영 막 세상에 으, 그 집의 강 너 살아질 중 아느냐, 살아질 중 아느냐? 허멍 막 그치룩. 봅서게, 난 이경 삽니다. 그 집의 강 놈덜 다 ᄆᆞ수운 집인 난 삽니다, 난 삽니다 허멍. 아, 솔직히 나도 흔 번은 안 살젠도 헤낫수다마는양 진짜 나난 이견 살앗주게.(우리 진짜 멋지게 했어. 그게 이젠 소문이 나버린 거야. ○○이랑 연애하고 있다. 연애한 지가 이거 사 년 지나고 오 년째 됐다, 그렇게. 아이고, 그땐 우리 어머니네랑 아주 세상에 으, 그 집에 가서 너 살아질 줄 아느냐, 살아질 줄 아느냐? 하면서 아주 그처럼. 보십시오, 난 이겨서 삽니다. 그 집에 가서 남들 다 무서운 집엔 난 삽니다, 난 삽니다 하면서. 아, 솔직히 나도 한 번은 안 살려고도 했었습니다만 진짜 나니까 이겨서 살았지.)

102007 @ 으.(으.)

102007 #1 나는 말을 딱딱 헤지고 이레저레 안 헤졍 그냥 곧이곧대로 난 나가주,

85) '부신랑'은 신랑을 보조해 주는 신랑 친구다.
86) '부신부'는 신부 곁에서 도와주는 신부 친구다.

원. 아무, 아무광이라도. 진짜 곧장 나가는 때문에 ᄒᆞ꼼 그걸 죽이면은 귀염 받을 건디. (나는 말을 딱딱 해지고 이리저리 안 해져서 그냥 곧이곧대로 난 나가지, 전혀. 아무, 아무하고도. 진짜 곧장 나가는 때문에 조금 그걸 죽이면 귀염 받을 건데.)

102007 @ 음.(음.)

102007 #1 딱딱 ᄀᆞᆯ아부는 따문에 경 허는 사름 누게 좋아헙니까게.(딱딱 말해 버리는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경 허멍 헨에 결혼헌 후젠양 씨어머니영 일 년 살고 딴 메누리덜은 헤도, 막 호강 받앗주. 씨집인 가난.(그렇게 하면서 해서 결혼한 후에는요 시어머니랑 일 년 살고 딴 며느리들은 해도, 아주 호강 받았지. 시집엔 가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씨집인 가난 경 허난 막 ᄀᆞᆫ는 걸 보난 동서덜이 막 안 좋아셥디다게. 작은메누리.(시집엔 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말하는 걸 보니까 동서들이 아주 안 좋았습디다. 작은며느리.)

102007 @ 음, 씨어머니랑.(음, 시어머니랑.)

102007 #1 아니, 이녁에 둘리끼리.(아니, 이녁에 둘끼리.)

102007 @ 아아.(아아.)

102007 #1 큰동세 셋동세가.(큰동서 둘째동서가.)

102007 @ 아.(아.)

102007 #2 족은동세만 저치룩 씨어멍네 씨아방 사랑만 받곡 우린 어디 저치룩 ᄒᆞᆫ 번 헤봐시니 허멍예.(작은동서만 저처럼 시어머니네 시아버지 사랑만 받고 우린 어디 저처럼 한 번 해봤느냐 하면서요.)

102007 @ 어어.(어어.)

102007 #1 씨집간 후제도 아덜 군인 가분 거난에양 밤의 놀레 갓다 오민 영 맞방[87]에 살앗주. 어머닌 이 방에 자곡 난 이 방에 자민, 솔쩨기 문 ᄋᆞᆯ앙 들어와 가민 야, 저 족은메누리 완댜? 헤영, 예. 허민, 그 책상 아래 감저 궈단 놧저. 그거 먹엉 자라. 우리 씨어머니가 감저 구는 건 췌고 기술자라.(시집간 후에도 아들 군대 가 버린 거니까요 밤에 놀러 갔다 오면 이렇게 '맞방'에 살았지. 어머닌 이 방에 자고 난 이 방에 자면, 살짝 문 열어서 들어와 가면 야, 저 작은며느리 왔니? 해서 예 하면, 그 책상 아래 고구마 구어다가 놨다. 그거 먹고 자라. 우리 시어머니가 고구마 굽는 건 최고 기술자야.)

102007 @ 으음.(으음.)

102007 #1 카지도 아녀고 어떵도 안 허곡 췌고 기술자.(타지도 않고 어떡하지도 안 하고 최고 기술자.)

102007 @ 아.(아.)

102007 #1 손지덜 키울 때 무시거 헐 때 문딱 감저 궈당 멕연. 그치룩 허멍 헤연 막 호강헤연. 일 년 살아도 밥 ᄒᆞᆫ 번 아녀 봔.(손주들 키울 때 무엇 할 때 몽땅 고구마 구

87) '맞방'은 맞은편에 있는 방을 말한다. 즉, 건넌방을 말한다.

워다가 먹였어. 그처럼 하면서 해서 아주 호강했어. 일 년 살아도 밥 한 번 안 해 봤어.)

102007 @ 아아.(아아.)

102007 #1 아예 밥을 아녀 봔. 씨집의서. 아침이 자당 일어낭 부억에 강 보민, 막 재주게.(아예 밥을 안 해 봤어. 시집에서.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보면, 아주 재지.)

102007 @ 음.(음.)

102007 #1 씨어머니가 워낙 재여 놓난 밥 다 허곡 가가민 큰 엿날 쒜솟듸 물 데와 근엥에 세수허렌 세멘기에 물 거려 놩 강 세수허라, 세수허라 세수헹 들어강 보민 밥상 믄 출려 놩. 난 설거지벳긔 아년. 일 년 살아도.(시어머니가 워낙 재어 놓으니까 밥 다 하고 가가면 큰 옛날 쇠솥에 물 데워서 세수하라고 세숫대야에 물 떠 놓아서 가서 세수허라, 세수허라 세수해서 들어가서 보면 밥상 몽땅 차려 놓아서. 난 설거지밖에 않았어. 일 년 살아도.)

102007 @ 으으.(으으.)

102007 #1 진짜 씨집이 간에 진짜 일 년 동안은 호강허게 살앗수다. 경 허연 살단 보난 이거 영 뒌 거.(진짜 시집에 가서 진짜 일 년 동안은 호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된 거.)

102008 @ 으으, 그때 사주는 봣지예?(으으, 그때 사주는 봤지요?)

102008 #1 보주게, 사주사.(보지, 사주야.)

102008 @ 사주는 어떵 나옵디가?(사주는 어떻게 나옵디까?)

102008 #1 사주는 막 좋앗주기.(사주는 아주 좋았지.)

102008 @ 어어.(어어.)

102008 #1 겐디 저 아방 출세헌 것도 나 운으로 뒛젠. 사주에는.(그런데 저 아버지 출세한 것도 나 운으로 됐다고. 사주에는.)

102008 @2 음.(음.)

102008 @ 으음.(으음.)

102008 #1 나 운으로 뒛젠. 아방은 뱀띠고 섣돌그뭄날이난에 엉덕 소곱게 ᄀᆞ만히.(나 운으로 됐다고. 아버지는 뱀띠고 섣달그믐날이니까 언덕 속에 가만히.)

102008 @ 으음.(으음.)

102008 #1 뱅뱅 사려졍 잇일 때 아니우과게? 철로 봐도. 겐디 나는 말띠고 삼월 열으드렛날 태어나고 허니까 새 풀 막 돋을 때 나고 시간을 잘 택헨 나왓젠 허는 거라.(뱅뱅 사려져서 있을 때 아닙니까? 철로 봐도. 그런데 나는 말띠고 삼월 열여드레 날 태어나고 하니까 새 풀 막 돋을 때 나고 시간을 잘 택해서 나왔다고 하는 거야.)

102008 @ 음.(음.)

102008 #1 어디 혼디 가민 막 당신 뭐 뭔 당신이 관록 먹을 뭐가 잇어게. 마누라 잘헌 통에 마누라 덕분에 관록 먹엄주게. (웃음).(어디 함께 가면 막 당신 뭐 무슨 당신이 관록 먹을 뭐가 있어? 마누라 잘한 통에 마누라 덕분에 관록 먹고 있지. (웃음).)

102009 @ 으음, 게민 그때 이제 혼수품허고 결혼 예물 어떤 것들 헤난마씨?(으음, 그러면 그때 이제 혼수품하고 결혼 예물 어떤 것들 했었어요?)

102009 #1 그때 시절엔양, 막 잘 출려사 궤 ᄒᆞ나 허곡 찬장 ᄒᆞ나만 헨 가낫수다. 이불은 기자 세 개만 허고.(그때 시절에는요, 아주 잘 차려야 궤 하나 하고 찬장 하나만 해서 갔었습니다. 이불은 그저 세 개만 하고.)

102009 @ 이불 세 개 허고.(이불 세 개 하고.)

102009 #1 으 경 허멍 가나신디 나는 저 궤 두 개허곡.(으 그렇게 하면서 갔었는데 나는 저 궤 두 개하고.)

102009 @2 으.(으.)

102009 #1 찬장 하나허고.(찬장 하나하고.)

102009 @ 음.(음.)

102009 #1 이불이영 뭐영 놈보다는 더 출령 갓주. 왜냐허면은 물질 잘헌덴 허는 집안에.(이불이랑 뭐랑 남보다는 더 차려서 갔지. 왜냐하면 물질 잘한다고 하는 집안에.)

102009 @ 으.(으.)

102009 #1 경 벌멍 다 무시거 허여시닌 헐 거고 허난 밧도 ᄒᆞ나 구벡 평짜리 하나 산, 사고 처년 때.(그렇게 벌면서 다 무엇 했느냐고 할 거고 하니까 밭도 하나 구백 평짜리 하나 사서, 사고 처년 때.)

102009 @ 음.(음.)

102009 #1 경 허멍 헨에 씨집가수다게.(그렇게 하면서 해서 시집갔습니다.)

102009 @ 게난 그 밧도 가졍 가고?(그러니까 그 밭도 가져서 가고?)

102009 #1 밧은 가졍 간에 헷단 아방[88] 조합장 날 때 풀아먹어 볏주. 아 (웃음).(밭은 가져서 가서 했다가 남편 조합장 날 때 팔아먹어 버렸지. 아 (웃음).)

102009 @ 웃음.(웃음.)

102009 #1 그 옛날에양, 십ᄉᆞ만 원에 삿는디 밧을.(그 옛날에요, 십사만 원에 샀는데 밭을.)

102009 @ 음.(음.)

102009 #1 구벡 평짜리. 십ᄉᆞ만 원에 삿는디 아방헐 때 풀젠 허난 천ᄉᆞ벡 주켄 헙디다게.(구백 평짜리. 십사만 원에 샀는데 남편 할 때 팔려고 하니까 천사백 주겠다고 합디다.)

102009 @ 음.(음.)

102009 #1 게난 아방은 말덴만 헤도 나가 아니 십ᄉᆞ만 원짜리 천ᄉᆞ벡 주켄 허는 걸 이거 풀민 뒙니다, 뒙니다. 막 나가 우견 그걸 풀앗수게게.(그러니까 남편은 말다고만 해도 내가 아니 십사만 원짜리 천사백 주겠다고 하는 걸 이거 팔면 됩니다, 됩니다. 아주 내가 우겨서 그걸 팔았습니다.)

102009 @ 으음.(으음.)

102009 #1 경 헤연 헷단에 그 대충 또 사줍디다. 나 이름에.(그렇게 해서 했다가 그

88) 여기에서 '아방'은 아이의 아버지, 즉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충 또 사줍디다. 내 이름에.)

102009 @ 경 헤근에 그 조합장 당선 시키젠 밧 풀안?(그렇게 해서 그 조합장 당선 시키려고 밭 팔았어요?)

102009 #1 으게. 그땐 막 돈 쓸 때라 부난양.(으. 그땐 아주 돈 쓸 때라 버리니까요.)

102009 @ 아.(아.)

102009 #1 아, 그땐 무사 경 돈을 썻수가? 우리 상대가 저 인심으로 뒈여낫주.(아, 그땐 왜 그렇게 돈을 썼습니까? 우리 상대가 저 인심으로 되었었지.)

102009 @ 음.(음.)

102009 #1 상대방이 돈 막 일본 고모가 대여줜 돈 막 한 사름이라. 한 사름인디 집의서 그 선거위원장덜 앚앙은엥에 내보내곡 무시거 허멍 헤신디 부락에서가 전체 청년덜이 일어산 거라양. 이 사름은 헤야 뒌다, 이겨야 뒌다 헨에 청년덜이 싹 짜 놘에 허난 예, 이디 이시민양, 어느 김 서방 김씨 조름에서는 돈 가젼에 지금 삼달리 갓다, 신산리 갓다, 쫓가라. 어디 갓다, 신천리 갓다 막 전화 막 오는 거 아니? 게믄 청년덜이 이녁 차 가졍은엥에 거 막 다울리레. 돈 주지 못허게 막 다울리레. 게난 혼 번, 마지막 날은 낼 저 선거면은 어제.(상대방이 돈 막 일본 고모가 대어줘서 돈 아주 많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인데 집에서 그 선거위원장들 앉아서 내보내고 무엇 하면서 했는데 부락에서가 전체 청년들이 일어선 거예요. 이 사람은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해서 청년들이 싹 짜 놓아서 하니까요, 여기 있으면요, 어느 김 서방 김씨 뒤에는 돈 가져서 지금 삼달리 갔다, 신산리 갔다, 쫓아라. 어디 갔다, 신천리 갔다 막 전화 막 오는 거 아니? 그러면 청년들이 이녁 차 가져서 거 막 내쫓으러. 돈 주지 못하게 막 내쫓으러. 그러니까 한 번, 마지막 날은 낼 저 선거면 어제.)

102009 @ 음.(음.)

102009 #1 오널은 안 나뎅기주. 어제 이 저낙은 안 나뎅겨도 어제 저냑. 차 전부 다 나간 다울리단 보난에 저 어디냐? 성읍리[89] 그 오름끄장 쪼까간 다울리난 그 차가 막 도망가가난 조름만 쫓간 간 심언 보난 이녁 쪽 사름을 경 쫓간 간.(오늘은 안 나다니지. 어제 이 저녁은 안 나 뎅겨도 어제 저녁. 차 전부 다 나가서 쫓다 보니까 저 어디냐? 성읍리 그 오름까지 쫓아가서 쫓다 그 차가 막 도망가가니까 꽁무니만 쫓아서 가서 잡아서 보니까 이녁 쪽 사람을 그렇게 쫓아서 갔어.)

102009 @2 웃음.(웃음.)

102009 #1 성읍리 간 심어 보난 이녁 쪽 사름을 심언. 그땐양 멧 억, 멧 억썩 들이멍 헷어.(성읍리 가서 잡아 보니까 이녁 쪽 사람을 잡았어. 그땐요 몇 억, 몇 억씩 들이면서 했어.)

102009 @ 음. 기구나.(음. 기구나.)

102009 #1 돈 헤당은에 진짜 돈 이렇게 헤단 딱 이디 다 놔둠수로. 나 손으로 다 갈 땐 주곡 허멍. 에에.(돈 해다가 진짜 돈 이렇게 해다가 딱 여기 다 놔두고서. 내 손으로 다 갈 땐 주고 하면서. 에에.)

89) '성읍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말한다.

102009 @ 아아.(아아.)

102009 #1 그땐 집단으로 막 밤의 돈 봉투 돌릴 때 아니우과?(그땐 집단으로 막 밤에 돈 봉투 돌릴 때 아닙니까?)

102009 @ 경 헤연 조합장 멘들곡?(그렇게 해서 조합장 만들고?)

102009 #1 경 헤연 쳇 번 헐 때.(그렇게 해서 첫 번 할 때.)

102009 @2 그때가 옛날.(그때가 옛날.)

102009 #1 옛날만 기우과? 아이그.(옛날만 그렇습니까? 아이고.)

102009 @ 멧 살에 조합장 헌 거우과?(몇 살에 조합장 한 겁니까?)

102009 #1 마흔 멧 솔에 헷주. 으. 어릴 때 헷주.(마흔 몇 살에 했지. 으. 어릴 때 했지.)

102009 @ 어릴 때.(어릴 때.)

102009 #1 으, 그 전에는 협신상사[90], 한일소주[91].(으, 그 전에는 협신상사, 한일소주.)

102009 @ 으.(으.)

102009 #1 거기 총무과장으로 오 년 근무헤연.(거기 총무과장으로 오 년 근무했어.)

102009 @ 음.(음.)

102009 #1 그거 근무허기 전에 처음 성산읍 조합, 농협 생긴, 생긴 것이 동부리조합[92]이엔 헨에 농협 셍겻수다. 그 집을 짓으멍.(그거 근무하기 전에 처음 성산읍 조합, 농협 생긴, 생긴 것이 '동부리조합'이라고 해서 농협 생겼습니다. 그 집을 지으면서.)

102009 @ 음.(음.)

102009 #1 짓으멍 ᄀᆞ찌 들어간 ᄀᆞ찌 짓언에 거기 지배인으로.(지으면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지어서 거기 지배인으로.)

102009 @ 음.(음.)

102009 #1 농협에, 동부리조합에 지배인으로 흔 팔 년 근무헤단. 그거 헨 이젠 잇당 무시거 허게 뒈난 나완에 협신상사에서 들어오렌 하도 허난 거기 헨 흔 오 년 근무헷단. 어릴 때부터 기자 직장만 뎅겨 부난에 무시거 살렴을 안 살아봣수다.(농협에, '동부리조합'에 지배인으로 한 팔 년 근무하다가. 그거 해서 이젠 있다가 무엇 하게 되니까 나와서 협신상사에서 들어오라고 하도 하니까 거기 해서 한 오 년 근무했다가. 어릴 때부터 그저 직장만 다녀 버리니까 무엇 살림을 안 살아봤습니다.)

102009 @ 아아, 밧일도 안 헤봣구나?(아아, 밭일도 안 해봤구나?)

102009 #1 밧일도 나만 헷주. 아녀 봣수다게. 그치룩 헨에 헤연에 동성택시. 거 주 나오난에양, 주 나오난 이젠 부락에 훼의 담보허연 허난에 헐 사름이 이제 엇다. 으, 현○○벳긔 없다. 게난 그디 이젠 주도권을 잽현. 경 헤연 들어간. 차 다섯 개 나와낫수다.(밭일도 나만 했지. 안 해 봤습니다. 그처럼 해서 해서 동성택시. 거 주 나오니까요, 주 나오니까 이젠 부락에 회의 담보해서 하니까 할 사람이 이제 없다. 으, 현○○밖에

90) '협신상사'는 회사 이름이다.
91) '한일소주'는 제주에 있는 소주 회사 이름, 또는 상품명이다.
92) '동부리조합'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조합 이름이다.

없다. 그러니까 거기 이젠 주도권을 잡혀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 차 다섯 개 나왔었습니다.)

102009 @ 음.(음.)

102009 #1 차 다섯 개 나오난에 거기 들어간에 거기서도 안 나올 건디 들어간에 에, 마흔일곱 대 만들안에 이 저 농협에 조합장 허젠, 그거 허기 전에 사고가 난 거라.(차 다섯 개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도 안 나올 건데 들어가서 에, 마흔일곱 대 만들어서 이 저 농협에 조합장 하려고, 그거 하기 전에 사고가 난 거야.)

102009 @ 음.(음.)

102009 #1 함덕 즘순디, 해넌디 간오단에 우리 택시로 그 헤녀를 사골 내와벳서.(함덕 잠순데, 해넌데 다녀오다가 우리 택시로 그 해녀를 사골 내어버렸어.)

102009 @ 으음.(으음.)

102009 #1 사골 내와 부난 마치 그 해녀가 또 마침 사망을 헤여 벼서양. 이제는 그런 법이 엇입디다. 양, 사장칩의 시체를 시껑 오켄양 막 연락 온 거 아니우꽝? 오늘 저냑 시껑 오켄. 아니 무사 사장네 집의 시껑 옵니까게. 암만 셍각을 헤봐도 기자 해결을 헤야주. 아니 그 죽은 사름 시껑 아졍 돌아뎅긴덴, 요새민게 시꺼 오켄 오난에양 진짜 겁난에양 문 다 더꺼뒨예 저 우리 동세네 집의 간 난 곱앗어.(사골 내어버리니까 마치 그 해녀가 또 마침 사망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법이 없습디다. 여보세요, 사장집에 시체를 실어서 오겠다고요 막 연락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 실어서 오겠다고. 아니 왜 사장네 집에 실어서 옵니까. 암만 생각을 해봐도 그저 해결을 해야지. 아니 그 죽은 사람 실어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요새면 실어서 오겠다고 오니까요 진짜 겁나서요 문 다 닫아두고요 저 우리 동서네 집에 가서 난 숨었어.)

102009 @ 음.(음.)

102009 #1 아방은 저 조합에서 안 들어오고.(남편은 저 조합에서 안 들어오고.)

102009 @ 음.(음.)

102009 #1 경 허난 아닌 게 아니고 오란양 시체사 시껀사 와신디 기자 사름만 와신디 완양 막 문 두드리멍양 차 서너 개 오란 막 뎅기단에 헨 가변에 엇이난에 헨 피헤벳젠 허멍 가변, 경 헤나난양 아이고, 이거 차 운, 아이고, 사장은 안 뒈켄. 경 허연 그땐 줄 풀앗주게. 풀아뒨에 저 조합장을 헷주게.(그렇게 하니까 아닌 게 아니고 와서요 시체야 실어서야 왔는지 그저 사람만 왔는지 와서요 막 문 두들기면서요 차 서너 개 와서 막 다니다가 해서 가버려서 없으니까 해서 피해버렸다고 하면서 가버려서,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아이고, 이거 차 운, 아이고, 사장은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땐 줄 팔았지. 팔아두고 저 조합장을 했지.)

102010 @ 음, 그랫구나. 경 허고 삼춘, 그 결혼식은 어디서 헌 거라마씨?(음,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삼촌, 그 결혼식은 어디서 한 거예요?)

102010 #1 집에서, 집에서.(집에서, 집에서.)

102010 @ 집의서? 음.(집에서? 음.)

102010 #1 우리 결혼식날이 여섯 사름 헷어. 신랑 신부 헨 열두 사름이 헷주. 우리

부락에만.(우리 결혼식날이 여섯 사람 했어. 신랑 신부 해서 열두 사람이 했지. 우리 부락에만.)

102010 @ 완전 날 좋은 날이에.(완전 날 좋은 날이요.)

102010 #1 우리 부락에만 음력으로 섣둘 초이틀 날인디 여섯 사름 헷는디 다 가마 타고 다 헨 가도 우린 신식으로 헌다고. 저 돗ᄀᆞ레 시끄는 세렉스[93] 잇지 아녀우과? 옛날.(우리 부락에만 음력으로 섣달 초이틀 날인데 여섯 사람 했는데 다 가마 타고 다 해서 가도 우린 신식으로 한다고. 저 돼지거름 싣는 '세렉스' 있지 않습니까? 옛날.)

102010 @2 예.(예.)

102010 #1 땀뿌찬[94]가 무신 돗ᄀᆞ레 시껑 뎅기는. 그 차 빌언에 멘사포 쓰고 헤연에 경 헨에 신식으로 헷주.(덤프찬가 무슨 돼지거름 실어서 다니는. 그 차 빌려서 면사포 쓰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신식으로 했지.)

102010 @ 멘사포.(면사포.)

102010 #1 으, 멘사포 처음으로 난. 성산 저 미용사 그 강 이름이 강○○인디 그 사름이 미용산디 처음으로 그 멘사포ᄁᆞ장 출련에 나가 마수헷주. 그 면사포를.(으, 면사포 처음으로 나서. 성산 저 미용사 그 강 이름이 강○○인데 그 사람이 미용산데 처음으로 그 면사포까지 차려서 내가 마수했지. 그 면사포를.)

102010 @ 으음.(으음.)

102010 #1 경 헤연 허고 또 반지도, 예물 반지도 아방이 군인[95]서양, 그 월급 얼마씩 준덴 헙디다. 저 군대 가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만 ᄀᆞ르치당 제대헷수게게.(그렇게 해서 하고 또 반지도, 예물 반지도 남편이 군대에서요, 그 월급 얼마씩 준다고 합디다. 저 군대 가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만 가르치다가 제대했습니다.)

102010 @2 음.(음.)

102010 #1 경 허난에 그디서 그 주는 돈 모연에양 반지 다 헨 와습디데게. 경 헨에 나가 금반지 받으멍.(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 주는 돈 모여서요 반지 다 해서 왔습디다. 그렇게 해서 내가 금반지 받으면서.)

102010 @ 으음. 겡 그 예물로 헨 금반지 받안?(으음. 그래서 그 예물로 해서 금반지 받아서?)

102010 #1 으.(으.)

102010 @2 게난 선택은 잘 헤신 거네마씨.(그러니까 선택은 잘 하신 거네요.)

102010 @ 웃음.(웃음.)

102010 @2 예, 선택을 잘 하신 거.(예, 선택을 잘 하신 거.)

102010 #1 예게, 거는 잘헌 거주. 하도 집안이 막 와 헌 집안이라 부난 거주.(예, 거는 잘한 거지. 하도 집안이 막 '와' 한 집안이여 버리니까 거지.)

102010 @ 너무 와 헤 부니까 비교뒈 부니까 안 뒌 거 아니?(너무 '와' 해 버리니까 비교돼 버리니까 안 된 거 아니?)

---

93) '세렉스'는 작은 트럭의 이름이다.
94) '땀뿌찬가'는 '덤프차인가'의 의미다. '땀뿌차'의 '땀뿌'는 영어 '덤프'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95) 제보자는 여기에서 '군인'을 '군대'의 의미로 썼다.

102010 #1 나는 수줍고 뭐허게 살아나난 그 집의 강 쫄령[96] 못산덴.(나는 수줍고 뭐하게 살았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쫄려서 못산다고.)

102010 @ 음.(음.)

102010 #1 사름마다 쫄령 아이고, 느 그 집의 강 못산다. 못산다. 또 놈덜이 뒤에서 막 골을 때 나가 경헷주. 영헌 집의 강 나가 살아야 그게 제라헌 거다.(사람마다 쫄려서 아이고, 느 그 집에 가서 못산다. 못산다. 또 남들이 뒤에서 막 말할 때 내가 그렇게 했지. 이런 집에 가서 내가 살아야 그게 제대로 된 거다.)

102010 @ 으.(으.)

102010 #1 요 집의 사름덜토 사름 뒈고.(요 집에 사람들도 사람 되고.)

102010 @ 음.(음.)

102010 #1 그 생각을 듭디다.(그 생각을 듭디다.)

102010 @ 우리 집도 사람 뒈고.(우리 집도 사람 되고.)

102010 #1 으. 요런 디 강 이경 살아야 이게 진실헌 거 닮다. 경 생각헨에양.(으. 요런 데 가서 이겨서 살아야 이게 진실한 거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요.)

102010 @ 삼춘이 어렷을 때부터 막 으망졋구나.(삼촌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야무졌구나.)

102010 #1 아이 으망진덴 말은 그자 들엇어. 베우지 못헤 부난 거주.(아니 야무진다는 말은 그저 들었어. 배우지 못해 버리니까 거지.)

102010 @ (웃음) 겐, 결혼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라, 게믄?((웃음) 그래서, 결혼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믄?)

102010 #1 집의서. 이 마당에서 영 저.(집에서. 이 마당에서 이렇게 저.)

102010 @2 팍 허는 거로예?('팍' 하는 거로요?)

102010 #1 마당에서 영 거세기 헤근에.(마당에서 이렇게 거시기 해서.)

102010 @ 병풍 헹은에.(병풍 해서.)

102010 #1 으.(으.)

102010 @ 그 결혼사진은 잇어마씨?(그 결혼사진은 있어요?)

102010 #1 결혼사진은 앨범에 다 잇인디 우리 저디 저 무신거 혼인지 헐 때 그련에 부쪄난 거만 잇주.(결혼사진은 앨범에 다 있는데 우리 저기 저 무엇 혼인지 할 때 그려서 붙였던 거만 있지.)

102010 @ 으.(으.)

102010 #1 앨범 앗아내사.(앨범 가져내야.)

102010 @ 예, 나중에 앨범도 보게마씨?(예, 나중에 앨범도 보게요?)

102010 #1 이거 저 그 무시걸로 부쪄난 거. 혼인지 헐 때.(이거 저 그 무엇으로 붙였던 거. 혼인지 할 때.)

102010 @ 아아.(아아.)

102010 #1 이거 결혼사진은 그거.(이거 결혼사진은 그거.)

---

96) '쫄령'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여'라는 의미다.

102010 @ 잘도 잘 셍겨나신게. 알앗수다.(잘도 잘 생겼었는데. 알았습니다.)
102010 #1 장게갈 때 줄언에 막 궂어난.(장가갈 때 줄어서 아주 궂었었어.)
102010 @ 아이, 게도 완전 미남인게.(아니, 그래도 완전 미남인데.)
102010 #1 사름덜은 잘 셍겻주.(사람들은 잘 생겼지.)
102010 @1 알앗수다. 나중에 앨범일랑 보고.(알았습니다. 나중에 앨범일랑 보고.)
102010 @2 앨범 잇수가?(앨범 있습니까?)
102010 #1 예.(예.)
102010 @2 언제 보여줍서예.(언제 보여주세요.)
102010 #1 ᄀᆞ만 서봐.(가만 있어봐.)
102010 @2 저 혼인지에서.(저 혼인지에서.)
102010 @ 거기에서 뭐 헷나봐. 축제헐 때 이거를 밑에 바탕화면으로 헤서. (잡담 생략) (거기에서 뭐 했나봐. 축제할 때 이거를 밑에 바탕화면으로 해서.)
102010 #1 앨범도 무신 ᄒᆞ나 두 개믄 허주만은 천지주.(앨범도 무슨 하나 두 개면 하지만은 천지지.)
102011 @ 게난, 게영은에 그치룩 헹 이제 결혼허고. 아까 신혼살림은 어디서 헌 거? 잘 안집서.(그러니까, 그래서 그처럼 해서 이제 결혼하고. 아까 신혼살림은 어디서 한 거? 잘 앉으십시오.)
102011 #1 그 집. 그디. 그 초가집 산 디서게.(그 집. 거기. 그 초가집 산 데서.)
102011 @ 신혼살림부떠?(신혼살림부터?)
102011 #1 일 년 잇당 오난에게.(일 년 있다가 오니까.)
102011 @ 으. 일 년.(으. 일 년.)
102011 #1 제대헨 오난. 처음 제대 딱 헨 오난에. 오기 날짜 아난에 나보고 그디 어머니네가 가렌 허영. 거기 간 메칠 잣주, 나만.(제대해서 오니까. 처음 제대 딱 해서 오니까. 오기 날짜 아니까 나보고 거기 어머니네가 가라고 해서. 거기 가서 며칠 잤지, 나만.)
102011 @ 음.(음.)
102011 #1 경 헤신디 제대헨 딱 오난 어멍네 집의 들어간 거 아니. 아덜이.(그렇게 했는데 제대해서 딱 오니까 어머니네 집에 들어간 거 아니. 아들이.)
102011 @ 음.(음.)
102011 #1 안 가켄, 이디 안 가켄. 누게가 ᄯᅳ로 살렌 헨 그디 집 상 가시닌 허멍 안 오켄 막. 아이고, 저 놈의 새끼? 아니, 아니 안 가켄. ᄯᅳ로 안 살켄만 헴시네 허멍. 내 붑서, 나만 살주 경 허멍 허난 아니 와져게 오주.(웃음)(안 가겠다고, 여기 안 가겠다고. 누가 따로 살라고 해서 거기 집 사서 갔느냐 하면서 안 오겠다고 막. 아이고, 저 놈의 새끼? 아니, 아니 안 가겠다고. 따로 안 살겠다고만 하고 있다 하면서. 내 버리십시오, 나만 살지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아니 와져, 오지.(웃음))
102011 @ 게난 그 제대헹 올 때 반지 헤 준 거 아니면? 결혼헐 때.(그러니까 그 제대해서 올 때 반지 해 준 거 아니면? 결혼할 때.)

102011 #1 아니 결혼헐 때.(아니 결혼할 때.)

102011 @ 아, 결혼헐 때 반지 헤 준 거 어?(아, 결혼할 때 반지 해 준 거 어?)

102011 #1 군인 간 제대헨 오** 도세기 잡는 날 오후에야 와 부난 막 새스방이 올 거냐 말 거냐 막 난리 나낫주.(군대 가서 제대해서 오** 돼지 잡는 날 오후에야 와 버리니까 막 새신랑이 올 거냐 말 거냐 아주 난리 났었지.)

102011 @ 으음. 게영 제대헤영 오멍은에 결혼헌 거구나?(으음. 그래서 제대해서 오면서 결혼한 거구나?)

102011 #1 아니지게, 휴가.(아니지, 휴가.)

102011 @ 아, 휴가로 결혼헌 거?(아, 휴가로 결혼한 거?)

102011 #1 으.(으.)

102011 @ 휴가 헹 왕은에.(휴가 해서 와서.)

102011 #1 메칠 안 줘 부난 게난 결혼헨에 ᄒᆞ루 살안 갓주.(며칠 안 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하루 살아서 갔지.)

102011 @ 으, ᄒᆞ룻 만에 가 분 거예? 씨어머니랑 산 거? 삼춘은.(으, 하루 만에 가 버린 거요? 시어머니랑 산 거? 삼촌은.)

102011 #1 으.(으.)

102012 @ 게믄 그 결혼헤영 아이들은 멧마씨?(그러면 그 결혼해서 아이들은 몇이에요?)

102012 #1 우리?(우리?)

102012 @ 예.(예.)

102012 #1 삼 남매.(삼 남매.)

102012 @ 삼 남매.(삼 남매.)

102012 #1 아들 둘 딸 하나.(아들 둘 딸 하나.)

102012 @2 아.(아.)

102013 @ 혹시 씨집살이도 헙디가?(혹시 시집살이도 합디까?)

102013 #1 씨집살인 안 헤 봣주게, 막 게. 일 년을 씨어머니네영 ᄒᆞᆫ 집의 살앗는디 그렇게 사랑 받앗주게.(시집살인 안 해 봤지, 아주 게. 일 년을 시어머니네랑 한 집에 살았는데 그렇게 사랑 받았지.)

102013 @ 으.(으.)

102013 #1 밥 ᄒᆞᆫ 뗄 안 헤 보고. 일 년 동안.(밥 한 뗄 안 해 보고. 일 년 동안.)

102013 @ 뭐 욕 들어보거나 이런 것도 아녀 보고?(뭐 욕 들어보거나 이런 것도 안 해 보고?)

102013 #1 아니 그런 것도 엇주기.(아니 그런 것도 없지.)

102013 @ 그런 건 엇어예.(그런 건 없다고요.)

102013 @2 밥 한 번도 안 헤 봅디가? 설거지만 허고.(밥 한 번도 안 해 봅디까? 설거지만 하고.)

102013 #1 예, 일 년 동안 밥 ᄒᆞᆫ 번 안 헤 봔.(예, 일 년 동안 밥 한 번 안 해 봤어.)

102013 @ 결혼헌 다음에도 뭐 씨어머니영 뭐 고부갈등 이런 건 엇언?(결혼한 다음에도 뭐 시어머니랑 뭐 고부갈등 이런 건 없었어?)

102013 #1 씨어멍이영 그런 것 엇엇고.(시어머니랑 그런 것 없었고.)

102013 @ 음.(음.)

102013 #1 씨어멍이영 그런 거 엇엇는데 육지 갈 때 작은씨누이 ᄒᆞ나 같이 둘앙 갓주.(시어머니랑 그런 거 없었는데 육지 갈 때 작은시누이 하나 같이 데려서 갔지.)

102013 @ 음.(음.)

102013 #1 같이 둘앙 갓는데 그땐 충청도 그 등대섬[97]이엔 헌 디 가민 저 미역덜을 다 가졍 가낫수다. 강 풀앙 미역 깝은 여기서 얼만 안 주난 그디 가졍 가민 풀아근에 쓰주게. 게난 우리 씨누이 신랑이 이물사공으로 가고 요 동네 또 우리 친척 어른이 베에 선장, 기관장으로 가고 영 혜연 가졍 가신디 딱 ᄒᆞᆫ 사름이 덜도 더도 말앙 딱 스무 근씩 가져간 거라예. 게난 해녀가 그때 열두 사람이라낫수다게. 그 바당 가운디 등대섬에 간, 섬에, 등대지기 허는 아저씨가 군산을 잘 다니난.(같이 데려서 갔는데 그땐 충청도 그 '등대섬'이라고 한 데 가면 저 미역들을 다 가져서 갔었습니다. 가서 팔아서 미역 값은 여기서 얼만 안 주니까 거기 가져서 가면 팔아서 쓰지. 그러니까 우리 시누이 신랑이 이물사공으로 가고 요 동네 또 우리 친척 어른이 배에 선장, 기관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가져서 갔는데 딱 한 사람이 덜도 더도 말고 딱 스무 근씩 가져간 거에요. 그러니까 해녀가 그때 열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등대섬'에 가서, 섬에, 등대지기 하는 아저씨가 군산을 잘 다니니까.)

102013 @ 으.(으.)

102013 #1 그 우리 저 이물사공 어른이 그 군산 뎅기는 아저씨안티 미역을 팔아다 달렌 헷어.(그 우리 저 이물사공 어른이 그 군산 다니는 아저씨한테 미역을 팔아다 달라고 했어.)

102013 @ 음.(음.)

102013 #1 군산 가근에. 게 그 사름을 준 거라양. 주난 이 아저씨는 그걸 가졍 간에 술집의 간 술 먹고 뭐 허단 보난 돈을 오꼿 다 써 분 거라.(군산 가서. 게 그 사람을 준 거예요. 주니까 이 아저씨는 그걸 가져서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뭐 하다가 보니까 돈을 그만 다 써 버린 거야.)

102013 @ 음.(음.)

102013 #1 써 부난에 집의도 돌아오질 안 헌 거라양. 우리는 멩질 때 뒈가난 우린 와야 뒐 거고. 제주 와야 뒐 거고, 그 아저씨는 안 오고. 게난 그 할머니가, 거기 부인이 가시민 이제 오민 돈 혜근엥에 부찔 거난 경 허렌 헨에 경 혜연 들어온 거 아니우과? 들어오난 무신 돈을 부쪄 줍니까? 뭐 헙니까게. 게연 이젠 무주건 사공이 책임젼 헌 거난 기자 우리 씨누이 서방이 책임젼 헌 거난 그디서 돈 와도 그 어른이 알앙 해결헤 줄 테주 허연 헌 거. 게영 느닷없이 ᄒᆞ루는 그 씨누이네 집의서 보리밧 허레 돗걸름 놓레 간 오란 저냑 먹는디 그 우리 족은씨누이가 막 아이가 지금 저 칠십 다 뒈어가도 원 분

97) '등대섬'은 충청도에 있는 섬 이름이다.

실 몰릅니다게.(써 버리니까 집에도 돌아오질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명절 때 돼가니까 우린 와야 될 거고. 제주 와야 될 거고, 그 아저씨는 안 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거기 부인이 갔으면 이제 오면 돈 해서 부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들어오니까 무슨 돈을 부쳐 줍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젠 무조건 사공이 책임져서 한 거니까 그저 우리 시누이 서방이 책임져서 한 거니까 거기서 돈 와도 그 어른이 알아서 해결해 줄 테지 해서 한 거. 그래서 느닷없이 하루는 그 시누이네 집에서 보리밭 하러 돼지거름 놓으러 가서 와서 저녁 먹는데 그 우리 작은시누이가 아주 아이가 지금 저 칠십 다 되어가도 전혀 분수를 모릅니다.)

102013 @ 으음.(으음.)

102013 #1 족은뚤로 난양 막 어멍이고 아방이고 오빠덜이고 막 기자 허는 냥 내병 키와나난 아무 것도 몰라. 지금도. 지금도 제사 때 오민 자기 먹고 싶은 거만 마음에 든 확확 먹어 병은에 놈이랑 먹거니 말거니 원 그치룩 분시 몰릅니다게. 경 헌 아이라. 경 헌 아이가 들어완에 나보고 언니, 메역 깝 나 거 춧앙 썻덴 헨게마는 메역 깝을 드렌. 게연 나가 기가 멕힐 거 아니. 나 메역 깝도 잇고 우리 아시 것덜토 잇고 느 걸, 느만 또 메역깝을 주느니? 아니옌 허난에 기엔 줄안게, 기엔 줄안게 막 그치룩 허여게. 읏 춤 이럴 리가 잇나? 게난 이젠 우리 씨아버지가 저 그 족은뚤 때리젠 몽뎅일 들러 아젼에.(작은딸로 나서요 아주 어머니고 아버지고고 오빠들이고 아주 그저 하는 대로 내버려서 키웠었으니까 아무 것도 몰라. 지금도. 지금도 제사 때 오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마음에 든 확확 먹어 버려서 남이랑 먹거니 말거니 원 그처럼 분수 모릅니다. 그렇게 한 아이야. 그렇게 한 아이가 들어와서 나보고 언니, 미역 값 내 거 찾아서 썼다고 하더니만 미역 값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힐 거 아니. 나 미역 값도 있고 우리 아우 것들도 있고 네 걸, 너만 또 미역 값을 주느니? 아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말하던데, 그렇다고 말하던데. 막 그처럼 해. 아 참 이럴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젠 우리 시아버지가 저 그 작은딸 때리려고 몽둥일 들어 가지고.)

102013 @ 으.(으.)

102013 #1 집 저끗디난 뚤레 집. 들러 아졍 오는 거를 난 나, 에, 어림은 어렷주.(집 곁이니까 딸의 집. 들어 가지고 오는 거를 난 나, 에, 어리기는 어렸지.)

102013 @ 웃음.(웃음.)

102013 #1 이 놈의 새끼 어디 가시넨 허멍 뚤안티 혜영 들어오는 거를 나 뚜리카부덴 정제 안퉈 무뚱디레 둘아낫어양. 경 헨 보난 그 족은뚤 집의서 앙앙 허단 오난에 나안티 왕 뭐엔 허카 부덴 쪼까 온 걸게. 경 혜영 혜연 헌 것이 아니 다 헨 놘에 집의 가당 보걸랑은엥에 우리 씨어머니가 우리 큰씨아지방이영 막 저 흔 사름 뭐허민 펜벡허레 막 그런 거 잇주게. 경 허난 막 벌떼 집안이엔 허주게. 에에, 저 거세기 춧안 쓰난에 써부난에. 어머니 허는 소리가.(이 놈의 새끼 어디 갔느냐고 하면서 딸한테 해서 들어오는 거를 나 때릴까봐 부엌 '안퉈' '무뚱'으로 달아났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작은딸 집에서 앙앙 하다가 오니까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할까보아 쫓아 온 걸. 그렇게 해서 해서 한 것이 아니 다 해서 놔서 집에 가다가 보거든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큰시주버니랑 막

저 한 사람 뭐하면 편벽하러 막 그런 거 있지. 그렇게 하니까 막 벌떼 집안이라고 하지. 에에, 저 거시기 찾아서 쓰니까 써 버리니까 어머니 하는 소리가.)

102013 @ 으음.(으음.)

102013 #1 큰아덜ᄀᆞ라 촛안 써 부난에 저 누게 ᄀᆞᆯ으난 저영 헴시네, ᄃᆞ렌 헴시네. 이젠 딱 영 허는 거라. 올레 탁 가난 경 허는 거라. 난 넘어가야 뒐 건디. 딱 들어갓주기.(큰아들보고 찾아서 써 버리니까 저 누구 말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네, 달라고 하고 있네. 이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오래 탁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난 넘어가야 될 건데. 딱 들어갔지.)

102013 @ 으.(으.)

102013 #1 들어간에 말 잘헴수다게. 난 씨어멍이고 뭐 씨아지방이고양 아년 거는양 막 원 원 그치룩 헨. 아니, 무사 나 것도 잇고 우리 아시 것덜토 잇고 놈도 다 잇인디 무사 가이 것만 메역 깝을 또 줍니깡. 그건 또 어떵 헌 소리우껜. 이치룩은 허지 맙센. 영 허니까. 나가 그땐 ᄀᆞᆯ앗어. 영 허니까 느 그 집의 씨집강 못 산다. 이 말을 내가 ᄀᆞᆯ아 벳어양.(들어가서 말 잘하고 있습니다. 난 시어머니고 뭐 시아주버니고요 않은 거는요 막 원 원 그처럼 했어. 아니, 왜 내 것도 있고 우리 아우 것들도 있고 남도 다 있는데 왜 걔 것만 미역 값을 또 줍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한 소리입니까라고. 이처럼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땐 말했어. 이렇게 하니까 너 그 집에 시집가서 못 산다. 이 말을 내가 말해 버렸어요.)

102013 @ 으.(으.)

102013 #1 사름마다 그 집의 강 못 산다 못 산다 헤도 나가 이 집이 왕 살아야 이 어른덜토 사름될로구나 헌 ᄆᆞ음을 먹언 씨집을 와신디 바로 요거우껜.(사람마다 그 집에 가서 못 산다 못 산다 해도 내가 이 집에 와서 살아야 이 어른들도 사람 되겠구나 한 마음을 먹어서 시집을 왔는데 바로 요겁니까라고.)

102013 @ 음.(음.)

102013 #1 바로 요 식이우껜. 이젠 알앗수덴. 경 허연 이젠 그게 이젠 그대로 그 씨누이광은 뭐 뒌 거 아니? 게연 그 씨누이가 처음 씨집간에 저치룩 무시거 헌 짓만 허난에 씨어멍 뒈도 궂어라 허곡 뭐허곡 허난 안 살앗어양.(바로 요 식입니까라고. 이젠 알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젠 그게 이젠 그대로 그 시누이와는 뭐 된 거 아니? 그래서 그 시누이가 처음 시집가서 저처럼 무엇 한 짓만 하니까 시어머니 돼도 궂어라 하고 뭐하고 하니까 안 살았어요.)

102013 @ 으.(으.)

102013 #1 안 살안 허난 이젠 두 번차 또 이젠 씨집을 보내게 뒈난 나ᄀᆞ라 둘러리 가렌 ᄒᆞ건. “나 둘러리 안 가쿠다. 두 번차 무사 갑니까? 처음 갈 때 가는 거주. 두 번찬 안 가쿠덴.” 경 허멍 이젠 안 갓어. 안 가난, “아이도, 경, 경 헤도게 느가 가살 처레 아니가?” “아니, 나 마우덴.” 경 허멍 나가 들러리도 안 간 기대로 저 예식장에 가온 사름인디. 게난 그 하르방이 이제 봄 나난양, 봄 나난에 왓업디다게.(안 살아서 하니까 이젠 두 번째 또 이젠 시집을 보내게 되니까 나보고 들러리 가라고 하니까, “나 들러리

안 가겠습니다. 두 번째 왜 갑니까? 처음 갈 때 가는 거지. 두 번짼 안 가겠습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젠 안 갔어. 안 가니까, "아이도, 그렇게, 그렇게 해도 네가 가야할 차례 아니가?" 아니, "나 말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들러리도 안 가서 그대로 저 예식장에 다녀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봄 되니까요, 봄 되니까 왔습디다.)

102013 @ 으음.(으음.)

102013 @2 돈 가졍?(돈 가져서?)

102013 #1. 아니. 왓어. 허난. 아이고, 우리 씨누이 서방이, 그 하씨주게, 그 아저씨가. 하씨 왓젠 허멍 둘앙 온 거. 아이고, 어딜로 나옵디가? 아이고, 나 살려주젠 왓수다, 고맙수다, 고맙수다.(아니. 왔어. 하니까. 아이고, 우리 시누이 서방이, 그 하씨지, 그 아저씨가. 하씨 왔다고 하면서 데려서 온 거. 아이고, 어디로 나옵디까? 아이고, 나 살려주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2013 @ 음.(음.)

102013 #1 돈 없어요. 돈 안 가지고 벌어서 물라고 왓어요. 아이고, 기자 와도 좋우다.(돈 없어요. 돈 안 가지고 벌어서 물려고 왔어요. 아이고, 그저 와도 좋습니다.)

102013 @ 웃음.(웃음.)

102013 #1 기자 와도 좋우다. 해명만 헤주민 뒛수다, 뒛수다 헤연. 경 허연 이젠 그 아저씨가 어디 집을 빌어주민 메역 허제[98] 때 막 빵 허영 풀민 메역 흔 낭 아졍강 주민 빵 하나씩 주멍 헤근에 마줌[99]허는 사름이영 줌녀들이영 막 사먹주게. 경 헤낫어. 그 아저씨가 저 집을 ᄒᆞ나 빌어주민 빵도 헤영 풀곡 막걸리도 풀곡 경 헤근에 벌어근에 물어주켄.(그저 와도 좋습니다. 해명만 해주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젠 그 아저씨가 어디 집을 빌려주면 '미역 허제' 때 막 빵 해서 팔면 미역 한 나무 가져가서 주면 빵 하나씩 주면서 해서 '마줌'하는 사람이랑 잠녀들이랑 막 사먹지. 그렇게 했었어. 그 아저씨가 저 집을 하나 빌려주면 빵도 해서 팔고 막걸리도 팔고 그렇게 해서 벌어서 물어주겠다고.)

102013 @ 으음.(으음.)

102013 #1 경 헤연 씨누이 서방허고 둘리가 막 뎅견 이젠 저 밑에 강 빌려내엿어. 빌언 내난 이제 메역 허제 삼월에 허지 아녑니까게. 그 메역 허제 헨에 다 끗나난에 다 헤녀덜 다 모이렌 허렌, 돈 주켄.(그렇게 해서 시누이 서방하고 둘이가 막 다녀서 이젠 저 밑에 가서 빌려냈어. 빌려서 내니까 이제 '미역 허제' 삼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 '미역 허제' 해서 다 끝나니까 다 해녀들 다 모이라고 하라고, 돈 주겠다고.)

102013 @ 음.(음.)

102013 #1 게 이젠 성산 아이덜이영 고성 아이덜이여 다 전화헤연 불런에 모이렌

98) '미역 허제'는 는 미역을 캘 수 있게 허가하는 일을 말한다. 지역 또는 사람에 따라서 '메역 해경' 또는 '메역 허채'라고도 한다.

99) '마줌'은 '마중'의 의미다.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여 미역 따위를 따서 갯가로 올리면 밖으로 나르기 위해서 가는 일을 말한다. '마줌'은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서 '마중' 또는 '풍증'이라고 하고, 그런 일을 '마줌ᄒᆞ(허)다', '마중ᄒᆞ(허)다', '풍중ᄒᆞ(허)다'라고 한다.

헨에 우리 씨누이네 집의 그 사공네 집의.(그래서 이젠 성산 아이들이랑 고성 아이들이 다 다 전화해서 불러서 모이라고 해서 우리 시누이네 집에 그 사공네 집에.)

102013 @ 음.(음.)

102013 #1 그디 헨 다 모였어. 이치룩 마리에 빙허게 다 앚안에 그 아저씨허고 사공허고 기관장 영 앚은디 영 허난 우리 ○○○○○가 온 거라. 나가 이젠 돈을 내놘 세여가관, 저양, 나 혼마디 허쿠다. 이거 나 나 춧앙, 받아먹은 돈을 받아먹엇젠 헨에 저 우리 ○○○가 오만 지랄 다 헌 돈인디 자이부터 문저 줍서.(거기 해서 다 모였어. 이처럼 마루에 빙하게 다 앉아서 그 아저씨하고 사공하고 기관장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 온 거야. 내가 이젠 돈을 내놔서 세어가니까, 저요, 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나 나 찾아서, 받아먹은 돈을 받아먹었다고 해서 저 우리 ○○○가 오만 지랄 다 한 돈인데 쟤부터 먼저 주십시오.)

102013 @ 으.(으.)

102013 #1 자이 막 급허난에 춧아먹엇젠 날 닥달헷수게. 자이부떠 줍서 허난. 또 그거 (웃음) 지네 형부도 세영 가이부떠 문저 돈을 준 거 아니.(쟤 아주 급하니까 찾아먹었다고 날 닦달했습니다. 쟤부터 주십시오. 허난. 또 그거 (웃음) 자기네 형부도 세어서 걔부터 먼저 돈을 준 거 아니.)

102013 @ 음.(음.)

102013 #1 아이 주난양, 나가 허는 말이, 야, 나안티 미안허우덴 허라.(아니 주니까요, 내가 하는 말이, 야, 나한테 미안합니다라고 해라.)

102013 @ 으.(으.)

102013 #1 미안허우덴 혼마디만 허라. 으, 나 놈의 말 들언 몰란 경 골앗수덴 허영 혼마디만 허라 허난 잉 허멍 그자 가 불어. 간게 혹끔 시난 우리 ○○○○가 그 돈을 가젼 완예, 무뚱에 완 대문[100] 올안에 이 마리더레 착 데끼멍 웨 이제 이 거 나한테 허는 말이지. 이 사름 가운디서 자기네 ○○○을 쳉피 줫느냐?(미안합니다고 한마디만 해라. 으, 나 남의 말 들어서 몰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고 해서 한마디만 해라. 하니까 잉 하면서 그저 가 버려. 가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우리 ○○○○가 그 돈을 가져서 와서요, '무뚱'에 와서 '대문' 열어서 이 마루로 착 던지면서 왜 이제 이 거 나한테 하는 말이지. 이 사람 가운데서 자기네 ○○○을 창피 줬느냐?)

102013 @ 으으음.(으으음.)

102013 #1 구체 줫느냐. 경 헤여. 경 허관 아니 구체 아니우다게. 나 춧안 먹엇젠 헌 돈이라 부난 자이 막 바쁘난 자이부떠 문저 줍서. 우리 다 돌아가젠 허민 열 시 열혼 시 뭴 거난 경 허연 문저 줍센 헌 거주 이거 체별헌 것이 아니우덴. 이치룩 허멍 허난 이젠 ○○○이 확허게 돌아산 이젠 가 분 거라.(구박 줬느냐. 그렇게 해. 그렇게 하니까 아니 구박 아닙니다. 나 찾아서 먹었다고 한 돈이어 버리니까 쟤 아주 바쁘니까 쟤부터 먼저 주십시오. 우리 다 돌아가려고 하면 열 시 열한 시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주십사고 한 거지 이거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고. 이처럼 하면서 하니까 이젠 ○○○○

100) '대문'은 집 밖에서 마루로 들어가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문이다.

가 확하게 돌아서서 이젠 가버린 거야.)

102013 @ 음.(음.)

102013 #1 웃음. 가 부난 아이덜은 즘녀 아이덜.(웃음. 가 버리니까 아이들은 잠녀 아이들.)

102013 @ 으.(으.)

102013 #1 아이고, 언니. 언니, 아이고 우리 씨집 안 가쿠다. 우리 씨집 안 가쿠다. 이치룩 허는 거우과? 씨집가민 경 허는 거우과? 우리 안 가쿠다, 안 가쿠나. 웃음. 경 허연 그거 그 갈등 잇엇주 원 원. **** 몰른 거. 게난 우리 셋동세네영 큰동세영 경 골아. 그 ○○○○○ 따문에 그 ○○○이영 그때 그치룩 헷주 잘도 호강 받아수다.(아이고, 언니. 언니, 아이고 우리 시집 안 가겠습니다. 우리 시집 안 가겠습니다. 이처럼 하는 겁니까? 시집가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웃음. 그렇게 해서 그거 그 갈등 있었지 전혀 전혀. **** 모른 거. 그러니까 우리 둘째동서네랑 큰동서랑 그렇게 말해. 그 ○○○○○ 때문에 그 ○○○○랑 그때 그처럼 했지 잘도 호강 받았습니다.)

102013 @ 아.(아.)

102013 #1 게난 경 골읍니다. 동세덜도. 는 물질 잘헤 부난, 물질 잘헤 부난 호강 받앗저. 겐 나가 이젠 아판에 물질을 못허난 나 다 이신디서 경 헷주. 나 이 집의 씨집오젠 그때 막 물질을 날쎄게 헤져서양.(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동서들도. 넌 물질 잘해 버리니까, 물질 잘해 버리니까 호강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젠 아파서 물질을 못하니까 나 다 있는데서 그렇게 했지. 나 이 집에 시집오려고 그때 아주 물질을 날쌔게 해졌어요.)

102013 @ 으으.(으으.)

102013 #1 이 제주서든 육지서든 경 허난 이디서도 가민 이만썩 헌 전복은 다 잡고 고기 물톳 ᄀᆞ튼 거.(이 제주서든 육지서든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가면 이만큼씩 한 전복은 다 잡고 고기 감성돔 같은 거.)

102013 @ 으.(으.)

102013 #1 아이고, 겁나게 경 헤나신디 이 집의 씨집오젠 경 헤낫수다 허멍 골앙 웃어낫주.(아이고, 겁나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 집에 시집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면서 말해서 웃었었지.)

102013 @ 으.(으.)

102013 #1 우리 저 그때는 학교바당[101] 메역바당[102]은 풀멍 사고 헐 때우다. 게난 이디 저 멘장 아지방은 저짝 신양리 ᄀᆞ음[끄음]에 사고 우리는 신산리 ᄀᆞ음에 바당을 사서양. 게난 우리 큰씨아지방이 오란에 놈덜 보민 형제가 심벡헤근엥에 바당 삿젠 웃지 아니 허느넨. 막 경 허멍 이젠 그걸 막 웨멍 무신걸 헙디다게. 경 헤도 이젠 기자 아니 심벡허멍 사민 성제가 입찰을 부뜬 거면은 심벡헷젠 허주마는 경 아녀우과게.(우리

101) '학교바당'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학교 기금 따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바다'를 말한다.

102) '메역바당'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한 바다를 말한다. 즉, 미역이 많이 자라는 바다다.

저 그때는 '학교바당' '메역바당'은 팔면서 사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면장 아주버니는 저쪽 신양리 경계에 사고 우리는 신산리 경계에 바다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시아주버니가 와서 남들 보면 형제가 경쟁해서 바다 샀다고 웃지 아니 하느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젠 그걸 막 외면서 무엇을 합디다. 그렇게 해도 이젠 그저 아니 경쟁하면서 사면 형제가 입찰을 붙은 거면 경쟁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102013 @ 으으.(으으.)

102013 #1 성제가 입찰을 부뜬 거민 심벡헷젠 허주마는 귀역이 틀리니까.(형제가 입찰을 붙은 거면 경쟁했다고 하지만 구역이 다르니까.)

102013 @ 으으.(으으.)

102013 #1 아, 귀역이 신산리 ᄀᆞ음허고 신양리 ᄀᆞ음인디 누가 그치룩 헌 소릴 헙니껜. 건 아지방 입에서 ᄀᆞᆫ는 말이우다. 그자 이치룩 헨 헨 헤신디. ᄒᆞᆫ 번에 막 그것에 웨우데견 이젠 하도 부에 난 나가 츰지 못혜연 씨아지방네 집의 갓어. 우리 안팟거리 살앗낫수다게.(아, 구역이 신산리 경계하고 신양리 경계인데 누가 그처럼 한 소릴 합니까고. 건 아주버니 입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그저 이처럼 해서 해서 했는데. 한 번에 막 그것에 외어서 이젠 하도 부아 나니까 내가 참지 못해서 시아주버니네 집에 갔어. 우리 안팎채 살았었습니다.)

102013 @ 으.(으.)

102013 #1 나가 집 산 옆에 가 부난 헷주. 씨어멍네 살 때 안팟거리 사난. 경 헨 이제 딱 간 보난에 그 우리 그 저 사공 헤난 씨누이 서방허고 저냑덜을 먹엄서. 겐 딱 갓어. 밥 먹으라. 나, 밥 먹으레 오지 아녀수다. 아주버니. 그땐 ᄀᆞᆯ앗주게. 나 성질은양 ᄆᆞᆯ띠난 건지예.(내가 집 산 옆에 가 버리니까 했지. 시어머니네 살 때 안팎채 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가서 보니까 그 우리 그 저 사공 했던 시누이 서방하고 저녁들을 먹고 있어. 그래서 딱 갔어. 밥 먹어라. 나, 밥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니. 그땐 말했지. 내 성질은요 말띠니까 건지요.)

102013 @ 웃음.(웃음.)

102013 #1 츰지도 못허곡양 놈 애ᄃᆞᆯ카부다 뭣도 아녀지곡. 아년 건 팍팍 쏘아져 붑니께게.(참지도 못하고요 남 애달까보다 뭣도 안해지고. 안 해서 건 팍팍 쏘아져 버립니다.)

102013 @ 으.(으.)

102013 #1 아주버니양, 웃어른인, 저 나안티 우리 밑에 사름안티 대우받을컬랑양 웃어른 노릇 헙서. 나가. 웃어른 노릇 헙서. 큰아주버님에는 아버지 엇이면은 씨아버지나 마찬가지 이치룩 허민 세상 사름 다 웃고양, 어디 이럴 수가 잇는 거우과? 양, 앞으로, 앞으로 우리안티 대우받으컬랑 아지방엔 헤영 대우받으컬랑 잘 셍각허영 똑바로 행동헙서양. 딱 그 말 ᄀᆞᆯ앗어.(아주버니요, 웃어른인, 저 나한테 우리 밑에 사람한테 대우받겠으면 웃어른 노릇 하십시오. 내가. 웃어른 노릇 하십시오. 큰아주버님은 아버지 없으면 시아버지나 마찬가지 이처럼 하면 세상 사람 다 웃고요, 어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여보세요, 앞으로, 앞으로 우리한테 대우받겠으면 아주버니라고 해서 대우받겠으면 잘

생각해서 똑바로 행동하십시오. 딱 그 말 말했어.)

102013 @ 음.(음.)

102013 #1 경 허난 이젠 우리 씨누이 서방이 저 사름 잘못은 헷어게. 뭔 말을 그치룩 허여게. 이젠.(그렇게 하니까 이젠 우리 시누이 서방이 저 사람 잘못은 했어. 뭔 말을 그처럼 해. 이젠.)

102013 @ 음.(음.)

102013 #1 씨누이 서방이 경 골아.(시누이 서방이 그렇게 말해.)

102013 @ 음.(음.)

102013 #1 경 허난, 아니, 그치룩 안 혜영 싸와집니까게. 원 이상허여, 우리 씨아지방. 소문난 사름.(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처럼 안 해서 싸워집니까. 원 이상해, 우리 시아주버니. 소문난 사람.)

102013 @ 음.(음.)

102013 #1 경 안 헹 싸와집니까게. 아녕 거 헷젠 헤사 싸움이 뒈주. 게난 경허관 나가 쌉젠 경헙디가? 쌉젠 경헤도 건 도리가 아닙주. 경 허멍 헨 오라난에 그루후젠 원 씨아지방이고 뭐고 꼼짝 원 원.(그렇게 안 해서 싸워집니까. 안 한 거 했다고 해야 싸움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싸우려고 그렇게 합디까? 싸우려고 그렇게 해도 건 도리가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서 해서 와서 그 이후에 원 시아주버니고 뭐고 꼼짝 원 원.)

102013 @ 으음.(으음.)

102013 #1 그 씨누이 둘아뎅기단 경 씨어멍이영 그땐 뭐 헷주. 아무 것도 모를걸.(그 시누이 데려다니다가 그렇게 시어머니랑 그땐 뭐 했지. 아무 것도 모를걸.)

102013 @2 가끔 씨집살이노래에 보다 보면 씨누이는 졸락.(가끔 시집살이노래에 보다 보면 시누이는 노래미.)

102013 #1 예, 예. (예, 예.)

102013 @2 졸락.(노래미.)

102013 #1 경헌디 원 가인 분실 모릅니다게. ᄀᆞ자도게. 원.(그런데 원 걔는 분술 모릅니다. 지금도. 원.)

102014 @ 그 자식들은 다 결혼 다 시킨 거예?(그 자식들은 다 결혼 다 시킨 거예요?)

102014 #1 우리?(우리?)

102014 @ 으.(으.)

102014 #1 다 시켯주게. 스물아옵에 서오누이라도 다 스물아옵에 갓주.(다 시켰지. 스물아홉에 서오누이라도 다 스물아홉에 갔지.)

102014 @ 으.(으.)

102014 #1 스물아옵에 가난 족은아덜이 마은여섯이고.(스물아홉에 가니까 작은아들이 마흔여섯이고.)

102014 @ 게난 그 자식들은 어떵 중매헙디까? 연애허연, 어떤 식으로 결혼시킵디

가?(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어떻게 중매합디까? 연애했어요, 어떤 식으로 결혼시킵디까?)

102014 #1 아이고, 연애헷주덜. 서울 간 대학헤 부난.(아이고, 연애했지들. 서울 가서 대학해 버리니까.)

102014 @ 어.(어.)

102014 #1 아들도 서울 간 헤 불고 허난에 저 메누릿ᄀᆞ슴[ᄀᆞ슴] 보레 오렌 허난. 나가 셍각을 헤봐도 우리가, 우리가 말렌 허민 말아. 요새 사름덜. 이왕에 헐 바에는 기자 좋게 허렌 헤영 헤 불주. 경 허난 이젠 만나레 오젠 허난 저 파란 거는 족은메누리고.(아들도 서울 가서 해 버리고 하니까 저 며느릿감 보러 오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우리가 말라고 하면 말아. 요새 사람들. 이왕에 할 바에는 그저 좋게 하라고 해서 해 버리지. 그렇게 하니까 이젠 만나러 오려고 하니까 저 파란 거는 작은며느리고.)

102014 @ 으.(으.)

102014 #1 요짝 티샤츠 입은 거는 큰메누린데.(요쪽 티셔츠 입은 거는 큰며느린데.)

102014 @ 으.(으.)

102014 #1 그거 큰아덜이고.(그거 큰아들이고.)

102014 @ 으.(으.)

102014 #2 파란 거 입은 거 둘리 족은아덜이고. 요 옆에 건 딸이고.(파란 거 입은 거 둘이 작은아들이고. 요 옆에 건 딸이고.)

102014 @ 으.(으.)

102014 #1 사위고. 그건디 게난 흔 집의 둘씩 애기덜토 딱 둘씩만 나난 여섯. 손지가. 딱 여섯뿐이고. 그거 어떵 말라 게난 끗나난 경 ᄀᆞᆫ대. 딱지 놓카 부덴 막 겁난에 헤신디 허락헤 주ᄀᆞ렌.(사위고. 그건데 그러니까 한 집에 둘씩 아기들도 딱 둘씩만 낳으니까 여섯. 손자가. 딱 여섯뿐이고. 그거 어떻게 말라 그러니까 끝나니까 그렇게 말하대. 딱지 놓을까봐 아주 겁나서 했는데 허락해 주었다고.)

102014 @ 음.(음.)

102014 #1 으, 잘도 좋은 분이옌 허멍 ᄀᆞᆯ안. (웃음). 게 막 지네 잘 살민 뒈는 거주 거 무신.(으, 잘도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말했어. (웃음). 게 막 지네 잘 살면 되는 거주 거 무슨.)

102014 @ 겡 그 젤 누게 젤 맏이가 아들이우과?(그래서 그 젤 누구 젤 맏이가 아들입니까?)

102014 #1 아니 딸.(아니 딸.)

102014 @ 딸. 누게. 딸이 먼저 결혼헌 거?(딸. 누구. 딸이 먼저 결혼한 거?)

102014 #1 으.(으.)

102014 @ 결혼헐 땐 어떤 식으로 헤영 결혼시켜 줫수가?(결혼할 땐 어떤 식으로 해서 결혼시켜 줬습니까?)

102014 #1 그때 위미 씨집을 가신디양?(그때 위미 시집을 갔는데요?)

102014 @ 으.(으.)

102014 #1 아이고, 저 딸은 말리는 디 갓수다. 우리가 말리는 디.(아이고, 저 딸은 말리는 데 갔습니다. 우리가 말리는 데.)

102014 @ 음.(음.)

102014 #1 저 ᄉᆞ나이[103]가 아픈 아이라양.(저 사내가 아픈 아이예요.)

102014 @ 아아.(아아.)

102014 #1 저 소아마비로. 이 걸음을.(저 소아마비로. 이 걸음을.)

102014 @ 으음.(으음.)

102014 #1 다리가양 ᄒᆞ쏠 절락절락 걷고. 저기 저 키는 무사 큼광. 대학을 허난에 우리 딸이 이 동셍덜 시에서 고등학교 헐 때 자인 대학허난에 ᄒᆞᆫ 집이 살멍 밥을 헤줫주, 동셍덜을.(다리가요 조금 절뚝절뚝 걷고. 저기 저 키는 왜 큰지. 대학을 하니까 우리 딸이 이 동생들 시에서 고등학교 할 때 쟤는 대학하니까 한 집에 살면서 밥을 해줬지, 동생들을.)

102014 @ 으으.(으으.)

102014 #1 삼 년 동안썩 다. 게 육년을 헤준 거지. 그치룩 헨 허난에 저 ᄉᆞ나이가 게난 우리 아덜덜이 우리안티 안 ᄀᆞᆯ아 부난 거주게. 아, 신문 받는 거고 무시거 허는 거고 다 우리 뚤네 집으로만 주솔 헨에 허멍 받으멍 신문 아지레 오고 책도 아지레 오곡경 헤렌양.(삼 년 동안씩 다. 게 육년을 해준 거지. 그처럼 해서 하니까 저 사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우리한테 안 말해 버리니까 거지. 아, 신문 받는 거고 무엇 하는 거고 다 우리 딸네 집으로만 주솔 해서 하면서 받으면서 신문 가지러 오고 책도 가지러 오고 그렇게 하더래요.)

102014 @ 으음.(으음.)

102014 #1 게난 꿍꿍이속은 잇언에 그치룩을 헌 거라.(그러니까 꿍꿍이속은 있어서 그처럼을 한 거야.)

102014 @ 으으.(으으.)

102014 #1 아 경 헨에, 헤 ᄒᆞᆫ 번은 셍각도 아년디 오랏어. 집을.(아 그렇게 해서, 해 한 번은 생각도 않았는데 왔어. 집엘.)

102014 @ 으.(으.)

102014 #1 뚤은 안 오고 자이만 온 거라. 오난 아방[104]이 봔에 당췌 안 뒌덴. 뭣 놈은 저 결혼 말이니 허멍. 절대 안 뒌덴 막 욕헨 보낸 거라. 아, 보내난 난 또 이디 잇당 영 나가근데 잘 가렌 영 간 보난 울언에 눈물 다깜십디다게. 요디 산에게. 아 또 그걸 보난에 무시거 헨에 이젠 울지 말앙 기자 가렌. 가건에 잘 셍각헤 보렌 헤둰에 뚤ᄀᆞ라경 헷주게. 야, 너 어떵 허난. 겐 막 사름마다 웨뚤에기 헐허게 풀앗덴 막 우리안티 막.(딸은 안 오고 쟤만 온 거야. 오니까 아버지가 봐서 당최 안 된다고. 뭣 놈의 저 결혼 말이니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막 욕해서 보낸 거야. 아, 보내니까 난 또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가니까 잘 가라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울어서 눈물 닦고 있습디다. 요기 서서.

103) ‘ᄉᆞ나이’는 사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사위를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104) ‘아방’은 ‘아버지’의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남편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아 또 그걸 보니까 무엇 해서 이젠 울지 말고 그저 가라고. 가거든 잘 생각해 보라고 해두고 딸보고 그렇게 했지. 야, 너 어떻게 하니까. 그래서 막 사람마다 외딸아기 헐하게 팔았다고 막 우리한테 막.)

102014 @ 으으.(으으.)

102014 #1 궨당덜토양. 아이고 **이 어머니 아방이나 성질에 아이 헐허게 풀질 아녈 건디.(웃음)(권당들도요. 아이고 **이 어머니 아버지나 성질에 아이 헐하게 팔질 않을 건데.(웃음))

102014 @ 으.(으.)

102014 #1 헐허게 풀앗젠만 헹. 경 허영 똘ᄀᆞ라 ᄀᆞᆯ으난 죽어 불켄 헤렌 이녁이 안 헤 주민.(헐하게 팔았다고만 해서. 그렇게 해서 딸보고 말하니까 죽어버리겠다고 하더라고 이녁이 안 해 주면.)

102014 @ 으음.(으음.)

102014 #1 게난 놈의 아덜 죽게 허민 나가 어떵 허영 헐 거우겐. 죽어 불켄 허는디 놈의 아덜 죽어 놓민 이것이 어떵 뭘 거우겐. 게난 나 몸 ᄒᆞ나 희생헤근에 나 팔자가 그건가 헹 이제 가쿠덴 경 허는 거라.(그러니까 남의 아들 죽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할 거냐고. 죽어 버리겠다고 하는데 남의 아들 죽어 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내 몸 하나 희생해서 내 팔자가 그건가 해서 이제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102014 @ 으음.(으음.)

102014 #1 아니 경 허난 ᄉᆞ춘덜이구 궨당덜이구, 아이고, 웨똘에기에 헌다헌 집안에. 저 우리 똘도 막 국어국문과 나완에 선생 자격증ᄁᆞ장 다 잇인 아이우다게.(아니 그렇게 하니까 사촌들이고 권당들이고, 아이고, 외딸아기에 한다한 집안에. 저 우리 딸도 막 국어국문과 나와서 선생 자격증까지 다 있는 아입니다.)

102014 @ 으으.(으으.)

102014 #1 그치룩 헌 집안에 세상, 아니 어떵 허난 아픈 아이를 헤놘 허락을 헤줨신고, 헤줨신고 허멍. 게도 그거 저거 셍각허난 벵신이옝, 겐디 우리 집 양반이 이 성질이양, 영 헙니께. 투표헐 때도. 거러지도 흔 표, 엿장시도 흔 표, 사장도 흔 표.(그처럼 한 집안에 세상, 아니 어떻게 하니까 아픈 아이를 해놔서 허락을 해주고 있는가, 해주고 있는가 하면서. 그래도 그거 저거 생각하니까 병신이라고, 그런데 우리 집 양반이 이 성질이요, 이렇게 합니다. 투표할 때도. 거지도 한 표, 엿장수도 한 표, 사장도 한 표.)

102014 @ 음.(음.)

102014 #1 양, 대통령도 흔 표. 잘낫다고 두 표 찍는 게 아니고 세 개 찍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민 딱 흔 표뿐이다. 아무리 잘 나도. 그러니까 절대 나보고 사름 체별랑 말렌만 헙니다. 가르키는 것이.(보세요, 대통령도 한 표. 잘났다고 두 표 찍는 게 아니고 세 개 찍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면 딱 한 표뿐이다. 아무리 잘 나도. 그러니까 절대 나보고 사람 차별이랑 말라고만 합니다. 가리키는 것이.)

102014 @ 으음.(으음.)

102014 #1 절대 사름 인간 차별은 말아라. 경만 허는 양반이주. 원 성질이양 너무 좁니다게. 존셈이.(절대 사람 인간 차별은 말아라. 그렇게만 하는 양반이지. 원 성질이요 너무 좋습니다. 잔셈이.)

102014 @ 으.(으.)

102014 #1 경 허멍 헌 사름이라 놓난에게, 아이고 게메, 아픈 아이엔 혜영 말렌 아원 이것도 궂고 아니 경 허당 약이라도 먹엉 죽는 체 허민 아이고, 아무 집의 뚤 헷당 영 헷젠 허곡. 경 헨에 허락헤 줜 내 부난 사윈 막 착헤여. 마음씨도 좋고 존셈이 좋앙 양 워낙 착헌디 형제간이 아덜만 에 으슷에 딸 하나에 일곱 오누이 이신 집이랍디다. 그 위미[105] 쪽엔 막 아덜덜만 잘 나는 산천덜이랍디다.(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어 놓으니까, 아이고 글쎄, 아픈 아이라고 해서 말라고 아 원 이것도 궂고 아니 그렇게 하다가 약이라도 먹어서 죽는 체 하면 아이고, 아무 집의 딸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고. 그렇게 해서 허락해 줘서 내 버리니까 사윈 아주 착해. 마음씨도 좋고 잔셈이 좋아서요 워낙 착한데 형제간이 아들만 에 여섯에 딸 하나에 일곱 오누이 있는 집이랍디다. 그 위미 쪽엔 막 아들들만 잘 나는 산천들이랍디다.)

102014 @ 아아 웃음.(아아 웃음.)

102014 #1 위미는 원. 사돈덜 멧 집의 우리가 ᄉᆞ춘도 보내고 다헨 헤신디. 경 헷는디 자이가 다섯 번차 메누리라. 겐디 아무 것도 엇인 디라양.(위미는 원. 사돈들 몇 집에 우리가 사촌도 보내고 다해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재가 다섯 번째 며느리야.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데예요.)

102014 @ 으.(으.)

102014 #1 다섯 번차 촌에게, 아방은 어린 때 죽어 불고 허난 무시거가 잇일 거우과게.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엇어. 씨집, 장게갈 때는 질 옆에 큰질 옆에 에 육벡 평짜리 남밧[106] ᄒᆞ나 잇수덴.(다섯 번째 촌에게, 아버지는 어릴 때 죽어 버리고 하니까 무엇이 있을 겁니까.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없어. 시집, 장가갈 때는 길 옆에 큰길 옆에 아 육백 평짜리 '나무밭' 하나 있다고.)

102014 @ 으.(으.)

102014 #1 경 헨게마는 요작인 들으난 무신 남밧 말이우과?(그렇게 하더니만 요전엔 물으니까 무슨 '남밧' 말입니까?)

102014 @ (웃음).(웃음.)

102014 #1 (웃음). 거 성 거. 경 헨 헤신디 ****정수기 헙니께.(웃음. 거 형 거. 그렇게 해서 했는데 **** 정수기 합니다.)

102014 @ 아아.(아아.)

102014 #1 옛날에부터 **** 정수기 저 대리점 헨에 그것벳긔 안 셍겨낫주. 경 헷단 자이가 버치니까 딴 친구덜을 막 벌립 시킨 거라. 그거를. 정수기를. 게난 이름만 고찌멍 멧 군데 이젠 나와 부난에 자네 관리허는 디가 이천 가위 그것만 관리허멍 더랑 허

105) '위미'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를 말한다.
106) '남밧'은 '나무 밭'의 의미다. 여기에서는 귤나무를 심은 밭, 즉 귤나무 밭을 의미한다.

지 말라 이제. 그 더 헹 무시거 헐 거니 허멍 살안. 경혜연 결혼시긴 거.(옛날에부터 **** 정수기 저 대리점 해서 그것밖에 안 생겼었지. 그렇게 했다가 쟤가 부치니까 딴 친구들을 막 벌립 시킨 거야. 그거를. 정수기를. 그러니까 이름만 고치면서 몇 군데 이젠 나와 버리니까 쟤네 관리하는 데가 이천 가호 그것만 관리하면서 더는 하지 말라 이제. 그 더 해서 무엇 할 거니 하면서 살았어. 그렇게 해서 결혼시킨 거.)

102014 @ 나 누겐지 알아지쿠다. **이.(내 누군지 알겠습니다. **이.)

102014 #1 **이.(**이.)

102014 @ **이, ***. 그 으망진 **이.(**이, ***. 그 야무진 **이.)

102014 #1 가이도 너미 아방 닮앙 ᄆᆞ음이 너미 좋아.(걔도 너무 아버지 닮아서 마음이 너무 좋아.)

102014 @ 으으.(으으.)

102014 #1 **이 알아집니까?(**이 알아집니까?)

102014 @ 우리 국문과게.(우리 국문과게.)

102014 #1 으.(으.)

102014 @ 알아집니다. 우리보다 이 하나 밋테.(알아집니다. 우리보다 이 하나 밑에.)

102014 #1 쉬은ᄒᆞ나.(쉰하나.)

102014 @ 예게, 그 저기 **** 정수기렌 허난 나가 알아지멘. 가이도 ᄆᆞᆯ띠예?(예게, 그 저기 **** 정수기라고 하니까 내가 알아져. 걔도 말띠죠?)

102014 #1 ᄆᆞᆯ띠, 백ᄆᆞᆯ띠.(말띠, 백말띠.)

102014 @ 예, 잘도 으망진.(예, 잘도 야무진.)

102014 #1 가인이 백ᄆᆞᆯ.(걔는 백말.)

102014 @1 딱 보난 어머니 국문과렌 허니까? 으.(딱 보니까 어머니 국문과라고 하니까? 으.)

102014 #1 가이 ᄉᆞ주 보레 가난에. 철학관에 가난 이치룩 지 ᄉᆞ주허는 후제 이치룩 헌 사주는 처음 보노렌. 말띠에다가 말날에다가 말시에 나완에.(걔 사주 보러 가니까. 철학관에 가니까 이처럼 저 사주하는 후에 이처럼 한 사주는 처음 보노라고. 말띠에다가 말날에다가 말시에 나와서.)

102014 @ 아.(아.)

102014 #1 이런 아인 처음 봠수덴. 이런 사람은.(이런 아인 처음 보고 있습니다고. 이런 사람은.)

102014 @ 으으.(으으.)

102014 #1 띠 ᄀᆞ뜬 시간에 난. 이 사름은 뒈민 막 잘 뒈고 안 뒈게 뒈민 막 안 뒈쿠덴.(띠 같은 시간에 나서. 이 사람은 되면 아주 잘 되고 안 되게 되면 아주 안 되겠다고.)

102014 @ 음.(음.)

102014 #1 경 팔ᄌᆞ에 그치룩헙디다게.(그렇게 팔자에 그처럼 합디다.)

102014 @ 게난 정수기 잘 뒈지 안 헴수가게.(그러니까 정수기 잘 되지 안 하고 있

습니까.)

102014 #1 우리가 하영 도와줌주게.(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지.)

102014 @ 에, 하영 도와주멘?(에, 많이 도와주고 있어?)

102014 @2 알아지쿠다.(알겠습니다.)

102014 @ 아니 딱 보난 국문과렌 허난 이제 현 씨고. ○○○○고 허니까 바로 나왐신게. 참 인연이우다양.(아니 딱 보니까 국문과라고 하니까 이제 현 씨고. ○○○○하니까 바로 나오고 있는데. 참 인연입니다요.)

102014 #1 진짜. 게난 우리, 이제 허당 아프곡 허난 허민 어떵허리 손지들 으섯이난에 대학교 가는 입학금 허렌 헨 천만 원씩 으섯씩 다 줘 볏주. 이천만 원씩 흔 집의.(진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다가 아프고 하니까 하면 어떡하리 손자들 여섯이니까 대학교 가는 입학금 하라고 해서 천만 원씩 여섯씩 다 줘 버렸지. 이천만 원씩 한 집에.)

102014 @ 으.(으.)

102014 #1 이거는 꼭 너네덜 대학 갈 때 어머니네 써 벼도 할아버지가 데여 준 거난에 그걸로 헨에 가렌 허멍 다 줘 불고. 죽어지카부덴 막 아프고 자꾸 헤가난.(이거는 꼭 너희들 대학 갈 때 어머니네 써 버려도 할아버지가 대 준 거니까 그걸로 해서 가라고 하면서 다 줘 버리고. 죽어질까봐 아주 아프고 자꾸 해가니까.)

102014 @ 음, 미리.(음, 미리.)

102014 @2 아, **이.(아, **이.)

102014 #1 집 살 때 집도 다 도와주고.(집 살 때 집도 다 도와주고.)

102015 @ 게난 메누리허고 사위덜은 어떵헤마씨?(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사위들은 어떡해요?)

102015 #1 우리.(우리.)

102015 @ 예.(예.)

102015 #1 아이 먼 디 살아 부난에 무신. 우리 메누리들은 아이고, 우리 큰메누리쯤은 태평이라 놓난 멩질 때 옵디다양.(아니 먼 데 살아 버리니까 무슨. 우리 며느리들은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쯤은 태평이어 놓으니까 명절 때 옵디다.)

102015 @ 육지우과?(육집니까?)

102015 #1 서울.(서울.)

102015 @ 으.(으.)

102015 #1 서울 한양 조씬디. 멩질 때에 오민은 이건 뭐 자, 하르방이고 아침이 일어나근엥에 어디 우리 저 서울 간 보난 손지덜이 경 착허여. 이것이 어린 것덜이 학교도 안 부떵 댓 술에 흔 네 설에 뭐허고 가민 아침이 딱 시간 뒈민 일어낭, 어멍도 안 일리곡 누게도 안 일렁 조용허게 왕 자당 깨낭 보민 왕 장난감만 자파리헨양.(서울 한양 조씬데. 명절 때에 오면 이건 뭐 자, 할아버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우리 저 서울 가서 보니까 손자들이 그렇게 착해. 이것이 어린 것들이 학교도 안 붙어서 댓 살에 한 네 살에 뭐하고 가면 아침에 딱 시간 되면 일어나서, 어머니도 안 일으키고 누구도 안 일으키고 조용하게 와서 자다가 깨어나서 보면 와서 장난감만 장난해서요.)

102015 @ 음.(음.)

102015 #1 너네 잠 안 잣나? 허난. 깻어요. 깨난 시간에믄 딱 깨나요 허멍 그치룩 허멍. 야이는 아방[107]이 산책 강 오라근에 헤도 안 일어나. 에, 야네 밥은 어느제 줌신고? 그치룩 허멍 허는디. 이디 와도.(너희 잠 안 잤나? 하니까. 깼어요. 깨는 시간이면 딱 깨요 하면서 그처럼 하면서. 얘는 아버지가 산책 가서 와서 해도 안 일어나. 에, 얘네 밥은 언제 주고 있나? 그처럼 하면서 하는데. 여기 와도.)

102015 @ 으.(으.)

102015 #1 이거 씨집인가 헤영은에 뭐 허지 안 허여. 오민 자구정헌 냥 자고 멩질 먹으레 우리 저 여섯 집이 멩질을 지냅니다게.(이거 시집인가 해서 뭐 하지 안 해. 오면 자고자한 대로 자고 명절 먹으러 우리 저 여섯 집에 명절을 지냅니다.)

102015 @ 음.(음.)

102015 #1 두 집이 쯤 강 오민 가기 실프민 애기 핑계헹 눠 자.(두 집에 쯤 가서 오면 가기 싫으면 애기 핑계해서 누워서 자.)

102015 @ 으.(으.)

102015 #1 경 잠시민 나 야, 멩질 먹으레 와시난 저 하르방 멩질은 강 봐산다. 일어낭은에 하르버지 멩질 큰집의 가라. 허민 예, 그럴게요. 허영 가고. 지 ᄆᆞ음대로난에게.(그렇게 자고 있으면 나 야, 명절 먹으러 왔으니까 저 할아버지 명절은 가서 봐야한다. 일어나서 할아버지 명절 큰집에 가라 하면 예, 그럴게요 해서 가고. 저 마음대로니까.)

102015 @ 으으.(웃음)(으으.(웃음))

102015 @2 그건예, 어떻게 보면 이 집 사름 다 뭔 겁주.(그건요, 어떻게 보면 이 집 사람 다 된 겁지요.)

102015 @ 웃음.(웃음.)

102015 #1 아이 성질이 그거랍디다. 아시에 처음부떠.(아니 성질이 그거랍디다. 애초에 처음부터.)

102015 @2 아, 그러니까 이 집 사름 다 뭔 거니까 아 그런가보다.(아, 그러니까 이 집 사람 다 된 거니까 아 그런가보다.)

102015 #1 족은메누리는 학교 선생이주.(작은며느리는 학교 선생이지.)

102015 @ 예.(예.)

102015 #1 학교 선생인디 무남독녀라.(학교 선생인데 무남독녀야.)

102015 @ 으.(으.)

102015 #1 무남독녀를 막 말리단 보난에 세 번차 만나도 무남독녀.(무남독녀를 막 말리다가 보니까 세 번째 만나도 무남독녀.)

102015 @ 아.(아.)

102015 #1 게난 이제 세 번차 만나도 경 허관데 느 팔자가 그거여 허락을 헨에 헤신디. 무남독녀난 오히려 집의서도 막 호강헐 거 닮앗주.(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만나도 그렇게 하니까 너 팔자가 그거다 허락을 해서 했는데. 무남독녀니까 오히려 집에서도

107) '아방'은 표준어 '아버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남편'의 의미로 쓰였다.

아주 호강할 거 같았지.)

102015 @2 으.(으.)

102015 #1 그게 아니라양.(그게 아니라요.)

102015 @ 음.(음.)

102015 #1 야이는 그게 아니라. 우리 정월 초ᄒᆞ를날 우리 집의서 멩질 아녀는 따문에 문전을.(얘는 그게 아니야. 우리 정월 초하룻날 우리 집에서 명절 않는 때문에 문전을.)

102015 @ 음.(음.)

102015 #1 우리 씨아버지가 정월초ᄒᆞ를날 놈의 집의 강 첫 숫구락 심지 말렌.(우리 시아버지가 정월초하룻날 남의 집에 가서 첫 숟가락 잡지 말라고.)

102015 @ 음.(음.)

102015 #1 집의서 꼭 첫 수, 첫 수저는 떵 나가야 뒌덴 경 허연 헤나 부난에 초ᄒᆞ를날 나가 일어낭 꼭 밥헤근에 아침에 여기서 아이덜 다 먹엉 나가주게. 게영 일어나민양 꼭 따랑 일어낭 나와. 아고게, 강 자라, 자라. 느 안 와도 이거 헐 거 엇다 강 자라, 자라 허민, 아니엔, 아니엔 헹 세수헹 나와. 야, 처음 온 때 나가 들어십주. 야, 느대로 영 헴샤? 사돈님이 이렇게 허렌 시겨줘냐? 허난에. 아버지가 아부지가, 아부지가 이제 가민 씨어머니 일어날 때는 꼭 일어낭 같이 뭐 헤렌 ᄀᆞᆯ읍데덴. 게난 친정에서 잘 시키니까양 그대로.(집에서 꼭 첫 수, 첫 수저는 떠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했었으니까 초하룻날 내가 일어나서 꼭 밥해서 아침에 여기서 아이들 다 먹어서 나가지. 그래서 일어나면요 꼭 따라서 일어나서 나와. 아이고, 가서 자라, 자라. 너 안 와도 이거 할 거 없다. 가서 자라, 자라 하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서 세수해서 나와. 야, 처음 올 때 내가 들었습죠. 야, 너대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사돈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켜줘냐? 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가면 시어머니 일어날 때는 꼭 일어나서 같이 뭐 하고 말합디다라고. 그러니까 친정에서 잘 시키니까요 그대로.)

102015 @ 음.(음.)

102015 #1 무남독녀엔 버릇엇는 거 아니고.(무남독녀라고 버릇없는 거 아니고.)

102015 @ 으.(으.)

102015 #1 뭐 아니. 성질이. 경 허난 그자 무신 뭐 메누리덜 무신 우리 늙엇젠 무신 메누리덜안티 강 얻어먹을 것도 아니고.(뭐 아니. 성질이. 그렇게 하니까 그저 무슨 뭐 며느리들 무슨 우리 늙었다고 무슨 며느리들한테 가서 얻어먹을 것도 아니고.)

102015 @ 거니까.(거니까.)

102015 #1 이디 살당은에 요양원에나 갈 거주, 무신. (웃음).(여기 살다가 요양원에나 갈 거지, 무슨. (웃음).)

102015 @ (웃음). 여기 이제 뭐 아들덜은 다 서울 사니까.((웃음). 여기 이제 뭐 아들들은 다 서울 사니까.)

102015 #1 으. 겐디 오켄은 허여. 큰아덜광 큰메누린 직장 그만두민 오쿠덴만 허주.(으. 그런데 오겠다고는 해. 큰아들과 큰며느린 직장 그만두면 오겠다고만 하지.)

102015 @2 으.(으.)

102015 #1 여기 지금도 직장 엇어 부난 못 왐주, 직장만 이시민 오쿠덴 허는디.(여기 지금도 직장 없어 버리니까 못 오고 있지, 직장만 있으면 오겠다고 하는데.)

102015 @ 으.(으.)

102015 #1 건 말 피막일 테주.(건 말 피막일 테지.)

102015 @2 아니우다. 큰아덜은 쫌 달른.(아닙니다. 큰아들은 좀 다른.)

102015 #1 예, 오켄만 헙니다. 예.(예, 오겠다고만 합니다. 예.)

102016 @ 게난 이렇게 영 살아보멍예, 살아보멍 뭐 잊어불지 못 허켜 허는 이런 거라든가?(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아보면서요, 살아보면서 뭐 잊어버리지 못 하겠다 하는 이런 거라든가?)

102016 #1 아니 우리 그런 건 아직은 엇어.(아니 우리 그런 건 아직은 없어.)

102016 @ 아, 그런 거는 엇고예. 알앗수다.(아, 그런 거는 없고요. 알았습니다.)

102016 #1 우리 그치룩 무신거 허곡 허멍은 안 살아 부난.(우리 그처럼 무엇 하고 하면서는 안 살아 버리니까.)

102016 @ 예.(예.)

102016 #1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02016 @ 예, 알아수다. ᄒᆞ꼼 쉬쿠다.(예, 알았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3. 밭일

103001 @ 게난 예전에 밧일은 어떤 밧일들 하영 헤신고예? 이 동네서.(그러니까 예전에 밭일은 어떤 밭일들 많이 했을까요? 이 동네서.)

103001 #1 밧일게 농사지는 밧일이고게. 무신 밧일사 그거 아니우과?(밭일 농사짓는 밭일이고. 무슨 밭일이야 그거 아닙니까?)

103001 @ 음.(음.)

103001 #1 농사짓는 밧일.(농사짓는 밭일.)

103001 @ 게난 농사는 어떤 농사덜 지언마씨?(그러니까 농사는 어떤 농사들 지었어요?)

103001 #1 감저 놓고 보리 갈고 유채 갈곡은. 유채는 옛날에는 안 갈아난 거 아니우과?(고구마 놓고 보리 갈고 유채 갈고. 유채는 옛날에는 안 갈았던 거 아닙니까?)

103001 @ 예.(예.)

103001 #1 건 멧 년 후에사 간 거곡. 콩 갈곡 기자 그거. 먹을 것만 갈아낫수게. 옛날은 돈 안 주니까.(건 몇 년 후에야 간 거고. 콩 갈고 그저 그거. 먹을 것만 갈았었습니다. 옛날은 돈 안 주니까.)

103001 @ 음. 그런 거.(음. 그런 거.)

103001 #1 사가지 아녀난.(사가지 않으니까.)

103001 @2 조도 허고예?(조도 하고요?)
103001 #1 예. 조도 갈고.(예. 조도 갈고.)

보리농사

103002 @ 조도 갈곡. 게믄 ᄒᆞ나씩예, 보리농사 짓젠 허면.(조도 갈고. 그러면 하나씩요, 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
103002 #1 으.(으.)
103002 @ 어떤 준비가 필요헤마씨?(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103002 #1 걸름.(거름.)
103002 @ 으.(으.)
103002 #1 걸름.(거름.)
103003 @ 걸름.(거름.)
103003 #1 그, 그 옛날에는 고지기 ᄌᆞ물아다근에 거 통시에 놔근에 그 보리찍 ᄒᆞᆫ 도리 놓곡 그 고지기[108] ᄒᆞᆫ 도리 놓곡 허멍 통시에 싹 싸놩. 도새기 기룰 때난.(그, 그 옛날에는 '고지기' 캐다가 거 돼지우리에 놔서 그 보리짚 한 도리 놓고 그 '고지기' 한 도리 놓고 하면서 돼지우리에 싹 쌓아놔서. 돼지 기를 때니까.)
103003 @ 예.(예.)
103003 #1 뒈지 길룰 때난. 경 허영 놓민은게, 뒈지가 걸어뎅기곡 무시거 허곡 비오곡 뭐허곡 헤가민 듬북이 놀 거니까.(돼지 기를 때니까. 그렇게 해서 넣으면, 돼지가 걸어다니고 무엇 하고 비 오고 뭐하고 해가면 듬북이 날 거니까.)
103003 @ 음.(음.)
103003 #1 바다에서 직접 건진 거난. 그거 썩어가는 냥 보리찍도 같이 썩주.(바다에서 직접 건진 거니까. 그거 썩어가는 대로 보릿짚도 같이 썩지.)
103003 @ 음.(음.)
103003 #1 으, 경 허민 칠월 나민 그 걸름 헤놔근에양 동짓ᄃᆞᆯ 나민 그 보리 갈아사 뒐 거 아니우과게?(으, 그렇게 하면 칠월 되면 그 거름 해놓아서요 동짓달 되면 그 보리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3003 @ 예.(예.)
103003 #1 게믄 그땐 막 썩으민 그걸 산태로 ᄆᆞᆫ 퍼내영. 이 질레에나 마당에나 그걸 싹 산태[109]차 비와 놩.(그러면 그땐 막 썩으면 그걸 '산태'로 몽땅 퍼내어서. 이 길에나 마당에나 그걸 싹 '산태'째 부어 놔서.)
103003 @ 음.(음.)
103003 #1 쉐 이신 사름은 쉐로 거 영 골라놩은에 보리씨 삐여놩 쉐로 ᄇᆞᆯ립주게. 그 돗ᄀᆞ레를.(소 있는 사람은 소로 거 이렇게 골라놔서 보리씨 뿌려놔서 소로 밟지요. 그

108) '고지기'는 바다풀의 한 가지다. 제보자는 모자반의 일종의 하나로 보고 있다.
109) '산태'는 물건을 나를 때 쓰는 사다리 모양의 도구다.

돼지거름을.)

103003 @ 으.(으.)

103003 #1 돗ᄀᆞ레엔 헙니다.('돗ᄀᆞ레'라고 합니다.)

103003 @ 돗ᄀᆞ레.('돗ᄀᆞ레'.)

103003 #1 으, 돗ᄀᆞ레. 게영 쉐로 블려근에 싹 블려지민 그걸 다 모디왕 ᄃᆞ리ᄀᆞ치룩 쭉허게 헤놈두서로 멩텡이.(으, 돼지거름. 그래서 소로 밟아서 싹 밟아지면 그걸 다 모여서 다리처럼 쭉하게 해두고서 망태기.)

103003 @ 음.(음.)

103003 #1 돗ᄀᆞ레착 멩텡이. 그것에 막 담으멍 마차나 뭐 쉐나 시끌 거 엇인 사름은 그거 등얼로 가까운 밧디덜은 등에다 지영 ᄒᆞ나씩 지여당 날라다 놩.(돼지거름 망태기. 그것에 막 담으면서 마차나 뭐 소나 실을 거 없는 사람은 그거 등허리로 가까운 밭에들은 등에다 지어서 하나씩 지어다가 날라다 놔서.)

103003 @ 음.(음.)

103003 #1 뒷날은 그 보리 갈아사 뭴 거 아니우과? 경 허민 여자덜은 가근에 그 돗ᄀᆞ렐 놓는 거주. 거 돗ᄀᆞ레엔 허주.(뒷날은 그 보리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여자들은 가서 그 돼지거름을 놓는 거지. 거 돼지거름이라고 하지.)

103003 @ 음.(음.)

103003 #1 돗걸름 이. 돗ᄀᆞ레 영 영 영 영 손으로 접으멍 영 영 놔놩 그 옛날엔 그 돗ᄀᆞ레 놔놘 손으로 밥을 먹어마씨. 코싱코싱[110]. 게도 맛 좋아.(돼지거름 이. 돼지거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집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놔놓아서 그 옛날에는 그 돼지거름 놨던 손으로 밥을 먹어요. '코싱코싱'. 그래도 맛 좋아.)

103003 @2 아 겐디 그거 허민예, 손이 너무 고와마씨. 문질문질허고.(아 그런데 그거 하면요, 손이 너무 고와요. 미끈미끈하고.)

103003 #1 그건 싯어나사주.(그건 씻었어야지.)

103003@ 웃음.(웃음.)

103003#1 건 싯은 다음에고.(건 씻은 다음에고.)

103003 @2 그건 막.(그건 막.)

103003 #1 경 허영 보리 가는 거 아니우꽈게. 보리 걸름은.(그렇게 해서 보리 가는 거 아닙니까. 보리 거름은.)

103004 @ 보리 걸름예, 게믄 보리는 언제 가는 거라마씨? 아까.(보리 거름요, 그러면 보리는 언제 가는 거예요? 아까.)

103004 #1 아 동짓ᄃᆞᆯ 나사 갈주게.(아 동짓달 나야 갈지.)

103004 @ 동짓ᄃᆞᆯ? 으.(동짓달? 으.)

103004 #1 으. ** 동지에도 옛날에 막 하영, 저 뭐 허는 사름은 동지 넘엉도 갈아낫수다. 보리.(으. ** 동지에도 옛날에 아주 많이, 저 뭐 하는 사람은 동지 넘어서도 갈았었습니다. 보리.)

110) '코싱코싱'은 구수한 모양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103004 @ 으음. 보통 보리 갈 때는 누게가 갈아마씨?(으음. 보통 보리 갈 때는 누가 갈아요?)

103004 #1 잠대로. 쉐로. 쉐로 이녁 갈 사름 엇인 사름은 빌어당.(잠대로. 소로. 소로 이녁 갈 사람 없는 사람은 빌려다가.)

103004 @ 으.(으.)

103004 #1 으 옆집 아저씨 빌어다근엥에 밧 갈곡. 걸름은 여자덜이 놓고게.(으 옆집 아저씨 빌려다가 밭 갈고. 거름은 여자들이 놓고.)

103004 @ 으음.(으음.)

103004 #1 으, 거 다 놔뒁.(으, 거 다 놔둬서.)

103005 @ 걸름은예, 게문 보리씨는 어떤 식으로 뿌리는 거라마씨?(거름은요, 그러면 보리씨는 어떤 식으로 뿌리는 거예요?)

103005 #1 보리씨 그 돗ᄀᆞ레 영 헤싸놩 돗ᄀᆞ레에 뿌령.(보리씨 그 돼지거름 이렇게 헤집어놔서 돼지거름에 뿌려서.)

103005 @ 음.(음.)

103005 #1 경 허영 쉐로 붋으는 거.(그렇게 해서 소로 밟는 거.)

103005 @ 아아.(아아.)

103005 #1 씨를 홈치 뿌려 놩.(씨를 한꺼번에 뿌려놓아서.)

103005 @ 홈치 뿌려 놩 그 걸름이 보리씨 삐는 거구나예?(한꺼번에 뿌려 놔서 그 거름이 보리씨 뿌리는 거군요?)

103005 #1 예,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예.)

103006 @ 아, 옛날 이 동네는 보리 종류는 어떤 것덜 잇어나신고양?(아, 옛날 이 동네는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 있었을까요?)

103006 #1 주넹이보리허고 술보리.(맥주보리하고 쌀보리.)

103006 @ 으음.(으음.)

103006 #1 술보리허곡 주넹이보리허곡 밀 갈곡 옛날에.(쌀보리하고 맥주보리하고 밀 갈고 옛날에.)

103006 @ 아, 밀도 갈고.(아, 밀도 갈고.)

103006 #1 밀도 갈고.(밀도 갈고.)

103006 @ 으, 게믄 주넹이보리허고 술보리 그거 ᄀᆞᆯ아줍서. 어떤 건지.(으, 그러면 맥주보리하고 쌀보리 그거 말해주십시오. 어떤 건지.)

103006 #1 주넹이보리는 껍덕이 막 여라 불 끼와지고 쏠랑쏠랑[111] ᄒᆞ꼼 소름, 소름소름허고.(맥주보리는 껍질이 아주 여러 벌 끼워지고 '쏠랑쏠랑' 조금 기름, 기름기름하고.)

103006 #2 ***(***)

103006 #1 술보리는 동글동글허고 껍데기 얇으게만 끼와진 거난 개역 허레 가도 보릿개역[112]허레 가도 주넹이보리는 허민 기계에 겁떡을 벳겨 내뒁 ᄀᆞ를 ᄀᆞᆯ곡 쌀보리는

111) '쏠랑쏠랑'은 기름기름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대로 곱니다게. 보끄는 디 가민.(쌀보리는 동글동글하고 껍데기 얇게만 끼워진 거니까 미숫가루 하러 가도 '보릿개역'하러 가도 맥주보리는 하면 기계에 껍질을 벗겨 내두고 가루를 갈고 쌀보리는 그대로 갑니다. 볶는 데 가면.)

103006 @ 음.(음.)

103006 #1 그거 차이주게. 껍덕이.(그거 차이지. 껍질이.)

103006 @ 껍덕이. 우리 밥헤영 먹는 거는?(껍질이. 우리 밥해서 먹는 거는?)

103006 #1 주넹이보리가 맛은 잇주.(맥주보리가 맛은 있지.)

103006 @ 아아.(아아.)

103006 #1 밥맛이.(밥맛이.)

103006 @ 으음.(으음.)

103006 #1 밥맛이 주넹이보리는양 좀 폴폴헌 기가 잇엉 맛 이십니다. 겐디 술보리는 ᄒᆞ꼼 주넹이보리만이 맛은 덜 헤도.(밥맛이 맥주보리는요 좀 풀풀한 기가 있어서 맛 있습니다. 그런데 쌀보리는 조금 맥주보리만큼 맛은 덜 해도.)

103006 @ 으.(으.)

103006 #1 그 골기도 쉽곡. 방에에, 엿날에은 방에에 찍엉 먹엇수게게.(그 갈기도 쉽고. 방아에, 엿날에는 방아에 찧어서 먹었습니다.)

103006 @ 예예.(예예.)

103006 #1 술보리를.(쌀보리를.)

103006 @ 으으.(으으.)

103006 #1 주넹이보린 방에 못 찍어도 술보리는 방에에 찍언 밥헤연 먹엇수게. 경허영 정ᄀᆞ레[113]에 거평은에.(맥주보린 방아 못 찧어도 쌀보리는 방아에 찧어서 밥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맷돌에 거피해서.)

103006 @ 예.(예.)

103006 #1 경 헤영 먹엇수게.(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103007 @ 음. 그다음에 혹시 보리밧도 ᄇᆞᆯ르레 뎅겨봔마씨?(음. 그다음에 혹시 보리밭도 밟으러 다녀봤어요?)

103007 #1 그 막 보리만 보리만 가는 밧은 저 노릿노릿허영 죽넨 헤근에양.(그 막 보리만 보리만 가는 밭은 저 노릇노릇해서 죽는다고 해서요.)

103007 @ 예.(예.)

103007 #1 막 ᄇᆞᆯ릅니다.(막 밟습니다.)

103007 @ 아.(아.)

103007 #1 사름으로 강 막 ᄇᆞᆯ려.(사람으로 가서 막 밟아.)

103007 @2 아아 사름으로?(아아 사람으로?)

103007 #1 으, 사름으로.(으, 사람으로.)

103007 @ ᄆᆞᆯ로도 안 허고마씨.(말로도 안 하고요.)

---

112) '보릿개역'은 보리를 볶아서 만든 미숫가루를 말한다.

113) '정ᄀᆞ레'는 서귀포시 온평리에서 맷돌을 가리키는 말이다.

103007 #1 ᄆᆞᆯ로 저 ᄇᆞᆯ리는 건 ᄆᆞᆯ 이신. 옛날에 ᄆᆞᆯ 이신 사름덜이 멧 멩이나 잇수가? 것도 ᄆᆞᆯ테우리[114] 빌어사허곡양.(말로 저 밟는 건 말 있는. 옛날에 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것도 '말테우리' 빌려야하고요.)

103007 @ 음.(음.)

103007 #1 경 허난에 사름으로 헤 ᄇᆞᆯ리주.(그렇게 하니까 사람으로 많이 밟지.)

103007 @ 음.(음.)

103007 #1 세 식구만 뒈민은 ᄒᆞᆫ 번에 세 파니썩은 ᄇᆞᆯ라 갈 거난에.(세 식구만 되면 한 번에 세 이랑씩은 밟아 갈 거니까.)

103007 @ 음, 게영 삼춘네도 게민 보리 ᄇᆞᆯ르레 뎅겨봔?(음, 그래서 삼촌네도 그러면 보리 밟으러 다녀봤어요?)

103007 #1 우린 ᄇᆞᆯ르레 정돈 안 뎅겨봔.(우린 밟으러 정돈 안 다녀봤어.)

103008 @ 아, ᄇᆞᆯ르레는 안 뎅겨보고예, 예? 그다음엔 보리밥 검질메젠 허면?(아, 밟으러는 안 다녀보고요, 예? 그다음엔 보리밥 김매려고 하면?)

103008 #1 보리밧듸 검질은 잘 안 멧수다. 옛날도.(보리밭에 김은 잘 안 맸습니다. 옛날도.)

103008 @ 아아.(아아.)

103008 #1 보리밧뒨 겨울 곡석이고 허난에 검질 잘 안 멧수다. 저 뭐 대우리.(보리밭에는 겨울 곡식이고 하니까 김 잘 안 맸습니다. 저 뭐 귀리.)

103008 @ 예.(예.)

103008 #1 대우리만 그 메레 뎅기주.(귀리만 그 매러 다니지.)

103008 @ 으.(으.)

103008 #1 여물 나민.(여물 나오면.)

103008 @ 여물 나면 으.(여물 나오면 으.)

103008 #1 대우리 피면은 훤허게 알아지난에 그거 메레. 대우리만 메주 검질은 안 메고.(귀리 패면은 훤하게 알아지니까 그거 매러. 귀리만 매지 김은 안 매고.)

103009 @ 아, 검질은 안 메고예? 게도 검질은 날 거 아니양?(아, 김은 안 매고요? 그래도 김은 날 거 아니에요?)

103009 #1 아니 게도 무신 경. 보리 데깍헤 불민 검질 베랑.(아니 그래도 무슨 그렇게. 보리 빽빽해 버리면 김 별로.)

103009 @ 으, 게도 검질 그 종류들은 그 보리밧 헐 때 검질은 어떤 거?(으, 그래도 김 그 종류들은 그 보리밭 할 때 김은 어떤 거?)

103009 #1 보리밧 헐 때 진풀 많이 나주.(보리밭 할 때 별꽃 많이 나지.)

103009 @2 으.(으.)

103009 #1 겨울 검질이 진풀 많이 나주. 무신 여름에 ᄀᆞ트민 제완지여 무시거여 막 나주만은 겨울 검질은 진풀 진풀. 주로 진풀.(겨울 김이 별꽃 많이 나지. 무슨 여름에 같으면 바랭이다 무엇이다 막 나지만 겨울 김은 별꽃 별꽃. 주로 별꽃.)

---

114) '말테우리'는 말을 직업으로 기르는 사람, 또는 말을 이용하여 밭 밟기 등을 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103010 @ 진풀? 음, 알앗수다. 그다음에 그 옛날, 요즘에야 다 기계로 허지만 옛날 보리 수확허젠 허민?(별꽃? 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옛날, 요즘에야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 보리 수확하려고 하면?)

103010 #1 비엿수게게.(베었습니다.)

103010 @ 뭘로?(무엇으로?)

103010 #1 호미로. 호미로 그거 다 비영 장만허는 것도 홀테로 홀트고.(낫으로. 낫으로 그거 다 베어서 장만하는 것도 홅이로 홅고.)

103010 @ 어, 게난 무끄젠 허면은 어떵 헤?(어, 그러니까 묶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

103010 #1 아 그걸로 무껏주. 보리로.(아 그걸로 묶었지. 보리로.)

103010 @ 아, 보리로예?(아, 보리로요?)

103010 @2 아, 제께로.(아, '제께'로.)

103010 #1 예, 보리로 영 영 조정[115] 영 갈랑은에.(예, 보리로 이렇게 이렇게 '조정' 이렇게 갈라서.)

103011 @ 으, 보리로 이제 헹은에 하고. 게믄 그치룩 허영 보리 무끄면은 거 눌엉 놧당은에 홀타마씨? 아니면?(으, 보리로 이제 해서 하고. 그러면 그처럼 해서 보리 묶으면 거 가리어서 놨다가 홅아요? 아니면?)

103011 #1 그날 못 헤오민게 밧듸 눌엇당 마차나 무신거 빌엉 시꺼오곡게.(그날 못 해오면 밭에 가리었다가 마차나 무엇 빌려서 실어오고.)

103011 @ 으.(으.)

103011 #1 으 시꺼당 또 마당에 눌어둠수로 창고 안네서. 날 궂인 땐 밧집 안네서 홀트주게. 홀테로.(으 실어다가 또 마당에 가리어두고서 창고 안에서. 날 궂은 땐 바깥채 안에서 홅지. 그네로.)

103011 @ 으음, 홀테로. 어디 안네서?(으음, 그네로. 어디 안에서?)

103011 #1 밧집 안네서.(바깥채 안에서.)

103011 @ 밧집?(바깥채?)

103011 #1 으.(으.)

103011 @ 어어.(어어.)

103011 #1 으. 요즘은 창고옌 허주마는 밧집이엔 허주기, 옛날엔.(으. 요즘은 창고라고 하지만 바깥채라고 하지, 옛날엔.)

103011 @ 밧집허고 밧거리허고는?('밧집'하고 '밧거리'하고는?)

103011 #1 게난 밧거리. 완전 사투리는 밧집이주.(그러니까 '밧거리'. 완전 사투리는 '밧집'이지.)

103011 @ 으.(으.)

103011 #1 그다음 밧거리. 경 나온 거.(그다음 '밧거리'. 그렇게 나온 거.)

103011 @ 게난 그 밧집에도 사름이 살기도 헤?(그러니까 그 '밧집'에도 사람이 살기

115) '조정'은 '두 개의 가닥을 하나로 연결할 때 고리를 만들어 묶어서'의 의미다.

도 해?)

103011 #1 예게.(예.)

(잡담)

103011 #1 저것ᄀᆞ라 밧집이엔 허주게. 저 집ᄀᆞ라.(저것보고 '밧집'이라고 하지. 저 집 보고.)

103011 @ 예에. 이렇게.(예에. 이렇게.)

103011 #1 게난 요즘은 창고옌 헤도 옛날엔 밧집.(그러니까 요즘은 창고라고 해도 옛날엔 '밧집'.)

103011 @ 여기는 뭐가 뒈는 거?(여기는 뭐가 되는 거?)

103011 #1 안거리.(안채.)

103011 @ 안거리. 안집엔도 ᄀᆞᆯ아?(안채. '안집'이라고도 말해?)

103011 #1 으, 안집이엔은 잘 안 ᄀᆞᆯ고 옛날은 안거리.(으, '안집'이라고는 잘 안 말하고 옛날은 '안거리'.)

103011 @ 안거리 밧집.(안채 바깥채.)

103011 #1 밧거리 안거리.(바깥채 안채.)

103011 @ 예, 알앗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리 테작헐 때.(예,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리 타작할 때.)

103011 #1 으.(으.)

103011 @ 뭐에다가 홀타?(뭐에다가 훑어?)

103011 #1 도께로, 도께로. 홀테로 보리 홀타놩.(도리깨로, 도리깨로. 그네로 보리 훑아놔서.)

103011 @ 예.(예.)

103011 #1 도께로.(도리깨로.)

103011 @ 아, 도께로 또 보리를 또.(아, 도리깨로 또 보리를 또.)

103011 #1 두드려?(두들겨?)

103011 @ 두드려.(두들겨.)

103011 #1 도께로 두드려사 그 고고리 내놓민 마당에 내놩 도께로 복삭 두드려사 여물이 나올 거 아니우과?(도리깨로 두들겨야 그 이삭 내놓으면 마당에 내놔서 도리깨로 푹 두들겨야 여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103011 @ 음.(음.)

103011 #1 경 헐 거주.(그렇게 할 거지.)

103012 @ 그치룩 헌 다음엔 어떵헤마씨?(그처럼 한 다음엔 어떡해요?)

103012 #1 경 헌 다음엔 불령은에 가마니에 담앗당 날 좋으민 다 ᄆᆞᆯ량.(그렇게 한 다음엔 불려서 가마니에 담았다가 날 좋으면 다 말려서.)

103012 @ 응.(응.)

103012 #1 ᄆᆞᆯ량은엥에 그때 시절엔 ᄆᆞᆯᄀᆞ레에 강 ᄀᆞᆯ곡게.(말려서 그때 시절엔 연자매에 가서 갈고.)

103012 @ 음.(음.)

103012 #1 그 후제 후제가 기계 낫주. 그 옛날엔 다 ᄆᆞᆯᄀᆞ레에 ᄀᆞᆯ앗수게게. 게고 ᄊᆞᆯ도 정ᄀᆞ레에 집의서 영 ᄀᆞ레 앚졍 영 영 ᄀᆞᆯ아근에.(그 후에 후에야 기계 났지. 그 옛날엔 다 연자매에 갈았습니다. 그러고 쌀도 풀맷돌에 집에서 이렇게 맷돌 앉혀서 이렇게 이렇게 갈아서.)

103012 @ 으, 게난 그 삼춘예, 그 보리 이제 헤서 도께로 헌 다음에 불리젠 허면 어디서 불려?(으, 그러니까 그 삼촌요, 그 보리 이제 해서 도리깨로 한 다음에 불리려고 하면 어디서 불려?)

103012 #1 아, 불리젠 허민게 영 이 마당에는 ᄇᆞ름이 잘, ᄇᆞ름도 ᄒᆞᆫ 줄로 쫙 가사 불리기도 좋주게. 경 허민 질 벳겻듸 내놩은에.(아, 불리려고 하면 이렇게 이 마당에는 바람이 잘, 바람도 한 줄로 쫙 가야 불리기도 좋지. 그렇게 하면 젤 바깥에 내놔서.)

103012 @ 으, 게영 불릴 때 허는 거를 뭐렌 허여?(으, 그래서 불릴 때 하는 거를 뭐라고 해?)

103012 #1 솔박[116][솔빡]으로 영 영 불려.('솔박'[솔빡]으로 이렇게 이렇게 불려.)

103012 @ 솔박으로 허곡.('솔박'으로 하고.)

103012 #1 멍석에 놔근에 영 불려.(멍석에 놔서 이렇게 불려.)

103012 @1 ᄆᆞᆯ릴 때는 어디서 ᄆᆞᆯ려?(말릴 때는 어디서 말려?)

103012 #1 마당에서.(마당에서.)

103012 @ 마당에서.(마당에서.)

103012 #1 마당에서 멍석 ᄀᆞᆯ앙.(마당에서 멍석 깔아서.)

103013 @ 멍석 ᄀᆞᆯ앙은에 이제 하고예. 그다음에 보리ᄊᆞᆯ로는 뭘 헤영 먹는 거라마씨? 옛날에.(멍석 깔아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보리쌀로는 뭘 해서 먹는 거예요? 옛날에.)

103013 #1 보리ᄊᆞᆯ로게 밥도 헹 먹곡. 그거 막 저 보리ᄊᆞᆯ 거펴나민양 거기 ᄀᆞ르가 나오주. 뿌서져나난. (웃음). 경 허영 걸로 감저 놓곡 허영 보리범벅 헹 먹고. 웃음.(보리쌀로 밥도 해서 먹고. 그거 막 저 보리쌀 거피하면요 거기 가루가 나오지. 부서져나니까. (웃음) 그렇게 해서 걸로 고구마 넣고 해서 보리범벅 해서 먹고. (웃음))

103013 @ 것이 등갯ᄀᆞ르[117]우과?(것이 '등갯ᄀᆞ르'입니까?)

103013 #1 으.(으.)

103013 @2 등갯ᄀᆞ르.('등갯ᄀᆞ르'.)

103013 #1 흐. 보리범벅 허영.(흐. 보리범벅 해서.)

103013 @ 보리범벅도 이제 헹 먹고. 보리 보깡은에 이제?(보리범벅도 이제 해서 먹고. 보리 볶아서 이제?)

103013 #1 건 보릿개역. 으, 보릿개역.(건 '보릿개역'. 으, '보릿개역'.)

103013 @ 보릿개역 멘들 때는 어떤 식으로 헷수가?('보릿개역' 만들 때는 어떤 식으

116) '솔박'은 한쪽은 타원형 다른 한쪽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바가지 모양의 그릇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손박, 솔팍, 좀팍' 따위로 부른다.

117) '등갯ᄀᆞ르'는 보리를 도정할 때 나오는 보릿가루를 말한다.

로 했습니까?)

103013 #1 건 보깡. 솟듸서 보깡. 골앙.(건 볶아서. 솥에서 볶아서. 갈아서.)

103013 @ 음.(음.)

103013 #1 골민 개역이 뒐 거.(갈면 미숫가루가 될 거.)

103013 @ 으음. 보통 그 개역 할 때는 솔보리로 허는 거 아니면은 줄보리로?(으음. 보통 그 미숫가루 할 때는 쌀보리로 하는 거 아니면 맥주보리로?)

103013 #1 게난 주넹이보리가 맛잇기 때문에.(그러니까 맥주보리가 맛있기 때문에.)

103013 @ 어.(어.)

103013 #1 주넹이보리로 저 허곡. 쉽게 허젠 허민 솔보리로 헤영 기자.(맥주보리로 저 하고. 쉽게 하려고 하면 쌀보리로 해서 그저.)

103013 @ 아.(아.)

103013 #1 껍덕이 얇으니까 솔보리게.(껍질이 얇으니까 쌀보리.)

103013 @ 예예.(예예.)

103013 #1 솔보리는양 그냥 쌂앙도 먹읍네께.(쌀보리는요 그냥 삶아서도 먹읍니다.)

103013 @ 음.(음.)

103013 #1 그냥 쌂앙 먹읍니께. 살보리는.(그냥 삶아서 먹읍니다. 쌀보리는.)

103013 @ 음.(음.)

103013 #1 골지 아녀도 기자.(갈지 않아도 그저.)

103013 @ 골지 아녀도 먹고.(갈지 않아도 먹고.)

103013 #1 껍덕이 꺼치는 게 엇이난. 주넹이보리는 거칠어 부난에.(껍질이 거치는 게 없으니까. 맥주보리는 거칠어 버리니까.)

103014 @ 예, 그치룩 헤영은에 골고 쏠 만들젠 허민 체도 나올 거 아니예?(예, 그처럼 해서 갈고 쌀 만들려고 하면 겨도 나올 거 아니어요?)

103014 #1 으, 체.(으, 겨.)

103014 @ 보리체는?(보릿겨는?)

103014 #1 대체[118]로 거름체로 ᄀᆞ는체로.('대체'로 '거름체'로 가는체로.)

103014 @ 음.(음.)

103014 #1 세 가지 잇주.(세 가지 있지.)

103014 @ 으, 게민 보리도 그걸 이제 이렇게 다 치는 거.(으, 그러면 보리도 그걸 이제 이렇게 다 치는 거.)

103014 #1 거는 얼멩이로 치곡 보리는.(거는 어레미로 치고 보리는.)

103014 @ 예, 보리 얼멩이로 치고.(예, 보리 어레미로 치고.)

103014 #1 골앙은에 허는 거는 대체로 걸르곡 대거름체[119]로 허곡 ᄀᆞ는체로 치곡.(갈아서 하는 거는 '대체'로 거르고 '대거름체'로 하고 가는체로 치고.)

103014 @ 그러면 이런 그 보리체 용도는 뭐우과?(그러면 이런 그 보릿겨 용도는 뭡

118) '대체'는 올이 '대거름체'보다 굵고 구멍이 큰 체이다. '대체'>'거름체'>'ᄀᆞ는체'(가는체) 순으로 올이 굵고 구멍이 크다.

119) '대거름체'는 대오리를 가늘게 하여 만든 체다. '대체'보다 올이 가늘고 구멍이 작은 체다.

니까?)

103014 #1 보리체?(보릿겨?)

103014 @ 으. 보리체 나오면 거는 어떵 허여?(으. 보릿겨 나오면 거는 어떻게 해?)

103014 @2 도새기 줍니까?(돼지 줍니까?)

103014 #1 아 도새기 체 주주.(아 돼지 겨 주지.)

103014 @ 으.(으.)

103014 #1 도새기.(돼지.)

103014 @ 도새기 주는 거?(돼지 주는 거?)

103014 #1 도새기 주는 거.(돼지 주는 거.)

103014 @ 보리찍은?(보릿짚은?)

103014 #1 보리찝게. 통시에 담아놩 걸름 멩글곡게.(보릿짚. 돼지우리에 담아놔서 거름 만들고.)

103014 @ 으.(으.)

103014 #1 또 무시거 헐 땐 땔감도 때곡게. 보리찝 마에 쯤은 보리찝 때영 보리밥 허젠 허민 연긴 팡팡 나고. 으으. (웃음)(또 무엇 할 땐 땔감도 때고. 보릿짚 장마에 쯤은 보릿짚 때어서 보리밥 하려고 하면 연긴 팡팡 나고. 으으. (웃음))

103014 @2 소리도 나곡. (웃음)(소리도 나고. (웃음))

103014 #1 아이그, 츰. 이, 이 나라 존 나라 나왓주. 그 옛날이사 삶이 삶이우과?(아이고, 참. 이, 이 나라 좋은 나라 나왔지. 그 옛날이야 삶이 삶입니까?)

103014 @ 게난 삼춘네도 보리찝으로 헤낫고.(그러니까 삼촌네도 보릿짚으로 했었고.)

103014 #1 우리도 보리찝으로 숨아낫수다.(우리도 보릿짚으로 때었었습니다.)

103014 @ 아.(아.)

103014 #1 우리 어릴 때부터 숨아난. 어머니네 허난에.(우리 어릴 때부터 땠었어. 어머니네 하니까.)

103014 @ 그다음에 보리 헤나면 그 까끄라기양?(그다음에 보리 해나면 그 까끄라기요?)

103014 #1 으, ᄀᆞ스락.(아, 까끄라기.)

103014 @ ᄀᆞ스락.(까끄라기.)

103014 #1 보릿ᄀᆞ스락[120].('보릿까끄라기'.)

103014 @ 으, 그 보릿ᄀᆞ스락으로 뭐헤?(으, 그 '보릿ᄀᆞ스락'으로 뭐해?)

103014 #1 굴묵 살르고.('굴묵' 사르고.)

103014 @ 굴묵 살르고? 으음. 그다음 보리를 용시를 헤도 버리는 게 하나도 없네?('굴묵' 사르고? 으음. 그다음 보리를 농사를 해도 버리는 게 하나도 없네?)

103014 #1 엇주게.(없지.)

103014 @ 예.(예.)

---

120) '보릿ᄀᆞ스락'은 보리를 탈곡할 때 나오는 까끄라기를 말한다.

103014 #1 남뎅이는게 걸름허곡 불 때곡.(줄기는 거름하고 불 때고.)

103014 @ 으.(으.)

103014 #1 ᄀᆞ스락은 굴묵 살르고 으.(까끄라기는 '굴묵' 사르고 으.)

103014 @ 예.(예.)

103014 #1 보리쏠 ᄀᆞᆯ아 아민 체는 도새기 질루곡 버리는 게 엇주.(보리쌀 갈고 나면 겨는 돼지 기르고 버리는 게 없지.)

103014 @ 게니까. 사름 먹고.(그러니까. 사람 먹고.)

103014 #1 그것이 개역 나오는 거는 ᄀᆞ르 나오는 거는.(그것이 미숫가루 나오는 거는 가루 나오는 거는.)

103014 @2 범벅헹 먹곡.(범벅해서 먹고.)

103014 #1 범벅헤영 먹곡. (웃음). (범벅해서 먹고. (웃음).)

103014 @ 범벅도 헹 먹곡. 보리로 뭐 떡도 헹 먹어?(범벅도 해서 먹고. 보리로 뭐 떡도 해서 먹어?)

103014 #1 보리떡. 말이 잇수게. 보리떡도, 보리떡도 떡이엔 고령에 들어앚는디.(보리떡. 말이 있습니다. 보리떡도, 보리떡도 떡이라고 채롱에 들어앉는데.)

103014 @ 아.(아.)

103014 #1 고령에 들어간덴. 옛날엔게 밀 엇인 땐 보리떡, 보리만뒤[121]헤근에양.(채롱에 들어간다고. 옛날엔 밀 없을 땐 보리떡, '보리만뒤' 해서요.)

103014 @ 예.(예.)

103014 #1 감저 담고 허영 맛서, 건. 보리만뒤 맛싯어. 주넹이보릿ᄀᆞ르 헤영.(고구마 담고 해서 맛있어, 건. '보리만뒤' 맛있어. 맥주보릿가루 해서.)

103014 @ 아아.(아아.)

103014 #1 술보리 아녕 주넹이보리.(쌀보리 않고 맥주보리.)

103014 @ 주넹이보리. 아아.(맥주보리. 아아.)

103014 #1 주넹이보리로 허영.(맥주보리로 해서.)

103014 @ 아, 게영 보리만뒤도 헷구나? 여기는.(아, 그래서 '보리만뒤'도 했구나? 여기는.)

103014 #1 예, 보리만뒤.(예, '보리만뒤'.)

103014 @ 게난 여기는 뭐 산듸나 이런 것들은 하영 안 갈앗구나예?(그러니까 여기는 뭐 산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갈았군요?)

103014 #1 그루제 그루제사 갈앗주. 산듸덜사. 다 세대* 그 뒤 다 넘어사 산듸를 갈안.(그 이후에 그 이후에야 갈았지. 밭벼들이야. 다 세대* 그 뒤 다 넘어야 밭벼를 갈았어.)

103014 @ 게난 삼춘네까지, 산듸는 언제 적 간 거 닮아마씨?(그러니까 삼촌네까지, 밭벼는 언제 적 간 거 같아요?)

---

121) '보리만뒤'는 보릿가루를 반죽한 후, 둥글납작하게 얇게 민 후 안에 팥소를 넣고 집으며 모양을 낸 후에 삶거나 찐 다음 팥고물을 묻인 떡이다.

103014 #1 뭐?(뭐?)

103014 @ 산뒤는?(밭벼는?)

103014 #1 산뒤, 산뒤 우리도 이디 하영 감도 우리, 우리, 우리부떠 갈앗주.(밭벼, 밭벼 우리도 여기 많이 감도 우리, 우리, 우리부터 갈았지.)

103014 @ 음.(음.)

103014 #1 우리 우리 때부떠 산뒤. 예, 양석으로양. 산뒤는 우리부터 갈앗수다. 겐디 요즘은 설러 벳주마는.(우리 우리 때부터 밭벼. 예, 양식으로요. 밭벼는 우리부터 갈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만둬 버렸지만.)

103015 @ 음, 삼춘, 보리 갈멍 잊어 불지 못허는 거는 그 걸름 헌 거?(음, 삼촌, 보리 갈면서 잊어 버리지 못하는 거는 그 거름 한 거?)

103015 #1 게 그거.(게 그거.)

103015 @ 그 말?(그 말?)

103015 #1 그것사 잊어 베질 거우과? 돗ᄀᆞ레. (웃음). 그거허고 감저밥[122]만 감저만 먹어난 거 허고게. 그런 것사 잊어 벼집니까. 옛날. 아이그.(그것이야 잊어 버려질 겁니까? 돼지거름. (웃음). 그거하고 '고구마밥'만 고구마만 먹었던 거 하고. 그런 것이야 잊어 버려집니까. 옛날. 아이고.)

103015 @ 맞아.(맞아.)

103015 #1 감저밥만 감저밥만.('고구마밥'만 '고구마밥'만.)

조농사

103016 @ 이 동네도 조도 하영 갈안마씨?(이 동네도 조도 많이 갈았어요?)

103016 #1 예, 조 갈주게.(예, 조 갈지.)

103016 @ 으, 조.(으, 조.)

103016 #1 피, 피도 갈곡.(피, 피도 갈고.)

103016 @ 아, 이 동네도 피 갈앗구나. 알앗수다. 게민 조농사 허젠 허면은 그 준비부떠 헤얄, 뭘 거 아니우과양?(아, 이 동네도 피 갈았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농사 하려고 하면 그 준비부터 해야 할, 될 거 아닙니까요?)

103016 #1 으.(으.)

103016 @ 뭘 준비허여? 조농사 허젠 허면?(뭘 준비해? 조농사 하려고 하면?)

103016 #1 조농사 허젠 허민 불리젠 허민 물 엇인 집인 저 나무로 헤근엥에 그 물 다리 만들앙양. 것ᄀᆞ라 목매[123]. 이름이 목매.(조농사 하려고 하면 밟으려고 하면 말 없는 집엔 저 나무로 해서 그 말 다리 만들어서요. 것보고 '목매'. 이름이 '목매'.)

---

122) '감저밥'은 보리쌀 따위에 고구마를 함께 넣어서 지은 밥이다.

123) '목매'는 조 따위의 씨를 흙에 묻기 위하여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도구다. '목매'는 즉 '목마(木馬)'의 제주어식 발음이다. 지역에 따라서 '남테'라고 한다.

103016 @2 아아. 목매? 아아.(아아. '목매'? 아아.)

103016 @ 목매?('목매'?)

103016 #1 목매. 발 여라 개 달려근엥에 그 저 나무 큰 거 술진[124] 거 헤근에양.('목매'. 발 여러 개 달려서 그 저 나무 큰 거 굵은 거 해서요.)

103016 @ 예.(예.)

103016 @2 남테 하는 거?('남테' 하는 거?)

103016 #1 으, 남테엔 헙니까? 그딘.(으, '남테'라고 합니까? 거긴.)

103016 @2 예.(예.)

103016 #1 우린 목매.(우린 '목매'.)

103016 @ 으, 여기는 목매.(으, 여기는 '목매'.)

103016 #1 으, 목매 헤영 그거 그걸로 끗엉은에게. 믈, 그냥 믈 엇인 사름덜은.(으, '목매' 해서 그거 그걸로 끌어서. 말, 그냥 말 없는 사람들은.)

103016 @ 음.(음.)

103016 #1 믈 잇인 사람은 그 믈로 불리곡. 경 또 그치룩 목매질[125]도 못허면은 끄세기로.(말 있는 사람은 그 말로 밟고. 그렇게 또 그처럼 '목매질'도 못하면 끙게로.)

103016 @ 음.(음.)

103016 #1 끄세기로 기자 실실 끗어근에.(끙게로 그저 실실 끌어서.)

103016 @ 으음. 게난 사람. 믈 엇인 사름은 목매허고 끄세기로 허는 거고.(으음. 그러니까 사람. 말 없는 사람은 '목매'하고 끙게로 하는 거고.)

103016 #1 으으으.(으으으.)

103016 @ 믈 이신 사름덜은 어떤 식으로?(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103016 #1 믈로.(말로.)

103016 @ 믈로 허영. 이 동네도 게민 믈 잇인 사름들은?(말로 해서. 이 동네도 그러면 말 있는 사람들은?)

103016 #1 예, 잇어낫수다. 예, 예, 예.(예, 있었었습니다. 예, 예, 예.)

103016 @ 그런 사름은 뭐렌 골읍네까?(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103016 @2 믈테우리.('믈테우리'.)

103016 #1 테우리[126], 테우리.('테우리', '테우리'.)

103016 @ 테우리.('테우리'.)

103016 #1 테우리.('테우리'.)

103016 @ 으, 테우리예?(으, '테우리'요?)

103016 #1 그런 사름은 오민 막 반찬 출령 막 쏠 엇어도 곤쏠 헤당 서껑 밥 헤영 안네곡. 믈테우리[127]. (웃음).(그런 사람은 오면 아주 반찬 차려서 아주 쌀 없어도 흰쌀 해다가 섞어서 밥 해서 드리고. '믈테우리'. (웃음))

---

124) '술진'은 '살찐'의 뜻이나 여기서는 '굵은'의 의미로 쓰였다.
125) '목매질'은 조씨 따위를 흙에 묻기 위하여 '목매'를 끌고 다니는 일을 말한다.
126) '테우리'는 주로 말과 소를 들에 놓아 먹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목동을 이르는 말이다.
127) '믈테우리'는 주로 말을 기르거나 말을 이용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03016 @ 물테우리?('물테우리'?)

103016 #1 (웃음) 테우리밥[128] 헤영 강 그디 강 물 둘아나게 말렌 영 내조 헤근에 헤뒁 허는 거주. 그 동산에 강.((웃음) '테우리밥' 해서 가서 거기 가서 말 달아나게 말라고 이렇게 '내조(?) 해서 해두고 하는 거지. 그 동산에 가서.)

103016 @ 그걸 테우리밥이렌 헤?(그걸 '테우리밥'이라고 해?)

103016 #1 어, 제숙[129]도 물른, 저 곶인제숙[130] 구국, 술도 곶은펭[131]으로 아지곡 헹 강 문저 케우렁 테우리 헤뒁은에 허는 것덜.(어, 제육도 마른, 저 '곶인제숙' 굽고, 술도 '곶은펭'으로 가지고 해서 가서 고수레해두고 '테우리' 해둬서 하는 것들.)

103016 @ 게난 케우리는 거를 뭐렌 골아마씨? 아까?(그러니까 고수레하는 거를 뭐라고 말해요? 아까?)

103016 #1 테우리, 물테우리 헤뒁.('테우리', '물테우리' 해두고.)

103017 @ 알앗수다. 게문예, 조밧도 걸름 헤?(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조밭도 거름 해?)

103017 #1 조밧?(조밭?)

103017 @ 으.(으.)

103017 #1 조밧은 걸름 아녕양?(조밭은 거름 않고요?)

103017 @ 예.(예.)

103017 #1 보리 갈 때 듬북 물른 듬북 하영 헌 사름은 듬북 끌아 나근에 보리 갈아나민 그 조도 경 좋읍니다.(보리 갈 때 듬북 마른 듬북 많이 한 사람은 듬북 깔아서 보리 갈고 나면 그 조도 그렇게 좋습니다.)

103017 @ 으음.(으음.)

103017 #1 그 듬북 헤나민. 경 허곡 돗ᄀᆞ레 헤낭 헌 밧듸도 기자 그대로 헹 허곡. 조팟듸 걸름이엔 헌 게 어디 잇수가? 조팟듸 무신 걸름.(그 듬북 해나면. 그렇게 하고 돼지거름 해서 한 밭에도 그저 그대로 해서 하고. 조밭에 거름이라고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조밭에 무슨 거름.)

103017 @ 으음.(으음.)

103017 #1 걸름 아무 것도 안 헙니다.(거름 아무 것도 안 합니다.)

103018 @ 조팟딘 안 허고. 게민 조는 언제 가는 거마씨?(조밭에는 안 하고. 그러면 조는 언제 가는 거예요?)

103018 #1 조, 유월에 막 칠월에 검질메는 거난에게.(조, 유월에 아주 칠월에 김매는 거니까.)

103018 #1 유월절[132] 유월절 전이 갈앙.('유월절' '유월절' 전에 갈아서.)

103018 @ 음.(음.)

---

128) '테우리밥'은 말을 운용해서 일을 하는 '테우리'를 위해 지은 밥을 말한다.
129) '제숙'은 제육의 의미다. 제주에서는 보통 제육으로 쓰는 생선을 말한다.
130) '곶인제숙'은 온전한 생선으로 구운 제육을 말한다.
131) '곶인펭'은 '술 따위가 가득 담긴 병'을 말한다.
132) '유월절'은 소서에서 입추까지의 절기를 말하는데, 그 기준은 소서가 된다.

103018 #1 건 배달밧[133]듸 피 가는 거고.(건 '배달밧'에 피 가는 거고.)

103018 @ 으.(으.)

103018 #1 싱피[134] 진 딘 화산회토라 부난.('싱피' 진 데는 화산회토여 버리니까.)

103018 @ 아까 싱피 진 밧이렌 허고 술 무신 밧?(아까 '싱피' 진 밭이라고 하고 '술' 무슨 밭?)

103018 #1 술뜬밧[135]. 술뜬밧은 조, 옛날 막 술뜬밧은 흐린조팟[136]이옌 허영양 흐린조만 갈아.('술뜬밧'. '술뜬밧'은 조, 옛날 아주 '술뜬밧'은 '흐린조팟'이라고 해서요 차조만 갈아.)

103018 @ 음.(음.)

103018 #1 그 막 술뜬밧은.(그 아주 '술뜬밧'은.)

103018 @ 수확 많이 나는 거.(수확 많이 나는 거.)

103018 #1 게난 그런 밧이 그런 밧 가진 사름이 멧 사름 안 뒈주. 흐린조팟 가진 사름이.(그러니까 그런 밭이 그런 밭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지. '흐린조팟' 가진 사람이.)

103018 @ 흐린조팟 가진 사름이예. 게믄 삼춘예, ᄐᆞ혼밧도 ᄀᆞᆯ고 술뜬밧도 잇고 싱피 진 밧도 잇고 배달밧도 잇고 이런 무슨 밧 이름 어떤 밧 잇덴 헙니까?('흐린조팟' 가진 사람이요. 그러면 삼촌요, 'ᄐᆞ혼밧'도 말하고 '술뜬밧'도 있고 '싱피' 진 밭도 있고 '배달밧'도 있고 이런 무슨 밭 이름 어떤 밭 있다고 합니까?)

103018 #1 게난 싱피밧[137]은 밑에 돌이 이신 거라. 빌레. 빌레 이신 밧은 우에 흑 잇어 봐도 비 ᄒᆞ꼼만 오민 물이 돌 잇어 부난 내려가지 못허는 따문에 삐작삐작헤근에 빠졍 싱삐[138], 싱삐. 경 허는 거고. 야픈 빌레밧은게 야픈 밧. 밧이.(그러니까 '싱피밧'은 밑에 돌이 있는 거야. '빌레'. '빌레' 있는 밭은 위에 흙 있어 봐도 비 조금만 오면 물이 돌 있어 버리니까 내려가지 못하는 때문에 삐작삐작해서 빠져서 '싱삐', '싱삐'. 그렇게 하는 거고. 얕은 '빌레밧'은 얕은 밭. 밭이.)

103018 @ 예.(예.)

103018 #1 밧이 땅더레 막 토허지[139] 아녕 얇은 거.(밭이 땅으로 아주 '토하지' 않아서 얇은 거.)

103018 @ 음.(음.)

103018 #1 그런 밧은 저 빌레밧[140]이주게.(그런 밭은 저 '빌레밧'이지.)

103018 @ 빌레밧. 배달밧은?('빌레밧'. '배달밧'은?)

---

133) '배달밧'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토질이 좋지 않은, 자갈이 깔린 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134) '싱피'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땅 밑에 자갈 따위가 있어서 물이 고이는'의 의미로 쓰였다. 제보자는 달리 '싱삐'라고도 발음하였다.
135) '술뜬밧'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흙이 좋은 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136) '흐린조팟'은 '흐린조', 즉 차조를 가는 밭이다. 토질이 좋은 밭이어야 차조가 잘 된다고 한다.
137) '싱피밧'은 바닥에 돌 따위가 있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질척거리는 밭을 말한다.
138) '싱삐'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땅 밑에 자갈 따위가 있어서 물이 고이는'의 의미로 쓰였다. 제보자는 달리 '싱피'라고도 발음하였다.
139) '토허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밭의 '흙이 많지'의 의미다.
140) '빌레밧'은 밭의 흙 밑에 너럭바위 따위가 깔린 밭을 말한다. 달리 '빌레왓'이라고도 한다.

103018 #1 게메, 배달밧이 빌레밧이라.(글쎄 '배달밧'이 '빌레밧'이야.)

103018 @ 배달밧이 빌레밧이고.('배달밧'이 '빌레밧'이고.)

103018 #1 예.(예.)

103018 @ 그다음에 술뜬밧은?(그다음에 '술뜬밧'은?)

103018 #1 술뜬밧[141]은게 막 토흔밧.('술뜬밧'은 아주 '토흔밧'.)

103018 @ 으.(으.)

103018 #1 흐리조팟 가는 밧이 술뜬밧.('흐리조팟' 가는 밭이 '술뜬밧'.)

103018 @ 술뜬밧. 게난 토흔밧 중에서도 더 좋은 게 술뜬밧이구나.('술뜬밧'. 그러니까 '토흔밧' 중에서도 더 좋은 게 '술뜬밧'이구나.)

103018 #1 으, 아니 토흔밧이 토흔밧이 그것이 그거주게.(으, 아니 '토흔밧'이 '토흔밧'이 그것이 그거지.)

103019 @ 토흔밧이 술뜬밧이랑 ᄀᆞ튼 말예. 게면 이제 그 좁씨는 어떤 식으로 뿌리는 거?('토흔밧'이 '술뜬밧'이랑 같은 말요. 그러면 이제 그 조씨는 어떤 식으로 뿌리는 거?)

103019 #1 뻡니께. 삐여. 밧 다 갈아놓민 좁씨 삐여. 좁, 나 잘 삔다마는.(뿌립니다. 뿌려. 밭 다 갈아놓으면 좁씨 뿌려. 조, 나 잘 뿌린다만.)

103019 @2 아, 그건 기술이 필요한데.(아, 그건 기술이 필요한데.)

103019 #1 예.(예.)

103019 @ 게난 삼춘 그, 조 갈아 봅서. 밧 갈앙?(그러니까 삼촌 그, 조 갈아 보세요. 밭 갈아서?)

103019 #1 이 좁씨도예.(이 좁씨도요.)

103019 @ 예.(예.)

103019 #1 잘 삐여사 골로로. 골로로 가게 삐주. 저기 저 전의 당근 갈 때도 삐연 갈아낫수다, 이디.(잘 뿌려야 골고루. 골고루 가게 뿌리지. 저기 저 전에 당근 갈 때도 뿌려서 갈았었습니다, 여기.)

103019 @ 예.(예.)

103019 #1 골로 안 갈 때는양.(골로 안 갈 때는요.)

103019 @ 예.(예.)

103019 #1 게민 나도 당근 갈 때 씨 삐여ᄃᆞ렌 헹 가곡 헹 삐여 내곡 허는디, 아따, 거 누게 씨 삐여시니 허주게.(그러면 나도 당근 갈 때 씨 뿌려달라고 해서 가고 해서 뿌려 내고 하는데, 아따, 거 누구 씨 뿌렸느냐 하지.)

103019 @ 음.(음.)

103019 #1 우리 그 좁씨나 산듸씨구 그런 씨는 잘 삐여져.(우리 그 좁씨나 밭벼씨고 그런 씨는 잘 뿌려져.)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완전. 그게 풀힘 내영양, 풀힘 내영 촥촥 뿌리면은 막 포가지[142] 아녕 골

141) '술뜬밧'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흙이 깊은 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로로 가곡, 이 삐는 거 서툰 사름은 이 풀을 영 허영 허지 아녀고 영 허여둠서로 영 영 영 영 헤 불면은 가는 딘 하영 가곡 안 가는 딘 덜 가곡 경 두릿두릿두릿 우리 씨 삐는 거는 ᄌᆞ신 잇주.(완전. 그게 팔심 내서요, 팔심 내서 촥촥 뿌리면 아주 '포가지' 않아서 골고루 가고, 이 뿌리는 거 서툰 사람은 이 팔을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해두고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버리면 가는 덴 많이 가고 안 가는 덴 덜 가고 그렇게 두릿두릿두릿 우리 씨 뿌리는 거는 자신 있지.)

103020 @ 게난예, 이제 조 갈아 봅서, 혼번. 순서대로. 불려봐?(그러니까요, 이제 조 갈아 보십시오, 한번. 순서대로. 밟아봐?)

103020 #1 조, 조 가는 것이 밧 갈아 놓민게.(조, 조 가는 것이 밭 갈아 놓으면.)

103020 @ 예.(예.)

103020 #1 밧 갈아 놓민 씨 삐여근에 끄세기질 허는 거.(밭 갈아 놓으면 씨 뿌려서 끙게질 하는 거.)

103020 @ 게문 끗?(그러면 끝?)

103020 #1 으, 나무로 끄세기 멩글앙은에.(으, 나무로 끙게 만들어서.)

103020 @ 응.(응.)

10 3020 #1 끄세기 헹 씨만 삐여지민.(끙게 해서 씨만 뿌려지면.)

103020 @ 밧 불리는 건 어떤 식으로?(밭 밟는 건 어떤 식으로?)

103020 #1 밧 불리는 건 아까 식으로 ᄆᆞᆯ도 이신 사람은 조도 갈앙 죽는 밧은 불립니다. 탱탱헤야 염넨.(밭 밟는 건 아까 식으로 말도 있는 사람은 조도 갈아서 죽는 밭은 밟습니다. 탱탱해야 여문다고.)

103020 @ 음.(음.)

103020 #1 여물이 염넨. 밧이 탱탱허게 다려져사 염넨 헙니께, 고고리가. 경 허영 허곡게. 엇잇 사름은 끄세기질 헤근에 내부는 거주게.(여물이 여문다고. 밭이 탱탱하게 다져져야 여문다고 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해서 하고. 없는 사람은 끙게질 해서 내버리는 거지.)

103020 @ 게난 삼춘네는 ᄆᆞᆯ테우리 허영 안 헤봔?(그러니까 삼촌네는 'ᄆᆞᆯ테우리' 해서 안 해봤어?)

103020 #1 아니 ᄆᆞᆯ테우리.(아니 'ᄆᆞᆯ테우리'.)

103020 @ 안 헤보고.(안 해보고.)

103020 #1 끄세기. 끄세기 멘들앙 끄세기질.(끙게. 끙게 만들어서 끙게질.)

103020 @2 예를 들엉 비가 왕, 비가 왕은에 벗어 불면?(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비가 와서 벗겨 버리면?)

103020 #1 벗지 아녑니다게.(벗지 않습니다.)

103020 @2 아.(아.)

103020 #1 우린 결혼헨에 조 멧 년 안 갈아낫수다.(우린 결혼해서 조 몇 년 안 갈았었습니다.)

142) '포가지'는 '겹쳐지지'의 의미다. '포가다'는 '포[重]+가다' 구성으로 된 어휘다.

103020 @ 음.(음.)

103020 #1 우리 멧 년 안 갈안 산듸 멧 년 갈아낫주.(우리 몇 년 안 갈아서 밭벼 몇 년 갈았었지.)

103020 @ 음.(음.)

103020 @2 혹시 마갈이는 어떤 거우과? 마갈이.(혹시 '마갈이'는 어떤 겁니까? '마갈이'.)

103020 #1 마갈이[143]?('마갈이'?)

103020 @ 마걷이조 허는 거?('마갈이조' 하는 거?)

103020 #1 마갈이조.('마갈이조'.)

103020 @ 으.(으.)

103020 #1 마갈이조.('마갈이조'.)

103020 @ 게난 조도 갈면 마 헹, 마 오기 전에 마 치기 전에 유월 장마 들기 전에 허지 아녑니까? 무사. 그 조 갈앙은에 그 마가 안 졍은에 헷빛이 쫙 나면.(그러니까 조도 갈면 장마 해서, 장마 오기 전에 장마 지기 전에 유월 장마 들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조 갈아서 그 장마가 안 져서 햇볕이 쫙 나면.)

103020 # 1 으.(으.)

103020 @ 걸 마갈이조 이런 말 안 헤 이 동네?(걸 '마갈이조' 이런 말 안 해 이 동네?)

103020 #1 아니.(아니.)

103020 @ 그런 말은 안 허고예?(그런 말은 안 하고요?)

103020 @2 아.(아.)

103020 #1 마걷이, 마걷이조[144]. (웃음).('마걷이', '마걷이조'. (웃음).)

103021 @ 으, 마걷이 이런 말 안 헤.(으, '마걷이' 이런 말 안 해.)

103021 #1 안 헤.(안 해.)

103021 @ 그런 건 안 하고예, 알앗수다. 조팟 검질은 어떵 메여마씨?(그런 건 안 하고요, 알았습니다. 조밭 김은 어떻게 매요?)

103021 #1 조팟, 조팟 검질은 어떵 멥니까? 조씨 소끄곡 뭐 허젠 허민 초불 메곡 두불 메곡 세불 메곡 허주.(조밭, 조밭 김은 어떻게 맵니까? 조씨 솎고 뭐 하려고 하면 초벌 매고 두벌 매고 세벌 매고 하지.)

103021 @ 세불까지?(세벌까지?)

103021 #1 으.(으.)

103021 @ 게믄 초불은 어떵 식으로 허는 거마씨?(그러면 초벌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03021 #1 초불은 씨 소끄곡.(초벌은 씨 솎고.)

103021 @ 예.(예.)

---

143) '마갈이'는 장마 시기가 지난 뒤에 파종하는 조농사 따위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마걷이'라고도 한다.
144) '마걷이조'는 마가 걷힌 다음에 파종하는 조농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마갈이조'라고도 한다.

103021 #1 씨 소끄곡 벌레기[145]엔 헤근에 그 묵은 풀 이신 거 덥삭덥삭 이신 벌레기풀[146].(씨 솎고 '벌레기'라고 해서 그 묵은 풀 있는 거 덥석덥석 있는 '벌레기풀'.)

103021 @ 음.(음.)

103021 #1 처음 그거 헤영 메엿당 사름 엇인 사름은 그거 벌레기부터 우선 메엿당.(처음 그거 해서 맸다가 사람 없는 사람은 그거 '벌레기'부터 우선 맸다가.)

103021 @ 으.(으.)

103021 #1 씨 ᄒᆞ쏠 크면은 그땐 또 씨 소끄멍 제라이 초불로 들어가양?(씨 조금 크면 그땐 또 씨 솎으면서 제대로 초벌로 들어가요?)

103021 @ 음.(음.)

103021 #1 경 헤영 멧당 또 두불은?(그렇게 해서 맸다가 또 두벌은?)

103021 @ 예.(예.)

103021 #1 그 경 소끄노렌 헤도 새에 준준헌 거 잇어양. 씨가.(그 그렇게 솎으노라고 해도 새에 자잘한 거 있어요. 씨가.)

103021 @ 예.(예.)

103021 #1 그거 메야 뒙니까. 두불은. 그거 메는 거, 그거 메는 거.(그거 매야 됩니다. 두벌은. 그거 매는 거, 그거 매는 거.)

103021 @ 싀불은?(세벌은?)

103021 #1 세불은 경 헤도 피도 들어가고 그 조팟듸. 무신거 그런 거 저런 거 들어가난 세불은 막 쉬웁니다게. 쉬어. 기자 잇인 거만 허는 거난에.(세벌은 그렇게 해도 피도 들어가고 그 조밭에. 무엇 그런 거 저런 거 들어가니까 세벌은 아주 쉽습니다. 쉬워. 그저 있는 거만 하는 거니까요.)

103021 @ 게난 그 벌레기풀 허는 거는 묵은 풀을 벌레기엔 허는 거우과?(그러니까 그 '벌레기풀' 하는 거는 묵은 풀을 '벌레기'라고 하는 겁니까?)

103021 #1 으, 으. 밧 갈 때.(으, 으. 밭 갈 때.)

103021 @ 으.(으.)

103021 #1 밧 갈 때 요즘은 제초제 이시난에 싹 쳐뒁 헴주마는 옛날은 그걸 메여뒁은에 밧을 갑니께게. 경 허당 보민 묵은 풀이 하나씩 떨어져.(밭 갈 때 요즘은 제초제 있으니까 싹 쳐두고 하고 있지만 옛날은 그걸 매둬야 밭을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묵은 풀이 하나씩 떨어져.)

103021 @ 음.(음.)

103021 #1 그것이 ᄀᆞ찌 조 ᄇᆞᆯ려 불민은 그 풀이 죽지 아녕 그대로 살앙 크주게.(그것이 같이 조 밟아 버리면 그 풀이 죽지 않아서 그대로 살아서 크지.)

103021 @ 음.(음.)

103021 #1 게난 그거부떠 ᄆᆞᆫ저 메여 벼사 벌레기 둘러 벼사.(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매어 버려야 '벌레기' 둘러 버려야.)

---

145) '벌레기'는 새로 나지 않은 묵은 풀을 말한다.

146) '벌레기풀'은 새로 나지 않은 묵은 풀을 말한다. 줄여서 '벌레기'라고도 한다.

103021 @ 벌레기 둘른덴 허는 거?(‘벌레기’ 두른다고 하는 거?)

103021 #1 벌레기 둘러사.(‘벌레기’ 둘러야.)

103021 @ 겨고 삼춘, 그 이렇게 초불하잖아예.(그러고 삼촌, 그 이렇게 초벌하잖아요.)

103021 #1 으.(으.)

103021 @ 그러면 초불하게 뒈면은 이 씨를, 그 조를 이렇게 세우멍 허는 거를 여긴 뭐 방 벌린다 이런 말은 안 헤?(그러면 초불하게 되면 이 씨를, 그 조를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 거를 여긴 뭐 ‘방 벌인다’ 이런 말은 안 해?)

103021 #1 아니, 방씨 벌영[147] 조.(아니, ‘방씨 벌여서’ 조.)

103021 @ 으.(으.)

103021 #1 것도 잘 소끄는 사름 잇고 못 소끄는 사름 잇주.(것도 잘 솎는 사람 있고 못 솎는 사람 있지.)

103021 @ 건 방씨 벌린덴 헤?(건 ‘방씨 벌인다’고 해?)

103021 #1 으, 방씨 벌영, 조 방씨 벌영 졸바로 소끄라.(으, ‘방씨 벌여서’, 조 ‘방씨 벌여서’ 제대로 솎아라.)

103021 @ 방씨 벌린다예, 예.(‘방씨 벌인다’요, 예.)

103021 #1 예, 거 딱 귀역을 맞춘다 허는 말로 방씨 벌인다 허는 거.(예, 거 딱 구역을 맞춘다 하는 말로 ‘방씨 벌인다’ 하는 거.)

103021 @ 뭐 타는 거 닮아.(뭐 타는 거 같아.)

103021 #1 에, 옥수수 앚졋져. (웃음).(에, 옥수수 안쳤어. (웃음).)

103021 @2 (웃음).(웃음.)

103021 #1 벌써 타나. 어, 맞아. (기침).(벌써 타나. 아, 맞아. (기침).)

103021 @2 아이고, 마갇이엔 안 한다이. 마갇이.(아이고, ‘마갇이’라고 안 하네. ‘마갇이’.)

103021 @ 음, 토흔밧, 솔뜬밧, 배달밧.(음, ‘토흔밧’, ‘솔뜬밧’, ‘배달밧’.)

103022 @ 이제 그추룩 허영은에 아까 검질멧지 안우꽈예? 검질은 그 게도 조밧듸도 검질 잇일 거 아니? 어떤 검질들 잇어마씨?(이제 그처럼 해서 아까 김맸지 않았습니까? 김은 그 그래도 조밭에도 김 있을 거 아니? 어떤 김들 있어요?)

103022 #1 제완지.(바랭이.)

103022 @ 으.(으.)

103022 #1 몰레제완지[148], 그냥 북덕, 북덕제완지[149]. 헤바레기풀[150].(‘몰레제완지’, 그냥 ‘북덕’, ‘북덕제완지’. ‘헤바레기풀’.)

103022 @ 으.(으.)

---

147) ‘방씨 벌영’은 ‘방씨 벌여서’라는 의미로, ‘조를 솎으면서 구역에 맞게 사방으로 벌여 놓다’는 의미다.

148) ‘몰레제완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바랭이의 일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바랭이 밑동이 붉은 색을 띤다고 한다.

149) ‘북덕제완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바랭이의 일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북덕제완지’는 줄기로 마구 벋어가는 속성을 지녔다고 한다.

150) ‘헤바레기풀’은 여름철에 많이 나는 김의 일종이다.

103022 #1 그런 거.(그런 거.)

103022 @ 요즘도 그런 검질들 보입니까?(요즘도 그런 김들 보입니까?)

103022 #1 예, 요즘도 그런 거 잇어.(예, 요즘도 그런 거 있어.)

103022 @ 음, 아까 몰레제완지는 뭐?(음, 아까 '몰레제완지'는 뭐?)

103022 #1 으, 몰레제완지는 저 굽뎅이 빨강헌 것이 몰레제완지고.(으, '몰레제완지'는 저 밑동이 빨간 것이 '몰레제완지'고.)

103022 @ 으.(으.)

103022 #1 또 북덕제완지는 막 커근에 막 벋어가는 것이 북덕제완지고.(또 '북덕제완지'는 아주 커서 막 벋어가는 것이 '북덕제완지'고.)

103022 @ 으.(으.)

103022 #1 북덕제완지는 이 메기가 쉬워.('북덕제완지'는 이 매기가 쉬워.)

103022 @ 예.(예.)

103022 #1 저 줄 막 벋어 부난 쉽곡. 그 몰레제완지는양.(저 줄 막 벋어 버리니까 쉽거. 그 '몰레제완지'는요.)

103022 @ 예.(예.)

103022 #1 찔깁니다게, 뿔리가.(질깁니다, 뿌리가.)

103022 @ 음.(음.)

103022 #1 막 벋진 아녀는디 꼳짝꼳짝 나는디 질겨.(막 벋진 않는데 곧게곧게 나는데 질겨.)

103022 @ 으.(으.)

103022 #1 건 몰레제완지.(건 '몰레제완지'.)

103022 @ 거난 북덕제완지가 저기 좋은 거?(그러니까 '북덕제완지'가 저기 좋은 거?)

103022 #1 메기는 막 쉽주.(매기는 아주 쉽지.)

103023 @ 음. 그다음에 조 수확허젠 허믄 어떵 헤야 뒈?(음. 그다음에 조 수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03023 #1 조 비여당 톹주게. 고고리 톹앙.(조 베어다가 따지. 이삭 따서.)

103023 @ 음.(음.)

103023 #1 음.(음.)

103023 @ 그걸 골아 줍서. 어떤 식으로 톹고 어떵 허여신지?(그걸 말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따고 어떻게 했는지?)

103023 #1 조 비여다근엥에 집의 헤여 놓믄게, 혼 단씩 꺼네영게 이치룩 헨게 고고리 톹, 심으멍 헹은에 호미로 짝 그창 영 놓곡 영 영 심엉 고고리 톹는 거.(조 베어다가 집에 해 놓으면, 한 단씩 꺼내서 이처럼 해서 이삭 따, 잡으면서 해서 낫으로 짝 끊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삭 따는 거.)

103023 @ 음.(음.)

103023 #1 게영 톹아 놔근에 마당에 비왕 도께로 메당질헤근에 터는 거주.(그래서

따 놓아서 마당에 부어서 도리깨로 마당질해서 떠는 거지.)

103023 @ 으음, 그때 조 무끌 때는 뭘로 무껏수가?(으음, 그때 조 묶을 때는 무엇으로 묶었습니까?)

103023 #1 조 무끌 때도 그자 그걸로 무껏수다. 조도 조로.(조 묶을 때도 그저 그걸로 묶었습니다. 조도 조로.)

103023 @ 아, 조남뎅이로 무끌 수 잇어마씨?(아, 조 줄기로 묶을 수 있어요?)

103023 #1 예. 조남뎅이로 무끕니다. 조가 막 길지 아녀우꽈양?(예. 조 줄기로 묶습니다. 조가 아주 길지 않습니까요?)

103023 @2 예.(예.)

103023 #1 게믄 이것이 고고리 아니우꽈? 고고리 다음에 이렇게 모가지가 잇지 아녀우과?(그러면 이것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 다음에 이렇게 모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03023 @ 예.(예.)

103023 #1 진 것이예? 게믄 그 우로 요렇게 헹 틀엉 영 딱 꼬부령 영 놔근에 걸로 무끕니다.(긴 것이요? 그러면 그 위로 요렇게 해서 꼬아서 이렇게 딱 구부려서 이렇게 놔서 걸로 묶습니다.)

103023 @ 예. 아 조도.(예. 아 조도.)

103023 #1 께 뚜로 안 혜 봣수다.(매끼 따로 안 해 봤습니다.)

103023 @ 아, 께를 뚜로 안 혜예예?(아, 매끼를 따로 안 한다고요?)

103023 #1 워낙 짧으민.(워낙 짧으면.)

103023 @ 음.(음.)

103023 #1 께가 안 나올 정도로 짧으면은 따로 헤도 안 혜 봣수다.(매끼가 안 나올 정도로 짧으면 따로 해도 안 해 봤습니다.)

103024 @ 아, 다 지 것으로. 게면 그 이삭을 허는 거는 이삭 튿암덴 헤? 고고리 튿암덴?(아, 다 제 것으로. 그러면 그 이삭을 하는 거는 이삭 따고 있다고 해? 이삭 따고 있다고?)

103024 #1 으, 아니, 아 저 조코고리 튿는 거?(으, 아니, 아 저 조이삭 따는 거?)

103024 @ 으.(으.)

103024 #1 건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이삭은 빨리 먹젠.(건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이삭은 빨리 먹으려고.)

103024 @ 예.(예.)

103024 #1 곧 익어가민 강 튿아당 그 쏠이 떨어져 가난.(곧 익어가면 가서 따다가 그 쌀이 떨어져 가니까.)

103024 @ 음.(음.)

103024 #1 익음스럽게 먹을 거 엇이난 이삭 줍는 건 그거.(익음직하게 먹을 거 없으니까 이삭 줍는 건 그거.)

103024 @ 음.(음.)

103024 #1 경 헹 튿아당 이석으로 헹 먹는 거.(그렇게 해서 따다가 이삭으로 해서

먹는 거.)

103024 @ 아, 게난 보리 말고 조도 그런 식으로 익기 전에 헤당 먹엇수가?(아, 그래도 보리 말고 조도 그런 식으로 익기 전에 해다가 먹었습니까?)

103024 #1 예.(예.)

103024 @ 으음.(으음.)

103024 #1 게 쏠이 엇어 가난게.(그럼 쌀이 없어 가니까.)

103024 @ 음, 그다음에 게믄 건 톧앙은에, 톧으면 그다음엔 뭘로 것도 도리깨질?(음, 그다음에 그러면 건 따다가, 따면 그다음엔 무엇으로 것도 도리깨질?)

103024 #1 아니, 게 이삭 줏는 거는 얼만 아녀난에 발로 븍븍 보빕니다게.(아니, 그래 이삭 줍는 거는 얼만 않으니까 발로 박박 비빕니다.)

103024 @ 예.(예.)

103024 #1 발로 븨병.(발로 비벼서.)

103024 @ 음, 그다음에 이제 수확헐 때는?(음, 그다음에 이제 수확할 때는?)

103024 #1 수확헐 때게 발로 븨벼근엥에 그거 물르민게 쏠 멩글 때.(수확할 때 발로 비벼서 그거 마르면 쌀 만들 때.)

103024 @ 음.(음.)

103024 #1 방에로 젛주.(방아로 찧었지.)

103024 @ 방에로예, 흐꼬만 헌 건.(방아로요, 조그만 한 건.)

103024 #1 으.(으.)

103024 @ 흐꼬만 헌 거. 한 거는 도께질허고.(조그만 한 거. 한 거는 도리깨질하고.)

103024 #1 으, 방에로 영 영 찍어근에 쏠 멩글앗주. 도귀방에로.(으, 방아로 이렇게 이렇게 찧어서 쌀 만들었지. 도구방아로.)

103024 @ 무슨 방에?(무슨 방아?)

103024 #1 도귀방에게.(도구방아.)

103024 @ 도귀방에렌 헤?(도구방아라고 해?)

103024 @2 도고방에.(도구방아.)

103024 #1 도귀방에.(도구방아.)

103025 @ 음, 그다음에 좁쏠 멘들젠 허민 어떤 식으로 헷수가?(음, 그다음에 좁쌀 만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3025 #1 게난 그거 찍으민 쏠이 나오주.(그러니까 그거 찍으면 쌀이 나오지.)

(잡음)

103025 @ 예, 알앗수다. 겡은에 이제 그 좁썰 장만허는 순서예?(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좁쌀 장만하는 순서요?)

103025 #1 으.(으.)

103025 #1 조 비여 올 때부떠 조 좁쏠 만들 때까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말해봐 줍서.(조 베어 올 때부터 조 좁쌀 만들 때까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말해봐 주십시오.)

103025 #1 조 하영 헤영 오민 도께질허영 털엉.(조 많이 해서 오면 도리깨질해서 떨

어서.)

103025 @ 으.(으.)

103025 #1 그 멍석에 벳 잘 나민 이틀만 물르민 얍게 널민 쏠 골아지곡.(그 멍석에 볕 잘 나면 이틀만 마르면 얇게 널면 쌀 갈아지고.)

103025 @ 음.(음.)

103025 #1 벳 잘 안 나민 혼 사흘 널어사 강 골곡.(볕 잘 안 나면 한 사흘 널어야 가서 갈고.)

103025 @ 음, 그 골을 때는 뭐에 강 골아?(음, 그 갈 때는 뭐에 가서 갈아?)

103025 #1 아, 우리 엿날에게 물ᄀᆞ레.(아, 우리 옛날에 연자매.)

103025 @ 음.(음.)

103025 #1 물ᄀᆞ레로 조를 다 골아신디.(연자매로 조를 다 갈았는데.)

103025 @ 음.(음.)

103025 #1 그 후에는 기계가 나왓수게.(그 후에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103025 @ 으.(으.)

103025 #1 쏠 ᄀᆞ는 기계.(쌀 가는 기계.)

103025 @ 쏠 ᄀᆞ는 기계?(쌀 가는 기계?)

103025 #1 하릉방[151], 하릉방.('하릉방', '하릉방'.)

103025 @ 하릉방?('하릉방'?)

103025 #1 웃음.(웃음.)

103025 @ 하릉방?('하릉방'?)

103025 #1 것ᄀᆞ라 하릉방엔 헷수다.(것보고 '하릉방'이라고 했습니다.)

103025 @ 으.(으.)

103025 #1 야, 하릉방 헴서냐?(야, '하릉방' 하고 있더냐?)

103025 @ 하릉방 헴시냐? 어어.('하릉방' 하고 있더냐? 어어.)

103025 #1 야, 오늘 하릉방 헴서냐? 우리 조 골아살 걸.(야, 오늘 '하릉방' 하고 있더냐? 우리 조 갈아야 할 걸.)

103025 @ 게난 그 정미소를 하릉방이렌 헌 거라예?(그러니까 그 정미소를 '하릉방'이라고 한 거네요?)

103025 #1 으으, 정미소를 하릉방.(으으, 정미소를 '하릉방'.)

103025 @ 아아, 하릉방 헴시냐?(아아, '하릉방' 하고 있느냐?)

103025 #1 으, 하릉방.(으, '하릉방'.)

103025 @ 경 헤영 하릉방에 강 헹 왕.(그렇게 해서 '하릉방'에 가서 해서 와서.)

103025 #1 으으.(으으.)

103025 @ 것도 물려. 아니면?(것도 말려. 아니면?)

103025 #1 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니.)

103025 @ 것도 ᄇᆞ름.(것도 바람.)

---

151) '하릉방'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정미소를 일컫는 말이다.

103025 #1 쏠로 나오난 기자, 기자, 기자 하릉방에 강 골앙[152] 오민 그대로 먹는 거.(쌀로 나오니까 그저, 그저, 그저 '하릉방'에 가서 갈아 오면 그대로 먹는 거.)

103025 @ 그냥 먹는 거.(그냥 먹는 거.)

103025 #1 체 분리헤영 나옵니께, 기계에서.(겨 분리해서 나옵니다. 기계에서.)

103025 @ 예, 거 불리거나 이러진 안허는구나예?(예, 거 불리거나 이러진 않는 군요?)

103025 #1 으.(으.)

103026 @ 그러면 좁쏠로는 주로 뭐 헹은에 먹언마씨?(그러면 좁쌀로는 주로 뭐 해서 먹었어요?)

103026 #1 아이고, 좁쏠로사 무시거 헹 먹읍네까? 밥 헹 먹곡 죽 쒕 먹곡게.(아이고, 좁쌀로야 무엇 해서 먹습니까? 밥 해서 먹고 죽 쒀서 먹고.)

103026 @ 음.(음.)

103026 #1 경 허주게.(그렇게 하지.)

103026 @ 조로?(조로?)

103026 #1 떡도 허고. 오메기떡[153]도 헹 먹곡.(떡도 하고. '오메기떡'도 해서 먹고.)

103026 @1 으.(으.)

103026 #1 조오메기[154].('조오메기'.)

103026 @ 조오메기, 음. 술 같은 거는 안 헤봣수가?('조오메기', 음. 술 같은 거는 안 해봤습니까?)

103026 #1 아, 건 막걸리.(아, 건 막걸리.)

103026 @ 으, 감주나 이런 거?(으, 감주나 이런 거?)

103026 #1 으. 조로 헙니다. 조오메기.(으. 조로 합니다. '조오메기'.)

103026 @ 삼춘도 그걸로 헤봔?(삼촌도 그걸로 해봤어요?)

103026 #1 조오메기 헤근에 거 헙니다.('조오메기' 해서 거 합니다.)

103026 @ 거 골아 줍서. 어떤 식으로.(거 말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103026 #1 누룩 놔근에.(누룩 놔서.)

103026 @ 어떤 식으로 허는지 골아 줍서?(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103026 #1 누룩 놔근에 조오메기 허는 건 좁썰 헤근에 죽 쒕.(누룩 넣어서 '조오메기' 하는 건 좁쌀 해서 죽 쒀서.)

103026 @ 으.(으.)

103026 #1 죽 쒕 막 뜨거운 저 더운 기 빠지민 그것에 누룩 서꺼끈에 따뜻허게, 안방에 저 뜻뜻헌 방에 이불이나 뭐 톡 더껑 놔두면 ᄒᆞ룻밤 자민 부글부글부글 막 궤주.(죽 쒀서 아주 뜨거운 저 더운 기 빠지면 그것에 누룩 섞어서 따뜻하게, 안방에 저 따뜻한 방에 이불이나 뭐 톡 덮어서 놔두면 하룻밤 자면 부글부글부글 막 괴지.)

---

152) '골앙'은 표준어 '갈아서'에 대응하는 제주어인데, 여기서는 '찧어서'의 의미로 쓰였다.

153) '오메기떡'은 좁쌀가루를 반죽하여 둥글납작하게 만들거나 둥근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삶아낸 떡이다. '오메기술'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안에 팥소를 넣거나 팥고물을 묻혀서 먹기도 한다.

154) '조오메기'는 좁쌀가루를 반죽하여 둥글납작하게 만들거나 둥근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삶아낸 떡이다.

103026 @ 음.(음.)

103026 #1 그것이 막 잘뤤 거. 이틀썩 헹 궤민 그거는 잘 안 뤤 거고.(그것이 아주 잘된 거. 이틀씩 해서 괴면 그거는 잘 안 된 거고.)

103026 @ 음.(음.)

103026 #1 하이튼 폭 더껑 ᄒᆞ룻밤 장 허는 건 막 잘뤤 거. 게, 그것에 저 막걸리로 먹주게, 옛날에.(하여튼 폭 덮어서 하룻밤 자서 하는 건 아주 잘된 거. 게, 그것에 저 막걸리로 먹지, 옛날에.)

103026 @ 으음, 그런 식으로 헤갖고. 겨난 조는 죽 쒕은에 허는 거?(으음,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조는 죽 쒀서 하는 거?)

103026 #1 어, 죽 쒕 헤사주.(어, 죽 쒀서 해야지.)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아무 것도 죽 쒕 허주.(아무 것도 죽 쒀서 하지.)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지금은. 제청 허는 디도 천제 허는 디도 거 죽 쒀근에 멩그는 거.(지금은. 제청 하는 데도 천제 하는 데도 거 죽 쒀서 만드는 거.)

103026 @ 으으, 그게 감주예?(으으, 그게 감주요?)

103026 #1 으.(으.)

103027 @ 으, 그다음에 조 그 조남뎅이, 그거는 뭘로 써마씨?(으, 그다음에 조 그 조 줄기, 그거는 무엇으로 써요?)

103027 #1 건 쉐나 ᄆᆞᆯ이나 촐.(건 소나 말이나 꼴.)

103027 @ 음.(음.)

103027 #1 쉐 ᄆᆞᆯ 양석.(소 말 양식.)

103028 @ 양석으로, 조남뎅이는. 그다음에 혹시 삼춘 조농사 허멍 잊어 불지 못 허켜 허는 이런 추억거리도 잇수가?(양식으로, 조 줄기는. 그다음에 혹시 삼촌 조농사 하면서 잊어 버리지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추억거리도 있습니까?)

103028 #1 조, 조용ᄉᆞ는 하영 안 헤봐 부난에.(조, 조농사는 많이 안 해봐 버리니까.)

103028 @ 음.(음.)

103028 #1 추억거리가 없어.(추억거리가 없어.)

콩농사

103029 @ 그건 없고. 콩 같은 거는 허젠 허면 어떤 준비가 필요헤마씨? 콩도 갈앗일 거고.(그건 없고. 콩 같은 거는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콩도 갈았을 거고.)

103029 #1 콩도 가는 거.(콩도 가는 거.)

103029 @ 예.(예.)

103029 #1 거 콩도게 기자 밧듸 가근에 씨 삐영 내 불민 밧갈에치[155] 강 밧만 갈민 뭴 거난.(거 콩도 그저 밭에 가서 씨 뿌려서 내 버리면 '밧갈에치' 가서 밭만 갈면 될 거니까.)

103029 @ 음.(음.)

103029 #1 씨 삐여 논 후제 밧 가는 거난.(씨 뿌려 놓은 후에 밭 가는 거니까.)

103029 @ 예.(예.)

103029 #1 갈앙만 내 불민 콩 날 거난.(갈아서만 내 버리면 콩 날 거니까.)

103029 @ 음, 게난 밧갈에치들은 밧 잘 가는 사름을 겅 골아?(음, 그러니까 '밧갈에치'들은 밭 잘 가는 사람을 그렇게 말해?)

103029 #1 음. 밧갈에치엔 헌 게.(음. '밧갈에치'라고 한 게.)

103029 @ 으.(으.)

103029 #1 그 쉐로 갈아도 지프게 찔렁 잘 갈아주는 사름 잇고, 우로만 빌빌빌빌 가는 사름 잇주게.(그 소로 갈아도 깊게 찔러서 잘 갈아주는 사람 있고, 위로만 빌빌빌빌 가는 사람 있지.)

103029 @ 예.(예.)

103029 #1 게난 그런 사름도 저 좀 한글헐 땐 골령 빌엉 허주, 골령.(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저 좀 한가할 땐 가려서 빌려서 하지, 가려서.)

103029 @ 음.(음.)

103029 #1 잘허는 사름으로.(잘하는 사람으로.)

103030 @ 잘허는 사름으로 헤 갖고. 으. 콩은 언제 갈아마씨?(잘하는 사람으로 해 갖고. 으. 콩은 언제 갈아요?)

103030 #1 거 다 유월절[156] 전후 삼일 허영 다 가는 거.(거 다 유월절 전후 삼일 해서 다 가는 거.)

103030 @ 아, 조나 콩이나.(아, 조나 콩이나.)

103030 #1 예, 예, 예.(예, 예, 예.)

103030 @ 유월절 전후 삼일.(유월절 전후 삼일.)

103030 #1 전후 삼일.(전후 삼일.)

103031 @ 예, 콩밧도 거름은 안 허겟다, 그럼예?(예, 콩밭도 거름은 안 하겠다, 그럼요?)

103031 #1 안 헙니다게.(안 합니다.)

103031 @ 아, 웨냐허면 보리 헤난 다음에 가는 거난예.(아, 왜냐하면 보리 한 다음에 가는 거니까요.)

103031 #1 예.(예.)

103032 @ 예, 콩씨는 어떤 식으로 삐여마씨?(예, 콩씨는 어떤 식으로 뿌려요?)

103032 #1 삐는 거?(뿌리는 거?)

---

155) '밧갈에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밭을 전문으로 해서 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156) '유월절'은 소서에서 입추까지의 절기를 말하는데, 그 기준은 소서가 된다.

103032 @ 음.(음.)

103032 #1 것도 기자 삐영 가는 거.(것도 그저 뿌려서 가는 거.)

103032 @ 손으로.(손으로.)

103032 #1 으.(으.)

103032 @1 으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심거나 이러진 안 허고?(으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거나 이러진 안 하고?)

103032 #1 아니, 아니. 기자 삐영.(아니, 아니. 그저 뿌려서.)

103033 @ 콩밧듸도 검질멥니까?(콩밭에도 김맵니까?)

103033 #1 어, 메여사주.(어, 매야지.)

103033 @ 어.(어.)

103033 #1 콩밧듸 검질 나민 메여사주.(콩밭에 김 나면 매야지.)

103034 @ 건 어떤 검질들?(건 어떤 김들?)

103034 #1 그것도 마찬가집니다게. 헤바레기허곡양.(그것도 마찬가집니다. '헤바레기' 하고요.)

103034 @ 예.(예.)

103034 #1 헤바레기[157]나 그 저 무신거 제완지나 그런 거. 콩밧듸도 마찬가지.('헤바레기'나 그 저 무엇 바랭이나 그런 거. 콩밭에도 마찬가지.)

103034 @ 헤바레기는 어떤 거우과? 이 동쪽 헐 때 헤바레기가 나완게.('헤바레기'는 어떤 겁니까? 이 동쪽 할 때 '헤바레기'가 나오던데.)

103034 #1 아, 헤바레기풀 몰르는구나.(아, '헤바레기풀' 모르는구나.)

103034 @ 어.(어.)

103034 #1 헤바레기가 이디 잇일 건디. 어디 잇일 건디.('헤바레기'가 여기 있을 건데. 어디 있을 건데.)

103034 @ 이땅 혼번 촞아보게.(이따가 한번 찾아보자.)

103034 #1 으.(으.)

103034 @2 웃음.(웃음.)

103034 @ 왜냐허민 헤바레기풀은 허는데, 나는 저기 서쪽이난 그 말 안 들어봐거든 헤바레기풀.(왜냐하면 '헤바레기풀'은 하는데, 나는 저기 서쪽이니까 그 말 안 들어봤거든 '헤바레기풀'.)

103034 #1 기?(그래?)

103034 @ 예.(예.)

103034 #1 헤바레기풀이 젤 잘 나주, 뭐. 남밧[158]디도 질 많이 나고.('헤바레기풀'이 젤 잘 나지, 뭐. 나무 밭에도 젤 많이 나고.)

103034 @ 남밧디도 하영 나는 게 헤바레기풀?('나무밭'에도 많이 나는 게 '헤바레기풀'?)

---

157) '헤바레기'는 여름철에 나는 김의 한 가지다.

158) '남밧'은 나무 밭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귤나무가 심어진 과수원을 말한다.

103034 #1 막 하영 납니다. 헤바레기.(아주 많이 납니다. '헤바레기'.)

103034 @ 으, 여름 검질이구나예?(으, 여름 김이구나?)

103034 #1 으.(으.)

103035 @ 알앗수다. 건 이땅 강 춪아보고. 그다음에 콩 수확은 게믄 어떤 식으로 허는 거?(알았습니다. 건 이따가 가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콩 수확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

103035 #1 콩 수확게 콩 꺼꺼근에. 호미로 꺼껑 톡톡 우에 놩 무꺼당은에 결국 콩은 께 딴 거 헹 무끕니다.(콩 수확 콩 꺾어서. 낫으로 꺾어서 톡톡 위에 놔서 묶어다가 결국 콩은 매끼 딴 거 해서 묶습니다.)

103035 @ 에.(에.)

103035 #1 콩 무끈 거는.(콩 묶은 거는.)

103035 @ 거는 어떤 께로 헙니까?(거는 어떤 매끼로 합니까?)

103035 #1 밧듸 강 허는 거는 새 비여근에 새로 께 허곡.(밭에 가서 하는 거는 띠 베다가 띠로 매끼 하고.)

103035 @ 음.(음.)

103035 #1 새.(띠.)

103035 @ 새로?(띠로?)

103035 #1 으 새로 께 허여당 콩 무끕니다.(으 띠로 매끼 해다가 콩 묶습니다.)

103035 @ 음.(음.)

103035 #1 께 허영 콩 태작도 옛날에는 태작[159] 엇이난 도께로 헷주게.(매끼 해서 콩 타작도 옛날에는 타작 없으니까 도리깨로 했지.)

103035 @ 음.(음.)

103035 #1 도께로 헤근엥에 태작헤영 건 불려근엥에 그 얼멩이로 쳐근에.(도리깨로 해서 타작해서 건 불려서 그 어레미로 쳐서.)

103035 @ 으.(으.)

103035 #1 얼멩이로 쳥 즌 거 다 빠벼뒁은에 우의 것만 먹어낫수게. 옛날은 콩 안 받아가난에게.(어레미로 쳐서 잔 거 다 빼버려서 위에 것만 먹었었습니다. 옛날은 콩 안 받아가니까.)

103035 @ 아, 아.(아, 아.)

103035 #1 콩이여 무시거 받건 딘 멧 십년 안 뒛수다게. 돈 주건 디.(콩이다 무엇 받건 덴 몇 십년 안 됐습니다. 돈 주건 데.)

103035 @ 으.(으.)

103035 #1 전읜.(전엔.)

103035 @ 으으. 게믄 콩은?(으으. 그러면 콩은?)

103035 #1 먹을 거만 갈아낫수게.(먹을 거만 갈았었습니다.)

159) '태작'은 표준어 '타작'에 대응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태작'은 타작을 하는 기계, 즉 탈곡기의 의미로 한 말이다.

103035 @ 어떤 콩덜 잇인 거? 그 콩 이름은?(어떤 콩들 있는 거? 그 콩 이름은?)

103035 #1 장콩.(장콩.)

103035 @ 장콩이렌 헤?(장콩이라고 해?)

103035 #1 장콩.(장콩.)

103035 @ 콩 요즘 어떤 콩덜 잇수가?(콩 요즘 어떤 콩들 있습니까?)

103035 #1 요즘사 무사 콩ᄂᆞ물 콩도 잇곡, 장콩이라도 파란 것도 잇곡 하얀 것도 잇곡 노랑 것도 잇곡 콩씨가 여라 가지.(요즘에야 왜 콩나물 콩도 있고, 장콩이어도 파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콩씨가 여러 가지.)

103035 @ 음. 그 옛날 씨는?(음. 그 옛날 씨는?)

103035 #1 옛날엔 ᄒᆞ나 뿐이주게.(옛날엔 하나 뿐이지.)

103035 @ 장콩인디 어떤 거 갈안?(장콩인데 어떤 거 갈았어요?)

103035 #1 그 하얀 거.(그 하얀 거.)

103035 @ 하얀 거 어?(하얀 거 어?)

103035 #1 으. 노립쯔릅헹 하얀 거. 것만 갈앗주.(으. 노르스름해서 하얀 거. 것만 갈았지.)

103035 @ 걸 여기서 ᄃᆞᆨ세기콩이렌은 안 ᄀᆞᆯ아?(걸 여기서 'ᄃᆞᆨ세기콩'이라고는 안 말해?)

103035 #1 아니 ᄃᆞᆨ새기콩[160]은 따로 잇주.(아니 'ᄃᆞᆨ새기콩'은 따로 있지.)

103035 @ 아아. 건 ᄯᅳ른 거우과?(아아. 건 다른 겁니까?)

103035 #1 ᄃᆞᆨ새기콩은 똥끌똥끌똥끌헤여근에 ᄯᅳ로 잇수다.('ᄃᆞᆨ새기콩'은 동글동글동글해서 따로 있습니다.)

103035 @ 장콩은 홁은 그거고?(장콩은 굵은 그거고?)

103035 #1 예, 장콩은 쪼끔 훅국 ᄒᆞ쏠 납작지듯도 허곡 허는디.(예, 장콩은 조금 굵고 조금 납작하기도 하고 하는데.)

103035 @ 음.(음.)

103035 #1 ᄃᆞᆨ새기콩은 완전 똥끌똥끌똥끌똥끌헤여.('ᄃᆞᆨ새기콩'은 완전 동글동글동글해.)

103035 @ 으음.(으음.)

103035 #1 막 훅지도 안 허고.(아주 굵지도 안 하고.)

103035 @ 막 훅지도 안 허곡.(아주 굵지도 안 하고.)

103035 #1 예.(예.)

103035 @ 게난 장콩허고 ᄃᆞᆨ새기콩은 틀린 거구나예?(그러니까 장콩하고 'ᄃᆞᆨ새기콩'은 다른 거군요?)

103035 #1 예, 틀려.(예, 달라.)

103036 @ 예, 알앗수다. 게믄 콩으로는 주로 어떤 음식들 헤영 먹언마씨?(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콩으로는 주로 어떤 음식들 해서 먹었어요?)

---

160) 'ᄃᆞᆨ세기콩'은 콩 품종의 하나로, 모양이 달걀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103036 #1 콩으로는 콩 갈아다근에 국도 끌여 먹고. 콩국[콩국].(콩으로는 콩 갈아다가 국도 끓여 먹고. 콩국[콩국].)

103036 @ 예.(예.)

103036 #1 국도 끌영 먹곡 저 무신거냐 두부도 헤영 먹곡. 그거주, 콩으로사.(국도 끓여서 먹고 저 무엇이냐 두부도 해서 먹고. 그거지, 콩으로야.)

103036 @ 음.(음.)

103036 #1 장허곡.(장하고.)

103036 @ 장허곡.(장하고.)

103036 @2 콩죽도 맛싯는데.(콩죽도 맛있는데.)

103036 #1 예, 콩죽.(예, 콩죽.)

103036 @ 음, 콩죽도 허고.(음, 콩죽도 하고.)

103036 #1 콩죽도.(콩죽도.)

103036 @ 게난 콩죽 헤영 먹거나 콩 저 국 허영 먹는 건 갈아당 허는 거?(그러니까 콩죽 해서 먹거나 콩 저 국 해서 먹는 건 갈아다가 하는 거?)

103036 #1 갈아당.(갈아다가.)

103036 @ 갈아당예, 삼춘이 직접 두부도 헤봔?(갈아다가요, 삼촌이 직접 두부도 해봤어요?)

103036 #1 예, 예.(예, 예.)

103036 @2 둠비.(둠비.)

103036 #1 예.(예.)

103036 @ 여기도 둠비렌 헙니까?(여기도 '둠비'라고 합니까?)

103036 #1 아니, 두부.(아니, 두부.)

103036 @ 그냥 두부? 으, 건 어떤 식으로 두부 허는 거?(그냥 두부? 으, 건 어떤 식으로 두부 하는 거?)

103036 #1 바닷물 헤다근에.(바닷물 해다가.)

103036 @ 음.(음.)

103036 #1 바다물 헤다근에 이디서 민물에 헤영 소금 놩도 허주마는 거 근 잘 못 맞추카 부덴.(바닷물 해다가 여기서 민물에 해서 소금 놔서도 하지만 거 간 잘 못 맞출까봐.)

103036 @ 음.(음.)

103036 #1 바닷물 헤강게 물에 솟듸 놩 끌여근엥에 그거 허영 그 콩ᄀᆞ루 놩은에 허민.(바닷물 해가서 물에 솥에 넣어서 끓여서 그거 해서 그 콩가루 놔서 하면.)

103036 @ 음.(음.)

103036 #1 북작허게 우티레 터오주기, 익으민.(부각하게 위로 떠오지, 익으면.)

103036 @ 음.(음.)

103036 #1 게믄 또 언물 삭 쳐근엥에 그 건데기만 딱 건졍 무시거냐 잘리냐 험벅이냐 그것에 그 영 판데기에 놩 그디 퍼놔근에 눌리민 두부가 나오주게.(그러면 또 찬물

싹 쳐서 그 건더기만 딱 건져서 무엇이냐 자루냐 헝겊이냐 그것에 그 이렇게 판에 놔서 거기 펴놔서 누르면 두부가 나오지.)

103036 @ 으음. 여기는 간수를 뭐 맞출 이유가, 필요가 없네.(으음. 여기는 간수를 뭐 맞출 이유가, 필요가 없네.)

103036 #1 예, 쫀물, 바다물 헤당 허민.(예, 짠물, 바닷물 해다가 하면.)

103036 @ 아아.(아아.)

103036 #1 민물, 바다 엇인 디는 민물에 헤근에 소금 간을 그 쫀물처럼 맞춰야 뒈여.(민물, 바다 없는 데는 민물에 해서 소금 간을 그 짠물처럼 맞춰야 돼.)

103036 @ 으음.(으음.)

103036 #1 경 헙니다게.(그렇게 합니다.)

103036 @ 건디 여기는 그냥 저기에 걸로?(그런데 여기는 그냥 저기에 걸로?)

103036 #1 으으.(으으.)

103036 @2 아, 게난 둠비렌 말은 안 허고.(아, 그러니까 '둠비'라는 말은 안 하고.)

103036 #1 둠비옌은 안 헙니다. 두부.(웃음).('둠비'라고는 안 합니다. 두부.(웃음).)

103037 @ 그 콩, 그 콩남뎅이 거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그 콩, 그 콩대 거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

103037 #1 것도 쉐 먹어.(것도 소 먹어.)

103037 @ 음.(음.)

103037 #1 쉐촐로.(소꼴로.)

103037 @ 쉐촐로?(소꼴로?)

103037 #1 으, 쉐촐로.(으, 소꼴로.)

103037 @ 콩은 하영 안 가난 헤도 콩농사 허멍 얽힌 추억거리 같은 거 잇어마씨?(콩은 많이 안 가니까 해도 콩농사 하면서 얽힌 추억거리 같은 거 있어요?)

103038 #1 에고, 콩농사 헤여근엥에 허민 약 제 혼에 저 못허곡 허민 버렝이 일어 불민 그것이 셍전. 아이고, 엿날에 버렝이 일은 콩 믄딱 착콩[161] 뒈 병은에.(에고, 콩농사 해서 하면 약 제 한에 저 못하고 하면 벌레 일어 버리면 그것이 생전. 아이고, 옛날에 벌레 인 콩 몽땅 '착콩' 되어 버려서.)

103038 @ 으.(으.)

103038 #1 그런 거나 셍각나주.(그런 거나 생각나지.)

103038 @ 웨냐허민 착콩 뒈여 불면은 써 먹을 게 엇잖아예?(왜냐하면 '착콩' 되어 버리면 써 먹을 게 없잖아요?)

103038 #1 엇주게.(없지.)

103038 @ 음.(음.)

103038 #2 그 좀 착콩도 ᄒᆞ쏠 덜 뒌 거는 ᄀᆞᆯ아근엥에 그치룩 국도 끓이고 죽도 쒕 먹주마는 너무 하영 먹어 분 거는 먹을 셍각, 먹을 정도가 안 뒈지.(그 좀 '착콩'도 조금 덜 된 거는 갈아서 그처럼 국도 끓이고 죽도 쒀서 먹지만 너무 많이 먹어 버린 거는 먹

161) '착콩'은 반으로 쪼개진 콩을 말한다. '착'은 두 쪽 중 한 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을 생각, 먹을 정도가 안 되지.)

103038 @ 맛도 엇고예?(맛도 없고요?)

103038 #1 버렝이 먹어 부난게.(벌레 먹어 버리니까.)

103038 @2 으.(으.)

밭벼농사

103039 @ 산뒨 삼춘 하영 갈앗덴 헨게마는?(밭벼는 삼촌 많이 갈았다고 하더니만?)

103039 #1 산뒨 살렴 산 후제 갈앗주. 결혼헌 후제.(밭변 살림 산 후에 갈았지. 결혼한 후에.)

103039 @ 산뒤 허젠 허민 뭐가, 뭐를 준비헙니까?(밭벼 하려고 하면 뭐가, 뭐를 준비합니까?)

103039 #1 산뒤도 조나 마찬가지로양.(밭벼도 조나 마찬가지로요.)

103039 @ 음.(음.)

103039 #1 조나 마찬가지로 산뒤도 저 그냥 씨 삐영은에 밧 가는 거난.(조나 마찬가지로 밭벼도 저 그냥 씨 뿌려서 밭 가는 거니까.)

103039 @ 으.(으.)

103039 #1 그 산뒤나 조나 마찬가지우다게. 씨 삐영 그대로 밧 가는 거난에.(그 밭벼나 조나 마찬가집니다. 씨 뿌려서 그대로 밭 가는 거니까.)

103039 @ 으.(으.)

103039 #1 뭐 볼리구정 헌 사름은 볼리고.(뭐 밟고자 한 사람은 밟고.)

103039 @ 으.(으.)

103039 #1 밧이 막 메말랑근엥에 팍삭팍삭헤근엥에 씰 단단히 안 부떰 직허민 볼립니다.(밭이 아주 메말라서 팍삭팍삭해서 씰 단단히 안 붙음 직하면 밟습니다.)

103039 @ 음.(음.)

103039 #1 경 허민 탱탱허렌.(그렇게 하면 탱탱하라고.)

103039 @ 예.(예.)

103039 #1 볼리고 탱탱허민 여물도 염넨 허주.(밟고 탱탱하면 여물도 여문다고 하지.)

103039 @ 음.(음.)

103039 #1 볼리민. 경 허주마는 대부분은 끄세기 허영 내 불주, 볼리는 사름 멧 엇어.(밟으면.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끙게 해서 내 버리지, 밟는 사람 몇 없어.)

103040 @ 아까 삼촌예, 조는 저기 밧 갈앙은에 좁씨 삐는 거?(아까 삼촌요, 조는 저기 밭 갈아서 좁씨 뿌리는 거?)

103040 #1 산뒤도 갈앙 삐는 거.(밭벼도 갈아서 뿌리는 거.)

103040 @ 아, 갈안 다음에 삐는 거예?(아, 갈아서 다음에 뿌리는 거요?)

103040 #1 초불 갈아 놩 삐여근엥에 끄세기질 허는 거.(초벌 갈아 놓아서 뿌려서 끙

게질 하는 거.)

103040 @ 끄세기질 허는 거? 예, 알앗수다. 그 게믄 산뒤는 언제 갈아?(끙게질 하는 거? 예, 알았습니다. 그 그러면 밭벼는 언제 갈아?)

103040 #1 아, 산뒤도 다 ᄉᆞ월 오월 오월에 갈지.(아, 밭벼도 다 사월 오월 오월에 갈지.)

103040 @ 으, 것도 다 유월절 그때.(으, 것도 다 유월절 그때.)

103040 #1 예.(예.)

103040 @ 으음.(으음.)

103040 #1 게민 산뒤는 추석 쪼끔 지나민 빕니께.(그러면 밭벼는 추석 조금 지나면 뱁니다.)

103040 @ 건 빨리 뒈는구나예?(건 빨리 되는군요?)

103040 #1 으.(으.)

103041 @ 음, 그 산뒤 거름도 헤마씨? 산뒤밧도.(음, 그 밭벼 거름도 해요? 밭벼밭도.)

103041 #1 아니, 옛날에사 걸름 엇이난 안 헷주마는 요즘사 걸름허주게.(아니, 옛날에야 거름 없으니까 안 했지만 요즘에야 거름하지.)

103041 @ 요즘은 허고예?(요즘은 하고요?)

103041 #1 요즘은 비료 삐주게.(요즘은 비료 뿌리지.)

103043 @ 그 산뒤왓디 검질은 멧 번쯤 메여?(그 밭벼밭에 김은 몇 번쯤 매요?)

103043 #1 산듸왓디 검질은 검질 잘 나민 아무튼 세 번 이상 못 맵니다. 저 노팡. 산뒤가 노파 비영. 경 허곡 산뒤는 ᄒᆞ쏠 으 양반이라서.(밭벼밭에 김은 김 잘 나면 아무튼 세 번 이상 못 맵니다. 저 높아서. 밭벼가 높아 버려서. 그렇게 하고 밭벼는 조금 으 양반이어서.)

103043 @ 예.(예.)

103043 #1 원래 양반이렌 헤근에 몸 비린 사름도 검질메레 못 가곡.(원래 양반이라고 해서 몸 비린 사람도 김매러 못 가고.)

103043 @ 아아.(아아.)

103043 #1 산듸밧데.(밭벼밭에.)

103043 @ 아.(아.)

103043 #1 마지막 검질멜 땐 몸 비린 사름도 안 갑니다.(마지막 김맬 땐 몸 비린 사람도 안 갑니다.)

103043 @ 예.(예.)

103043 #1 여자덜토 달거리헌 사름도 안 가고.(여자들도 달거리하는 사람도 안 가고.)

103043 @ 음음. 아, 이 말은 처음 들엄수다.(음음. 아, 이 말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

103043 #1 예, 이디선양 경 헙니다.(예, 여기서는요 그렇게 합니다.)

103043 @ 아아.(아아.)

103043 #1 영장밧듸 강 왕 그날은 안 갑니다. 장밧듸 가온 사름.(장지에 가 와서 그날은 안 갑니다. 장지에 다녀온 사람.)

103043 @ 다른 것덜은 상관없는데.(다른 것들은 상관없는데.)

103043 #1 예, 산듸밧듸는 게서 양반이라고 경 곱니다. 옛날 어른덜이. 산뒤는, 산뒤 쏠은 양반이라 부난 양반으로 쳥. 그 제사 때 허곡 무시거 허곡 허는 거난 양반이렌 허는 셍입디다. 경 헤 부난 비린 것 골려.(예, 밭벼밭에는 그래서 양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밭벼는, 밭벼쌀은 양반이어 버리니까 양반으로 쳐서. 그 제사 때 하고 무엇 하고 하는 거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모양입디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비린 것 가려.)

103043 @2 검질메는 것조차도?(김매는 것조차도?)

103043 #1 예, 예, 예, 예, 예. 검질메는 것도예, 저 이 여자덜 달거리허는 사름도양 그땐 산뒤밧듸 못가예.(예, 예, 예, 예, 예. 김매는 것도요, 저 이 여자들 달거리하는 사람도요 그땐 밭벼밭에 못가요.)

103043 @ 예.(예.)

103043 #1 안 메여.(안 매어.)

103043 @ 게믄 뭐 수확헐 때도 그런 식으로 허고?(그러면 뭐 수확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103043 #1 아, 수확헐 땐 그거 엇고.(아, 수확할 땐 그거 없고.)

103043 @ 상관없고.(상관없고.)

103043 #1 수확헐 땐 그거 엇고.(수확할 땐 그거 없고.)

103043 @ 그냥 검질만?(그냥 김만?)

103043 #1 삭아 분덴 허주. 산뒤가 죽어 병.(삭아 버린다고 하지. 밭벼가 죽어 버려서.)

103043 @ 아아.(아아.)

103043 #1 부정허민 죽어 분덴 헙니다게.(부정하면 죽어 버린다고 합니다.)

103043 @ 산뒤가예?(밭벼가요?)

103043 #1 으, 헤영케 기자 말라 불언.(으, 하얗게 그저 말라 버려서.)

103043 @ 아, 웨냐허면 산뒤나 나록이나 보면 헤영케 뒈어 분 것덜 보이잖아예.(아, 왜냐하면 밭벼나 벼나 보면 하얗게 되어 버린 것들 보이잖아요.)

103043 #1 예, 예. 말라 분덴 헙니다게.(예, 예. 말라 버린다고 합니다.)

103043 @ 아, 게문 그 검질은 멧 번 메는 거?(아, 그러면 그 김은 몇 번 매는 거?)

103043 #1 어 산뒤밧듸 게메, 세불까장 메는디 놉아 불민 세불엔 기자 살살살살 굽엉도 멧닥 앚앙도 멧닥 허멍 허는 거.(아 밭벼밭에 글쎄, 세벌까지는 매는데 높아 버리면 세벌엔 그저 살살살살 굽어서도 맸다가 앉아서도 맸다가 하면서 하는 거.)

103043 @ 으으, 그렇게 이제 하고. 산뒤도 종류가 으라 개 잇입니까?(으으, 그렇게 이제 하고. 밭벼도 종류가 여러 개 잇습니까?)

103043 #1 아니, 흐린 거 찹쌀산듸 잇고.(아니, 차진 거 찰밭벼 있고.)

103043 @ 으.(으.)
103043 #1 으, 모인 거 잇고.(으, 메진 거 있고.)
103043 @ 으, 모힌산뒤엔도 골아?(으, 메밭벼라고도 말해?)
103043 #1 으.(으.)
103043 @ 여기서?(여기서?)
103043 #1 으.(으.)
103043 @ 으.(으.)
103043 #1 모힌 거 잇고 흐린 거 춥쏠 흐린산듸 잇고.(메진 거 있고 차진 거 찹쌀 찰밭벼 있고.)
103043 @ 모힌산뒤는 주로 뭐허는 거?('메밭벼'는 주로 뭐하는 거?)
103043 #1 모힌산듸데 기자 밥헹 먹곡 떡헹 먹곡게.('메밭벼'인데 그저 밥해서 먹고 떡해서 먹고.)
103043 @ 으.(으.)
103043 #1 찹쌀은게 옛날은 막 필요헌 때만 씁니께게.(찹쌀은 옛날은 아주 필요할 때만 씁니다.)
103043 @ 음.(음.)
103043 #1 제사 때도 기름떡 ᄀᆞ튼 건 헐 땐 찹살로 허곡게.(제사 때도 기름떡 같은 건 할 땐 찹쌀로 하고.)
103043 @ 음.(음.)
103043 #1 제사 때도.(제사 때도.)
103045 @ 으음. 그런 식으로 헹 게문 그 산뒤 수확은 어떤 식으로 헐 거?(으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 밭벼 수확은 어떤 식으로 할 거?)
103045 #1 그거 그 산뒤도 허민 홀테로 홀탕.(그거 그 밭벼도 하면 그네로 홅아서.)
103045 @ 음.(음.)
103045 #1 저 주넹이보리나 마찬가지로.(저 맥주보리나 마찬가지로.)
103045 @ 음.(음.)
103045 #1 주넹이보리나 마찬가지로 산뒤 홀트는 홀테가 따로 이십니다.(맥주보리나 마찬가지로 밭벼 홅는 그네가 따로 있습니다.)
103045 @ 예.(예.)
103045 #1 산뒤가 고고리가 주넹이보리보단 더 얍지 안하우꽝양?(밭벼가 이삭이 맥주보리보단 더 얇지 않습니까요?)
103045 @ 예.(예.)
103045 #1 게난 홀테가 따로 잇어. 산뒤 홀트는 홀테는.(그러니까 그네가 따로 있어. 밭벼 홅는 그네는.)
103045 @ 어, 여기서는 그냥 홀테렌 허는구나. 이런 식으로.(어, 여기서는 그냥 '홀테'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103045 #1 홀테.('홀테'.)

103045 @ 으. 영 영 뭰 거예.(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요.)

103045 #1 으, 으.(으, 으.)

103045 @ 영 영 그런 식으로 산뒤를 홀튼 다음에 이것도 도리께질헤? 도께질.(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밭벼를 홅은 다음에 이것도 도리깨질해? 도리깨질.)

103045 #1 도께질헤사 ᄀᆞ스락 털어지주게.(도리깨질해야 까끄라기 떨어지지.)

103045 @ 아아. 홀튼 다음에.(아아. 홅은 다음에.)

103045 #1 ᄀᆞ스락이 막 하는 따문에 도께질헤사 ᄀᆞ시락 다 털어사주게.(까끄라기가 아주 많은 때문에 도리깨질해야 까끄라기 다 떨어지지.)

103045 @ 이것도 ᄀᆞ스락은 뭐 어떵 써?(이것도 까끄라기는 뭐 어떻게 써?)

103045 #1 이 ᄀᆞ스락은 무시거 벨로 하지도 안헙니다. 이건.(이 까끄라기는 무엇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이건.)

103045 @ 이건 안 하니까.(이건 안 많으니까.)

103045 #1 벨로 흔 마당 헤봐야 ᄀᆞ스락 흔 줄체 정도벳기.(별로 한 마당 해봐야 까끄라기 한 삼태기 정도밖에.)

103046 @ 게문 산듸쏠 헤갖고 그 쏠로는 주로 뭐 헌 거?(그러면 밭벼쌀 해갖고 그 쌀로는 주로 뭐 한 거?)

103046 #1 게메, 쏠. 아, 옛날에는 거 제사에나 쓰곡.(글쎄, 쌀 아, 옛날에는 거 제사에나 쓰고.)

103046 @ 음.(음.)

103046 #1 어디서 막 뭐헌 손님이나 오민 보리쏠에 서껑 밥헤영 대접허곡.(어디서 아주 뭐한 손님이나 오면 보리쌀에 섞어서 밥해서 대접하고.)

103046 @ 음.(음.)

103046 #1 기자 보통 사름은 산뒤쏠 경 먹어졋수가? 제사 때나 먹주.(그저 보통 사람은 밭벼쌀 그렇게 먹어졌습니까? 제사 때나 먹지.)

103046 @ 으음, 평소에는 못 먹곡?(으음, 평소에는 못 먹고?)

103046 #1 예, 조팝벳긔. 조팝 보리밥벳기.(예, 조밥밖에. 조밥 보리밥밖에.)

103046 @2 곤밥인데.(흰밥인데.)

103046 #1 곤밥인디.(흰밥인데.)

103046 @ 기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103046 #1 이 부락에는 더군다나 이쪽에는양.(이 부락에는 더군다나 이쪽에는요.)

103046 @ 예.(예.)

103046 #1 옛날 제사 때도 보리쏠 서껑 밥허곡. 그 저 멧밥은 산뒤쏠 우로 그 보리밥 허는 디 ᄒᆞ꼼 놔근엥에 메만 거렁.(옛날 제사 때도 보리쌀 섞어서 밥하고. 그 저 메는 밭벼쌀 위로 그 보리밥 하는 데 조금 놔서 메만 떠서.)

103046 @ 음.(음.)

103046 #1 메만 거려 올려뒁. 거 하나씩 보리밥에 서꺼지게 젓어근에.(메만 떠 올려두고. 거 하나씩 보리밥에 섞어지게 저어서.)

103046 @2 으.(으.)

103046 #1 제사 때.(제사 때.)

103046 @ 아아. 게난 이 지역이 땅이 좀 안 좋은 편이지예?(아아. 그러니까 이 지역이 땅이 좀 안 좋은 편이지요?)

103046 #1 이 부락이 젤 안 좋주.(이 부락이 젤 안 좋지.)

103046 @ 아아.(아아.)

103046 #1 이 부락이 저 이 성산읍에서도 젤 땅이 나쁜 부락.(이 부락이 저 이 성산읍에서도 젤 땅이 나쁜 부락.)

103046 @ 으음.(으음.)

103046 #1 땅은 젤 나쁘곡 바다는 젤 좋고.(땅은 젤 나쁘고 바다는 젤 좋고.)

103046 @ 아, 바다는 젤 좋고.(아, 바다는 젤 좋고.)

103046 #1 게난 바다 하나 믿엉 살앗덴 허주. 옛날엔 바다에가 돈이 많이 나난.(그러니까 바다 하나 믿어서 살았다고 하지. 옛날엔 바다에서가 돈이 많이 나니까.)

103046 @ 으.(으.)

103046 #1 바다 하나 믿언 살앗젠.(바다 하나 믿어서 살았다고.)

103046 @ 거난 이 동네는 좁쌀밥 허드레도 다 모힌좁쏠밥이렌예?(그러니까 이 동네는 좁쌀밥 하더라도 다 메조밥이라고요?)

103046 #1 으으으.(으으으.)

103046 @ 예. 흐린조팝이 아니고.(예. 차조밥이 아니고.)

103046 #1 흐린조팝이 잘 엇어 부난. 흐린조팟[162]이.(차조밥이 잘 없어 버리니까. '흐린조팟'이.)

103046 @ 예.(예.)

103046 #1 밧이. 흐린조팟이 잘 엇어 부난.(밭이. '흐린조팟'이 잘 없어 버리니까.)

103046 @ 예.(예.)

103046 @ 흐린조 가는 밧을 흐린조팟이렌 헙니까?(차조 가는 밭을 '흐린조팟'이라고 합니까?)

103046 #1 으, 으, 으, 으.(으, 으, 으, 으.)

103046 @2 건 막 술지픈밧?(건 막 '술지픈밧'?)

103046 #1 술지픈밧[163]. 토흔밧[164].('술지픈밧'. '토흔밧'.)

103046 @ 토흔밧.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거난 그 산뒤 허게 뒈민 떡도 헤야 뒐 거 아니? 그걸로 떡도 헤?('토흔밧'.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 밭벼 하게 되면 떡도 헤야 될 거 아니? 그걸로 떡도 해?)

103046 #1 산뒤떡[165]은 맛십니다.('산뒤떡'은 맛있습니다.)

103046 @ 에.(에.)

---

162) '흐린조팟'은 '흐린조', 즉 차조를 가는 밭을 말한다.
163) '술지픈밧'은 흙이 깊은 밭이다. 즉 자갈이 많지 않은 밭을 가리킨다.
164) '토흔밧'은 흙이 많은 밭이다. '술지픈밧'을 달리 일컫는 이름이다.
165) '산뒤떡'은 밭벼쌀 가루로 만든 떡을 말한다.

103046 #1 모힌 거.(메진 거.)
103046 @ 모인 거? 응.(메진 거? 응.)
103046 #1 건 떡 허민 맛서.(건 떡 하면 맛있어.)
103046 @ 건 무신 떡을 헤?(건 무슨 떡을 해?)
103046 #1 친떡을 헤도.(시루떡을 해도.)
103046 @ 예.(예.)
103046 #1 시리떡을 헤도 푹삭푹삭 맛잇고.(시루떡을 해도 폭신폭신 맛있고.)
103046 @ 음.(음.)
103046 #1 그냥 이 저 솔벤 절벤을 헤도 산뒤떡은 맛서.(그냥 이 저 솔편 절편을 해도 '산뒤떡'은 맛있어.)
103046 @ 아아.(아아.)
103046 #1 딴 것광 틀령.(딴 것과 달라서.)
103046 @ 산뒤떡은예?('산뒤떡'은요?)
103046 #1 요즘 이 나록쏠로 떡 허민 끈닥끈닥허주게.(요즘 이 볍쌀로 떡 하면 끈적끈적하지.)
103046 @ 예 예 예.(예 예 예.)
103046 #1 솔펜 절벤도예. 찐닥찐닥허는디 그 산뒤떡은 경 안 허주. 조금 푹삭푹삭허듯 헤근에 맛셔.(솔편 절편도요. 끈적끈적하는데 그 '산뒤떡'은 그렇게 안 하지. 조금 폭신폭신하듯 해서 맛있어.)
103047 @ 아아, 거는 맛잇어예? 예. 알앗수다. 그다음에 그 나록찍 아니고 이거는 산뒤찍. 산뒤찍은 어떤 식으로 써?(아아, 거는 맛잇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볏짚 아니고 이거는 밭볏짚. 밭볏짚은 어떤 식으로 써?)
103047 #1 산뒤찍도 쉐 물 줘.(밭볏집도 소 말 줘.)
103048 @ 아아, 산뒤찍도 쉐 물 주는 거? 어어. 그렇게 하고. 삼춘네는 산뒤 하영 갈앗덴 허니까 따른 사람보단.(아아, 밭볏짚도 소 말 주는 거? 어어. 그렇게 하고. 삼촌네는 밭벼 많이 갈았다고 하니까 따른 사람보단.)
103048 @ 으.(으.)
103048 #1 으, 그거에 얽힌 추억도 잇고?(으, 그거에 얽힌 추억도 있고?)
103048 #1 으. (웃음)(으.) (웃음)
103048 @ 웨냐면 산뒤 헤영 오민 그날은 곤밥을 헹은에 먹엇다든가 이런 것도 잇일 거 아니?(왜냐하면 밭벼 해서 오면 그날은 흰밥을 해서 먹었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
103048 #1 아니주기, 무신.(아니지, 무슨.)
103048 @ 잘 사는 집이난.(잘 사는 집이니까.)
103048 #1 산뒤 헤놔사. 아이고, 잘 살긴 무시거 잘살아게. (웃음). (밭벼 해놔야. 아이고, 잘 살긴 무엇 잘살아. (웃음).)
103048 @2 키만 크고. (웃음).(키만 크고. (웃음).)

103048 #1 아, 요즘이야 잘살주게.(아, 요즘이야 잘살지.)

103048 @ 음.(음.)

103048 #1 무신 잘살곡 대곡.(무슨 잘살고 대고.)

103048 @ 옛날, 잘 안 살암십디가?(옛날, 잘 안 살고 있습디까?)

103048 #1 아니, 허긴 막 옹색허게 안 사니까 잘 살긴 헌 겁주. 놈한티 돈 꾸레 안 뎅기곡 뭐 쌀 풀레 안 뎅기곡 허난 옛날에 경 헌 것이 젤 잘산 거주게.(아니, 하긴 아주 옹색하게 안 사니까 잘 살긴 한 겁지요. 남한테 돈 꾸러 안 다니고 뭐 쌀 팔러 안 다니고 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한 것이 젤 잘산 거지.)

103048 @2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3048 #1 돈 꾸레 막 그냥 이 집 저 집 뎅기지 안허곡 허난에.(돈 꾸러 막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지 않고 하니까.)

103048 @2 맞수다.(맞습니다.)

103048 #1 그런 건 몰르게 살앗주.(그런 건 모르게 살았지.)

고구마농사

103049 @ 삼춘, 감저 하영 싱건? 여기도?(삼촌, 고구마 많이 심었어? 여기도?)

103049 #1 올히?(올해?)

103049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03049 #1 옛날에 감저농사만 헷수게.(옛날에 고구마농사만 했습니다.)

103049 @ 아아.(아아.)

103049 #1 경 허단에양 그치룩 허단에 나 결혼헤연 후에 에, 게난 결혼이 지금 에, 오십사년 뭘 처례냐? 칠십일곱이난예. 오십사년 뒈, 그 시절에는 고구마덜 많이 노니까 공장이 셍긴 거라. 전분공장.(그렇게 하다가요 그처럼 하다가 나 결혼해서 후에 에, 그러니까 결혼이 지금 에, 오십사년 될 차례냐? 칠십일곱이니까요. 오십사년 돼, 그 시절에는 고구마들 많이 놓으니까 공장이 생긴 거야. 전분공장.)

103049 @ 음.(음.)

103049 #1 전분공장을 셍기난 이 온평리[166]도 전분공장 잇어나고 요 신산리[167]도 잇어나고.(전분공장을 생기니까 이 온평리도 전분공장 있었었고 요 신산리도 있었었고.)

103049 @ 음.(음.)

103049 #1 또 하천리[168]도 잇어나고 헤신디 온평리 거 엇어져 불고 신산리 엇어져 불고 허난 남원이[169]만 큰 공장이 셍겻어.(또 하천리도 있었었고 했는데 온평리 거 없어져 버리고 신산리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남원리에만 큰 공장이 생겼어.)

103049 @ 음.(음.)

166) '온평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를 말한다.
167) '신산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를 말한다.
168) '하천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하천리를 말한다.
169) '남원이'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를 말한다.

103049 #1 게난 나도 멧 년 동안 남원리 그 고구마 장ᄉᆞ헷수다.(그러니까 나도 몇 년 동안 남원리 그 고구마 장사했습니다.)

103049 @ 아, 헐 말 하컨게. 게믄 저기 감저 싱그젠 허민 준비헐 게 뭐 잇수가?(아, 할 말 많겠는데. 그러면 저기 고구마 심으려고 하면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103049 #1 감저 싱그젠 허민게 비료허곡게.(고구마 심으려고 하면 비료하고.)

103049 @ 으.(으.)

103049 #1 감저밧듸 비료 헤사. 비료허곡 사름 여라이 빌어사 감저 싱글 거 아니우과?(고구마밭에 비료 해야. 비료하고 사람 여럿 빌려야 고구마 심을 거 아닙니까?)

103049 @ 음.(음.)

103049 #1 밧 가는냥.(밭 가는대로.)

103050 @ 그건 언제 싱그는 거?(그건 언제 심는 거?)

103050 #1 감저?(고구마?)

103050 @ 예.(예.)

103050 #1 감저도 저 무시거 전에이 전에는 옛날에 그 시절에는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전에, 아이고, 유월절 넘엉 노민은 쉭귀가 많이 들곡, 감저가.(고구마도 저 무엇 전에 전에는 옛날에 그 시절에는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전에, 아이고, 유월절 넘어서 놓으면 식구가 많이 들고, 고구마가.)

103050 @ 예.(예.)

103050 #1 겐디 좀 잘아.(그런데 좀 잘아.)

103050 @ 예.(예.)

103050 #1 게난 유월절 전의 놓면은 식구는 하영 안 돌아져도 굵어.(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놓으면 식구는 많이 안 달려도 굵어.)

103050 @ 음.(음.)

103050 #1 경 허니까 그런 밑에서 빨리 출려진 사름은 유월절 전에 허곡.(그렇게 하니까 그런 밑에서 빨리 차려진 사람은 유월절 전에 하고.)

103050 @ 음.(음.)

103050 #1 놉으로만 빌엉 헐 사름은 유월절 넘엉 허곡.(놉으로만 빌려서 할 사람은 유월절 넘어서 하고.)

103050 @ 으.(으.)

103050 #1 경 헤영.(그렇게 해서.)

103050 @ 거난 크게 허젠 허면은 유월절 전이 싱근 거라예?(그러니까 크게 하려고 하면 유월절 전에 심은 거네요?)

103050 #1 으.(으.)

103050 @ 게믄 감저는 이제 싱그젠 허면 미리 준비를 헤야 헐 거 아니우과?(그러면 고구마는 이제 심으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3050 #1 으, 감저 모종 놧당 키와살 거주게.(으, 고구마 모종 놨다가 키워야 할 거지.)

103050 @ 그 모종은 언제 놓는 거?(그 모종은 언제 놓는 거?)

103050 #1 모종은 음력으로 이월들에.(모종은 음력으로 이월에.)

103050 @ 예.(예.)

103050 #1 음력 이월들에.(음력 이월에.)

103050 @ 음력 이월에.(음력 이월에.)

103050 #1 어, 이월들에 모종 걸름 헤근에 우연네[우연네].(어, 이월에 모종 거름 해서 터알에.)

103050 @ 으.(으.)

103050 #1 감저 모종 싹 놩. 요즘은 비니루 더꺼도 옛날은 비니루 엇인 때난 그대로 흑만 더껑은에.(고구마 모종 싹 놔서. 요즘은 비닐 덮어도 옛날은 비닐 없을 때니까 그대로 흙만 덮어서.)

103050 @ 예.(예.)

103050 #1 그거게 흑만 더껑 그 모종 나근에 크젠 허민 오죽 여라 둘 걸릴 거우과게.(그거 흙만 덮어서 그 모종 나서 크려고 하면 오죽 여러 달 걸릴 겁니까.)

103050 @ 예.(예.)

103050 #1 경 허민 그거 유월절 전후 삼일 뒈 가민 감저 놔살 거난에 그때꼉장 키와근에.(그렇게 하면 그거 유월절 전후 삼일 돼 가면 고구마 놔야 할 거니까 그때까지 키워서.)

103050 @ 으, 그거 감젓메렌 골아?(으, 그거 '감젓메'라고 말해?)

103050 #1 으?(으?)

103050 @ 감젓메?('감젓메'?)

103050 #1 감젓메?('감젓메'?)

103050 @ 예.(예.)

103050 #1 감젓메[170]가 뭐라?('감젓메'가 뭐라?)

103050 @ 여기는 감저 모종이렌 헙니까?(여기는 '감저 모종'이라고 합니까?)

103050 #1 으 감저 모종.(으 '감저 모종'.)

103050 @ 으, 감전, 줄 헌 거를 감젓메 놤젠 이런 말은 안허는구나?(으, 고구만, 줄한 거를 '감젓메' 놓고 있다고 이런 말은 않는구나?)

103050 #1 아이, 감저꿀엔 허주.(아니, 고구마줄기라고 하지.)

103050 @ 감저꿀엔 헤? 감저꿀, 감저꿀을 비여당 이제 헌 거?('감저꿀'이라고 해? '감저꿀', '감저꿀'을 베어다가 이제 한 거?)

103050 #1 으, 감저꿀.(으, 고구마줄기.)

103051 @ 감저꿀예? 게믄 그 감저꿀은 이제 비여당 싱그젠 허면 밧듸도 거름을 헤?(고구마줄기요? 그러면 그 고구마줄기는 이제 베어다가 심으려고 하면 밭에도 거름을 해?)

---

170) '감젓메'는 고구마 모종을 말한다. 조사자가 '감젓메'라고 말하니, 제보자는 '감젓메'라는 이름을 모르고, '감저 모종'이라고 하였다.

103051 #1 저 감저 놓을 때?(저 고구마 놓을 때?)

103051 @ 예.(예.)

103051 #1 우리, 우리 시절엔 걸름 헷주. 비료.(우리, 우리 시절엔 거름 했지. 비료.)

103051 @ 비료 뿌련예? 아.(비료 뿌려서요? 아.)

103051 #1 비료 삐연.(비료 뿌렸어.)

103051 @ 게영 어느 정도 크기 헐 때 그 감저꿀은 잘릅니까?(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 할 때 그 고구마줄기를 자릅니까?)

103051 #1 감저꿀양 이, 것도 모종을 좋은 디 노면은 그 기간ᄁᆞ장도 막 잘 크는 밧이 잇어예.(고구마줄기요 이, 것도 모종을 좋은 데 놓으면 그 기간까지도 아주 잘 크는 밭이 있어요.)

103051 @ 으.(으.)

103051 #1 잘 크민 이 정도로 잘 크주. 게민 옛날에는 몰르니까 그 긴 거를 그대로 한꺼번에 놓은 거라.(잘 크면 이 정도로 잘 크지. 그러면 옛날에는 모르니까 그 긴 거를 그대로 한꺼번에 놓은 거야.)

103051 @ 음.(음.)

103051 #1 걸 짤랑 놔야 감저 수확이 더 날 건데. 그거를 이만이 크면은 세 개 네 개로 짤랑 놓면은 감저는 이 꼭겡이에만 드는 때문에 많이 나는 건데. 그걸 질, 긴냥 그대로 일은 빨라도 감저 수확은 얼마 안 나지.(걸 잘라서 놔야 고구마 수확이 더 날 건데. 그거를 이만큼 크면 세 개 네 개로 잘라서 놓으면 고구마는 이 끄트머리에만 드는 때문에 많이 나는 건데. 그걸 길, 긴대로 그대로 일은 빨라도 고구마 수확은 얼마 안 나지.)

103051 @ 아아.(아아.)

103051 #1 끗데만 드는 거기 때문에.(끝에만 드는 거기 때문에.)

103051 @ 예.(예.)

103051 #1 게난 차츰차츰 헤 가멍 그다음부떠는 짤르멍.(그러니까 차츰차츰 해 가면서 그다음부터는 자르면서.)

103051 @ 음.(음.)

103051 #1 짤르멍 헤영 놉니다. 줏게. 게사 수확이 많이 나주.(자르면서 해서 놉니다. 잣게. 그래야 수확이 많이 나지.)

103053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감저밧듸도 검질메얄 거 아니예?(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고구마밭에도 김매야 할 거 아니에요?)

103053 #1 메여사주게.(매야지.)

103053 @ 그때는 어떤 검질?(그때는 어떤 김?)

103053 #1 감저꿀 영 더퍼지난 아, 그때도 마찬가지. 여름 검질이난.(고구마줄기 이렇게 덮어지니까 아, 그때도 마찬가지. 여름 김이니까.)

103053 @ 여름 검질이난.(여름 김이니까.)

103053 #1 으, 제완지허고 헤바레기 ᄀᆞ뜬 거 그자 그런 거.(으, 바랭이하고 '헤바레

기’ 같은 거 그저 그런 거.)

103053 @ 여기는 감저꿀엔 허고.(여기는 ‘감저꿀’이라고 하고.)

103053 #1 감저꿀.(‘감저꿀’.)

103055 @ 게믄 감저 그 수확은 어느 철에 허는 거?(그러면 고구마 그 수확은 어느 철에 하는 거?)

103055 #1 수확은 시월, 시월들 나민 수확허기 시작허는 거.(수확은 시월, 시월 나면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

103055 @ 예, 수확허젠 허민 그 순서대로 골아 줍서. 어떤 식으로 감저 파고 헤신디?(예, 수확하려고 하면 그 순서대로 말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고구마 파고 했는지?)

103055 #1 꿀 걷엉.(줄기 걷어서.)

103055 @ 예.(예.)

103055 #1 꿀 걷젠 허민 힘들엉 그것도 ᄒᆞ꼼 펜안히 살아져가난 설러 벳수게게.(줄기 걷으려고 하면 힘들어서 그것도 조금 편안히 살아져가니까 그만둬 버렸습니다.)

103055 @ 예, 예.(예, 예.)

103055 #1 꿀 걷엇당은에게 꿀 영 영 치우멍 담더레영 어디레영 다 치와근에 파는 거주, 앚앙.(줄기 걷었다가 줄기 이렇게 이렇게 치우면서 담으로랑 어디로랑 다 치워서 파는 거지, 앉아서.)

103055 @ 감저꿀 걷젠 허민 어떤 식으로 걷는 거?(고구마줄기 걷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걷는 거?)

103055 #1 아이고, 꿀 걷젠 허민 호미로, 호미로. 호미로 헤근에 파니 네 개 잡아근에.(아이고, 줄기 걷으려고 하면 낫으로, 낫으로. 낫으로 해서 이랑 네 개 잡아서.)

103055 @ 으.(으.)

103055 #1 네 개 잡앙 ᄒᆞᆫ 파니 꿀을 저 이레 잦히멍 끊어가.(네 개 잡아서 한 이랑 줄기를 저 이리 젖히면서 끊어가.)

103055 @ 예, 예.(예, 예.)

103055 #1 경 헤영 끊어가근에 또 이짝으로 ᄒᆞᆫ 파니 딱 잡앙 끊어오민 여기 가운디 두 파니 남을 거 아니?(그렇게 해서 끊어가서 또 이쪽으로 한 이랑 딱 잡아서 끊어오면 여기 가운데 두 이랑 남을 거 아니?)

103055 @ 예.(예.)

103055 #1 게믄 그거는 기자 한꺼번에 이 도막도막 짤랑예.(그러면 그거는 그저 한꺼번에 이 도막도막 잘라서요.)

103055 @ 예.(예.)

103055 #1 ᄒᆞᆫ 번 뒈쓸 만큼썩. 게영 짤라근에 여기 딱 끊엉 착 잦혀뒁 이디 강 또 영 짤랑은에 경 헹 끊주.(한 번 뒤집을 만큼씩. 그래서 잘라서 여기 딱 끊어서 착 젖혀둬서 여기 가서 또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해서 끊지.)

103055 @ 다 사람 손으로?(다 사람 손으로?)

103055 #1 손으로.(손으로.)

103055 @ 으. 뭐 소를 허거나 안 허고예?(으. 뭐 소를 하거나 안 하고요?)

103055 #1 아니. 이 근래는 저 뭐냐? 기계로 걷엇주.(아니. 이 근래는 저 뭐냐? 기계로 걷었지.)

103055 @ 아, 기계로도 걷어나고.(아, 기계로도 걷었었고.)

103055 #1 기계로 착착착착 저 찢엉, 찢엉.(기계로 착착착착 저 찢어서, 찢어서.)

103055 @ 예.(예.)

103055 #1 기계론 허민.(기계론 하면.)

103055 @ 으.(으.)

103055 #1 그 감저꿀을 찢엉.(그 고구마줄기를 찢어서.)

103055 @ 예. 그런 식으로 헤갖고 허고 파는 거는 어떤 식으로?(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고 파는 거는 어떤 식으로?)

103055 #1 파는 건 놉 빌엉 골게기로 파사주.(파는 건 놉 빌려서 호미로 파야지.)

103055 @ 아, 골게기로 파마씨? 여기는.(아, 호미로 파요? 여기는.)

103055 #1 골게기로 파사주.(호미로 파야지.)

103055 @ 아아.(아아.)

103055 #1 아니, 아니, 골게기.(아니, 아니, 호미.)

103055 @ 아아, 우리는 손으로 파는 거 안 보고 다 잠대 메왕은에 쉐로 파신디.(아아, 우리는 손으로 파는 거 안 보고 다 쟁기 매워서 소로 팠는데.)

103055 @2 우리는 손으로 헷어.(우리는 손으로 했어.)

103055 #1 손으로, 손으로.(손으로, 손으로.)

103055 @ 예.(예.)

103055 @2 건 웨냐허면 많이 하는 데는 그랫을 지도 몰라?(건 왜냐하면 많이 하는 데는 그랬을 지도 몰라?)

103055 #1 잠대 메왕 헌 거는 그르제우다. 예, 그루후젠 기계로도 헵니께, 헷수게.(쟁기 메워서 한 거는 그 이후에입니다. 예, 그 이후에는 기계로도 합니다, 했습니다.)

103055 @ 예에.(예에.)

103055 @2 게난 그때는 기억하기로는 그 골벳[171] 잇잖아. 골벳.(그러니까 그때는 기억하기로는 그 '골벳' 있잖아. '골벳'.)

103055 @ 예.(예.)

103055 @2 골벳으로 헷어. 웨냐허면 그냥 쉐벳으로 허면 감저가 다 탁탁탁 짤라지잖아. 나무로 뒈어 잇는 골벳.('골벳'으로 했어. 왜냐하면 그냥 '쉐벳'으로 하면 고구마가 다 탁탁탁 잘라지잖아. 나무로 되어 있는 '골벳'.)

103055 #1 골베기[172] 뭐우과?('골베기' 뭡니까?)

103055 @ 골 가는 벳. 벳 메운 한쪽으로만.(골 가는 벼. 벼 메운 한쪽으로만.)

---

171) '골벳'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고랑의 흙을 올려줄 때 쟁기에 메우는 벼을 말한다. '골벳'은 '골+벳' 구성으로, '골'은 고랑, '벳'은 '벼'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72) '골베기'는 제보자가 '골벳'을 잘못 들어서 되물을 때 사용한 표현이다.

103055 #1 아아. 벳으로만 끼왕 고렝이 가는 거. 골 가는 거.(아아. 볏으로만 끼워서 고랑 가는 거. 고랑 가는 거.)

103056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씨감저[173] 허젠 허면 보관은 어떤 식으로 헤, 삼춘.(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씨고구마' 하려고 하면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해, 삼촌.)

103056 #1 우연네 시꺼당 구뎅이 팡. 구뎅이 팡 에염에 쫙허게 보리찝 세왕.(터알에 실어다가 구덩이 파서. 구덩이 파서 가장자리에 쫙하게 보릿짚 세워서.)

103056 @ 예.(예.)

103056 #1 보리찝. 보리찝 짝 이 구뎅이 이렇게 파면은 뱅허게 돌아가멍 보리찝 세왕 밑에 보리찝 혼 드리 끌앙 그레 감저 막 갖다 놩. 그 우터렌 또 어웍. 억새.(보릿짚. 보릿짚 짝 이 구덩이 이렇게 파면 뱅하게 돌아가면서 보릿짚 세워서 밑에 보릿짚 한 층 깔아서 그리로 고구마 막 갖다 놔서. 그 위로는 또 억새. 억새.)

103056 @ 예.(예.)

103056 #1 그거 헤당 우트레 주둥이 짝엔 억새로 헤근에게 빙허게 놔 놩. 감저 이헐 만이 구뎅이가 요 정도면은 요만큼 올라오게시리 감절 놔 놩 게영 그 억새를 노끗으로 영 영 쫄류는 거라.(그거 해다가 위로 주둥이 쪽엔 억새로 해서 빙하게 놔 놓아서. 고구마 이 할 만큼 구덩이가 요 정도면 요만큼 올라오게끔 고구말 놔 놓아서 그래서 그 억새를 노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이는 거야.)

103056 @ 음.(음.)

103056 #1 싹 쫄륜 다음에 흑을 막 다 덮어. 흑 믄딱 더퍼. 경 여기 요만이만 넹겨둬. 꼭데기에.(싹 조인 다음에 흙을 막 다 덮어. 흙 몽땅 덮어. 그렇게 여기 요만큼만 남겨두고. 꼭대기에.)

103056 @ 으.(으.)

103056 #1 것만 넹겨둬 흑 싹 더푼 다음에 주젱이 멩글앙.(것만 남겨두고 흙 싹 덮은 다음에 주저리 만들어서.)

103056 @ 으.(으.)

103056 #1 주젱이 멩글앙 주젱이만 톡 더껑 내 부는 거주.(주저리 만들어서 주저리만 톡 덮어서 내 버리는 거지.)

103056 @ 으, 경 허여근에.(으, 그렇게 해서.)

103056 #1 잘 맞아. 그 온도가. 잘 맞아.(잘 맞아. 그 온도가. 잘 맞아.)

103056 @2 우리는 조칩으로 헷수다.(우리는 조짚으로 했습니다.)

103056 #1 조칩도 헙주게.(조짚도 합지요.)

103056 @ 으.(으.)

103056 #1 예, 조칩도 헙주.(예, 조짚도 합지요.)

103056 @2 보리낭은 잘 안 쓰고.(보릿대는 잘 안 쓰고.)

103056 @ 조칩도 하고. 경 허영은에 이제 감저 허면 그거는 씨감저.(조짚도 하고.

173) '씨감저'는 씨앗으로 쓸 고구마를 말한다. 즉 '씨고구마'인 셈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마 하면 그거는 '씨고구마'.)

103056 #1 씨감저.('씨고구마'.)

103056 @ 게믄 감저는 주로 어떤 식으로 풀앗어마씨?(그러면 고구마는 주로 어떤 식으로 팔았어요?)

103056 #1 풀앗어?(팔았어?)

103056 @ 으.(으.)

103057 @2 뺏데기 멘들앙?(절간고구마 만들어서?)

103057 #1 아아, 풀앗어? 그 감저 놔사 팡은에.(아아, 팔았어? 그 고구마 놔야 파서.)

103057 @ 예.(예.)

103057 #1 그때는 처음에는 공장 안 셍긴 때난 뺏데기[174] 헷수게.(그때는 처음에는 공장 안 생긴 때니까 절간고구마 했습니다.)

103057 @ 예.(예.)

103057 #1 뺏데기 주로 허난에. 그땐 나무를 이 저 전부다 불로 솜을 때난 이 길가에고 무시거 헌 밧듸고 전부다 나무 땔감으로 다 비어 부니까 버덕이 막 하, 하낫주. 지금은 버덕이 하나도 엇인디.(절간고구마 주로 하니까. 그땐 나무를 이 저 전부다 불로 땔 때니까 이 길가에고 무엇 한 밭에고 전부다 나무 땔감으로 다 베어 버리니까 벌판이 아주 많아, 많았지. 지금은 벌판이 하나도 없는데.)

103057 @ 음.(음.)

103057 #1 남 나 부난.(나무 나 버리니깐.)

103057 @ 음.(음.)

103057 #1 버덕이 하난에 이녁 밧듸서 파면은 그 버덕 ᄎᆞ지헤근에 막 감저 쪼끔씩 갓다 놧당 ᄎᆞ지헤 놔근에 거기서, 기계가 잇엇주.(벌판이 많으니까 이녁 밭에서 파면은 그 벌판 차지해서 막 고구마 조끔씩 갔다 놨다가 차지해 놔서 거기서, 기계가 있었지.)

103057 @ 음.(음.)

103057 #1 감젓기계[175].('감젓기계'.)

103057 @ 음.(음.)

103057 #1 게영 그디 널엉은에 말렷주.(그래서 거기 널어서 말렸지.)

103057 @ 으음, 게영 다 버덕에. 밧듸에 넌 게 아니라 버덕에 강.(으음, 그래서 다 벌판에. 밭에 넌 게 아니라 벌판에 가서.)

103057 #1 밧뒨 흑밧듸 안 뒈주게? 버덕에 나왕.(밭에는 '흙밭'에 안 되지? 벌판에 나와서.)

103057 @ 우리 저 서쪽은 다 밧듸 널엇수다.(우리 저 서쪽은 다 밭에 널었습니다.)

103057 #1 흑밧[176]듸.('흙밭'에)

103057 @ 예.(예.)

---

174) '뺏데기'는 고구마 따위를 썰어서 말린 것을 말한다. 주로 '감저뺏데기'처럼 말해진다.
175) 여기서 '감젓기계'는 고구마를 썰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176) '흑밧'은 흙이 있는 밭, 즉 밭의 의미로 쓰였다.

103057 #1 무신거 ᄀᆞᆯ앙?(무엇 깔아서?)
103057 @ 아니.(아니.)
103057 @2 기냥.(그냥.)
103057 @ 그냥.(그냥.)
103057 #1 땅 우에.(땅 위에.)
103057 @ 예, 게영 거 다 줏어 오고.(예, 그래서 거 다 주워 오고.)
103057 #1 게민 버물지 아녕.(그러면 더럽지 않아서.)
103057 @ 안 버불어. 물를믄.(안 더러워. 마르면.)
103057 #1 비올 땐 어떵 허렌?(비올 땐 어떻게 하라고?)
103057 @2 비 오민 큰일이 나주.(비 오면 큰일이 나지.)
103057 @ 그때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주. 구름, 비오젠 허면.(그때는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구름, 비 오려고 하면.)
103057 #1 이딘 다 끗어내영양?(여긴 다 끌어내서요?)
103057 @ 예.(예.)
103057 #1 테역밧듸.(잔디밭에.)
103057 @ 테역밧듸에?(잔디밭에?)
103057 @2 우리는 기냥 밧듸 헹. 정말 비 오젠 허면 가빠 더꺼간다 막 난리납주.(우리는 그냥 밭에 해서. 정말 비 오려고 하면 가빠 덮어간다 아주 난리납지요.)
103057 #1 맞수다게. 흑밧듸라 부난.(맞습니다. 흙밭이어 버리니까.)
103057 @2 거 젖으면 돈도 안 주고 하니까.(거 젖으면 돈도 안 주고 하니까.)
103057 #1 예게. 그.(예. 그.)
103057 @2 썩어 불고.(썩어 버리고.)
103057 #1 게고 흑 묻쳐지민 시커멍허곡.(그러고 흙 묻히면 시커멓고.)
103057 @ 곰팡이 나곡예.(곰팡이 나고요.)
103057 #1 이딘 다 끗어내영. 잔디밧듸.(여긴 다 끌어내어서. 잔디밭에.)
103057 @ 잔디밧듸.(잔디밭에.)
103057 #1 전부 다.(전부 다.)
103058 @ 음, 게믄 그 감저꿀로는 뭐허여?(음, 그러면 그 고구마줄기로는 뭐해요?)
103058 #1 거 꿀 물 쉐촐.(거 줄기 말 소꼴.)
103058 @ 감저꿀은 쉐촐.(고구마줄기는 소꼴.)
103058 #1 쉐영 물이영 겨울에 양석이주.(소랑 말이랑 겨울에 양식이지.)
103059 @ 삼춘, 감저 싱그멍 잊어 불지 못허키여.(삼촌, 고구마 심으면서 잊어 버리지 못하겠다.)
103059 #1 감저 놓을 때 뭐 모종 놓을 때?(고구마 놓을 때 뭐 모종 놓을 때?)
103059 @ 모종 놀 때든 뭐 아무 때라도. 잊어 불지 못허는 거?(모종 놓을 때든 뭐 아무 때라도. 잊어 버리지 못하는 거?)
103059 #1 잊어불지 못허는 거는? 경 무시거 헌 거는 엇인디 저 뺏데기 허젠 허민

그 밧듸 거 지여 내는 거.(잊어버리지 못하는 거는? 그렇게 무엇 한 거는 없는데 저 절간고구마 하려고 하면 그 밭에 거 지어 내는 거.)

103059 @ 예.(예.)

103059 #1 마차나 뭐 엇이난양, 그 등짐으로[등지므로] 다 그 장소에 지어내야 뒐 거 아니우과? 저 멩텡이에 담으멍.(마차나 뭐 없으니까요, 그 등짐으로 다 그 장소에 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망태기에 담으면서.)

103059 @ 음.(음.)

103059 @2 등짐으로.(등짐으로.)

103059 #1 예, 등짐으로. 그거게 그치룩 허멍 다 영 뻬덜이 다 다리 아프다 늙어가난 나이 들어가난 이젠 다 허리벵이여[허릳뼁이여] 다리여 허는 거주게.(예, 등짐으로. 그거 그처럼 하면서 다 이렇게 뼈들이 다 다리 아프다 늙어가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이젠 다 허릿병이다 다리다 하는 거지.)

103059 @ 게난 그때 하도 짐도 하영 지고?(그러니까 그때 하도 짐도 많이 지고?)

103059 #1 하영만 져수가게.(많이만 졌습니까.)

103059 @ 예.(예.)

103059 #1 그 여남은 설 뒈난 짐 지기 시작헌 걸.(그 여남은 살 되니까 짐 지기 시작한 걸.)

103059 @ 으.(으.)

103059 #1 그땐 무신 짐이우꽈 허민 땔감 따문에.(그땐 무슨 짐입니까 하면 땔감 때문에.)

103059 @ 으, 땔감 허레 다니고?(으, 땔감 하러 다니고?)

103059 #1 땔감 때문에 맨날 강 땔감을 헤 와야 뒈난.(땔감 때문에 맨날 강 땔감을 해 와야 되니까.)

103059 @ 그 땔감을 여기서는 짇을커 이런 말은 안 헤?(그 땔감을 여기서는 '짇을커' 이런 말은 안 해?)

103059 #1 짇을커.('짇을커'.)

103059 @ 어, 짇을커렌예?(어, '짇을커'라고요?)

103059 #1 지들컬 헤 와야 뒈난.(땔감 해 와야 되니까.)

103059 @ 게난 물은 안 집디가?(그러니까 물은 안 졌습니까?)

103059 #1 무사 물 안 집니까? 물도예, 이딘 거리가 하도 멀어양. 우린 저 밑에랏수다. 사는 디가. 춤, 우리 친정네 사는 디가. 이 동네서 젤 밑엔디 지금 양어장덜 잇인 그 동넨디. 그 동네서 세미엔 헌 거는 요디 ᄒᆞ나 뿐이라양.(왜 물 안 졌습니까? 물도요, 여긴 거리가 하도 멀어요. 우린 저 밑이었습니다. 사는 데가. 참, 우리 친정에 사는 데가. 이 동네서 젤 밑인데 지금 양어장들 있는 그 동넨데. 그 동네서 샘이라고 한 거는 요기 하나 뿐이어요.)

103059 @ 예.(예.)

103059 #1 요디 하나 뿐이고. 글로 저 밑에 민물통[177] 잇수다. 민물통.(요기 하나

뿐이고. 글로 저 밑에 '민물통' 있습니다. '민물통'.)

103059 @ 음.(음.)

103059 #1 이짝은 소 먹곡 이짝은 사름 먹는 통이 잇는데. 아이고, 밤이 그디 물 질레 허벅 졍 물 질레 가젠 허민 무섭고.(이쪽은 소 먹고 이쪽은 사람 먹는 통이 있는데. 아이고, 밤에 거기 물 길러 허벅 져서 물 길러 가려고 하면 무섭고.)

103059 @ 음.(음.)

103059 #1 무서와. 지금도 그 꿈을 꾸민 그 꿈을 봐져. 이상허게 그 꿈을.(무서워. 지금도 그 꿈을 꾸면 그 꿈을 봐져. 이상하게 그 꿈을.)

103059 @ 어렷을 때 이제 으?(어렸을 때 이제 으?)

103059 #1 으으. 그치룩 허영 허곡. 이딘 오민 또 흔 부락에 통 하나니까 사람이 워낙 하노난에 이 두룽박질.(으으. 그처럼 해서 하고. 여긴 오면 또 한 부락에 통 하나니까 사람이 워낙 많아놓으니까 이 두레박질.)

103059 @2 예.(예.)

103059 #1 그거 이녁 거 엇어도 오민 멧 시간 질어낭 빌엉 허젠 허민 걸리곡. 이녁 건 가졍 오민 또 거리가 멀어 놓난 지엉, 허벅 졍 가져 그거 들르젠 허민 버치민 이디 놩 내 불민 여먹어 불고.(그거 이녁 거 없어도 오면 몇 시간 길어놔서 빌려서 하려고 하면 걸리고. 이녁 건 가져서 오면 또 거리가 멀어 놓으니까 지어서, 허벅 지고 가자 그거 들려고 하면 부치면 여기 놔서 내 버리면 잊어먹어 버리고.)

103059 @ 음.(음.)

103059 #1 또 무식헌 사름은 허당 친 그차지민 그디 들이쳐 불민 춧지 못허영 못허곡. 아이고, 그 물 질멍 먹은 것이 진짜로 이제도 꿈에 경 꿈을 보민 그 꿈을 봐집니다게.(또 무식한 사람은 하다가 끈 끊어지면 거기 들이쳐 버리면 찾지 못해서 못하고. 아이고, 그 물 길으면서 먹은 것이 진짜로 이제도 꿈에 그렇게 꿈을 보면 그 꿈을 봐집니다.)

기타 농사

103060 @ 알앗수다. 삼춘, 수박도 갈아 봅디가?(알았습니다. 삼촌, 수박도 갈아 봅디까?)

103060 #1 우린 수박은 안 갈고양, 저 이 이 아방[178]이 총각인 땐 그 학교 뎅기는 시절에는 옛날 차비허고 용돈허젠양.(우린 수박은 안 갈고요, 저 이 이 아버지가 총각일 땐 그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옛날 차비하고 용돈하려고요.)

103060 @ 음.(음.)

103060 #1 경 허젠 암툭 한 마리씩 삼 형제니까 이녁 거 다 표적헤근에.(그렇게 하려고 암탉 한 마리씩 삼 형제니까 이녁 거 다 표시해서.)

177) '민물통'은 민물이 고이는 우물을 말한다.
178) '아방'은 표준어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남편을 가리키면서 사용한 어휘다.

103060 @ 예.(예.)

103060 #1 경 헤섭디다게. 암턱 한 마리썩 질뢍 그 새끼 낳민 알 낳민 그걸로 풀아 근엥에 저 차비허곡 또 반찬허곡. 도시락 반찬. 경 허영 허곡 웨.(그렇게 했습디다. 암탉 한 마리씩 길러서 그 새끼 낳으면 알 낳으면 그걸로 팔아서 저 차비하고 또 반찬하고. 도시락 반찬. 그렇게 해서 하고 외.)

103060 @ 예.(예.)

103060 #1 물웨.(물외.)

103060 @ 예.(예.)

103060 @2 아, 물웨.(아, 물외.)

103060 #1 예, 물웨 요디 밧 칠벡 평짜리 빌언에 그건 나 결혼헌 후에.(예, 물외 요기 밭 칠백 평짜리 빌려서 그건 나 결혼한 후에.)

103060 @ 음.(음.)

103060 #1 빌언에 웰 놓은 거라양.(빌려서 왈 놓은 거예요.)

103060 @ 음.(음.)

103060 #1 웰 놘에 저기 저 열아가난에. 이 지금도 그건디, 이 우리가 악허질 못헤 놓니까. 놈이 뭐 가져가 베도 아방은 원래 경 허여. 이제는 안 여먹는디, 전에는양 돈이고 뭐고 이 보껫도에 놔두민 다 가져가 불영이 학생덜 커올 때양.(왈 놔서 저기 저 열어 가니까. 이 지금도 그건데, 이 우리가 악하질 못해 놓으니까. 남이 뭐 가져 가 버려도 남편은 원래 그렇게 해. 이제는 안 잊어먹는데, 전에는요 돈이고 뭐고 이 포켓에 놔두면 다 가져가 버려서 학생들 커올 때요.)

103060 @ 음.(음.)

103060 #1 그축 허영 허민 나 무시거 허영 부에 나가민 아방은 경 헙니까. 우리보다 엇인 사름이 아져간 거난 욕허지 말아사 그 아져간 사름이 줴.(그처럼 해서 하면 나 무엇 해서 부아 나가면 남편은 그렇게 합니까. 우리보다 없는 사람이 가져간 거니까 욕하지 말아야 그 가져간 사람이 죄.)

103060 @ 줴가 안 뒌덴. (웃음).(죄가 안 된다고. (웃음).)

103060 #1 절대. 이왕에 여먹은 거 나보단 엇인 사름 아져갓구나 헤여근엥에 욕을 허지 말렌 허영 일절 뭐엔 못 곧게 헤여양.(절대. 이왕에 잃어먹은 거 나보단 없는 사람 가져갔구나 해서 욕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일절 뭐라고 못 말하게 해요.)

103060 @ 음.(음.)

103060 #1 경 헤 놓난 밧듸 농살 헤도 마음대로라. 지네.(그렇게 해 놓으니까 밭에 농살 해도 마음대로야. 저들.)

103060 @ 어어.(어어.)

103060 #1 먹구정허민 마음대로 타가 빌어. 그치룩 허영 헌디 그땐양 보리 흔 관뒈 아져가민 웨, 물웨 멧 개씩 허멍.(먹고자하면 마음대로 따가 버려. 그처럼 해서 했는데 그땐요 보리 한 관되 가져가면 외, 물외 몇 개씩 하면서.)

103060 @ 예, 예.(예, 예.)

103060 #1 풀 때우다게.(팔 땝니다.)

103060 @ 예.(예.)

103060 #1 경 허영 뒷날 아척 강 보민 막 그디 볼일 봐 놔둬 가곡양, 웨 타 놩 막 무시거 허멍 헌디 흔 번은 사진을 봉근 거라.(그렇게 해서 뒷날 아침 가서 보면 아주 거기 볼일 봐 놔두고 가고요, 외 따 놓아서 아주 무엇 하면서 했는데 한 번은 사진을 주운 거야.)

103060 @ 으.(으.)

103060 #1 그 웨 타레 왓당 문드려 변에.(그 외 따러 왔다가 떨어뜨려 버려서.)

103060 @ 예, 예.(예, 예.)

103060 @2 음.(음.)

103060 #1 경 헨 아이고, (웃음) 아이고, 이거 누게 와낫구나게. 사진 이디 털어졋수, 털어졋수게. 누게 와낫구나게. 허멍 허난. ᄀᆞ만히 내 불라. 거 왕 아는 첵 허민 미안허곡 허난 내 불렌. 사진만 저레 놩 내 불민 넘어가당 아져갈 티사 내 불렌. 경 허멍 헹 기자.(그렇게 해서 아이고, (웃음) 아이고, 이거 누구 왔었구나. 사진 여기 떨어졌습, 떨어졌습니다. 누구 왔었구나. 하면서 하니까. 가만히 내 버려라. 거 와서 아는 척 하면 미안하고 하니까 내 버리라고. 사진만 저리 놔서 내 버리면 넘어가다가 가져갈 지야 내 버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그저.)

103060 @ 아, 성질이, 성질이 어.(아, 성질이, 성질이 어.)

103060 #1 원양, 성질이예 먼제 뗑길 충을 몰라. 어떵헌 사름산디. 그축헹 허곡. 흔 번은 톨바당[179]을 막 풀아낫수다.(원요, 성질이요 먼저 당길 줄을 몰라. 어떡한 사람인지. 그처럼 해서 하고. 한 번은 '톳바다'를 막 팔았었습니다.)

103060 @ 예.(예.)

103060 #1 톨을. 경 헤영 바당을 헷는데, 그 개금[180]이 사름이 사십오 명 부떠낫어양.(톳을. 그렇게 해서 바다를 했는데, 그 '개금'이 사람이 사십오 명 붙었었어요.)

103060 @ 음.(음.)

103060 #1 사십오 명 부튼디 톨은 그때가 오십 멧 칭 헌 거라. 오십 멧 칭 허난에 이젠 그 톨 장ᄉᆞ헌 아이가 그땐 저 육지 저 ○○호[181]로.(사십오 명 붙었는데 톳은 그때가 오십 몇 칭 한 거야. 오십 몇 칭 하니까 이젠 그 톳 장사한 아이가 그땐 저 육지 저 ○○호로.)

103060 @2 예, ○○호예.(예, '○○호'요.)

103060 #1 ○○호로 시껏수다, 게난. 그 톨 장시 허는 아이가 처음 아졍간에 잘 풀ᄀᆞ렌 허멍 돈을 가졍완에, 나 저 삼춘 나 이거 흔 번만 더 흔, 헹 분만 더 헤놔근에 돈 그때랑 홈치 물커매 봐 줍서 허난 이젠 경 허렌 허영 오꼿 봐줘 분 거 아니?(○○호로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톳 장사 하는 아이가 처음 가져가서 잘 팔았다고 하면서 돈을

179) '톨바당'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톳이 많이 나는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180) '개금'은 물질 따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한 구역을 이르는 말 같다. '개+금'의 구성으로, 개는 바다, 금은 경계의 의미를 지닌 어휘가 아닌가 한다.

181) '**호'는 배의 이름이다.

가져와서, 나 저 삼촌 나 이거 한 번만 더 한, 해서 분만 더 해놔서 돈 그때는 한꺼번에 물겠으니 봐 주세요 하니까 이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만 봐줘 버린 거 아니?)

103060 @ 음.(음.)

103060 #1 봐줘 부난 그때는 톨 가졍간에 그놈의 제집아이가 그 ○○호 선장허고 좋아헨에, 좋아헨에 오지도 아녀고 톨깝도 안 준 건 아니우과?(봐줘 버리니까 그때는 톳 가져가서 그놈의 계집애가 그 ○○호 선장하고 좋아해서, 좋아해서 오지도 않고 톳값도 안 준 건 아닙니까?)

103060 @ 음.(음.)

103060 #1 안 주난 톨 부뜬 인부들은 우리보고 받아 썻다.(안 주니까 톳 붙은 인부들은 우리보고 받아서 썼다.)

103060 @ 음.(음.)

103060 #1 웨 톨깝을 안 줄 리가 잇느냐 받안 썻다 경 헌 거라. 아, 게난 이건 우리가 다 설아야 뭴 거 아니. 게 야, 이젠 할 수 엇이 여기 육벡 펭짜리 베출 갈앗어양. 베출 싱건에 그 사름덜보고 김치 헐 때.(왜 톳값을 안 줄 리가 있느냐 받아서 썼다 그렇게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설어야 될 거 아니. 그래서 야, 이젠 할 수 없이 여기 육백 평짜리 배출 갈았어요. 배출 심어서 그 사람들보고 김치 할 때.)

103060 @ 음.(음.)

103060 #1 베추로 가져 갑서. 김장 헙서. 앗당. 언젠가는 살아 잇으면은 그 사름 봐질 거난 그때랑은에 뭐허곡 가져갑센 헤연 이제.(배추로 가져 가십시오. 김장 하십시오. 가져다가. 언젠가는 살아 있으면 그 사람 봐질 거니까 그때는 뭐하고 가져가십사고 해서 이제.)

103060 @ 음.(음.)

103060 #1 베추로 다 줫어양.(배추로 다 줬어요.)

103060 @ 음.(음.)

103060 #1 준디 흔 열 멧 사름은 안 가져갓어. 베추도 안 가져간. 게 우리ᄀᆞ라 먹엇덴만 헤연에 안 가져간 거라. 아, 게난 한 십년 더 뭰디 나가 바당에 물질허레 갓다 오단 보니까 저 밑에 동네 아니 가이가.(줬는데 한 열 몇 사람은 안 가져갔어. 배추도 안 가져갔어. 그래 우리보고 먹었다고만 해서 안 가져간 거야. 아, 그러니까 한 십년 더 됐는데 내가 바다에 물질하러 갔다 오다가 보니까 저 밑에 동네 아니 걔가.)

103060 @ 보연?(보연?)

103060 #1 쫄락[182]허게. 으. 그디 영 질레 나온 거라.('쫄락'하게. 으. 거기 이렇게 길에 나온 거야.)

103060 @ 음.(음.)

103060 #1 나 저끗듸 딱 완 야, 느 누게 아니냐? 허난에, 기노렌.(나 곁에 딱 와서 야, 너 누구 아니니? 하니까 그렇다고.)

103060 @ 으.(으.)

182) '쫄락'은 '(사람 따위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60 #1 야, 느, 야, 느 어떵허난 여기 얼굴 들렁 와졋이니?(야, 너, 야, 너 어떡하니 여기 얼굴 들어서 와졌느냐?)

103060 @ 으.(으.)

103060 #1 돈 주라, 돈 헹 왓일 테주. 얼굴 들르난에. 양[183], 경 헨 보난예, 우리 ○○○ 뚤 메누리로 와 벼십디게게.(돈 줘라, 돈 해서 왔을 테지. 얼굴 드니까. 여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 딸 며느리로 와 버렸습디다.)

103060 @ 웃음.(웃음.)

103060 #1 아이고, 난, 게난 이젠 경 말 곧는 거 보난 게난 우리 사촌언니가 나온 거라.(아이고, 난, 그러니까 이젠 그렇게 말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나온 거야.)

103060 @ 어.(어.)

103060 #1 아이고야, 이만저만헨에 저 ○○이, 신랑이 이름이 ○○이우다. ○○이 아니 장게가켄 허멍 저 돌앙 와시녜 허건.(아이고야, 이만저만해서 저 ○○이, 신랑이 이름이 ○○입니다. ○○이 아니 장가가겠다고 하면서 저 데려왔잖니 하거든.)

103060 @ 아.(아.)

103060 #1 아이고, 이 성님아. 자이 우리 톨 마흔일곱 칭 들러먹어 부난 우리 배추 갈안 다 물고 허단도 지금 우리ᄀᆞ라만 먹엇젠 헨 못 받은 아이 아니우과? 아니 어떵허난 원순, 웨나무다리에서 만남수가게 허멍. 게난 가이가 허는 소리가 벌엉 물쿠덴.(아이고, 이 형님아. 쟤 우리 톳 마흔일곱 칭 들러먹어 버리니까 우리 배추 갈아서 다 물고 하다가도 지금 우리보고만 먹었다고 해서 못 받은 아이 아닙니까? 아니 어떡하니까 원순,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걔가 하는 소리가 벌어서 물겠다고.)

103060 @ 으.(으.)

103060 #1 **이가 빵집을 헷수다게. 빵집 헨 헤난에 벌엉 물쿠덴 헌 거라. 아이고, 어이가 엇언에. 게, 아무튼 빨리 벌멍 주라. 경 허멍 헤연에 헌 건디양 우리 이 집 짓젠 허난에 빵집 허고 뭐허난에양 어디 간 쉐, 소 추렴 허는 디 간에 소머리 두 번 사다줍디다게. 저 목시덜 훼식허렌.(**이가 빵집을 했습니다. 빵집 해서 하니까 벌어서 물겠다고 한 거야. 아이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 아무튼 빨리 벌면서 줘라. 그렇게 하면서 해서 한 건데요 우리 이 집 지으려고 하니까 빵집 하고 뭐하니까요 어디 가서 소, 소 추렴 하는 데 가서 소머리 두 번 사다줍디다. 저 목수들 회식하라고.)

103060 @ 음.(음.)

103060 #1 게 소머리 두 개로 톨 팔십, 저 사십일곱 칭 멕여 내분 사름이우다.(그래 소머리 두 개로 톳 팔십, 저 마흔일곱 칭 먹여서 내버린 사람입니다.)

103060 @ (웃음).(웃음.)

103060 #1 일절 말을 원 악허질 못허영이.(일절 말을 전혀 악하질 못해서.)

103060 @ 음.(음.)

183) 여기에서 '양'은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로, '여보세요, 이봐요' 따위의 의미로 쓰였다.

103060 #1 경 허민 난 아이고, 진짜 사름이 어떻게 저렇게 미련허넨 허주. 어떤 땐. 웨 저렇게 미련허냐고.(그렇게 하면 난 아이고,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냐고 하지. 어떨 땐. 왜 저렇게 미련하냐고.)

103060 @ 으.(으.)

103060 #1 딱딱 헐 말은 허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지. 난 경 헤집니다.(딱딱 할 말은 하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지. 난 그렇게 해집니다.)

103060 @ 게난 그때 조합장 뭰 거 아니우과?(그러니까 그때 조합장 된 거 아닙니까?)

103060 #1 그 덕택에 뒈긴 헷수다. 게난 성산읍이든 어디든 저 조합장 몰른 사름은 간첩이엔 헤낫주.(그 덕택에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산읍이든 어디든 저 조합장 모른 사람은 간첩이라고 했었지.)

103060 @ 으.(으.)

103060 #1 어른이 아이든 늙신네든 헐 것 없이 다 좋아.(어른이 아이든 늙으신네든 할 것 없이 다 좋아.)

103060 @ 으.(으.)

103060 #1 우리, 나ᄀᆞ라 사름 체별허지 말렌 허멍 허는 성질이라 노난양, 아이덜신디 가믄 아이덜 맞추국 중찍엔 가민 중간에 맞추구 노인들은 노인들 맞추고 이제도 어디 가민양 웨방 사름덜 보민양 이제도 늙신네들이 어제도 병원에 간오는디 구십 난 하르방이양, 아이고 조합장님은 건강허우과 어떵허우과 허관, 나가 아이그, 참.(우리, 나보고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성질이어 놓으니까요, 아이들 한테 가면 아이들 맞추고 중간쯤엔 가면 중간에 맞추고 노인들은 노인들 맞추고 이제도 어디 가면요 외방 사람들 보면요 이제도 늙으신네들이 어제도 병원에 다녀오는데 구십 된 할아버지요, 아이고, 조합장님은 건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던데, 나가 아이고, 참.)

103060 @ (웃음.)(웃음.)

103060 #1 (웃음) 게믄 흔덴 헌 말이 뭔 중 앎이우과? 나가 이치룩 다 베풀어근에 순허게 헹 놔두면 우리 자식덜이 다 받는 거다. 경만 ᄀᆞᆯ읍니께.((웃음) 그러면 한다고 한 말이 뭔 줄 앎입니까? 내가 이처럼 다 베풀어서 순하게 해서 놔두면 우리 자식들이 다 받는 거다. 그렇게만 말합니다.)

103061 @ (웃음). 맞수다. 게난 츰웨도 갈아봔마씨?((웃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외도 갈아봤어요?)

103061 #1 츰에는 안 갈아나고 물웨.(참외는 안 갈았었고 물외.)

103062 @ 물웨예, 게믄 그 고치?(물외요, 그러면 그 고추?)

103062 #1 고추도 저 이녁 먹을 것만 싱것주, 안 싱거 봣수다.(고추도 저 이녁 먹을 것만 심었지, 안 심어 봤습니다.)

103062 @ 그거는 안 하고예, 건 고추 싱글 땐 어떤 식으로 싱거?(그거는 안 하고요, 건 고추 심을 땐 어떤 식으로 심어?)

103062 #1 고추 싱글 때 기냥 밧듸 걸름 삐영 싱겅 저 비니루 더펀에, 비니루 더펀

에 고추 모종 사단에 기자 고망 뚤르멍 그레만 똑똑 싱그난 경 잘 뒙니다게.(고추 심을 때 그냥 밭에 거름 뿌려서 심어서 저 비닐 덮어서, 비닐 덮어서 고추 모종 사다가 그저 구멍 뚫으면서 그리로만 똑똑 심으니까 그렇게 잘 됩니다.)

103062 @ 예. 거는 모종 거는 사당 헷구나예?(예. 거는 모종 거는 사다가 했군요?)

103062 #1 모종.(모종.)

103063 @ 아까 베추 하영 김장ᄂᆞᆯ 헷덴 허멍 건 어떤 식으로 언제 헌 거?(아까 배추 많이 김장배추 했다고 하면서 건 어떤 식으로 언제 한 거?)

103063 #1 베추게. 그때 모종이 안 헐 때, 땝주.(배추. 그때 모종이 안 할 때, 때지요.)

103063 @ 예.(예.)

103063 #1 옛날에는. 건 씨로 삐여근엥에 갈 때난. 씨로게 영 구뎅이 허멍 접아 놧단에 나민 그 솎아 병 하나씩만 앚젼에 헌 겁주.(옛날에는. 건 씨로 뿌려서 갈 때니까. 씨로 이렇게 구덩이 하면서 집어 놨다가 나면 그 솎아 버려서 하나씩만 앉혀서 한 거지요.)

103063 @ 그게 김장ᄂᆞᆯ?(그게 김장배추?)

103063 #1 예.(예.)

103063 @ 음, 그 베춘 하영 싱거난마씨?(음, 그 배춘 많이 심었었어요?)

103063 #1 아게, 육백 평짜리 싱건에 그 톨 헌 사름 다 주단 흔 열다섯인가 열넷인가 헌 사름은 안 가져가곡 나머진 다 톨 그걸로 다 가져간 헤연에 톨깝은 가이 멕영 내불고.(아, 육백 평짜리 심어서 그 톳 한 사람 다 주다가 한 열다섯인가 열넷인가 한 사람은 안 가져가고 나머진 다 톳 그걸로 다 가져가서 해서 톳값은 걔 먹여서 내 버리고.)

103063 @ 으.(으.)

103063 #1 게난 우리 조카안티 결혼헨에 빵집 허멍 살단 결국은 교통사고로 죽엇수다. 가이.(그러니까 우리 조카한테 결혼해서 빵집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걔.)

103063 @ 아아.(아아.)

103063 #1 신랑은 지금 기자 살고.(신랑은 지금 그저 살고.)

103063 @ 살고.(살고.)

103063 #1 게연 난 그땐, 항상 난 춤지 못허지.(그래서 난 그땐, 항상 난 참지 못하지.)

103063 @ 으.(으.)

103063 #1 웨 ○○호 선장안티 사는 사름이 어떵헨에 ○○이안티 결혼을 허젠 헤시니? 느, 그 말을 안 헐 건디, 그 신양리[184]우다. 가이가.(왜 ○○호 선장한테 사는 사람이 어떡해서 ○○이안테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너, 그 말을 안 할 건데, 그 신양리입니다. 걔가.)

103063 @ 예, 예.(예, 예.)

184) '신양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를 가리킨다.

103063 #1 신양린디 하도 그때 복통 나난 그 신양리 우리 츳앙 가왓어. 아방이영 우리영. 야이가 육지서 들어왓단 안 왓단 보렌 간 보난에 그 할무니만 잇습디다게. 할무니만 잇인디 할망 허는 소리가 에미나 홀어멍이라. 저 젊은 때 혼자뒈연에. 그 친정어멍이. 게난 어멍이나 뚤이나 할망 말은 막 경허대. 에미나 뚤이나 으, 그 몸뗑이 장ᄉᆞ만 허멍 재산 다 풀아먹고 ᄆᆞᆫ딱 헨 이 모냥 이 꼴 멘글아둰 에뚤년이 어디사 나간 어디서 사 간 박안 살암신디 허멍 할망이 막 욕을 허여.(신양린데 하도 그때 복통이 나니까 그 신양리 우리 찾아서 다녀왔어. 남편이랑 우리랑. 얘가 육지서 들어왔다가 안 왔다가 보러 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만 있습디다. 할머니만 있는데 할머니 하는 소리가 어미나 홀어머니야. 저 젊은 때 혼자되어서. 그 친정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나 딸이나 할머니 말은 막 그렇대. 어미나 딸이나 으, 그 몸뚱이 장사만 하면서 재산 다 팔아먹고 몽땅 해서 이 모양 이 꼴 만들어두고 어이딸이 어디야 나가서 어디에서야 가서 박혀서 살고 있는지 하면서 할머니가 막 욕을 해.)

103063 @ 으음.(으음.)

103063 #1 경 허멍 허난 그때에 이젠 아방[185]이 영 보니까 저 구두, 여자 구두가 세 베나 이신 거라.(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때에 이젠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저 구두, 여자 구두가 세 켤레나 있는 거야.)

103063 @ 으.(으.)

103063 #1 게난 그 비오고 허난에 큰 지세항에 그 지슷물 받는 항이 잇습디다. 큰 항. 거 잇이난 이제 아방이 아 이디서 그 사름안티 들러먹엇젠 욕들으난 부에가 안 날 거우과?(그러니까 그 비오고 하니까 큰 '지세항'에 그 낙숫물 받는 항아리가 있습디다. 큰 항. 거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아 여기서 그 사람한테 들어먹었다고 욕 들으니까 부아가 안 날 겁니까?)

103063 @ 으으.(으으.)

103063 #1 게난 이제 나 가고 허니까 그 항을 바락[186]허게 벌러 불엿어. 물 받아놓은 거. 벌러 불고 그 신발을 이젠 던져 분 거라.(그러니까 이제 나 가고 하니까 그 항아리를 '바락'하게 깨 버렸어. 물 받아놓은 거. 깨 버리고 그 신발을 이젠 던져 버린 거라.)

103063 @ 음.(음.)

103063 #1 나 돈은 안 주고 이치룩 베딱, 그땐 뻬딱구두[187]엔 헷주.(나 돈은 안 주고 이처럼 '베딱', 그땐 '뻬딱구두'라고 했지.)

103063 @ 뻬딱구두.('뻬딱구두'.)

103063 #1 베딱구두만 멧 베씩 사다놓멍 으, 웨 나 돈은 안 주느냐고 헨에 이제 그거 벌러 불멍 헤도 그땐 **호 그 선장이영 누게영 미쳥 살 때라 부난 경끄장 헤도 못 받읍디다게.('베딱구두'만 몇 켤레씩 사다놓으면서 으, 왜 내 돈은 안 주느냐고 해서 이제 그거 깨 버리면서 해도 그땐 **호 그 선장이랑 누구랑 미쳐서 살 때여 버리니까 그

185) '아방'은 표준어 '아버지'에 대응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남편'의 의미로 사용됐다.
186) '바락'은 갑자기 물건을 한쪽으로 밀쳐버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187) '뻬딱구두'는 굽이 높은 여자 구두를 말한다.

렇게까지 해도 못 받습디다.)

103063 @ 음.(음.)

103063 #1 게난 결국은 조케메누리로 와 부난에게.(그러니까 결국은 조카며느리로 와 버리니까.)

103063 @ 게난.(그러니까.)

103063 #1 도새기데가리, 저 쉐데가리 두 개로 받앗수게.(돼지머리, 저 소머리 두 개로 받았습니다.)

103063 @ 음.(음.)

103063 #1 (웃음.)(웃음.)

103063 @ 경 하고, 삼춘, 놈삐는 어떵헨?(그렇게 하고, 삼촌, 무는 어떡했어요?)

103063 #1 잊어불지 못혜.(잊어버리지 못해.)

103064 @ 놈삐도 갈안?(무도 갈았어요?)

103064 #1 아, 놈삔 기자 처음에는 그대로 이녁대로 갈안 풀단에.(아, 문 그저 처음에는 그대로 이녁대로 갈아서 팔다가.)

103064 @ 예, 이 동네 놈삐 완전 유명허던데.(예, 이 동네 무 완전 유명하던데.)

103064 #1 이젠 밧으로 줘 부난.(이젠 밭으로 줘 버리니까.)

103064 @ 아. 건 어떤 식으로 갈아?(아. 건 어떤 식으로 갈아?)

103064 #1 세로.(세로.)

103064 @ 놈삐는?(무는?)

103064 #1 무수 갈 때?(무 갈 때?)

103064 @ 예.(예.)

103064 #1 아, 무수 갈 때 비료영 걸름 다 삐여놩 밧 갈면은 건 손으로 씰 들이쳇수다. 우리 헐 땐.(아, 무 갈 때 비료랑 거름 다 뿌려놓아서 밭 갈면 건 손으로 씰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할 땐.)

103064 @ 음.(음.)

103064 #1 손으로?(손으로?)

103064 @ 손으로?(손으로?)

103064 #1 으, 손으로 영 헤영 방씨 벌영 접으멍 들이쳇주.(으,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방씨' 벌여서 집으면서 집어넣었지.)

103064 @ 음. 경 허영은에 이제 방씨 벌영 허는데, 그건 어느 철에 갈아마씨?(음. 그렇게 해서 이제 '방씨' 벌여서 하는데, 그건 어느 철에 갈아요?)

103064 #1 무수 이제 갈 때 돌아왐수게.(무 이제 갈 때 돌아오고 있습니다.)

103064 @ 아아.(아아.)

103064 #1 이제 구월 초부터 팔월 이십 메칠부떠 허는 건디 하도 ᄀᆞ물아 부난 아직 밧덜만 갈안에 지금.(이제 구월 초부터 팔월 이십 며칠부터 하는 건데 하도 가물어 버리니까 아직 밭들만 갈아서 지금.)

103064 @ 아아, 구월에 보통 허는구나.(아아, 구월에 보통 하는구나.)

103064 #1 으.(으.)

103065 @ 음, 여기는 지슬도 싱급니까?(음, 여기는 감자도 심습니까?)

103065#1 지슬감자 허는 사름 특작 허는 사름 멧 사름 헙니다.(감자 하는 사람 특작 하는 사람 몇 사람 합니다.)

103065 @ 아, 지슬감저도 헤예?(아, 감자도 한다고요?)

103065 #1 으.(으.)

103065 @1 게난 이 동네 표선이나 이쪽에 오니까 지슬을 그냥 지슬감저렌 헙디다예?(그러니까 이 동네 표선이나 이쪽에 오니까 감자를 그냥 '지슬감저'라고 하던데요.)

103065 #1 으. 지슬감저.(으. '지슬감저'.)

103065 @ 지슬감저. 지슬엔 안 허영 지슬감저?('지슬감저'. '지슬'이라고 안 해서 '지슬감저'?)

103065 #1 음.(음.)

103065 @ 음. 삼춘네도 지슬감저 갈아봔?(음. 삼촌네도 감자 갈아봤어요?)

103065 #1 아니, 우린 아니, 먹을 거벳긔.(아니, 우린 아니, 먹을 거밖에.)

103065 @ 음, 거는 어느 철에 가는 거우과?(음, 거는 어느 철에 가는 겁니까?)

103065 #1 지금 싱그는 건디 나 경 아녀시민 오늘 벳도 안 나곡 막 좋을 건디. 저 우연네.(지금 심는 건데 나 그렇게 않았으면 오늘 볕도 안 나고 아주 좋을 건데. 저 터 앝에.)

103065 @ 어어.(어어.)

103065 #1 어제 간 다 검질메 놓고 헨에 싱글 건디 오늘게 **.(어제 가서 다 김매 놓고 해서 심을 건데 오늘 **)

103065 @2 우리 와 부난.(우리 와 버리니까.)

103065 @ 우리 가 불면은 강 싱급서.(우리 가 버리면 가서 심으세요.)

103065 #1 가 불민 강.(가 버리면 가서.)

103065 @2 저녁 부청은에.(저녁 붙여서.)

103065 # 1 예.(예.)

103066 @ 아까 삼춘 피도 갈앗덴 허멍?(아까 삼촌 피도 갈았다고 하면서?)

103066 #1 피 옛날에게 조 갈 때.(피 옛날에 조 갈 때.)

103066 @ 어, 그 피 갈 땐 건 어떤 식으로 헤여?(어, 그 피 갈 땐 건 어떤 식으로 해?)

103066 #1 피, 피쏠 알아집니까? 헤영헙니께.(피, 픱쌀 알아집니까? 하얗습니다.)

103066 @ 예, 예.(예, 예.)

103066 #1 따끄면.(찧으면.)

103066 @2 예, 예.(예, 예.)

103066 #1 피쏠, 피밥은 막 맛셔.(픱쌀, 피밥은 아주 맛있어.)

103066 @ 아.(아.)

103067 @2 웨냐허면 건 피방에[188] 질려고 하면 힘들지 안헙니까?(왜냐하면 건 피

방아 찧으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103066 #1 예, 막 힘들어.(예, 아주 힘들어.)

103067 @2 피방에는?(피방아는?)

103067 #1 예, 거는 막 저 조, 쌀 가는 것도 조보당 틀령은에 흔 불 두 불 더 놔야 뒈고.(예, 거는 막 저 조, 쌀 가는 것도 조보다 달라서 한 벌 두 벌 더 놔야 되고.)

103067 2 음.(음.)

103067 #1 ᄀᆞ는 디도.(가는 데도.)

103067 @ ᄀᆞ는 디도?(가는 데도?)

103067 #1 으, 겐디 헤영허주게, 쏠이. 좁쏠은 좁쏠방울인디 헤영허여.(으, 그런데 하얗지, 쌀이. 좁쌀은 좁쌀알인데 하얘.)

103066 @ 예, 헤영허여?(예, 하얘?)

103066 #1 으. 경 허영 그거 흔 번 갈아낫주.(으. 그렇게 해서 그거 한 번 갈았었지.)

103066 @ 게난 그 피 가는 것도 좁썰 허는 거처럼 허는 거?(그러니까 그 피 가는 것도 좁쌀 하는 거처럼 하는 거?)

103066 #1 마찬가지, 씨 삐영 가는 건.(마찬가지, 씨 뿌려서 가는 건.)

103067 @ 아, 것도 다 삐영 허는 거예?(아, 것도 다 뿌려서 하는 거요?)

103067 #1 옛날. 씨 삐영. 여름 건 마찬가지.(옛날. 씨 뿌려서. 여름 건 마찬가지.)

103067 @ 마찬가지. 여기 삼춘 ᄆᆞ멀은 안 헙니까?(마찬가지. 여기 삼촌 메밀은 안 합니까?)

103067 #1 ᄆᆞ물.(메밀.)

103067 @ 메멀?(메밀?)

103067 @2 메물.(메밀.)

103067 #1 ᄆᆞ물, ᄆᆞ물.(메밀, 메밀.)

103067 @ ᄆᆞ물.(메밀.)

103067 #1 옛날은 ᄆᆞ물 멧 사름덜은 막 갈아나신디 요즘은 안 갈아양.(옛날은 메밀 몇 사람들은 막 갈았었는데 요즘은 안 갈아요.)

103067 @ 으, ᄆᆞ물은 언제 허는 거라?(으, 메밀은 언제 하는 거야?)

103067 #1 ᄆᆞ물 이 저 무시거 헐 때. 이제 ᄆᆞ물 얼마 엇엉 칠월 음력 칠월[칠눨레]에 가는 거주.(메밀 이 저 무엇 할 때. 이제 메밀 얼마 없어서 칠월 음력 칠월에 가는 거지.)

103067 @ 예.(예.)

103067 #1 음력 칠월에.(음력 칠월에.)

103067 @ 음력 칠월에 갈아 불면 수확은 언제 허는 것과?(음력 칠월에 갈아 버리면 수확은 언제 하는 겁니까?)

103067 #1 수확은 이 저 미깡 딸 때 허는 건디. 철이.(수확은 이 저 귤 딸 때 하는

188) '피방에'는 핍쌀을 내기 위하여 방아를 찧는 일을 말한다.

건데. 철이.)

103067 @ 예.(예.)

103067 #1 시월 말 뒈영 십일 경 헤영 허는 건디 이젠 이 동넨 ᄆᆞ멀은 안 갈아.(시월 말 되어서 십일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젠 이 동넨 메밀은 안 갈아.)

103068 @ 이 동네는 ᄆᆞᆯ은 거의 안 헙니까?(이 동네는 메밀은 거의 안 합니까?)

103068 #1 귤덜 많이 헤 부난 뭐.(귤들 많이 해 버리니까 뭐.)

103068 @ 옛날 그 ᄆᆞ멀 헐 때는 뭐 제 헤갖고 ᄀᆞ치 서껑 갈아낫수가?(옛날 그 메밀 할 때는 뭐 제 해갖고 같이 섞어서 갈았었습니까?)

103068 #1 아니, 그것이 걸름이주게.(아니, 그것이 거름이지.)

103068 @ 아아.(아아.)

103068 @2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3068 @ 그 ᄆᆞ멀 갈 때 거 어떵허는 거 그거 ᄀᆞᆯ아 줍서. 혼 번.(그 메밀 갈 때 거 어떡하는 거 그거 말해 주십시오. 한 번.)

103068 #1 그 불치, 불치. 불치 모멀씨 서껑 것도 접아놧수다게.(그 재, 재. 재 메밀씨 섞어서 것도 집어넣었습니다.)

103068 @ 음. 밧 갈앙은에.(음. 밭 갈아서.)

103068 #1 옛날은 접아놧수다.(옛날은 집어넣었습니다.)

103068 @2 맞수다.(맞습니다.)

103068 #1 접아놧어. 영 영 영 영 출구덕[189]에 담앙 영 뚜러메둠스루 영영 접아놧어. 방씨[190] 벌영.(집어넣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출구덕'에 담아서 이렇게 둘러매어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었어. '방씨' 벌여서.)

103067 @ 무슨 구덕에?(무슨 바구니에?)

103067 #1 출구덕에.('출구덕'에.)

103068 @ 출구덕에, 어어.('출구덕'에, 어어.)

103068 @2 출구덕.('출구덕'.)

103068 #1 으, 접아놘 헌 거라.(으, 집어넣어서 한 거야.)

103068 @ 접아놩은에 헌 거예? 이렇게 삔 게 아니고예.(집어넣어서 한 거요? 이렇게 뿌린 게 아니고요.)

103068 #1 삔 게 아니고 영 접아놔수다. 방쉬 벌영.(뿌린 게 아니고 이렇게 집어놨습니다. '방쉬' 벌여서.)

103067 @ 으, 그 접아놓은 거를 뭐 다른 말로 ᄀᆞᆫ는 것도 잇수가?(으, 그 집어넣은 거를 뭐 다른 말로 말하는 것도 있습니까?)

103067 #1 다른 말 엇수다. 접아논 거주.(다른 말 없습니다. 집어놓은 거지.)

103068 @ 그냥 접아논덴 ᄀᆞᆯ아예?(그냥 집어넣은다고 말해요?)

103068 #1 으.(으.)

---

189) '출구덕'은 허리에 차서 사용하는 바구니를 말한다.

190) '방씨'는 씨 따위를 뿌리거나 곡식을 심을 때 일정한 구역을 정해 벌이는 일을 말한다. '방씨 벌영'처럼 쓰인다. 달리 '방쉬 벌영'이라고도 한다.

103068 @ 경 허영 갈고. 이 동네 담베 가는 사름도 봐봅디가?(그렇게 해서 갈고. 이 동네 담배 가는 사람도 봐봅디까?)

103068 #1 게메, 옛날에 갈아낫주게.(글쎄, 옛날에 갈았었지.)

103068 @ 삼춘은?(삼촌은?)

103068 #1 옛날은 담베 싱거낫주덜.(옛날은 담배 심었었지들.)

103068 @ 삼춘네도 헤난?(삼촌네도 했었어?)

103068 #1 ᄒᆞ꼼썩.(조금씩.)

103068 #1 우린 아녀나고.(우린 않았었고.)

103068 @ 으.(으.)

103068 #1 우리 씨아부지네는 그 저 많이 장ᄉᆞ로 헌 게 아니고 이녁 테울 것덜게.(우리 시아버지네는 그 저 많이 장사로 한 게 아니고 이녁 태울 것들.)

103068 @ 예.(예.)

103068 #1 옛날이사게.(옛날이야.)

103068 @ 으, 집에서?(으, 집에서?)

103068 #1 종이 헤영 ᄆᆞᆯ앙 테우는 거.(종이 해서 말아서 태우는 거.)

103068 @ 봉초?(봉초?)

103068 #1 그, 그치룩 헌 거주게.(그, 그처럼 한 거지.)

103068 @ 씨아버지네 갈안, 어떤 식으로 갈읍디가? 담베는. 수확허고 어떤 식으로 허여?(시아버지네 갈아서, 어떤 식으로 갑디까? 담배는. 수확하고 어떤 식으로 해?)

103068 #1 담베 씨 들이는 거는 안 봣는데 커가민은 노란 썹부떠 땁니다게.(담배 씨 들이는 거는 안 봤는데 커가면 노란 잎부터 땁니다.)

103068 @ 음.(음.)

103068 #1 썹이 노랑헌 거부떠 따.(잎이 노란 거부터 따.)

103068 @ 으음.(으음.)

103068 #1 경 헤근에 영 여펴근엥에 ᄃᆞᆯ아맵디다. ᄆᆞᆯ르렌.(그렇게 해서 이렇게 엮어서 매답디다. 마르라고.)

103068 @ 아, 여평 ᄃᆞᆯ아메여?(아, 엮어서 매달아?)

103068 #1 으.(으.)

103068 @ 아.(아.)

103068 #1 ᄂᆞ람지 여피는 식으로 여편에 ᄃᆞᆯ아멘게.(이엉 엮는 식으로 엮어서 매달던데.)

103068 @ 그 여평은에 그다음에 어떻게 헤서 피우는 거?(그 엮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피우는 거?)

103068 #1 경 헤영 ᄃᆞᆯ아멧당은에 그걸 무신 ᄀᆞᆯ아근엥에 태우나 뭐허질 아녀고 바싹 ᄆᆞ르니까 삭삭 부벼근엥에 무신 종이에 기자 영 놩 영 ᄆᆞᆯ아근에 기냥 담베 태웁디다.(그렇게 해서 매달았다가 그걸 무슨 갈아서 태우나 뭐하질 않고 바싹 마르니까 삭삭 비벼서 무슨 종이에 그저 이렇게 놔서 이렇게 말아서 그냥 담배 태웁디다.)

103068 @ 예.(예.)

103068 @2 작두로 하지 않고예?(작두로 하지 않고요?)

103068 #1 으.(으.)

103068 @ 손으로 이렇게 헤갖고?(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103068 @2 것도.(것도.)

103068 #1 바싹 ᄆᆞ르민 영 영 허민 파싹 부서지주게. 경 허난 경 헤영덜 태웁디다.(바싹 마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싹 부서지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들 태웁디다.)

103068 @2 으, 혹시 술도 안 뿌리고마씸?(으, 혹시 술도 안 뿌리고요?)

103068 #2 술?(술?)

103068 @2 예.(예.)

103068 @ 물 뿌리는 거.(물 뿌리는 거.)

103068 #1 안 풀고.(안 팔고.)

103068 @2 술 여기 물엇당 담베 푸 품지 아녀고마씨?(술 여기 물었다가 담배 푸 뿜지 않고요?)

103068 #1 아니.(아니.)

103068 @ 그런 건 안 헤보고. 접 짓엉은에 영 멧 개씩, 열 개씩 이렇게 무껑 놔두는 건 안 보고?(그런 건 안 해보고. 접 지어서 이렇게 몇 개씩, 열 개씩 이렇게 묶어서 놔두는 건 안 보고?)

103068 #1 아, 그거 으, 그건 ᄌᆞ근ᄌᆞ근 영 심엉 무껑 이디 ᄏᆞ칭허게 헤근에.(아, 그거 으, 그건 차근차근 이렇게 잡아서 묶어서 여기 나란하게 해서.)

103068 @ 음.(음.)

103068 #1 담베 예피는 거엔 허주. 것ᄀᆞ라.(담배 엮는 거라고 하지. 것보고.)

103068 @ 예, 예.(예, 예.)

103068 #1 담베 예피는 거. 이디 ᄏᆞ찡허게 헤근에게 영 영 이디 감아근엥에 헹 영 ᄌᆞ근ᄌᆞ근 놩 딱 헤영 썹은 ᄂᆞ람지처럼 이치록 탁 부쳐근에. 꽁꽁 눌렁 데명 놔두는 거.(담베 엮는 거. 여기 나란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감아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놔서 딱 해서 잎은 이엉처럼 이처럼 탁 붙여서. 꽁꽁 눌러서 쌓아서 놔두는 거.)

103068 @ 그걸 접이렌 헤?(그걸 접이라고 해?)

103068 #1 으.(으.)

103068 @ 엿 개씩 무끕디가?(엿 개씩 묶습디까?)

103068 #1 아, 열 개씩.(아, 열 개씩.)

103068 @ 열 개씩? 게 열 개 무끈 것이 ᄒᆞᆫ 접이구나예?(열 개씩? 게 열 개 묶은 것이 한 접이군요?)

103068 #1 아니 벡 개가 ᄒᆞᆫ 접이주.(아니 백 개가 한 접이지.)

103068 @ 벡 개가 ᄒᆞᆫ 접.(백 개가 한 접.)

103068 #1 게, 열 개가 열 개 헤사주.(게, 열 개가 열 개 해야지.)

103068 @ 열 개 열 개 헤서 흔 접.(열 개 열 개 해서 한 접.)
103068 #1 경 헤사 흔 접이주.(그렇게 해야 한 접이지.)
103068 @ 예, 알앗수다. 여기까지 허면 농사헌 거는 거의 헌 거 닮아예.(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농사한 거는 거의 한 거 같아요.)
103068 #1 예.(예.)
103068 @ 오늘랑 요까지만 허쿠다.(오늘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103068 #1 예.(예.)
103068 @2 저예.(저요.)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2 소는 여기 웨 소를 길르느냐 허면은 그때는 농사를 지을 때라.(소는 여기 왜 소를 기르느냐 하면 그때는 농사를 지을 때야.)
104001 @ 예.(예.)
104001 #2 농사를 계속 짓젠 허민 소를 남으 집의 강 빌, 에 하루가 강 빌어오면은 빌어온다든가 그 사름이 와서 밧을 갈면 이틀이나 사흘 가서 그 집의 강 일을 헤야 뒈여.(농사를 계속 지으려고 하면 소를 남의 집에 가서 빌, 에 하루가 가서 빌려오면 빌려온다든가 그 사람이 와서 밭을 갈면 이틀이나 사흘 가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어.)
104001 @ 음.(음.)
104001 #2 게문 또 농사짓는 사름 소가 없으면은 일을 헐 수가 없지. 한 천오벡 평 이천 평만 가진 사름은 다 밧을 옛날은 보리 갈아나도 이제 초불 갈고 두불 갈아야 뒈고.(그러면 또 농사짓는 사람 소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 한 천오백 평 이천 평만 가진 사람은 다 밭을 옛날은 보리 갈았어도 이제 초벌 갈고 두벌 갈아야 되고.)
104001 @ 음.(음.)
104001 #2 뭐 블릴[191] 밧도 초불 두불 세불 갈아야 뒈고. 서숙 헐라면은 밧을 더 잘 갈아야 뒈.(뭐 밟을 밭도 초벌 두벌 세벌 갈아야 되고. 서숙 하려면 밭을 더 잘 갈아야 돼.)
104001 @ 으음.(으음.)
104001 #2 그러는 때문에 이 소를 보통 암소든 에 숫소든 하나나 두 개를 길롸야 이제 농사짓기 때문에 그거는 필히 길르는 거고.(그러는 때문에 이 소를 보통 암소든 에 수소든 하나나 두 개를 길러야 이제 농사짓기 때문에 그거는 필히 기르는 거고.)
104001 @ 음, 집집마다예?(음, 집집마다요?)

191) 여기에서 '블릴'은 '좁씨 따위를 뿌려서 씨가 묻힐 수 있도록 말떼나 끙게 따위로 땅을 다지는'의 의미다.

104001 #2 집집마다 길럿고.(집집마다 길렀고.)

104001 @ 예.(예.)

104001 #2 게서 그 뭐 소접[192]도 허고 뭣도 허멍.(그래서 그 뭐 '소접'도 하고 뭣도 하면서.)

104001 @ 음.(음.)

104001 #2 그거를 소 질뢍 뭐 허면은 소 무주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농사철 뒈면은 남자는 아침 세벽 두 시나 세 시 뒈면은 집에 맷던 소를 촐밧듸 가지고 가서.(그거를 소 길러서 뭐 하면은 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농사철 되면 남자는 아침 새벽 두 시나 세 시 되면 집에 맸던 소를 꼴밭에 가지고 가서.)

104001 @ 예.(예.)

104001 #2 소를 멕여야 뒈.(소를 먹여야 돼.)

104001 @ 음.(음.)

104001 #2 아침 다섯 시까지.(아침 다섯 시까지.)

104001 @ 예.(예.)

104001 #2 이제 농지가 먼 곳에는 이 잠대 다 지고 가서 밭에[바테] 놔두고 이제 소를 다 멕여 가지고 소 아침ᄁᆞ지 ᄒᆞᆫ 세 시간 두 시간을 멕이면서 가. 밭에 가서 잠을 자는 거라.(이제 농지가 먼 곳에는 이 쟁기 다 지고 가서 밭에 놔두고 이제 소를 다 먹여 가지고 소 아침까지 한 세 시간 두 시간을 먹이면서 가. 밭에 가서 잠을 자는 거야.)

104001 @ 으음.(으음.)

104001 #2 잠 자 가지고 소가 잘 먹어. 소 드러누면 일려 가지고 먹으라, 먹으라 자꾸 멕여야 뒈.(잠 자 가지고 소가 잘 먹어. 소 드러누우면 일으켜 가지고 먹어라, 먹어라 자꾸 먹여야 돼.)

104001 @ 예, 예.(예, 예.)

104001 #2 오늘 너 일헐 거니까 못헌다 허는 식으로 헤 가지고 멕여 가지고 아침 뒈면은 첨 그때는 보통 소 먹으레 가 가지고 가까운 디는 집에 와서 밥 먹지만은 먼 사름은 아침 헤만 뜨민 밧을 갈앗어.(오늘 너 일할 거니까 못한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먹여 가지고 아침 되면 첨 그때는 보통 소 먹이러 가 가지고 가까운 데는 집에 와서 밥 먹지만 먼 사람은 아침 해만 뜨면 밭을 갈았어.)

104001 @ 예.(예.)

104001 #2 밧 갈고 잇으면 아침밥 갖다 준다든가 ᄌᆞ식들 잇으면 ᄌᆞ식이 가지고 온다고 헤 가지고 허면 그때 밥 먹고. 하루 열두 시나 한 시만 제외허고는 밧을 갈앗으니까.(밭 갈고 있으면 아침밥 갖다 준다든가 자식들 있으면 자식이 가지고 온다고 해 가지고 하면 그때 밥 먹고. 하루 열두 시나 한 시만 제외하고는 밭을 갈았으니까.)

104001 @ 예, 예.(예, 예.)

104001 #2 음. 죽으나 사나.(음. 죽으나 사나.)

---

192) '소접'은 소를 기를 때 협동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된 집단을 말한다. '소접'은 '소+접' 구성으로, '접'은 표준어 '계(契)'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04001 @ 예, 알아수다. 게문예, 쉐 질루는 건예, 쉐는 어떤 식으로 질롼마씨?(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소 기르는 건요, 소는 어떤 식으로 길렀어요?)

104001 #2 쉐를 게니까 겨울에는 집에서 촐을 팔월 추석 뒈면은 촐을 소 멕일 거를 헐 거 허고, 땔감 허고 헤야 뒈. 여기서.(소를 그러니까 겨울에는 집에서 꼴을 팔월 추석 되면 꼴을 소 먹일 거를 할 거 하고, 땔감 하고 해야 돼. 여기서.)

104001 @ 예.(예.)

104001 #2 부지런히. 크게 한 눌을 소로 시꺼 가지고 다 눌고. 그땐 마차들이 없었으니까.(부지런히. 크게 한 가리를 소로 실어 가지고 다 가리고. 그땐 마차들이 없었으니까.)

104001 @ 음.(음.)

104001 #2 소에 질메 허면은 소 촐 시끄는 것도 잘 실르는 사람은 열, 서른 단을 시꺼, 서른 단.(소에 길마 하면 소 꼴 싣는 것도 잘 싣는 사람은 열, 서른 단을 실어, 서른 단.)

104001 @ 예.(예.)

104001 #2 서른 단이 혼 바리.(서른 단이 한 바리.)

104001 @ 음.(음.)

104001 #2 이쪽으로 멧 단 이쪽으로 멧 단 하면서 세 곤데로 헤 가지고 소에 실러 가지고 집에 와 가지고 쌓고. 그렇게 헤서 그거를 쌓아놧다가 십이월달[-월딸]로부터 이월 이 저, 입춘 지날 때까지.(이쪽으로 몇 단 이쪽으로 몇 단 하면서 세 군데로 해 가지고 소에 실어 가지고 집에 와 가지고 쌓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쌓아놨다가 십이월로부터 이월 이 저, 입춘 지날 때까지.)

104001 @ 예.(예.)

104001 #2 집에서만 그걸 멕이는 거라. 집에서 물은 가서 그때는 물이 귀하니까.(집에서만 그걸 먹이는 거야. 집에서 물은 가서 그때는 물이 귀하니까.)

104001 @ 음.(음.)

104001 #2 집에 기르는 소를 겨울에는 이끄고 가서 얼음 얼엇을 때는 바닷물가 바다 물 때[바닫 물때] 쌀 때 뒈민 그디 가서 멕이고. 저디.(집에 기르는 소를 겨울에는 이끌고 가서 얼음 얼었을 때는 바닷가 바다 물때 썰 때 되면 거기 가서 먹이고. 저기.)

104001 @ 아, 바닷물도 멕여예?(아, 바닷물도 먹여요?)

104001 #2 바닷물이 따뜻허게 나오는, 이 온평리는 그 물 나오는 디가 여라 군데 잇어. 부게늡[193] 무슨 어디 어디 헤 가지고 아래까지 다 그런 물 나오는 디가 잇으니까 그런 디 가서 궨물[194] 여기서 궨물엔 허주.(바닷물이 따뜻하게 나오는, 이 온평리는 그 물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 '부게늡' 무슨 어디 어디 해 가지고 아래까지 다 그런 물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궨물' 여기서 '궨물'이라고 하지.)

104001 @ 궨물예?('궨물'요?)

193) '부게늡'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지경에서 솟는 물 이름이다.

194) '궨물'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바닷가 등지에서 솟는 물이 모여서 고여 있는 물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104001 #2 궨물에 가 가지고 물때 맞촤 가지고 멕여.('궨물'에 가 가지고 물때 맞춰 가지고 먹여.)

104001 @ 음.(음.)

104001 #2 게문 소덜이 촐, ᄆᆞ른 촐 먹으니까 물도 잘 먹어. 흔 바가쓰 정도 이상 먹으니까. 경 허영 오곡. 겨면서 한 집의서 한 삼 개월을 우리가 기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촐을 줘야 뒈고.(그러면 소들이 꼴, 마른 꼴 먹으니까 물도 잘 먹어. 한 양동이 정도 이상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고. 그러면서 한 집에서 한 삼 개월을 우리가 기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꼴을 줘야 되고.)

104001 @ 예.(예.)

104001 #2 경 허면서 길르면 송아지 나면 송아지가 이제 송아지 나 가지고 소 시세가 좋을 때는 송아지 ᄒᆞ나 나면은 벡만 원 구십만 원 이렇게 헷으니까.(그렇게 하면서 기르면 송아지 낳으면 송아지가 이제 송아지 나 가지고 소 시세가 좋을 때는 송아지 하나 낳으면 백만 원 구십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104001 @ 음, 음.(음, 음.)

104001 #2 그걸로 이젠 또 학비에 보태고 그러는 때문에 보통은 숫소를[숟쏘를] 안 길뢍 보통 암소 좋은 소를 길롸 가지고 그 소로 밧 산 사름도 잇어. 소 여라 개 길르면은.(그걸로 이젠 또 학비에 보태고 그러는 때문에 보통은 수소를 안 길러서 보통 암소 좋은 소를 길러 가지고 그 소로 밭 산 사람도 있어. 소 여러 개 기르면.)

104001 @ 예.(예.)

104001 #2 송아지를 세 머리 네 머리 나면은 그거 잘 키우면은.(송아지를 세 마리 네 마리 낳으면 그거 잘 키우면.)

104001 @ 음.(음.)

104001 #2 소 팔아서 밧 샷다고 그렇게.(소 팔아서 밭 샀다고 그렇게.)

104001 @ 예, 예.(예, 예.)

104001 #2 발 갈고 허는, 이디 그런 여러 사름덜토 이디 여러 사름 잇어.(발 갈고 하는, 여기 그런 여러 사람들도 여기 여러 사람 있어.)

104002 @ 예, 그 쉐 종류는 어떵?(예, 그 소 종류는 어떻게?)

104002 #2 여기는 다 토종이랏는데.(여기는 다 토종이었는데.)

104002 @ 예.(예.)

104002 #2 근간에 가까이 소가 없어질 무렵 될 때는 미국서나 카나다서 온 브라마[195]라는 소를 놔 가지고 여기도 그 브라마 길롯던 사람 우리 전 훼장헤난 사람.(근간에 가까이 소가 없어질 무렵 될 때는 미국서나 캐나다서 온 '브라마'라는 소를 놔 가지고 여기도 그 '브라마' 길렀던 사람 우리 전 회장했던 사람.)

104002 @ 음.(음.)

104002 #2 현○○이옌 헌 그 사름. 그 사람은 소를 흔 일고ᄋᆞ덥 마리 헤놔 가지고 돈을. 게난 부자칩이니까.(현○○이라고 한 그 사람. 그 사람은 소를 한 일고여덟 마리

195) '브라마'는 소의 한 종류다. 제보자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한 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놔 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부잣집이니까.)

104002 @ 예, 예.(예, 예.)

104002 #2 또 부잣칩은 부잣칩대로 그런 돈 버는 돈이 아무래도 벌기가 쉬웠고.(또 부잣집은 부잣집대로 그런 돈 버는 돈이 아무래도 벌기가 쉬웠고.)

104002 @ 예.(예.)

104002 #2 소가 그러니까 여기 토종보다 두 배가 노프니까.(소가 그러니까 여기 토종보다 두 배가 높으니까.)

104002 @ 예, 예. 게난 그 토종 허게 뒈면 암수에 따랑도 이름 불르는 거 ᄐᆞ낫수가?(예, 예. 그러니까 그 토종 하게 되면 암수에 따라서도 이름 부르는 거 달랐습니까?)

104002 #2 아, 토종은 암커 수놈허고 그 뭐. 소가 이제 예를 들어 식쉐나 이제 그런 거는 슥쉐는 저 고양이 비슷허게 헌 게 슥쉐고.(아 토종은 암컷 수놈하고 그 뭐. 소가 이제 예를 들어 칡소나 이제 그런 거는 칡소는 저 고양이 비슷하게 한 게 칡소고.)

104002 @ 슥쉐.(칡소.)

104002 #2 저 그 전의 또 검은 흑소가 잇지 아녀. 많이 있어.(저 그 전에 또 검은 흑우가 있지 않아. 많이 있어.)

104002 @ 예.(예.)

104002 #2 나도 그 흑소 암소를 길롸낫는데 그거 잇고 노란 거 그 소인디.(나도 그 흑우 암소를 길렀었는데 그거 있고 노란 거 그 소인데.)

104002 @ 예.(예.)

104002 #2 이 저 검은소는 여름에 더위를 좀 많이 타.(이 저 검정소는 여름에 더위를 좀 많이 타.)

104002 @ 아.(아.)

104002 #2 껌은 빛이.(껌은 빛이.)

104002 @ 꺼멍허니까 예.(꺼머니까 예.)

104002 #2 하연, 그 소가 영 집에 길롸보니까 일 시기는 데도 쪼끔허민 혀를 빨리 내 놩 땀이 나는 많이 나는 모양이라.(해서, 그 소가 이렇게 집에 길러보니까 일 시키는 데도 쪼끔하면 혀를 빨리 내 놓아서 땀이 나는 많이 나는 모양이야.)

104002 @ 예, 예.(예, 예.)

104002 #2 그런 식으로 허고, 이 저 노란 소나 뭐 빨간 소덜은.(그런 식으로 하고, 이 저 노란 소나 뭐 빨간 소들은.)

104002 @ 음.(음.)

104002 #2 더위를 쪼끔 덜 타는 모냥 같아고.(더위를 쪼끔 덜 타는 모양 같던데.)

104002 @ 경 허고 뭐 뿔 모양에 따라도 불르는 이름이 ᄃᆞ납니까?(그렇게 하고 뭐 뿔 모양에 따라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까?)

104002 #2 아, 그거는 뭐 별로 뿔 모양으로 뭐는 여기서 그렇게 뭘 안 헷으니까.(아, 그거는 뭐 별로 뿔 모양으로 뭐는 여기서 그렇게 뭘 안 했으니까.)

104002 @ 예, 뿔 이름 뭐 이렇게 허면 천상각이여 이런 말들은 안 헤마씨?(예, 뿔

이름 뭐 이렇게 하면 ‘천상각’이다 이런 말들은 않아요?)

104002 #2 그런 말은 안허고.(그런 말은 않고.)

104002 @ 그런 말덜은 안허고예? 털 색깔에 따랑은 아까 노랑쉐?(그런 말들은 않고요? 털 색깔에 따라서는 아까 ‘노랑소’?)

104002 #2 노랑쉐[196] 껌은쉐 저 식쉐 세 가지로 보통은 불르니까.(‘노랑소’ 검정소 저 칡소 세 가지로 보통은 부르니까.)

104003 @ 예, 그다음에 그 그러면 그 소예? 소는 주로 뭐에 이용헌 거라마씨? 아까.(예, 그다음에 그 그러면 그 소요? 소는 주로 뭐에 이용한 거예요? 아까.)

104003 #2 농사짓는 데 허고 새끼 나서 파는 데.(농사짓는 데 하고 새끼 나서 파는 데.)

104003 @ 음, 농사짓는 데 하고예?(음, 농사짓는 데 하고요?)

104003 #2 농사, 우선은 농사짓는데 우선 거느렷고, 두 번째는 돈 잇는 사름덜은 요거 소 키와서 좀 돈을 벌겟다 허는 사람들. 우리 없는 사름은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그 또 많이 키우는 사람은.(농사, 우선은 농사짓는데 우선 거느렸고, 두 번째는 돈 있는 사람들은 요거 소 키워서 좀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 우리 없는 사람은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그 또 많이 키우는 사람은.)

104003 @ 예.(예.)

104003 #2 초지가 만헤야 뒈고.(초지가 많아야 되고.)

104003 @ 음, 그러면?(음, 그러면?)

104003 #2 초지 없는 사름은 남으 초지를 쫌 싹 내여야 뒈. 돈 줘 가지고라도.(초지 없는 사람은 남의 초지를 좀 삯 내야 돼. 돈 줘 가지고서라도.)

104003 @ 아아.(아아.)

104003 #2 촐 이거 우리 얼마 줄 테니까 이거 밧 나 빌리라 헤영 촐을 비여 와야.(꼴 이거 우리 얼마 줄 테니까 이거 밭 나 빌려라 해서 꼴을 베어 와야.)

104003 2 으음.(으음.)

104003 #2 촐 사는 거주, 거는.(꼴 사는 거지, 거는.)

104003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3 #2 인건비 자기가 촐 비어논 거는 비싸니까.(인건비 자기가 꼴 베어놓은 거는 비싸니까.)

104003 @ 으음.(으음.)

104003 #2 자기가 이제 허면은 그 인건비는 돌아오니 이거를 그땐 헤 가지고.(자기가 이제 하면은 그 인건비는 돌아오니 이거를 그땐 해 가지고.)

104003 @ 음, 게믄 이제 그 농사헐 때는 밧 갈고 뭐 짐 시끄고?(음, 그러면 이제 그 농사할 때는 밭 갈고 뭐 짐 싣고?)

104003 #2 으. 심 시끄고. 거두어. 이 곡식이나 뭐 그 거둘 때도 그 소에 시꺼와 가지고 집에 와 푸고.(으. 심 싣고. 거두어. 이 곡식이나 뭐 그 거둘 때도 그 소에 실어와

196) ‘노랑쉐’는 색깔이 노르스름한 빛을 띠는 소를 말한다.

가지고 집에 와 푸고.)

104003 @ 음, 그다음에 그 쉐 밧 갈젠 허면?(음, 그다음에 그 소 밭 갈려고 하면?)

104003 #2 어.(어.)

104004 @ 길들, 질들인덴 헙니까?(길들, 길들인다고 합니까?)

104004 #2 질들이는. 소 ᄀᆞ리친덴 거.(길들이는. 소 가르친다고 거.)

104004 @ ᄀᆞ리치는?(가르치는?)

104004 #2 그거 금승 사릅 나릅. 세 설 뒈면은 소를 가르쳐야 뒈는데.(그거 하릅 사릅 나릅. 세 살 되면 소를 가르쳐야 되는데.)

104004 @ 예.(예.)

104004 #2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뭐 허니까 그 소를 하나 이끄고 그 저 뭔가 ᄀᆞ레착 같은 거 무슨 뭐 쫌 게부은 걸 헤 가지고 돌을 끗어 가지고 여기 멍에ᄐᆞᆨ[197]을 나게끔.(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뭐 하니까 그 소를 하나 이끌고 그 저 뭔가 맷돌짝 같은 거 무슨 뭐 쫌 가벼운 걸 해 가지고 돌을 끌어 가지고 여기 '멍에ᄐᆞᆨ'을 나게끔.)

104004 @ 예.(예.)

104004 #2 끌고 다니고 떼리고 허면서 다녀야 헤.(끌고 다니고 때리고 하면서 다녀야 해.)

104004 @ 음.(음.)

104004 #2 혼 한 일주일이나 뭐허곡. 이 저 딴 부락 같은 데는 시흥리[198]나 저 모래판 잇는 데는 모래판에서 가르치는데 온평리 같은 데는 소 ᄀᆞ리치는 거는 이 길레 돌아다녓어. 한 사람은 이끄고 한 사람은 소 때리고 헤 가지고.(한 한 일주일이나 뭐하고. 이 저 딴 부락 같은 데는 시흥리나 저 모래판 있는 데는 모래판에서 가르치는데 온평리 같은 데는 소 가르치는 거는 이 길에 돌아다녔어. 한 사람은 이끌고 한 사람은 소 때리고 해 가지고.)

104004 @ 예.(예.)

104004 #2 요만은 돌멩이나 무슨 뭐 다이야 짝도 다이야 짝도 옛날 없언 다 그렇게 이런 돌을 만들어 가지고.(요만한 돌멩이나 무슨 뭐 타이어 짝도 타이어 짝도 옛날 없어서 다 그렇게 이런 돌을 만들어 가지고.)

104004 @ 예.(예.)

104004 #2 가다가 툭 걸리곡 툭 걸리고 헤 가지고 여기 멍에ᄐᆞᆨ이라고 모가지에.(가다가 툭 걸리고 툭 걸리고 해 가지고 여기 '멍에ᄐᆞᆨ'이라고 모가지에.)

104004 @ 음.(음.)

104004 #2 이 질들이는 거지.(이 길들이는 거지.)

104004 @ 예.(예.)

104004 #2 그걸 한 일주일 이상 헤여 가면은 ᄌᆞ연히 이거 헐 걸로 소가 알아보는 모양이라이.(그걸 한 일주일 이상 해 가면 자연히 이거 할 걸로 소가 알아보는 모양이

197) '멍에ᄐᆞᆨ'은 소를 기들이거나 밭을 갈 때 '소의 어깨에 얹었을 때 생기는 흔적'이라는 의미다.
198) '시흥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를 말한다.

야.)

104004 @ 멍에를 영 헤영 허는 거라예?(멍에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요?)

104004 #2 멍에에 그걸 만들어서.(멍에에 그걸 만들어서.)

104004 @ 예, 예.(예, 예.)

104004 #2 밑에 쭉 허게 끗은 다음에 그 다음부떠는 어느 정도 뭴 것 같으면은 에 밧, 쫌 좋은 밧테 가 가지고 이제 잠대 메우고 슬슬 왓다갓다도 허고 또 밧 기프게도 허곡 허면서 훈련을 많이 시겨야 그거.(밑에 쭉 하게 끈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에 밧, 쫌 좋은 밭에 가 가지고 이제 쟁기 메우고 슬슬 왔다갔다도 하고 또 밭 깊게도 하고 하면서 훈련을 많이 시켜야 그거.)

104004 @ 예.(예.)

104004 #2 뒈는 거.(되는 거.)

104004 @ 음.(음.)

104004 #2 뒈는 건데 자연히 뒈고. 나중엔 녹대 이끄다가 또 그거를 녹대를 감아. 쫌 훈련이 뒈어 가면 녹대를 감아 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이끈 것처럼 갓다 왓다는 소 헤야 뒈.(되는 건데 자연히 되고. 나중엔 고삐 이끌다가 또 그거를 고삐를 감아. 쫌 훈련이 되어 가면 고삐를 감아 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이끈 것처럼 갔다 왔다는 소 해야 돼.)

104004 @ 예.(예.)

104004 #2 한 사람 뒤에서 밧을 갈고.(한 사람 뒤에서 밭을 갈고.)

104004 @ 음.(음.)

104004 #2 겡 양쪽에서 조정허멍 이렇게 허고 사람이 가니까 이거 나 끌고 가고 잇구나 헌 거를 소는 인정을 허지.(그래서 양쪽에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하고 사람이 가니까 이거 나 끌고 가고 있구나 한 거를 소는 인정을 하지.)

104004 @ 예, 예. 게난 녹대는 머리에 이렇게 헤 놓고.(예, 예. 그러니까 고삐는 머리에 이렇게 해 놓고.)

104004 #2 가 놓고 사람은 거기 가서 삿다가 이렇게 뒤에 밧 가는 사름이 이제 이랴 허면은 돌아올 때는 같이 돌아오고 이렇게 허면서 저거 한 잘 그 훈련뭰 소는 흔 달만 허면은 자연히 밧을 좀 갈고. 꿰 잇는 소는 아무리 헤도 매만 많이 맞지. (웃음)(가 놓고 사람은 거기 가서 섰다가 이렇게 뒤에 밭 가는 사람이 이제 이랴 하면은 돌아올 때는 같이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거 한 잘 그 훈련된 소는 한 달만 하면은 자연히 밭을 좀 갈고. 꾀 있는 소는 아무리 해도 매만 많이 맞지.(웃음))

104004 @ 아, 아, 맞아예.(아, 아, 맞아요.)

104004 #2 일 안 헌 건 매, 말 안 듣는 거 매를 많이 맞지. 일로 때리고 일로 때리면은.(일 안 하는 건 매, 말 안 듣는 거 매를 많이 맞지. 일로 때리고 일로 때리면.)

104004 @ 음.(음.)

104004 #2 거 사람 앞에 잇으니까 이건 이 자기가 끌려가는 것이다만 셍각허는 것이 소는 완전히 첨.(거 사람 앞에 있으니까 이건 이 자기가 끌려가는 것이다만 생각하는

것이 소는 완전히 첨.)

104004 @ 게믄 그 ᄀᆞ리치는 거예? ᄀᆞ르치지 아년 쉐는 또 뭐렌 불릅니까? 뭐 새쉐 뭐 이런 말 헙니까?(그러면 그 가르치는 거요? 가르치지 않은 소는 또 뭐라고 부릅니까? 뭐 '새쉐' 뭐 이런 말 합니까?)

104004 #2 아니, 그런 말은 아녀.(아니, 그런 말은 않아.)

104004 @ 아, 그런 것은 안하고예?(아, 그런 것은 않고요?)

104004 #2 그런 것덜은 아녀고 그자.(그런 것들은 않고 그저.)

104005 @ 아까 삼춘, 소 나이 센게마는 몇 살 한번 세여 봅서.(아까 삼촌, 소 나이 세더니만 몇 살 한번 세어 보십시오.)

104005 #2 금승 다간 사릅 나릅.(웃음)(하릅 다간 사릅 나릅.)(웃음)

104005 @ 그다음?(그다음?)

104005 #2 경 헤나민 다섯 술 여섯 술 헤 갈 거주게.(그렇게 해나면 다섯 살 여섯 살 해 갈 거지.)

104005 @ 아아.(아아.)

104005 #2 금승허곡 다간허곡 게믄 두 술 아니?(하릅하고 다간하고 그러면 두 살 아니?)

104005 @ 예.(예.)

104005 #2 사릅 나릅허민 네 설. 다섯 설부떠는 그대로 완전히 그자 여섯 일곱 멧 살 먹엇저.(사릅 나릅하면 네 살. 다섯 살부터는 그대로 완전히 그저 여섯 일곱 몇 살 먹었다.)

104005 @ 다습은 안헤마씨?(다습은 안 해요?)

104005 #2 다슷이난 사릅 나릅 다습 헤도 뒈고 다섯 헤도 뒈고.(다섯이니까 사릅 나릅 다습 해도 되고 다섯 해도 되고.)

104005 @ 예, 예.(예, 예.)

104005 #2 다습ᄁᆞ지 허민 뒈컨게.(다습까지 하면 되겠는데.)

104006 @ 다습까지예? 그 삼춘 밧 하영 갈앗으니까 쟁기 한 번예.(다습까지요? 그 삼촌 밭 많이 갈았으니까 쟁기 한 번요.)

104006 #2 어.(어.)

104006 @ 이렇게 되잖아예.(이렇게 되잖아요.)

104006 #2 음.(음.)

104006 @ 여기 이렇게 잇고 이게 영 뒈야 뒐 거구나.(여기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거구나.)

104006 #2 어어.(어어.)

104006 @ 잘못 긋은 거 닮다.(잘못 그은 거 같다.)

104006 #2 경 뒌 거.(그렇게 된 거.)

104006 @ 이렇게 뒙니까? 이렇게 뒈는 건가? 그려 봅서.(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려 보십시오.)

104006 #2 나도 그려지커라? 아, 여기 요것이 엇어. 요것이 이쪽 영 양손머리. 손 영 두 개 허는 거.(나도 그려지겠어? 아, 여기 요것이 없어. 요것이 이쪽 이렇게 양지머리. 손 이렇게 두 개 하는 거.)

104006 @ 예.(예.)

104006 #2 이거 요렇게 잇고. 요렇게 꾸부러진 거 잇지 아녀. 요거 꾸부러진 거.(이거 요렇게 있고. 요렇게 꾸부러진 거 있지 않아. 요거 꾸부러진 거.)

104006 @ 예.(예.)

104006 #2 여기는 이제 요거 요것을 요건 쒜가 요렇게 보섯인데.(여기는 이제 요거 요것을 요건 쇠가 요렇게 보습인데.)

104006 @ 예.(예.)

104006 #2 여기 판데기가 잇고.(여기 판때기가 있고.)

104006 @ 예.(예.)

104006 #2 경 허민 여기는 또 이렇게 그 저 줄 메는 디가 잇어. 요 끝에는.(그렇게 하면 여기는 또 이렇게 그 저 줄 매는 데가 있어. 요 끝에는.)

104006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6 #2 게난 요거는 뭐냐 허면은 영 양손 허니까.(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양손 허니까.)

104006 @ 예.(예.)

104006 #2 양손을 잡으니까.(양손을 잡으니까.)

104006 @ 예.(예.)

104006 #2 요거는 양손머리.(요거는 양지머리.)

104006 @ 양주머리?(양지머리?)

104006 #2 양손머리엔 허고 양주머리옌도 허고 양주머리.('양손머리'라고도 하고 '양주머리'라고도 하고 '양주머리'.)

104006 @ 예.(예.)

104006 #2 그다음은 요거 요렇게 꼬부러진 거는 몽클. 몽클. 몽클.(그다음은 요거 요렇게 꼬부라진 거는 쟁깃술. 쟁깃술. 쟁깃술.)

104006 @ 잠깐예, 여기는 양주머리. 여기는 몽클.(잠깐요, 여기는 양지머리. 여기는 쟁깃술.)

104006 #2 몽클. 이 대는 성에.(쟁깃술. 이 대는 성에.)

104006 @ 이거는 성에.(이거는 성에.)

104006 #2 긴 거는 성에.(긴 거는 성에.)

104006 @ 여기도 이렇게 해서 영 받후는 것도 잇지예?(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히는 것도 있지요?)

104006 #2 이거는 저 무신 틀엔 허는데 이거 요건?(이거는 저 무신 틀이라고 하는데 이거 요건?)

104006 @ 영 가운데 헤 갖고예?(이렇게 가운데 해 갖고요?)

104006 #2 으.(으.)

104006 @ 영 그 잇어예?(이렇게 그 있지요?)

104006 #2 이거, 이거, 이것이 벳틀[199], 벳틀, 벳틀인가 뭐일 거라.(이거, 이거, 이것이 '벳틀', '벳틀', '벳틀'인가 뭐일 거야.)

104006 @ 어 벳틀.(어 '벳틀'.)

104006 #2 게난 여기는 벳이 이렇게 헌 게 잇지 아녀. 이거 벳틀일 거고. 요, 요디 쒜로 나온 건 보섯이고.(그러니까 여기는 볏이 이렇게 한 게 있지 않아. 이거 '벳틀'일 거고. 요, 요기 쇠로 나온 건 보습이고.)

104006 @ 예. 보섭, 여기는 벳.(예. 보습, 여기는 볏.)

104006 #2 요 이렇게 흑 영 올려주는 게 벳.(요 이렇게 흙 이렇게 올려주는 게 볏.)

104006 @ 벳예? 그다음에 벳 허면 벳에도 끈 영 무끄는 것이 잇지예? 고망 잇엉.(볏요? 그다음에 볏 하면 볏에도 끈 이렇게 묶는 것이 있지요? 구멍 있어서.)

104006 #2 게메, 그거는 뭐옌 아녕. 저 그런 거ᄁᆞ진 우리 이야기를 못 들어봣는데.(글쎄, 그거는 뭐라고 안 해서. 저 그런 거까진 우리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104006 @ 예.(예.)

104006 #2 그자 벳허고.(그저 볏하고.)

104006 @ 보섭허고.(보습하고.)

104006 #2 보섯허고.(보습하고.)

104006 @ 예.(예.)

104006 #2 양손머리허곡. 이거 무시거.(양지머리하고. 이거 무엇.)

104006 @ 성에.(성에.)

104006 #2 성에 요치록만 헤 가지고.(성에 요처럼만 해 가지고.)

104006 @ 그다음에 몽클.(그다음에 쟁깃술.)

104006 #2 몽클. 이렇게만 헤서 우리가.(쟁깃술. 이렇게만 해서 우리가.)

104007 @ 그다음에 질메?(그다음에 길마?)

104007 #2 질메는 소질메.(길마는 소길마.)

104007 @ 예, 소질메도 잇고 ᄆᆞᆯ질메도 ᄐᆞ납니까?(예, 소길마도 있고 말길마도 다릅니까?)

104007 #2 ᄆᆞᆯ질메 아니. 이 짐 시끄는 질메는 똑ᄀᆞ타. ᄆᆞᆯ질메나 소질메나 꼭ᄀᆞ트고.(말길마 아니. 이 짐 싣는 길마는 똑같아. 말길마나 소길마나 똑같고.)

104007 @ 예.(예.)

104007 #2 마차 헐 때는 다 그거는 저 마차 헐 때는 ᄆᆞᆯ마차 헐 때는 이 접궤라고 헤서 잇고.(마차 할 때는 다 그거는 저 마차 할 때는 마차 할 때는 이 목접개라고 해서 있고.)

104007 @ 예.(예.)

104007 #2 이 소 밧 갈 때도 여기 이 저 멍에에서 온 거를 접궤라고 헤.(이 소 밭

199) '벳틀'은 쟁기에 볏을 끼울 수 있도록 받히는 도구다.

갈 때도 여기 이 저 멍에에서 온 거를 목접개라고 해.)

104007 @ 접궤?(목접개?)

104007 #2 접궤이. 말도 마찬가지 접궤고.(목접개. 말도 마찬가지 목접개고.)

104007 @ 접게?(목접개?)

104007 #2 모가지 안네 헌 거는 접궤고. 우에 이렇게 헌 거는 몽클이고.(모가지 안에 한 거는 목접개고. 위에 이렇게 한 거는 쟁깃술이고.)

104007 @ 음.(음.)

104007 #2 저 멍에, 멍에. 쉐멍에.(저 멍에, 멍에. '소멍에'.)

104007 @ 쉐멍에고예? 삼춘, 이렇게 질메 허면 이것도 뭐 부분 명칭들이 잇이카마씨?('소멍에'고요? 삼촌, 이렇게 길마 하면 이것도 뭐 부분 명칭들이 있을까요?)

104007 #2 그 명칭. 질메는 그런 우린 부분 명칭은 안 들어봣는데.(그 명칭. 길마는 그런 우린 부분 명칭은 안 들어봤는데.)

104007 @ 뭐 질멧가지여 뭐여 이런 거?(뭐 길맛가지다 뭐다 이런 거?)

104007 #2 가지?(가지?)

104007 @ 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

104007 #2 질멧가지엔 헌 건 이거를 말허는 거주게.(길맛가지라고 한 건 이거를 말하는 거지.)

104007 @ 예, 예.(예, 예.)

104007 #2 전체를.(전체를.)

104007 @ 질멧가지 예, 예.(길맛가지 예, 예.)

104007 #2 게난 질메엔 헤 가지고 이거에 이것까지.(그러니까 길마라고 해 가지고 이거에 이것까지.)

104007 @ 안 들어보고.(안 들어보고.)

104007 #2 우리 안 들어봣어. 우리 헐 때는 쉐질메 가져오라 말질메, 말 뭐 가져오라. 말안장 가져오라 요런 거벳긔는.(우리 안 들어봤어. 우리 할 때는 소길마 가져와라 말길마, 말 뭐 가져오라. 말안장 가져오라 요런 거밖에는.)

104007 @ 예.(예.)

104007 #2 뭐 구격이 그 뭐.(뭐 구격이 그 뭐.)

104007 @ 음.(음.)

104007 #2 이 잠대는 요치록 헤영 몽클 성에 요거 가민 이거 몽클 사오라. 몽클 사레 어디 감쩌. 이거 산에나 강 끊어 와야 뒈는 거고.(이 쟁기는 요처럼 해서 쟁깃술 성에 요거 가면 이거 쟁깃술 사와라. 쟁깃술 사러 어디 가고 있다. 이거 산에나 가서 끊어 와야 되는 거고.)

104007 @ 예. 예.(예, 예.)

104007 #2 근간에 가까울 때 오니까 그 산촌에 사는 사름들 뭐 요거허곡 저 성에허고는 풀렐 와.(근간에 가까울 때 오니까 그 산촌에 사는 사람들 뭐 요거하고 저 성에하고는 팔러 와)

104007 @ 아아.(아아.)

104007 #2 산간에 사는 그 산에 사는 사름들이.(산간에 사는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104007 @ 예.(예.)

104007 #2 전문으로 허는 사람들 이거 아무 거나 헤서 뒈는 것도 아니고.(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이거 아무 거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04007 @ 예, 예.(예, 예.)

104007 #2 그 나무가 잇으니까 그 나문 오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 막 사고. 요것도 허는 서끄는[200] 기술자도 혼 부락에 혼 사름 두 사름벳기 없어. 우리도 게난 저 난산이나 어디 가 가지고 요런 걸 사 가지고 실고 가서 만들어 오고 이렇게 헷고.(그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문 오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 막 사고. 요것도 하는 '서끄는' 기술자도 한 부락에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우리도 그러니까 저 난산리나 어디 가 가지고 요런 걸 사 가지고 싣고 가서 만들어 오고 이렇게 했고.)

104007 @ 그 잠대 서끈덴 허잖아예?(그 쟁기 '서끈덴' 하잖아요?)

104007 #2 으, 잠대 서끄는 거.(으, 쟁기 '서끄는' 거.)

104007 @ 아.(아.)

104007 #2 게난 그 사름덜이 뭐 한디 갓으면 요런 걸 알지만은 그런 거 잠대 서끄레 가민 요거 서꺼 줍서. 허영 돈만 줘둥 와 부니까 몰를 거지.(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 갔으면 요런 걸 알지만은 그런 거 쟁기 '서끄레' 가면 요거 '서꺼' 주십시오. 해서 돈만 줘두고 와 버리니까 모를 거지.)

104007 @ 예, 예. 잠대 서끄레 허면은 낭도 무슨 낭으로 허는지 안 들어봅디가? 주로 어떤 낭을 썻덴 헙디가?(예, 예. 쟁기 '서끄레' 하면 나무도 무슨 나무로 하는지 안 들어봅디까? 주로 어떤 나무를 썼다고 합디까?)

104007 #2 저것이 알아지커라. 잊어부난. 저 나무 이디 누게 와신가.(저것이 알겠어. 잊어버리니까. 저 나무 여기 누구 왔는가.)

104007 @ 예. 내 붑서. 나중에 물어봥 놔둡서. 어떤 낭으로 잠대 서꺼시니예. (잡음)(예. 내 버리십시오. 나중에 물어봐서 놔두세요. 어떤 나무로 쟁기 '서꺼시니'요.) (잡음)

104007 #2 (잡음) 히노기[201]. 히노기나무. 히노기나무엔 헌 거를 어떤 나문지 몰라. 히노기나무를 한라산에 가면은 허곡 몽클은 저 무신 몽클이엔 허더라마는. 그 나중에.(잡음)('히노기'. '히노기나무'. '히노기나무'라고 한 거를 어떤 나문지 몰라. '히노기나무'를 한라산에 가면 하고 쟁깃술은 저 무슨 쟁깃술이라고 하더라마는. 그 나중에.)

104008 @ 나중에 혼번 튼내 봅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멍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멍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104008 #2 멍에는 머귀나무 멍에.(멍에는 머귀나무 멍에.)

---

200) '서끄는'은 '잠대 서끄는'처럼 쓰여서 '쟁기의 부분 부분을 맞춰 하나로 만드는'의 의미다.

201) '히노기(ひのき)'는 편백나무 또는 노송나무의 일본어다.

104008 @ 머귀나무예? 아.(머귀나무요? 아.)

104008 #2 머귀나무허고 여기는 보통 속 구리고 헌 거 이렇게.(머귀나무하고 여기는 보통 속 궁글고 한 거 이렇게.)

104008 @ 예.(예.)

104008 #2 헤당 여기 온평리서는 머귀남벳긔 무신 뭐 구상나무 멍에엔 허주마는 여기는 그런 멍에를 봐보질 안헷으니까.(해다가 여기 온평리에서는 머귀나무밖에 무슨 뭐 구상나무 멍에라고 하지만 여기는 그런 멍에를 봐보질 않았으니까.)

104008 @ 예, 예. 여기는 거의 이제 머귀나무예?(예, 예. 여기는 거의 이제 머귀나무요?)

104008 #2 머귀나무. 머귀나무 그 이렇게 뭰 속 구린 그 나무를 생긴 모양으로 헤다가 끊어다 놧당은에 머귀남. 게볍고.(머귀나무. 머귀나무 그 이렇게 된 속 궁근 그 나무를 생긴 모양으로 해다가 끊어다 놨다가 머귀나무. 가볍고.)

104008 @ 아까 무슨 모냥으로마씨?(아까 무슨 모양으로요?)

104008 #2 으?(으?)

104008 @ 무신 모냥으로 생긴, 생긴 모양으로?(무슨 모양으로 생긴, 생긴 모양으로?)

104008 #2 아, 멍에가 이렇게.(아, 멍에가 이렇게.)

104008 @ 아, 멍에 모양 생긴 것대로.(아, 멍에 모양 생긴 것대로.)

104008 #2 생긴, 생긴 그 나무를 가서 짤르곡 그 형태로 헤서.(생긴, 생긴 그 나무를 가서 자르고 그 형태로 해서.)

104008 @ 예.(예.)

104008 #2 만들어야 까까내니까.(만들어야 깎아내니까.)

104008 @ 게믄 멍에 이렇게 하면 중간에 나무도 잇지 아녀우과? 영 메젠 허면, 이 줄들은 왜 잠대 메우젠 **.(그러면 멍에 이렇게 하면 중간에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려고 하면, 이 줄들은 왜 쟁기 메우려고 **.)

104008 #2 게메, 그게 어, 무신 줄이옌 허나? (웃음)(글쎄, 그게 어, 무슨 줄이라고 하나?) (웃음)

104008 @ 음, 나중에 놀당은에 한번 멍에영 영 저기 모양이영예 부분 명칭 흔번 알아봅서.(음, 나중에 놀다가 한번 멍에랑 이렇게 저기 모양이랑요 부분 명칭 한번 알아보십시오.)

104008 #2 옆으로 허는 게 저 뭐헌 사름은 ᄃᆞ렛줄 헤당 허고 여기서는 보통 신사라나 무시거 헤 가지고 다 만들언 썻주게.(옆으로 하는 게 저 뭐한 사람은 다래나무 해다가 하고 여기서는 보통 뉴질랜드삼이나 무엇 해 가지고 다 만들어서 썼지.)

104008 @ 옆에 그 줄예?(옆에 그 줄요?)

104008 #2 부림패[202]줄인가 무신 줄일 거라.(고삐인가 무슨 줄일 거야.)

---

202) '부림패'는 '소를 부리는 바'라는 뜻으로, 밭을 갈 때 소의 방향을 돌리는 데 쓰이는 고삐를 말한다. 쟁기의 손잡이인 양지머리에서 소의 뿔까지 연결된 두 가닥의 기다란 줄이다.

104008 @ 부림패?(고삐?)

104008 #2 부림패줄인가 무신 부림펜가?('부림패줄'인가 무슨 줄일 거야.)

104008 @ 예.(예.)

104008 #2 그 줄일 건데.(그 줄일 텐데.)

104009 @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동네도 목장이 잇수가?(예, 예. 그다음에 여기 동네도 목장이 있습니까?)

104009 #2 이딘 목장은 엇어. 뭐 엇이면은 기자 도롯가 허고. 저 우에 가민 그대로 놔둔 임야지덜이 돌동산덜이 막 있으니까.(여긴 목장은 없어. 뭐 없으면 그저 도로가 하고. 저 위에 가면 그대로 놔둔 임야지들이 돌동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104009 @ 음.(음.)

104009 #2 그런 딜 가 가지고.(그런 델 가 가지고.)

104009 @ 그런 디 강은에 멕이고예?(그런 데 가서 먹이고요?)

104009 #2 그렇게 하다가 그 접이 없어지니까.(그렇게 하다가 그 계가 없어지니까.)

104009 @ 으.(으.)

104009 #2 그렇게 소들이 잇는 사름덜은 저 여름 나면은.(그렇게 소들이 있는 사람들은 저 여름 되면.)

(잡음)

104009 #2 여름 나면은, 여름 나면은 그 저 산에 올리는 거라.(여름 되면, 여름 되면 그 저 산에 올리는 거야.)

104009 @ 예.(예.)

104009 #2 농사 다 지어 불면. 다 지어 가지고 그 목장[203]안테 메껴서 요거를 멧 개월 봐 달라 헤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줘.(농사 다 지어 버리면. 다 지어 가지고 그 목장한테 맡겨서 요거를 몇 개월 봐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줘.)

104009 @ 음.(음.)

104009 #2 돈을 주면은 그 사름덜이 이제 보곡. 이 여기 그때는 소덜이 부구리[204] 진두기가 많이 일기 때문에.(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이 여기 그때는 소들이 '부구리' 진드기가 많이 일기 때문에.)

104009 @ 예, 예.(예, 예.)

104009 #2 한 달에 한번 우리가 가 가지고 소를 메꼇지만은 우리 재산이기, 부구리약[205]을 우리 가자 헤 가지고 헤서 가서 헤주고. 그렇게 해서 상강일 뒈면은 저기서 이제 수고헷다고 헤 가지로 우리 또 상강일 뒈면은 내려와야 뒈고.(한 달에 한번 우리가 가 가지고 소를 맡겼지만 우리 재산이기, '부구리약'을 우리 가자 해 가지고 해서 가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상강일 되면 저기서 이제 수고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 또 상강일 되면 내려와야 되고.)

104009 @ 예.(예.)

---

203) 여기에서 '목장'은 목장 주인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204) '부구리'는 소나 말에 붙어사는, 진드기가 자라서 생긴 혹 모양의 해충을 말한다.

205) '부구리약'은 '부구리'를 죽일 수 있는 약, 또는 약을 치는 일을 말한다.

104009 #2 그 산은 추우니까.(그 산은 추우니까.)

104009 @ 음. 게믄 그 목장은 어디 누구네 거?(음. 그러면 그 목장은 어디 누구네 거?)

104009 #2 보통 저 수산 우에 난산 우에 저쪽 가면은.(보통 저 수산 위에 난산 위에 저쪽 가면.)

104009 @ 예.(예.)

104009 #2 지금 저 그게 지경으로는 보통 성읍리[206] 우에 목장덜이 많이 잇으니까.(지금 저 그게 지경으로는 보통 성읍리 위에 목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104009 @ 음 그 동네 사름안티 이제?(음 그 동네 사람한테 이제?)

104009 #2 그 사름안테 일임을 해.(그 사람한테 일임을 해.)

104009 @ 아.(아.)

104009 #2 수산[207] 사름이나 성읍리 사름이나 난산리[208] 사름[싸름]이나 그 산을 가진 사름덜이 잇으니까.(수산 사람이나 성읍리 사람이나 난산리 사람이나 그 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104009 @ 예, 예.(예, 예.)

104009 #2 그 어느 산은 지네 목장이다 이런 식으로 허는 때문에.(그 어느 산은 저희네 목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때문에.)

104009 @ 게믄 그때 어느 정도 삭을 어느 정도 줘마씨?(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삯을 어느 정도 줘요?)

104009 #2 혼 그때 우리 허면은 한 십만 원.(한 그때 우리 하면 한 십만 원.)

104009 @ 음.(음.)

104009 #2 육 개월, 아 오 개월 이상 보니까게. 십만 원 뭐 구만 원 요런 정도로 헤근에 허고 우리 백중 때는 그날 또 같이 여기서 헐 때는 헷는데 거기를 가야 뒈. 십사일 날 저녁 뒈면은.(육 개월, 아 오 개월 이상 보니까. 십만 원 뭐 구만 원 요런 정도로 해서 하고 우리 백중 때는 그날 또 같이 여기서 할 때는 했는데 거기를 가야 돼. 십사일 날 저녁 되면.)

104009 @ 음.(음.)

104009 #2 성읍리까지 가 가지고 벡중제[209] 지내고 이렇게 헤 가지고 와.(성읍리까지 가 가지고 백중제 지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와.)

104009 @ 예. 그다음에 그 삼춘 이제 그 쉐 멕이레 가잖아예?(예. 그다음에 그 삼촌 이제 그 소 먹이러 가잖아요?)

104009 #2 으.(으.)

104009 @ 그럼 그 쉐를 무슨 쉐 헙니까? 뭐 번쉐[210]니 뭐 이런 말도 헙니까? 여기

206) '성읍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말한다.
207) '수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를 가리킨다.
208) '난산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를 가리킨다.
209) '벡중제'는 백중인 7월 14일 마소가 자라는 목장에 가서 마소의 건강과 번성 등을 기원하면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210) '번쉐'는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돌보는 소를 말한다.

서.(그럼 그 소를 무슨 소 합니까? 뭐 '번쉐'니 뭐 이런 말도 합니까? 여기서.)

104009 #2 아니, 그런 말은 아녀.(아니, 그런 말은 않아.)

104009 @ 아.(아.)

104009 #2 쉐 멕이레 가는 딘 이녁 쉐 멕이레 감주. 무신 쉐 무신 쉐 안 허여.(소 먹이러 가는 덴 이녁 소 먹이러 가고 있지. 무슨 소 무슨 소 안 해.)

104009 @ 아, 그건 안 허고예? 그날 당번 잇지 안 헐 거우과?(아, 그건 안 하고요? 그날 당번 있지 안 할 겁니까?)

104009 #2 아니, 저 ᄆᆞ쉬 ᄀᆞ꾸레.(아니, 저 마소 가꾸러.)

104009 @ 쉬 ᄀᆞ꾸레 갈 때는?(소 가꾸러 갈 때는?)

104009 #2 ᄆᆞ쉬 ᄀᆞ꾸레 갈 때는 그때는 무슨 뭐 소만 멧 개 그자 확인헤서 몰고 가서 그날 소만 잘 멕영 오민 뒈난에.(마소 가꾸러 갈 때는 그때는 무슨 뭐 소만 몇 개 그저 확인해서 몰고 가서 그날 소만 잘 먹여서 오면 되니까.)

104009 @ 아, 그런 거를 뭐?(아, 그런 거를 뭐?)

104009 #2 놈의 밧듸 곡식 같은 거 멕이지 안 허고. 그 곡식은 멕엿당은.(남의 밭에 곡식 같은 거 먹이지 안 하고. 그 곡식은 먹였다가는.)

104009 @ 큰일 나?(큰일 나?)

104009 #2 큰일도 나곡. 막 싸움도 벌어지곡 변상도 헤야 뒈곡.(큰일도 나고. 막 싸움도 벌어지고 변상도 해야 되고.)

104009 @ 음.(음.)

104009 #2 그 소덜이 ᄀᆞ꾸레 강 그 말 안 듣는 소가 잇어, 또.(그 소들이 가꾸러 가서 그 말 안 듣는 소가 있어, 또.)

104009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9 #2 꼭 곡식밧만 촞앙 다니곡.(꼭 곡식밭만 찾아서 다니고.)

104009 @ 음.(음.)

104009 #2 그 소는 항상 매나 맞곡 뭐 혜연.(그 소는 항상 매나 맞고 뭐 했어.)

104009 @ 예.(예.)

104009 #2 항상 베를 곯고[골고] 다녀, 그 소는.(항상 배를 곯고 다녀, 그 소는.)

104009 @ 예.(예.)

104009 #2 좋은 거만 먹을라고 촞아뎅기난.(좋은 거만 먹으려고 찾아다니니까.)

104010 @ 삼춘, 그치룩 쉐 ᄀᆞ꾸레 뎅기당은에 잊어불지 못허는 뭐 잇수가? 아이고, 하실, 그 추억들이 하실 거 닮아. 옛날 쉐 ᄀᆞ꾸레?(삼촌, 그처럼 소 가꾸러 다니다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뭐 있습니까? 아이고, 많았을, 그 추억들이 많았을 거 같아. 옛날 소 가꾸러?)

104010 #2 아니, 그디 가면은 하루 종일 허는데, 어떨 때는 저쪽에 소 놔두고 앚앗다가도 잠이 들어 버려. 소가 막 잊어 버려근에 혼잇이 가부는 소, 소 멧 개가 가 버릴 때가 잇어.(아니, 거기 가면 하루 종일 하는데, 어떨 때는 저쪽에 소 놔두고 앉았다가도 잠이 들어 버려. 소가 막 잃어 버려서 한없이 가 버리는 소, 소 몇 개가 가 버릴 때가

있어.)

104010 @ 예.(예.)

104010 #2 그럴 때는 흔 번 애먹을 때도 잇주게.(그럴 때는 한 번 애먹을 때도 있지.)

104010 @ 음.(음.)

104010 #2 그렇다고 소는 멀리 가지 아녕 소는 그 ᄆᆞ쉬접[211]은 그 ᄉᆞ리에 멧 메타 떨어졋당도 소 이제 집데레 돌아. 소덜은 똑같이 다 와, 소가.(그렇다고 소는 멀리 가지 않아서 소는 그 'ᄆᆞ쉬접'은 그 근처에 몇 미터 떨어졌다가도 소 이제 집으로 돌아. 소들은 똑같이 다 와, 소가.)

104010 @ 음.(음.)

104010 #2 멀리 갓당도.(멀리 갔다가도.)

104010 @ 예.(예.)

104010 #2 이녁만 떨어지지 아녕 아, 이거 집에 갈 시간 됏다 허면 높은 동산에 강 상 이레도 보고 저레도 보고 잇으면은 소 아무리 헤도 없다, 없다 고민 허는데 보면은 소가 그 저 이 어떨 때는 그 새끼를 낳아 가지고 새끼를 안 밴 교미를 찾는 소덜이 잇을 때는 그때는 소덜이 막 숫소[숟쏘]는 막 따라다니면서 어디.(이녁만 떨어지지 않아서 아, 이거 집에 갈 시간 됐다 하면 높은 동산에 가서 서서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있으면 소 아무리 해도 없다. 없다 고민 하는데 보면 소가 그 저 이 어떨 때는 그 새끼를 낳아 가지고 새끼를 안 밴 교미를 찾는 소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소들이 아주 수소는 막 따라다니면서 어디.)

104010 @ 음.(음.)

104010 #2 그 암소 찾아 가지고 흔없이 가 버려.(그 암소 찾아 가지고 한없이 가 버려.)

104010 @ 음.(음.)

104010 #2 그럴 때 애먹는 거주.(그럴 때 애먹는 거지.)

104010 @ 으음.(으음.)

104010 #2 경 안 허면은 소 한 곤데로 가는 길로 가고 오는 길로 오고 그렇게 허니까.(그렇게 안 하면 소 한 군데로 가는 길로 가고 오는 길로 오고 그렇게 하니까.)

104010 @ 그럴 때는 쉐 멕이레 갈 때는 혼자 가마씨?(그럴 때는 소 먹이러 갈 때는 혼자 가요?)

104010 #2 소가 만헐 많으면은 많이 헤 가지고 농사도 많이 짓고 이 멕일 때가 없을 때는 아이라도 데리고 가고.(소가 많을 많으면 많이 해 가지고 농사도 많이 짓고 이 먹일 때가 없을 때는 아이라도 데리고 가고.)

104010 @ 으.(으.)

104010 #2 그렇지 않으믄 대강은 혼자 많이 가주.(그렇지 않으면 대강은 혼자 많이 가지.)

---

211) 'ᄆᆞ쉬접'은 마소를 키울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도움을 주기 위해 꾸린 공동체이다.

104010 @ 으음.(으음.)

104010 #2 말덜을 잘, 훈련. 처음 목장 멕이레 갈 때 정도는[쩡도는] 처음 시작헐 때는.(말들을 잘, 훈련. 처음 목장 먹이러 갈 때 정도는 처음 시작할 때는.)

104010 @ 예.(예.)

104010 #2 둘이가 가야 뒈여.(둘이가 가야 되어.)

104010 @ 예, 예.(예, 예.)

104010 #2 게야 이제 한 열흘 이상 훈련 뒈면은 그 소덜이 훈련이 뒈 분 거라.(그래야 이제 한 열흘 이상 훈련 되면 그 소들이 훈련이 돼 버린 거야.)

104010 @ 음.(음.)

104010 #2 게면은 이제는 허[212] 허여 가지고 몰면은 이제 나갈 것이다. 모여졋당도 소리 내믄 아 이제 어디레 갈 것이다 헤 가지고 황[213] 허민 어디로 갈 것이다 허는 걸.(그러면 이제는 '허' 해 가지고 몰면 이제 나갈 것이다. 모여졌다가도 소리 내면 아 이제 어디로 갈 것이다 해 가지고 '황' 하면 어디로 갈 것이다 하는 걸.)

104010 @ 음.(음.)

104010 #2 거 아주 대강은 훈련이 뒈여 버려.(거 아주 대강은 훈련이 되어 버려.)

104010 @ 게믄 삼춘, 허 허면은 무슨 뜻이라마씨?(그러면 삼촌, '허' 하면 무슨 뜻이에요?)

104010 #2 아이, 소 모는 소리주게. 허.(아이, 소 모는 소리지. '허'.)

104010 @ 아아. 허.(아아. '허'.)

104010 #2 가렌을 허던가 허 황 허면은 좀 잇으라.(가라고를 하든가 '허', '황' 하면 좀 있어라.)

104010 @ 황은 잇어라. 예.('황'은 있어라. 예.)

104010 #2 허 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허' 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104010 @ 예, 게난 그때도 밧 갈 때도 막 그런 소리 허잖아예?(예, 그러니까 그때도 밭 갈 때도 아주 그런 소리 하잖아요?)

104010 #2 밧 갈 때는 막 여러 소리 허여. 어디레[214] 허곡.(밭 갈 때는 아주 여러 소리 해. '어디레' 하고.)

104010 @ 음.(음.)

104010 #2 이거 뗑기면서 뭐 이쪽으로 갈 거를 소가 이렇게 허민 어디레?(이거 당기면서 뭐 이쪽으로 갈 거를 소가 이렇게 하면 '어디레'?)

104010 @ 오른쪽으로 이렇게 뗑길 때는 어드레?(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길 때는 '어드레'?)

104010 #2 겨곡 웬쪽이든 오른쪽으로 뗑길 때는 허 허여 가지고 허면은 소가 가는 거라.(그러고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당길 때는 '허' 해 가지고 하면 소가 가는 거야.)

104010 @ 예.(예.)

---

212) '허'는 소나 말을 몰 때 하는 소리다.
213) '황'은 소나 말을 몰 때 멈춰 서라는 뜻이다.
214) '어디레'는 밭을 갈 때 소가 가야할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는 소리다.

104010 #2 황, 황 허민 천천히 가.(‘황’, ‘황’ 하면 천천히 가.)

104010 @ 음.(음.)

104010 #2 황 헤 가지고 돌아갈 때는 황 헤 가지고 그 밧 가는 사름마다 다 틀리니까. 돌아오라 허는 식으로.(‘황’ 해 가지고 돌아갈 때는 ‘황’ 해 가지고 그 밭 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돌아오라 하는 식으로.)

104010 @ 황 하고.(‘황’ 하고.)

104010 #2 황 허 어디레 이치룩 헤 가지고. 셍각대로 다.(‘황’ ‘허’ ‘어디레’ 이처럼 해 가지고. 생각대로 다.)

104010 @ 삼춘은.(삼촌은.)

104010 #2 부에 나민 또 이놈의 새끼허멍 때리고.(부아 나면 또 이놈의 새끼 하면서 때리고.)

말 기르기

104011 @ 이놈으 새끼 맞수다. 삼춘, 물은 어떵 질롯수가?(이놈의 새끼 맞습니다. 삼촌, 말은 어떻게 길렀습니까?)

104011 #2 물은 나는 저 마차를 시작허니까 마차 헤 가지고.(말은 나는 저 마차를 시작하니까 마차 해 가지고.)

104011 @ 으음.(으음.)

104011 #2 소에 실르는 거는 딱 삼십 단이민 삼십 단이지만 마차에는 벡 단 이벡 단 삼벡 단 이렇게 실를 수가 잇으니까.(소에 싣는 거는 딱 삼십 단이면 삼십 단이지만 마차에는 백 단 이백 단 삼백 단 이렇게 실을 수가 있으니까.)

104011 @ 으음.(으음.)

104011 #2 마차는.(마차는.)

104011 @ 음.(음.)

104011 #2 소 열 개 실르는 걸 실러도 물은 한거히 그거를 끌으니까.(소 열 개 싣는 걸 실어도 말은 한가히 그거를 끄니까.)

104011 @ 예.(예.)

104011 #2 옛날은 포장도 아녕 산비탈 헌디 허니까 마차허고 말 헤 가지고 남 허는 거 나가 사 가지고 혼 멧 년 농사짓는 데 사용헷고. 사용하다가 이제는 것도 안 뒈겟다고 헤 가지고 쫌 기계화 뒈난 경운기를 사서 경운기로 밧도 갈고.(옛날은 포장도 않아서 산비탈 한데 하니까 마차하고 말 해 가지고 남 했던 거 내가 사 가지고 한 몇 년 농사짓는 데 사용했고. 사용하다가 이제는 것도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쫌 기계화 되니까 경운기를 사서 경운기로 밭도 갈고.)

104011 @ 음.(음.)

104011 #2 이제 그때 뒈어 가니까 농사, 밧도 하나도 없엇다가 한 칠팔천 평 확보가 뒈어가니까 노력허니까 뒈던데. 그걸로 허니까 보리 탈, 이제 경운기[-끼]를 허기 시작

허니까 또 이젠 탈곡기도 헤야 뒈고.(이제 그때 되어 가니까 농사, 밭도 하나도 없었다가 한 칠팔천 평 확보가 되어가니까 노력하니까 되던데. 그걸로 하니까 보리 탈, 이제 경운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이젠 탈곡기도 해야 되고.)

104011 @ 음.(음.)

104011 #2 츠츰 이 사람이 발전허여 가니까 좀 불어나고 재산도 불어나고.(차츰 이 사람이 발전해 가니까 좀 불어나고 재산도 불어나고.)

104011 @ 예.(예.)

104011 #2 남으 집 살다가 이녁 자기 집도 이제 빗을 헤도 살고. 그렇게 허면서 탈곡기를 이젠 경운기에 맞추와 가지고 시[215]에 가서 맞추와다가 것도 뭐 혼번에 뒈는 게 아니라 시에 저 무신 공업사, 거기 가서 맞추왕. 것도 걸로 이제 탈곡도 허고.(남의 집 살다가 이녁 자기 집도 이제 빚을 해도 살고. 그렇게 하면서 탈곡기를 이젠 경운기에 맞춰 가지고 제주시에 가서 맞춰다가 것도 뭐 한번에 되는 게 아니라 시에 저 무슨 공업사, 거기 가서 맞춰서. 것도 걸로 이제 탈곡도 하고.)

104011 @ 음.(음.)

104011 #2 보리철[216] 뒈민 보리 태작헤 가지고 뭐 열 가마 때리면 한 가마는 내가 수입을 받앗으니까.('보리철' 되면 보리 타작해 가지고 뭐 열 가마 때리면 한 가마는 내가 수입을 받았으니까.)

104011 @ 예, 예.(예, 예.)

104011 #2 내가 인부 두어 사름 데리고 그치룩 헤 가지고 탈곡 시기에는 탈곡허고 고구마 시기 뒈민 경운기에 고구마 실러서 전분공장에 가 가지고 고구마 시긴 뒈민 또 그때는 이 노동이 막 힘든 일이라.(내가 인부 두어 사람 데리고 그처럼 해 가지고 탈곡 시기에는 탈곡하고 고구마 시기 되면 경운기에 고구마 실어서 전분공장에 가 가지고 고구마 시기 되면 또 그때는 이 노동이 아주 힘든 일이야.)

104011 @ 예. 그렇주마씨.(예. 그렇지요.)

104011 #2 고구마 뭐 사십 키로 오십 키로 뭰 거 뭐 그 마대를 경운기에 다 둘이서 동아리 헤 가지고 올려놔 가지고 공장에 가서 다 푸고 저울질허고 이렇게 허면서 그렇게도 헤보고.(고구마 뭐 사십 킬로 오십 킬로 된 거 뭐 그 마대를 경운기에 다 둘이서 동아리 해 가지고 올려놔 가지고 공장에 가서 다 푸고 저울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도 해보고.)

104011 @ 맞습니다. 그 다시 돌아강예, 게난 물 질룰 때 쉐 질룬 거 허고 ᄀᆞ타마씨? 어떵헙니까?(맞습니다. 그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말 기를 때 소 기른 거 하고 같아요? 어떻습니까?)

104011 #2 물은 질루는 거 간단허여.(말은 기르는 거 간단해.)

104011 @ 음.(음.)

104011 #2 어디 강 버덕에 가근에 물 일 안 헐 때는 아침의 강 말뚝을 박아놔 가지

215) 여기에서 '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의 중심지인 제주시를 말한다.
216) '보리철'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를 말한다.

고 이 평지에 강 놓면은.(어디 가서 벌판에 가서 말 일 안 할 때는 아침의 가서 말뚝을 박아놔 가지고 이 평지에 가서 놓으면.)

104011 @ 예.(예.)

104011 #2 물은 많이 먹질 안허니까.(말은 많이 먹질 않으니까.)

104011 @ 아아.(아아.)

104011 #2 여기는 풀 잔디를 뜯엇다, 뜯엇다 허여도 배가 불어, 물은.(여기는 풀 잔디를 뜯었다, 뜯었다 해도 배가 불어, 말은.)

104011 @ 으음.(으음.)

104011 #2 경 허민 하루 혼번 물이나 멕이곡. 경 허곡 겨울에는 또 집에 매 가지고 촐 혼 단 한 단 저 가을에 팔월추석 이후에 해 놓은 거를 혼 단 주고 물이나 주면은 뒈는데.(그렇게 하면 하루 한번 물이나 먹이고.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또 집에 매 가지고 꼴 한 단 한 단 저 가을에 팔월추석 이후에 해 놓은 거를 한 단 주고 물이나 주면은 되는데.)

104011 @ 으음.(으음.)

104011 #2 많이 허는 사름덜은 아예 목장에 놔 촐 줄 셍각도 안허고 그자 놔 물 잇는 디 놔 내 버리면은.(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예 목장에 놔서 꼴 줄 생각도 않고 그저 놔서 물 있는 데 놔서 내 버리면.)

104011 @ 음.(음.)

104011 #2 허는디, 하나 그 거 물마차 잇는 건 꼭 길러야 뒈여.(하는데, 하나 그 거 마차 있는 건 꼭 길러야 되어.)

104011 @ 예.(예.)

104011 #2 맛잇는 것도 헤주고.(맛있는 것도 해주고.)

104011 @ 음. 게문 삼춘 아까 버덕이렌 헨게예?(음. 그러면 삼촌 아까 '버덕'이라고 하던데요?)

104011 #2 버덕은 이 널른 병뒤디이.('버덕'은 이 너른 평대.)

104011 @ 예, 예.(예, 예.)

104011 #2 그거 버덕이엔 허는 거주게.(그거 '버덕'이라고 하는 거지.)

104011 @ 아아, 여기는 병디를 버덕이렌 헤수가?(아아, 여기는 평대를 '버덕'이라고 했습니까?)

104011 #2 너른 버덕. 널른 버덕에.(너른 벌판. 너른 벌판에.)

104011 @ 예.(예.)

104011 #2 물 줄싸레[217] 간. 평지. 편편헌 버덕을, 저.(말 '줄싸레' 갔어. 평지. 편편한 벌판을, 저.)

104011 @ 예.(예.)

104011 #2 평지를 버덕이옌 헤.(평지를 '버덕'이라고 해.)

---

217) '줄싸레'는 벌판에서 말 따위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고삐에 줄을 연결하여 말뚝에 박아 놓은'의 의미다.

104011 @ 삼춘, 아까 ᄆᆞᆯ 줄 싸레 간다고마씨?(삼촌, 아까 말 '줄싸레' 간다고요?)

104011 #2 으 ᄆᆞᆯ을 강 줄레[218].(으 말을 가서 '줄레'.)

104011 @ 으.(으.)

104011 #2 서 발이나 다섯, 서 발 너 발 이 너 발 지러기면은 충분. 하루 ᄆᆞᆯ 먹당도 남아.(서 발이나 다섯, 서 발 너 발 이 너 발 길이면 충분. 하루 말 먹다가도 남아.)

104011 @ 예.(예.)

104011 #2 먹고 ᄆᆞᆯ은 계속 먹는덴 헤도 쉴 때도 잇고 허니까.(먹고 말은 계속 먹는다고 해도 쉴 때도 있고 하니까.)

104011 @ 음.(음.)

104011 #2 촐 잇는 디 강 허면은 오늘 여기 허면 ᄒᆞᆫ 일주일 후에는 여기 왕 또 메여도 거기 새 풀이 또 나니까 또 먹고.(꼴 있는 데 가서 하면 오늘 여기 하면 한 일주일 후에는 여기 와서 또 매도 거기 새 풀이 또 나니까 또 먹고.)

104011 @ 예.(예.)

104011 #2 저쪽에 강 허여도, 한 다섯 곤데만 허여 잇으면은 ᄆᆞᆯ ᄒᆞ난 한거히 봄 나민 자꾸 풀이 올라오니까. 새 풀을 좋아허지. ᄆᆞᆯ도 그 이만이 큰 풀은 안 먹어.(저쪽에 가서 해도, 한 다섯 군데만 해 있으면 말 하난 한가히 봄 되면 자꾸 풀이 올라오니까. 새 풀을 좋아하지. 말도 그 이만큼 큰 풀은 안 먹어.)

104011 @ 아아.(아아.)

104011 #2 ᄇᆞᆨᄇᆞᆨ 뜯는 맛이 잇는 모냥이라.(박박 뜯는 맛이 있는 모양이야.)

104011 @ 음, 게문 그 버덕에 강은에 그 ᄆᆞᆯ툭 헤영 박는 거를?(음, 그러면 그 벌판에 가서 그 말뚝 해서 박는 거를?)

104011 #2 ᄆᆞᆯ줄레[219]허곡 말툭하고.('ᄆᆞᆯ줄레'하고 말뚝하고.)

104011 @ 예.(예.)

104011 #2 말툭. 그 말툭엔 헌 건 요렇게 헤 가지고 이 나무로 옛날은 헷는데.(말뚝. 그 말뚝이라고 한 건 요렇게 해 가지고 이 나무로 옛날은 했는데.)

104011 @ 예.(예.)

104011 #2 이제는 그 우리가 헐 때는 요만이 헌 쒜를 가지고 만들어.(이제는 그 우리가 할 때는 요만큼 한 쇠를 가지고 만들어.)

104011 @ 예.(예.)

104011 #2 철공소에 강 만들어 가지고 기프게 박으면은 돌로, 돌 가지고 그 박으면은 그 근방은 아무리 헤도 빠지지 안허니까.(철공소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깊게 박으면 돌로, 돌 가지고 그 박으면 그 근방은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으니까.)

104011 @ 예, 예. 게 그거 헌 거를 ᄆᆞᆯ줄 싸레 감덴 허여예?(예, 예. 게 그거 한 거를 'ᄆᆞᆯ줄 싸레' 가고 있다고 한다고요?)

104011 #2 ᄆᆞᆯ줄 싸레[220] 강.('ᄆᆞᆯ줄 싸레' 가서.)

---

218) '줄레'는 소나 말을 벌판의 일정한 구역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려고 고삐에 연결하는 긴 끈이다. 이 '줄레'를 말뚝에 박아두면 소나 말은 이 '줄레'가 닿는 구역에서만 풀을 뜯어 먹게 된다.

219) 'ᄆᆞᆯ줄레'는 일정한 공간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려고 말의 고삐와 말뚝과 연결하는 긴 줄을 말한다.

104011 @ 예.(예.)

104011 #2 물줄 쌍. 물 보레 감쩌.(‘물줄 쌍’. 말 보러 가고 있다.)

104012 @ 예, 물 보레 감쩌예. 그 물도 종류가 잇인가마씨? 무슨 물, 무슨 물.(예, 말 보러 가고 있다고요. 그 말도 종류가 있는가요? 무슨 말, 무슨 말.)

104012 #2 무신 물. 가마물[221]이여 무신 물이여 다 종류 잇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데.(무슨 말. ‘가마물’이다 무슨 말이다 다 종류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데.)

104012 @ 가마물은 어떤 거우과?(‘가마물’은 어떤 겁니까?)

104012 #2 꺼무룽허연에 뭐허곡 허는 물일 거라게.(꺼무스레해서 뭐하고 하는 말일 거야.)

104012 @ 예. 그 색깔에 따랑도 다 ᄐᆞ난게예.(예. 그 색깔에 따라서도 다 다르던데요.)

104012 #2 예, 색깔 뭐 무신 물 무신 물 그렇게 허는디.(예, 색깔 뭐 무슨 말 무슨 말 그렇게 하는데.)

104012 @ 아, 여기 이마엔 나도 뭐렌 허고. 그런 거는 모르고예?(아, 여기 이마엔 나도 뭐라고 하고. 그런 거는 모르고요?)

104012 #2 그런 것도 몰르고.(그런 것도 모르고.)

104013 @ 예, 게난 물은 주로 어떵 이용헷수가?(예, 그러니까 말은 주로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104013 #2 아, 물은 그 저 마차. 짐 봄이나 가을이나 그 저 수확 때 허곡 촐 ᄀᆞ뜬 운반헐 때는 뭐든 짐 운반헐 때는 물 그 거름도 운반헤야 뒈고 옛날은 돗걸름이라고 헤서 보리찝 다 썩고. 그 저 물도 헐 일이 만허여.(아, 말은 그 저 마차. 짐 봄에나 가을에나 그 저 수확 때 하고 꼴 같은 운반할 때는 뭐든 짐 운반할 때는 말 그 거름도 운반해야 되고 옛날은 돼지거름이라고 해서 보릿대 다 썩고. 그 저 말도 할 일이 많아.)

104013 @ 음.(음.)

104013 #2 이 농사철 전에 준비헐 거. 거름 준비, 또 농사허민 거름 시꺼다가 밧듸 뿌릴 거. 거 다 마차 허면 막 편허엿주.(이 농사철 전에 준비할 거. 거름 준비, 또 농사하면 거름 실어다가 밭에 뿌릴 거. 거 다 마차 하면 아주 편했지.)

104013 @ 음.(음.)

104013 #2 그때는. 마차 허는 사름은 돈을 좀 벌엇어.(그때는. 마차 하는 사람은 돈을 좀 벌었어.)

104013 @ 아, 남의 것도 헤주고예?(아, 남의 것도 해주고요?)

104013 #2 남의 거 헤주면은 와서 일도 헤주고.(남의 거 해주면 와서 일도 해주고.)

104013 @ 음, 게믄 삼춘, 그 마차를 이 동네서는 옛날에 뭐렌 불러낫수가?(음, 그러면 삼촌, 그 마차를 이 동네서는 옛날에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104013 #2 이디서 마차, 말구루마[222] 허여, 구루마.(여기서 마차, ‘말구루마’ 해, ‘구

220) ‘물줄 싸레’는 ‘일정한 공간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려고 말의 고삐에 긴 줄을 연결하여 말뚝에 박는’의 의미다.

221) ‘가마물’은 제보자가 ‘가라물’을 잘못 발음한 것 같다. ‘가라물’은 색깔이 검은 말이다.

루마'.)

104013 @ 구루마? 바레기라는 말은 안 들어봅디가?('구루마'? '바레기'라는 말은 안 들어봅디까?)

104013 #2 아니, 아니. 구루마, 구루마엔도 허곡. 바레기[223]엔도 허는 사름 잇어낫어. 바레기.(아니, 아니. '구루마', '구루마'라고도 하고. '바레기'라고 하는 사람 있었었어. '바레기'.)

104013 @ 물바레기 뭐?('물바레기' 뭐?)

104013 #2 물바레기엔 허는 말도 아쓱 들어진 거 닮은게.('물바레기'라고 하는 말도 조금 들어진 거 같은데.)

104013 @ 아, 겐디 보통 삼춘은 마차?(아, 그런데 보통 삼촌은 마차?)

104013 #2 물마차.('물마차'.)

104013 @ 물마차 헌 거라예?('물마차' 한 거라고요?)

104013 #2 마차도 그 쒜마차[224]가 잇고 글후에 다이야[225]로 만든.(마차도 그 '쒜마차'가 있고 그 후에 타이어로 만든.)

104013 @ 음.(음.)

104013 #2 아주 자동차 그 뭐 폐차덜 뒈여 가니까 그 자동차 그 바쿠를 헤 가지고.(아주 자동차 그 뭐 폐차들 되어 가니까 그 자동차 그 바퀴를 해 가지고.)

104013 @ 예.(예.)

104013 #2 만들기 시작헤연 허난 그것을 이젠 다이야로 만든, 다이야 있으니까 다이야마차.(만들기 시작해서 하니까 그것을 이젠 타이어로 만든, 타이어 있으니까 타이어마차.)

104013 @ 음.(음.)

104013 #2 쒜마차 이렇게 헤 가지고. 쒜바쿠는 이렇게 큰데.('쒜마차' 이렇게 해 가지고. 쇠바퀴는 이렇게 큰데.)

104013 @ 예.(예.)

104013 #2 다이야는 조그마헤도 그거 수월허고 편헌 거니까 다이야마차 이렇게.(타이어는 조그마해도 그거 수월하고 편한 거니까 '다이야마차' 이렇게.)

104013 @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삼춘도 그 보리, 아까 서숙 갈 때. 조 갈 때 물로 헤 갖고 불려보기도 헨마씨?(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삼촌도 그 보리, 아까 서숙 갈 때. 조 갈 때 말로 해 갖고 밟아보기도 했어요?)

104013 #2 물로 불려보질 안허고 우리가 어린 때는 아버지허고 목마[226]라고. 말이 물은 걸로 불를라면은 쌀밥하고.(말로 밟아보질 않고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하고 '목마'라고. 말이 말은 걸로 밟으려면 쌀밥하고.)

---

222) '말구루마'는 말이 끄는 수레를 말한다. 즉, 마차다. '구루마(くるま)'는 수레의 일본어다.
223) '바레기'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수레'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224) '쒜마차'는 바퀴가 쇠로 되어 있는 마차를 말한다.
225) '다이야'는 타이어(tire)의 일본어식 발음이다. 여기에서는 고무 타이어를 가리키고 있다.
226) '목마'는 원통형의 나무토막에 자잘한 나무토막을 박아서 굴리면서 씨앗이 흙속에 묻힐 수 있게 만든 도구다. '목매'라고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 '남테, 낭테'라고 한다.

104013 @ 예.(예.)

104013 #2 그 말 주인안티 가서 메칠 전부터 가서.(그 말 주인한테 가서 며칠 전부터 가서.)

104013 @ 음.(음.)

104013 #2 수눌어 줘야, 우리 메칠날 저 밧 볼려지쿠가? 헤근에 허면은 누게네, 누게네 헤 가지고 못허켄 허민 홀 수 없는 거고.(품앗이해 줘야, 우리 며칠날 저 밭 밟아지겠습니까? 해서 하면 누구네, 누구네 해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104013 @ 예.(예.)

104013 #2 헤 주켄 허믄 같이 따라다녀야 뒈여. 또 그거를.(해 주겠다고 하면 하면 같이 따라다녀야 되어. 또 그거를.)

104013 @ 음.(음.)

104013 #2 말이 많으니까 같이 놈으 밧도 강 같이 볼려줘야 뒈.(말이 많으니까 같이 남의 밭도 가서 같이 밟아줘야 돼.)

104013 @ 으.(으.)

104013 #2 말은 혼 사름 두 사름만 볼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헤영 막아도 주고 이레도 돌리고 허는 때문에. 거 허민 그디 강 볼려주고 허면은 일당은 못 받고 거기서 밥 헤온 거나 같이 먹고 오는 게.(말은 한 사람 두 사람만 밟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해서 막아도 주고 이리도 돌리고 하는 때문에. 거 하면 거기 가서 밟아주고 하면 일당은 못 받고 거기서 밥 해온 거나 같이 먹고 오는 게.)

104013 @ 음.(음.)

104013 #2 그게 뭐고. 우리 아버지 때는 농사를 많지 안허니까.(그게 뭐고. 우리 아버지 때는 농사를 많지 않으니까.)

104013 @ 예.(예.)

104013 #2 목마를 만들어서.('목마'를 만들어서.)

104013 @ 목마?('목마'?)

104013 #2 으, 발 이렇게 헤서 서숙 그 조 갈곡 헐 때는 항상 밧을 두 번 갈고 세 번 갈고 헤 갖고 밧을 부드럽게 갈아 논 다음에.(으, 발 이렇게 해서 서숙 그 조 갈고 할 때는 항상 밭을 두 번 갈고 세 번 갈고 해 갖고 밭을 부드럽게 갈아 놓은 다음에.)

104013 @ 음.(음.)

104013 #2 씨 삐어 가지고. 씨를 좁씨를 삔 다음에 이제 그 저 목마를 가지고 밧을 밟아.(씨 뿌려 가지고. 씨를 조씨를 뿌린 다음에 이제 그 저 '목마'를 가지고 밭을 밟아.)

104013 @ 음.(음.)

104013 #2 거 끗어 가지고 왓다갓다, 왓다갓다헤영 말발자국처럼 이렇게 헤서 만들주. 목마는 발이 여라 개 아니?(거 끌어 가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해서 말발자국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지. '목마'는 발이 여러 개 아니?)

104013 @ 예.(예.)

104013 #2 한 삼사십 개가 넘을 건데.(한 삼사십 개가 넘을 건데.)

104013 @ 음.(음.)

104013 #2 그걸로 이렇게 궁글리면서 왓다갓다헤 가지고 가로 가고 세로 가고 이렇게 헤서 그 씨를 다 묻어질 정도로 발린 다음에 그걸로 우리는 농사를 많이 헷고.(그걸로 이렇게 굴리면서 왔다갔다해 가지고 가로 가고 세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씨를 다 묻어질 정도로 밟은 다음에 그걸로 우리는 농사를 많이 했고.)

104013 @ 음.(음.)

104013 #2 그 밧 불리는 거 말 빌어 가지고 헌 거는 한 두어 번 정도벳긔 우리는 헤보질 못헷어.(그 밭 밟는 거 말 빌려 가지고 한 거는 한 두어 번 정도밖에 우리는 해보질 못했어.)

104013 @ 아, 그러면 삼춘, 목마는 무사 목마라마씨?(아, 그러면 삼촌, '목마'는 왜 '목마'예요?)

104013 #2 나무로 만들엇기 때문에 목매, 목매.(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매', '목매'.)

104013 @ 목매?('목매'?)

104013 #2 목마.('목마'.)

104013 @ 목마. 게난 나무로 말치록 멘들엇덴 허는 소리구나예?('목마'. 그러니까 나무로 말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군요?)

104013 #2 으, 물발자국치록 만들언에.(으, 말발자국처럼 만들어서.)

104013 @ 예.(예.)

104013 #2 목매. 그거 허난 그거를 끗어도 가고.('목매'. 그거 하니까 그거를 끌어도 가고.)

104013 @ 예.(예.)

104013 #2 그것도 밧 가까운 데는 지고도 가곡 그렇게 헷어.(그것도 밭 가까운 데는 지고도 가고 그렇게 했어.)

104013 @ 응, 끗엉도 가고, 지고 졍도 가고예?(응, 끌어서도 가고, 지고 져서도 가고요?)

104013 #2 길 좋은 데는 끗어가고 길 끗어가기 힘든 데는 그거를 힘들게 져서 가서 밧데 강 놓곡.(길 좋은 데는 끌어가고 길 끌어가기 힘든 데는 그거를 힘들게 지고 가서 밭에 가서 놓고.)

104013 @ 음, 그러면 건 하나로?(음, 그러면 건 하나로?)

104013 #2 하나로만 그 밧을.(하나로만 그 밭을.)

104013 @ 다 허는 거라예.(다 하는 거라고요.)

104013 #2 오전 밟으면 다 밟으니까.(오전 밟으면 다 밟으니까.)

104013 @ 예.(예.)

104013 #2 게 남도 빌려도 주고.(그래 남도 빌려도 주고.)

104013 @ 그건 빌렁도 쓰기도 허고예?(그건 빌려서도 쓰기도 하고요?)

104013 #2 빌렁도 쓰고.(빌려서도 쓰고.)

104014 @ 물도 나이 세는 게, 나이 세는 게 잇인가마씨?(말도 나이 세는 게, 나이 세는 게 있는가요?)

104014 #2 물도 나이가 잇일 거라.(말도 나이가 있을 거야.)

104014 @ 음.(음.)

104014 #2 그디는 이수 삼수 뭐 처음 새끼를 뭐라고 허는 건 몰르고.(거기는 이수 삼수 뭐 처음 새끼를 뭐라고 하는 건 모르고.)

104014 @ 금승.(하릅.)

104014 #2 금승은 거 소가 금승이고.('금승'은 거 소가 '금승'이고.)

104014 @ 아.(아.)

104014 #2 일수[227] 일수 삼수[228] 이렇게 헴실 거라.('일수' '일수' '삼수'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104014 @ 아, 일수 이수 삼수예?(아, '일수' '이수' '삼수'요?)

104014 #2 금승이, 이수[229]는 삼수 ᄉᆞ수[230] 오수[231] 그 저 물은.(하릅이, '이수'는 '삼수' 'ᄉᆞ수' '오수' 그 저 말은.)

104014 @ 금승매 이런 말 안 들어봅디가?('금승매' 이런 말 안 들어봅디까?)

104014 #2 으?(으?)

104014 @ 금승매?('금승매'?)

104014 #2 금승매 그런 말은 없어.('금승매' 그런 말은 없어.)

104014 @ 아, 없어예? 아.(아, 없어요? 아.)

104014 #2 일수 이수 삼수 경 허난 금, 그거 물은 일수 이수 삼수 그게 맞을 거고.('일수' '이수' '삼수' 그렇게 하니까 금, 그거 말은 '일수' '이수' '삼수' 그게 맞을 거고.)

104014 @ 일수 이수 삼수예. 저기 쉐는 금승?(일수 이수 삼수요. 저기 소는 하릅?)

104014 #2 소는 금승 다간 뭐 사릅 나릅 이렇게 허고.(소는 하릅 다간 뭐 사릅 나릅 이렇게 하고.)

104014 @ 예.(예.)

104014 #2 물은 일수 이수 삼수 이렇게 헤 가지고 오수ᄁᆞ지. 육수[232] 뒈 가민 물은 고기도 찔기다 뭐도 허다 이렇게 허는.(말은 '일수' '이수' '삼수' 이렇게 해 가지고 '오수'까지. '육수' 돼 가면 말은 고기도 질기다 뭐도 하다 이렇게 하는.)

104014 @ 옛날들도 물 잡앙 먹어낫수가?(옛날들도 말 잡아서 먹었었습니까?)

104014 #2 엿날도 물 잡안 먹엇주. 옛날은 물이 눈, 눈이 약 뒌덴 허고. 물은 물뼈도 뭔 방지를 헌다 헤 가지고.(옛날도 말 잡아서 먹었지. 옛날은 말이 눈, 눈이 약 된다고 하고. 말은 말뼈도 뭔 방지를 한다 해 가지고.)

104014 @ 예.(예.)

---

227) '일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말의 나이 한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228) '삼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말의 나이 세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229) '이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말의 나이 두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230) 'ᄉᆞ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말의 나이 네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231) '오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말의 나이 다섯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232) '육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말의 나이 여섯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104014 #2 그 ᄆᆞᆯ을 이 간이나 뭐가 눈이 나쁜 사름은 ᄆᆞᆯ 그거를 고기를 먹어.(그 말을 이 간이나 뭐가 눈이 나쁜 사람은 말 그거를 고기를 먹어.)

104014 @ 눈 나쁘거나 이러면예?(눈 나쁘거나 이러면요?)

104014 #2 이 황달 같은 거 걸린 사람은.(이 황달 같은 거 걸린 사람은.)

104014 @ 예.(예.)

104014 #2 말고기를 그, 말 눈을 빠서 먹은다고 헤서 헷엇나? 그렇게 헷어.(말고기를 그, 말 눈을 뽑아서 먹는다고 해서 했었나? 그렇게 했어.)

104014 @ ᄆᆞᆯ 눈이 약 뒈는 거라예?(말 눈이 약 되는 거라고요?)

104014 #2 약 뒈는 거.(약 되는 거.)

104015 @ 아, 혹시 삼춘 그 ᄆᆞᆯ줄 싸레 뎅기멍 잊어불지 못헌 추억 잇수가?(아, 혹시 삼촌 그 '말줄 싸러' 다니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추억 있습니까?)

104015 #2 그런 건 오래 안 허난에 한 삼사 년 내가 ᄆᆞᆯ 허다가 그 허다가 경운길 헤 부니까 모르고.(그런 건 오래 안 하니까 한 삼사 년 내가 말 하다가 그 하다가 경운길 해 버리니까 모르고.)

104015 @ 으으. 그다음에?(으으. 그다음에?)

104015 #2 견디 추억엔 헌 거는 거 그 ᄆᆞᆯ 나가 어떻게 헷냐면은 아이 우리 아덜이 지금 저 오십일곱인데.(그런데 추억이라고 한 거는 거 그 말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 우리 아들이 지금 저 오십일곱인데.)

104015 @ 예.(예.)

104015 #2 남으 집 살면서 ᄆᆞᆯ마차를 헤 놓고.(남의 집 살면서 마차를 해 놓고.)

104015 @ 으.(으.)

104015 #2 정심 실르고 그 아덜 그디 앞에 앚이라 헤고 태웟는데 바로 올레 그 베껴듸 이렇게 나오니까 녹대를 내버린 거라.(점심 싣고 그 아들 거기 앞에 앉아라 하고 태웠는데 바로 오래 그 바깥에 이렇게 나오니까 고삐를 내버린 거야.)

104015 @ 음.(음.)

104015 #2 저 우에 살앗는데 요ᄁᆞ지 ᄆᆞᆯ마차가 뛰언.(저 위에 살았는데 요까지 마차가 뛰었어.)

104015 @ 음.(음.)

104015 #2 아덜 실르고 정심 그릇 실르고 헌 게 뛰언 요디 와. 요디ᄁᆞ지 뛰어온 거라.(아들 싣고 점심 그릇 싣고 하는 게 뛰어서 여기 와. 여기까지 뛰어온 거야.)

104015 @ 아.(아.)

104015 #2 아이고, 새끼는 죽엇구나. ᄀᆞ만이 집에 사서 야, 꼭 잡으라이, 꼭 잡으라. 정심 그릇은 도롯가[도로까]에 다 그 뭐 말이 뛰니까 다 떨어젼 그때 나 혼번 혼나 가지고.(아이고, 새끼는 죽었구나. 가만히 집에 서서 야,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점심 그릇은 도로가에 다 그 뭐 말이 뛰니까 다 떨어져서 그때 나 한번 혼나 가지고.)

104015 @ 으.(으.)

104015 #2 아, 이거 헌데, 그 마차가 어디 왓냐면 요 저 지금 일허고 잇는데 저 우

에서 그까지 와서 탁 구렁치에 담아지니까 말이 어디 가지, 끗질 못허거든.(아, 이거 하는데, 그 마차가 어디 왔냐면 요 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그까지 와서 탁 구렁텅이에 담아지니까 말이 어디 가지, 끌질 못하거든.)

104015 @ 예, 예.(예, 예.)

104015 #2 게난 아이는 ᄀᆞ만이 앉아 잇엇고. 정심 그릇은 다 손상뒈어 버리고 그때 혼번 그런 예가. 아, 이거 절대 이제는 글후에 나 마차 치와 버렷지.(그러니까 아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점심 그릇은 다 손상되어 버리고 그때 한번 그런 예가. 아, 이거 절대 이제는 그 이후에 나 마차 치워 버렸지.)

104015 @ 음.(음.)

104015 #2 경운기 헤연 헤야지 이거 안 뒈겟다.(경운기 해서 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104015 @ 아이는 딱 잡안예?(아이는 딱 잡았다고요?)

104015 #2 잡안 잇어 가지고 지금 잇엇기 때문에 아이고, 살앗구다. 그땐 뭐 집엣사름이[집엗싸르미] 잇엇으면 허지만 집에사름은 육지 가 버리고.(잡아서 있어 가지고 지금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살았구나. 그땐 뭐 집사람이 있었으면 하지만 집사람은 육지 가 버리고.)

104015 @ 아아.(아아.)

104015 #2 돈 벌러 가 가지고 충청돈가 어디 간 그때 한번 혼 난 역사가 잇어.(돈 벌러 가 가지고 충청돈가 어디 가서 그때 한번 혼 난 역사가 있어.)

먹이

104016 @ 그다음에 삼춘, 그 말이나 쉐 먹는 것들은 어떤 거 주로 먹어마씨?(그다음에 삼촌, 그 말이나 소 먹는 것들은 어떤 거 주로 먹어요?)

104016 #2 말은 다이, 다 먹어.(말은 다, 다 먹어.)

104016 @ 으.(으.)

104016 #2 이제 저 곡식 ᄀᆞ뜬 거는 막 주민 더 좋아허지.(이제 저 곡식 같은 거는 막 주면 더 좋아하지.)

104016 @ 으음, 그냥 풀이영?(으음, 그냥 풀이랑?)

104016 #2 풀, 풀을 보통 멕이는데 겨울은 나면은 뭐.(풀, 풀을 보통 먹이는데 겨울은 되면 뭐.)

104016 @ 예.(예.)

104016 #2 콩찝 같은 것도 다 그 풀 그 말른 거 딱딱헌 건데 콩이파리 그 썹 말른 거 딱딱헌 쪼가리덜 그런 거 더 잘 먹고.(콩짚 같은 것도 다 그 풀 그 마른 거 딱딱한 건데 콩잎 그 잎 마른 거 딱딱한 쪼가리들 그런 거 더 잘 먹고.)

104016 @ 음.(음.)

104016 #2 소도 마찬가지.(소도 마찬가지.)

104016 @ 예.(예.)

104016 #2 넹기질 안허여. 그 앞에 놔두면 하나도 없이 다 줏어 먹고. 고구마줄도 말려서 그것도 헤다 놓고 저 물 양식 소 양식도 이 십이월달 일월달까지 이 소 허는 사름덜은 걸 다 준비헤당 집에 쌓아놔, 항상.(남기질 않아. 그 앞에 놔두면 하나도 없이 다 주워 먹고. 고구마줄기도 말려서 그것도 해다 놓고 저 말 양식 소 양식도 이 십이월 일월까지 이 소 하는 사람들은 걸 다 준비해다가 집에 쌓아놔, 항상.)

104016 @ 예, 그다음에 이제 옛날 그 촐예?(예, 그다음에 이제 옛날 그 꼴요?)

104016 #2 음.(음.)

104017 @ 촐은 어떤 식으로 마련허는 거라마씨?(꼴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104017 #2 촐은 게난 그 전의 말헷주마는 자기 농사짓단 거 찌푸러기 같은 거 다 저장허고. 또 족을 거 같으면 남으 밧도 허고. 다니면서 그 공한지엔 내버린 풀도 다.(꼴은 그러니까 그 전에 말했지만 자기 농사짓던 거 지푸라기 같은 거 다 저장하고. 또 적을 거 같으면 남의 밭도 하고. 다니면서 그 공한지엔 내버린 풀도 다.)

104017 @ 음.(음.)

104017 #2 옛날은 항상 방화를 부뗏거든.(옛날은 항상 방화를 붙었거든.)

104017 @ 예, 예.(예, 예.)

104017 #2 그 풀을 아무 디 가 비여 와도 다 소촐이 뒈여.(그 풀을 아무 데 가 베어서 와도 다 소꼴이 되어.)

104017 @ 음.(음.)

104017 #2 물촐도 뒈고.(말꼴도 되고.)

104017 @ 음.(음.)

104017 #2 경 허다가 이제 글후에는 막 이 기계화도 뒈고 뭐허니까 촐 비는 것도 막 기계로 다 허니까 그때부떤 촐을 사기 시작헷는데 다 자기가, 자기가 힘들이 노력해서 다 버는 거주, 그전에는.(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아주 이 기계화도 되고 뭐 하니까 꼴 베는 것도 아주 기계로 다 하니까 그때부턴 꼴을 사기 시작했는데 다 자기가, 자기가 힘들여 노력해서 다 버는 거지, 그전에는.)

104017 @ 삼춘네는 뭐 촐왓 이런 거는 엇어낫수가?(삼촌네는 뭐 꼴밭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104017 #2 촐왓은 엇어낫어.(꼴밭은 없었었어.)

104017 @ 아.(아.)

104017 #2 촐왓 엇이난 놈의 촐 강 비어주민 남는 걸랑 우리 ᄃᆞ렌 헤근에 그것도 강 비곡.(꼴밭 없으니까 남의 꼴 가서 베어주면 남는 거는 우리 달라고 해서 그것도 가서 베고.)

104017 @ 음.(음.)

104017 #2 경 허다가 촐왓을 나도 그 소 허기 시작허난 나도 하나 사 가지고 촐왓이 그렇게 비싸질 안허니까 그때는.(그렇게 하다가 꼴밭을 나도 그 소 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하나 사 가지고 꼴밭이 그렇게 비싸질 않으니까 그때는.)

104017 @ 예, 예.(예, 예.)

104017 #2 임야지 삼 원 오 원 헐 때니까.(임야지 삼 원 오 원 할 때니까.)

104017 @ 으음. 그때 하영 상 놔둬시믄 완전 부자 뒛일 건디.(으음. 그때 많이 사서 놔뒀으면 완전 부자 됐을 건데.)

104017 #2 아, 거 삿단 ᄌᆞ식들 공부시켜 가난에 거 풀아 버리니까 후훼뒌 거라.(아, 거 샀다가 자식들 공부시켜 가니까 거 팔아 버리니까 후회된 거야.)

104017 @ 아아.(아아.)

104017 #2 돈이. 나중에는 나도 그 ᄌᆞ식들이 대학교에 가게 뒈게 뒈고 돈 빚진 게 못 무니까 소 ᄒᆞ나 잇인 거에 와 가지고 옛날엔 돈 못 물면 차압을 부쳣어[233].(돈이. 나중에는 나도 그 자식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게 되고 돈 빚진 게 못 무니까 소 하나 있는 거에 와 가지고 옛날엔 돈 못 물면 압류를 붙였어.)

104017 @ 예, 예.(예, 예.)

104017 #2 소뿔에 왕 딱 차압을 부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소뿔에 와서 딱 압류를 붙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104017 @ 아.(아.)

104017 #2 집엣사람은 아 육지 가 가지고 돈 언제 허면은 보낸다는데 그 기한에 못 물어 부니까. 차압을 부쩐. 아, 이거 큰일 낫다. 그거 물고 나중엔 밧도 또 그 사 놨단 것도 팔고 그렇게 헷는데.(집사람은 아, 육지 가 가지고 돈 언제 하면 보낸다는데 그 기한에 못 물어 버리니까. 압류를 붙여서. 아, 이거 큰일 났다. 그거 물고 나중엔 밭도 또 그 사 놨던 것도 팔고 그렇게 했는데.)

104017 @ 음.(음.)

104017 #2 팔고 그렇게 헨. 거 가만이 놔뒷으면 임야지 그거 한 육천 평 칠천 평 뒌 거 돈은 얼마 안 뒛어. 겐디 그때 이백오십 만 원에 팔앗으니까게.(팔고 그렇게 했어. 거 가만히 놔뒀으면 임야지 그거 한 육천 평 칠천 평 된 거 돈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그때 이백오십 만 원에 팔았으니까.)

104017 @ 육칠천 평 뒌 거를예? 음. 뭐.(육칠천 평 된 거를요? 음. 뭐.)

104017 #2 거기 ᄀᆞ만이 놔뒷으면 이제 막 부자 그 뭐.(거기 가만히 놔뒀으면 이제 아주 부자 그 뭐.)

104017 @ 웃음.(웃음.)

104017 #2 공항도 안 들어가고.(공항도 안 들어가고.)

104018 @ 다 주인 따로 잇어예. 그냥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 예전에 웨 하늬ᄇᆞ름 터지믄 촐 비레 간덴 이런 말도 잇잖아예?(다 주인 따로 있어요. 그냥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 예전에 왜 하늬바람 터지면 꼴 베러 간다는 이런 말도 잇잖아요?)

104018 #2 팔월추석을 전후헤서 허는 거지.(팔월추석을 전후해서 하는 거지.)

104018 @ 음.(음.)

233) '차압을 부치다'는 '압류할 물건에다가 압류 물품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붙이다'는 의미다.

104018 #2 팔월추석 명절 딱 지나면은 그때 가면은 촐 비면 사을만 뒈면은.(팔월추석 명절 딱 지나면 그때 가면은 꼴 베면 사흘만 되면.)

104019 @ 예.(예.)

104019 #2 낫[234]으로 빈 촐은 삼 일이믄 무끄지 않으믄 괄아[235].(낫으로 벤 꼴은 삼 일이면 묶지 않으면 '괄아'.)

104018 @ 아.(아.)

104018 #2 경 허곡 또 촐 비어놔 가지고 그 낫으로 빈 촐을 비 맞으면 거 츰 힘들지.(그렇게 하고 또 꼴 베어놔 가지고 그 '낫'으로 벤 꼴을 비 맞으면 거 참 힘들지.)

104018 @ 예, 예, 예.(예, 예, 예.)

104018 #2 물 들어놓믄 뒤집어야 뒈고 뭐 허곡.(물 들어놓으면 뒤집어야 되고 뭐 하고.)

104018 @ 으.(으.)

104018 #2 허니까 것도 힘든 일.(하니까 것도 힘든 일.)

104018 @ 여기에서는 촐 빌 때 낫으로 비여마씨?(여기에서는 꼴 벨 때 '낫'으로 베어요?)

104018 #2 다 낫. 이 낫, 이 흔 발 뒌 거.(다 '낫'. 이 '낫', 이 한 발 된 거.)

104018 @ 큰 거예?(큰 거요?)

104018 #2 그 낫으로 비엇주.(그 '낫'으로 베었지.)

104018 @ 예.(예.)

104018 #2 것도 잘 비는 사름은 ᄒᆞ루 멧 바리여 멧 바리 이추룩 헤근에 비곡.(것도 잘 베는 사람은 하루 몇 바리다 몇 바리 이처럼 해서 베고.)

104018 @ 여기는 이렇게 좀호미 헤 갖고 작은 거?(여기는 이렇게 '좀호미' 해 갖고 작은 거?)

104018 #2 좀호미[236]론 안 헷어. 좀호미는 그거 땔 사름이나 좀호미로 비엇지.('좀호미'론 안 했어. '좀호미'는 그거 땔 사람이나 '좀호미'로 베었지.)

104018 @ 으음. 다 낫으로예?(으음. 다 '낫'으로요?)

104018 #2 낫으로 헹 그 저 홀로 사는 어멍덜토 거 멧 사름 빌어 가지고 우리 촐 메칠날 비어 줍서. 헤 가지고 맞추어 그 사름덜 일당 줘근에 허곡. 촐 비는 사름덜은 옛날 삼시가 아니고 ᄉᆞ시[237] 먹은 거라. ᄉᆞ시.(낫으로 해서 그 저 홀로 사는 어머니들도 거 몇 사람 빌려 가지고 우리 꼴 며칠날 베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맞추어 그 사람들 일당 줘서 하고. 꼴 베는 사람들은 옛날 삼시가 아니고 '사시' 먹은 거야. '사시'.)

104019 @ 음.(음.)

104019 #2 간식, 아침 먹고 간식 먹곡 점심 먹고 또 점심 후에 간식 먹곡 거 힘든

234) '낫'은 날과 자루가 긴 낫으로, 꼴 따위를 벨 때 서서 한다.
235) 여기에서 '괄다'는 꼴 따위가 말라서 앙상하다는 뜻이다.
236) '좀호미'는 서서 꼴 따위를 후려서 베는 '낫'에 비유하여 앉아서 손으로 잡아서 베는 낫을 일컫는 말이다. '좀'은 표준어 '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보통의 낫을 가리킨다.
237) 'ᄉᆞ시'는 하루 세 끼를 '삼시'에 비유해서 하루 네 끼를 먹으니까 비유해서 쓴 표현이다.

일이니까. 이거 막 후리는 거.(간식,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또 점심 후에 간식 먹고 거 힘든 일이니까. 이거 막 후리는 거.)

104018 @ 예, 예, 예. 아, 촐 빌 때는.(예, 예, 예. 아, 꼴 벨 때는.)

104018 #2 놈의 홀어멍 집의라도 잘 멕이민 누게 촐 잘 비여 줘렌 허는디 아 그 사름은 먹음만 허멍 촐 멧 단 안 비어 줘라.(남의 홀어머니 집에라도 잘 먹이면 누구 꼴 잘 베어 주더라고 하는데 아 그 사람은 먹음만 하면서 꼴 몇 단 안 베어 주더라.)

104018 @ 아아.(아아.)

104018 #2 옛날은 다 그런 뭐가 잇엇어.(옛날은 다 그런 뭐가 있었어.)

104019 @ 예, 예. 경 허영은에 이제 촐 하고예. 그 저기 촐 운반허고 저장, 어떤 식?(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꼴 하고요. 그 저기 꼴 운반하고 저장, 어떤 식?)

104019 #2 게난 운반허는 건 잘 몰리와근에 집에 다 소 잇인 자기 집에 보통 와 가지고 운반허는 거 그 한거한 시기에 운반헤다가 공건 사가 농사도 안 질 사이. 게난 십이월 사이에 다 집에 갖다 놔야 허니까.(그러니까 운반하는 건 잘 말려서 집에 다 소 있는 자기 집에 보통 와 가지고 운반하는 거 그 한거한 시기에 운반해다가 공건 사가 농사도 안 질 사이. 그러니까 십이월 사이에 다 집에 갖다 놔야 하니까.)

104019 @ 예.(예.)

104019 #2 게난 이 촐 빌 때 뒈면은 이 산으론 온평리 우의로 가보면은 이렇게 촐 눌어 잇어.(그러니까 이 꼴 벨 때 되면 이 산으론 온평리 위로 가보면 이렇게 꼴 가려 있어.)

104019 @ 음.(음.)

104019 #2 눌어 잇는데 그 촐덜이 이제 언젠가는 십이월 말 쯤 뒈 가지고 겨울 전에 싹 내려와 버려.(가려 있는데 그 꼴들이 이제 언젠가는 십이월 말 쯤 돼 가지고 겨울 전에 싹 내려와 버려.)

104019 @ 음. 그러면 그?(음. 그러면 그?)

104019 #2 안 내려오면 그 전에는 방화가 이 똑 십이월 넘어 가지고 일월 이월 달 뒈민은 방화가 잇기 때문에 거기 놧다가는.(안 내려오면 그 전에는 방화가 이 똑 십이월 달 넘어 가지고 일월 이월 달 되면 방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 놨다가는.)

104019 @ 다 타 불 거예?(다 타 버릴 거요?)

104019 #2 타 불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와 가지고 집에 왕 다 저장 이렇게. 그 산에서 눈 것처럼 집에 와서 눌어 가지고 매일 그 촐을 빠도 그게 다 소모가 뒈니까.(타 버릴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와 가지고 집에 와서 다 저장 이렇게. 그 산에서 가린 것처럼 집에 와서 가려 가지고 매일 그 꼴을 뽑아도 그게 다 소모가 되니까.)

104019 @ 예, 그 눌엔 헙니까?(예, 그 가리라고 합니까?)

104019 #2 으, 눌 누눈 거.(으, 가리 가린 거.)

104019 @ 눌 누는 건 어떤 식으로 눕니까? 여기서는?(가리 가리는 건 어떤 식으로 가립니까? 여기서는?)

104019 #2 아, 눌은 여라 가지 자기 방식대로 누는 거주게. 막 싸아놩 크면은 촐이 이거 벡 바리민 어느 정도 헹 눌어야겟다 허영 뼁 돌아가면서 눌어 가지고. 우에는 요렇게끔 물 안 든게끔 눌어.(아, 가리는 여러 가지 자기 방식대로 가리는 거지. 막 쌓아 놔서 크면 꼴이 이거 백 바리면 어느 정도 해서 가려야겠다 해서 뼁 돌아가면서 가려 가지고. 위에는 요렇게끔 물 안 들게끔 가려.)

104020 @ 예, 예. 그다음에 인제 여물예?(예, 예. 그다음에 인제 여물요?)

104020 #2 으?(으?)

104020 @ 그 밧이나 갈젠 허면?(그 밭이나 갈려고 하면?)

104020 #2 여물은 그 여물엔 헌 거는.(여물은 그 여물이라고 한 거는.)

104020 @ 예.(예.)

104020 #2 예를 들엉 콩이나.(예를 들어서 콩이나.)

104020 @ 예.(예.)

104020 #2 서숙 이런 거. 예를 들어 서숙 그 찌꺼리이?(서숙 이런 거. 예를 들어 서숙 그 찌꺼기?)

104020 @ 예.(예.)

104020 #2 찌꺼리 중에도 그 저 체보다 좀 뭐헌 게 잇어.(찌꺼기 중에도 그 저 겨보다 좀 뭐한 게 있어.)

104020 @ 예.(예.)

104020 #2 그런 거를 싸 놔 가지고 쌂을 게 잇고 그대로 줄 게 잇고.(그런 거를 쌓아 놔 가지고 삶을 게 있고 그대로 줄 게 있고.)

104020 @ 음.(음.)

104020 #2 경 허영 그거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주고. 또 그 소가 잘 안 먹을 때는 그 에 보통은 그 저 보릿가루 같은 거 이런 촐에 이렇게 허터 가지고 먹게끔 허고. 유도도 허고.(그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주고. 또 그 소가 잘 안 먹을 때는 그 에 보통은 그 저 보릿가루 같은 거 이런 꼴에 이렇게 흩어 가지고 먹게끔 하고. 유도도 하고.)

104020 @ 예.(예.)

104020 #2 여러 가지 방법이 잇고. 보리 같은 것도 쌂아 가지고 쪼끔 주고 일헐 때는.(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보리 같은 것도 삶아 가지고 쪼끔 주고 일할 때는.)

104020 @ 죽도 쒕 줘마씨?(죽도 쒀서 줘요?)

104020 #2 죽은 아니. 여기서 죽 쒕 준 사름 멧 사름 엇고.(죽은 아니. 여기서 죽 쒀서 준 사람 몇 사람 없고.)

104020 @ 그냥 여물 헤 갖고.(그냥 여물 해 갖고.)

104020 #2 이 콩 우리 사름은 먹지 못헤도 짐승에게 좋은 거. 콩졸레 같은 거 요런 거 같은 것들.(이 콩 우리 사람은 먹지 못해도 짐승에게 좋은 거. 콩깍지 같은 거 요런 거 같은 것들.)

104020 @ 음.(음.)

104020 #2 이런 것들 대강은 줫고.(이런 것들 대강은 줬고.)

104020 @ 예, 콩졸레 같은 거예?(예, 콩깍지 같은 거요?)

104020 #2 예, 보리도 졸레기 같은 거 헤 가지고 그런 거는 많이 주질 또 안허여.(예, 보리도 깍지 같은 거 해 가지고 그런 거는 많이 주질 또 않아.)

104020 @ 예.(예.)

104020 #2 쪼끔 주면 촐을 주로 멕엿으니까, 여기는.(쪼끔 주면 꼴을 주로 먹였으니까, 여기는.)

104020 @ 음.(음.)

104020 #2 고구마줄기 같은 거 다 말린 거 주고. 이 고구마줄도 놀 거는 소 많이 안 주주.(고구마줄기 같은 거 다 말린 거 주고. 이 고구마줄기도 날 거는 소 많이 안 주지.)

104020 @ 음, 건 무사마씨?(음, 건 왜요?)

104020 #2 이거 많이 먹으민 소도 설사 나니까.(이거 많이 먹으면 소도 설사 나니까.)

104020 @ 아아.(아아.)

104020 #2 또 많이 소덜도 먹지도 안허고.(또 많이 소들도 먹지도 않고.)

104021 @ 음, 고구마줄, 감저꿀은예?(음, 고구마줄기, 고구마줄기는요?)

104020 #2 예.(예.)

104021 @ 삼춘, 그 촐 비레 뎅기멍예, 어 잊어불지 못헐 추억? 삼춘네는 촐왓 엇어도 놈의 밧딘 비레 뎅겨실 거 아니라예?(삼촌, 그 꼴 베러 다니면서요, 어 잊어버리지 못할 추억? 삼촌네는 꼴밭 없어도 남의 밭엔 베러 다녔을 거 아닌가요?)

104021 #2 그거 그치룩 헌 거 잊어불 거 그런 건 엇주.(그거 그처럼 한 거 잊어버릴 거 그런 건 없지.)

104021 @ 으.(으.)

104021 #2 낫을 잘 골고 못 골아근에 그런 거나 허곡.('낫'을 잘 갈고 못 갈아서 그런 거나 하고.)

104021 @ 예, 낫 ᄀᆞ는 거는 뭘로 헹은에 ᄀᆞ는 거라마씨?(예, '낫' 가는 거는 무엇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104021 #2 숫돌 헤 가지고 이것도 낫을 잘 골아야 촐 흔 흔 번 나가면은 흔 바리든 두 바리든 빌 수가 잇어야지.(숫돌 해 가지고 이것도 '낫'을 잘 갈아야 꼴 한 한 번 나가면 한 바리든 두 바리든 벨 수가 있어야지.)

104021 @ 예.(예.)

104021 #2 낫 잘못 골면은 이거 아무리 후려도 깨끗허게 비어지질 안허니까.('낫' 잘못 갈면 이거 아무리 후려도 깨끗하게 베어지질 않으니까.)

104021 @ 으.(으.)

104021 #2 그것도 기술이라.(그것도 기술이야.)

104021 @ 예, 삼춘은 ᄒᆞ루 멧 바리나 비어 봅디가?(예, 삼촌은 하루 몇 바리나 베어 봅디까?)

104021 #2 아, 우리 ᄒᆞ민은 ᄒᆞᆫ 열댓 바리 이상 비엇주.(아, 우리 하면 한 열댓 바리 이상 베었지.)

104021 @ 게니까 그게.(그러니까 그게.)

104021 #2 서른 단이 ᄒᆞᆫ 바리라.(서른 단이 한 바리야.)

104021 @ 서른 단이 ᄒᆞᆫ 바리예. 게믄 그 영 무끄는 거는 어떤 걸로 무꺼마씨? 그거는.(서른 단이 한 바리요. 그러면 그 이렇게 묶는 거는 어떤 걸로 묶어요? 그거는.)

104021 #2 아, 무끄는 그 비어놓은 자리에서 께를 뽑아서 자기대로 이렇게 그게 기술이주, 다.(아, 묶는 그 베어놓은 자리에서 매끼를 뽑아서 자기대로 이렇게 그게 기술이지, 다.)

104021 @ 음.(음.)

104021 #2 여기 여자들은 다 잘허메.(여기 여자들은 다 잘해.)

104021 @ 아, 무끄는 거는 보통 여자들이 헙니까?(아, 묶는 거는 보통 여자들이 합니까?)

104021 #2 여자들이 잘허고 남자들은 날라다 놓고 눌 눌고 요렇게 허는 거.(여자들이 잘하고 남자들은 날라다 놓고 가리 가리고 요렇게 하는 거.)

104021 @ 음.(음.)

104021 #2 여자덜은 빨라. 요거 무꺼서 던져놓고 저거 떨어지기 전에 하나 또 무끄는데.(여자들은 빨라. 요거 묶어서 던져놓고 저거 떨어지기 전에 하나 또 묶는데.)

104021 @ 아.(아.)

104021 #2 그렇게 기술덜이 농촌에는 게문 누게 촐 잘 무끈덴 허민 그 사름덜 빌어가.(그렇게 기술들이 농촌에는 그러면 누구 꼴 잘 묶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 빌려가.)

104021 @ 예, 예, 예.(예, 예, 예.)

104021 #2 많은 사름은 아, 누게 누게 집의 메누리 촐 잘 무끈다, 그디 사름 빌라. 그 사름 빌라. 이렇게.(많은 사람은 아, 누구 누구 집의 며느리 꼴 잘 묶는다, 거기 사람 빌려라. 그 사람 빌려라. 이렇게.)

104021 @ 음.(음.)

104021 #2 ᄒᆞᆫ 대ᄋᆞ섯 사름 놩 큰 밧듸 ᄒᆞᆫ 멧 천 평 뒌 디 강 무끄면은.(한 대여섯 사람 놔서 큰 밭에 한 몇 천 평 된 데 가서 묶으면.)

104021 @ 예, 예.(예, 예.)

104021 #2 것도 아침 이슬짐에 안 무끄면은 촐이 과랑 낮 뒈어 가민 고사리허고 서꺼지니까 이거 께 내는 기술이 힘들어.(것도 아침 이슬짐에 안 묶으면 꼴이 '괄앙' 낮 되어 가면 고사리하고 섞어지니까 이거 매끼 내는 기술이 힘들어.)

104021 @ 음.(음.)

104021 #2 요만씩 요만이 허는 촐을 비어 놧으니까.(요만씩 요만큼 하는 꼴을 베어 놨으니까.)

104021 @ 예, 예.(예, 예.)

104021 #2 이렇게 큰 촐이 아니라.(이렇게 큰 꼴이 아니야.)

104021 @ 예, 예.(예, 예.)

104021 #2 이걸 이렇게 헤 놓은 거를 싹 뒤집어서 싹 빵 이렇게 허면 요만은 께 나오민 싹 무꺼 가지고.(이걸 이렇게 해 놓은 거를 싹 뒤집어서 싹 뽑아서 이렇게 하면 요만한 매끼 나오면 싹 묶어 가지고.)

104021 @ 예, 예. 옛날 어른들 참 힘들게 살앗는데.(예, 예. 옛날 어른들 참 힘들게 살았는데.)

104021 #2 (웃음)

땔감

104022 @ 그다음은 삼춘, 예전에는 우리 짇을커예?(그다음은 삼촌, 예전에는 우리 땔감요?)

104022 #2 으.(으.)

104022 @ 그런 것도 이제 꼭 헤야 뒈지 아녑니까?(그런 것도 이제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4022 #2 짇을커 그거 외로 지들커 헷주.(땔감 그거 외로 땔감 했지.)

104022 @ 예.(예.)

104022 #2 겨울 나가면은.(겨울 되어 가면.)

104022 @ 으.(으.)

104022 #2 이 잡나무 가수룩나무 같은 거 이 소나무는 막 저 즞은 디 거는 솔입도 걷엉 허는 사름도 잇고 소나무도 짤랑 솎음질 헌다는가 길가에.(이 잡나무 '가수룩나무' 같은 거 이 소나무는 막 저 잦은 데 거는 솔잎도 걷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소나무도 잘라서 솎음질 한다든가 길가에.)

104022 @ 음.(음.)

104022 #2 옛날은 나무가 귀헷어.(옛날은 나무가 귀했어.)

104022 @ 예.(예.)

104022 #2 나무가.(나무가.)

104022 @ 너도나도 다 허니까.(너도나도 다 하니까.)

104022 #2 으, 허니깐 그것도 밧 임제안티 가 가지고 그것도 물어보지 안허민 걸리믄 고소당허고.(으, 하니깐 그것도 밭 임자한테 가 가지고 그것도 물어보지 않으면 걸리면 고소당하고.)

104022 @ 음.(음.)

104022 #2 거 사는 것도, 마음대로 남으 밧듸 강 끊질 못헷어.(거 사는 것도, 마음대로 남의 밭에 가서 끊질 못했어.)

104022 @ 예.(예.)

104022 #2 여기는, 이 온평리 같은 데는 자기, 자기 것도 허지만은 웨리 사름덜토 많이 왓어. 저 우도[238]서덜은 땔감 뒈면은 여기 왕 남으 밧틔 강 솔입도 걷어야 뒈고.

길레 잇는 어욱도 비고 이렇게 헤 가지고 그때는 풍선 가졍 저 우도로 다 시껑. 자기네 땔감 준비허느라고 여기 왕 집 빌엉 여기 온평리 같은 데 저디 종달리[239] 같은 데.(여기는, 이 온평리 같은 데는 자기, 자기 것도 하지만은 외리 사람들도 많이 왔어. 저 우도에서들은 땔감 되면 여기 와서 남의 밭에 가서 솔잎도 걷어야 되고. 길에 있는 억새도 베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는 풍선 가져서 저 우도로 다 실어서. 자기네 땔감 준비하느라고 여기 와서 집 빌려서 여기 온평리 같은 데 저기 종달리 같은 데.)

104022 @ 예.(예.)

104022 #2 가까운 데 강. 그렇게 땔감을 헷는데. 우도가 젤 문저 연탄도 들어가곡 모든 게 다.(가까운 데 가서. 그렇게 땔감을 했는데. 우도가 젤 먼저 연탄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104022 @ 으. 땔감이 엇으니까 거기는예?(으. 땔감이 없으니까 거기는요?)

104022 #2 우도는 서숙 조 같은 갈아난 거 그 그르를 다 털어 가지고 말리엇다가 우도는.(우도는 서숙 조 같은 갈았던 거 그 그루를 다 떨어 가지고 말리었다가 우도는.)

104022 @ 음, 음.(음, 음.)

104022 #2 옛날에 땔감으로 사용헤낫주.(옛날에 땔감으로 사용했었지.)

104022 @ 여기 그 온평에서는 어떤 거를 땔감으로 썻수가?(여기 그 온평에서는 어떤 거를 땔감으로 썼습니까?)

104022 #2 여기는 여러 가지. 뭐 보리. 소 안 기르는 사람 보릿대도 때고 뭐 서숙대도 때고. 그 허는데 다 그 저 좀호미라도 비어 놩 다 쌓아 놧으니까.(여기는 여러 가지. 뭐 보리. 소 안 기르는 사람 보릿대도 때고 뭐 서숙대도 때고. 그 하는데 다 그 저 '좀호미'라도 베어 놔서 다 쌓아 놨으니까.)

104022 @ 음.(음.)

104022 #2 노인덜토 다 자기 헐 거는 허고 나무도 쫌 짤라다 놓곡.(노인들도 다 자기 할 거는 하고 나무도 쫌 잘라다 놓고.)

104023 @ 으음. 그다음에 이제 혹시 여기 쉐똥이나 물똥 같은 경우도.(으음. 그다음에 이제 혹시 여기 소똥이나 말똥 같은 경우도.)

104023 #2 물똥 쉐똥 다 사용헷지. 물똥 줏으레 우리도 저기를 갓는데. 이거는 뭐 허느냐 허면은 겨울 나민은 온돌 때기 위헤서는 다 헤당 저장도 헤놓곡 다 물똥 주워당 물 멘 자리에 가 가지고 문저 줏어온 게 임자.(말똥 소똥 다 사용했지. 말똥 주우러 우리도 저기를 갔는데. 이거는 뭐 하느냐 하면 겨울 되면 온돌 때기 위해서는 다 해다가 저장도 해 놓고 다 말똥 주워다가 말 맨 자리에 가 가지고 먼저 주워온 게 임자.)

104023 @ 음.(음.)

104023 #2 줏어당 그디 젖은 거를 그 근방에 널어놧다가.(주워다가 거기 젖은 거를 그 근방에 널어놨다가.)

104023 @ 예.(예.)

---

238) '우도'는 제주시 우도면을 가리킨다.

239) '종달리'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를 가리킨다.

104023 #2 널어놧다가 또 완저히 ᄆᆞ른 다음엔 집에 와 가지고 저장허는 디 놧다가 방 때고. 이건 이 저 온돌 때는 때 ᄆᆞᆯ똥 쉐똥이 필요헷고. 거 부족허면은 솔입 같은 거 같이 혼합헤 가지고.(널어놨다가 또 완전히 마른 다음엔 집에 와 가지고 저장하는 데 놨다가 방 때고. 이건 이 저 온돌 때는 때 말똥 소똥이 필요했고. 거 부족하면 솔잎 같은 거 같이 혼합해 가지고.)

104024 @ 그러면 솔입 걷으러도 뎅기고예?(그러면 솔잎 걷으러도 다니고요?)

104024 #2 솔입 걷으레 여기 사름들은 그렇게 다니질 안허여. 멧멧 사름 다니지. 다 땔감을 다 준비헤 버리니까.(솔잎 걷으러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질 않아. 몇몇 사람 다니지. 다 땔감을 다 준비해 버리니까.)

104024 @ 아.(아.)

104024 #2 좀호미 검질이라도 다 비여 가지고, 길레 거라도 비여서 준비를 헷기 때문에.('좀호미' 검불이라도 다 베어 가지고, 길에 거라도 베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104024 @ 예, 그러면 겨울에는 정말 그 땔감 준비허는 것도 큰일이여예.(예, 그러면 겨울에는 정말 그 땔감 준비하는 것도 큰일이네요.)

104024 #2 아, 게난 이 땔감도 팔월달 추석 지나민 다 준비헤 버려 가지고.(아, 그러니까 이 땔감도 팔월 추석 지나면 다 준비해 버려 가지고.)

104024 @ 으음.(으음.)

104024 #2 일기가 그 똑 준비헐 시기에 준비 안 허민 헐 수도 없고.(일기가 그 똑 준비할 시기에 준비 안 하면 할 수도 없고.)

104024 @ 예.(예.)

104024 #2 겨울에는 부족헤여 갈 거 같으면 겨울에 눈 오는 디 나가 가지고 비어. 나무 같은 거라도 쪼갱 놔두면 삼사일이면 마르니까.(겨울에는 부족해 갈 거 같으면 겨울에 눈 오는 데 나가 가지고 베어. 나무 같은 거라도 쪼개서 놔두면 삼사일이면 마르니까.)

104024 @ 예.(예.)

104024 #2 그런 걸로 보충허고.(그런 걸로 보충하고.)

104025 @ 음, 그다음에 이 삼춘도 그냥 땔감 헤영은에 나무도 허레 뎅견마씨?(음, 그다음에 이 삼촌도 그냥 땔감 해서 나무도 하러 다녔어요?)

104025 #2 나무허레도 다니고. 나무뿔리도 우리 뭐헐 때는.(나무하러도 다니고. 나무뿌리도 우리 뭐할 때는.)

104025 @ 음.(음.)

104025 #2 그 나이 한창 젊은 살림살이 아버지네 슬하 헐 때 나무허레 다녓주. 나무뿔리.(그 나이 한창 젊은 살림살이 아버지네 슬하 할 때 나무하러 다녔지. 나무뿌리.)

104025 @ 음.(음.)

104025 #2 짤라난 뿔리를 도끼 가져와서 쪼개서 그걸 가져 와서 집의서 쪼개민 땔감이 막 오래 가.(잘랐던 뿌리를 도끼 가져와서 쪼개서 그걸 가져 와서 집에서 쪼개면 땔감이 아주 오래 가.)

104025 @ 아아.(아아.)

104025 #2 겨울에는 추위도 좋고 막 이 저 거기서 다 뭐 음식도 헤 먹을 수 잇고.(겨울에는 추위도 좋고 막 이 저 거기서 다 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104025 @ 낭뿔리로 허여서예?(나무뿌리로 했다고요?)

104025 #2 뿔리까지도.(뿌리까지도.)

104025 @ 으.(으.)

104025 #2 다 소나무 짤라난 뿔리덜. 그거 헤 가지고 이제 쓰레기 ᄀᆞ튼 잡, 저 마당에 잇는 쓰레기 같은 걸 헹 같이 혼합헤 가지고 온돌에 집어넣엇다 허면.(다 소나무 잘랐던 뿌리들. 그거 해 가지고 이제 쓰레기 같은 잡, 저 마당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걸 해서 같이 혼합해 가지고 온돌에 집어넣었다 하면.)

104025 @ 음.(음.)

104025 #2 아침에 저녁 때 집어넣으면 아침까지 방이 온돌이 따뜻허니까.(아침에 저녁 때 집어넣으면 아침까지 방이 온돌이 따뜻하니까.)

104025 @ 예, 예.(예, 예.)

104025 #2 낭뿔리 하나 이런 거.(나무뿌리 하나 이런 거.)

104025 @ 예, 낭뿔리는 밥헹 먹을 게 아니라 굴묵.(예, 나무뿌리는 밥해서 먹을 게 아니라 '굴묵'.)

104025 #2 방 때는 데 ᄀᆞ튼 데 사용헷주. 서터 가지고.(방 때는 데 같은 데 사용했지. 섞어 가지고.)

104026 @ 혹시 이 동네도 숫 굽는 일도 헤나신가마씨?(혹시 이 동네도 숯 굽는 일도 했었나요?)

104026 #2 우리 역은 후제는.(우리 자란 후에는.)

104026 @ 안 하고.(안 하고.)

104026 #2 안 허고. 그 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숫 구웟고. 우리 아버지 때에덜은 다 숫을 구웟고.(안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숯 구웠고. 우리 아버지 때들은 다 숯을 구웠고.)

104026 @ 예.(예.)

104026 #2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숫을 구워 가지고 그 사고를 나 분 거.(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숯을 구워 가지고 그 사고를 나 버린 거.)

104026 @ 아아.(아아.)

104026 #2 초등학교 태와 불언, 숫.(초등학교 태워 버렸어, 숯.)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2 옛날 초등학교에는 교장허고 그 학교 선생 둘이나 서이벳긔 없엇거든.(옛날 초등학교에는 교장하고 그 학교 선생 둘이나 셋밖에 없었거든.)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2 게난 급사보고 이제 숫 이거 뭐 허렌 허니까 급ᄉᆞ가 숫을 묻엇는데 그거 불 다 꺼진 사무실러레 갖다 놔뒷더니 그게 꺼진 게 아니라 그게 발화돼 불고, 그때도

그 가을 새 비레 가고 뭐 허레 가고 그 저 집, 밧듸덜 가 분 때 불이 일어나 부니까.(그러니까 급사보고 이제 숯 이거 뭐 하라고 하니까 급사가 숯을 묻었는데 그거 불 다 꺼진 사무실로 갖다 놔뒀더니 그게 꺼진 게 아니라 그게 발화돼 버리고, 그때도 그 가을 띠 베러 가고 무엇 하러 가고 그 저 집, 밭에들 가 버린 때 불이 일어나 버리니까.)

104026 @ 음.(음.)

104026 #2 그때 사고가 난 거라.(그때 사고가 난 거야.)

104026 @ 게난 숫 구당은에 헌 거라마씨?(그러니까 숯 굽다가 한 거네요?)

104026 #2 숫 구원에 저 완전히 땔감으로 난로 옆의 앚다 놓을 건디 요디 아져당 놔뒷더니 그게 불이 일어나 분 거지.(숯 구워서 저 완전히 땔감으로 난로 옆에 갖다 놓을 건데 요기 가져다가 놔뒀더니 그게 불이 일어나 버린 거지.)

104026 @ 예에. 게난 이젠 삼춘네 아버지네는 숫 굽는 거를.(예에. 그러니까 이젠 삼촌네 아버지네는 숯 굽는 거를.)

104026 #2 숫을 구웟어. 나무헤다가 그 집에 가정에 사용헐라고 헤도 쪼그마헌 숫가마를 만들어서 삼일쯤 뒈면은 그 불태와 가지고 더퍼 놧당 삼일쯤 뒈면 숫이 뒈연 그때까지 불이 잇어.(숯을 구웠어. 나무해다가 그 집에 가정에 사용하려고 해도 조그마한 숯가마를 만들어서 삼일쯤 되면 그 불태워 가지고 덮어 놨다가 삼일쯤 되면 숯이 되어서 그때까지 불이 있어.)

104026 @ 아, 숫가마 허는 거를 보기도 헨마씨?(아, 숯가마 하는 거를 보기도 했어요?)

104026 #2 보기는 헷는데.(보기는 했는데.)

104026 @ 아, 그 숫가마는 어디서 만든 거라마씨?(아, 그 숯가마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104026 #2 아니, 자기 밧테 우연 같은 데서 요렇게 땅 파 가지고.(아니 자기 밭에 터앝 같은 데서 요렇게 땅 파 가지고.)

104026 @ 예.(예.)

104026 #2 이렇게 그 둥그렇게 나무 쌓아 놔 가지고 돌담 이렇게 헌다든가 흑으로 다 묻어 가지고 불부치면은.(이렇게 그 둥그렇게 나무 쌓아 놔 가지고 돌담 이렇게 한다든가 흙으로 다 묻어 가지고 불붙이면.)

104026 @ 으음.(으음.)

104026 #2 헤 가지고 불이 다 탄 거 닮으면 양쪽 구멍을 다 막아 불어.(해 가지고 불이 다 탄 거 같으면 양쪽 구멍을 다 막아 버려.)

104026 @ 예에.(예에.)

104026 #2 춤 불 탈 때는 저쪽 이쪽 불 잘 타게 헤 놓고 불 어느 정도 타기 시작허면은 구멍을 막아 가지고 허면은 그게.(참 불 탈 때는 저쪽 이쪽 불 잘 타게 해 놓고 불 어느 정도 타기 시작하면 구멍을 막아 가지고 하면은 그게.)

104026 @ 꺼지는 거.(꺼지는 거.)

104026 #2 멧 시간 뒈민 요것이 다 부뜰 것이다 헤 가지고 완전히 구멍 막혀 버린

다음에는 하루나 이틀 잇다가 그.(몇 시간 되면 요것이 다 붙을 것이다 해 가지고 완전히 구멍 막아 버린 다음에는 하루나 이틀 있다가 그.)

104026 @ 으음.(으음.)

104026 #2 보민 불이 어떤 땐 잇고 엇일 때는 불 잇는 건 물 주면서도 허고, 이 저 숫 헤영 밖에도 놔뒀다가 그거를 그 숫을 가지고 제사허젠 허면은 고기도 굽곡. 그것도 정성스레 그.(보면 불이 어떨 땐 있고 없을 때는 불 있는 건 물 주면서도 하고, 이 저 숯 해서 밖에도 놔뒀다가 그거를 그 숯을 가지고 제사하려고 하면 고기도 굽고. 그것도 정성스레 그.)

104026 @ 예에.(예에.)

104026 #2 숫을 사오는 게 아니라 정성스레 헤 놧다가 잘 쌓아 놧다가.(숯을 사오는 게 아니라 정성스레 해 놨다가 잘 쌓아 놨다가.)

104026 @ 으음.(으음.)

104026 #2 약 같은 거 딸릴 때도 그 가마 저 숫 헤 가지고 약탕관에 놔 가지고 약도 딸렷고.(약 같은 거 달일 때도 그 가마 저 숯 해 가지고 약탕관에 놔 가지고 약도 달였고.)

104026 @ 음.(음.)

104026 #2 제사 땐 뒈면은 요만헌 화로에 똑 그 불 피와 놔 가지고. 그 다 정성 들여서 옛날덜은 그거를 고기도 굽고 그 헌 거지.(제사 땐 되면 요만한 화로에 똑 그 불 피워 놓아 가지고. 그 다 정성 들여서 옛날들은 그거를 고기도 굽고 그 한 거지.)

104026 @ 으음, 미리 숫 구워 노는 게 그 제사할 때 쓸려고?(으음, 미리 숯 구워 놓는 게 그 제사할 때 쓰려고?)

104026 #2 그런데 사용헐라고 허고 무슨 약 같은 거 중요헌 거 딸리고 옛날 약탕관이라고 다 집집마다 그 무슨 소엽 같은, 소엽이라는 그 뭐 약초 이름인데.(그런데 사용하려고 하고 무슨 약 같은 거 중요한 거 달이고 옛날 약탕관이라고 다 집집마다 그 무슨 소엽 같은, 소엽이라는 그 뭐 약초 이름인데.)

104026 @ 예, 예. 소엽.(예, 예. 소엽.)

104026 #2 소엽 그 뭐 집에덜토 그런 것덜은 감기 때문에 다덜 집에 재배덜을 헷어.(소엽 그 뭐 집에들도 그런 것들은 감기 때문에 다들 집에 재배들을 했어.)

104026 @ 예.(예.)

104026 #2 박하 소엽 박하는 설사.(박하 소엽 박하는 설사.)

104026 @ 음.(음.)

104026 #2 이 저 음식 먹어, 잘못 먹엇다든가 급체를 걸렷을 때는 박하물을 헤서 먹으면은 토해 불곡 뭐허면은 한글허다 헤 가지고 박하가 집집마다 다 잇엇는디 이젠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렷어.(이 저 음식 먹어, 잘못 먹었다든가 급체를 걸렸을 때는 '박하물'을 해서 먹으면 토해 버리고 뭐하면 한가하다 해 가지고 박하가 집집마다 다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

104026 @ 예, 게믄 소엽이렌 헌 거는?(예, 그러면 소엽이라고 한 거는?)

104026 #2 저 소엽이엔 헌 게 그 이디 저 무슨.(저 소엽이라고 한 게 그 여기 저 무슨.)

104026 @ 깻입?(깻잎?)

104026 #2 깻입 비슷헌 건데 잔잔헌 빨그스름헌 건데 그거는 다 집집 이 저 올레 그런 디 담구멍에도 이렇게 씨 뿌려 가지고 싱거 가지고 이 가을 뒈면은 거 다 여꺼 가지고 다 저 집에 들아메영 놔두고. 그 약제로.(깻잎 비슷한 건데 자잘한 빨그스름한 건데 그거는 다 집집 이 저 오래 그런 데 담구멍에도 이렇게 씨 뿌려 가지고 심어 가지고 이 가을 되면 거 다 엮어 가지고 다 저 집에 매달아 놔두고. 그 약제로.)

104026 @ 예에.(예에.)

104026 #2 그런 거 무슨 두레기 요런 거 같은 것도 말리어서 약제로.(그런 거 무슨 하눌타리 요런 거 같은 것도 말리어서 약제로.)

104026 @ 으음.(으음.)

104026 #2 보통은 감기 걸릴 때는 그런 걸 헤서 먹엇고.(보통은 감기 걸릴 때는 그런 걸 해서 먹었고.)

104026 @ 으음.(으음.)

104026 #2 박하 같은 거는 그저 박하가 우린 건조허는 거 안 봣고. 그거는 뿔리라도 헤 가지고 물을 헤 가지고 박하 심어난 자리라도 가서 박하 뿔리는 겨울에도 파면 잇으니까.(박하 같은 거는 그저 박하가 우린 건조하는 거 안 봤고. 그거는 뿌리라도 해 가지고 물을 해 가지고 박하 심었던 자리라도 가서 박하 뿌리는 겨울에도 파면 있으니까.)

104026 @ 예.(예.)

104026 #2 그 물 헤 가지고 멕이고 여름에는 박하가 이파리 막 왕성허니까 그 물을 뭐 헴젠 허면은 우선 그거 멕이라, 박하물 헤영 멕이라 헤 가지고.(그 물 해 가지고 먹이고 여름에는 박하가 이파리 아주 왕성하니까 그 물을 뭐 하고 있다고 하면 우선 그거 먹여라, '박하물' 해서 먹여라 해 가지고.)

104026 @ 아아, 게민 소엽은 씨로 허는 거라마씨? 아니면?(아아, 그러면 소엽은 씨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4026 #2 것도 씨. 씨로, 씨를 헹 놔두면 이파리.(것도 씨. 씨로, 씨를 해서 놔두면 이파리.)

104026 @ 음.(음.)

104026 #2 이파리를 건조헤 가지고 깻잎 닮은 거 말르면 이렇게 메달려 놔뒀다가 그 물을 딸려가지고 먹으면은 감기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뭐.(이파리를 건조해 가지고 깻잎 같은 거 마르면 이렇게 매달아 놔뒀다가 그 물을 달여 가지고 먹으면 감기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뭐.)

104026 @ 음.(음.)

104026 #2 소엽에 무슨 뭐 옛날에 한약 그 뭐에는 새뿔리도 놓고 뭣도 놓고.(소엽에 무슨 뭐 옛날에 한약 그 뭐에는 띠 뿌리도 놓고 뭣도 놓고.)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2 가시새엔 헌 거는.(파리풀이라고 한 거는.)

104026 @ 예.(예.)

104026 #2 그것도 소엽 비슷헌 건데 건 들판에 강 많이 잇는데.(그것도 소엽 비슷한 건데 건 들판에 가서 많이 있는데.)

104026 @ 음.(음.)

104026 #2 그거는 온몸 가려울 때 나 피부에 물 질질헐 때는 그거를 가시새엔 헌 것도 말리엇다가.(그거는 온몸 가려울 때 나 피부에 물 질질할 때는 그거를 파리풀이라고 한 것도 말리었다가.)

104026 @ 음.(음.)

104026 #2 저 불에 쏠아 가지고 건 새카망헌 거주.(저 불에 살라 가지고 건 새카만 거지.)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2 그거 발르면은 피부병 좋는다 헤 가지고 그런 것도 허고 옛날은 조벤약으로.(그거 바르면 피부병 좋다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옛날은 조제약으로.)

104026 @ 예, 다 조벤약으로예, 맞아예. 게난 다 자기대로 다 만들멍들.(예, 다 조제약으로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대로 다 만들면서들.)

104026 #2 예.(예.)

104026 @ 아까 그 두레기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아까 그 하눌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

104026 #2 두레기는 그거 저 뭐 말리면 씨영 뭐영 말랑은에 허면 그것도 무슨 감기나 무신 천식 같은 거 헐 때는 걸 딸려서 그 물을 마신다고 헷는데.(하눌타리는 그거 저 뭐 말리면 씨랑 뭐랑 말라서 하면 그것도 무슨 감기나 무슨 천식 같은 거 할 때는 걸 달여서 그 물을 마신다고 했는데.)

104026 @ 음, 이렇게 동글랑헌 걸.(음, 이렇게 동그란 걸.)

104026 #2 말려 잇으면은 가을뒈면 따 가지고 저 자연히 그대로 말라 가지고.(말려 있으면 가을되면 따 가지고 저 자연히 그대로 말라 가지고.)

104027 @ 음, 그렇게 이제 하고예. 아까 그 쉐촐이나 이런 거 비멍 잊어불지 못헌 경험도 잇어마씨?(음, 그렇게 이제 하고요. 아까 그 소꼴이나 이런 거 베면서 잊어버리지 못한 경험도 있어요?)

104027 #2 그런 거는 없고.(그런 거는 없고.)

104026 @ 아.(아.)

104026 #2 벌이나 쐬민 그 그런 거 혼 번 무신 뭐허주. 이 낫질허면서 벌은 잘 쏘아.(벌이나 쏘이면 그 그런 거 한 번 무슨 뭐하지. 이 낫질하면서 벌은 잘 쏘여.)

104027 @ 음.(음.)

104027 #2 이 벌이라는 게 움직거리는 자리에 와 가지고 그게 뭐허고. 꼭 얼굴에 왕 잘 쏘와. 그 낫질헤 보면은.(이 벌이라는 게 움직거리는 자리에 와 가지고 그게 뭐하고. 꼭 얼굴에 와서 잘 쏘아.)

104027 @ 예, 예. 옛날은 벌도 하나신디 이제는.(예, 예. 옛날은 벌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104027 #2 아, 지금도 만허여. 지금도 풀밧듸 가면 벌이 많아.(아, 지금도 많아. 지금도 풀밭에 가면 벌이 많아.)

104027 @ 숫 굽거나 땔감 준비헐 때 놈의 밧듸 강은에 허당 욕 들거나 이런 것도 엇수가?(숯 굽거나 땔감 준비할 때 남의 밭에 가서 하다가 욕 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104027 #2 그런 것덜은 엇고.(그런 것들은 없고.)

사냥

104028 @ 그런 건 없고예? 삼춘 혹시 사농허레도 뎅겨 봅디가?(그런 건 없고요? 삼촌 혹시 사냥하러도 다녀 봅디까?)

104028 #2 아, 우리 사농허레 다른 사름덜은 다녓자 그건 안 헤 보고.(아, 우리 사냥하러 다른 사람들은 다녔어도 그건 안 해 보고.)

104029 @ 음. 꿩 사농. 꿩 잡으레도.(음. 꿩 사냥. 꿩 잡으러도.)

104029 #2 꿩 잡으레도 안 뎅기고.(꿩 잡으러도 안 다니고.)

104030 @ 여기 옛날에 뭐 노루 사냥이여 이런 말은 들어 봅디가? 꿩 사농은 어떤 헌덴 허는 거우과? 건.(여기 옛날에 뭐 노루 사냥이다 이런 말은 들어 봅디까? 꿩 사농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건.)

104030 #2 꿩은 꿩 사농허는 거 우리 구경만 헷주. 개를 데리고 가서.(꿩은 꿩 사냥하는 거 우리 구경만 했지. 개를 데리고 가서.)

104030 @ 예.(예.)

104030 #2 요소요소에 사람이 사.(요소요소에 사람이 서.)

104030 @ 음.(음.)

104030 #2 사고, 요쪽에도 개 잇고 저쪽에도 개 데기로 가서 여기서 날르면서 저기 가는 꿩이 막 흔 그게 이벡 메다 삼벡 메다 내려가민 그걸 잡을 수 없으니까 저쪽에서 망보는 사름이 어드레 감쩌 허민 거기서 개 데리고 그레 강 앚앙 꿩을 지칠 때 개가 강 물으면 잡는 건데 그게 꿩 사농이라.(서고, 요쪽에도 개 있고 저쪽에도 개 데기로 가서 여기서 날면서 저기 가는 꿩이 아주 한 그게 이백 미터 삼백 미터 내려가면 그걸 잡을 수 없으니까 저쪽에서 망보는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다 하면 거기서 개 데리고 그리로 가서 앉아서 꿩을 지칠 때 개가 가서 물으면 잡는 건데 그게 꿩 사냥이야.)

104030 @ 음, 게난 게믄 꿩 사농 가젠 허면은 그 개를 꼭?(음, 그러니까 그러면 꿩 사냥 가려고 하면 그 개를 꼭?)

104030 #2 개를 교육 잘 시긴 개들이 잇어야 뒈고.(개를 교육 잘 시킨 개들이 있어야 되고.)

104030 @ 음.(음.)

104030 #2 무는. 이디는 많지는 아녀. 저 수산[240] 난산[241]덜은 웃드르[242] 사름덜이 많이 허지 여기 헤변 사름덜은.(무는. 여기는 많지는 않아. 저 수산 난산들은 '웃드르' 사람들이 많이 하지 여기 해변 사람들은.)

104030 @ 아아.(아아.)

104030 #2 잘 허지 안허여.(잘 하지 않아.)

104030 @ 예, 예. 아무래도.(예, 예. 아무래도.)

104030 #2 여기는 바다에 가 가지고 고기 낚는 걸 취미허지 꿩 사농은 혼두 사름 그저.(여기는 바다에 가 가지고 고기 낚는 걸 취미하지 꿩 사냥은 한두 사람 그저.)

104030 @ 맞아예, 예.(맞아요, 예.)

104030 #2 웃드르 사름들은 가 가지고 접이나 마찬가지로 강 다 모다들엉 허민 그거 잡으면은 뭐 나누곡 뭐 허곡 그치룩 헤 가지고 그걸 허고. 여기는 틈나민은 바다 물때 뒈민 고기 나끄레 가곡 뭐 허레 가곡 보말 잡으레 가고. 그걸 아녀도 할 일이 많으니까.('웃드르' 사람들은 가 가지고 계나 마찬가지로 가서 다 모여들어서 하면 그거 잡으면 뭐 나누고 뭐 하고 그처럼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여기는 틈나면 바다 물때 되면 고기 낚으러 가고 뭐 하러 가고 고둥 잡으러 가고. 그걸 않아도 할 일이 많으니까.)

104031 @ 예, 맞아예. 여기는 바당 동네니까. 혹시 지달이엔 헤영 들어 봅디가? 오로? 지달이?(예, 맞아요. 여기는 바다 동네니까. 혹시 오소리라고 해서 들어 봅디까? '오로'? '지달이'?)

104031 #2 아, 지달이엔 헌 거는게 뭐 잇지. 여기 뭘 하느냐 허면 시카만, 이 고양이 비슷헌 건데.(아, 오소리라고 한 거는 뭐 있지. 여기 뭘 하느냐 하면 시커먼, 이 고양이 비슷한 건데.)

104031 @ 예.(예.)

104031 #2 이 우리 과수원 ᄀᆞ뜬 디 피헤를 많이 줫지.(이 우리 과수원 같은 데 피해를 많이 줬지.)

104031 @ 아, 지금도 잇어마씨?(아, 지금도 있어요?)

104031 #2 지금도 만허여. 지금도 이 미깡나무도 사람이 따 먹은 거라.(지금도 많아. 지금도 이 귤나무도 사람이 따 먹은 거야.)

104031 @ 으으.(으으.)

104031 #2 이렇게 나무 잇으면은 껍질 다 벳겨 가지고 먹엉 다 깨끗허게 깔아놔. 지달이.(이렇게 나무 있으면 껍질 다 벗겨 가지고 먹어서 다 깨끗하게 깔아놔. 오소리.)

104031 @ 지달이가?(오소리가?)

104031 #2 어어, 지달이가.(어어, 오소리가.)

104031 @ 으.(으.)

104031 #2 나도 우리 요 과수원에 아 이거 웨 저 웨딴 한쪽 구석에만. 거기는 막.(나도 우리 요 과수원에 아 이거 왜 저 외딴 한쪽 구석에만. 거기는 막.)

---

240) '수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를 말한다.
241) '난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를 말한다.
242)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마을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해안가에 있는 마을은 '알드르'라고 한다.

104031 @ 으음.(으음.)

104031 #2 싱꼴[243]이여 무슨 숲, 굴이 많은 디라이.('싱꼴'이다 무슨 숲, 굴이 많은 데야.)

104031 @ 예, 예.(예, 예.)

104031 #2 지달이 살 수 잇는. 웨 이거 아이덜이 이까지 와서 이 미깡을 여기서 따 먹엇는가 허연.(오소리 살 수 있는. 왜 이거 아이들이 이까지 와서 이 귤을 여기서 따 먹었는가 해서.)

104031 @ 음.(음.)

104031 #2 이상허다, 이상허다, 이상허다. 그게 미깡 열기 전에 보면에 내가 그 농사를 짓기 위헤서 보릿대를 갖다 그 과수원 밑에 놓고 막 깔아나고 허니까 거기 이 지렁이가 많이 생겻어.(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게 귤 열기 전에 보면 내가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릿대를 갖다 그 과수원 밑에 놓고 막 깔았었고 하니까 거기 이 지렁이가 많이 생겼어.)

104031 @ 아, 예, 예.(아, 예, 예.)

104031 #2 밧이 좋아져 가니까.(밭이 좋아져 가니까.)

104031 @ 예, 예, 예.(예, 예, 예.)

104031 #2 젤 처음은 그디 듬북제[244]를 들엿다가 그거 나쁘다고 허니까 그걸 다 제초헤 둰 보릿대를 다 소 안 길루고 허니까 다 과수원에 갖당 이만큼 깔아 노니까.(젤 처음은 거기 '듬북제'를 들였다가 그거 나쁘다고 하니까 그걸 다 제초해 두고 보릿대를 다 소 안 기르고 하니까 다 과수원에 갖다가 이만큼 깔아 놓으니까.)

104031 @ 예.(예.)

104031 #2 그 깔아난 밑에는 지렁이가 많이 셍겨.(그 깔았던 밑에는 지렁이가 많이 생겨.)

104031 @ 음.(음.)

104031 #2 우글우글헷어. 게니까 그 지달이는 지렁이를 좋아허는 거라.(우글우글했어. 그러니까 그 오소리는 지렁이를 좋아하는 거야.)

104031 @ 아아.(아아.)

104031 #2 이 과수원 이 나뭇대 이 밑에 것도 다 파.(이 과수원 이 나뭇단 이 밑에 것도 다 파.)

104031 @ 음.(음.)

104031 #2 땅을 이렇게 다 파. 그거 나도 고셍을 허연 하도 답답허연 이걸 잡지 못허연 *** 약을 타고 흔번은 시장 닭발을 다 헤당 약을 묻혀도 안 먹엇는데 어떻게 그거 헷는지 한 머리가 죽엇어. 이만이 헌 거.(땅을 이렇게 다 파. 그거 나도 고생을 해서 하도 답답해서 이걸 잡지 못해서 *** 약을 타고 한번은 시장 닭발을 다 해다가 약을 묻혀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그거 했는지 한 마리가 죽었어. 이만큼 한 거.)

---

243) '싱꼴'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지경 이름의 하나다.

244) '듬북제'는 듬북을 태워서 나온 재를 말한다.

104031 @ 음.(음.)
104031 #2 죽언. 그게 죽은 지가 오랜.(죽었어. 그게 죽은 지가 오랬어.)
104031 @ 예, 예.(예, 예.)
104031 #2 완전히 썩은 다음에.(완전히 썩은 다음에.)
104031 @ 예, 예.(예, 예.)
104031 #2 발견. 나무 밑에서 발견헷는데, 그게 여기서도 지달이 잡는 사람 잇고, 그 지달이 잡는 개가 잇는데.(발견. 나무 밑에서 발견했는데, 그게 여기서도 오소리 잡는 사람 있고, 그 오소리 잡는 개가 있는데.)
104031 @ 음.(음.)
104031 #2 요거는 구멍을 한 군데만 놓는 게 잇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구멍허고 나갈 구멍이 이거.(요거는 구멍을 한 군데만 놓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구멍하고 나갈 구멍이 이거.)
104031 @ 영리허구나.(영리하구나.)
104031 #2 이 짐승은 영리헌 모양이라.(이 짐승은 영리한 모양이야.)
104031 @ 음.(음.)
104031 #2 거기서 연기로 허민 딴 딜로 가서 나가 버리지 글로 나오질 않은 셍이라.(거기서 연기로 하면 딴 델로 가서 나가 버리지 그리로 나오질 않은 모양이야.)
104031 @ 예.(예.)
104031 #2 게연 지달이 나 보고. 죽은 걸 한번 보고.(그래서 오소리 나 보고. 죽은 걸 한번 보고.)
104031 @ 음.(음.)
104031 #2 피헤를 많이 입어. 나무 흔 멧 개는 완전히 이게 한 우리 밧듸만 아니라 다른 밧데도 이 울창헌 숲 잇는 곳에는 지달이덜이 많이 잇어.(피해를 많이 입어. 나무 한 몇 개는 완전히 이게 한 우리 밭에만 아니라 다른 밭에도 이 울창한 숲 있는 곳에는 오소리들이 많이 있어.)
104031 @ 음. 게민 옛날도 이 동네 지달이 잡으레 다니는 사름이 잇어난?(음. 그러면 옛날도 이 동네 오소리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104031 #2 난산리, 난산리 사름이 개를 좋은 개라야 뒈여. 지달이 잡는 개는. 지달이 저거 비싼 거주게.(난산리, 난산리 사람이 개를 좋은 개어야 되어. 오소리 잡는 개는. 오소리 저거 비싼 거지.)
104031 @ 아아.(아아.)
104031 #2 저 보신 뒈는 거라 노니까.(저 보신 되는 거여 놓으니까.)
104031 @ 예에.(예에.)
104031 #2 그거를 허면은 소소헌 사름은 사 먹지도 못헤여.(그거를 하면 소소한 사람은 사 먹지도 못해.)
104031 @ 으음. 경 허영 허고. 지달이피도 저기 헌덴 헙니까? 지달이털.(으음. 그렇게 해서 하고. 오소리피(皮)도 저기 한다고 합니까? 오소리털.)

104031 #2 이레 옵서.(이리 오십시오.)
(잡음)
104031 @ 지달이털. 옛날에 뭐.(오소리털. 옛날에 뭐.)
104031 (잡음)
104031 #2 와 갈 거우다, 이제.(와 갈 겁니다, 이제.)
104032 @ 족제비?(족제비?)
104032 #2 족제비덜은 여기 뭐 잇이난에.(족제비들은 여기 뭐 있으니까.)
104032 @ 족제비 덧 노레덜 뎅겨낫지예?(족제비 덫 놓으러들 다녔었지요?)
104032 #2 아니.(아니.)
104032 @ 안 다녀봔?(안 다녀봤어요?)
104032 #2 그런 거는 안 다녀보고.(그런 거는 안 다녀보고.)
104032 @ 족제비 잡는 사름도 잇지 안헙니까?(족제비 잡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생략)
104032 #2 아침에 비 와 부난.(아침에 비 와 버리니까.)
104032 @ 아아.(아아.)
(생략)
104032 @ 게민 족제비 나오민 비 온덴 헙니까? 옛날에.(그러면 족제비 나오면 비 온다고 합니까? 옛날에.)
104032 #2 족제비 돌아뎅기민 오늘이나 내일 비 오켜.(족제비 돌아다니면 오늘이나 내일 비 오겠다.)
104033 @ 아아, 그런 식으로 허고. 삼춘은 사농헤난 경험은 없으니까예?(아아, 그런 식으로 하고. 삼촌은 사냥했던 경험은 없으니까요?)
104033 #2 사농은 헌 경험은 없고.(사냥은 한 경험은 없고.)
104033 @ 예.(예.)
104033 #2 옛날 어릴 때 그 새 잡는 거는.(옛날 어릴 때 그 새 잡는 거는.)
104033 @ 아, 예, 예.(아, 예, 예.)
104033 #2 생이테기[245] 요렇게 헤영 만들어 가지고.('생이테기' 요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104033 @ 예.(예.)
104033 #2 이제 어떻게 허느냐 하면 겨울 눈 막 온 때.(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겨울 눈 많이 올 때.)
104033 @ 예.(예.)
104033 #2 눈 많이 올 때는 가 가지고 그디 이렇게 눈을 치와 두고 그 테기를 톡톡 놓면은.(눈 많이 올 때는 가 가지고 거기 이렇게 눈을 치워 두고 그 덫을 톡톡 놓으면.)
104033 @ 음.(음.)

245) '셍이테기'는 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활대에 그물을 장치하고 노끈으로 잡아당겨서 그물 안에 새가 걸려들게 만든 기구다.

104033 #2 놓아두고 저 추운 디 저쪽에 강 앚앙 잇으민 새덜이 그때는 새가 많이 잇어.(놓아두고 저 추운 데 저쪽에 가서 앉아서 있으면 새들이 그때는 새가 많이 있어.)

104033 @ 음.(음.)

104033 #2 뭐 총데기여 뭐 속새[246]여 이런 새덜이 잇는데 그거를 그 이렇게 치와 노민 새들이 와 가지고 그걸 그디 왕 앉아서 거 곡식 이 서숙 조.(뭐 종다리다 뭐 '속새'다 이런 새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이렇게 치워 놓으면 새들이 와 가지고 그걸 거기 와서 앉아서 거 곡식 이 서숙 조.)

104033 @ 예.(예.)

104033 #2 조를 이렇게 매달려 논 걸 왕 톡허게 건드리면 셍이가 잽히는 거라.(조를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걸 와서 톡하게 건드리면 새가 잡히는 거야.)

104033 @ 음.(음.)

104033 #2 그렇게 새 잡아 가지고 그거 뭐 장만헤영 꾸워도 먹고 집에 와 가지고 반찬도 하고 그렇게 허고. 허고 또 옛날엔 물총이라는 거 잇지 아녀이.(그렇게 새 잡아 가지고 그거 뭐 장만해서 구워도 먹고 집에 와 가지고 반찬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하고 또 옛날엔 말총이라는 거 있지 않아.)

104033 @ 예, 예, 예.(예, 예, 예.)

104033 #2 그 총 헤 가지고 요렇게 코를 다 만들어.(그 총 해 가지고 요렇게 고를 다 만들어.)

104033 @ 음.(음.)

104033 #2 만들어 가지고 마당이나 이 집 마당 앞에 이렇게 저 곤데곤데 그 정지헤 놔두면 그 새덜이 거기 왕 뭐 잇으면 왕 찌꺼리 잇으면 막 먹다가.(만들어 가지고 마당이나 이 집 마당 앞에 이렇게 저 군데군데 그 정지해 놔두면 그 새들이 거기 와서 뭐 있으면 와서 찌꺼기 있으면 막 먹다가.)

104033 @ 음.(음.)

104033 #2 후허게 내리허면 거기 걸려 가지고 잇어.(후하게 내리하면 거기 걸려 가지고 있어.)

104033 @ 음.(음.)

104033 #2 겨민 그축 헤서도 새를 잡고.(그러면 그처럼 해서도 새를 잡고.)

104033 @ 아, 물총으로 헤 갖고예?(아, 말총으로 해 갖고요?)

104033 #2 물총 헤 가지고 이렇게 고리 만들엉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말총 해 가지고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104033 @ 여러 군데 놔 둬.(여러 군데 놔 둬.)

104033 #2 여러 군데 놩 대막댕이나 뭘 헤 가지고 그 무꺼 놔두면은 새라 헤도 날아가지 못헤 걸리면은 거기서 파닥거리게끔 그디.(여러 군데 놔서 대막대기나 뭘 해 가지고 그 묶어서 놔두면 새라 해도 날아가지 못해 걸리면 거기서 파닥거리게끔 거기.)

104033 @ 음.(음.)

246) '속새'는 새의 일종으로, 예전에 새덫을 놓아서 잡을 정도로 흔한 새였다.

104033 #2 조정헤 가지고 그디 서숙 찌꺼리 같은 거 던져 내 불민 새덜이 막 모여들어.(조정해 가지고 거기 서숙 찌꺼기 같은 거 던져 내 버리면 새들이 막 모여들어.)

104033 @ 예.(예.)

104033 #2 그렇게 헤서도 이제 새도 잡는 게 잇고 드르에 놔서 저 음지 같은 데 눈 막 올 때는 그런 디 강 헌 거는 우리 흔 멧 년 헤 봣주.(그렇게 해서도 이제 새도 잡는 게 있고 들에 놔서 저 음지 같은 데 눈 많이 올 때는 그런 데 가서 한 거는 우리 한 몇 년 해 봤지.)

104033 @ 예, 그 삼춘, 그거 헐 때 아까 이 곤데곤데 영 노는 이 기구예. 새 잡을 때.(예, 그 삼촌, 그거 할 때 아까 이 군데군데 이렇게 놓는 이 기구요. 새 잡을 때.)

104033 #2 생이테기.('셍이테기'.)

104033 @ 생이?(새?)

104033 #2 테기, 테기.('테기', '테기'.)

104033 @ 셍이테기렌 헤마씨?('셍이테기'라고 해요?)

104033 #2 으.(으.)

104033 @ 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우과?(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104033 #2 그건 그물 이렇게 헤 가지고 그거는 활같이 이렇게 헤서.(그건 그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는 활같이 이렇게 해서.)

104033 @ 그물을 요렇게? 예.(그물을 요렇게? 예.)

104033 #2 요거는 나무고 요 안네는 그물이고.(요거는 나무고 요 안에는 그물이고.)

104033 @ 이거는 나무하고 이거는 그물.(이거는 나무하고 이거는 그물.)

104033 #2 그물 쒸와서.(그물 씌워서.)

104033 @ 이렇게 그물 씌왕예?(여기에 그물 씌워서요?)

104033 #2 씌우고 여기는 활대라고 헤 가지고 이거를.(씌우고 여기는 활대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104033 @ 활대.(활대.)

104033 #2 활같이 이렇게 헤 가지고 노끗 두 겹으로 헤서 이걸 막 데와 가지고 놓면은.(활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노끈 두 겹으로 해서 이걸 막 꼬아 가지고 놓으면.)

104033 @ 예.(예.)

104033 #2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헷당 탁 더퍼지게시리 끈이 뒈는 거라이.(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했다가 탁 덮어지게끔 끈이 되는 거야.)

104033 @ 예, 예.(예, 예.)

104033 #2 경 허면은 여기 새가 잽히는 거. 게민 한 마리밖에 안 잡혀 새는.(그렇게 하면 여기 새가 잡히는 거. 그러면 한 마리밖에 안 잡혀 새는.)

104033 @ 그러면 나무로 헤 갖고 이거를 영 헤근에 고정헹 놔두는 거구나예?(그러면 나무로 해 갖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놔두는 거군요?)

104033 #2 하나는 활대, 활대는 나무고.(하나는 활대, 활대는 나무고.)

104033 @ 이렇게 헌 거 나무?(이렇게 한 거 나무?)

104033 #2 요기는 노끈이라. 노끈이 두 줄, 두 줄로 허는 거라.(요기는 노끈이야. 노끈이 두 줄, 두 줄로 하는 거야.)

104033 @ 이렇게 헤 가지고마씨?(이렇게 해 가지고요?)

104033 #2 이걸로 여기 끼우는 거라. 여기 끼와서 감으면은.(이걸로 여기 끼우는 거야. 여기 끼워서 감으면.)

104033 @ 예.(예.)

104033 #2 자연히 스프링 식으로 덮어지게 뒀어.(자연히 스프링 식으로 덮어지게 됐어.)

104033 @ 음.(음.)

104033 #2 경 허민 요기는?(그렇게 하면 요기는?)

104033 @ 어떵 허연 들어가는 거우과?(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104033 #2 아니, 여기가 이제 요거 활대 이렇게 뒀으니까.(아니, 여기가 이제 요거 활대 이렇게 됐으니까.)

104033 @ 예.(예.)

104033 #2 여기, 활대 요기는 이 서, 조나 뭐를 요만큼 달아매고 요.(여기, 활대 요기는 이 서, 조나 뭐를 요만큼 달아매고 요.)

104033 @ 예.(예.)

104033 #2 요기서 줄을 이렇게 헤서 요 조코고리에 요렇게 달린 걸 이제 뗑겨져서 닫으니까 요 줄이 여기 와서 새가 톡 건드리면.(요기서 줄을 이렇게 해서 요 조이삭에 요렇게 달린 걸 이제 당겨져서 닫으니까 요 줄이 여기 와서 새가 톡 건드리면.)

104033 @ 음.(음.)

104033 #2 요기 이레 떨어져 불고 요거는 새가 덮어지면서 이디 덮어지게 뒌 거지.(요기 이리로 떨어져 버리고 요거는 새가 덮어지면서 여기 덮어지게 된 거지.)

104033 @ 예, 예.(예, 예.)

104033 #2 게민 요거 흔 머리 잡는 거.(그러면 요거 한 마리 잡는 거.)

104033 @ 예, 예.(예, 예.)

104033 #2 게난 이 사이를 돌멩이 두 개를 톡허게 놔 가지고.(그러니까 이 사이를 돌멩이 두 개를 톡하게 놔 가지고.)

104033 @ 예.(예.)

104033 #2 이제 움직거리지 못허게끔.(이제 움직거리지 못하게끔.)

(전화 잡음)

104033 @ 여기는 이제 노끗으로 두 줄 이렇게 놓는 거라예?(여기는 이제 노끈으로 두 줄 이렇게 놓는 거네요?)

104033 #2 음.(음.)

104033 @ 게믄.(그러면.)

104033 #2 이꺼지 노끗으로 헌 거라. 노끗으로 헹 이렇게 허면은 자동으로 그거.(이까지 노끈으로 한 거야. 노끈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거.)

104033 @ 올아 아정 잇는 거 아니라예?(열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104033 #2 게난 이거 감아 잇으니까 노끗을 이렇게 데왓당 이렇게 허면은 더퍼지게끔 뭰 거라. 이 노끗 두 줄을 허는 게 요 사이 이렇게 무끈 게 이게 덮어졋당.(그러니까 이거 감아 있으니까 노끈을 이렇게 꼬아다가 이렇게 하면 덮어지게끔 된 거야. 이 노끈 두 줄을 하는 게 요 사이 이렇게 묶은 게 이게 덮어졌다가.)

104033 @ 그물을 영 말앙은에 영.(그물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104033 #2 아, 그물 마는 게 아니고. 이 구물을 이렇게 나무에 노끗으로 이렇게 여끼는 거라.(아, 그물 마는 게 아니고. 이 그물을 이렇게 나무에 노끈으로 이렇게 엮는 거야.)

104033 @ 예.(예.)

104033 #2 여껴서 요 가운데 그물에.(엮어서 요 가운데 그물에.)

104033 @ 곡석.(곡식.)

104033 #2 그 곡식.(그 곡식.)

104033 @ 곡석?(곡식?)

104033 #2 하나 조를 하나 달곡 여기 요 대에 이 나뭇대에 줄을 이렇게.(하나 조를 하나 달고 여기 요 대에 이 나뭇단에 줄을 이렇게.)

104033 @ 음.(음.)

104033 #2 허면은 그.(하면은 그.)

104033 @ 줄 영 허영 줄 잡아뎅겨 불믄?(줄 이렇게 해서 줄 잡아당겨 버리면?)

104033 #2 줄이 이렇게 허믄 꼭바로 섯다가.(줄이 이렇게 하면 똑바로 썼다가.)

104033 @ 예.(예.)

104033 #2 그 곡식에 이렇게 끼와지믄 바로 섯다가 그거 뗑기면은 이제 덮어지게 뭰.(그 곡식에 이렇게 끼워지면 바로 섰다가 그거 당기면 이제 덮어지게 됐어.)

104033 @ 이렇게 뒈게.(이렇게 되게.)

104033 #2 반대로.(반대로.)

104033 @ 반대로 이렇게 헹 덮어지게시리 헹예?(반대로 이렇게 해서 덮어지게끔 해서요?)

104033 #2 이렇게 뭰 거라. 덮어지게.(이렇게 된 거야. 덮어지게.)

104033 @ 만들기를?(만들기를?)

104033 #2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기를.(만들기를. 그렇게 만들기를.)

104033 @ 그걸 셍이테기렌 허는 거예?(그걸 '셍이테기'라고 하는 거요?)

104033 #2 셍이테기.('셍이테기'.)

104033 @ 그런 식으로 헷어예. 알앗수다. 오늘랑 이까지 허쿠다예.(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104033 #2 아아.(아아.)

5. 바다일

(개인정보 생략)

105001 @ 예, 알앗수다예. 다 제주돗말로만 골아주는 거라예. 그러면 삼촌안테 물어보쿠다양. 바당에서 ᄒᆞ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잇어신고양?(예, 알았습니다. 다 제주도말로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05001 #1 바당에서 뭐 물질허는 거?(바다에서 뭐 물질하는 거?)

105001 @ 예게.(예.)

105001 #1 메역도 캐곡게 전복도 잡곡 소라도 잡곡 그냥 오분작도 잡곡 성게도 허곡 다 헷주. 바당에 거 다 헷주게.(미역도 캐고 전복도 잡고 소라도 잡고 그냥 오분제기도 잡고 성게도 하고 다 했지. 바다에 거 다 했지.)

105001 @ 예. 그 이 바당에는 옛날에 듬북이영 감태영도 나마씨?(예. 그 이 바다에는 옛날에 듬북이랑 감태랑도 나요?)

105001 #1 으, 듬북, 감태, 노랑젱이, 실겡이[247] 다 나나십주. 고지기[248].(으, 듬북, 감태, 괭생이모자반, '실겡이' 다 났었습죠. '고지기'.)

105002 @ 예, 게문 그 듬북이영 감태영 조사헐 때는, 그 캐야 뒐 거 아니우꽈양?(예, 그러면 그 듬북이랑 감태랑 조사할 때는, 그 캐야 될 거 아닙니까요?)

105002 #1 음.(음.)

105002 @ 그 강 ᄌᆞ물앙 올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헹은에 ᄌᆞ물아난 거우과?(그 가서 캐서 올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캤던 겁니까?)

105002 #1 걸망[249]엔 헤근에 망사린디, 막 고망 막 홁게 만들앙양.('걸망'이라고 해서 망사린데, 아주 구멍 아주 굵게 만들어서요.)

105002 @ 예.(예.)

105002 #1 경 헹 그것에 담앙 오주게. 그것덜에.(그렇게 해서 그것에 담아서 오지. 그것들에.)

105002 @ 에, 그거는 공동작업 헤낫수가? 개인으로 허는 거우과?(에, 그거는 공동작업 했었습니까?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105002 #1 개인으로게.(개인으로.)

105002 @ 개인으로? 음.(개인으로? 음.)

105002 #1 그때 막 걸름이 그거난에. 농사짓는 걸름이.(그때 아주 거름이 그거니까. 농사짓는 거름이.)

105002 @ 예.(예.)

105002 #2 듬북이난.(듬북이니까.)

---

247) '실겡이'는 모자반의 일종이다.

248) '고지기'는 모자반의 일종이다. 말려서 밭의 거름으로 썼다.

249) '걸망'은 모자반 따위를 캐서 담는 그물주머니. 소라 따위의 해산물을 캐서 담는 그물주머니보다 구멍을 크게 만들었다.

105002 @ 예. 그 말 흔번 골아 봅서. 그 옛날 그 듬북 헤영은에 이제.(예. 그 말 한 번 말해 보십시오. 그 옛날 그 듬북 해서 이제.)

105002 #1 듬북 헤영 몰령은에 밧듸 강 끌앙 걸름이 그거라십주.(듬북 해서 말려서 밭에 가서 깔아서 거름이 그거였습죠.)

105002 @ 예.(예.)

105002 #1 으, 옛날에는. 요즘은 비료로 허주마는. 경 헤영 또 고지기는 통시에 도새기 질루는 돗통에.(으, 옛날에는. 요즘은 비료로 하지만. 그렇게 해서 또 '고지기'는 돼지우리에 돼지 기르는 돼지우리에.)

105002 @ 예.(예.)

105002 #1 돗통에 놔근에 보리찍 담아놩 거 쎅영 도새기가 막 사난 쎅여근에 그걸로 걸름허영 보리 갈곡, 보리 갈곡.(돼지우리에 놔서 보릿짚 담아놔서 거 썩혀서 돼지가 막 사니까 썩혀서 그걸로 거름해서 보리 갈고, 보리 갈고.)

105002 @ 음.(음.)

105002 #1 그거 걸름.(그거 거름.)

105002 @ 게믄 그 듬북 헐 때는 어느 철에 허는 거우꽝?(그러면 그 듬북 할 때는 어느 철에 하는 겁니까?)

105002 #1 듬북 헐 때 여름에.(듬북 할 때 여름에.)

105002 @ 예, 여름에.(예, 여름에.)

105002 #1 으, 여름에 헤사 흔 유월들에 그때 헤사 통시더레 문 시꺼다 놔야 그 고지기. 보리찍도 나곡 헤야.(으, 여름에 해야 한 유월에 그때 해야 돼지우리로 몽땅 실어다 놔야 그 '고지기'. 보릿짚도 나고 해야.)

105002 @ 아.(아.)

105002 #1 보리 장만허영.(보리 장만해서.)

105002 @ 거난 요즘 먹을 때는 일찍 허지 아녑니까양. 뭄 같은 거는양?(그러니까 요즘 먹을 때는 일찍 하지 않습니까요. 모자반 같은 거는요?)

105002 #1 ᄆᆞ음.(모자반.)

105002 @ 예.(예.)

105002 #1 ᄆᆞ음은 정이월에.(모자반은 정이월에.)

105002 @ 음, 건 정이월 허는데 듬북은 여름에 허는 거?(음, 건 정이월 하는데 듬북은 여름에 하는 거?)

105002 #1 음.(음.)

105002 @ 아, 감태도 헤난마씨?(아, 감태도 했었어요?)

105002 #1 감태 막 저 성산 감테공장 잇어낫주.(감탠 막 저 성산 감태공장 있었었지.)

105002 @ 예.(예.)

105002 #1 게난 감태공장에 받아가는 따문에 감태 ᄌᆞ물아나수다, 그때.(그러니까 감태공장에 받아가는 때문에 감태 캤었습니다, 그때.)

105002 @ 그때는 감탠 어느 때 ᄌᆞ무는 거우과?(그때는 감탠 어느 때 캐는 겁니까?)
105002 #1 감태도 그 오유월에, 여름에.(감태도 그 오뉴월에, 여름에.)
105002 @ 아아.(아아.)
105002 #1 칠월ᄁᆞ장 팔월ᄁᆞ장.(칠월까지 팔월까지.)
105002 @ 아, 게믄 그 듬북허고 감태허고 허는 거는 언제 적꺼지 헌 거 닮아마씨?(아, 그러면 그 듬북하고 감태하고 하는 거는 언제 적까지 한 거 같아요?)
105002 #1 감태는 팔월 추석 전에ᄁᆞ장은 허렌 딱 그 규정이 잇는디양.(감태는 팔월 추석 전에까지는 하라고 딱 그 규정이 있는데요.)
105002 @ 예.(예.)
105002 #1 경 헷인디 말 안 듣는 할망덜은 막 팔월그뭄ᄁᆞ장도 ᄌᆞ물곡.(그렇게 했는데 말 안 듣는 할머니들은 막 팔월그믐까지도 캐고.)
105002 @ 음.(음.)
105002 #1 경 헷수다게.(그렇게 했습니다.)
105002 @ 예.(예.)
105002 #1 게난 그 감태공장에서는 그걸로 공장에 시찰 간 보니까, 화약도 만들곡.(그러니까 그 감태공장에서는 그걸로 공장에 시찰 가서 보니까, 화약도 만들고.)
105002 @ 예.(예.)
105002 #1 걸로 이 모든 냉면에 뭐 라면에 뭣에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엇읍디다. 감태, 감태ᄀᆞ르로.(걸로 이 모든 냉면에 뭐 라면에 뭣에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습디다. 감태, 감태가루로.)
105002 @ 감태가루로.(감태가루로.)
105002 #1 감태가 ᄀᆞ르가 헤영허여, 밀ᄀᆞ르처럼.(감태가 가루가 하얘, 밀가루처럼.)
105002 @ 음.(음.)
105002 #1 막 가공헹 나오난.(막 가공해서 나오니까.)
105002 @ 그거 멧 년도까지 헷인고예?(그거 몇 년도까지 했을까요?)
105002 #1 거 끊어지건 디가 한 삼십년 더 뒛주.(거 끊어지건 데가 한 삼십년 더 됐지.)
105002 @ 음. 듬북 걸름 헤난 거는?(음. 듬북 거름 했던 거는?)
105002 #1 걸름 헤난 것도 경 뒈고.(거름 했던 것도 그렇게 되고.)
105002 @ 경 뒈고예?(그렇게 되고요?)
105002 #1 예.(예.)
105003 @ 여기는 아까 이제 소라렌 ᄀᆞᆯ안게마는.(여기는 아까 이제 소라라고 말하더니만.)
105003 #1 구젱기.(소라.)
105003 @ 예.(예.)
105003 #1 구젱기게.(소라.)
105003 @ 그거는 어떤 식으로 ᄌᆞ무는 거라마씨?(그거는 어떤 식으로 캐는 거예요?)

105003 #1 구젱기는.(소라는.)

105003 @ 음.(음.)

105003 #1 유월달 나민 산란기라 부난 저 금지헷당, 에 시월 일일부떠 저기 잡주.(유월 되면 산란기여서 버리니까 저 금지했다가, 에 시월 일일부터 저기 잡지.)

105003 @ 예.(예.)

105003 #1 소라를.(소라를.)

105003 @ 예.(예.)

105003 #1 경 허민 그냥 쭉허게 또 오월 유월ᄁᆞ장 계속.(그렇게 하면 그냥 쭉하게 또 오월 유월까지 계속.)

105003 @ 금지기는 언제, 금지기 뭰 거라마씨?(금지기는 언제, 금지기 된 거예요?)

105003 #1 유월 칠월에 그 막 알 싸는 기간이난.(유월 칠월에 그 막 알 싸는 기간이니까.)

105003 @ 음.(음.)

105003 #1 그때만 금지허주.(그때만 금지하지.)

105003 @ 여기도 그 보멀? 여기도 보멀엔 헙니까?(여기도 그 고둥? 여기도 '보멀'이라고 합니까?)

105003 #1 보말.('보말'.)

105003 @ 보말엔 헙니까?('보말'이라고 합니까?)

105003 #1 으, 보말.(으, '보말'.)

105003 @ 보말은 어떵 잡는 거우과?(고둥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105003 #1 보말은 요즘은 옛날엔 사지 안허난 풀지 못허난에.(고둥은 요즘은 옛날엔 사지 않으니까 팔지 못하니까.)

105003 @ 예.(예.)

105003 #1 그냥 잡아당 먹음만 헤신디. 요즘은 그걸 다 받아가기 때문에.(그냥 잡아다가 먹기만 했는데. 요즘은 그걸 다 받아가기 때문에.)

105003 @ 예.(예.)

105003 #1 키로에 삶아근에[쌀마근에] 열앙.(킬로에 삶아서 열어서.)

105003 @ 예.(예.)

105003 #1 키로에, 에, 처음은 만 원 만이천 원 허단에 지금은 삼만 사천 원.(킬로에, 에, 처음은 만 원 만이천 원 하다가 지금은 삼만 사천 원.)

105003 @ 음, 아, 보말?(음, 아, 고둥?)

105003 #1 막 비싸.(아주 비싸.)

105004 @ 아, 비싸구나예. 그 보말 종류도 으라 개렌 허멍양?(아, 비싸군요. 그 고둥 종류도 여러 개라고 하면서요?)

105004 #1 예, 수두리도 잇고, 보말 잇고, 춤ᄀᆞ메기 잇고, 문다께 잇고.(예, 팽이고둥도 있고, 보말 있고, 개울타리고둥 있고, 눈알고둥 있고.)

105004 @ 문다께?(눈알고둥?)

105004 #1 문다께엔 헌 거는 딱지[250]가.(눈알고둥이라고 한 거는 딱지가.)

105004 @ 예.(예.)

105004 #1 딱딱헌 거.(딱딱한 거.)

105004 @ 예.(예.)

105004 #1 딱딱헌 것가 문다께엔 헌 거.(딱딱한 것이 눈알고둥이라고 한 거.)

105004 @ 어, 문다께고.(어, 눈알고둥이고.)

105004 #1 수두리는 이 코젱이[251]가 꾸짝허고 영 꾸짝헤근에 큰 거.(팽이고둥은 이 꼭대기가 뾰족하고 이렇게 뾰족해서 큰 거.)

105004 @ 예.(예.)

105004 #1 보말은 영 똥글똥글헤근엥에 어, 춤ᄀᆞ메기도 보말 식으로 똥글똥글헹 존존헌 거고.(보말은 이렇게 똥글똥글해서 어, 개울타리고둥도 보말 식으로 똥글똥글해서 자잘한 거고.)

105004 @ 존존헌 거고. 게난 문다께는 그? (자잘한 거고. 그러니까 눈알고둥은 그?)

105004 #1 예, 문다께는 그냥 반찬으로 먹곡.(예, 눈알고둥은 그냥 반찬으로 먹고.)

105004 @ 예.(예.)

105004 #1 그거 간 나쁜 사람은.(그거 간 나쁜 사람은.)

105004 @ 으.(으.)

105004 #1 그 문다께 삶을 때 막 쎙짜 물에 밀엉 씻어뒁 그 물 쌂앙 그 물을 먹읍네께.(그 눈알고둥 삶을 때 막 생짜 물에 밀어서 씻어두고 그 물 삶아서 그 물을 먹습니다.)

105004 @ 음.(음.)

105004 #1 이 저기 황달 잇인 사름도 좋고 당뇨 잇인 사름도 좋고. 걸 막 역불에, 작년이는 막 역불 문다께 잡으레 웨방 사름덜 와낫어.(이 저기 황달 있는 사람도 좋고 당뇨 있는 사람도 좋고. 걸 막 부러, 작년에는 막 부러 눈알고둥 잡으러 외방 사람들 왔었어.)

105004 @ 아아, 이 동네 문다께가 하영 나마씨?(아아, 이 동네 눈알고둥이 많이 나요?)

105004 #1 맛셔.(맛있어.)

105004 @ 아아, 맛셔?(아아, 맛있어?)

105004 #1 이 동네 맛셔.(이 동네 맛있어.)

105004 @ 쓰지 아녑니까?(쓰지 않습니까?)

105004 #1 쓰지 아녕 맛잇는 동네 이디는.(쓰지 않아서 맛있는 동네 여기는.)

105004 @ 아아, 기구나. 게믄 그거는 어느 철에 잡는 거우과? 어느 철에 잡아?(아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는 어느 철에 잡는 겁니까? 어느 철에 잡아?)

105004 #1 아, 건 지금도 잡고 거는.(아, 건 지금도 잡고 거는.)

---

250) 여기에서 '딱지'는 눈알고둥의 알맹이를 덮고 있는 뚜껑을 말한다.

251) '코젱이'는 뾰족한 부분의 끝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팽이고둥의 끝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105004 @ 흔엇어, 예.(한없어, 예.)

105004 #1 으. 겨울에도 잡고.(으. 겨울에도 잡고.)

105005 @ 여기는 겡이?(여기는 '겡이'?)

105005 #1 겡이.('겡이'.)

105005 @ 겡이도 종류도 으라 가지라예?(게도 종류도 여러 가지지요?)

105005 #1 어. 츰겡이[252]도 잇고 돌켕이[253]도 잇고 기름겡이[254]도 잇고 순ᄉᆞ겡이[255]도 잇곡.(어. 참게도 있고 '돌켕이'도 있고 '기름겡이'도 있고 '순ᄉᆞ겡이'도 있고.)

105005 @ 순ᄉᆞ겡이?('순ᄉᆞ겡이'?)

105005 #1 똥겡이[256]도 잇곡.('똥겡이'도 있고.)

105005 @ 순ᄉᆞ겡이는?('순ᄉᆞ겡이'는?)

105005 #1 순ᄉᆞ겡이엔 헌 거는 저 등따리가 빨강허주게.('순ᄉᆞ겡이'라고 한 거는 저 등때기가 빨갛지.)

105005 @ 예.(예.)

105005 #1 빨강헤근엥에 헌 거고 츰겡이는 포루롱허영 얼룩달룩허여양.(빨개서 한 거고 참게는 파르스름해서 얼룩덜룩해서요.)

105005 @ 예.(예.)

105005 #1 경 허곡 똥겡이는 또 희뚝멀룩[257] 희뚝멀룩헌 거 젤 우에 잇는 거. 맛은 똥겡이가 젤로 맛 좋주.(그렇게 하고 '똥겡이'는 또 '희뚝멀룩' '희뚝멀룩'한 거 젤 위에 있는 거. 맛은 '똥겡이'가 젤로 맛 좋지.)

105005 @ 아, 아까 돌켕이는?(아, 아까 '돌켕이'는?)

105005 #1 또 돌켕이는 딱딱헤근에 빨리 도망도 못가곡.(또 '돌켕이'는 딱딱해서 빨리 도망도 못가고.)

105005 @ 음.(음.)

105005 #1 잡을 때. 돌 영 일르민 제기 도망 안 강 움찍움찍 듣는 건 돌킹이고.(잡을 때. 돌 이렇게 일으키면 재우 도망 안 가서 움찍움찍 닫는 건 '돌킹이'고.)

105005 @ 음.(음.)

105005 #1 지름겡이는 껍데기 노랑헹 밤색깔로.('지름겡이'는 껍데기 노래서 밤색으로.)

105005 @ 밤색깔로.(밤색으로.)

105005 #1 노랑헤근에 막 우에, 막 우의 이십니다게.(노래서 아주 위에, 아주 위에 있습니다.)

---

252) '츰겡이'는 '참게'의 제주어다. 등때기가 푸르스름하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 '츰깅이', '츰긍이'라고 한다.

253) '돌켕이'는 색이 검고 등어리가 딱딱한 게다. 동작이 느리다. 지역에 따라서 '돌킹이', '돌킁이'라고 한다.

254) '기름겡이'는 게의 일종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등때기가 노르스름한 빛을 띠고, 조간대의 위쪽에 서식하는 습성이 있다.

255) '순ᄉᆞ겡이'는 게의 일종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등때기가 붉은 빛을 띤다고 한다.

256) '똥겡이'는 게의 일종이다. 바닷가 위쪽 조간대에 서식한다. 지역에 따라서 '똥깅이', '똥긍이'라고 한다.

257) '희뚝멀룩'은 색이 희고 멀건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105005 @ 예, 게믄 기름, 다 먹는 거라마씨?(예, 그러면 기름, 다 먹는 거예요?)

105005 #1 아니 거 삐졍은에 죽도 끌영 먹곡게 보깡도 먹곡게.(아니 거 빻아서 죽도 끓여서 먹고 볶아서도 먹고.)

105005 @ 아, 게난 그 아까 겡이들 다 먹는 거?(아, 그러니까 그 아까 게들 다 먹는 거?)

105005 #1 다 먹는 거.(다 먹는 거.)

105005 @ 요즘도 하영 먹읍네까?(요즘도 많이 먹습니까?)

105005 #1 예, 요즘도 막. 요즘은 술질 때주, 뭐.(예, 요즘도 막. 요즘은 살찔 때지, 뭐.)

105005 @ 아아.(아아.)

105005 #1 알 소곱에 알 찰 때.(알 속에 알 찰 때.)

105003 @ 아, 겡이들이.(아, 게들이.)

105003 #1 으.(으.)

105003 @ 그거는 어떤 식으로 잡아마씨?(그거는 어떤 식으로 잡아요?)

105003 #1 돌 일렁.(돌 일으켜서.)

105003 @ 것도 돌 일렁.(것도 돌 일으켜서.)

105003 #1 으 돌 일렁. 돌 일렁 잡곡. 통발.(으 돌 일으켜서. 돌 일으켜서 잡고. 통발.)

105003 @ 예.(예.)

105003 #1 통발 저기 저 ᄒᆞ꼼 영 치와근엥에 니껍 놩 통발 놩 놔두민.(통발 저기 저 조금 이렇게 쳐서 미끼 놔서 통발 놔서 놔두면.)

105003 @ 으.(으.)

105003 #1 그디는 춤겡이벳긔 안 보이주게.(거기는 참게밖에 안 보이지.)

105003 @ 아.(아.)

105003 #1 통발에.(통발에.)

105003 @ 아아, 통발에는.(아아, 통발에는.)

105003 #1 으.(으.)

105005 @1 게믄 이 겡이 잡을 때 니껍은 어떤 거로 써마씨?(그러면 이 게 잡을 때 미끼는 어떤 거로 써요?)

105005 #1 고도리.(고도리.)

105005 @ 고도리. 으.(고도리.)

105005 #1 고동어 새끼.(고등어 새끼.)

105005 @ 예, 예. 여긴 그냥 고도리엔 헴구나양?(예, 예. 여긴 그냥 고도리라고 하는군요?)

105005 #1 으.(으.)

105006 @ 그다음에 그 옛날에 여기 훼.(그다음에 그 옛날에 여기 홰.)

105006 #1 으.(으.)

105006 @ 휏불? 훼 뭐렌 헙니까?(횃불? 홰 뭐라고 합니까?)

105006 #1 으음. 새 비여당.(으음. 띠 베어다가.)

105006 @ 예.(예.)(웃음)

105006 #1 새 비여당 저 영 무꺼.(띠 베어다가 저 이렇게 묶어.)

105006 @ 예.(예.)

105006 #1 무꺼근엥에게 밤이 휏ᄀᆞ메기[휃ᄁᆞ메기][258] 잡으레.(묶어서 밤에 '휏ᄀᆞ메기' 잡으러.)

105006 @ 예.(예.)

105006 #1 아이고, 우리 밤에 휏ᄀᆞ메기 잡으레 잘 뎅겻주. 그 휏불에 영 쌍, 부쩡은 엥에 영 들러둠서로 밤에는 ᄀᆞ메기가 그렇게 잘 나주게.(아이고, 우리 밤에 '휏ᄀᆞ메기' 잡으러 잘 다녔지. 그 횃불에 이렇게 켜서, 붙여서 이렇게 들어두고 밤에는 개울타리고 둥이 그렇게 잘 나지.)

105006 @ 예.(예.)

105006 #1 그렇게 벳 막 벳 뜨겁게 나난 날 ᄌᆞ냑은 가민 막 완전히 거멍케 나. 경허멍 잡으레 뎅겨낫어.(그렇게 볕 아주 볕 뜨겁게 났던 날 저녁은 가면 완전 완전히 거멓게 나. 그렇게 하면서 잡으러 다녔었어.)

105006 @ 그걸 휏ᄀᆞ메기 게 ᄌᆞ문, 잡으러 뎅긴덴 헤예?(그걸 '휏ᄀᆞ메기' 게 캐러, 잡으러 다닌다고 해요?)

105006 #1 휏ᄀᆞ메기 잡으레.('휏ᄀᆞ메기' 잡으러.)

105006 @ 게믄 그 훼 헐 때는 휏ᄀᆞ메기도 잡주마는 다른 것들도 잡아실 거 아니우과?(그러면 그 홰 할 때는 '휏ᄀᆞ메기'도 잡지만 다른 것들도 잡았을 거 아닙니까?)

105006 #1 문어도 나오민 잡곡게. 밤에는.(문어도 나오면 잡고. 밤에는.)

105006 @ 예.(예.)

105006 #1 훼 저 불 들르민예.(홰 저 불 들면요.)

105006 @ 예.(예.)

105006 #1 그걸 막 나와.(그걸 막 나와.)

105006 @ 음.(음.)

105006 #1 문어 같은 건 영 막. 잡으레 안 뎅겨난 사름은 몰르고.(문어 같은 건 이렇게 막. 잡으러 안 다녔던 사람은 모르고.)

105006 @ 맞수다게.(맞습니다.)

105006 #1 으, 몰라. 우린 계속 성창 밑에 살아 부난에 계속 잡으레 뎅겨나수다.(으, 몰라. 우린 계속 포구 밑에 살아 버리니까 계속 잡으러 다녔었습니다.)

105006 @ 으음, 게믄예, 아까 새 비여당은에, 새 비여당 헌덴 허지 아녀수과양? 게믄 그 새 훼 멘드는 방법을 ᄒᆞ꼼 ᄀᆞᆯ아줘 봅서?(으음, 그러면요, 아까 띠 베어다가 , 띠 베어다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띠 홰 만드는 방법을 조금 말해 줘 보세요?)

---

258) 'ᄒᆡᆺᄀᆞ메기'는 홰를 들고 가서 잡는 개울타리고둥을 말한다.

105006 #1 방법은게 훼 저 새 비여다근엥에 이 몽뎅이만이 지럭시 새가 뒈주게. 경 허민 그거 영 영 영 영 무꺼근에.(방법은 홰 저 띠 베어다가 이 몽둥이만큼 길이 띠가 되지. 그렇게 하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105006 @ 에.(에.)

105006 #1 도막도막 무꺼.(도막도막 묶어.)

105006 @ 으.(으.)

105006 #1 경 허영 훼 멩글앙 지엉 강. 지영 강 등어리에 저 바구니 차곡.(그렇게 해서 홰 만들어서 지고 가서. 지어서 가서 등때기에 저 바구니 차고.)

105006 @ 예.(예.)

105006 #1 경 허영 훼 들렁 잡으멍 등얼러레 놓멍 헤영 이꺼장 놔지민 집이 오주기.(그렇게 해서 홰 들어서 잡으면서 등때기에 놓으면서 해서 이까지 놔지면 집에 오지.)

105006 @ 게민예.(그러면요.)

105006 #1 그때는 돌 일렁 잡질 아년에.(그때는 돌 일으켜서 잡질 않아서.)

105006 @ 다 올라와.(다 올라와.)

105006 #1 휏ᄀᆞ메기만 잡으레 하영 뎅겻주.('휏ᄀᆞ메기'만 잡으러 많이 다녔지.)

105006 @ 아, 게믄 아까예 삼춘, 이 등어리에 헹은에 바구니?(아, 그러면 아까요 삼촌, 이 등때기에 해서 바구니?)

105006 #1 구덕.(바구니.)

105006 @ 그건 무신 구덕이렌 ᄀᆞᆯ아?(그건 무슨 바구니라고 말해?)

105006 #1 출구덕[259].('출구덕'.)

105006 @ 출구덕.('출구덕'.)

105006 #1 으, 대남으로 만든 거 출구덕.(으, 대나무로 만든 거 '출구덕'.)

105006 @ 에, 출구덕 허영 허고. 그 훼에는 기름 부청은에 뭐 새 허거나?(에, '출구덕' 해서 하고. 그 홰에는 기름 붙여서 뭐 띠 하거나?)

105006 #1 아니, 아니. 기름 부쳐 불민 왈왈 부터 불엉 안 뒈주게.(아니, 아니. 기름 붙여 버리면 활활 붙어 버려서 안 되지.)

105006 @ 암.(암.)

105006 #1 아니, 아니. 기대로, 기대로.(아니, 아니. 그대로, 그대로.)

105006 @ 그대로 오래가양?(그대로 오래가요?)

105006 #1 무꺼 부니까.(묶어 버리니까.)

105006 @ 음.(음.)

105006 #1 도막도막 무꺼 부난에 오래 가주.(도막도막 묶어 버리니까 오래 가지.)

105007 @ 예, 알앗수다. 아까 삼촌, 이제 문어엔 ᄀᆞᆯ아신디 이 동네?(예, 알았습니다. 아까 삼촌, 이제 문어라고 말했는데 이 동네?)

105007 #1 뭉게.('뭉게'.)

259) '출구덕'은 허리에 차서 사용하는 바구니다. 해산물이나 고사리 따위를 채취할 때 주로 사용한다.

105007 @ 뭉게.(‘뭉게’.)

105007 으.(으.)

105007 @ 뭉게. 옛날 이 동네도 뭐 원담이렌 헙니까? 갯담.(문어. 옛날 이 동네도 뭐 ‘원담’이라고 합니까? ‘갯담’.)

105007 #1 으, 원담 저 성담[260]이옌 헷주. 원담엔 아녕 성담.(으, ‘원담’ 저 성담이라고 했지. ‘원담’이라고 않고 ‘성담’.)

105007 @ 여기는 성담?(여기는 ‘성담’?)

105007 #1. 으. 성담.(으. ‘성담’.)

105007 @ 그 성담에 대헹 골아 줘 봅서. 혼번.(그 ‘성담’에 대해서 말해 줘 보세요. 한번.)

105007 #1 성담 성창 에염으로 가곡게. 시국에.(‘성담’ 포구 옆으로 가고. 시국에.)

105007 @ 예.(예.)

105007 #1 경 허민게, 근무헹 경 허민게 입초 사근에 폭도덜 내려올 때 입초 상 시간 뒈민 아홉 시 전달 허민 저기서 아홉 시 전달 헹 저레 발아가곡[261] 경헨 헌디 그 성담이 헐어져 벳지.(그렇게 하면 근무해서 그렇게 하면 입초 서서 폭도들 내려올 때 입초 서서 시간 되면 아홉 시 전달 하면 저기서 아홉 시 전달 해서 저리로 ‘발아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성담’이 헐어져 버렸지.)

105007 @ 헐어져 불언예? 그런데 그건 성담이고. 혹시 이 바당에도 무사 바당에, 바당에 동골랑허게 헤서 멜.(헐어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건 ‘성담’이고. 혹시 이 바다에도 왜 바다에, 바다에 동그랗게 해서 멸치.)

105007 #1 불턱[262]이주게. 즘녀덜 불 ᄎᆞ는 거.(‘불턱’이지. 잠녀들 불 쬐는 거.)

105007 #2 고기 잡는 디가.(고기 잡는 데가.)

105007 @ 고기 잡는, 숭어도 들고 허는 거?(고기 잡는, 숭어도 들고 하는 거?)

105007 #1 건 저 숭어 잡는 사름덜 그물 아졍강 그물 치는 거.(건 저 숭어 잡는 사람들 그물 가져가서 그물 치는 거.)

105007 @ 으.(으.)

105007 #1 그물 치는 거옌.(그물 치는 거라고.)

105007 @ 이 동네는 그렇게 갯담?(이 동네는 그렇게 ‘갯담’?)

105007 #1 그런 걸 심허게 안 해.(그런 걸 심하게 안 해.)

105007 @ 바당이 쫌 다른 지역보다 ᄐᆞ난 거 닮아예? 돌들이 하서.(바다가 쫌 다른 지역보다 다른 거 같네요? 돌들이 많아서.)

105007 #1 문딱 돌팟. 여기는 몰레판이 엇어 부난 ᄀᆞ메기도 경 맛잇는 거.(몽땅 돌밭. 여기는 모래판이 없어 버리니까 개울타리고둥도 그렇게 맛있는 거.)

---

260) 여기에서 ‘성담’은 조사자가 ‘원담’이라고 했는데 제보자가 ‘성담’이라고 잘못 들어서 하는 말이다. ‘성담’은 성을 두른 담을 가리킨다. 제보자가 ‘성담’이라고 한 것은 온평리 환해장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261) ‘발아가곡’은 ‘담 위 등(발을 붙이기 어려운 곳)을 기거가 걸어서 가고’의 의미다.

262) ‘불턱’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쬐기 위해 만들어놓은 공간. 주로 돌을 둘러서 만든다.

105007 @ 아, 몰레판이 엇수가? 여기는?(아, 모래판이 없습니까? 여기는?)

105007 #1 몰레판이 엇기 때문에 돌팟이라 부난 ᄀᆞ메기도 젤 맛잇고 미역도 쵀고곡 모든 성기 조개 뭐 고동 헐 것 없이.(모래판이 없기 때문에 돌밭이어 버리니까 개울타리도 젤 맛있고 미역도 최고고 모든 성게 오분제기 뭐 소라 할 것 없이.)

105007 @ 예.(예.)

105007 #1 게난 상인이.(그러니까 상인이.)

105007 @ 예.(예.)

105007 #1 온평리 것만 사가젠 입찰허젠 허주. 원래.(온평리 것만 사가려고 입찰하려고 하지. 원래.)

105007 @ 아아, 여기는 그 오분작을 조게렌 헙니까?(아아, 여기는 그 오분제기를 '조게'라고 합니까?)

105007 #1 조게.('조게'.)

105007 @ 아까 조게렌 ᄀᆞᆯ안게예.(아까 '조게'라고 말하던데.)

105007 #1 으.(으.)

105007 @ 옛날말로예. 요즘이야 오분작이주.(옛날말로요. 요즘이야 오분제기지.)

105007 #1 으으.(으으.)

105007 @ 게믄 그거는 조게렌 허고.(그러면 그거는 '조게'라고 하고.)

105007 #1 으.(으.)

105009 @ 그다음에 이제 게믄 그 원에 이 동네는 멜 안 거려?(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원'에 이 동네는 멸치 안 떠?)

105009 #1 멜 들 땐 거리주마는 베로 강은 안 거리메.(멸치 들 땐 뜨지만 배로 가서는 안 떠.)

105009 @ 베로는 안 거리고 멜 든 거는 어디레 드는 거.(배로는 안 뜨고 멸치 든 거는 어디로 드는 거.)

105009 #1 ᄀᆞ듸, ᄀᆞ듸. ᄀᆞ듸 늣개통[263][늗깨통]에.(가에, 가에. 가에 '늣개통'에.)

105009 @ 아, 그걸 무신 통엔마씨?(아, 그걸 무슨 통이라고요?)

105009 #1 늣개통엔 허주.('늣개통'이라고 하지.)

105009 @ 예.(예.)

105009 #1 으, 영 갓바위에 통 이신 디가 늣개통엔 허주게.(으, 이렇게 갯바위에 통 있는 데가 '늣개통'이라고 하지.)

105009 @ 음.(음.)

105009 #1 게믄 그 통에 들어오면은 사들 아졍가근엥에 거리주.(그러면 그 통에 들어오면 사둘 가져가서 뜨지.)

105009 @ 그 사들로. 게믄 그 사들은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그 사둘로. 그러면 그 사둘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263) '늣개통'은 바닷가에 돌 웅덩이를 말한다. '늣'은 이끼, '개'는 바다라는 뜻이다. '늣' 즉, 바다 이끼 등이 잘 끼는 곳이어서 '늣개통'이라고 한 것 같다.

105009 #1 사들이 건 또 무신거고, 족바디엔 허주.(사둘이 건 또 무엇이고, 뜰채라고 하지.)

105009 @ 예.(예.)

105009 #1 족바디.(뜰채.)

105009 @ 족바디?('족바디'?)

105009 #1 어, 옛날 말론 족바디엔 허주게.(어, 옛날 말론 '족바디'라고 하지.)

105009 @ 예.(예.)

105009 #1 사들은 큰 거고.(사둘은 큰 거고.)

105009 @ 예.(예.)

105009 #1 경 허영 그거 아졍가근에 물통[264]에 거 막 영 다울리멍 거렁 와낫주.(그렇게 해서 그거 가져가서 '물통'에 거 막 이렇게 쫓으면서 떠 왔었지.)

105009 @ 게난 그 물통을 늣개통이렌 헤예?(그러니까 그 물통을 '늣개통'이라고 한다고요?)

105009 #1 늣개통.('늣개통'.)

105009 @ 늣개라는 말은 무신 말이우과?('늣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5009 #1 게난 늣개라 헌 말은 우리 셍각에는 그 프레도 나고 늣도 돋곡 막 경 헌 통이난에 막 늣개통이엔 허는 거.(그러니까 '늣개'라 한 말은 우리 생각에는 그 파레도 나고 이끼도 돋고 막 그렇게 한 통이니까 막 '늣개통'이라고 하는 거.)

105009 @ 예, 맞수다. 경 헹 늣개통에 헤근에 거기에 이제 멜이, 멜이 들어오는 거라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늣개통'에 해서 거기에 이제 멸치가, 멸치가 들어오는 거네요?)

105009 #1 으.(으.)

105009 @ 예, 알아수다. 게믄 그치록 헹은에 허면은 늣개통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해서 하면은 '늣개통'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

105009 #1 자연적으로 바당에 잇인 거.(자연적으로 바다에 있는 거.)

105009 @ 이 동네서 벨도로 돌로 헤영 영.(이 동네서 별도로 돌로 해서 이렇게.)

105009 #1 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니.)

105009 @ 안 하고예?(안 하고요?)

105009 #1 별도로 단 게 아니고 늣개통.(별도로 단 게 아니고 '늣개통'.)

105009 @ 게난 제주도도 널러마씨? 이렇게 지역마다 ᄐᆞ나.(그러니까 제주도도 널러요? 이렇게 지역마다 달라.)

105009 #1 다 틀리주.(다 다르지.)

105009 @ 예, 맞아마씨? 그다음에 으, 아까 이제 멜 거리는 그물 헤 갖고 거리는 건 엇어예? 이 동넨.(예, 맞아요? 그다음에 으, 아까 이제 멸치 뜨는 그물 해 갖고 뜨는 건 없어요? 이 동넨.)

105009 #1 으으, 큰 구물 허영 거리는 건 엇곡. 족바디 멩글앙 통에 늣개통에 든 거

264) '물통'은 물이 고일 수 있게 파거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곳을 말한다.

난에게.(으으, 큰 그물 해서 뜨는 건 없. 뜰채 만들어서 '통'에 '늣개통'에 든 거니까.)

105009 @ 예.(예.)

105009 #1 족바디 무신 베로 허영 딴 디ᄀᆞ치룩 그물 헤영 거려 오는 건 엇고게.(뜰채 무슨 배로 해서 딴 데처럼 그물 해서 떠 오는 건 없고.)

105009 @ 게믄 그 늣개통에 멜 들면 옛날은 혼자만 강 그 멜 거리지 안 헤영은에 멜 들엇저 영 허영.(그러면 그 '늣개통'에 멸치 들면 옛날은 혼자만 가서 그 멸치 뜨지 안 해서 멸치 들었다 이렇게 해서.)

105009 #1 아, 막 웨주.(아, 막 외치지.)

105009 @ 어떵 웻수가?(어떻게 외쳤습니까?)

105009 #1 멜 들엇젠. 야, 저 앞바르 멜 들어서라. 멜 거리레 가게, 가게, 웨멍 가불민 막 따라가주덜. 알아들은 사름덜.(멸치 들었다고. 야, 저 앞바다 멜 들었더라. 멸치 뜨러 가자, 가자, 외치면서 가 버리면 막 따라가지들. 알아들은 사람들.)

105009 @ 예.(예.)

105009 #1 경 헹 강 거려 와.(그렇게 해서 가서 떠 와.)

105009 @ 예.(예.)

105009 #1 경 헤영 강 거려 와.(그렇게 해서 가서 떠 와.)

105009 @ 예, 게영 그런 늣개통이 이 동네 하서마씨? 으라 개?(예, 그래서 그런 '늣개통'이 이 동네 많아요? 여러 개?)

105009 #1 예게. 그냥게 ᄀᆞ듸 바당마다 늣개통이 다 잇주게.(예. 그냥 가에 바다마다 '늣개통'이 다 있지.)

105009 @ 게난 그 늣개통도 보면 일름들이 잇일 거 아니우과? 어느 늣개통?(그러니까 그 '늣개통'도 보면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늣개통'?)

105009 #1 신동산늣개통[265], 여맞은개늣개통[266], 도에늣개통[267], 몰레알늣개통[268] 다 잇주게.('신동산늣개통', '여맞은개늣개통', '도에늣개통',' 몰레알늣개통' 다 있지.)

105009 @ 예.(예.)

105009 #1 으, 황루알[269]이여 어디여 전부다. 바당마다 다 늣개통이 잇어.(으, '황루알'이다 어디다 전부다. 바다마다 다 '늣개통'이 있어.)

105009 @ 그게 흔 멧 개쯤 될 거 닮아마씨?(그게 한 몇 개쯤 될 거 같아요?)

105009 #1 우리 바당이 온평리 바당이 열 군데우꽈?(우리 바다가 온평리 바다가 열 군데입니까?)

105009 @ 음.(음.)

105009 #1 열 멧 군데우꽈? 다 잇어.(열 몇 군데입니까? 다 있어.)

105010 @ 다 잇어예. 게믄 그 동네 그 담당마다 강은에.(다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

265) '신동산늣개통'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신동산'이라는 곳에 있는 '늣개통'을 말한다.
266) '여맞은개늣개통'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여맞은개'라는 곳에 있는 '늣개통'을 말한다.
267) '도에늣개통'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도에'라는 곳에 있는 '늣개통'을 말한다.
268) '몰레알늣개통'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몰레알' 지경에 있는 '늣개통'을 말한다.
269) '황루알'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지명 가운데 하나다.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세 여인이 목함을 타고 들어왔다는 곳이다.

그 담당마다 가서.)

105010 #1 으으.(으으.)

105010 @ 그 동네 강 거리는 거라예? 알아수다. 여기는 궤기 옛날에.(그 동네 가서 뜨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여기는 고기 옛날에.)

105010 #1 으.(으.)

105010 @ 나끄레 뎅겻잖아양. 어떤 식으로 나끄레 뎅겨수가?(낚으러 다녔잖아요. 어떤 식으로 낚으러 다녔습니까?)

105010 #1 베로.(배로.)

105010 @ 아, 베.(아, 배.)

105010 #1 솔레기 나끄레 뎅기고.(옥돔 낚으러 다니고.)

105010 @ 음.(음.)

105010 #1 음, 우리 또 그자 이디 곳듸 사름은[싸-] 어렝이 나끄레 뎅기고 우럭 나끄레 뎅기고 경.(음, 우리 또 그저 여기 가에 사람은 어렝놀레기 낚으러 다니고 우럭 낚으러 다니고 그렇게.)

105010 @ 음, 게믄예, 곳듸서.(음, 그러면요, 가에서.)

105010 #1 으.(으.)

105011 @ 곳듸서 이제 나끌 때 뭐 들렁 강 나끄는 거?(가에서 이제 낚을 때 뭐 들어서 가서 낚는 거?)

105011 #1 첨대.(낚싯대.)

105011 @ 첨대?(낚싯대?)

105011 #1 으.(으.)

105011 @ 에, 거는 무신 낭?(에, 거는 무슨 나무?)

105011 #1 첨대엔 헌 거는 왕대나무로 영 첨대 멘들앙 그걸로 곳듸 강 나끄고.(낚싯대라고 한 거는 참대나무로 이렇게 낚싯대 만들어서 그걸로 가에 가서 낚고.)

105011 @ 건 곳듸 나끄고.(건 가에 낚고.)

105011 #1 예.(예.)

105011 @1 여기 베로 헐 때는 어떤 베로 헹은에 나끄는 거?(여기 배로 할 때는 어떤 배로 해서 낚는 거?)

105011 #1 그 낙싯베엔 헤근에 준준헌 베가 잇주.(그 낚싯배라고 해서 자잘한 배가 있지.)

105011 @ 예.(예.)

105011 #1 저런 큰 배가 아니고 준준헌 베. 그런 베로 강 나끄주.(저런 큰 배가 자잘한 배. 그런 배로 가서 낚지.)

105013 @ 그 준준헌 베를 부르는 이름도 잇어낫수가?(그 자잘한 배를 부르는 이름도 있었었습니까?)

105013 #1 아, 베 이름은 잇주게.(아, 배 이름은 있지.)

105013 @ 예.(예.)

105013 #1 풍선은 네 젓는 베고 저 요즘은 준 베라도 다 저 거세기.(풍선은 노 젓는 배고 저 요즘은 잔 배여도 다 저 거시기.)

105013 @ 이름들이 그냥 다 허고예?(이름들이 그냥 다 하고요?)

105013 #1 이름 다 잇수다. 뭐 진성호[270]니 해성호[271]니 뭐 무슨 호니 다 베 잇주.(이름 다 있습니다. 뭐 '진성호'니 '해성호'니 뭐 무슨 호니 다 배 있지.)

105013 @ 예. 그다음, 여기 베가 동네 베가 멧 개 정도 잇엇수가? 예전에.(예. 그다음, 여기 배가 동네 배가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예전에.)

105013 #1 옛날에는 저 풍선 헤근엥에 옛날 어른덜 고기 나끄레 무시거니게, 솔레기 나끄레 뎅기곡.(옛날에는 저 풍선 해서 옛날 어른들 고기 낚으러 무엇이니, 옥돔 낚으러 다니고.)

105013 @ 음.(음.)

105013 #1 그런 디 강 에여리 나끄곡 그치록만 헤나고. 요즘은 베가 핫주.(그런 데 가서 매퉁이 낚고 그처럼만 했었고. 요즘은 배가 많지.)

105013 @ 음. 요즘 하고예?(음. 요즘 많고요?)

105013 #2 그전에는 풍선 말고 베가 한 열 서너 척 뒈고, 터베라고 헤 가지고 자리거리는 베가 잇어나고.(그전에는 풍선 말고 배가 한 열 서너 척 되고, 떼배라고 해 가지고 자리돔 뜨는 배가 있었었고.)

105013 #1 터베 잇고게.(떼배 있고.)

105013 #2 그게 잇어 가지고 잇엇고 이디도 온평리도 상동 하동 저 돌개라는 그 포구가 잇어 가지고 거기서는 터베가 세 대, 이쪽에는 한 다섯 대, 또 풍선이라는 건 베 작은 벤데 그게 한 열댓쯤 잇어 가지고.(그게 있어 가지고 있었고 여기도 온평리도 상동 하동 저 '돌개'라는 그 포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떼배가 세 대, 이쪽에는 한 다섯 대, 또 풍선이라는 건 배 작은 밴데 그게 한 열댓쯤 있어 가지고.)

105013 #1 베 열 개ᄁᆞ장 잇어낫수가?(배 열 개까지 있었었습니까?)

105013 #2 남자들이 옛날은 난바르[272]라고 헤 가지고 풍선을 끌고 삼일 오일 그 가 가지고 바다에서 자고 고기를 낚고 와 가지고 여기서 그런 생활덜을 헷고.(남자들이 옛날은 '난바르'라고 해 가지고 풍선을 끌고 삼일 오일 그 가 가지고 바다에서 자고 고기를 낚고 와 가지고 여기서 그런 생활들을 했고.)

105013 @ 예, 게믄 삼춘예, 아까 난바르렌 ᄀᆞᆫ지 아녓수과예?(예, 그러면 삼촌요, 아까 '난바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요?)

105013 #2 난바르라는 거는 베를 타고 나가서 가족덜 버리고 삼일 먹을 거 싸고 그디 가 가지고 자기대로 밥헤 먹으면서 갈치나 이 저 솔레기를 나까 가지고 왓어.('난바르'라는 거는 배를 타고 나가서 가족들 버리고 삼일 먹을 거 싸고 거기 가 가지고 자기대로 밥해 먹으면서 갈치나 이 저 옥돔을 낚아 가지고 왔어.)

---

270) '진성호'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배 이름 가운데 하나다.
271) '해성호'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배 이름 가운데 하나다.
272) '난바르'는 잠녀나 어부들이 동아리를 지어 여러 날 동안 먼바다에 나가 배 위에서 먹고 자면서 해산물을 캐거나 고기를 잡는 일을 말한다.

105013 @ 아, 그땐 다 나끈 거라예?(아, 그땐 다 낚은 거지요?)

105013 #2 예.(예.)

105013 @ 게믄 난바르가 먼바당에 강근에.(그러면 '난바르'가 먼바다에 가서.)

105013 #2 먼바다에 가는 건 난바르. 가 가지고 살고 오는 거 난바르 갓다왓다.(먼바다에 가는 건 '난바르'. 가 가지고 살고 오는 거 '난바르' 다녀왔다.)

105013 @ 예, 게믄 그 솔레기 ᄀᆞ튼 거는 이 근해에 나는 게 아니라 먼바당에 잇인 거 아니우과양?(예, 그러면 그 옥돔 같은 거는 이 근해에 나는 게 아니라 먼바다에 있는 거 아닙니까요?)

105013 #2 깊은 바다에.(깊은 바다에.)

105013 @ 깊은 바당에. '펄바당'에.(깊은 바다에. '펄바당'에.)

105013 #2 으.(으.)

105013 @ 거기 펄 잇는 바당을 뭐 ᄀᆞᆫ는 말도 잇입니까? 펄바당 뭐?(거기 펄 있는 바다를 뭐 말하는 말도 있습니까? '펄바당' 뭐?)

105013 #2 펄바당[273]엔 난바르엔 헨 먼바다에 갓다왓다.('펄바당'이라고 '난바르'라고 해서 먼바다에 다녀왔다.)

105013 @ 그냥 난바르로?(그냥 '난바르'로?)

105013 #2 그것까지는 우리.(그것까지는 우리.)

105013 @ 예.(예.)

105013 #2 어부들이 말허는 거고.(어부들이 말하는 거고.)

105013 @ 음, 게난 이 온평리 앞바당도 솔레기가 하영 낫구나예?(음, 그러니까 이 온평리 앞바다도 옥돔이 많이 났군요?)

105013 #2 아, 여기 앞에 나가민 많이 잇고.(아, 여기 앞에 나가면 많이 있고.)

105013 @ 예에.(예에.)

105013 #1 요새는 그 주낫이라고 헤 가지고 난바르 가기 전에 중간에 낙시를 놔 가지고 요즘 시대는 베가 잇어서 솔레기를 잡고 이렇게 허는데.(요새는 그 주낙이라고 해 가지고 '난바르' 가기 전에 중간에 낚시를 놔 가지고 요즘 시대는 배가 있어서 옥돔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105013 #4(제보자 남편)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성산포 생선 잇지 않읍니까?(참고로 말씀 드리면 성산포 생선 있지 않습니까?)

105013 @ 예, 예.(예, 예.)

105013 #4 그게 온평 앞바다 중심이 됩니다.(그게 온평 앞바다 중심이 됩니다.)

105013 @ 아, 여기가 솔레기가 잘 나는 디구나?(아, 여기가 옥돔이 잘 나는 데구나?)

105013 #4 중심. 우도나 성산포나 서귀포나 다 이 전부 온평 앞바다 겁니다.(중심. 우도나 성산포나 서귀포나 다 이 전부 온평 앞바다 겁니다.)

105013 @ 예, 알아수다예. 그다음엔 보면예, 웨냐허면 여기는 즘녀헙니까? 즘수헷수

273) '펄바당'은 펄이 있는 바다다.

가?(예, 알았습니다요. 그다음엔 보면요, 왜냐하면 여기는 '줌녀'합니까? '줌수'했습니까?)

105013 #1 줌수주게.('줌수'지.)

105012 @ 줌수예. 그 줌수들도 그 물질 갓당은에 궤기도 쏘앗자녀우과예?(잠수요. 그 잠수들도 그 물질 갔다가 고기도 쏘았잖습니까?)

105012 #1 으, 소살로.(으, 작살로.)

105012 @ 어떤 것들 잇수가?(어떤 것들 있습니까?)

105012 #1 소살로.(작살로.)

105012 @ 음, 소살로?(음, 작살로?)

105012 #1 요즘은 짝살엔 허주마는 소살.(요즘은 작살이라고 하지만 '소살'.)

105011 @ 예. 예전에는 왜 낙싯대도 아까 첨대 만들젠 허면.(예. 예전에는 왜 낚싯대도 아까 '첨대' 만들려고 하면.)

105011 #1 음.(음.)

105011 @ 낙싯대도 멘들아야 뒈고.(낚싯대도 만들어야 되고.)

105011 #1 왕대나무로.(참대나무로.)

105011 @ 그다음 줄도 헤야 뒈고 낚시도 헤야 뒈고. 줄도 헤야 뒈고. 낙시도 헤야 뒈고 뽕돌도 헤야 뒈고.(그다음 줄도 해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줄도 해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봉돌도 해야 되고.)

105011 #1 줄은 정수로 허고.(줄은 정수로 하고.)

105011 @ 정수. 그건 어디에서 구헤당 헤여마씨?(정수. 그건 어디에서 구해다가 해요?)

105011 #1 풀주게, 그거 다.(팔지, 그거 다.)

105011 @ 아, 왕대도 풀아?(아, 왕대도 팔아?)

105011 #1 왕대는게 이 동네 왕대.(왕대는 이 동네 왕대.)

105011 #4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죠. 낙싯대는 수리대 왕대 두 가지 잇습니다.(참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죠. 낚싯대는 이대 왕대 두 가지 있습니다.)

105011 @ 예.(예.)

105011 #4 또 첨대술, 거는 노끈.(또 낚싯줄, 거는 노끈.)

105011 @ 노끈?(노끈?)

105011 #4 노끈허고 낙시 매는 거만 정술.(노끈하고 낙시 매는 거만 낚싯줄.)

105011 @ 예.(예.)

105011 #4 그걸로 씁니다. 낙시 매는 정술과 이 노끈 사이에 뽕돌이라는 게 잇죠.(그걸로 씁니다. 낚시 매는 낚싯줄과 이 노끈 사이에 봉돌이라는 게 있죠.)

105011 @ 예.(예.)

105011 #4 물에 이, 저 잠기는 거.(물에 이, 저 잠기는 거.)

105011 #1 내려가게 허는 거.(내려가게 하는 거.)

105011 #4 그게 잇습니다.(그게 있습니다.)

105011 @ 게믄예? 아까 이제 정술?(그러면요? 아까 이제 낚싯줄?)

105011 #1 으.(으.)

105011 #2 정술은 그 나이롱줄 닮은 거.(낚싯줄은 그 나일론줄 같은 거.)

105011 #2 나이롱.(나일론.)

105011 @ 아까 노는 뭘로 헷수가?(아까 노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105011 #4 여기 씰로.(여기 실로.)

105011 #2 노끗이라는. 일본서덜 처음 나온 건데.(노끈이라는. 일본에서들 처음 나온 건데.)

105011 #4 것도 여기서 가정에서 멘들질 안허고.(것도 여기서 가정에서 만들질 않고.)

105011 #2 상점에 그냥 다 가게. 옛날은 점방.(상점에 그냥 다 가게. 옛날은 점방.)

105011 @ 예, 점방.(예, 점방.)

105011 #2 점방허곡. 에 또 그 전에는 도비상귀라고 헤 가지고 그 모든 물건을 지어 가지고 다닐 때 그런 사름덜이 바늘도 팔곡 씰도 팔곡 다 허니까 그런 건 준비헷고.(점방하고. 에 또 그 전에는 도붓장수라고 해 가지고 그 모든 물건을 지어 가지고 다닐 때 그런 사람들이 바늘도 팔고 실도 팔고 다 하니까 그런 건 준비했고.)

105011 @ 음.(음.)

105011 #2 첨대는 집집마다 수리대 왕대를 여긴 다 가졍 잇엇으니까 이제 첨대를 자기가 깊은 데 헐랴면 왕대를 긴 거 허곡. 갓테서 나끌 때는 첨대 수리대를 헤 가지고.(낚싯대는 집집마다 이대 왕대를 여긴 다 가져서 있었으니까 이제 낚싯대를 자기가 깊은 데 하려면 왕대를 긴 거 하고. 가에서 낚을 때는 낚싯대 이대를 해 가지고.)

105011 @ 예.(예.)

105011 #2 노끈 사고 철사 요만이 사서 깃듸에서는 나끄는 거는 우럭 요런 작은 고기.(노끈 사고 철사 요만큼 사서 가에서는 낚는 거는 우럭 요런 작은 고기.)

105011 @ 예.(예.)

105011 #2 또 좀 저 왕대를 가지고 허면 조금 먼 디 대 가지고 밤에는 가 가지고 큰 고기를 낚기 위헤서 구릿이라는 고기나 이 돔이지. 돌돔 이만씩 헌 거를 옛날에 그 나깟고. 그거고. 그런 대중 다 그런 농촌에 취미. 이 온평리에는 그런 거를 유행뒈엿고. 이껍은 뭣을 헷느냐 허면은 밥게라는 게 잇어요.(또 좀 저 왕대를 가지고 하면 조금 먼 데 대 가지고 밤에는 가 가지고 큰 고기를 낚기 위해서 벵에돔이라는 고기나 이 돔이지. 돌돔 이만씩 한 거를 옛날에 그 낚았고. 그거고. 그런 대중 다 그런 농촌에 취미. 이 온평리에는 그런 거를 유행되었고. 미끼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갯강구라는 게 있어요.)

105011 @ 밥게예?(갯강구요?)

105011 #1 밥게면은 그 저 요새 같으면.(갯강구면 그 저 요새 같으면.)

105011 @ 바퀴벌레 닮은 거.(바퀴벌레 같은 거.)

105011 #2 바퀴벌레 닮은 그거 냄새가 대개 고약헙니다.(바퀴벌레 같은 그거 냄새가 대개 고약합니다.)

105011 @ 아아.(아아.)

105011 #1 그거 허곡 물주넹이 허고.(그거 하고 갯지렁이 하고.)

105011 #2 그거를 헤 가지고 밤에 훼를 무꺼서 싹 허민 그게 잡기가 빨른 거니까. 거기가 발이 뭐허민 거기 떨어지믄 그거를 이껍으로 헤 가지고 다 그 저 고기를 나깟고.(그거를 해 가지고 밤에 홰를 묶어서 싹 하면 그게 잡기가 빠른 거니까. 거기가 발이 뭐하면 거기 떨어지면 그거를 미끼로 해 가지고 다 그 저 고기를 낚았고.)

105011 @ 어, 물주넹이허곡, 예.(어, 갯지렁이하고, 예.)

105011 #2 물주넹이는 거 조그만한 고기덜 나끄는 거고.(갯지렁이는 거 조그마한 고기들 낚는 거고.)

105011 #1 주로 물주넹이 헷주. 코셍이 나끄는 거.(주로 갯지렁이 했지. 고생놀레기 낚는 거.)

105011 @ 코셍이 나끄는 건예?(고생놀레기 낚는 건요?)

105011 #2 어렝이 코셍이 나끄는 거.(어렝놀레기 고생놀레기 낚는 거.)

105011 @ 예, 그 삼춘 웨 첨대 헹은에 낙싯줄 허면 긴 줄이 노끗으로 허는 거잖아예? 그다음에 작은 줄은 철사로 헙니까?(예, 그 삼촌 왜 낚싯대 해서 낚싯줄 하면 긴 줄이 노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작은 줄은 철사로 합니까?)

105011 #2 철사 요만이 허영 낚시허곡 철사 헤 가지고.(철사 요만큼 해서 낚시하고 철사 해 가지고.)

105011 #1 철사 허는 거는 곳듸서 ᄇᆞ들락 나끄곡 무신거 허는 게 철사 허는 거곡. 바당에 영 허영 나끄는 거는 철사 읏어.(철사 하는 거는 가에서 베도라치 낚고 무엇 하는 게 철사 하는 거고. 바다에 이렇게 해서 낚는 거는 철사 없어.)

105011 #2 철사.(철사.)

105011 #4 정술 허는 거.(낚싯줄 하는 거.)

105011 #1 정술 허는 거.(낚싯줄 하는 거.)

105011 @ 음.(음.)

105011 #2 아, 게난 옛날은 다 노끗.(아, 그러니까 옛날은 다 노끈.)

105011 #1 철사는 이 곳듸서.(철사는 이 가에서.)

105011 #2 뭐를 헷느냐 허면 노끗을 사다가.(뭐를 했느냐 하면 노끈을 사다가.)

105011 @ 예.(예.)

105011 #2 이 어부덜토.(이 어부들도.)

105011 @ 예.(예.)

105011 #2 어부들도 돼지피를 무쳐 가지고 발려 가지고 끊어지지 안허게끔. 혼 발쯤 그 저 술을 헷다가 어부덜은 다 그렇게 헤 가지고.(어부들도 돼지피를 묻혀 가지고 발라 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한 발 쯤 그 저 줄을 했다가 어부들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5011 @ 예.(예.)

105011 #4 쒜줄로 낚싯대를 멘드는 거는 줄 멘드는 거는 ᄇᆞ들락 나끄는 거, 우럭 나

끄는 거.(쇠줄로 낚싯대를 만드는 거는 줄 만드는 거는 베도라치 낚는 거, 우럭 낚는 거.)

105011 @ 예.(예.)

105011 #1 예게.(예.)

105011 #4 우럭 나끄는 거.(우럭 낚는 거.)

105011 @ 예.(예.)

105011 #1 늣개통에서 돌러레 영 찔렁 허는 거.('늣개통'에서 돌로 이렇게 찔러서 하는 거.)

105011 @ 예, 예. 아아 돌러레 영 찔르는 거, 예예.(예, 예. 아아 돌로 이렇게 찌르는 거, 예예.)

105011 #1 그거는 쒜로 허고.(그거는 쇠로 하고.)

105012 @ 예, 알아수다. 그것도 나중에 또 물어보곡예, 그다음에 삼춘 아까 소살로.(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삼촌 아까 작살로.)

105012 #1 음.(음.)

105012 @ 궤기 쏘앗덴 허지 아녓수가양? 그건 어떤 식으로 쏘으는 거마씨? 궤기. 물에 강.(고기 쏘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그건 어떤 식으로 쏘는 거예요? 고기. 물에 가서.)

105012 #1 고기가 물에 물질허당 보민 엉덕[274]에 들어강 이시민.(고기가 물에 물질하다가 보면 '엉덕'에 들어가서 있으면.)

105012 @ 음.(음.)

105012 #1 올라왕 소살 가졍 강 고무이, 이것이 소살이면은.(올라와서 작살 가져가서 고무, 이것이 작살이면.)

105012 @ 예.(예.)

105012 #1 여기 고무줄을 둘주게.(여기 고무줄을 달지.)

105012 @ 예.(예.)

105012 #1 게믄 그걸 짝 늘리왕 들어강은에 봉.(그러면 그걸 짝 늘려서 들어가서 봐서.)

105012 #2 고기 줌자는 거.(고기 잠자는 거.)

105012 @ 예.(예.)

105012 #1 고기 잘 찔러낫주.(고기 잘 찔렀었지.)

105012 @ 아, 잘 찔러낫수가?(아, 잘 찔렀었습니까?)

105012 #1 옛날엔 물톳 북바리 다금바리 순 그런 거라나신디 요즘은.(옛날엔 감성돔 붉바리 다금바리 순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105012 @ 보지도 못헤예?(보지도 못한다고요?)

105012 #1 요즘은 북바리허고 다금바리는 엇어져 불언.(요즘은 붉바리하고 다금바리는 없어져 버렸어.)

274) '엉덕'은 언덕 밑의 바닷물이 있는 곳을 말한다.

105012 #3 다금바린 잇는디 북바린 씨져 불언.(다금바린 있는데 붉바린 씨져 버렸어.)

105012 @ 북바린예, 그다음에 그 작살도 그 소살도 보믄 삼춘, 영 그 소살이 하나짜리도 잇고.(붉바린요, 그다음에 그 작살도 그 '소살'도 보면 삼촌, 이렇게 그 작살이 하나짜리도 있고.)

105012 #1 하나짜리난. 영 곧짝헌 거 이거 여기 놀 아니?(하나짜리니까. 이렇게 곧은 거 이거 여기 날 아니?)

105012 @ 예.(예.)

105012 #1 게믄 여기 영 비닐 돋지주게.(그러면 여기 이렇게 미늘 돋치지.)

105012 @ 비닐 돋져.(미늘 돋쳐.)

105012 #1 덧니 난 거치록.(덧니 난 거처럼.)

105012 @ 예예.(예예.)

105012 #1 비닐 돋진 거.(미늘 돋친 거.)

105012 @ 게믄 그런 거는 하나짜리로만 써, 여기서는.(그러면 그런 거는 하나짜리로만 써, 여기서는.)

105012 #1 으으.(으으.)

105012 @ 어떤 데 보면 영 두 가달로 뭰 거.(어떤 데 보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된 거.)

105012 #1 아니, 비닐은 두 개주게.(아니, 미늘은 두 개지.)

105012 @ 비닐은 두 개고?(미늘은 두 개고?)

105012 #1 요만 쪽에 하나 잇고 요만 쪽에 하나 잇곡 비닐은 두 개주게.(요만한 쪽에 하나 있고 요만한 쪽에 하나 있고 미늘은 두 개지.)

105012 @ 예, 예. 맞수다예. 그다음에는 여기에는 그.(예, 예. 맞습니다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그.)

105012 #1 비닐이주.(미늘이지.)

105013 @ 여기는 궤깃베.(여기는 고깃배.)

105013 #1 으.(으.)

105013 @ 궤깃베들이 아까 솔라닛베도 잇엇고 우럭베 이런 식으로 뭐 갈칫베 영 뜩로뜩로 안 헙니까?(고깃배들이 아까 옥돔배도 있었고 우럭배 이런 식으로 뭐 갈칫배 이렇게 따로따로 안 합니까?)

105013 #2 아니 뜩론 안허고.(아니 따론 않고.)

105013 #1 아니 다.(아니 다.)

105013 @ 뜩로는 안하고.(따로는 않고.)

105013 #2 그 베가 그 어부들이 갈치 시절에는 갈치 나끄레 가고 솔레기 시절은 솔레기 나끄레 가고.(그 배가 그 어부들이 갈치 시절에는 갈치 낚으러 가고 옥돔 시절은 옥돔 낚으러 가고.)

105013 @ 예.(예.)

105013 #2 그 자리철 뒈민 자리 거리레 가고 그렇게 베 한 사람들이 어부들이.(그 자리돔철 되면 자리돔 뜨러 가고 그렇게 배 하는 사람들이 어부들이.)

105013 #4 다목적으로.(다목적으로.)

105013 @ 예, 다목적으로예. 그, 게고 삼춘예? 예전에 그 베가 아까 터베도 잇덴 헷수게. 베 종류를 한번 골아줘 봅서.(예, 다목적으로요. 그, 그러고 삼촌요? 예전에 그 배가 아까 떼배도 있다고 했잖아요. 배 종류를 한번 말해줘 보세요.)

105013 #1 테베는 저 무신거니 솔레기 나끄레 못 가고.(떼배는 저 무엇이니 옥돔 낚으러 못 가고.)

105013 #2 터베라는 거는 옛날.(떼배라는 거는 옛날.)

105013 @ 예.(예.)

105013 #2 이 거름허기 위헤서 듬북 노랑쟁이 요런 거를 자물앗고.(이 거름하기 위해서 듬북 괭생이모자반 요런 거를 채취했고.)

105013 @ 음.(음.)

105013 #2 자리를 거렷고. 요거벳긔 사용을 안 헷고. 그대로 배는 고기 나끄레 가 가지고 이제.(자리돔을 떴고. 요거밖에 사용을 안 했고. 그대로 배는 고기 낚으러 가 가지고 이제.)

105013 #1 거는 풍선.(거는 풍선.)

105013 #2 궤기 나끄고. 나중에는 막바로 이제 발전헐 때는 거기 저 해녀덜토 타 가지고 가. 메역이 막물 뒈엇을 때는 또 깊은 바다에 멧 사름 그걸 허다가 그걸로 끗나 버렷주.(고기 낚고. 나중에는 곧바로 이제 발전할 때는 거기 저 해녀들도 타 가지고 가. 미역이 막물 되었을 때는 또 깊은 바다에 몇 사람 그걸 하다가 그걸로 끝나 버렸지.)

105013 @ 예, 옛날에 여기 그 풍선예?(예, 옛날에 여기 그 풍선요?)

105013 #1 응.(응.)

105013 @ 그 풍선 허게 뒈면 그 풍선을 돌아얄 거 아니우과?(그 풍선 하게 되면 그 풍선을 달아야할 거 아닙니까?)

105013 #1 돗 돌 거, 돗 돌 거.(돛 달 거, 돛 달 거.)

105013 @ 예, 돗.(예, 돛.)

105013 #2 돗 달앙.(돛 달아서.)

105013 @ 돗 달앙예. 돗을 이 동네에서는 뭐렌 골아나수가? 옛날에.(돛 달아서요. 돛을 이 동네에서는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옛날에.)

105013 #1 벳돗[275]엔 헷주.('벳돗'이라고 했지.)

105013 #2 돗 달 정도로 헌 베가.(돛 달 정도로 한 배가.)

105013 #1 그냥 벳돗엔 헤.(그냥 '벳돗'이라고 해.)

105013 #2 그거 작은 베덜. 하나 정도 돌아 가지고 막 뭐헷을 때.(그거 작은 배들. 하나 정도 달아 가지고 막 뭐했을 때.)

105013 #1 노 젓엉 가고.(노 저어서 가고.)

275) '벳돗'은 배의 돛을 말한다.

105013 @ 으.(으.)

105013 #2 노를 젓고 저 오고 가고 그런 식벳기. 뭐 삼대선이여.(노를 젓고 저 오고 가고 그런 식밖에. 뭐 삼대선이다.)

105013 #2 벳돗이엔 허주.('벳돗'이라고 하지.)

105013 #1 이런 건 없엇고.(이런 건 없었고.)

105013 @ 아, 삼대선 이런 거 없고예, 벳돗이엔도 허주마는 초석이렌 안 골아 봅디가? 베초석.(아, 삼대선 이런 거 없고요, '벳돗'이라고도 하지만 '초석'이라고는 안 말해 봅디까? '베초석'.)

105013 #1 이디선.(여기선.)

105013 #2 베초석이엔은 안허고.('베초석'이라고는 않고.)

105013 #1 아니 헙니다. 이디선.(아니 합니다. 여기선.)

105013 @ 아.(아.)

105013 #1 베초석이엔 안 허여.('베초석'이라고는 안 해.)

105013 @ 삼춘, 그 초석이렌 들어봅디가?(삼촌, 그 '초석'이렌 들어봅디까?)

105013 #1 아니우다게.(아닙니다.)

(잡음)

105013 @ 아.(아.)

105013 #2 저 뭔가.(저 뭔가.)

105013 #5 아주 옛날에는 베초석 잇어낫주.(아주 옛날에는 '베초석' 있었었지.)

105013 @ 아주 옛날에는 베초석. 그 돗을 초석이렌 헙디다. 어디 강 보난.(아주 옛날에는 '베초석'. 그 돛을 '초석'이라고 합디다. 어디 가서 보니까.)

105013 #1 아니, 아니. 여기서.(아니, 아니. 여기서.)

105013 @ 예.(예.)

105013 #2 초석이엔 헌 거는 나가 말헌 게 메역이나 뭘 ᄌᆞ물레 가 가지고 듬북이나 ᄌᆞ물레 가 가지고. 요렇게 초석 쳐 가지고 헌 거벳긔는.('초석'이라고 한 거는 내가 말한 게 미역이나 뭘 캐러 가 가지고 듬북이나 캐러 가 가지고. 요렇게 초석 쳐 가지고 한 거밖에는.)

105013 #4 이 교수님이 얘기헌 거는 터위에 그 초석으로 헤근에 그 돗 ᄃᆞ는 거 여기는.(이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떼배에 그 초석으로 해서 그 돛 다는 거 여기는.)

105013 #2 터위렌 허는 거는.(떼배라고 하는 거는.)

105013 #4 그거 말씀하는 게. 여기선 초석으론 안 썻습니다.(그거 말씀하는 게. 여기선 초석으론 안 썼습니다.)

105013 @ 아, 초석으로 안 써예?(아, 초석으로 안 쓴다고요?)

105013 #2 초석으로 써보진 안 허여. 돗이엔 헌 거벳긔.(초석으로 써보진 안 해. 돛이라고 한 거밖에.)

105013 #1 예, 돗이엔 허주.(예, 돛이라고 하지.)

105013 @ 벳돗이렌예? 알아수다.('벳돗'이라고요? 알았습니다.)

105013 #4 여기서 천으로 돛을 만들지 초석으로 멘들진 아녀수다. 초석으로 안 멘들앗으니까.(여기서 천으로 돛을 만들지 초석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초석으로 안 만들었으니까.)

105013 @ 예, 예. 예. 그러면 여기는 다 광목.(예, 예. 예. 그러면 여기는 다 광목.)

105013 #2 광목천으로.(광목천으로.)

105013 @ 광목이나 미녕 이런 걸로 헌 거 아니라예? 옛날에.(광목이나 무명 이런 걸로 한 거 아닌가요? 옛날에.)

105013 #4 감물 들여서.(감물 들여서.)

105013 @ 감들 들영. 아, 돗 헐 때도 감물 들영은에 헙니까?(감들 들여서. 아, 돛 할 때도 감물 들여서 합니까?)

105013 #1 흰 것도 허고.(흰 것도 하고.)

105014 @ 흰 걸로도 허고예?(흰 걸로도 하고요?)

105014 #1 흰 것도 허고.(흰 것도 하고.)

105014 @ 예에, 알앗수다. 그다음에 우리 줌수들예?(예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잠수들요?)

105014 #1 으.(으.)

105014 @ 바당에서 ᄌᆞ무는 해산물, 어떤 거 잇입니까? 쭉 종류들 ᄀᆞᆯ아 봅서?(바다에서 캐는 해산물, 어떤 거 있습니까? 쭉 종류들 말해 보세요?)

105014 #1 잡는 거?(잡는 거?)

105014 @ 예, 바당에 강은에 줌는 거예.(예, 바다에 가서 캐는 거요.)

105014 #2 물에 들엉 허는 거.(물에 들어서 하는 거.)

105014 #1 아니게, 줌는 것이.(아니게, 캐는 것이.)

105014 @ 으.(으.)

105014 #1 구젱기, 셍복. 셍복이엔 허주.(소라, 생복. 생복이라고 하지.)

105014 @ 맞수다.(맞습니다.)

105014 #1 전복엔 안 허영.(전복이라고 안 해서.)

105014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5014 #1 셍복, 성게 예?(생복, 성게 예?)

105014 @ 성게도 이 동네 말로?(성게도 이 동네 말로?)

105014 #1 성게주게. 조게. 이 동네 말로 성게.(성게지. 오분제기. 이 동네 말로 성게.)

105014 @ 퀴렌은 안 헤 봅디가?(‘퀴’라고는 안 해 봤습니까?)

105014 #1 아니, 퀴엔 안허주.(아니, ‘퀴’라고 않지.)

105014 #3 귀엔 허지 아녓어?(‘귀’라고 하지 않았어?)

105014 #1 귀주, 귀. 귀.(‘귀’지, ‘귀’. ‘귀’.)

105014 @ 으.(으.)

105014 #1 퀴가 아니고 귀. 또 솜, 솜.(‘퀴’가 아니고 ‘귀’. 또 말똥성게, 말똥성게.)

105014 @ 솜.(말똥성게.)
105014 #1 으, 그거 보말.(으, 그거 보말.)
105014 @ 음.(음.)
105014 #1 수두리 그거 잡는 거주게.(팽이고둥 그거 잡는 거지.)
105014 @ 여기는 저기 미는?(여기는 저기 해삼은?)
105014 #3 메역.(미역.)
105014 #1 메역은 허고.(미역은 하고.)
105014 @ 미, 미?(해삼, 해삼?)
105014 #1 해솜.(해삼.)
105014 #4 미주.(해삼이지.)
105014 #1 아아, 해삼. 해삼이사 그 뭐.(아아, 해삼. 해삼이야 그 뭐.)
105014 #4 이제 뒈난 해솜 허주 미엔 헷주.(이제 되니까 '해솜' 하지, '미'라고 했지.)
105014 @ 여기도 미 헤낫수가?(여기도 '미' 했었습니까?)
105014 #1 여기도 미.(여기도 '미'.)
105014 @ 대죽미?('대죽미'?)
105014 #4 으, 아니 제주미[276] 아니고? 미.(으, 아니 '제주미' 아니고? '미'.)
105014 #5 옛날은 미.(옛날은 '미'.)
105014 @ 게난 그 미를 여긴 벌경허난 대죽미렌은 안 골아마씨? 이 동넨?(그러니까 그 해삼을 여긴 벌거니까 '대죽미'라고는 안 말해요? 이 동넨?)
105014 #5(할머니) 대축미[277].('대축미'.)
105014 #1 아아, 대축미엔 헌 거 그 미 중에.(아아, '대축미'라고 한 거 그 해삼 중에.)
105014 @ 예.(예.)
105014 #1 완전 빨강헌 거 가끔 ᄒᆞ나씩 납니다.(완전 빨간 거 가끔 하나씩 납니다.)
105014 @ 예.(예.)
105014 #1 게민 그거는 대축미엔 허주.(그러면 그거는 '대축미'라고 하지.)
105014 @ 대축미예? 맞아, 여기도 헤서예?('대축미'요? 맞아, 여기도 했어요?)
105014 #2 홍삼.(홍삼.)
105014 @ 홍삼예, 예.(홍삼요, 예.)
105014 #1 홍삼은 기자 그냥 보통 나는 거고 그 빨강헌 거 대축미.(홍삼은 그저 그냥 보통 나는 거고 그 빨간 거 '대축미'.)
105014 #2 게난 군수 굴멩이.(그러니까 군소 '굴멩이'.)
105014 @ 예.(예.)
105014 #1 또 잇수다. 빨강헌 거 잇수다. 색깔이 빨강헙니다. 대축미엔 헙니다, 거.

276) 여기에서 '제주미'는 조사자가 '대죽미'라고 하는 것을 제보자가 '제주미'라고 잘못 알아들어 발음한 것이다.
277) '대축미'는 '대축+미' 구성으로, '대축'은 수수, '미'는 해삼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수처럼 붉은 색을 띠는 해삼의 별칭이다. '대축'은 지역에 따라서 '대죽'이라고 한다.

(또 있습니다. 빨간 거 있습니다. 색깔이 빨갛습니다. '대축미'라고 합니다, 거.)

105014 @ 예. 예.(예. 예.)

105014 #5 그것이 잘 엇주게.(그것이 잘 없지.)

105014 @ 그다음에 삼춘, 굴멩이도 골아수다.(그다음에 삼촌, 군수도 말했습니다.)

105014 #2 굴멩이. 여기선 굴멩이엔 옛날 헤낫는디 요새 말로는 군수라고 허는디 온평리 말론 굴멩이.(군소. 여기선 '굴멩이'라고 옛날 했었는데 요새 말로는 군소라고 하는데 온평리 말론 '굴멩이'.)

105015 @ 예, 굴멩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질허젠 허믄양 준비헤 갈 도구?(예, 군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질하려고 하면요 준비해 갈 도구?)

105015 #2 으.(으.)

105015 @ 어떤 거 잇어마씨?(어떤 거 있었어요?)

105015 #1 옛날에사게 물적삼[278] 입곡 속곳 입곡 도구엔 헌 건. 테왁[279]은 ᄏᆞ테왁[280]허고.(옛날에야 '물적삼' 입고 속곳 입고 도구라고 한 건. '테왁'은 'ᄏᆞ테왁'하고.)

105015 @ 예.(예.)

105015 #1 ᄏᆞ테왁허고 비창허곡 그 도구는 뭐 골게기나 호미 그 마찬가지 지금도.('ᄏᆞ테왁'하고 비창하고 그 도구는 뭐 호미나 낫 그 마찬가지 지금도.)

105015 @ 지금도 골게기에 그냥 가져가곡양?(지금도 호미에 그냥 가져가고요?)

105015 #1 골게기 미역헐 땐 호미.(호미 미역할 땐 낫.)

105015 @ 예.(예.)

105015 #3 물수건[281] 허고.('물수건' 하고.)

105015 @ 예.(예.)

105015 #1 비창[282] 마찬가지.('비창' 마찬가지.)

105015 @ 예. 물수건도 쓰곡.(예. '물수건'도 쓰고.)

105015 #1 흰 수건, 광목수건.(흰 수건, 광목수건.)

105015 @ 그다음 여기는?(그다음 여기는?)

105015 #1 족은눈[283].('족은눈'.)

105015 @ 족은눈, 옛날은 족은눈예?('족은눈', 옛날은 '족은눈'요?)

105015 #1 으, 족은눈.(으, '족은눈'.)

105015 @ 요즘은 이제.(요즘은 이제.)

105015 #1 큰, 으, 안경엔 허주. 큰 물안경.(큰, 으, 안경이라고 하지. 큰 물안경.)

105015 @ 이젠 물안경 허주마는 큰눈이렌은 안 헤 봅디가?(이젠 물안경 하지만 '큰눈'이라고는 안 해 봅디까?)

105015 #1 큰눈[284] 무사게, 지금은 다 큰눈 쓰주게.('큰눈' 왜, 지금은 다 '큰눈' 쓰

278) '물적삼'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이다.
279) '테왁'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짚는 물건이다. 예전에는 박으로 만들었으나 요즘은 스티로폼으로 만든다.
280) 'ᄏᆞ테왁'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짚는 박으로 만든 물건이다.
281) '물수건'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머리를 동여매는 천으로 만든 물건이다.
282) '비창'은 잠녀들이 바다에서 전복을 딸 때 사용하는 쇠로 만든 도구다.
283) '족은눈'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알이 두 개로 된 물안경을 말한다.

지.)

105015 @ 이젠 큰눈 쓰고예?(이젠 '큰눈' 쓰고요?)

105015 #1 으.(으.)

105015 @ 게믄 여기에서 그 눈들은 어디 강은에 구헹 와마씨? 이 동네도 만드는 하르방 잇엇낫수가?(그러면 여기에서 그 눈들은 어디 가서 구해서 와요? 이 동네도 만드는 할아버지 있었었습니까?)

105015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5015 @ 어디 거?(어디 거?)

105015 #5 한동[285].(한동.)

105015 #1 한동인가 어디 함덕[286]인가 한동인가.(한동인가 어디 함덕인가 한동인가.)

105015 @ 한동 하르방이 잘헤낫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망시리, 예, 옛날 ᄏᆞ테왁 헷주마는.(한동 할아버지가 잘했었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망사리, 예, 옛날 'ᄏᆞ테왁' 했지만.)

105015 #1 망사리?(망사리?)

105015 @ 망사리?(망사리?)

105015 #1 으.(으.)

105015 @ 망사리도 옛날허고 요즘은?(망사리도 옛날하고 요즘은?)

105015 #1 망사린, 망사리는 옛날에 우리 클 때는.(망사린, 망사리는 옛날에 우리 클 때는.)

105015 @ 예.(예.)

105015 #1 미[287], 미우젱이[288].('미', '미우젱이'.)

105015 @ 음.(음.)

105015 #1 이? 미우젱이 빠당은에 그거 두드렁은에도 허고, 신사라. 신사라 엇인 사름은 미우젱이 빠다근에 허곡 신사라 이신 사름은 신사라망사리[289] 허곡.(이? '미우젱이' 뽑아다가 그거 두들겨서 하고, 뉴질랜드삼. 뉴질랜드 없는 사람은 '미우젱이' 뽑아다가 하고 뉴질랜드삼 있는 사람은 '신사라망사리' 하고.)

105015 @ 음, 신사라가 더 질겨마씨?(음, 뉴질랜드삼이 더 질겨요?)

105015 #1 신사라. 아니 더 질기나마나 질기는 건 마찬가진데, 허기가 좋주게. 신사라.(뉴질랜드삼. 아니 더 질기나마나 질기는 건 마찬가진데, 하기가 좋지. 뉴질랜드삼.)

105015 #2 신사라는 근간에 나온 거고. 옛날은 다 미.(뉴질랜드삼은 근간에 나온 거고. 옛날은 다 '미'.)

---

284) '큰눈'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알이 하나로 된 물안경을 말한다.
285) '한동'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를 말한다.
286) '함덕'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를 말한다.
287) '미'는 억새의 꽃을 싸고 있는 줄기를 말한다.
288) '미우젱이'는 억새꽃을 싸고 있는 줄기를 말한다.
289) '신사라망사리'는 뉴질랜드삼을 부드럽게 두들린 후 꼬아서 결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들고 가는 '테왁'에 연결해 쓰는 그물주머니다.

105015 @ 미예?(‘미’요?)

105015 #1 미로만.(‘미’로만.)

105015 #2 미를 빠 가지고 그 저 봄 나면 이제 ᄉᆞ월 오월 유월들 지금 쪼금 지나 버렷네.(‘미’를 뽑아 가지고 그 저 봄 되면 이제 사월 오월 유월 지금 쪼금 지나 버렸네.)

105015 @ 예.(예.)

105015 #2 그거를 빠다가 장만을 헤 가지고.(그거를 뽑아다가 장만을 해 가지고.)

105015 #1 지금 지나지 아녀수다. 칠월 나사 그.(지금 지나지 않았습니다. 칠월 나야 그.)

105015 #2 그걸로 이제.(그걸로 이제.)

105015 #1 칠팔월 나사 미우젱이 빠는 거주.(칠팔월 돼야 ‘미우젱이’ 뽑는 거지.)

105015 @ 으.(으.)

105015 #2 그걸 빠다가 장만헷다가 걸 꼬아 가지고 망사리를 다 만들앗어.(그걸 뽑아다가 장만했다가 걸 꼬아 가지고 망사리를 다 만들었어.)

105015 @ 게믄 그런 망사리는 무신 망사리엔 골아마씨?(그러면 그런 망사리는 무슨 망사리라고 말해요?)

105015 #5 미망사리.(‘미망사리’.)

105015 #1 미망사리[290], 신사라망사리 미망사리 경 헷주게.(‘미망사리’, ‘신사라망사리’ ‘미망사리’ 그렇게 했지.)

105015 @ 아.(아.)

105015 #2 경 허다 나이롱 나오기 시작허난 허곡.(그렇게 하다가 나일론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고.)

105015 @ 그것도 삼춘, 메역 ᄌᆞ물 때 허고.(그것도 삼촌, 미역 채취할 때 하고.)

105015 #1 으.(으.)

105015 @ 그냥 일반 그 헛물에 헐 때 허고는 ᄐᆞ나지양?(그냥 일반 그 ‘헛물에’ 할 때 하고는 다르지요?)

105015 #1 아, 아니 미역망사리[291]허고 헛물에망사리[292]는 같이 고망썩 요만썩 고망 허영 허곡. 듬북허는 것만 틀리주게.(아, 아니 ‘미역망사리’하고 ‘헛물에망사리’는 같이 구멍씩 요만큼씩 구멍 해서 하고. 듬북 하는 것만 다르지.)

105015 @ 아, 듬북 허는 거는? 건 어떤 식으로 허여?(아, 듬북 하는 거는? 건 어떤 식으로 해?)

105015 #1 걸망[293]이엔 허영은에 고망을 막 이만씩 홁게 만들아.(‘걸망’이라고 해서

290) ‘미망사리’는 억새의 꽃을 싸고 있는 줄기를 꼬아서 만든 그물주머니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들고 가는 ‘테왁’에 연결해 쓴다.

291) ‘미역망사리’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테왁에 매달아 사용하는 그물주머니다.

292) ‘헛물에망사리’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소라나 전복 따위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테왁에 매달아 사용하는 그물주머니다.

293) ‘걸망’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듬북 따위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테왁에 매달아 사용하는 그물주머니다. 미역이나 소라 따위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망사리보다 그물코가 크다.

구멍을 아주 이만큼씩 굵게 만들어.)

105015 @ 음.(음.)

105015 #1 영 묮이는 것이.(이렇게 맺는 것이.)

105015 @ 예.(예.)

105015 #1 막 훅게 허는 거 걸망.(막 굵게 하는 거 '걸망'.)

105015 @ 걸망.('걸망'.)

105015 #1 으.(으.)

105015 @ 그다음에 쪼꼴락헌 것도 요즘은 가정 뎅기지예?(그다음에 조그마한 것도 요즘은 가져서 다니지요?)

105015 #5 조락[294].('조락'.)

105015 #1 조락.('조락'.)

105015 @ 조락. 으, 옛날도 게믄 그런 조락도 앗앙 뎅겻수가?('조락'. 으, 옛날도 그러면 그런 '조락'도 가져서 다녔습니까?)

105015 #1 거는 조락. 건 조락.(거는 '조락'. 건 '조락'.)

105015 @ 건 조락예? 아까 해산물허고 우리 그 바당에서 이제 메역 헹은에 이런 식물예?(건 '조락'요? 아까 해산물하고 우리 그 바다에서 이제 미역 해서 이런 식물요?)

105015 #1 으.(으.)

105015 @ 그런 거 ᄌᆞ무는 건 어떤 거 잇어?(그런 거 채취하는 건 어떤 거 있어?)

105015 #1 메역허제[295] 허민 삼ᄉᆞ월에, 이 삼ᄉᆞ월에 허주, 메역허제. 삼월. ᄉᆞ월은 나민 늦인메역이고. 이삼월에 헤여근엥에 영등굿[296] 곧 넘으민 메역허젤 헙니다.('미역허채' 하면 삼사월에, 이 삼사월에 하지, '미역허채'. 삼월. 사월은 되면 '늦은미역'이고. 이삼월에 해서 '영등굿' 곧 넘으면 '미역허채'를 합니다.)

105015 @ 음.(음.)

105015 #1 게난 그걸 딱 금헷당 헤낫주, 옛날에. 게믄 그거 ᄆᆞᆯ려근엥에 풀아낫주게.(그러니까 그걸 딱 금했다가 했었지, 옛날에. 그러면 그거 말려서 팔았었지.)

105015 @ 음.(음.)

105015 #1 건 이녁만씩.(건 이녁만큼씩.)

105015 @ 음.(음.)

105015 #1 개인 바당은 이녁만씩.(개인 바다는 이녁만큼씩.)

105015 @ 아, 이녁만큼씩?(아, 이녁만큼씩?)

105015 #1 이녁만큼씩.(이녁만큼씩.)

105015 @ 게난 그 허제 헹은에 메역헐 때는 다 공동으로 허지 아녀마씨?(그러니까 그 허채 해서 미역할 때는 다 공동으로 하지 않아요?)

---

294) '조락'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갖고 가는 작은 그물주머니. 오분자기나 전복 따위를 따면 넣는다.

295) '메역허제[-許採]'는 미역 채취를 허가하는 일을 말한다.

296) '영등굿'은 음력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제주에서 바다의 신 '영등할망'(또는 영등하르방)을 위하는 굿이다. 해녀와 어부들은 '영등할망'은 해상의 안전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105015 #1 아니, 이녁만썩.(아니, 이녁만큼씩.)

105015 @ 아.(아.)

105015 #5 학교바당[297]만 공동헷주.('학교바다'만 공동했지.)

105015 #1 예, 이녁만썩.(예, 이녁만큼씩.)

105015 @ 학교바당만 공동으로 헌 거라예? 이녁만씩.('학교바다'만 공동으로 한 거라고요? 이녁만큼씩.)

105015 #1 건 학교 살리젠 허난 공동으로 양쪽 바당 끊언에.(건 학교 살리려고 하니까 공동으로 양쪽 바다 끊어서.)

105015 @ 으.(으.)

105015 #1 거 경 헌 거곡. 경 아년 건 다 이녁만씩.(거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않은 건 다 이녁만큼씩.)

105015 @ 게믄 이제 잘허는 사름들은 엄청 허고.(그러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하고.)

105015 #1 어, 열 칭 허는 사름 일곱 칭 허는 사름 다섯 칭 허는 사름 세 칭 허는 사름 경 허주게.(어, 열 칭 하는 사람 일곱 칭 하는 사람 다섯 칭 하는 사람 세 칭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105015 @ 메역철엔예?(미역철엔요?)

105015 #1 메역철[298]에.('미역철'에.)

105015 @ 아, 게믄 이 동네는 메역은 어떤 메역덜 나마씨?(아, 그러면 이 동네는 미역은 어떤 미역들 나요?)

105015 #1 어떤 메역이 무신.(어떤 미역이 무슨.)

105015 @ 메역 종류가 흔 종류?(미역 종류가 한 종류?)

105015 #1 흔 종류주.(한 종류지.)

105015 #2 옛날 흔 종류.(옛날 한 종류.)

105015 @ 이젠 흔 종류.(이젠 한 종류.)

105015 @ 우도 가면 넙메역 잇고.(우도 가면 넓미역 있고.)

105015 #1 아, 넙메역 ᄀᆞ튼 건 이디 엇어.(아, 넓미역 같은 건 여기 없어.)

105015 @ 엇어예?(없다고요?)

105015 #5 저짝에 표선리[299]허고 온평리 메역 췌고.(저쪽에 표선리하고 온평리 미역 최고.)

105015 #1 넙미역은 엇어.(넓미역은 없어.)

105015 @ 메역이 췌고.(미역이 최고.)

105015 #1 나 안 ᄀᆞᆯ읍디가게. 이딘 돌팟이라 부난 모든 해산물이 딴 부락보단 특별

297) '학교바당'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온평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된 바다다. 이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 따위를 해서 판 돈은 학교를 위하여 썼다고 해서 '학교바당'이라는 이름을 붙었다.

298) '메역철'은 미역을 하는 시기라는 의미다.

299) '표선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를 말한다.

이 맛잇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렇게 센다고. 막 이디 거.(나 안 말합디까. 여긴 돌밭이어 버리니까 모든 해산물이 딴 부락보단 특별히 맛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렇게 센다고. 아주 여기 거.)

105018 @ 음, 그다음엔예, 아까 삼춘, 여기에서는 메역 잇고 그 우리 ᄌᆞ물아당 먹는예, 바당풀 어떤 것덜 잇어마씨?(음, 그다음에는요, 아까 삼촌, 여기에서는 미역 있고 그 우리 캐다가 먹는요, 바다풀 어떤 것들 있어요?)

105018 #1 아, 톨허고.(아, 톳하고.)

105018 @ 톨허고.(톳하고.)

105018 #1 으, 톨허고 옛날엔 저 ᄆᆞ음 많이 나나신디 이젠 ᄆᆞ음은 엇고.(으, 톳하고 옛날엔 저 모자반 많이 났었는데 이젠 모자반은 없고.)

105018 @ 음.(음.)

105018 #5 메역세.(미역쇠.)

105018 #1 메역세도 엿날이주. 이제 먹읍니까게. 옛날에. ᄆᆞ음은 없고. 메역세도.(미역쇠도 옛날이지. 이제 먹읍니까. 옛날에. 모자반은 없고. 미역쇠도.)

105018 @ 옛날에 헤난 것덜?(옛날에 했던 것들?)

105018 #1 옛날은 메역세 헤근엥에 그 메역은 돈 받젠 돈 벌젠 허고.(옛날은 미역쇠 해서 그 미역은 돈 받으려고 돈 벌려고 하고.)

105018 @ 예.(예.)

105018 #1 메역세는 메여당 잔치 때, 잔치 때나 뭐헐 때 국거리 허젠.(미역쇠는 매다가 잔치 때, 잔치 때나 뭐할 때 국거리 하려고.)

105018 @ 예.(예.)

105018 #1 경 허영 막 메역세 헷젠. 막 메역세 메레 막 ᄉᆞ뭇 ᄃᆞᆯ으곡.(그렇게 해서 아주 미역쇠 했다고. 막 미역쇠 메러 막 사뭇 닫고.)

105018 @ 아, 메역세로 잔치헷구나.(아, 미역쇠로 잔치했구나.)

105018 #1 국 끓이젠.(국 끓이려고.)

105018 @ 예, 게믄예, 그다음 ᄆᆞ음도 종류가 ᄋᆞ라 개 아니? ᄆᆞ음 종류?(예, 그럼요, 그다음 모자반도 종류가 여러 개 아니? 모자반 종류?)

105018 #1 아, 저기 무신거 쥐ᄆᆞᆷ[300] 잇고 기자 ᄆᆞᆯ망 잇고.(아, 저기 무엇 '쥐ᄆᆞᆷ' 있고 그저 모자반 있고.)

105018 @ 으.(으.)

105018 #1 쥐ᄆᆞᆷ, 쥐ᄆᆞᆷ.('쥐ᄆᆞᆷ', '쥐ᄆᆞᆷ'.)

105018 @ 게믄 이 동네도 ᄆᆞ음이옌도 허고 ᄆᆞᆯ망엔도 헙니까?(그러면 이 동네도 'ᄆᆞ음'이라고도 하고 'ᄆᆞᆯ망'이라고도 합니까?)

105018 #1 옛날은 ᄆᆞᆯ망이고 요샌 ᄆᆞ음이엔 허곡.(옛날은 'ᄆᆞᆯ망'이고 요샌 'ᄆᆞ음'이라고 하고.)

105018 @ 아아. 게민 예전에는 이 동네 ᄆᆞᆯ망?(아아. 그러면 예전에는 이 동네 'ᄆᆞᆯ

300) '쥐ᄆᆞᆷ'은 모자반의 일종이다. 공기주머니와 잎이 모자반보다 잘다. 달리 '쥐ᄆᆞᆯ망'이라고도 한다.

망’?)

105018 #2 물망, 물망.(‘물망’, ‘물망’.)

105018 @ 물망예, 으, 그 물망 종류가.(‘물망’요, 으, 그 모자반 종류가.)

105018 #1 조용헙서.(조용하십시오.)

105018 @ 물망도 쥐물망 헤? 게믄, 무신?(모자반도 ‘쥐물망’ 해 그러면, 무슨?)

105018 #1 쥐몸. 쥐물망.(‘쥐몸’. ‘쥐물망’.)

105018 @ 으, 쥐물망 허고. 그냥 춤물망? 춤.(으, ‘쥐물망’ 하고. 그냥 ‘춤물망’? ‘춤몸’.)

105018 #1 막 좀질주. 쥐물망[301]은.(아주 자잘하지. ‘쥐물망’은.)

105018 @ 춤물망이렌 말은 안 해? 춤몸.(‘춤물망’이라는 말은 안 해? ‘춤몸’.)

105018 #5 몸이 춤물망[302]이주기.(모자반이 ‘춤물망’이지.)

105017 @ 예, 춤물망예. 예, 알아수다. 그 옛날예, 그냥 속곳 입엉은에 속곳이렌 허여? 여긴 소중이, 속곳?(예, ‘춤물망’요. 예, 알았습니다. 그 옛날요, 그냥 속곳 입어서 속곳이라고 해? 여긴 ‘소중이’, ‘속곳’?)

105017 #1 으.(으.)

105017 @ 속곡 입엉은에 헐 때 허고 나중에 그 고무옷 입곡 헐 때 허고 그 차이 혼 번 골아 줍서. 어떵헙디가?(속곡 입어서 할 때 하고 나중에 그 고무옷 입고 할 때 하고 그 차이 한 번 말해 주십시오. 어떡합디까?)

105017 #1 차이사게.(차이야.)

105017 #3 천지 차이주게.(천지 차이지.)

105017 #1 차이사게. 저 속곳 입을 땐.(차이야. 저 속곳 입을 땐.)

105017 #5 댓 시간씩 살아. 물에. 그냥은 혼 시간 이상 못 살아.(댓 시간씩 살아. 물에. 그냥은 한 시간 이상 못 살아.)

105017 @ 음, 삼촌은?(음, 삼촌은?)

105017 #1 혼 시간도 저.(한 시간도 저.)

105017 #5 잘 살아사 오래 살아사 혼 시간 살아.(잘 살아야 오래 살아야 한 시간 살아.)

105017 #1 겐디 그때는 물건이 하주게.(그런데 그때는 물건이 많지.)

105017 @ 예, 예.(예. 예.)

105017 #1 바당에 오래 못 사니까.(바다에 오래 못 사니까.)

105017 #3 혼 시간 못 살아.(한 시간 못 살아.)

105017 @ 혼 사름씩예?(한 사람씩요?)

105017 #1 물건이 하근에, 물건이 하근에 막 전복, 전복이고 뭐 구젱기고 뭐고 한데 물에 드는 시간이 짧으니까.(물건이 많아서, 물건이 많아서 막 전복, 전복이고 뭐 소라고 뭐고 하는데 물에 드는 시간이 짧으니까.)

---

301) ‘쥐물망’은 모자반의 일종이다. 공기주머니와 잎이 모자반보다 잘다. 달리 ‘쥐몸’이라고도 한다.
302) ‘춤물망’은 먹는 모자반이라는 의미다. 먹지 않는 모자반에 대비해서 ‘춤-’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105017 @ 예, 예.(예. 예.)

105017 #1 겐디 지금은 옷 입어 부난에 전복도 잘 엇고.(그런데 지금은 옷 입어 버리니까 전복도 잘 없고.)

105017 @ 으.(으.)

105017 #1 다섯 시간 으섯 시간 살기 때문에게 옷 입곡.(다섯 시간 여섯 시간 살기 때문에 옷 입고.)

105017 @ 음, 게믄예, 삼춘. 예전에 이제 그 적삼 입은 것도 후제 아니라예?(음, 그러면요, 삼촌. 예전에 이제 그 적삼 입은 것도 후에 아닌가요?)

105017 #1 으.(으)

105017 @ 적삼 전에는 그자 속곳만 입엉도 헤난?(적삼 전에는 그저 속곳만 입어서도 했었어?)

105017 #1 아무 것도 안 입엇주. 적삼 전에는.(아무 것도 안 입었지. 적삼 전에는.)

105017 @ 적삼 전에 게문.(적삼 전에 그러면.)

105017 #1 게, 속곳만 입엉.(게, 속곳만 입어서.)

105017 @ 삼춘 어렷을 때 입엇던 물옷 이 한번 쭉 골아 봅서. 어떤 옷 입엉은에 물질헤 왓저.(삼촌 어렸을 때 입었던 물옷 이 한번 쭉 말해 보십시오. 어떤 옷 입어서 물질해 왔다.)

105017 #1 아니, 우리, 우리 헐 때는 기자 속곳허고 물적삼 입언 헤 왓주. 경 허다근에.(아니, 우리, 우리 할 때는 그저 속곳하고 '물적삼' 입어서 해 왔지. 그렇게 하다가.)

105017 @ 삼춘네는?(삼촌네는?)

105017 #1 고무옷 나수다.(고무옷 났습니다.)

105017 @ 삼춘네는 으?(삼촌네는 으?)

105017 #1 으.(으.)

105017 @ 삼춘도 물수건도 써 보고.(삼촌도 물수건도 써 보고.)

105017 #1 으게.(으.)

105017 @ 게믄 삼춘네 어머니 시절에는 적삼을 안 입은 거?(그러면 삼촌네 어머니 시절에는 적삼을 안 입은 거?)

105017 #1 안 입엇지.(안 입었지.)

105017 #5 적삼 허영 저 입을 돈이 어디 셔게.(적삼 해서 저 입을 돈이 어디 있어.)

105017 #2 그때는 안 입엉 헷어.(그때는 안 입어서 했어.)

105017 #5 저 속곳만 입엉. 광목도 저 저 무신거 베급 주곡 허난에 광목 ᄀᆞ뜬 것도 꼴 못 봐나신디.(저 속곳만 입어서. 광목도 저 저 무엇 배급 주고 하니까 광목 같은 것도 꼴 못 봤었는데.)

105017 @ 그런 식으로. 모자도 써 봅디가?(그런 식으로. 모자도 써 봅디까?)

105017 #1 아니, 고무모자벳긔 물에 드는 딘 수건.(아니, 고무모자밖에 물에 드는 덴 수건.)

105017 #3 까부리[303] 써낫주. 까부리. 까부리 멘들안 썻주.('까부리' 썼었지. '까부

리'. '까부리' 만들어서 썼지.)

105017 @ 까부리?('까부리'?)

105017 #3 만들안덜. 중간에사 헷주.(만들어서들. 중간에야 했지.)

105017 #5 게메.(글쎄.)

105017 @ 예. 알안. (예. 알았어요.)

105017 #3 적삼 까부리 중간에 썻주. **(적삼 '까부리' 중간에 썼지. **)

105018 @ 삼춘, 이 동네도 톨도 하영 나마씨?(삼촌, 이 동네도 톳도 많이 나요?)

105018 #1 막 하영 나낫수다. 옛날에. 이 오염뒈 부난에 톨이 엇어져분 건디.(아주 많이 났었습니다. 옛날에. 이 오염되어 버리니까 톳이 없어져 버린 건데.)

105018 @ 예.(예.)

105018 #1 흔 개금이[304] 허면은 우리 여맞은개[305] ᄀᆞ뜬 딘양 팔십 칭ᄁᆞ장 나낫수다게.(흔 '개금이' 하면 우리 '여맞은개' 같은 덴요 팔십 칭까지 났었습니다.)

105018 @ 아.(아.)

105018 #1 경 헤근엥에 기자 저 헤나신디. 이제는 톨이 엇어.(그렇게 해서 그저 저 했었는데. 이제는 톳이 없어.)

105018 @ 아.(아.)

105018 #1 그냥 먹을 정도벳긔.(그냥 먹을 정도밖에.)

105018 @ 그 톨 헤난 이야기 헤줍서. 옛날에 톨 하영.(그 톳 했던 이야기 해주십시오. 옛날에 톳 많이.)

105018 #1 개금이 부떵. 사람들이 우리가 여맞은개 입찰을 헤서 바당을 사니까. 사람덜이 다 부뜨는 거라. 그 바당에. 부뜨민 그것이 흔 바당에 흔 조가 뒐 거 아니?('개금이' 붙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여맞은개' 입찰을 해서 바다를 사니까. 사람들이 다 붙는 거야. 그 바다에. 붙으면 그것이 한 바다에 한 조가 될 거 아니?)

105018 @ 예.(예.)

105018 #1 경 헤영 헤낫수다.(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105018 @ 개금이엔 헌 건 뭐우과?('개금이'라고 한 건 뭡니까?)

105018 #1 예를 들엉 말허면은.(예를 들어서 말하면.)

105018 @ 예.(예.)

105018 #1 요건 생동산[306].(요건 '생동산'.)

105018 @ 예.(예.)

105018 #1 용머리[307].('용머리')

---

303) '까부리'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썼던 광목 따위로 만든 모자다. 일본어 'かぶりもの'(카부리모노, 쓰개의 총칭)에서 온 말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かぶり(카부리)'는 머리, 'もの(모노)'는 물건을 의미하는 일본어다.

304) '개금이'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바다의 일정 구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305) '여맞은개'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바다 지명의 하나다.

306) '생동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지명의 하나다.

307) '용머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지명의 하나다.

105018 @ 으.(으.)

105018 #1 요거는 여맞은개.(요거는 '여맞은개'.)

105018 @ 예.(예.)

105018 #1 요게 도에[308] 바당 이름이.(요게 '도에' 바다 이름이.)

105018 @ 예.(예.)

105018 #1 바당 이름이 요 용머리 혼 개금이, 이거게 도에 혼 개금이.(바다 이름이 요 '용머리' 한 '개금이', 이거 '도에' 한 '개금이'.)

105018 #2 구역, 구역. 구역.(구역, 구역. 구역.)

105018 #1 저 알바르[309] 허민 알바르 혼 개금이.(저 '알바르' 하면 '알바르' 한 '개금이'.)

105018 #5 개금이엔 헤 부난 몰라벰주게. 혼 조.('개금이'라고 해 버리니까 몰라버리지. 한 조.)

105018 #3 그 바당에. 혼 부트는 사름이라.(그 바다에. 한 붙는 사람이야.)

105018 @ 예.(예.)

105018 #1 골암수게게, 개금이.(말하고 있습니다, '개금이'.)

105018 #5 게메, 개금이.(글쎄, '개금이'.)

105018 #1 개금이. 그것이 개금이주게.('개금이'. 그것이 '개금이'지.)

105018 @ 예, 알아수다. 게믄 이제 그 톨 헐 때 이제 구역마다 개금이를 정허는 거라예?(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톳 할 때 이제 구역마다 '개금이'를 정하는 거네요?)

105018 #1 으.(으.)

105018 @ 게믄 삼춘네는 어느 아까 어느?(그러면 삼촌네는 어느 아까 어느?)

105018 #1 으으으, 이디 여맞은개 부뜬 사름은 여맞은개만 왕 허곡.(으으으, 이디 '여맞은개' 붙은 사람은 '여맞은개'만 와서 하고.)

105018 @ 으.(으.)

105018 #1 알바르 헌 사름은 알바르만 허고.('알바르' 하는 사람은 '알바르'만 하고.)

105018 @ 아, 게난 거기에 혼 조가 개금이헌 거라예?(아, 그러니까 거기에 한 조가 '개금이' 한 거네요?)

105018 #1 예, 예.(예. 예.)

105018 @ 알앗수다.(알았습니다.)

105018 #1 사십 명이든 오십 명이든 그때 경 부터낫수다.(사십 명이든 오십 명이든 그때 그렇게 붙었었습니다.)

105018 #1 으.(으.)

105018 @ 그치룩 우리는 이 구역에 허켜.(그처럼 우리는 이 구역에 하겠다.)

105018 #1 으으으.(으으으.)

---

308) '도에 바당'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바다 이름의 하나다.

309) '알바르'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바다 이름의 하나다. 마을 아래 쪽에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105018 @ 니네는 저 구역에 허라. 그걸 개금이렌 정허는 거라예? 예, 알앗수다. 게믄 그것도 개인으로 허고 공동으로 헤?(너희는 저 구역에 하라. 그걸 '개금이'라고 정하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개인으로 하고 공동으로 해?)

105018 #1 건 공동. 톨은 공동.(건 공동. 톳은 공동.)

105018 @ 톨은 공동 허는데 메역은 공동을 안 헷어예?(톳은 공동 하는데 미역은 공동을 안 했다고요?)

105018 #2 으.(으.)

105019 @ 아, 여기에 게믄 그 우미도 하영 나마씨?(아, 여기에 그러면 그 우뭇가사리도 많이 나요?)

105019 #1 으으.(으으.)

105019 @ 이 바당에.(이 바다에.)

105019 #1 우미 하영 안 납니다. 여기.(우뭇가사리 많이 안 납니다. 여기.)

105019 @ 아, 이 바당은 우미가?(아, 이 바다는 우뭇가사리가?)

105019 #1 우미 바당이 엇어. 늣개통[310]에만.(우뭇가사리 바다가 없어. '늣개통'에만.)

105019 @ 예.(예.)

105019 #1 늣개통에만 저 여맞은개 헌 디도 우미 ᄒᆞ꼼 나곡 요디 양식장엔 헤근에 개 옆의, 개 옆의 그디 우미 ᄒᆞ꼼 나곡 허주. 우미 바당 엇수다, 온평리는.('늣개통'에만 저 '여맞은개' 하는 데 우뭇가사리 조금 나고 요기 양식장이라고 해서 개 옆에, 개 옆에 거기 우뭇가사리 조금 나고 하지. 우뭇가사리 바다 없습니다, 온평리는.)

105019 @ 아아, 여기는 하영 안 나는구나예? 여기는 암만해도 이제 그. 잠깐만예?(아아, 여기는 많이 안 나는군요? 여기는 암만해도 이제 그. 잠깐만요?)

(부분 생략)

105018 @ 삼춘 톨, 톨도 종류가 잇어마씨?(삼촌 톳, 톳도 종류가 있어요?)

105018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5018 #1 납작톨[311] 잇곡 그냥 동글락헌 톨이 잇주. 납작톨엔 허여근에 종류가 톨 이름은 ᄀᆞ튼디 종류가 납작톨 나는 딘 납작허게. 톨이 이파리가 납작허게 나난 납작톨엔 허곡. 게난 그것은 또 기자 톨보다 맛이 ᄒᆞ꼼 틀려양.('납작톨' 있고 그냥 동그란 톳이 있지. '납작톨'이라고 해서 종류가 톳 이름은 같은데 종류가 '납작톨' 나는 덴 납작하게. 톳이 이파리가 납작하게 나니까 '납작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또 그저 톳보다 맛이 조금 달라요.)

105018 @ 아.(아.)

105018 #1 경 헤영 그.(그렇게 해서 그.)

105018 @ 어린 톨은 이름 뭐렌 안 ᄀᆞᆯ읍니까?(어린 톳은 이름 뭐라고 안 말합니까?)

105018 #1 아니.(아니.)

---

310) '늣개통'은 바닷가에 있는 웅덩이다. 물이 고여 있고, 바다 이끼가 끼어 있는 곳이어서 붙은 명칭이 아닌가 한다.

311) '납작톨'은 톳의 모양이 납작해서 붙은 이름이다.

105018 @ 어린 거. 뭐 봉당톨이여 뭐 이런 말 안 허여?(어린 거. 뭐 '봉당톨'이다 뭐 이런 말 안 해?)

105018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5018 #5 보말톨[312].('보말톨'.)

105018 #1 아, 보말톨은 보말톨이 그거 납작톨 뒈주. 이루후제. 에에 보말톨은 저 안 골아.(아, '보말톨'은 '보말톨'이 그거 '납작톨' 되지. 이 이후에. 에에, '보말톨'은 저 안 말해.)

105018 @ 으.(으.)

105018 #1 준준헐 때 튿아당 먹는 톨은 거.(자잘할 때 뜯어다가 먹는 톳은 거.)

105018 @ 준준헌 걸 그냥 보말톨엔 골아예? 보말톨.(자잘한 걸 그냥 '보말톨'이라고 말한다고요? '보말톨'.)

105018 #1 준준헌 거.(자잘한 거.)

105018 @ 아, 크질 안허고.(아, 크질 않고.)

105018 #1 난 때, 난 때. 처음 날 때.(난 때, 난 때. 처음 날 때.)

105020 @ 게난 이 동네서가 그런 말은 곧긴 허는 거 아니라예?(그러니까 이 동네서가 그런 말은 말하긴 하는 거 아닌가요?)

105020 #1 예.(예.)

105020 @ 그다음에 아까 셍복?(그다음에 아까 생복?)

105020 #1 으.(으.)

105020 @ 셍복은 어떤 식으로 저기 즈무는 거? 건 개인이 허는 거 아니면 공동이 허는 거?(생복은 어떤 식으로 저기 캐는 거? 건 개인이 하는 거 아니면 공동이 하는 거?)

105020 #1 개인이 허는 거주. 셍복 잡는 거는 물에 들엉.(개인이 하는 거지. 생복 잡는 거는 물에 들어서.)

105020 @ 셍복 잡는 거. 예.(생복 잡는 거. 예.)

105020 #1 물에 들엉 물에 들엉 헐 땐 이녁 잡으민 이녁 거주.(물에 들어서 물에 들어서 할 땐 이녁 잡으면 이녁 거지.)

105020 @ 이녁 거고. 그 게믄 셍복도 종류가 으라 개 아니양?(이녁 거고. 그 그러면 생복도 종류가 여러 개 아니에요?)

105020 #1 아, 수첨복 잇곡 암첨복.(아, 수전복 있고 암전복.)

105020 @ 수첨복허고 암첨복허고.(수전복하고 암전복하고.)

105020 #1 으, 그거주게.(으, 그거지.)

105020 @ 건 어떵 트납니까?(건 어떻게 다릅니까?)

105020 #1 아, 납작허곡 영 움막허고.(아, 납작하고 이렇게 움푹하고.)

105020 @ 으.(으.)

105020 #1 경 헤영은에 이건 수첨복이다 요건 암첨복이다.(그렇게 해서 이건 수전복

312) '보말톨'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어린 톳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이다 요건 암전복이다.)

105020 @ 어, 납작헌 거는?(어, 납작한 거는?)

105020 #1 암첨복.(암전복.)

105020 @ 예, 움막헌 거는?(예, 움푹한 거는?)

105020 #1 요치룩, 요치룩 허영은에 막 솔도 지프주, 수첨복은.(요처럼, 요처럼 해서 아주 살도 깊지, 수전복은.)

105020 @ 으.(으.)

105020 #1 그거는 수첨복이엔 허곡.(그거는 수전복이라고 하고.)

105020 @ 어린 거는 뭐렌 골아?(어린 거는 뭐라고 말해?)

105020 #1 어린 것도 마찬가지주. 요거 암첨복 새끼. 수첨복 새끼.(어린 것도 마찬가지지. 요거 암전복 새끼. 수전복 새끼.)

105020 @ 수첨복 새끼허고예? 게난.(수전복 새끼하고요? 그러니까.)

105020 #1 양어장이 아니난에.(양어장이 아니니까.)

105020 @ 예, 모양으로도 봅니까?(예, 모양으로도 봅니까?)

105020 #1 으, 으, 으. 모양으로, 모양으로.(으, 으, 으. 모양으로, 모양으로.)

105020 @ 개웃 봉은엔.('개웃' 봐서.)

105020 #1 개웃[313]은게 파란 것이 암커고.('개웃'은 파란 것이 암컷이고.)

105020 @ 예.(예.)

105020 #1 흰 것이 수커고.(흰 것이 수컷이고.)

105021 @ 아, 개웃으로도 헹은에 암커 수커 허는구나예?(아, '개웃'으로도 해서 암컷 수컷 하는군요?)

105021 #1 으.(으.)

105021 @ 여기 그 셍복 새끼를 뜨로 부르는 이름도 잇어마씨?(여기 그 생복 새끼를 따로 부르는 이름도 있어요?)

105021 #5 꺼끄막[314]이엔 허여. 꺼끄막 족은 거.('꺼끄막'이라고 해. '꺼끄막' 작은 거.)

105021 #2 맞아, 꺼끄막.(맞아, '꺼끄막'.)

105021 @ 아, 꺼끄먹?(아, '꺼끄먹'?)

105021 #1 건, 그거는 먹을 수 잇는 거.(건,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거.)

105021 @ 예, 예. 먹을 수 잇주마는 족은 거는?(예, 예. 먹을 수 있지만 작은 거는?)

105021 #1 으, 먹을 수 잇게 큰 거 건.(으, 먹을 수 있게 큰 거 건.)

105021 @ 에, 게믄 그건 꺼끄막. 자, 삼춘이 골아 봅서, 한번.(에, 그러면 그건 '꺼끄막'. 자, 삼촌이 말해 보세요, 한번.)

105021 #1 꺼끄막.('꺼끄막'.)

105021 @ 꺼끄막 으. 꺼끄막예? 게난 삼춘 꺼끄막도 잇는데.('꺼끄막' 으. '꺼끄막'

313) '개웃'은 전복의 내장을 일컫는 말이다.

314) '꺼끄막'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새끼 전복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 그러니까 삼촌 '꺼끄막'도 잇는데.)

105021 #1 그건 받지도 아녑니다.(그건 받지도 않습니다.)

105021 @ 막 그 바당에 가면 더 큰 거. 마드레 이런 말은 안 헙니까? 이 동네.(막 그 바다에 가면 더 큰 거. '마드레' 이런 말은 안 합니까? 이 동네.)

105021 #1 무사게 마드레[315]엔 헌 거는.(왜 '마드레'라고 하는 거는.)

105021 @ 으.(으.)

105021 #1 마드레는양 전복껍덕이 두들두들허여.('마드레'는요 전복갑이 두툴두툴해.)

105021 @ 음.(음.)

105021 #1 매끈허지 안허영 그런 거는 마드레.(매끈하지 않아서 그런 거는 '마드레'.)

105021 @ 마드레.('마드레'.)

105021 #1 눈도 벌룽벌룽허고.(눈도 벌룽벌룽하고.)

105021 @ 음, 그거는 맛 좋아.(음, 그거는 맛 좋아.)

105021 #1 맛사 다 ᄀᆞ뜨주, 다.(맛이야 다 같지, 다.)

105021 @ 맛은 다 ᄀᆞ따마씨? 게믄 상품 헐 때 마드레를 상품으로 칩니까? 수첨복 암첨복을.(맛은 다 같아요? 그러면 상품 할 때 '마드레'를 상품으로 칩니까? 수전복 암전복을.)

105021 #1 수첨복 암첨복을.(수전복 암전복을.)

105021 #5 큰 걸 상품으로 치주, 홁은 거.(큰 걸 상품으로 치지, 굵은 거.)

105021 @ 홁은 거를.(굵은 거를.)

105021 #1 큰 거.(큰 거.)

105021 @ 으, 게믄 막. 예전에는 여기 전복 허면 전복껍덕.(으, 그러면 막. 예전에는 여기 전복 하면 전복갑.)

105021 #1 으.(으.)

105021 @ 전복껍덕을 이 동네서 불르는 말은 뭐라낫수가?(전복갑을 이 동네서 부르는 말은 뭐였었습니까?)

105021 #1 그냥 전복껍덕이지.(그냥 '전복껍덕'이지.)

105021 @ 전복껍덕이렌 헤?('전복껍덕'이라고 해?)

105021 #1 으.(으.)

105021 @ 뭐 겁넝 이런 말은?(뭐 '겁넝' 이런 말은?)

105021 #1 겁덩, 겁덩.('겁덩', '겁덩'.)

105021 @ 겁덩.('겁덩'.)

105021 #1 겁넝이 아니고 겁덩.('겁넝'이 아니고 '겁덩'.)

105021 @ 겁덩.('겁덩'.)

105021 #1 겁덩에서 큰 거는 옛날에 거기서 자리도 그디서 지져먹고.(전복갑에서 큰 거는 옛날에 거기서 자리도 거기서 지져먹고.)

105021 #5 밥도 퍼 먹곡 헤, 옛날에.(밥도 퍼 먹고 해, 옛날에.)

---

315) '마드레'는 전복의 일종이다.

105021 @ 예, 밥도 퍼 먹고.(예, 밥도 퍼 먹고.)
105021 #1 겁덩으로 밥자 노릇헤근에.(전복갑으로 주걱 노릇해서.)
105021 @ 예.(예.)
105021 #1 솟듸 쒜솟디 밥허민게 그걸로 박박 그걸로 누렝이 잘 긁으고.(솥에 쇠솥에 밥하면 그걸로 박박 그걸로 누룽지 잘 긁고.)
105021 @ 겁덩.(전복갑.)
105021 #1 겁덩.(전복갑.)
105021 #2 겁덩에 출레[316] 지젼에 먹엇주.(전복갑에 '출레' 지져서 먹었지.)
105021 #1 겁덩, 겁덩.(전복갑, 전복갑.)
105021 @ 예, 그 겁덩에 출레 지졍 먹젠 허면 그 고망은 어떵 헷수가?(예, 그 전복갑에 '출레' 지져서 먹으려고 하면 그 구멍은 어떻게 했습니까?)
105021 #1 고망 막앙.(구멍 먹어서.)
105021 #5 소게로 막앙.(솜으로 막아서.)
105021 @ 소게로 막앙예?(솜으로 막아서요?)
105021 #1 맛잇엇어. 맛잇엇주게.(맛있었어. 맛있었지.)
105021 @ 예, 게믄 그거 지지젠 허민 밑에는 뭘로?(예, 그러면 그거 지지려고 하면 밑에는 무엇으로?)
105021 #1 돌멩이 밑으로 놩, 게. 덕 놩.(돌멩이 밑으로 놔서, 게. 봇돌 놔서.)
105021 @ 덕 놩은에 불 솜으멍?(봇돌 놔서 불 때면서?)
105021 #1 세발수도 막 그루후제사 나고. 영 놔근에 겁덩 이디 영 놩근에게.(삼발이도 아주 그 이후에야 나고. 이렇게 놔서 전복갑 여기 이렇게 놔서.)
105021 @ 아, 경 헹 자리 지졍 먹언마씨?(아, 그렇게 해서 자리 지져서 먹었어요?)
105021 #1 자리.(자리돔.)
105021 #5 출레, 출레.('출레', '출레'.)
105021 @ 출레.('출레'.)
105021 #1 출레엔 헷주, 옛날이사.('출레'라고 했지, 옛날이야.)
105021 #2 자리 지져도 출레.(자리돔 지져도 '출레'.)
105021 #1 출레엔 헷주. 옛날에사.('출레'라고 했지. 옛날에야.)
105020 @ 예, 맞수다. 그다음에 아까 구젱기, 구젱이?(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라, 소라?)
105020 #1 으, 구젱기.(으, 소라.)
105020 @ 구젱기.(소라.)
105020 #1 으.(으.)
105020 @ 구젱기는 어떤 식으로 주무는 거우과?(소라는 어떤 식으로 캐는 겁니까?)
105020 #1 아니, 물에 들엉 해녀 좀수덜.(아니, 물에 들어서 해녀 잠수들.)
105020 @ 것도 좀수덜 것도 물에 들엉.(것도 잠수들 것도 물에 들어서.)

316) '출레'는 자리젓이나 멸치젓 따위의 짠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105020 #1 그거는 골게기도 안 들이곡 손으로 그냥 잡으는 거. 물에서.(그거는 호미도 안 들이고 손으로 그냥 잡는 거. 물에서.)

105020 #5 구젱이 잡을 때는 간스메 헐 때.(소라 잡을 때는 통조림 할 때.)

105020 #1 물에서.(물에서.)

105020 @ 아아, 여기도 간스메공장 잇엇구나양?(아아, 여기도 통조림공장 있었군요?)

105020 #1 성산[317] 잇엇수다.(성산리 있었습니다.)

105020 @ 예, 아아.(예, 아아.)

105020 #5 성산 잇고 신산이[318]도 잇고.('성산' 있고 신산리도 있고.)

105021 @ 신산에영. 게믄 삼춘예, 구젱기도 종류가 ᄋᆞ라 개 아니우꽈? 이름 불르는 거 이 동네서.(신산리랑. 그러면 삼촌요, 소라도 종류가 여러 개 아닙니까? 이름 부르는 거 이 동네서.)

105021 #1 앙살기[319] 잇고 민둥구젱기 잇고.('앙살기' 있고 '민둥구젱기' 있고.)

105021 @ 앙살기?('앙살기'?)

105021 #1 앙살기는 ᄒᆞ꼼 어린 거 쌀[320] 왕, 영 곱닥허곡 헌 거 허곡.('앙살기'는 조금 어린 거 '쌀' 와서, 이렇게 곱다랗고 한 거 하고.)

105021 @ 예.(예.)

105021 #1 민둥이[321]는 막 껍덕도 두덥고 이 돈도 이 막 묵은 거.('민둥이'는 아주 껍질도 두껍고 이 돈도 이 아주 묵은 거.)

105021 @ 어?(어?)

105021 #1 그거 민둥구젱기.(그거 '민둥구젱기'.)

105021 @ 거는 민둥구젱기. 아까 앙살기.(거는 '민둥구젱기'. 아까 '앙살기'.)

105021 #1 앙살기는 막 그거는 여물도 알랑알랑허영 맛잇곡.('앙살기'는 아주 그거는 여물도 알랑알랑해서 맛있고.)

105021 @ 예.(예.)

105021 #1 게난 사는 사름이 만약에 먹젠 사레 가민.(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만약에 먹으려고 사러 가면.)

105021 @ 예.(예.)

105021 #1 앙살기 잇엉 그거 사지민 막 좋곡. 민둥구젱이 서끄민 에그 민둥구젱기 허난 근만 쳐나가주게.('앙살기' 있어서 그거 사지면 아주 좋고. '민둥구젱이' 섞으면 에그 '민둥구젱기' 하니까 근만 처나가지.)

105021 @ 아, 민둥구젱기는?(아, '민둥구젱기'는?)

---

317) '성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를 가리킨다.

318) '신산이'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를 말한다.

319) '앙살기'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돌기가 잘 달려 있는 성숙한 소라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쌀구젱기' 등으로 부른다.

320) 여기에서 '쌀'은 소라의 껍질에 붙어있는 돌기를 말한다.

321) '민둥이'는 껍데기에 붙어 있는 돌기가 사라진 소라를 말한다. 달리 '민둥구젱기'라고 한다. 소라가 늙어서 살이 질기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 '문둥구젱기'라고도 한다.

105021 # 근만 처나가 막 이 껍덕이 두껍기 때문에.(근만 처나가서 아주 이 껍데기가 두껍기 때문에.)

105021 @ 아아, 으물은 겅.(아아, 여물은 그렇게.)

105021 #1 으물 질기고.(여물 질기고.)

105021 @ 질기고. 게믄 우리가 살 때는 앙살기를 사야 뒈는 거네예?(질기고. 그러면 우리가 살 때는 '앙살기'를 사야 되는 거네요?)

105021 #1 응, 앙살기로 사사.(응, '앙살기'로 사야.)

105021 @ 아, 그다음에 어린 거는 뭐렌 골읍니까?(아, 그다음에 어린 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105021 #5 셍궹이[322].('셍궹이'.)

105021 #1 셍궹이.(셍궹이.)

105021 #5 셍궹이. 준 것ᄀᆞ라.('셍궹이'. 잔 것보고.)

105021 #1 셍궹이, 셍궹이. 준준헌 건 셍궹이.('셍궹이', '셍궹이'. 자잘한 건 '셍궹이'.)

105021 @ 셍궹이. 게믄 이제 구젱기도 세 종류로 곧는구나예?('셍궹이'. 그러면 이제 소라도 세 종류로 말하는군요?)

105021 #1 으.(으.)

105021 @ 게믄 어린 거는?(그러면 어린 거는?)

105021 #5 준 건 셍궹이.(잔 건 '셍궹이'.)

105021 #1 셍궹이 앙살기 민둥이. 민둥구젱기.('셍궹이' '앙살기' '민둥이'. '민둥구젱기'.)

105021 @ 예.(예.)

105021 #5 큰 건 민둥구젱기.(큰 건 '민둥구젱기'.)

105021 @ 예, 게연 요즘은 구젱기렌 말 안 헤영 여기도 고동이렌 골아 불엄수가?(예, 그래서 요즘은 '구젱기'라는 말 안 해서 여기도 '고동'이라고 말해 버리고 있습니까?)

105021 #1 음, 여기도 고동[323]이엔 곧주.(웃음)(음, 여기도 '고동'이라고 말하지.(웃음))

105021 @ 아.(웃음)(아.(웃음))

105021 #2 무조건 소라엔 골암주.(무조건 소라라고 말하고 있지.)

105021 @ 게난 고둥허당은에 소라. 옛날에는 소, 고동을 안 골앗잖아?(그러니까 '고둥'하다가 소라. 옛날에는 소, '고동'을 안 말했잖아?)

105021 #1 어른덜은 강 고동엔 헤도.(어른들은 가서 '고동'이라고 해도.)

105021 @ 으.(으.)

105021 #1 이제도 젊은 사름은 고동엔 허는 사름 잇주. 골아나난.(이제도 젊은 사람

322) '셍궹이'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어린 소라'를 일컫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조쿠젱기', '좁쏠구젱기'라고 한다.

323) '고동'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등지에서 '소라'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은 ‘고동’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말했었으니까.)

105021 @ 예.(예.)

105021 #1 이젠 대개 소라.(이젠 대개 소라.)

105021 @ 예, 요즘은 소라허고예?(예, 요즘은 소라하고요?)

105021 #1 소라 일본말 아니?(소라 일본말 아니?)

105021 @ 아니, 아니. 소라가 우리 표준어, 표준어.(아니, 아니. 소라가 우리 표준어, 표준어.)

105021 #4 표준어.(표준어.)

105021 @ 옛날은 이 동네는 고둥은 아니라낫지양? 그냥 구젱기?(옛날은 이 동네는 ‘고둥’은 아니었었지요? 그냥 ‘구젱기’?)

105021 #1 구젱기.(‘구젱기’.)

105021 @ 예, 구젱기.(예, ‘구젱기’.)

105021 #1 막 옛날 어른덜은 구젱기.(아주 옛날 어른들은 ‘구젱기’.)

105022 @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터베 골아신디 터베 한번 더 골아 줍서. 삼춘이 아까 터베?(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떼배 말했는데 떼배 한번 더 말해 주십시오. 삼춘이 아까 떼배?)

105022 #2 음. 터베는 자리 거리고 듬북 즉물곡.(음. 떼배는 자리돔 뜨고 듬북 캐고.)

105022 #5 그것뿐.(그것뿐.)

105022 #2 그거용벳긔 딴 거는.(그거용밖에 딴 거는.)

105022 #5 메역헐 때도 이녁 메역. 터베 잇인 사름.(미역할 때도 이녁 미역. 떼배 있는 사람.)

105022 #2 메역 같은 거 즉물 때는.(미역 같은 거 캘 때는.)

105022 @ 예.(예.)

105022 #1 건 이녁 각시만 시껑 강 허주.(건 이녁 각시만 실어서 가서 하지.)

105022 @ 아아.(아아.)

105022 #2 자기 집 그 필요헌.(자기 집 그 필요한.)

105022 #1 건 개인으로 이녁 각시만 시껑 강 허는 거.(건 개인으로 이녁 각시만 실어서 가서 하는 거.)

105022 #2 그때 초석을 쳐 가지고 그 안네서 저 불 쫌 영 쪼앗다는 거 그런 것벳기 온평리는.(그때 초석을 쳐 가지고 그 안에서 저 불 쫌 이렇게 쬐었다는 거 그런 것밖에 온평리는.)

105022 @ 예.(예.)

105022 #2 딴 거는.(딴 거는.)

105022 @ 예. 게난 이 동네는 터베가 멧 개 정도 잇어난마씨?(예. 그러니까 이 동네는 떼배가 몇 개 정도 있었었어요?)

105022 #2 터베 그 전에는 상동[324]에 한 네 갠가 잇엇고, 하동[325]에도 혼 서너 개

324) ‘상동’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위쪽 마을이다.

잇엇고. 대강 그럭저럭 한 열 척 여기 잇엇을 거라.(떼배 그 전에는 상동에 한 네 갠가 있었고, 하동에도 한 서너 개 있었고. 대강 그럭저럭 한 열 척 여기 있었을 거야.)

105022 @ 예, 그다음에 그 터베는 일 년 내내 그냥 놔두지 못허지 아녀니까양?(예, 그다음에 그 떼배는 일 년 내내 그냥 놔두지 못하지 않습니까?)

105022 #2 예.(예.)

105022 @ 그거 영 들렁내영 헤체도 허곡?(그거 이렇게 들어내서 해체도 하고?)

105022 #2 봄에 나 그 자리까지 거려낭 겨울에는 메여두민 뭐허니까 분해해서 놉은 디 놔 가지고 물을 다 빼두고 완전히 건조뒌 다음에 또 조립헤 가지고 시기가 뒈민 조립헤서 완전히 벡중이나 물 많이 드는 때를 기다려 가지고 그 우에 놧다가 이렇게 밀면은 뜨게끔 헤 가지고 이동. 한두 사람 세 사람만 가지면은 터베는 운용헷으니까.(봄에 나 그 자리돔까지 떴었다가 겨울에는 메어두면 뭐하니까 분해해서 놉은 데 놔 가지고 물을 다 빼두고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또 조립해 가지고 시기가 되면 조립해서 완전히 백중이나 물 많이 드는 때를 기다려 가지고 그 위에 놨다가 이렇게 밀면 뜨게끔 해 가지고 이동. 한두 사람 세 사람만 가지면 떼배는 운용했으니까.)

105022 @ 예. 그 터베는 어떤 식으로 헹 만든 거라마씨? 여기서.(예. 그 떼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105022 #2 그 저 스기나무를 헤 가지고.(그 저 삼나무를 해 가지고.)

105022 @ 예.(예.)

105022 #2 여기 스기나무를 헤다가.(여기 삼나무를 해다가.)

105022 #1 통나무 헤당.(통나무 해다가.)

105022 #2 열두 개. 열두 갠가.(열두 개. 열두 갠가.)

105022 @ 으.(으.)

105022 #2 아 여덟 개, 여덟 갠가 헤 가지고.(아 여덟 개, 여덟 갠가 해 가지고.)

105022 #1 영 쭉쭉 놔근에게.(이렇게 쭉쭉 놔서.)

105022 #2 쭉허게 그거를 완전히 건조헤영 말린 다음 터베를 만드는 겁니다.(쭉하게 그거를 완전히 건조해서 말린 다음 떼배를 만드는 겁니다.)

105022 @ 음.(음.)

105022 #2 만드는 거난에. 그거 뭐 어렵지는 안헌 건데.(만드는 거니까. 그거 뭐 어렵지는 않은 건데.)

105022 @ 그 터베 만들어난 사람 잇수가?(그 떼배 만들었던 사람 있습니까?)

105022 #2 그거 옛날은 그 목수라고 헤 가지고 동네 목수가 거 좀 구멍 뚧어 가지고 조립허는 거니까.(그거 옛날은 그 목수라고 해 가지고 동네 목수가 거 좀 구멍 뚫어 가지고 조립하는 거니까.)

105022 @ 예에.(예에.)

105022 #2 우리 노인정에서도 우리 그 터베를 만들아 가지고 여기 저 뭐를 요번에.(우리 노인정에서도 우리 그 떼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저 뭐를 요번에.)

---

325) '하동'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아래쪽 마을이다.

105022 @ 행사할 때.(행사할 때.)

105022 #2 행사헤 가지고 한 삼년 동안 여기 바다에 띄우고 뭐허다가 것도 이제 다 파괴뒈고 뭐헤 볏는데.(행사해 가지고 한 삼년 동안 여기 바다에 띄우고 뭐하다가 것도 이제 다 파괴되고 뭐해 버렸는데.)

105022 @ 아아.(아아.)

105022 #2 터베는 우리, 우리대로도 만들 수가 잇어.(떼배는 우리, 우리대로도 만들 수가 있어.)

105022 @ 경 헤영 헤신디.(그렇게 해서 했는데.)

105022 #2 우리 노인덜 댓 사름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 청년훼에 희사해 가지고.(우리 노인들 댓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 청년회에 희사해 가지고.)

105022 @ 음.(음.)

105022 #2 혼번 뭐 해보라 헤 가지고 우리가 노인회서 만들어낫주.(한번 뭐 해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노인회서 만들었었지.)

105022 @ 게믄 그 아까 스기낭이렌 헤신디 이 동네는 뭐렌 헷수가? 그 낭을.(그러면 그 아까 삼나무라고 했는데 이 동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무를.)

105022 #1 숙대낭.(삼나무.)

105022 @ 숙대낭예?(삼나무요?)

105022 #2 숙대남. 숙대남.(삼나무. 삼나무.)

105022 @ 숙대남예? 예.(삼나무요? 예.)

105022 #1 그게 옛날에는 그 숙대남도 한라산 근처에서 캐온 것을.(그게 옛날에는 그 삼나무도 한라산 근처에서 캐온 것을.)

105022 @ 음.(음.)

105022 #1 사다가. 구상나무. 구상나무라고 헷을 거야.(사다가. 구상나무. 구상나무라고 했을 거야.)

105022 @ 옛날에 구상낭.(옛날에 구상나무.)

105022 #2 구상나무 터베라야 물에 오래 잘 뜨곡.(구상나무 떼배여야 물에 오래 잘 뜨고.)

105022 @ 예.(예.)

105022 #1 이 스기나무는 우리가 헤 보니까 멧 사름 타지도 못허고 힘이 약해.(이 삼나무는 우리가 해 보니까 몇 사람 타지도 못하고 힘이 약해.)

105022 @ 예, 게난 예전에는 구상낭.(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상나무.)

105022 #2 구상나무는 영 팔뚝만이 헌 걸 우리가 영 직접 본 거는 아닌디 가보면은 뭐 같아도 거기는 이제 어부가 나가 가지고 자리도 뭐 한 흔 백 키로 이상.(구상나무는 이렇게 팔뚝만큼 한 걸 우리가 이렇게 직접 본 거는 아닌데 가보면 뭐 같아도 거기는 이제 어부가 나가 가지고 자리돔도 뭐 한 한 백 킬로 이상.)

105022 @ 예.(예.)

105022 @ 예.(예.)

105022 #2 이제 구덕 한 멧 개 실러도 가라앚질 안허는데.(이제 바구니 한 몇 개 실어도 가라앉질 않는데.)

105022 @ 음.(음.)

105022 #1 물을 잘 맞춰져.(물을 잘 맞춰져.)

105022 @ 그 자리 거리는 그 자리 놓는 구덕예?(그 자리돔 뜨는 그 자리돔 놓는 바구니요?)

105022 #2 으.(으.)

105022 @ 옛날 큰 구덕 아니우과예? 그 구덕도 불르는 이름 잇어낫수가?(옛날 큰 바구니 아닙니까요? 그 바구니도 부르는 이름 있었었습니까?)

105022 #1 질구덕[326].('질구덕'.)

105022 #2 질구덕이라도 대질구덕[327].('질구덕'이라도 '대질구덕'.)

105022 @ 질구덕예?(질구덕요?)

105022 #4 참고로 얘기허면은. 지금 이 숙대남이나 무슨 나무덜은 해변가에까지 쭉 늘어졋주만 옛날에는 해변가에는 이런 나무가 없엇어요.(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이 삼나무나 무슨 나무들은 해변에까지 쭉 늘어졌지만 옛날에는 해변가에는 이런 나무가 없었어요.)

105022 @ 예.(예.)

105022 #4 다 한라산에 가야 그 나무가 잇엇주. 이 숙대나무가 나오기 시작헌 것이 박정희가 식목 장려허면서.(다 한라산에 가야 그 나무가 있었지. 이 삼나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박정희가 식목 장려하면서.)

105022 @ 예, 예.(예. 예.)

105022 #4 다 심어지게 뭰 거. 그, 제주도에는 밀감나무 심으면서 방풍림으로 싱그게 뒈니깐 헤변가까지 쭉 심어지게 뭰 거.(다 심어지게 된 거. 그, 제주도에는 밀감나무 심으면서 방풍림으로 심게 되니깐 해변가까지 쭉 심어지게 된 거.)

105023 @ 예. 예. 예. 맞습니다. 아까 여기에 그 풍선. (예. 예. 예. 맞습니다. 아까 여기에 그 풍선.)

105023 #1 으.(으.)

105023 @ 돗, 돗베예. 그런 거는 몇, 그 돗은 하나만 돌아마씨?(돛, 돛배요. 그런 거는 몇, 그 돛은 하나만 달아요?)

105023 #1 아, 두 개.(아, 두 개.)

105023 @ 두 개 돌아?(두 개 달아?)

105023 #1 가운디는 큰 거.(가운데는 큰 거.)

105023 @ 예.(예.)

105023 #1 앞에는 쪼끔 족은 거.(앞에는 쪼끔 작은 거.)

105023 @ 어, 게문예, 그 베 이렇게 허면 가운데 든 돗은 무신 돗 허여?(어, 그러면

326) '질구덕'은 등에 지고 다닐 수 있게 크게 만든 바구니다.
327) '대질구덕'은 등에 지고 다닐 수 있게 대오리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다.

요, 그 배 이렇게 하면 가운데 단 돛은 무슨 돛 해?)

105023 #1 큰 돗 뒈주게. 큰 거난.(큰 돛 되지. 큰 거니까.)

105023 @ 어, 큰 돗 허고.(어, 큰 돛 하고.)

105023 #1 족은 돗.(작은 돛.)

105023 @ 아, 큰 돗 족은 돗.(아, 큰 돛 작은 돛.)

105023 #1 앞에.(앞에.)

105023 #5 야윗돗[328]. 앞의 거 족은 거ᄀᆞ란 야윗돗.('야윗돛'. 앞에 거 작은 거보고는 '야윗돗'.)

105023 @ 야윗돗?('야윗돗'?)

105023 #5 족은 거. 그 거 ᄒᆞ나만 ᄇᆞᄅᆞᆷ 솔솔헐 때 그거만 ᄒᆞ민.(작은 거. 그 거 하나만 바람 살살할 때 그거만 하면.)

105023 #1 우린 야윗돗이렌 말은 안 써나신디.(우린 '야윗돗'이라는 말은 안 썼었는데.)

105023 #5 ** 두 개 세운 때 ᄇᆞᄅᆞᆷ이 좋은 때에 두 개 ᄃᆞᆯ고.(** 두 개 세울 때 바람 좋을 때에 두 개 달고.)

105023 @ ᄇᆞᄅᆞᆷ 좋을 때는 두 개.(바람 좋을 때는 두 개.)

105023 #5 야윗돗 하나만 ᄃᆞᆯ앙 감쩌.('야윗돗' 하나만 달아서 가고 있다.)

105023 @ 게믄 큰 돗을 뭐렌 ᄀᆞᆯ아?(그러면 큰 돛을 뭐라고 말해?)

105023 #3 아니 삼대선[329]벳긔 이대선[330]벳긔 엇엇어.(아니 삼대선밖에 이대선밖에 없었어.)

105023 @ 아, 여긴 이대선. 두 개 잇인 거예?(아, 여긴 이대선. 두 개 있는 거요?)

105023 #5 세 개 잇인 건.(세 개 있는 건.)

105023 @ 아아, 다른 데도 야옷돗이렌 헤마씨.(아아, 다른 데도 '야옷돗'이라고 해요.)

105023 #1 아아.(아아.)

105023 @ 게난 나가 물어본 거. 예, 그다음엔예, 돗베 헹은에 베 헤 갖고 물질, 육지 물질도 가봅디가?(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 예, 그다음에는요, 돛배 해서 배 해 갖고 물질, 육지 물질도 가봅디까?)

105023 #1 아니고, 육지물질[331] 나 열여덥 솔 때부떠 다년.(아니고, 육지물질 나 열여덟 살 때부터 다녔어.)

105023 @ (웃음) 아 육지물질 헐 때도 노 젓엉예?((웃음) 아 육지물질 할 때도 노 저어서요?)

105023 #1 처음 간 땐 노 젓고 뒷해부턴 기곗배 나난 기곗베 타고.(처음 갈 땐 노

328) '야윗돗'은 이물 쪽에 단 작은 돛을 말한다.
329) '삼대선'은 돛을 세 개 단 배를 말한다.
330) '이대선'은 돛을 두 개 단 배를 말한다.
331) '육지물질'은 제주 잠녀들이 제주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하는 물질을 말한다. 여기에서 '육지'는 제주 사람들이 '제주 이외의 지역'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젓고 이듬해부터는 기곗배 나니까 기곗배 타고.)

105023 @ 으, 노 젓을 때는 영 베 허게 뒈면 어느 쪽에서 젓이는 거우과? 노도 멧 개 잇어?(으, 노 저을 때는 이렇게 배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 젓는 겁니까? 노도 몇 개 있어?)

105023 #1 노 세 개씩.(노 세 개씩.)

105023 @ 아, 세 개씩. 양쪽으로.(아, 세 개씩. 양쪽으로.)

105023 #1 음.(음.)

105023 @ 으, 그러면 영?(으, 그러면 이렇게?)

105023 #1 노 젓을 때 기분 좋지.(노 저을 때 기분 좋지.)

105023 @ 아, 좋읍니까? 아.(아, 좋습니까? 아.)

105023 #5 하네[332] 두에서 젓고. 양쪽에 ᄒᆞ나썩 양펜이.('하네' 뒤에서 젓고. 양쪽에 하나씩 양편에.)

105023 @ 어, 하네는?(어, '하네'는?)

105023 #5 두에서 젓는 거.(뒤에서 젓는 거.)

105023 #1 영 영 가는 거.(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105023 #5 질 바르는 거.(길 바루는 거.)

105023 #1 건 알기 쉽게 말허믄 치. 베치.(건 알기 쉽게 말하면 키. 배키.)

105023 @ 베치 헤근에 하네가 잇고.(배키 해서 '하네'가 있고.)

105023 #1 옆에.(옆에.)

105023 @ 옆에서는 허는 노는?(옆에서는 하는 노는?)

105023 #1 아니, 하네 젓고 옆에 젓는 건 옆에 젓는 건?(아니, '하네' 젓고 옆에 젓는 건 옆에 젓는 건?)

105023 #5 젓거리[333], 젓거리.('젓거리', '젓거리'.)

105023 #1 젓거리 저난.('젓거리' 저었어.)

105023 @ 으, 젓거리. 어, 게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젓거리를 젓인 거구나예?(으, '젓거리'. 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젓거리'를 저은 거군요?)

105023 #5 베 임제는 질 발르는 거 하네 젓엉 저 **에서 베 앞 갈르고.(배 임자는 길 바루는 거 '하네' 젓어서 저 **에서 배 앞 가르고.)

105023 #1 우리도 하네 젓어난.(우리도 '하네' 저었었어.)

105023 @ 하네, 하네가 저 방향을 헤야 뒈는 거 아니?('하네', '하네'가 저 방향을 해야 되는 거 아니?)

105023 #1 뱃머리 돌리곡 영 허는 거.(뱃머리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105023 #5 방향 조정허는 거게.(방향 조정하는 거.)

105024 @ 예, 하네로예? 예. 게믄 이제 저기 베가 그 풍선 잇일 거 아니우과예? 게믄 배 앞부분은 뭐엔 골아?(예, '하네'로요? 예. 그러면 이제 저기 배가 그 풍선 있을 거

332) '하네'는 배의 뒤쪽 가장자리에서 젓는 노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하노'라고도 한다.
333) '젓거리'는 배의 양옆에서 젓는 노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젯거리'라고도 한다.

아닙니까요? 그러면 배 앞부분은 뭐라고 말해?)

105024 #1 이물코지[334]주게.(‘이물코지’지.)

105024 @ 이물코지. 이물코지 잇고 또 거기.(‘이물코지’. ‘이물코지’ 있고 또 거기.)

105024 #1 두에는 고물.(뒤에는 고물.)

105024 @ 두에는 고물. 가운데는?(뒤에는 고물. 가운데는?)

105024 #1 가운디는 한, 아니 한장[335]이냐 뭐냐 복판에.(가운데는 한, 아니 ‘한장’이야 뭐야 복판에.)

105024 #5 한장.(‘한장’.)

105024 @ 한장. 게믄 배가 앞에는 이물.(‘한장’. 그러면 배가 앞에는 이물.)

105024 #1 두에는 고물.(뒤에는 고물.)

105024 @ 가운데는 한장. 게문 여기 가운데 세우는 이런 그 멍에는 뭐우과? 배에도 멍에 잇덴 허멍 헨게마는.(가운데는 ‘한장’. 그러면 여기 가운데 세우는 이런 그 멍에는 뭡니까? 배에도 멍에 있다고 하면서 하더니만.)

105024 #1 아, 좀녀덜 탈 때.(아, 잠녀들 탈 때.)

105024 @ 예.(예.)

105024 #1 좀녀덜 탈 때 멍에 잇어사주게. 옷도 널고 허는 때문에. 멍에에 대나무 다누 걸쳥은에 그레 옷 놓고. 멍에엔 헌 게 그 지네가 **작데기지.(잠녀들 탈 때 멍에 있어야지. 옷도 널고 하는 때문에. 멍에에 대나무 ‘다누’(?) 걸쳐서 그리 옷 놓고. 멍에라고 한 게 그 자기네가 **작대기지.)

105024 @ 작데기?(작대기?)

105024 #1 뭐 받후는 거. 이런 식 뭐 받후는 거.(뭐 받치는 거. 이런 식 뭐 받치는 거.)

105024 @ 음. 그런 식으로.(음. 그런 식으로.)

105024 #1 이런 식 받후는 거. 우로 허영 진 나무 걸쳥 그디 옷 널엉 ᄆᆞᆯ리곡.(이런 식 받치는 거. 위로 해서 긴 나무 걸쳐서 거기 옷 널어서 말리고.)

105024 @ 아.(아.)

105024 #1 속곳덜.(속곳들.)

105024 @ 속곳덜 헤영은에 ᄆᆞᆯ리고예. 알아수다. 게문 바당 일은 요만큼만 일단은 헤보게예. 잠깐만.(속곳들 해서 말리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다 일은 요만큼만 일단은 해보게요. 잠깐만.)

6. 의생활

옷감

334) ‘이물코지’는 배의 앞 부분을 말한다.

335) ‘한장’은 배의 가운데 칸을 말한다. 달리 ‘한간’이라고 한다.

106001 @ 그 옷감예, 옷 만들젠 허민 옷감덜은 주로 어떤 것덜이 잇수과?(그 옷감요, 옷 만들려고 하면 옷감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6001 #1 옛날에는 감옷[336]을 주로 입엇수게게.(옛날에는 '감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106001 @ 예.(예.)

106001 #1 뭐가 벨 거 엇인난에. 그 미녕 사다근에.(뭐가 별 거 없으니까. 그 무명 사다가.)

106001 @ 으.(으.)

106001 #1 요즘은 시랑목[337] 헹 감옷 헴주만은 옛날은 미녕 사다근에.(요즘은 '시렁목' 해서 '감옷' 하고 있지만 옛날은 무명 사다가.)

106001 @ 예.(예.)

106001 #1 감 들여근엥에.(감 들여서.)

106001 @ 으.(으.)

106001 #1 그거 옷은 그자 그걸로 감옷 헹 입엇주.(그거 옷은 그저 그걸로 '감옷' 해서 입었지.)

106001 @ 미녕허고.(무명하고.)

106001 #1 으.(으.)

106001 @ 그다음에 멩지 같은 경우는?(그다음에 명주 같은 경우는?)

106001 #1 멩지는 감 안 허주게.(명주는 감 안 하지.)

106001 @ 예, 건 안 허고예?(예, 건 안 하고요?)

106001 #1 예, 멩지는 감 안 들이는 거난.(예, 명주는 감 안 들이는 거니까.)

106001 @ 게민 옷감 종류가 미녕 잇고?(그러면 옷감 종류가 무명 있고?)

106001 #1 광목허곡.(광목하고.)

106001 @ 으.(으.)

106001 #1 주로 그거랏수다.(주로 그거였습니다.)

106002 @ 예, 그거예? 그럼 하나씩. 혹시 멩지씰 여기는 멘드는 과정은 모르켜예?(예, 그거요? 그럼 하나씩. 혹시 명주실 여기는 만드는 과정은 모르겠네요?)

106002 #1 몰릅주게.(모릅지요.)

106002 @ 예, 멩지씰은 봐 보긴 헷수과?(예, 명주실은 봐 보긴 했습니까?)

106002 #1 우리 씰 아니, 텔레비에만 봐낫주. 안 봔.(우리 실 아니, 텔레비전에서만 봤었지. 안 봤어.)

106002 @ 안 보고.(안 보고.)

106002 #1 현실로 안 봔.(현실로 안 봤어.)

106003 @ 멩지도 호상 허젠 허민 다 멩지덜 허니까 멩지 종류는 알아져마씨?(명주

336) '감옷'은 제주의 재래감인 '풋감' 으깬 즙을 들여서 만든 옷이다. 달리 '갈옷'이라고 한다.

337) '시랑목'은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서 '시렁목'이라고 하는데, 천의 일종인 '소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도 수의 하려고 하면 다 명주들 하니까 명주 종류는 알아져요?)

106003 #1 멩지 종류는 저디 저 존 거 잇고 나쁜 거 잇고 헌디.(명주 종류는 저기 저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하는데.)

106003 @ 으.(으.)

106003 #1 멩지 종류는 잘 몰르고 베는 알주, 베는.(명주 종류는 잘 모르고 베는 알지, 베는.)

106003 @ 음.(음.)

106003 #1 삼베.(삼베.)

106003 @ 예.(예.)

106003 #1 그거는 안동포엔 헌 거는 안동에서 만들앙 나온 건디 막 좀질주.(그거는 안동포라고 한 거는 안동에서 만들어서 나온 건데 아주 자잘하지.)

106003 @ 으.(으.)

106003 #1 잠진디 그건 스물넉 자에, 에 우리도 아방[338] 옷 허젠 허난에 삼십오만 원썩 줜 산에.(자잘한데 그건 스물넉 자에, 에 우리도 아버지 옷 하려고 하니까 삼십오만 원씩 줘서 사서.)

106003 @ 음.(음.)

106003 #1 그런 옷은 그 두루메기 허는 건디 그런 옷은 또 아무나 또 허지 못 허곡 돈 비싸덴.(그런 옷은 그 두루마기 하는 건데 그런 옷은 또 아무나 또 하지 못 하고 돈 비싸다고.)

106003 @ 예.(예.)

106003 #1 겐 우리도 처음에 이디 노인 어른덜 둘이[둘리]허고 나허고 산에.(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여기 노인 어른들 둘하고 나하고 사서.)

106003 @ 으.(으.)

106003 #1 헤십주. 안동포엔 허고 그 미녕베가 잇어양.(했습죠. 안동포라고 하고 그 무명베가 있어요.)

106003 @ 에.(에.)

106003 #1 미녕베 짱 나왕 건 막 툴툴허여.(무명베 짜서 나와서 건 막 우둘투둘해.)

106003 @ 음.(음.)

106003 #1 미녕베는 그건 막 두꺼와.(무명베는 그건 아주 두꺼워.)

106003 @ 으.(으.)

106003 #1 툴툴헤영 허민 그거는 미녕베[미녕베]는 처음 헐 땐 바지락헤도 뿔아가민 멜랑헤 불주. 미녕이니까.(우둘투둘해서 하면 그거는 무명베는 처음 할 땐 뻣뻣해도 빨아가면 말랑해 버리지. 무명이니까.)

106003 @ 아.(아.)

106003 #1 씰이 바작헌 씰 아니라 부난. 그축 헤근엥에 그거 잇곡, 요즘은 또 중국베[339].(실이 뻣뻣한 실 아니어 버리니까. 그처럼 해서 그거 있고, 요즘은 또 '중국베'.)

---

338) '아방'은 아버지의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의 아버지인 남편의 뜻으로 쓰였다.

106003 @ 음. 요즘은 중국.(음. 요즘은 중국.)

106003 #1 중국베는 뿔아도 빠드글락 그대로 빠드글락헹. 겐디 엉겨 부난 그거주, 또 색깔도 거멍헤 불고.('중국베'는 빨아도 뻣뻣 그대로 뻣뻣해서. 그런데 엉켜 버리니까 그거지, 또 색깔도 거매 버리고.)

106003 @ 아.(아.)

106003 #1 중국베는. 거멍허게 나옵니다, 그건.('중국베'는. 거멓게 나옵니다, 그건.)

106003 @ 예.(예.)

106003 #1 막 거무룽허게. 경 허민 나도 산에 멧 빌 사나신디 거 뭐나 옥시크린[340] 허고 수퍼타이[341] 혼 삼일만 둥그면은 헤영헤져양.(아주 거무스레하게. 그렇게 하면 나도 사서 몇 필 샀었는데 거 뭐냐 '옥시크린'하고 '슈퍼타이' 한 삼일만 담그면 하얘져서요.)

106003 @ 아.(아.)

106003 #1 그 검은물이 다 빠져 병.(그 검정물이 다 빠져 버려서.)

106003 @ 아.(아.)

106003 #1 게영 베 종류는 그거 그축룩 헤근에 옷허곡.(그래서 베 종류는 그거 그처럼 해서 옷하고.)

106004 @ 여기에서 혹시 멩지로 옷 허는 건 어떤 옷덜이 잇수과?(여기에서 혹시 명주로 옷 하는 건 어떤 옷들이 있습니까?)

106004 #1 호상옷허고 옛날 씨집갈 때.(수의하고 옛날 시집갈 때.)

106004 @ 으.(으.)

106004 #1 결혼헐 때 멩지옷도 아무나 못 허영 이신 사름은 멩지옷 헹 입엉 가곡. 경 아녕 사름은 옥광목으로, 옥영목으로 그걸로 겉옷도 헹 입엉 가고.(결혼할 때 명주옷도 아무나 못 해서 있는 사람은 명주옷 해서 입어서 가고. 그렇게 않은 사람은 옥광목으로, 옥양목으로 그걸로 겉옷도 해서 입어서 가고.)

106004 @ 삼춘은 어떤 걸로 헨?(삼춘은 어떤 걸로 했어요?)

106004 #1 나는 저기 저 옥영목으로 헷주. 씨집갈 때, 치마저고리.(나는 저기 저 옥양목으로 했지. 시집갈 때, 치마저고리.)

106004 @ 옥양목으로 치마저고리 헷고, 게믄?(옥양목으로 치마저고리 했고, 그러면?)

106004 #1 적삼허고.(적삼하고.)

106004 @ 하얀 색깔?(하얀 색깔?)

106004 #1 하얀 거.(하얀 거.)

106005 @ 그다음에 여기 미녕씰 멘들어 보지 안 허니까 씰 멘드는 것도 모르고?(그다음에 여기 무명실 만들어 보지 안 하니까 실 만드는 것도 모르고?)

106005 #1 그런 것도 모르고.(그런 것도 모르고.)

---

339) '중국베'는 중국산 베를 말한다.
340) '옥시크린'은 세제 이름이다.
341) '수퍼타이'는 세제 이름이다.

106006 @ 누에도 모르고?(누에도 모르고?)

106006 #1 모르고.(모르고.)

106007 @ 미녕 허면은 여기서 미녕 종류는 어떤 것 잇수과?(무명 하면은 여기서 무명 종류는 어떤 것 있습니까?)

106007 #1 미녕 종륜 우린 기자 하나벳기 몰라.(무명 종륜 우린 그저 하나밖에 몰라.)

106007 @ 으.(으.)

106007 #1 미녕이엔 헤근에.(무명이라고 해서.)

106008 @ 미녕이렌 헹예. 옛날 그 미녕으론 어떤 옷덜 멘든 거?(무명이라고 해서요. 옛날 그 무명으론 어떤 옷들 만든 거?)

106008 #1 미녕으로 기자 몸뻬 감 들여근에 그걸로. 미녕으로 대개 감 들여근엥에 광목허고. 광목옷은 감 들이민 좀 뻣세고.(무명으로 그저 몸뻬 감 들여서 그걸로. 무명으로 대개 감 들여서 광목하고. 광목옷은 감 들이면 좀 뻣뻣하고.)

106008 @ 예.(예.)

106008 #1 미녕옷은 광목옷ᄀᆞ추룩 뻣세지 안 헤영은에 ᄒᆞ꼼 입기가 좋고.(무명옷은 광목옷처럼 뻣뻣하지 안 해서 조금 입기가 좋고.)

106008 @ 으.(으.)

106008 #1 경 헤영 옛날에사 순 옛날이사 일헐 때 광목 저 감벳기[342] 안 입엇수게.(그렇게 해서 옛날에야 순 옛날이야 일할 때 광목 저 감밖에 안 입었습니다.)

106008 @ 음. 우알 다 감물 들영예, 예?(음. 위아래 다 감물 들여서요, 예?)

106008 #1 으.(으.)

106008 @ 그러면은?(그러면은?)

106008 #1 저, 줌수덜 속곳 헹 입곡.(저, 잠수들 속곳 해서 입고.)

106010 @ 속곳헹 입고. 여기에 광목으로는 게민 어떤 옷 허는 거?(속곳해서 입고. 여기에 광목으로는 그러면 어떤 옷 하는 거?)

106010 #1 광목으로?(광목으로?)

106010 @ 예.(예.)

106010 #1 광목으로 옛날에는양 계속 그자, 남저덜 결혼헐 때도 중의적삼도, 바지저고리도 두루막도 광목으로 헤연 입곡.(광목으로 옛날에는요 계속 그저, 남자들 결혼할 때도 중의적삼도, 바지저고리도 두루마기도 광목으로 해서 입고.)

106010 @ 아, 광목으로. 게니까 남자들 광목으로 헤주고?(아, 광목으로. 그러니까 남자들 광목으로 해주고?)

106010 #1 예, 광목으로 주로 다 헷수다.(예, 광목으로 주로 다 했습니다.)

106010 @ 그때도 허영헌 걸로 그대로예?(그때도 하얀 걸로 그대로요?)

106010 #1 예, 흰 걸로.(예, 흰 걸로.)

106011 @ 아, 그다음에 우리 그 결혼헐 때 보면 홍세미녕이렌 허지 안 헷수과?(아,

342) 제보자는 여기에서 '감벳기'는 '감옷밖에'의 의미로 말한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 그 결혼할 때 보면 '홍세미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6011 #1 홍세미녕[343]?('홍세미녕'?)

106011 @ 으, 홍세.(으, 혼서.)

106011 #1 홍세미녕이 아니고 홍세 놓는 거.('홍세미녕'이 아니고 혼서 놓는 거.)

106011 @ 으. 홍세 놓는 거.(으. 혼서 놓는 거.)

106011 #1 하꼬에 홍세 놓는 거.(상자에 혼서 놓는 거.)

106011 @ 거 골아줘 봅서. 어떤 식으로 허는 건지. 씨집가젠 허면?(거 말해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시집가려고 하면?)

106011 #1 씨집가젠 허민.(시집가려고 하면.)

106011 @ 홍세함예?('홍세함'요?)

106011 #1 여저가 허는 게 아니고 그건 신랑칩이서 헨 오주. 새각시칩이.(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신랑집'에서 해서 오지. '새색시집'에.)

106011 @ 으.(으.)

106011 #1 홍세함 그거 스무 자 헤근엥에 요만인 홍세함이엔 함이 잇주.(혼서함 그거 스무 자 해서 요만큼 혼서함이라고 함이 있지.)

106011 @ 예.(예.)

106011 #1 게민 그것에 곱닥허게 개영 맞게 놓곡 저기 저 수주 본 그 책 놓곡.(그러면 그것에 곱게 개어서 맞게 놓고 저기 저 사주 본 그 책 놓고.)

106011 @ 음.(음.)

106011 #1 경 혜영 신부칩이 신랑 올 때에 것도 날짜.(그렇게 해서 '신붓집'에 신랑 올 때에 것도 날짜.)

106011 @ 예.(예.)

106011 #1 오널 메칠날 멧 시에 신랑이 도착허곡 멧 시에 나간다 헌 거 그거 적은 것에 거 다 놓민.(오늘 며칟날 몇 시에 신랑이 도착하고 몇 시에 나간다 한 거 그거 적은 것에 거 다 놓으면.)

106011 @ 으.(으.)

106011 #1 신랑은 저 올레 세우곡.(신랑은 저 오래 세우고.)

106011 @ 으.(으.)

106011 #1 수우시[344]가 가졍 들어오주양.('수우시'가 가져서 들어오지요.)

106011 @ 누구마씨?(누구요?)

106011 #1 수우시가.('수우시'가.)

106011 @ 수우시? 어.('수우시'? 어.)

106011 #1 으.(으.)

106011 @ 우시 중에 수우시렌 허는구나?(위요 중에 '수우시'라고 하는군요?)

106011 #1 으, 수우시는 그 신랑 쪽에 형이든 뭐 족은아방이든 신랑 쪽 사람[싸람].

343) '홍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 속에 넣고 가는 무명이다.
344) '수우시'는 위요 가운데 가장 웃어른을 말한다.

게영 수우시가 그걸 가정 딱 들어왕 대문 앞에 영 들렁 사민.(으, '수우시'는 그 신랑 쪽에 형이든 뭐 작은아버지든 신랑 쪽 사람. 그래서 '수우시'가 그걸 가져서 딱 들어와서 대문 앞에 이렇게 들어서 서면.)

106011 @ 으.(으.)

106011 #1 이제 여기서 집안에 그 신랑 대반 앚일 사람이 그 하꼬를 받아양.(이제 여기서 집안에 그 신랑 대반 앉을 사람이 그 상자를 받아요.)

106011 @ 으.(으.)

106011 #1 받으민 여기 친척 어른덜 노인 하르방덜 빙허게 앚앙.(받으면 여기 친척 어른들 노인 할아버지들 뱅하게 앉아서.)

106011 @ 으.(으.)

106011 #1 여기 상 놔근에 상 우이 그걸 딱 놩 페와근에.(여기 상 놔서 상 위에 그걸 딱 놔서 펴서.)

106011 @ 으.(으.)

106011 #1 걸 이제 검톨 허주. 검톨 허게 뒈민 잘 맞게 써 오면은.(걸 이제 검톨 하지. 검톨 하게 되면 잘 맞게 써 오면.)

106011 @ 으.(으.)

106011 #1 그대로 신랑을 들여 놓곡.(그대로 신랑을 들여 놓고.)

106011 @ 으.(으.)

106011 #1 쫌 글자 하나라도 틀릴 거 아니?(쫌 글자 하나라도 틀릴 거 아니?)

106011 @ 으.(으.)

106011 #1 경 허민은 틀렷덴 헤근에양.(그렇게 하면 틀렸다고 해서요.)

106011 @ 예.(예.)

106011 #1 그 대신에 거리가 머니까 거 고찌레 갈 순 없고.(그 대신에 거리가 머니까 거 고치러 갈 순 없고.)

106011 @ 으.(으.)

106011 #1 신랑을 한 삼십 분이든 한 시간이든 올레에 벌을 세우주.(신랑을 한 삼십 분이든 한 시간이든 오래에 벌을 세우지.)

106011 @ 으.(으.)

106011 #1 경 헤근엥에 벌 산 다음에사 들여 놔근에.(그렇게 해서 벌 선 다음에야 들여 놔서.)

106011 @ 아, 그 벌은 어떤 식으로 세우는 거?(아, 그 벌은 어떤 식으로 세우는 거?)

106011 #1 아, 그 올레에 그냥.(아, 그 오래에 그냥.)

106011 @ 안, 안 들여.(안, 안 들여.)

106011 #1 들여 놓지 안 허영 그냥 올레에 사게 허영.(들여 놓지 안 해서 그냥 오래에 서게 해서.)

106011 @ 으. 겐 그런 것도 삼춘네도 많이 봐나고예?(으. 그래서 그런 것도 삼촌네

도 많이 봤었고요?)

106011 #1 예,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다 봣주.(예,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다 봤지.)

106012 @ 으, 여기 혹시 멘네도 갈아봔마씨?(으, 여기 혹시 면화도 갈아봤어요?)

106012 #1 옛날에는 멘네 갈안 솜 허는 거.(옛날에는 면화 갈아서 솜 하는 거.)

106012 @ 으.(으.)

106012 #1 멘네.(면화.)

106012 @ 삼춘네도 갈아봔?(삼촌네도 갈아봤어요?)

106012 #1 아니, 아니. 우린 아녀고.(아니, 아니. 우린 않고.)

106012 @ 안 하고. 그 멘네 가는 거에 얽힌 추억 같은 거 잇어마씨?(안 하고. 그 면화 가는 거에 얽힌 추억 같은 거 있어요?)

106012 #1 아니, 우린 그 멘네 갈아근에 그 봉긋봉긋 여물 든 거 거 타 먹으레 뎅겨나도 만들고 무시거 허는 거는. 멘네씨 막 피민 헤당은에 그 씨는 빼주.(아니, 우린 그 면화 갈아서 그 봉긋봉긋 여물 든 거 거 따 먹으러 다녔어도 만들고 무엇 하는 거는. 면화씨 막 피면 해다가 그 씨는 빼지.)

106012 @ 예, 예.(예, 예.)

106012 #1 씨 빼는 거꼬장은 알아도 그 씨 빼사 기계에 가근에 솜 만들엉 왕 이불 허는 거난에.(씨 빼는 거까지는 알아도 그 씨 빼야 기계에 가서 솜 만들어서 와서 이불 하는 거니까.)

106012 @ 으, 이불예?(으, 이불요?)

106012 #1 으.(으.)

106012 @ 게믄 그 멘네 이렇게 열지 아녀우과?(그러면 그 면화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106012 #1 예.(예.)

106012 @ 건 뭐렌 골아?(건 뭐라고 말해?)

106012 #1 그 멘네, 야, 그 멘네꼿 타 먹으레 가게, 타 먹으레 가게. 거 막 맛셔.(그 면화, 야, 그 면화꽃 따 먹으러 가자, 따 먹으러 가자. 거 아주 맛있어.)

106012 @ 으.(으.)

106012 #1 막 피지 아년 때.(막 피지 않을 때.)

106012 @ 예, 예.(예, 예.)

106012 #1 그거 타 먹으레 막 뎅겨낫수다게.(그거 타 먹으러 막 다녔었습니다.)

106014 @ 예. 혹시 여기 모시로 옷 허는 것도 봐 봅디가?(예. 혹시 여기 모시로 옷 하는 것도 봐 봅디까?)

106014 #1 모시옷은 저 대개 허주게.(모시옷은 저 대개 하지.)

106014 @ 아.(아.)

106014 #1 남자덜 옷이영 여자덜 한복이영 헙니다게. 겐디 거 사근에 허주기. 이딘 안 만드난.(남자들 옷이랑 여자들 한복이랑 합니다. 그런데 거 사서 하지. 여긴 안 만드니까.)

106014 @ 예. 안 만들앙예? 여기는 상은에. 여름에 주로 허는 거고.(예. 안 만들어서요? 여기는 사서. 여름에 주로 하는 거고.)

106014 #1 예, 모시 상.(예, 모시 사서.)

106015 @ 여기 무슨 모시 재배헹 허는 사람은 안 보고예?(여기 무슨 모시 재배해서 하는 사람은 안 보고요?)

106015 #1 예.(예.)

106017 @ 삼, 베옷. 베는 어떤 옷?(삼, 베옷. 베는 어떤 옷?)

106017 #1 삼베옷엔 헌 게 그 베옷ᄀᆞ라 삼베옷이엔 헙니다게.(삼베옷이라고 한 게 그 베옷보고 삼베옷이라고 합니다.)

106017 @ 예.(예.)

106017 #1 이름이.(이름이.)

106017 @ 이름이.(이름이.)

106017 #1 으, 거 삼, 거 삼베옷이엔 헌 건 건 저 우리가 영 생각을 헤 봐도 그 저 뭐가 천이 그 만드는 그것이 아메도 삼인 셍이라.(으, 거 삼, 거 삼베옷이라고 한 건 건 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도 그 저 뭐가 천이 그 만드는 그것이 아마도 삼인 모양이야.)

106017 @ 예, 예 삼, 으.(예, 예 삼, 으.)

106017 #1 으, 으. 게니까 삼베옷이라 허는 거랍디다.(으, 으. 그러니까 삼베옷이라 하는 거랍디다.)

106017 @ 예.(예.)

106017 #1 여기서 그거는, 그 물건은 아니 헤 보고.(여기서 그거는, 그 물건은 아니 해 보고.)

106017 @ 예.(예.)

106017 #1 그자 말만 삼베옷. 요거는 삼베다.(그저 말만 삼베옷. 요거는 삼베다.)

106017 @ 으.(으.)

106017 #1 요거는 무슨 베다 그추룩 헤근에.(요거는 무슨 베다 그처럼 해서.)

106017 @ 겐 그 삼베로는 주로 어떤 것덜을 헌 거라, 옛날에?(그래서 그 삼베로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한 거야, 옛날에?)

106017 #1 삼베로는 옛날에 잇인 사름덜은 기자 헹 입엉 멩질 때나 제서 때나 그걸 큰옷으로 입어나고.(삼베로는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해서 입어서 명절 때나 제사 때나 그걸 큰옷으로 입었었고.)

106017 @ 으.(으.)

106017 #1 그 후 다음덜은 뭐 허게 살기가 좋아 가고 허난에 그 삼베 ᄀᆞ뜬 거는 수의.(그 후 다음들은 뭐 하게 살기가 좋아 가고 하니까 그 삼베 같은 거는 수의.)

106017 @ 예.(예.)

106017 #1 제승 갈 때 입엉 갈 거.(저승 갈 때 입어서 갈 거.)

106017 @ 으.(으.)

106017 #1 수의로만 대개. 대개 만들곡 기자 영 옷으로 만들앙 입는 사름은 별로 드물곡.(수의로만 대개. 대개 만들고 그저 이렇게 옷으로 만들어서 입는 사람은 별로 드물고.)

106017 @ 음. 게난 삼베가 좋은 걸로 생각헹예?(음. 그러니까 삼베가 좋은 걸로 생각해서요?)

106017 #1 예, 예. 게난 수의는 멩지허고 삼베허고 헹 입주.(예, 예. 그러니까 수의는 명주하고 삼베하고 해서 입지.)

106017 @ 으, 으.(으, 으.)

106017 #1 옷은.(옷은.)

106017 @ 그 예전에 옷은 돌아가시면 상제덜 입는 옷은 뭘로 헤?(그 예전에 옷은 돌아가시면 상제들 입는 옷은 무엇으로 해?)

106017 #1 옛날에사 상제덜 입는 것도 기자 그 광목으로, 다 광목으로 헷주. 삼베가 어디 서?(옛날에야 상제들 입는 것도 그저 그 광목으로, 다 광목으로 했지. 삼베가 어디 있어?)

106017 @ 아.(아.)

106017 #1 그 후에, 후에 시대가 이 무시거냐, 전쟁 그 우리나라 끗나고 헌 다음에 해방뒈고 헌 다음에사.(그 후에, 후에 시대가 이 무엇이냐, 전쟁 그 우리나라 끝나고 한 다음에 해방되고 한 다음에야.)

106017 @ 음.(음.)

106017 #1 상제옷 베로 헷주.(상제옷 베로 했지.)

106017 @ 아, 이쪽에는?(아, 이쪽에는?)

106017 #1 예.(예.)

106017 @ 광목으로 하영 헷구나예?(광목으로 많이 했군요?)

106017 #1 광목으로 헤영.(광목으로 해서.)

106017 @ 아.(아.)

106017 #1 헤영허게시리.(허옇게끔.)

106017 @ 음.(음.)

106017 #1 두건도 광목으로 허곡.(두건도 광목으로 하고.)

106017 @ 두건도 광목으로 하고. 게니까 다른 쪽에는 가면 거의 삼베로 헷덴 허거든예. 두건, 광목으로 두건 헷덴 헌 말 처음 들엇수다.(두건도 광목으로 하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는 가면 거의 삼베로 했다고 하거든요. 두건, 광목으로 두건 했다고 한 말 처음 들었습니다.)

106017 #1 옛날엔.(옛날엔.)

106017 @ 예.(예.)

106017 #1 옛날엔 두건도 다 광목으로.(옛날엔 두건도 다 광목으로.)

106017 @ 광목으로예,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물레 헤근에 씨 영.(광목으로요,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물레 해서 씨 이렇

게.)

106017 #1 으.(으.)

106020 @ 볼르는 거 봐봔마씨?(바르는 거 봐봤어요?)

106020 #1 물레?(물레?)

106020 @ 예, 무르에 헤 갖고 그 솜예?(예, 물레 해 갖고 그 솜이요?)

106020 #1 으, 으.(으, 으.)

106020 @ 그 솜 씨 빼는 거 이런 거 봐봔?(그 솜 씨 빼는 거 이런 거 봐봤어요?)

106020 #1 아, 여기선 안 봐봔.(아, 여기선 안 봐봤어.)

106020 @ 아, 여기선 안 봔?(아, 여기선 안 봤어요?)

106020 #1 이 부락엔 그런 거 엇어.(이 부락엔 그런 거 없어.)

106022 @ 예, 알앗수다. 삼춘 바농질은 헷일 거 아니예?(예, 알았습니다. 삼촌 바느질은 했을 거 아닌가요?)

106022 #1 예게.(예.)

106022 @ 바농질은 허젠 허면 뭐가 필요헤마씨? 도구들이?(바느질은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도구들이?)

106022 #1 그땐양, 저 미싱도 어려운 때난에 우리 씨집갈 때만 헤도.(그땐요, 저 재봉틀도 어려운 때니까 우리 시집갈 때만 해도.)

106022 @ 으.(으.)

106022 #1 손으로 헹 입엇수다.(손으로 해서 입었습니다.)

106022 @ 아, 옷을?(아, 옷을?)

106022 #1 예. 치마영 저고리영. 나도 그때 시절이라도 나 어린 때부떠 그 어른덜 우리 어머니네가 할머니네가 곧는디 기자 흔 아홉 설, 열 설 뒈가난에 어른덜 바농질허는 걸 나가 자꾸 그거를 같이 따랑 헤렌.(예. 치마랑 저고리랑. 나도 그때 시절이어도 나 어릴 때부터 그 어른들 우리 어머니네가 할머니네가 말하는데 그저 한 아홉 살, 열 살 되어가니까 어른들 바느질하는 걸 내가 자꾸 그거를 같이 따라서 하더라고.)

106022 @ 으.(으.)

106022 #1 경 헌디양 난 결혼헐 때도 다 나대로 치마저구리 만들안 입엉 가고.(그렇게 했는데요 난 결혼할 때도 다 나대로 치마저고리 만들어서 입어서 가고.)

106022 @ 으.(으.)

106022 #1 결혼 딱 허난에 씨어머니네가 저 신랑 후루메 멘들렌 헨에 하얀 것 그 광목 후루메[345].(결혼 딱 하니까 시어머니네가 저 신랑 '후루메' 만들라고 해서 하얀 것 그 광목 '후루메'.)

106022 @ 으.(으.)

106022 #1 그 후루메가 ᄀᆞ자 잇수다. 어디 처박아 놩 잇주.(그 '후루메'가 여태 있습니다. 어디 처박아 놔서 있지.)

345) '후루메'는 서귀포시 온평리에서 안감이 있는 두루마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후리메'라고 한다. 안감이 없는 두루마기는 '두루막, 두루메기' 따위로 부른다.

106022 @ 아.(아.)

106022 #1 그걸 보민 잘도 우스와.(웃음)(그걸 보면 잘도 우스워.(웃음))

106022 @ 거 꺼냉 놔둡서. 거 사진 찍엉 놔두면 기록으로 다 남는 거.(거 꺼내서 놔두십시오. 거 사진 찍어서 놔두면 기록으로 다 남는 거.)

106022 #1 거 어디 데껴 베신가 어디 잇인가. 하여튼.(거 어디 던져 버렸는가 어디 있는가. 하여튼.)

106022 @ 춪아봅서.(찾아보십시오.)

106022 #1 경 허영 만들멍 입져낫수다.(그렇게 하면서 만들면서 입혔었습니다.)

106022 @ 게민 그때 바농질허젠 허면 필요헌 게 뭐우과?(그러면 그때 바느질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뭡니까?)

106022 #1 필요헌 거 뭐가 잇수과?(필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106022 @ 바농.(바늘.)

106022 #1 바농허고 ᄀᆞ세허고 실만 잇이민 뒛주.(바늘하고 가위하고 실만 있으면 됐지.)

106022 @ 자?(자?)

106022 #1 으, 잔 자.(으, 잔 자.)

106022 @ 그 자를 무슨 자렌 헤? 옛날에.(그 자를 무슨 자라고 해? 옛날에.)

106022 #1 거 옷 재는 자 대나무로 만든 자 아니우꽈게? 거 자.(거 옷 재는 자 대나무로 만든 자 아닙니까? 거 자.)

106022 @ 으. 그것만 잇이민 뒈예?(으. 그것만 있으면 돼요?)

106022 #1 으. 것만 잇이민 뒈주.(으. 것만 있으면 되지.)

106022 @ 골미 이런 거는 안 헤?(골무 이런 거는 안 해?)

106022 #1 아니, 옛날에 그런 거 엇엇수다. 손톱에 무시거 끼왕 허는 거 엇언.(아니, 옛날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손톱에 무엇 끼워서 하는 거 없었어.)

106022 @ 예. 게민 딱 네 개만 잇이민 뒈는 거라.(예. 그러면 딱 네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106022 #1 웃음.(웃음.)

106022 @ 으, 게도 바농질 허젠 허면.(으, 그래도 바느질 하려고 하면.)

106022 @ 예.(예.)

106022 #1 옷 만들 때 바농질허는 거허고 이불 헐 때 바농허고.(옷 만들 때 바느질하는 거하고 이불 할 때 바늘하고.)

106022 #1 크주게.(크지.)

106022 @ 뚜나지예?(다르지요?)

106022 #1 옷 만들 때 저 허는 거는 족은 바농으로 헤야 그 씰밥[346]이.(옷 만들 때 저 하는 거는 작은 바늘로 해야 그 실밥이.)

106022 @ 예.(예.)

346) 여기에서 '씰밥'은 바늘땀의 의미로 쓰였다.

106022 #1 두툴두툴 안허고.(두툴두툴 않고.)

106022 @ 예.(예.)

106022 #1 이불 끼우는 거는 큰 바농으로 헤사.(이불 끼우는 거는 큰 바늘로 해야.)

106023 @ 경 허고. 삼춘예, 바농질 허게 뒈면 영 촘촘허게 허는 것도 잇고.(그렇게 하고. 삼촌요, 바느질 하게 되면 이렇게 촘촘하게 하는 것도 있고.)

106023 #1 어.(어.)

106023 @ 그냥 영 돌리멍 허는 것도 잇고. 거 무신 바농질이엔 헙니까?(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것도 있고. 거 무슨 바느질이라고 합니까?)

106023 #1 뒷바농질이[347]엔도 허곡. 누게우꽈? 앞바농질이엔도 허는디 뒷바농질은 무시거닌 허냐민.('뒷바농질'이라고도 하고. 누굽니까? '앞바농질'이라고도 하는데 '뒷바농질'은 무엇이냐 하냐면.)

106023 @ 으.(으.)

106023 #1 기자 영 영 허는 거는 호움바농질이고.(그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홈질이고.)

106023 @ 예.(예.)

106023 #1 호우는 거.(호는 거.)

106023 @ 호우는 거.(호는 거.)

106023 #1 어. 영 영 영 영 혜영 바농 혼 꿰와근에 허는 건 호움바놀이고.(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늘 한 꾸어서(?) 하는 건 홈질이고.)

106023 @ 으.(으.)

106023 #1 하나하나 혼 번 혼 번 허는 거는 뒷바농질이엔 혜근에예.(하나하나 한 번 한 번 하는 거는 '뒷바농질'이라고 해서요.)

106023 @ 예.(예.)

106023 #1 요즘은 미승으로 허면은 데깍허게 박아졍 나오지 아녑니까?(요즘은 재봉틀로 하면 빽빽하게 박아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106023 @ 으.(으.)

106023 #1 게난 옛날에는 손으로 허기 때문에.(그러니까 옛날에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106023 @ 예.(예.)

106023 #1 그 씰밥을 족게 나오게 허젠양 바농으로 요추룩 꿰나민 그다음은 쪼금 그 바농 뒤로.(그 실밥을 적게 나오게 하려고요 바늘로 요처럼 꿰어나면 그다음은 쪼금 그 바늘 뒤로.)

106023 @ 으.(으.)

106023 #1 나와난 뒤로 찔러근에 영 헹 허곡 헹 그 뒷바농질이엔 혜근에.(나왔던 뒤로 질러서 이렇게 해서 하고 해서 그 '뒷바농질'이라고 해서.)

---

347) '뒷바농질'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실을 꿴 바늘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바느질이다. 달리 '앞바농질'이라고 한다.

106023 @ 으.(으.)

106023 #1 저 박는 거. 뎅침 허는 것이 그거.(저 박는 거. 땀침 하는 것이 그거.)

106023 @ 뎅침허는 게예?(땀침 하는 게요?)

106023 #1 어, 뎅침 허는 거. 경 헨 뒷바농질.(어, 땀침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뒷바농질'.)

106023 @ 뎅침, 옷 만들젠 허민 보통 뎅침 헙니까?(땀침, 옷 만들려고 하면 보통 땀침 합니까?)

106023 #1 그 기지에 따라.(그 천에 따라.)

106023 @ 예.(예.)

106023 #1 거 뎅침 허는 것도 잇곡 기대로 영 호앙 허는 것도 잇고.(거 땀침 하는 것도 있고 그대로 이렇게 호아서 하는 것도 있고.)

106023 @ 음. 게민 호앙 허는 거 뎅침 허는 거.(음. 그러면 호아서 하는 거 땀침 하는 거.)

106023 #1 으.(으.)

106023 @ 또 이렇게 단 같은 거 영 헐 때는 무슨 바늘이엔 헤?(또 이렇게 단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바늘이라고 해?)

106023 #1 그것도 그 쩨그만헌 바늘로예.(그것도 그 자그마한 바늘로요.)

106023 @ 예.(예.)

106023 #1 베꼇더레 실밥 나오민 뵈기가 싫으니까 게난 저 소곱으로 영 영 행양.(바깥으로 실밥 나오면 뵈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저 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106023 @ 예.(예.)

106023 #1 베꼇디레 씰 안 나오게. 경 헨 숨은바농질[348]이엔 헤근에.(바깥으로 실 안 나오게. 그렇게 해서 '숨은바농질'이라고 해서.)

106023 @ 숨은바농질.('숨은바농질'.)

106023 #1 예.(예.)

106023 @ 어.(어.)

106023 #1 경 헨 안으로는 씰 나와도 베꼇으로 씰 안 나오게 허는 거.(그렇게 해서 안으로는 실 나와도 바깥으로 실 안 나오게 하는 거.)

106023 @ 으, 숨은바농질?(으, '숨은바농질'?)

106023 #1 숨은바농질.('숨은바농질'.)

106023 @ 그다음에 옷 허면 듬성듬성허게 헤 갖고 거 대충헹 바농질은? 대충허는.(그다음에 옷 하면 듬성듬성하게 해 갖고 거 대충해서 바느질은? 대충하는.)

106023 #1 건 시끄는 거주게.(건 시침질하는 거지.)

106023 @ 건 시끄는 거.(건 시침질하는 거.)

106023 #1 시끔질허는 거.(시침질하는 거.)

348) '숨은바농질'은 바늘땀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바느질을 말한다. 보통 옷단을 접어서 기울 때 사용하는 바느질법이다.

106023 @ 건 시끔질이엔 헤예?(건 시침질이라고 한다고요?)

106023 #1 으.(으.)

106023 @ 게난 시끔질, 홈질, 이제 숨은바농질.(그러니까 시침질, 홈질, 이제 '숨은바농질'.)

106023 #1 으. 뒷바농질.(으. '뒷바농질'.)

106023 @ 뒷바농질. 그게 중요헌 거.(웃음)('뒷바농질'. 그게 중요한 거.(웃음))

106023 #1 웃음.(웃음.)

106024 @ 그다음 삼춘 아까 남자 삼춘 옷도 만들엇덴 허니까, 그 남자 옷 종류는, 맨 속에 입는 거부터 맨 겉옷까지예?(그다음 삼촌 아까 남자 삼촌 옷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남자 옷 종류는, 맨 속에 입는 거부터 맨 겉옷까지요?)

106024 #1 으.(으.)

106024 @ 어떤 종류덜이 잇수과?(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106024 #1 남저덜 옛날, 엿날에는게 지금은 무시거나 잠옷이엔 헹 허주만은 그런 바지 속에 입는 거 허곡.(남자들 옛날, 옛날에는 지금은 무엇이나 잠옷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런 바지 속에 입는 거 하고.)

106024 @ 예, 그 바지 일름은 뭐렌 골아?(예, 그 바지 이름은 뭐라고 말해?)

106024 #1 아니 그냥 그 진 바지엔 허주.(아니, 그냥 그 긴 바지라고 하지.)

106024 @ 진바지?(긴바지?)

106024 #1 으, 진바지.(으, 긴바지.)

106024 @ 음.(음.)

106024 #1 소곱에 팬티 말고 진 바지.(속에 팬티 말고 긴 바지.)

106024 @ 예, 진 바지 입고.(예, 긴 바지 입고.)

106024 #1 그거 허곡게 우이 또 겉옷 바지 입곡.(그거 하고 위에 또 겉옷 바지 입고.)

106024 @ 으.(으.)

106024 #1 옛날에는양.(옛날에는요.)

106024 @ 예.(예.)

106024 #1 예, 지금은 쓰붕[349] 입엇지만은 옛날은 주붕이 엇주. 게난 순 바지이.(예, 지금은 바지 입었지만 옛날은 바지가 없지. 그러니까 순 바지.)

106024 @ 으.(으.)

106024 #1 중의바지만 입엉 살앗주, 남자들.(중의바지만 입어서 살았지, 남자들.)

106024 @ 아.(아.)

106024 #1 그축 헹 바지허곡게.(그처럼 해서 바지하고.)

106024 @ 우에는?(위에는?)

106024 #1 게, 우에게 바지 입게 뒈면은 저고리를 입어야 뒈고.(게, 위에 바지 입게

349) '쓰붕'은 프랑스어 'ズボン'에서 온 일본어 'ズボン'을 한국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제보자는 달리 '주붕'이라고도 발음하였다.

되면 저고리를 입어야 되고.)

106024 @ 예.(예.)

106024 #1 중의를 입게 뒈민 적삼을 입게 뒈주, 우에 남자덜.(중의를 입게 되면 적삼을 입게 되지, 위에 남자들.)

106024 @ 게, 적삼허고 중의는 여름옷이구나?(게, 적삼하고 중의는 여름옷이구나?)

106024 #1 어, 으, 여름옷.(어, 으, 여름옷.)

106024 @ 예. 게민 저고리허고 적삼허고는 어떵 틋난 것과?(예. 그러면 저고리하고 적삼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106024 #1 안 논 거.(안 놓은 거.)

106024 @ 아.(아.)

106024 #1 저고리는 두 겹으로 안 놘 헌 거고.(저고리는 두 겹으로 안 놔서 한 거고.)

106024 @ 예.(예.)

106024 #1 적삼은 웨곱으로 헌 거.(적삼은 외겹으로 한 거.)

106024 @ 웨곱으로 헌 거고예, 예, 알앗수다. 그다음에 저고리 다음에 큰일 할 때 같은 경우에 우에 입는 옷들?(외겹으로 한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고리 다음에 큰일 할 때 같은 경우에 위에 입는 옷들?)

106024 #1 두루막이엔 헤근에 여름에 입는 건 두루마기고.(두루마기라고 해서 여름에 입는 건 두루마기고.)

106024 @ 예.(예.)

106024 #1 겨울에 입는 건 저 무시거고?(겨울에 입는 건 저 무엇이니?)

106024 @ 후리메?('후리메'?)

106024 #1 으, 후루메고.(으, '후루메'고.)

106024 @ 으, 후루메예?(으, '후루메'예?)

106024 #1 으, 건 안 논 거.(으, 건 안 놓은 거.)

106024 @ 아, 후루메는 안 논 거.(아, '후루메'는 안 놓은 거.)

106024 #1 두루마는 홉 거.(두루마기는 홉 거.)

106024 @ 아, 두루막은 홉 거예? 그다음에 여기 이 동네는 제사허면은 두루막 말앙 더 우에 입는 큰옷도 잇지예?(아, 두루마기는 홉 거요? 그다음에 여기 이 동네는 제사하면 두루마기 말고 더 위에 입는 큰옷도 있지요?)

106024 #1 아, 그거는양.(아, 그거는요.)

106024 @ 예.(예.)

106024 #1 그 집안에 따라근에.(그 집안에 따라서.)

106024 @ 으, 으.(으, 으.)

106024 #1 옛날에는 그추룩 입엉 큰옷 입곡 유건 쓰곡 헹 젤 봐낫인디 지금은 그런 거 안 입읍니다.(옛날에는 그처럼 입어서 큰옷 입고 유건 쓰고 해서 젤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입습니다.)

106024 @ 아.(아.)

106024 #1 옛날에는 다 유건 써낫어.(옛날에는 다 유건 썼었어.)

106024 @ 옛날에는 유건 쓰고.(옛날에는 유건 쓰고.)

106024 #1 예. 제 보젠 허민 삼헌 출릴 사름 다 유건 쓰고 또 집사 허는 사름도 유건 쓰곡 헹은에.(예. 제 보려고 하면 삼헌 차릴 사람 다 유건 쓰고 또 집사 하는 사람도 유건 쓰고 해서.)

106024 @ 겐 우에 옷도 큰.(그래서 위에 옷도 큰.)

106024 #1 예, 큰옷 입고 도복.(예, 큰옷 입고 도포.)

106024 @ 도복 입고예?(도포 입고요?)

106024 #1 으, 도복.(으, 도포.)

106024 @ 요즘은 도복 안허고.(요즘은 도포 않고.)

106024 #1 으. 기자 겨울에는 후루메 입고 여름에는 두루막 입엉 허주. 제 보는 디도.(으. 그저 겨울에는 '후루메' 입고 여름에는 두루마기 입어서 하지. 제 보는 데도.)

106025 @ 아. 그다음에 여자 옷 종류는 어떤 거 잇어?(아. 그다음에 여자 옷 종류는 어떤 거 있어?)

106025 #1 여자 옷도게 옛날에 마찬가지게.(여자 옷도 옛날에 마찬가지.)

106025 @ 예. 맨 안에 입는 옷은 뭐렌 헙니까?(예. 맨 안에 입는 옷은 뭐라고 합니까?)

106025 #1 안에, 젤 안엔 요새 빤스주만은 옛날엔 속곳이주게.(안에, 젤 안엔 요새 팬티지만 옛날엔 속곳이지.)

106025 @ 속곳.(속곳.)

106025 #1 속곳.(속곳.)

106025 @ 으, 속곳 입은 다음에?(으, 속곳 입은 다음에?)

106025 #1 속곳 입엉 그 다음에 바자마 입엉 만들앙.(속곳 입어서 그 다음에 파자마 입어서 만들어서.)

106025 @ 예.(예.)

106025 #1 그다음엔게 몸뻬 입게 뒈민 몸뻬 입곡 경 안허민 치마 입고.(그다음엔 몸뻬 입게 되면 몸뻬 입고 그렇게 않으면 치마 입고.)

106025 @ 치마 입고.(치마 입고.)

106025 #1 치마 입을 땐 또 속치마[쏙-]도 그 무시걸로 만들앙.(치마 입을 땐 또 속치마[쏙-]도 그 무엇으로 만들어서.)

106025 @ 예.(예.)

106025 #1 광목으로.(광목으로.)

106025 @ 광목으로. 으.(광목으로. 으)

106025 #1 경 헤연.(그렇게 했어.)

106025 @ 경 헤영 멧 개를 입은 거 아니라예, 옛날은예?(그렇게 해서 몇 개를 입은 거 아닌가요, 옛날은요?)

106025 #1 으, 경 헤낫수게.(으, 그렇게 했었습니다.)

106025 @ 우에는?(위에는?)

106025 #1 우에는게 속적삼 입곡 겉적삼 입고.(위에는 속적삼 입곡 겉적삼 입고.)

106025 @ 겉적삼 입곡. 것도 적삼도 두 개를 입어, 여자덜은?(겉적삼 입고. 것도 적삼도 두 개를 입어, 여자들은?)

106025 #1 으, 여자덜은.(으, 여자들은.)

106025 @ 여름에도예. 겐 저고리는, 겨울에는 저고리?(여름에도요. 그래서 저고리는, 겨울에는 저고리?)

106025 #1 예, 저고리.(예, 저고리.)

106025 @ 아, 그다음에 저고리 우에는 여자덜은 안 입어?(아, 그다음에 저고리 위에는 여자들은 안 입어?)

106025 #1 저고리 우에 엿날에 무신거 잇엇수과?(저고리 위에 옛날에 무엇 있었습니까?)

106025 @ 삼춘 그 씨집올 때는 어떻게 입엇수과?(삼촌 그 시집올 때는 어떻게 입었습니까?)

106025 #1 우리, 우리 씨집올 때 정도는게 저고리에 두루막 입엇주, 여자덜.(우리, 우리 시집올 때 정도는 저고리에 두루마기 입었지, 여자들.)

106025 @ 으.(으.)

106025 #1 여저덜 두루막 헤근에.(여자들 두루마기 해서.)

106025 @ 어떤 색깔 입언?(어떤 색깔 입었어요?)

106025 #1 아, 우린 저 풋색으로 헨에.(아, 우린 저 팥색으로 해서.)

106025 @ 으.(으.)

106025 #1 풋색으로 헨에. 그거는 기지로.(팥색으로 해서. 그거는 천으로.)

106025 @ 예, 예.

106025 #1 양단 기지로 헨에. 우리 그때ᄁᆞ장은 두루막도 아무나 못 입엇수다.(양단 천으로 해서. 우리 그때까지는 두루마기도 아무나 못 입었습니다.)

106025 @ 으.(으.)

106025 #1 우리 결혼헐 때ᄁᆞ장도. 쪼금 여유 잇는 사람은 두루막ᄁᆞ장 헹 입어근엥에 한복 우이 그거 입엉, 멩질에도 정월멩질에도.(우리 결혼할 때까지도. 쪼금 여유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까지 해서 입어서 한복 위에 그거 입어서, 명절에도 정월명절에도.)

106025 @ 예.(예.)

106025 #1 그거 새새각시 뒈면은 방상[350]에 다 멩질 먹으레 뎅겻주.(그거 새색시 되면 '방상'에 다 명절 먹으러 다녔지.)

106025 @ 음.(음.)

106025 #1 씨아부지허곡 ᄀᆞ치 제주 아졍. 경 허곡 또 그디 가면은 심부름 허곡.(시아버지하고 같이 제주 가져서. 그렇게 하고 또 거기 가면 심부름 하고.)

---

350) '방상'은 일가붙이의 집안을 가리킨다.

106025 @ 음.(음.)
106025 #1 새새각시, 새메누리 심부름 밥 놓렌 헹은에.(새새색시, 새며느리 심부름 밥 놓아라고 해서.)
106025 @ 으.(으.)
106025 #1 요즘은 영 갈랑덜 헤 부난 헤도 옛날엔 방상이 막 하근엥에.(요즘은 이렇게 갈라서들 해 버리니까 해도 옛날엔 '방상'이 아주 많아서.)
106025 @ 예.(예.)
106025 #1 막 마리에 소빡, 방에 소빡.(아주 마루에 가득, 방에 가득.)
106025 @ 예.(예.)
106025 #1 아이덜은 마당에 앚곡, 경 허는디 그치룩 허멍.(아이들은 마당에 앉고, 그렇게 하는데 그처럼 하면서.)
106025 @ 게난 그때는 심부름도 심부름이주만 얼굴 알리는 거 아니라예? 친척덜안테.(그러니까 그때는 심부름도 심부름이지만 얼굴 알리는 거 아닌가요? 친척들한테.)
106025 #1 으, 경 허는 셍이라.(으, 그렇게 하는 모양이야.)
106025 @ 예, 겐 그 픗색을 장옷이렌은 허는 거 안 들어봔?(예, 그래서 그 팥색을 장옷이라고는 하는 거 안 들어봤어요?)
106025 #1 아, 장옷은 죽을 때 입을 거, 수의로.(아, 장옷은 죽을 때 입을 거, 수의로.)
106025 @ 아.(아.)
106025 #1 수의로 입는 거 장옷은 여자덜.(수의로 입는 거 장옷은 여자들.)
106025 @ 장옷은 수의로 입고.(장옷은 수의로 입고.)
106025 #1 으.(으.)
106025 @ 그냥 일반은 두루막.(그냥 일반은 두루마기.)
106025 #1 장옷은 우리도 씨집갈 때 멩지로 헨에 헹 갓수다.(장옷은 우리도 시집갈 때 명주로 해서 해서 갔습니다.)
106025 @ 아, 그걸로 입어 가진, 입지는 안 헤마씨?(아, 그걸로 입어 가진, 입지는 안 해요?)
106025 #1 그거예.(그거요.)
106025 @ 예.(예.)
106025 #1 저 족두리 썽 갈 때는.(저 족두리 써서 갈 때는.)
106025 @ 음.(음.)
106025 #1 그 장옷을 입고.(그 장옷을 입고.)
106025 @ 으.(으.)
106025 #1 멘사포 쓸 때는 안 입고.(면사포 쓸 때는 안 입고.)
106025 @ 아. 경 헤도 이제 헹 가야.(아. 그렇게 해도 이제 해서 가야.)
106025 #1 으, 헹 가사. 응, 헹 가사주.(으, 해서 가야. 응, 해서 가야지.)
106025 @ 겐 그 장옷은 잇어마씨?(그래서 그 장옷은 있어요?)

106025 #1 잇수다, 난.(있습니다, 난.)

106025 @ 아, 옛날 거 그대로예?(아, 옛날 거 그대로요?)

106025 #1 옛날 거 그대로.(옛날 거 그대로.)

106025 @ 예, 겐 근데 그 저 돌아가실 때 못 입을 건디 족앙.(예, 그래서 근데 그 저 돌아가실 때 못 입을 건데 작아서.)

106025 #1 아니 족음보단 관에라도 놔ᄃᆞ렌 나가 ᄀᆞᆫ주. 아이덜ᄀᆞ라.(아니 족음보단 관에라도 놔달라고 내가 말하지. 아이들보고.)

106025 @ 그렇지, 옛날에 헤 온 거니까.(그렇지, 옛날에 해 온 거니까.)

106025 #1 어, 이거 씨집올 때 헌 거라 부난 이거 관에 놔주라.(어, 이거 시집올 때 한 거여 버리니까 이거 관에 놔줘라.)

106025 @ 멩지로 옛날 그거 다 허는 거잖아예?(명주로 옛날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106025 #1 예, 멩지로 파란 멩지로 헤근에 허곡 빨간 걸로 짓 허고 곰.(예, 명주로 파란 명주로 해서 하고 빨간 걸로 깃 하고 고름.)

106025 @ 음.(음.)

106025 #1 이 끗동 놓고 헹.(이 끝동 놓고 해서.)

106025 @ 음. 그런 게 중요헌 거마씨.(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106025 #1 중요헌 거고 말고.(중요한 거고 말고.)

106026 @ 나중에 사진 흔번 다 찍어야켜. 그 다음엔예, 삼춘 아이덜 옷은 어떤 거 잇어?(나중에 사진 한번 다 찍어야겠네. 그 다음은요, 삼촌 아이들 옷은 어떤 거 있어?)

106026 #1 아이덜 옷 우리 그 시절에도게 옛날에도게 기자 광복 험벅 헤근에게 감 들영 영 쫄른 바지 멩글앙 입지곡(웃음), 겨울에도 진 거 멩글앙 입지고. 저 이땅 사진에 보믄 저 웨국 나라 막 그추룩 그런 식으로 입언 옛날에사 이디도 다 경 헷수게게.(아이들 옷 우리 그 시절에도 옛날에도 그저 광복 헝겊 해서 감 들여서 이렇게 짧은 바지 만들어서 입히고(웃음), 겨울에도 긴 거 만들어서 입히고. 저 이따금 사진에 보면 저 외국 나라 아주 그처럼 그런 식으로 입어서 옛날에야 여기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106026 @ 으, 광목으로?(으, 광목으로?)

106026 #1 예.(예.)

106026 @ 그리고 이제 애기덜 옷 보면은 강은에 오줌 누렌 강알 영 터진 바지?(그리고 이제 아기들 옷 보면 가서 오줌 누라고 샅 이렇게 터진 바지?)

106026 #1 그거는 굴중의[351]엔 허주게. 우리 할망덜도 우리 그 시절에 다 굴중의 입엇주게. 이디 영 튼 거.(그거는 '굴중의'라고 하지. 우리 할머니들도 우리 그 시절에 다 '굴중의' 입었지. 여기 이렇게 튼 거.)

106026 @ 예.(예.)

106026 #1 으, 게난 여기는 잇고 여기는 허리 ᄃᆞᆯ아근에 곰 딱 메영 입곡.(으, 그러니까 여기는 있고 여기는 허리 달아서 고름 딱 매어서 입고.)

---

351) '굴중의'는 여자들이 입는 가랑이가 트인 통이 큰 속곳이다.

106026 @ 으.(으.)

106026 #1 영 사민은 몸뻬 뒈곡 앚을 때는 요디 이디 튼 거니까 요것만 영 버영 앚앙은엥에. 소변 대변 눕고.(이렇게 서면 몸뻬 되고 앉을 때는 요기 여기 튼 거니까 요것만 이렇게 벌려서 앉아서. 소변 대변 누고.)

106026 @ 아, 가운데가 터졋구나.(아, 가운데가 터졌구나.)

106026 #1 으, 가운데가 터젼.(으, 가운데가 터졌어.)

106026 @ 아.(아.)

106026 #1 게난 굴중의엔 허주, 그거는.(그러니까 '굴중의'라고 하지, 그거는.)

106026 @ 굴중의. 게니까 이제 굴이 아 터져서 굴중의구나.('굴중의'. 그러니까 이제 '굴'이 아 터져서 '굴중의'구나.)

106026 #1 터져, 터져 부난 굴중의.(터져, 터져 버리니까 '굴중의'.)

106026 @ 아, 나는, 이 그래서 헤싸근에 헷덴 헌 거 치마 식으로 이렇게 뭰 게 아니고.(아, 나는, 이 그래서 헤집어서 했다고 한 거 치마 식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106026 #1 아니.(아니.)

106026 @ 가운디가 이렇게 터졍 잇수과?(가운데가 이렇게 터져서 있습니까?)

106026 #1 가운디만 터진 거. 이디도 다 꼬매고.(가운데만 터진 거. 여기도 다 꿰매고.)

106026 @ 예.(예.)

106026 #1 이디도 다 꼬매곡 헷는데.(이디도 다 꿰매고 했는데.)

106026 @ 예.(예.)

106026 #1 이디는 허리 돌앙 영 곰 딱 메고.(여기는 허리 달아서 이렇게 고름 딱 매고.)

106026 @ 예.(예.)

106026 #1 게민 일어사민은 그냥 이거 터진 거 안 보이난에 치마바지 뒈주.(그러면 일어서면 그냥 이거 터진 거 안 보이니까 '치마바지' 되지.)

106026 @ 으.(으.)

106026 #1 겐디 볼일 볼 때는 이거 영 버여근엥에 앚앙 보고.(그런데 볼일 볼 때는 이거 이렇게 벌려서 앉아서 보고.)

106026 @ 게난 속곳은 안 입는 거라, 굴중의 헐 땐예?(그러니까 속곳은 안 입는 거야, '굴중의' 할 땐요?)

106026 #1 아니, 속곳, 속곳 입어도.(아니, 속곳, 속곳 입어도.)

106026 @ 아, 속곳 입어도?(아, 속곳 입어도?)

106026 #1 으. 속곳 입어도 그 우에 그 굴중의.(으. 속곳 입어도 그 위에 그 '굴중의'.)

106026 @ 속곳은 그러면은 속곳은?(속곳은 그러면은 속곳은?)

106026 #1 그 죽을 때 입는 것도 그 굴중의는 꼭 헷주.(그 죽을 때 입는 것도 그 '굴중의'는 꼭 했지.)

106026 @ 아.(아.)

106026 #1 옛날이난에.(옛날이니까.)

106026 @ 굴중의는 하고.(‘굴중의’는 하고.)

106026 #1 으, 옛날에 입는 옷이난에 기냥 그걸 꼭 헤낫주게.(으, 옛날에 입는 옷이니까 그냥 그걸 꼭 했었지.)

106027 @ 알앗수다. 그다음에 그 삼춘 이제 옷 만들엇엇젠 헷덴 헷잖아예. 옷을 하나 만들아 봅서. 뭐를 만들어 보코? 음.(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삼촌 이제 옷 만었었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옷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뭐를 만들어 볼까? 음.)

106027 #1 무시거 저고리도 허고 치마도 허고.(무엇 저고리도 하고 치마도 하고.)

106027 @ 저고리 만드는 그 과정을 그 마름질부떠 그 과정을 한 번 굴아줘 봅서, 어떵 만들어신지?(저고리 만드는 그 과정을 그 마름질부터 그 과정을 한 번 말해줘 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었는지?)

106027 #1 천 놔근엥에 자 놔근에 이녁 몸뗑이 자 멧 치 멧 치 입을 거 허고 기럭시 멧 치 허곡 헤영 재영.(천 놔서 자 놔서 이녁 몸뚱이 자 몇 치 몇 치 입을 거 하고 길이 몇 치 하고 해서 재어서.)

106027 @ 으.(으.)

106027 #1 그 천을 영 헹 딱 마련헹 놔근엥에.(그 천을 이렇게 해서 딱 마련해서 놔서.)

106027 @ 으.(으.)

106027 #1 재단허주게.(재단하지.)

106027 @ 예.(예.)

106027 #1 재단을 헤근엥에 만드는 거주. 바농질.(재단을 해서 만드는 거지. 바느질.)

106027 @ 게믄 재단허게 뒈면 재단허는 그 종이를 또 만드는 거?(그러면 재단하게 되면 재단하는 그 종이를 또 만드는 거?)

106027 #1 종이로 재단을 허든 그 처음 배울 때는 종이로 본을 떠 놔야 헙주.(종이로 재단을 하든 그 처음 배울 때는 종이로 본을 떠 놔야 합지요.)

106027 @ 예.(예.)

106027 #1 겐디 우린 흔 번 그치룩 헹 놈 허는 거 영 봐나난 천으로 아예 본을 떠.(그런데 우린 한번 그처럼 해서 남 하는 거 이렇게 봐보니 천으로 아예 본을 떠.)

106027 @ 예. 경 허영 본을 떵 바농.(예. 그렇게 해서 본을 떠서 바늘.)

106027 #1 손바농으로.(손바느질로.)

106028 @ 예, 혹시 이제 삼춘 그 바지, 옛날 바지예?(예, 혹시 이제 삼촌 그 바지, 옛날 바지요?)

106028 #1 으.(으.)

106028 @ 영 뒐 거 아니? 이제 바지가. 한쪽에는 길고 흔쪽에는 영 뒈잖아예?(이렇게 될 거 아니? 이제 바지가. 한쪽에는 길고 한 쪽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106028 #1 굴중의?(‘굴중의’?)

106028 @ 아니, 바.(아니, 바.)

106028 #1 그냥 바지.(그냥 바지.)

106028 @ 바지, 바지도 이렇게 허면 이 부분은 뭐렌 헤?(바지, 바지도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뭐라고 해?)

106028 #1 허리주게.(허리지.)

106028 @ 허리.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뭐렌 헤 이런 건?(허리.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뭐라고 해 이런 건?)

106028 #1 이 저 바지는 이디 다님 쳥 남자덜 입는 거?(이 저 바지는 여기 대님 쳐서 남자들 입는 거?)

106028 @ 예, 예.(예, 예.)

106028 #1 이거, 이거 곧작 간 거는 곧음폭이엔 허곡양.(이거, 이거 곧게 간 거는 마루폭이라고 하고요.)

106028 @ 예, 곧음폭.(예, 마루폭.)

106028 #1 으 여기는.(으 여기는.)

106028 @ 예.(예.)

106028 #1 저 영 홀타지게.(저 이렇게 빨아지게.)

106028 @ 약간 이렇게 홀타지게.(약간 이렇게 빨아지게.)

106028 #1 홀타지게 허는 거 보난 밋이엔 허주.(빨아지게 하는 거 보니까 밑이라고 하지.)

106028 @ 예, 밋, 아 밋예.(예, 밑, 아 밑요.)

106028 #1 경 헤영 멘드는 거.(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106028 @ 곧음폭 말고 영 저.(마루폭 말고 이렇게 저.)

106028 #1 양쪽에 곧음폭.(양쪽에 마루폭.)

106028 @ 곧음폭. 그다음 밑에는 뭐렌 헤?(마루폭. 그다음 밑에는 뭐라고 해?)

106028 #1 뭣 밑에? 밑에는 그냥.(무엇 밑에? 밑에는 그냥.)

106028 @ 이쪽에 이렇게 허면?(이쪽에 이렇게 하면?)

106028 #1 으, 그거 바지난에게 그거 알게.(으, 그거 바지니까 그거 단.)

106028 @ 알. 알이렌 헤예. 요거는 이제는 하고.(단. 단이라고 한다고요. 요거는 이제는 하고.)

106028 #1 알[352].(단.)

106028 @ 남자.(남자.)

106028 #1 이거 남자 바지.(이거 남자 바지.)

106028 @ 남자 바지예. 그다음에 저고리가 이제 영 뒐 거 아니라예?(남자 바지요. 그다음에 저고리가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106028 #1 으.(으.)

106028 @ 이렇게 저고리 하면 여기는 뭐렌 헤?(이렇게 저고리 하면 여기는 뭐라고

352) '알'은 표준어 '아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의 의미로 쓰였다.

해?)
106028 #1 거 목 아니?(거 목 아니?)
106028 @ 으, 목. 요기는, 요기 동전 달린 데.(으, 목. 요기는, 요기 동전 달린 데.)
106028 #1 아, 짓.(아, 깃.)
106028 @ 짓.(깃.)
106028 #1 짓이 영 ᄂᆞ려올 거.(깃이 이렇게 내려올 거.)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1 그거는 앞섭.(그거는 앞섶.)
106028 @ 앞섭. 앞섭도 잇고 뒷섭도 이십니까?(앞섶. 앞섶도 있고 뒷섶도 있습니까?)
106028 #1 아니, 안앞섭 밧앞섭.(아니, 안섶 겉섶.)
106028 @ 아, 안앞섭, 밧앞섭예?(아, 안섶, 겉섶요?)
106028 #1 으.(으.)
106028 @ 그다음에 요렇게 뒈고. 여기는 뭐렌 헤?(그다음에 요렇게 되고. 여기는 뭐라고 해?)
106028 #1 그 소매.(그 소매.)
106028 @ 소매예. 요 부분은?(소매요. 요 부분은?)
106028 #1 이건 저 소맷부리게.(이건 저 소맷부리.)
106028 @ 소맷부리?(소맷부리?)
106028 #1 으, 소맷부리.(으, 소맷부리.)
106028 @ 소맷부리. 그다음에 이렇게 둥글렁헌 데는?(소맷부리. 그다음에 이렇게 둥근 데는?)
106028 #1 그건 배알이엔 헙주.(그건 배래라고 합죠.)
106028 @ 이건 배알.(이건 배래.)
106028 #1 으.(으.)
106028 @ 배알. 그다음에 전체 길이는 뭐렌 헤?(배래. 그다음에 전체 길이는 뭐라고 해?)
106028 #1 소맷길이?(소맷길이)
106028 @ 으.(으.)
106028 #1 소맷길이사 뭐옌 헙니까? 소맷길이주.(소맷길이야 뭐라고 합니까? 소맷길이지.)
106028 @ 으, 그냥 소맷길이렌 허고예? 요 요, 부분은 뭐렌 헙니까? 요 몸통 헹은에 몸통 헤근에 소매 부분. 여기도 이름 잇어?(으, 그냥 소맷길이라고 허고요? 요 요,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요 몸통 해서 몸통 해서 소매 부분. 여기도 이름 있어?)
106028 #1 아니 요건 ᄉᆞ미고.(아니 요건 소매고.)
106028 @ 예.(예.)
106028 #1 으, 요거는 이 이 몸뗑이[353]고.(으, 요거는 이 이 몸뚱이고.)

106028 @ 으 몸뗑이 으. 몸뗑이 이몸이엔 헌 말도 헙니까? 여긴.(으 몸뚱이 으. 몸뚱이 '의몸'이라고 한 말도 합니까? 여긴.)

106028 #1 아니.(아니.)

106028 @ 몸뗑이?(몸뚱이?)

106028 #1 으, 이건 몸뗑이.(으, 이건 몸뚱이.)

106028 @ 이건 몸뗑이.(이건 몸뚱이.)

106028 #1 으.(으.)

106028 @ 이건 소매?(이건 소매?)

106028 #1 으.(으.)

106028 @ 여긴 배알?(여긴 배래?)

106028 #1 으.(으.)

106028 @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치마 허게 뒈면? 영 뒐 거 아니라예?(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치마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106028 #1 치마는 간단허주게.(치마는 간단하지.)

106028 @ 으, 치마 허면은 여기는 어디?(으, 치마 하면은 여기는 어디?)

106028 #1 뭐 그딘 허리주.(뭐 거긴 허리지.)

106028 @ 이런 옆에도 잇어?(이런 옆에도 있어?)

106028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6028 @ 여기는 뭐렌 헙니까?(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06028 #1 아, 건 치마폭이주게.(아, 건 치마폭이지.)

106028 @ 치마폭 으.(치마폭 으.)

106028 #1 으, 옛날 멩지 헐 때는 ᄋᆞ답 폭 치마.(으, 옛날 명주 할 때는 여덟 폭 치마.)

106028 @ 으, 여덥 폭 치마 허고.(으, 여덟 폭 치마 하고.)

106028 #1 ᄋᆞ답 폭 치마라사.(여덟 폭 치마라야.)

106028 @ 그다음에 요런 것도 통으로 뒌 것도 영 펼쳐진 것도 잇잖아예?(그다음에 요런 것도 통으로 된 것도 이렇게 펼쳐진 것도 있잖아요?)

106028 #1 통치마허고 저 깍치마엔 헙니다. 펼쳐진 거.(통치마하고 저 풀치마라고 합니다. 펼쳐진 거.)

106028 @ 아, 깍치메예. 옛날에 여자덜은 깍치메 입어난 거 아니?(아, 풀치마요. 옛날에 여자들은 풀치마 입었던 거 아니?)

106028 #1 처녀 때는 통치마 입고.(처녀 때는 통치마 입고.)

106028 @ 아, 처녀 때는 통치마 입고?(아, 처녀 때는 통치마 입고?)

106028 #1 으, 결혼허민 깍치마 입고.(으, 결혼하면 풀치마 입고.)

106028 @ 그다음 삼춘 보선도 직접 만들앙?(그다음 삼촌 보선도 직접 만들어서?)

---

353) '몸뗑이'는 표준어 '몸뚱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서는 저고리의 몸통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의몸'이라고 한다.

106028 #1 예.(예.)
106028 @ 보선 하게 뒈면 이렇게 생겻잖아예?(보선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106028 #1 예.(예.)
106028 @ 그러면 여기도 이름이 다 잇잖아예?(그러면 여기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106028 #1 보선목.(버선목.)
106028 @ 여기가 보선목?(여기가 버선목?)
106028 #1 으.(으.)
106028 @ 보선목.(버선목.)
106028 #1 저긴 보선 뒤꿈치.(저긴 보선 뒤꿈치.)
106028 @ 이건 보선.(이건 버선.)
106028 #1 뒤치기.(뒤치기.)
106028 @ 보선뒤치기. 그다음은 요기.(버선뒤축. 그다음은 요기.)
106028 #1 아, 그거는 툭, 발툭[354], 이거 잇는 거난에 건 발툭이 맞는 거.(아, 그거는 툭, '발툭', 이거 있는 거니까 건 '발툭'이 맞는 거.)
106028 @ 으, 발툭. 뭐 애툭 허는 건 아니고.(으, '발툭'. 뭐 '애툭' 하는 건 아니고.)
106028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6028 @ 발툭.('발툭'.)
106028 #1 애툭이 아니고 발툭.('애툭'이 아니고 '발툭'.)
106028 @ 이 끝에는?(이 끝에는?)
106028 #1 거 발봉오지.(거 발부리.)
106028 @ 발봉오지.(발부리.)
106028 #1 으.(으.)
106028 @ 요 뒤에는?(요 뒤에는?)
106028 #1 거 뒤꿈치 아니과?(거 뒤꿈치 아닙니까?)
106028 @ 여기가 뒤꿈치고 음.(여기가 뒤꿈치고 음.)
106028 #1 으, 뒤굼치.(으, 뒤꿈치.)
106028 @ 이런 식으로 이름덜 다 틀리잖아예? 그다음에 삼춘 여기에 영 영 헤영근에 바농 영 허잖아. 그거는 뭐렌 헤?(이런 식으로 이름들 다 틀리잖아요? 그다음에 삼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늘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뭐라고 해?)
106028 #1 그거는 앞부분이주게, 것ᄀᆞ라 앞부분이엔 헙니다.(그거는 앞부분이지. 것보고 앞부분이라고 합니다.)
106028 @ 수눅은 뭐우과?(수눅은 뭡니까?)
106028 #1 수눅?(수눅?)
106028 @ 그런 말 안 들어봔?(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106028 #1 아니 수눅.(아니 수눅.)

354) '발툭'은 발의 뒤꿈치에서 발 사이에 턱이 진 곳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버선의 뒤꿈치 위에 턱이 진 곳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지역에 따라서 '애툭'이라고 한다.

106028 @ 앞부분을 영 허면 밖으로 향하게 신는 거잖아. 그걸 기준으로 헤근에.(앞부분을 이렇게 하면 밖으로 향하게 신는 거잖아. 그걸 기준으로 해서.)

106028 #1 씰밥?(실밥?)

106028 @ 씰밥.(실밥.)

106028 #1 씰밥으로. 씰밥으로 그 안터레 고부리지 안 허영 베꼇더레 꼬부려사.(실밥으로. 실밥으로 그 안으로 고부리지 안 해서 바깥으로 꼬부려야.)

106028 @ 으, 양쪽 다예?(으, 양쪽 다요?)

106028 #1 으.(으.)

106028 @ 그걸 보멍은에 어.(그걸 보면서 어.)

106028 #1 그것이.(그것이.)

106028 @ 오른쪽 웬쪽 허는 거예?(오른쪽 왼쪽 하는 거요?)

106028 #1 으.(으.)

106029 @ 예, 삼춘 여기 예전에 단추들?(예, 삼촌 여기 예전에 단추들?)

106029 #1 단추, 단추사. 여기 엿날에 엿날에 단추는.(단추, 단추야. 여기 옛날에 옛날에 단추는.)

106029 @ 으.(으.)

106029 #1 저 무시거냐 전복껍덕[껍떡]으로 만든 단추 아니우과? 옛날에 나온 거.(저 무엇이냐 전복갑으로 만든 단추 아닙니까? 옛날에 나온 거.)

106029 @ 으.(으.)

106029 #1 전복껍덕으로 만든 단추난 막 얄부주게.(전복갑으로 만든 단추니까 아주 얇지.)

106029 @ 예.(예.)

106029 #1 그때는 얄바도 알록알록 전복껍덕 색깔이 무지개색 잇는 거 허면 단춘 막 이뻐.(그때는 얇아도 알록알록 전복갑 색깔이 무지개색 있는 거 하면 단춘 아주 이뻐.)

106029 @ 으.(으.)

106029 #1 막 고와. 그런 단추랏수다게.(아주 고와. 그런 단추였습니다.)

106029 @ 이 동네도 단추공장 잇엇수과?(이 동네도 단추공장 있었습니까?)

106029 #1 이 동넨 공장이 엇고. 저디 나가야 잇엇고. 또 여자덜은 대개 불모작.(이 동넨 공장이 없고. 저기 나가야 있었고. 또 여자들은 대개 벌매듭.)

106029 @ 음.(음.)

106029 #1 불ᄆᆞ작으로 단추 헹.(벌매듭으로 단추 해서.)

106029 @ 으, 벌ᄆᆞ작으로예?(으, 벌매듭으로요?)

106029 #1 으. 이런 저고리도 곰 안 든 거는 불ᄆᆞ작 둘앙 입곡.(으. 이런 저고리도 고름 안 단 거는 벌매듭 달아서 입고.)

106029 @ 예.(예.)

106029 #1 대개 불ᄆᆞ작으로 여자는.(대개 벌매듭으로 여자는.)

106029 @ 음, 아까 여기 저 곰을 안 그렷구나.(음, 아까 여기 저 고름을 안 그렸구나.)

106029 #1 으.(으.)

재단과 손질

106030 @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삼춘 그 옷 멘들젠 허면 왜 광목으로나 사 오거나 허게 뒈면 그냥 바로 만들면 줄어들잖아예?(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삼촌 그 옷 만들려고 하면 왜 광목으로나 사 오거나 하게 되면 그냥 바로 만들면 줄어들잖아요?)

106030 #1 음.(음.)

106030 @ 게민 옷 만들기 전에 그건 어떵 손질헤? 옷ᄀᆞ음.(그러면 옷 만들기 전에 그건 어떻게 손질해? 옷감.)

106030 #1 아, 줄어드는 기지는 물에 담가근에 흔 번 뿔아둬근에 영 손봐근에 허는 거고.(아, 줄어드는 천은 물에 담가서 한 번 빨아두고 이렇게 손봐서 하는 거고.)

106030 @ 으.(으.)

106030 #1 광목은양 경 줄어들지 안헙니다.(광목은요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106030 @ 아.(아.)

106030 #1 줄어들질 안허기 때문에 거는 지찻광목이엔 허주, 뿔지 안헹 헌 광목.(줄어들질 않기 때문에 거는 깃광목이라고 하지, 빨지 않아서 한 광목.)

106030 @ 아, 지찻광목.(아, 깃광목.)

106030 #1 으, 아 지찻광목으로 헹 좋다게 이치룩 허주게.(으, 아 깃광목으로 해서 좋다 이처럼 하지.)

106030 @ 으.(으.)

106030 #1 지찻광목으로 허곡 저 줄어들 것만 빨앙 허주. 광목은 빨앙 안 허여.(깃광목으로 하고 저 줄어들 것만 빨아서 하지. 광목은 빨아서 안 해.)

106030 @ 지찻광목은 그러면은.(깃광목은 그러면은.)

106030 #1 안 뿔앙 헌 거.(안 빨아서 한 거.)

106030 @ 아, 안 뿔앙은에 바로.(아, 안 빨아서 바로.)

106030 #1 사단 바로 허는 거 지찻광목.(사다가 바로 하는 거 깃광목.)

106030 @ 아, 지찻광목. 아, 게난 지찻광목은 다 손질헨 나온 걸 말허는 거우과?(아, 깃광목. 아, 그러니까 깃광목은 다 손질해서 나온 걸 말하는 겁니까?)

106030 #1 공장에서 기자 만들앙 나온 거주.(공장에서 그저 만들어서 나온 거지.)

106030 @ 으.(으.)

106030 #1 손질은 안 헤도 기자 짝 만들앙 천으로 나온 거고.(손질은 안 해도 그저 짝 만들어서 천으로 나온 거고.)

106030 @ 예.(예.)

106030 #1 게난 우리가 사다근엥에 뿔앙 허젠 허민 뿔앙 헌 거난에 지찻광목이 아니고 아이고 거 발레연에 막 곱다.(그러니까 우리가 사다가 빨아서 하려고 하면 빨아서 한 거니까 깃광목이 아니고 아이고 거 바라게 해서 아주 곱다.)

106030 @ 아.(아.)

106030 #1 발레연.(바라게 해서.)

106030 @ 게난 이제 발레면 광목이 허옇게 곱고.(그러니까 이제 바래게 하면 광목이 허옇게 곱고.)

106030 #1 으.(으.)

106030 @ 지찻광목은?(깃광목은?)

106030 #1 ᄒᆞ꼼 불그스름 때가 ᄒᆞ꼼.(조금 불그스름 때가 조금.)

106030 @ 때가 낀 것처럼 이제 헤도 그냥 그걸로 옷도 허는 거라예?(때가 낀 것처럼 이제 해도 그냥 그걸로 옷도 하는 거지요?)

106030 #1 예.(예.)

106030 @ 게민 그런 거 헐 때 ᄒᆞ꼼 옷을 품을 크게 허켜예? 바농질헐 때.(그러면 그런 거 할 때 조금 옷을 품을 크게 하겠네요? 바느질할 때.)

106030 #1 아니, 그거 무신 줄어드는 거 아니라 부난양 크게 뭐 안 헹 자로 재영 자 치수대로 헙니다.(아니, 그거 무슨 줄어드는 거 아니어 버리니까요 크게 뭐 안 해서 자로 재어서 자 치수대로 합니다.)

106030 @ 색깔이 고우냐 안 고우냐의 차이우다예?(색깔이 곱냐 안 곱냐의 차이네요?)

106030 #1 예, 예.(예, 예.)

106031 @ 그럼 여기는 염색허는 거는 어떤 식으로 혯수과?(그럼 여기는 염색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6031 #1 그때 염색은 원 엇엇수게, 감벳기 엇엇주게.(그때 염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감밖에 없었지.)

106031 @ 감벳기.(감밖에.)

106031 #1 예.(예.)

106031 @ 그, 옛날에 그 뭐야 속곳 같은 경우 물에, 속곳 헐 때도 물들영은에 허지 안헙니까?(그, 옛날에 그 뭐야 속곳 같은 경우 물에, 속곳 할 때도 물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106031 #1 속곳?(속곳?)

106031 @ 으, 아니 저 물질헐 때 허는 거.(으, 아니 저 물질할 때 하는 거.)

106031 #1 게메, 물질 속곳.(글쎄, 물질 속곳.)

106031 @ 으.(으.)

106031 #1 그건 흰 걸로도 허곡 물들영, 그때 들인 건 물이엔 헌 거는 까만물[355] ᄒᆞᆫ 가지만 나와낫주.(그건 흰 걸로도 하고 물들여서, 그때 들인 건 물감이라고 한 거는

355) '까만물'은 옷감 따위에 검은 물을 들일 때 사용하는 검정 물감을 가리킨다.

‘까만물’ 한 가지만 나왔었지.)

106031 @ 까망물 한 가지.(‘까망물’ 한 가지.)

106031 #1 으.(으.)

106031 @ 그 감물 들이는 거?(그 감물 들이는 거?)

106031 #1 으.(으.)

106031 @ 그 과정 어떤 식으로 헤마씨? 예전에.(그 과정 어떤 식으로 해요? 예전에.)

106031 #1 여기서는 감 막 도고리에서 삐졍.(여기서는 감 막 함지박에서 빻아서.)

106031 @ 예.(예.)

106031 #1 막 삐져근엥에 물 놔근에 젓엉 요즘은 다 걸러근에 허는디.(막 빻아서 물 감 넣어서 저어서 요즘은 다 걸러서 하는데.)

106031 @ 음.(음.)

106031 #1 옛날은 그대로. 그 주시 잇인 채로 그 다라에서 물 들일 거 놩 막 주물렁.(옛날은 그대로. 그 찌꺼기 있는 채로 그 대야에서 물들일 거 넣어서 막 주물러서.)

106031 @ 예.(예.)

106031 #1 경 헹 탁탁 털어뒁.(그렇게 해서 탁탁 떨어두고.)

106031 @ 음.(음.)

106031 #1 경 혜영 발레엿수다. 경 헷어.(그렇게 해서 바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

106031 @ 경 혜영 딱 한번만 헹 발허는 거?(그렇게 해서 딱 한번만 해서 바라게 하는 거?)

106031 #1 어, 경 헹 발렐 때 물르민 물 적졍 널고 물르민 물 적졍 널고. 경 헤사 막 잘 발주게.(어, 그렇게 해서 바라게 할 때 마르면 물 적셔서 널고 마르면 물 적셔서 널고. 그렇게 해야 아주 잘 바래지.)

106031 @ 예.(예.)

106031 #1 경 헹 우알 알게 허젠 허민 혼 군데로만 우트레 가게 헹 발레고 우알 엇이 허젠 허면은 기자 혼 번은 데쌍 널엇닥 혼 번은 영 헹 널엇닥 허민 우알 엇이 안팟엇이 똑ᄀᆞ치.(그렇게 해서 위아래 알게 하려고 하면 한 군데로만 위로 가게 해서 바라게 하고 위아래 없이 하려고 하면 그저 한 번은 뒤집어서 널었다가 한 번은 이렇게 해서 널었다가 하면 위아래 없이 안팎 없이 똑같이.)

106031 @ 으, 으.(으, 으.)

106031 #1 감 뒈고.(감물이 되고.)

106031 @ 음.(음.)

106031 #1 겐 주로 으 옛날엔 우리 어무니네 시절에 그추룩만 헨에.(그래서 주로 으 옛날엔 우리 어머니네 시절에 그처럼만 해서.)

106031 @ 옷을 만들어진 걸 가져 갖고.(옷을 만들어진 걸 가져 갖고.)

106031 #1 만들어진 거로도 허고 천으로도 허고.(만들어진 거로도 하고 천으로도 하

고.)

신발

106032 @ 아, 천으로 헹도 만들고예. 신은 어떤 신 신엇수과? 신 종류는 어떤 거?(아, 천으로 해서도 만들고요. 신은 어떤 신 신었습니까? 신 종류는 어떤 거?)

106032 #1 아이고, 신, 초신.(아이고, 신, 짚신.)

106032 @ 초신.(짚신.)

106032 #1 찝신.(짚신.)

106032 @ 으.(으.)

106032 #1 찝신허고 찝신으로 게따[356].(짚신하고 짚신으로 '게다'.)

106032 @ 예.(예.)

106032 #1 게따엔 헌 거 요새 쓰레빠.('게다'라고 한 거 요새 슬리퍼.)

106032 @ 예. 찝신으로도 그걸 만들앙?(예. 짚신으로도 그걸 만들어서?)

106032 #1 어이구, 그거 막 좋주. (웃음) 그냥 우리는 초신 우리ᄁᆞ장은 쪼끔 신엇수다.(어이구, 그거 아주 좋주. (웃음) 그냥 우리는 짚신 우리까지는 쪼끔 신었습니다.)

106032 @ 예.(예.)

106032 #1 으, 쪼끔, 쪼끔 신으구 그다음은 고무신 나난에 꺼문고무신 나 부난 헷지. 우리 어무니네 경우에는 다 초신.(으, 쪼끔, 쪼끔 신고 그다음은 고무신 나니까 검정고무신 나 버리니까 했지. 우리 어머니네 경우에는 다 짚신.)

106032 @ 음, 초신예? 초신 헹은에 신고. 삼춘 씨집갈 때는 어떤 신 신언?(음, 짚신이요? 짚신 해서 신고. 삼촌 시집갈 때는 어떤 신 신었어요?)

106032 #1 어?(어?)

106032 @ 그때사 고무신이주게.(그때야 고무신이지.)

106032 #1 으.(으.)

106032 @ 그때는 고무신 신고?(그때는 고무신 신고?)

106032 #1 으.(으.)

106032 @ 가죽신 신은 거는 안 봐 봅디가?(가죽신 신은 거는 안 봐 봅디까?)

106032 #1 가죽은 저 결혼헐 때 남자나 그 가죽신 신주.(가죽은 저 결혼할 때 남자나 그 가죽신 신지.)

106032 @ 으.(으.)

106032 #1 여자는 고무신 신엇어.(여자는 고무신 신었어.)

106032 @ 여자는 고무신 신고. 으. 뭐 가막창신 이런 말은 안 들어 봔?(여자는 고무신 신고. 으. 뭐 '가막창신' 이런 말은 안 들어 봤어요?)

106032 #1 가막창신[357]이엔 헌 건 옛날 그 저 새스방덜 주로 큰신 신엉 허는 거,

356) '게따'는 일본의 나막신인 '게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제보자는 '게따' 대신에 '게다'라고도 발음하였다.
357) '가막창신'은 검은색 가죽으로 만든 신이다. 주로 여자들이 시집갈 때 신는 신으로, 밑창에 징을 박고 운

것ᄀᆞ라 가막창신엔 허주. 그 신ᄀᆞ라.(‘가막창신’이라고 한 건 옛날 그 저 새신랑들 주로 큰신 신어서 하는 거, 것보고 ‘가막창신’이라고 하지. 그 신보고.)

106032 @ 예. 큰 거예, 보선.(예. 큰 거요, 목화.)

106032 #1 나막신, 나막신 우리.(나막신, 나막신 우리.)

106032 @ 남신.(나막신.)

106032 #1 남신 것ᄀᆞ라 나막신이엔 헤근에.(‘남신’ 것보고 나막신이라고 해서.)

106032 @ 예, 나막신.(예, 나막신.)

106032 #1 그걸로도 코 돋지곡 헤근에 나막신 만들앙 그거, 그것도 신어낫주.(그것으로도 코 돋게 하고 해서 나막신 만들어서 그거, 그것도 신었었지.)

106032 @ 비 올 때.(비 올 때.)

106032 #1 으.(으.)

106032 @ 나막신도 신고.(나막신도 신고.)

106032 #1 으.(으.)

106035 @ 삼춘도 그 초신 멘들아 봔마씨?(삼촌도 그 짚신 만들어 봤어요?)

106035 #1 난 초신도 만들곡양 초석도 절아나고예.(난 짚신도 만들고요 초석도 결었었고요.)

106035 @ 아.(아.)

106035 #1 뭐냐 멩텡이도. 멩텡이 알아집니까?(뭐냐 망태기도. 망태기 알아집니까?)

106035 @ 예. 예.(예. 예.)

106035 #1 멩텡이도 절아나고예.(망태기도 결었고요.)

106035 @ 예.(예.)

106035 #1 나양 어려도 못헌 거 엇이 다 헤난 사람.(나요 어려도 못한 거 없이 다 했던 사람.)

106035 @ 으. 게믄 그 초신 삼젠 허면.(으. 그러면 그 짚신 삼으려고 하면.)

106035 #1 으, 겐디. 으, 노 꼬앙.(으, 그런데. 으, 노 꼬아서.)

106035 @ 맨 처음 노 꼬앙.(맨 처음 노 꼬아서.)

106035 #1 깍, 깍 헐 거는 좀 ᄀᆞ늘게, 노를 조끔 ᄀᆞ늘게 꼬아근에 이 밑창을 놓는 거라예.(총, 총 할 거는 좀 가늘게, 노를 조끔 가늘게 꼬아서 이 밑창을 놓는 거예요.)

106035 @ 예, 예.(예, 예.)

106035 #1 노끈 영 딱 벌겨논 다음에 이 창을 놔.(노끈 이렇게 딱 벌여놓은 다음에 이 창을 놔.)

106035 @ 으.(으.)

106035 #1 창을 논 다음에는 이게 좀 오그리멍.(창을 논 다음에는 이게 좀 오그리면서.)

106035 @ 예.(예.)

두는 얕고 코는 뾰족하게 내밀게 만든다. 제보자는 남자가 신는 신으로 구술했는데, 남자들은 ‘보선’이라 부르는 ‘목화’를 주로 신었다.

106035 #1 오그리멍 옆은 영 찝으로.(오그리면서 옆은 이렇게 짚으로.)

106035 @ 으.(으.)

106035 #1 헤 가주게. 경 헤근에 요디는 코 멘들고.(해 가지. 그렇게 해서 요기는 코 만들고.)

106035 @ 예.(예.)

106035 #1 이거 영 짝 페왕 헌 다음에는 영 오그리민 여기 코 날 거 아니?(이거 이렇게 짝 펴서 한 다음에는 이렇게 오그리면 여기 코 날 거 아니?)

106035 @ 예. 앞에.(예. 앞에.)

106035 #1 앞에. 경 헹 만들안.(앞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106035 @ 으.(으.)

106035 #1 우리 이제도 만약에 거 만들렌 허민 생각허멍 만들아졈 직헙니다.(우리 이제도 만약에 거 만들려고 하면 생각하면서 만들어질 듯합니다.)

106035 @ 으.(으.)

106035 #1 게고 멩텡이나 멍석은 셍각 안 헤도 헤지고.(그러고 망태기나 멍석은 생각 안 해도 해지고.)

106035 @ 음, 하영 헷구나, 삼춘. 게믄 웨냐 허면 이 저기 초신 이렇게 하면 이 길게 저기 노 꼬우잖습니까? 그건 뭐렌 헤? 노 꼬운 거는?(음, 많이 했구나, 삼촌. 그러면 왜냐 하면 이 저기 초신 이렇게 하면 이 길게 저기 노 꼬잖습니까. 그건 뭐라고 해? 노 꼰 거는?)

106035 #1 아, 기자 노 꼬운 거. 노 꼬앙, 새끼 꼬와근에.(아, 그저 노 꼰 거. 노 꼬아서, 새끼 꼬아서.)

106035 @ 으.(으.)

106035 #1 새끼 꼬와근에 이 옆에 센, 헐 거는 ᄀᆞ늘게 꼬왕 허고 창은 ᄒᆞ꼼 두껍게 허영.(새끼 꼬아서 이 옆에 띠는, 할 거는 가늘게 꼬아서 하고 창은 조금 두껍게 해서.)

106035 @ 예, 발창은 두껍게 허고.(예, 발바닥은 두껍게 하고.)

106035 #1 예.(예.)

106035 @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개 헙니까? 멧 개? 여기 허는 거 있잖아?(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개 합니까? 몇 개? 여기 하는 거 있잖아?)

106035 #1 아니, 세 개만 허여? 무사 일로 이레 다 헤사 옛날에.(아니, 세 개만 해? 왜 일로 이리 다 해야 옛날에.)

106035 @ 예, 그거 이름은 뭐렌 골아? 거 놓는 거는?(예, 그거 이름은 뭐라고 말해? 거 놓는 거는?)

106035 #1 아, 이거 영 놓는 거는.(아, 이거 이렇게 놓는 거는.)

106035 @ 으.(으.)

106035 #1 아, 그거 기자 신, 저 신 신발 만들젠 허민, 야, 신발 만들어사 헐 거 아냐. 그디 새끼 꼬아근에 그 옆에.(아, 그거 그저 신, 저 신 신발 만들려고 하면, 야, 신발 만들어서 할 거 아냐. 거기 새끼 꼬아서 그 옆에.)

106035 @ 으, 깍, 깍?(으, 총, 총?)

106035 #1 깍 놓라.(총 놓아라.)

106035 @ 아, 이거 깍예?(아, 이거 총이요?)

106035 #1 깍 놓라.(총 놓아라.)

106035 @ 그다음에 영 헤영 동글랑허게 영 무끄젠 허민 그 노 꼬은 걸로.(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묶으려고 하면 그 노 꼰 걸로.)

106035 #1 그 신 바위[신빠위] 돌르는 거.(그 신 가장자리 도르는 거.)

106035 @ 신바위 돌르는 거? 으.(그 신 가장자리 도르는 거.)

106035 #1 어, 어.(어, 어.)

106035 @ 영 무끄는 것도 잇잖우꽈? 여기.(이렇게 묶는 것도 있잖습니까? 여기.)

106035 #1 초신은 무끄는 건 우리 안 헤 봣수다.(짚신은 묶는 건 우리 안 해 봤습니다.)

106035 @ 아, 건 안 무끄고.(아, 건 안 묶고.)

106035 #1 바위에 신 바위 벵허게 돌라근엥에 일로 ᄆᆞ작쳥 끈어 불주.(가장자리에 신 가장자리에서 뱅하게 돌려서 일로 매듭지어서 끊어 버리지.)

106035 @ 으, 그렇지.(으, 그렇지.)

106035 #1 겐디 바당에는 초신이 그렇게 좋아. 넹, 미끄러지지 아니 안허영.(그런데 바다에는 짚신이 그렇게 좋아. 넹, 미끄러지지 아니 않아서.)

106035 @ 아.(아.)

106035 #1 성창에는.(선창에는.)

106035 @ 성창에는.(선창에는.)

106035 #1 그렇게 좋아.(그렇게 좋아.)

106036 @ 기구나. 음. 그다음에 그 초신도 종류가?(그렇구나. 음. 그다음에 그 짚신도 종류가?)

106036 #1 아니, 무신거 남ᄌᆞ 거 잇고 여ᄌᆞ 거 잇고. 종류엔 헌 건 코신 그 여자 신허고 게다허곡 그거주.(아니, 무엇 남자 거 있고 여자 거 있고. 종류라고 한 건 코신 그 여자 신하고 '게다'하고 그거지.)

106036 @ 그 예전에 무사 그 이거 뭐렌 허더라마는. 이제. 이 뭐 붙깍신이여 뭐 이런 말 튼깍신이여 이런 말 안 들어봔?(그 예전에 왜 그 이거 뭐라고 하더라마는. 이제. 이 뭐 제총박이다 뭐 이런 말 딴총박이다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106036 #1 붙각신 무신 신 그런 말은 이딘 엇고, 이딘 엇고.(제총박이 무슨 신 그런 말은 여기는 없고, 여긴 없고.)

106036 @ 으, 이딘 엇고예.(으, 여긴 없고요.)

106036 #1 그 초신이여 게다짝 그거주.(그 짚신이다 '게다짝' 그거지.)

106036 @ 그 상 나면 무사 신을 때?(그 상 나면 왜 신을 때?)

106036 #1 삼?(삼?)

106036 @ 상, 상.(상, 상.)

106036 #1 아.(아.)

106036 @ 어머니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허면은.(어머니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106036 #1 아, 아.(아, 아.)

106036 @ 그 초신 신으는데 보통 초신 안 신엇잖아?(그 짚신 신는데 보통 짚신 안 신었잖아?)

106036 #1 보통은 안 신은 게 아니고.(보통은 안 신은 게 아니고.)

106036 @ 으.(으.)

106036 #1 그. 장깐.(그. 잠깐.)

106036 @ 경 허면 이 하는데, 왜 장례식은 신발이 이렇게 깍덜이 몇 개씩 막 한.(그렇게 하면 이 하는데, 왜 장례식은 신발이 이렇게 총들이 몇 개씩 막 한.)

106036 #1 아이고, 요즘 초신덜사 거 신이우과? 거, 거 기자 허는 체만 헌 거주.(아이고, 요즘 짚신들이야 거 신입니까? 거, 거 그저 하는 체만 한 거지.)

106036 @ 허는 체만 헌 거.(하는 체만 한 거.)

106036 #1 예, 우리 무신것에 헤근엥에 나오렌 걷기 대회도 가민 일출봉서 저기꺼장 걸어가는디 빨리 걸어가근엥에 신발 탕 신어야 그디 간 거 합격 표시가 뭰다 헹 강 보민 그거 신이꽈? 이그.(예, 우리 무엇에 해서 나오라고 걷기 대회도 가면 일출봉서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빨리 걸어가서 신발 타서 신어야 거기 간 거 합격 표시가 된다 해서 가서 보면 그거 신입니까? 이그.)

106036 @ 예, 옛날에는?(예, 옛날에는?)

106036 #1 옛날에 곱닥허게 헷수다. (옛날에 곱게 했습니다.)

106036 @ 음.(음.)

106036 #1 신 곱닥허게 허여. 겐디 신사라로 허민양.(신 곱게 해. 그런데 뉴질랜드삼으로 하면요.)

106036 @ 예.(예.)

106036 #1 신이 막 더 고와.(신이 아주 더 고와.)

106036 @ 아, 신사라로 허면.(아, 뉴질랜드삼으로 하면.)

106036 #1 예. 신사라로 허민 신이 잘도 고와. 이 저 찝으로 헌 것 보다. 왜냐 신사라는 노 꼬는 것이.(예. 뉴질랜드삼으로 하면 신이 잘도 고와. 이 저 짚으로 한 것 보다. 왜냐 신사라는 노 꼬는 것이.)

106036 @ 예.(예.)

106036 #1 신사라는 거 푸석푸석헌 게 엇기 때문에 노도 잘도 곱고양. 신사라신[358]은 잘도 고와.(뉴질랜드삼은 거 푸석푸석한 게 없기 때문에 노도 잘도 곱고요. '신사라신'은 잘도 고와.)

106036 @ 아, 신사라로도 신 헷구나.(아, 뉴질랜드삼으로도 신 했구나.)

106036 #1 예, 신사라 신.(예, '신사라신'.)

---

358) '신사라신'은 '신사라' 즉 뉴질랜드삼으로 만든 신이다.

106036 @ 질기기는 뭐가 질겨?(질기기는 뭐가 질겨?)
106036 #1 질기는 것도게 신사라신이 질기주게.(질기는 것도 '신사라신'이 질기지.)
106036 @ 아.(아.)
106036 #1 기자 이 산디찝신보다.(그저 이 밭볏짚신보다.)
106036 @ 산디찝신보다?(밭볏짚신보다?)
106036 #1 예.(예.)

모자 등

106037 @ 알앗수다. 옛날에 모자는 어떤 모자덜 썻인고예?(알았습니다. 옛날에 모자는 어떤 모자들 썼을까요?)
106037 #1 모자사 뭐.(모자야 뭐.)
106037 @ 검질멜 때영 모자.(김맬 때랑 모자.)
106037 #1 페렝이벳기 더 씁니까? 이녁냥으로 멘들앙.(패랭이밖에 더 씁니까? 이녁대로 만들어서.)
106037 @ 아, 삼춘네도 이녁 냥으로 그 멘글앙 헤?(아, 삼촌네도 이녁대로 그 만들어서 해?)
106037 #1 나도 그것도 잘 멩급니다.(나도 그것도 잘 만듭니다.)
106037 @ 아.(아.)
106037 #1 보리찝 그 대 뽑앙.(보릿짚 그 줄기 뽑아서.)
106037 @ 예.(예.)
106037 #1 보리찝 대 뽑아근에 이녁 냥으로 그거 다 만들아 놩.(보릿짚 그 줄기 뽑아서.)
106037 @ 예.(예.)
106037 #1 모자 하나 헐 거만큼.(모자 하나 할 거만큼.)
106037 @ 음.(음.)
106037 #1 만들아 놔근엥에 그 이젠 멧 메다 다 만들아져시면은 그걸 이제 또 재단허는 거라양.(만들어 놔서 그 이젠 몇 미터 다 만들어졌으면 그걸 이제 또 재단하는 거예요.)
106037 @ 예.(예.)
106037 #1 그걸로 벵벵벵벵허게 줘근엥에 이 썹 돋지는 건 그디 가민 ᄒᆞ꼼 더 크게 험 시작헹 벵벵 돌령.(그걸로 뱅뱅뱅뱅하게 기워서 이 잎 다는 건 거기 가면 조금 더 크게 함 시작해서 뱅뱅 돌려서.)
106037 @ 음.(음.)
106037 #1 그런 것도 뭐 얼마든지.(그런 것도 뭐 얼마든지.)
106037 @ 못허는 것도 하나도 엇구나.(못하는 것도 하나도 없구나.)
106037 #1 게난 우리 집 양반이 경 ᄀᆞᆯ아. 저 못허는 거라도 잇이라.(그러니까 우리

집 양반이 그렇게 말해. 저 못하는 거라도 있어라.)
106037 @ 으. (웃음)
106037 #1 겐 못허는 거 빼민 다 자신 잇수덴 헤 불민.(웃음)(그래서 못하는 거 빼면 다 자신 있습니다고 해 버리면.(웃음))
106037 @ 게민 그때 예전에 건 페렝이렌 골아?(그러면 그때 예전에 건 패랭이라고 말해?)
106037 #1 으, 페렝이.(으, 패랭이.)
106037 @ 여기는.(여기는.)
106037 #1 밀찝페렝이.(밀짚패랭이.)
106037 @ 밀찝페렝이.(밀짚패랭이.)
106037 #1 밀찝페렝이.(밀짚패랭이.)
106037 @ 으. 밀로도 헷수과?(으. 밀로도 했습니까?)
106037 #1 밀낭으로가 더 좁니다. 보리낭보단이.(밀짚으로가 더 좋습니다. 보릿짚보단.)
106037 @ 예.(예.)
106037 #1 좀 찔긴 맛이 잇어.(좀 질긴 맛이 있어.)
106037 @ 아, 밀낭이.(아, 밀짚이.)
106037 #1 찔겨. 좀 찔기주게.(질겨. 좀 질기지.)
106037 @ 겐 그거는 이런 식으로 허게 뒈면.(그래서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되면.)
106037 @ 예.(예.)
106037 #1 그 처음에는 다 어떻게 꼬왕은에 허는 거우과?(그 처음에는 다 어떻게 꼬아서 하는 겁니까?)
106037 #1 밀남뎅이를?(밀짚줄기를?)
106037 @ 으.(으.)
106037 #1 꼬앙 허는 게 아니고게.(꼬아서 하는 게 아니고.)
106037 @ 밀남뎅이 준비허젠 허민 어떤 식으로 허여?(밀짚줄기 준비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
106037 #1 강, 이녁 집이 밀 안 갈민 놈의 집이 강 밀남뎅일 강 빠오주게.(강, 이녁 집에 밀 안 갈면 남의 집에 가서 밀짚줄기를 가서 뽑아오지.)
106037 @ 예.(예.)
106037 #1 그 밀 영 홀테질 헤난 거.(그 밀 이렇게 그네질 했던 거.)
106037 @ 예, 예, 예.(예, 예, 예.)
106037 #1 홀테질 헤난 거 거 강 흑나 헐 만큼씩 빠다근엥에.(그네질 했던 거 거 가서 하나 할 만큼씩 뽑아다가.)
106037 @ 음.(음.)
106037 #1 겡 헤뒁 그 우이 여물 돋아져난 거만 잘라 베뒁.(그렇게 해두고 그 위에

여물 돋았던 거만 잘라 버려두고.)

106037 @ 으.(으.)

106037 #1 경 허는 거.(그렇게 하는 거.)

106037 @ 경 허영 그대로 이제 허는 거예?(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허는 거요?)

106037 #1 으, 으. 그대로.(으, 으. 그대로.)

106037 @ 예, 그런 식으로 허고 저 뭘로는 안헤? 대낭으로는?(예, 그런 식으로 하고 저 무엇으로는 안 해? 대나무로는?)

106037 #1 대낭으론 대페렝이엔 헤근에.(대나무론 대패랭이라고 해서.)

106037 @ 예.(예.)

106037 #1 대페렝인 우리 안 만들아 봔.(대패랭인 우리 안 만들어 봤어.)

106037 @ 아, 대페렝이는 안 만들아보고.(아, 대패랭이는 안 만들어보고.)

106037 #1 으, 나도 페렝이 저디 잇는디.(으, 나도 패랭이 저기 있는데.)

106037 @ 으.(으.)

106037 #1 대페렝이는 저 우린 수산 강 사단 썻주.(대패랭이는 저 우린 수산 가서 사다가 썼지.)

106037 @ 아.(아.)

106037 #1 수산 하르방 대페렝이 멩그는 하르방.(수산 할아버지 대패랭이 만드는 할아버지.)

106037 @ 삿갓 같은 건 여기 안 헤 봣수과?(삿갓 같은 건 여기 안 해 봤습니까?)

106037 #1 삿갓은 안 헤 봣어.(삿갓은 안 해 봤어.)

106037 @ 그냥 여기는 다 페렝이. 삼춘네 헐 때는 페렝이 헌 거라예?(그냥 여기는 다 패랭이. 삼촌네 할 때는 패랭이 한 거라고요?)

106037 #1 으.(으.)

106038 @ 겐 여름 모자, 뭐 겨울 모자 이런 식으로 ᄐᆞ나? 남자영 여자영?(그래서 여름 모자, 뭐 겨울 모자 이런 식으로 달라? 남자랑 여자랑?)

106039 #1 에이고, 겨울 모자는 기자 천 두꺼운 거라도 잇이민 고넹이포[359] 만들아. 것ᄀᆞ라 고넹이포엔 허주게.(에이고, 겨울 모자는 그저 천 두꺼운 거라도 있으면 '고넹이포' 만들어. 것보고 '고넹이포'라고 하지.)

106039 @ 아, 고넹이포.(아, '고넹이포'.)

106039 #1 (웃음) 그 겨울 모자는 고넹이포엔 헤근에 영 네귀반득허게 놩.(그 겨울 모자는 '고넹이포'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놔서.)

106039 @ 예, 예.(예, 예.)

106039 #1 경 헤영 (웃음) 여기만 쪼끔, 뒤에는 좁으니까 쪼금 영 베여내여 뒁은에 일로 주워근에 영 헹 허민 여기 틀 거 아니우꽈? 영 돌아와.(그렇게 해서 (웃음) 여기만 쪼끔, 뒤에는 좁으니까 쪼금 이렇게 베어내어 둬서 일로 기워서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359) '고넹이포'는 천을 네모나게 접어서 머리에 쓸 수 있게 만든 물건이다. 지역에 따라서 바늘쌈지의 의미로도 쓰인다.

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와.)

106039 @ 예, 예.(예, 예.)

106039 #1 겐 여기 틀 거니까 여기 턱 가는 디만 또 영 허영 영 만들민.(그래서 여기 틀 거니까 여기 턱 가는 데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106039 @ 으.(으.)

106039 #1 이딘 얼굴 나오는 디난에 거 영 쓰민 고넹이포 썬.(웃음)(여긴 얼굴 나오는 데니까 거 이렇게 쓰면 '고넹이포' 썼어.(웃음))

106039 @ 아, 고넹이포 썻덴 헤? 삼춘 무사 옛날에 바농질헐 때도 씰이영 씰패영 놓는 거.(아, '고넹이포' 썼다고 해? 삼촌 왜 옛날에 바느질할 때도 실이랑 실패랑 놓는 거.)

106039 #1 어.(어.)

106039 @ 그.(그.)

106039 #1 바농상지.(반짇고리.)

106039 @ 바농상지에 헹은에 왜 천으로 만들앙 네모나게 만들앙 거 담지 안 헙니까? 것도 고넹이포렌 헤?(반짇고리에 해서 왜 천으로 만들어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거 담지 안 합니까? 것도 '고넹이포'라고 해?)

106039 #1 으, 고넹이포엥 헤.(웃음)(으, '고넹이포'라고 해.(웃음))

106039 @ 것도 고넹이포엔 허고 모자도 고넹이포?(것도 '고넹이포'라고 하고 모자도 '고넹이포'?)

106039 #1 웃음.

106039 @ 으. 대충 만든 거. 삼춘 타멘.(으. 대충 만든 거. 삼촌 타요.)

(잡담)

106039 #1 옛날에 그추룩 헹.(옛날에 그처럼 해서.)

106039 @ 그다음에 그 드르에 가젠 허면. 예전에 그.(그다음에 그 들에 가려고 하면. 예전에 그.)

106039 #1 수건벳기 더 잇수과, 드릇 카젠 허민.(수건밖에 더 있습니까? 들에 가려고 하면.)

106039 @ 으.(으.)

106039 #1 광목 수건 헤근에.(광목 수건 해서.)

106039 @ 여긴 정동모자 이런 건 안 썬?(여긴 정동모자 이런 건 안 썼어요?)

106039 #1 정동모자[360]는게 가끔 남저덜이나 헹 쓰주게. 정동으로 만든 거.('정동모자'는 가끔 남자들이나 해서 쓰지. 댕댕이덩굴로 만든 거.)

106039 @ 으.(으.)

106039 #1 페렝이ᄀᆞ추룩 만든 거.(패랭이처럼 만든 거.)

106039 @ 으.(으.)

106039 #1 정둥모자.('정둥모자'.)

---

360) '정동모자'는 댕댕이덩굴로 결은 모자다. 제보자는 '정둥모자'라고도 발음하였다.

106039 @ 그다음에 혹시 털로, 쉐털이나 이렇게 헤 갖고 털모자 쓰는 하르방덜은 안 봐봔?(그다음에 혹시 털로, 소털이나 이렇게 해 갖고 털모자 쓰는 할아버지들은 안 봐봤어요?)

106039 #1 거 사단은 써도.(거 사다간 써도.)

106039 @ 예.(예.)

106039 #1 만들진 안 헤봔.(만들진 안 해봤어.)

106039 @ 예, 만들진 안허고예?(예, 만들진 않고요?)

106039 #1 으.(으.)

106039 @ 여기 휘양이여 뭐 이런 말은 안 하고?(여기 휘양이다 뭐 이런 말은 안 하고?)

106039 #1 휘양? 휘양은 어디 저 사람덜 귀향 가는 거?(휘양? 휘양은 어디 저 사람들 귀향 가는 거?)

106039 @ 아니, 영 허영 모자?(아니, 이렇게 해서 모자?)

106039 #1 아니.(아니.)

106040 @ 아니, 그런 말 그런 건 엇고예. 여기 탕건이여 뭐 망건이여 이런 말은?(아니, 그런 말 그런 건 없고요. 여기 탕건이다 뭐 망건이다 이런 말은?)

106040 #1 탕근?(탕건?)

106040 @ 으.(으.)

106040 #1 탕근은 저 남저덜 쓰는 탕근?(탕건은 저 남자들 쓰는 탕건?)

106040 @ 으.(으.)

106040 #1 으, 탕근은 것도 하르방, 옛날 하르부지덜은 다 돌아가 부난에 탕근이 이젠 만드는 사름도 엇고.(으, 탕건은 것도 할아버지, 옛날 할아버지들은 다 돌아가 버리니까 탕건이 이젠 만드는 사람도 없고.)

106040 @ 으.(으.)

106040 #1 써낫수다. 남저덜은.(썼었습니다. 남자들은.)

106040 @ 남저들은예 갓이영.(남자들은요 갓이랑.)

106040 #1 야, 그 하르방 탕건 쓰고이 갓 쓰고 헨에 저 어드레 감서라 허멍.(야, 그 할아버지 탕건 쓰고 갓 쓰고 해서 저 어디로 가고 있더라 하면서.)

106040 @ 음. 다 그거 이제 하고. 여기선 그런 거 만들어나진 건?(음. 그거 이제 하고. 여기선 그런 거 만들었진 건?)

106040 #1 만드는 건 엇고.(만드는 건 없고.)

106044 @ 아까 삼춘 이제 그, 비옷?(아까 삼촌 이제 그, 비옷?)

106044 #1 으, 우장.(으, 도롱이.)

106044 @ 우장.(도롱이.)

106044 #1 으.(으.)

106044 @ 우장은 잘 만든덴 허멍.(도롱이는 잘 만든다고 하면서.)

106044 #1 우장 그거, 옛날엔 그것이 비옷이랏수게게.(도롱이 그거, 옛날엔 그것이

비옷이었습니다요.)

106044 @ 예. 건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라마씨?(예. 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106044 #1 그거 어떤 식이냐 허면 거는 새로 허주, 새.(그거 어떤 식이냐 하면 거는 띠로 하지, 띠.)

106044 @ 예.(예.)

106044 #1 새 비여당.(띠 베어다가.)

106044 @ 으.(으.)

106044 #1 거 노 꼬아근엥에 그 무시걸 다 본을 헤 논 다음에.(거 노 꼬아서 그 무엇을 다 본을 해 놓은 다음에.)

106044 @ 음.(음.)

106044 #1 그 새로 헤근에 막 그걸 여낍니게. 게난 베꼇듸레는 이파리 가게.(그 띠로 해서 막 그걸 엮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이파리 가게.)

106044 @ 음.(음.)

106044 #1 이파리 가게 헤근에 쭉쭉 영 줄로 뒌 거난에. 돌아가멍 혼 줄, 두 줄, 세 줄 영 헤영. 경 헤근에 이파리 베꼇더레 가게 쫙 헤 놓면은 비가 이디 안 들어강, 이디 새난에. 겐 우장, 우장.(이파리 가게 해서 쭉쭉 이렇게 줄로 된 거니까. 돌아가면서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파리 바깥으로 가게 쫙 해 놓으면 비가 여기 안 들어가서, 여기 띠니까. 그래서 도롱이, 도롱이.)

106044 @ 우장.(도롱이.)

106044 #1 으, 우장.(으, 도롱이.)

106044 @ 겐 삼춘도 우장도 직접 헤 봔?(그래서 삼촌도 도롱이도 직접 해 봤어요?)

106044 #1 아, 나 우장은 만들어 보진 않안.(아, 나 도롱이는 만들어 보진 않았어.)

106044 @ 아, 우장은 안 만들아 보고.(아, 도롱이는 안 만들어 보고.)

106044 #1 으, 우장은 안 만들아 보고.(으, 도롱이는 안 만들어 보고.)

106044 @ 보통 우장덜은 남자덜이?(보통 도롱이들은 남자들이?)

106044 #1 남자덜이 헹양, 완전 비옷이난게. ᄆᆞ쉬, ᄆᆞ쉬 ᄀᆞ꾸레 이추룩 비 와도 가사 뒐 거라 부난 우장 썽 가주게.(남자들이 해서요, 완전 비옷이니까. 마소, 마소 가꾸러 이처럼 비 와도 가야 될 거라 버리니까 도롱이 써서 가지.)

106044 @ 음. 겐 삼춘네도 우장은 써 보고?(음. 그래서 삼촌네도 도롱이는 써 보고?)

106044 #1 예, 예, 예.(예, 예, 예.)

106044 @ 아.(아.)

106044 #1 ᄆᆞ쉬 ᄀᆞ꾸레 갈 때 헨에.(마소 가꾸러 갈 때 해서.)

106044 @ ᄆᆞ쉬 ᄀᆞ꾸레 갈 때 게민 우장하고 머리에는 이제?(마소 가꾸러 갈 때 그러면 도롱이하고 머리에는 이제?)

106044 #1 머리에는게 그 무시거 쓰고.(머리에는 그 무엇 쓰고.)

106044 @ 페렝이 쓰고.(패랭이 쓰고.)
106044 #1 페렝이 쓰곡.(패랭이 쓰고.)
106044 @ 아, 알앗수다.(아, 알았습니다.)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삼춘, 여기서 헤 먹어난 밥 종류들은 어떤 거 잇어마씨?(삼촌, 여기서 해 먹었던 밥 종류들은 어떤 거 있어요?)
107001 #1 밥?(밥?)
107001 @ 예. 옛날.(예. 옛날.)
107001 #1 옛날에.(옛날에.)
107001 @ 음.(음.)
107001 #1 옛날에게 보리밥허고 감저밥[361]. 그 보리쏠에 감저 놩.(옛날에 보리밥하고 '고구마밥'. 그 보리쌀에 고구마 놔서.)
107001 @ 예.(예.)
107001 #1 경 허영 보리쏠 살락허민[362] 그 감저 막 데기민 젓으민 감저가 풀어지민 밥이 ᄒᆞ쏠 영 벙뎅이져근엥에게 그축 헤근에 감저밥.(그렇게 해서 보리쌀 '살락하면' 그 고구마 막 문대면 저으면 고구마가 풀어지면 밥이 조금 이렇게 덩이져서 그처럼 해서 '고구마밥'.)
107001 @ 예.(예.)
107001 #1 또 막 그 어려운 시절엔 톨밥[363].(또 아주 그 어려운 시절엔 '톳밥'.)
107001 @ 톨밥.('톳밥'.)
107001 #1 ᄑᆞ레밥. 그런 거 헹 먹엇수게.('파레밥'. 그런 거 해서 먹었습니다.)
107002 @ 음. 그러면 쏠 종류예? 밥 헤 먹는 쏠 종류는 어떤 거 잇엇수가?(음. 그러면 쌀 종류요? 밥 해 먹는 쌀 종류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107002 #1 쏠 종류가 옛날이사 잇엇수가? 보리허고 좁쏠이주게.(쌀 종류가 옛날이야 있었습니까? 보리하고 좁쌀이지.)
107002 @ 보리허곡 좁쏠.(보리하고 좁쌀.)
107002 #1 으, 밀허고 밀쏠.(으, 밀하고 밀쌀.)
107003 @ 아, 밀쏠도 허고예. 게문 보리밥 ᄒᆞᆫ 번 지어 봅서. 어떤, 보리밥은 어떵 허는 거?(아, 밀쌀도 하고요. 그러면 보리밥 한 번 지어 보십시오. 어떤, 보리밥은 어떻

361) '감저밥'은 보리쌀 따위에 고구마를 함께 넣어서 지은 밥이다.
362) '살락허민'은 '보리밥 따위가 풀기가 없어서 까끌하면'의 의미다.
363) '톨밥'은 보리쌀 따위에 톳을 함께 넣어서 지은 밥이다. '톨'은 '톳'의 제주어다.

게 하는 거?)

107003 #1 보리밥게, 그 보리쏠 거평은에양. 거피는 거 알아지멘?(보리밥, 그 보리쌀 거피해서요. 거피하는 거 알아져요?)

107003 @ 예. 영.(예. 영.)

107003 #1 ᄀᆞ레로 벌렁.(맷돌로 쪼개서.)

107003 @ 음.(음.)

107003 #1 벌렁. 경 헹 그거, 그거 그 쏠만 놩 밥허주게.(쪼개서. 그렇게 해서 그거, 그거 그 쌀만 놔서 밥하지.)

107003 @ 음.(음.)

107003 #1 경 허는 디게 감저 놓곡 헤근엥 밥을 불롸 먹젠 감절 놓는 거주게.(그렇게 하는 데 고구마 넣고 해서 밥을 불려서 먹으려고 고구말 놓는 거지.)

107004 @ 반지기밥은 뭐우꽈?('반지기밥'은 뭡니까?)

107004 #1 반지기밥[364]엔 헌 건 서꺼진 것이 반지기밥이주.('반지기밥'이라고 한 건 섞어진 것이 '반지기밥'이지.)

107004 @ 예, 어떵 서꺼진 거?(예, 어떻게 섞어진 거?)

107004 #1 이 쏠 저 쏠 밀쏠에 보리쏠에.(이 쌀 저 쌀 밀쌀에 보리쌀에.)

107004 @ 으.(으.)

107004 #1 막 경 서끈 것이 반지기밥.(막 그렇게 섞은 것이 '반지기밥'.)

107004 @ 아, 밀쏠허고 보리쏠 헤도 반지기밥?(아, 밀쌀하고 보리쌀 해도 '반지기밥'?)

107004 #1 으, 감저도 놓고 막 여라 가지 논 게 반지기밥.(으, 고구마도 넣고 아주 여러 가지 놓은 게 '반지기밥'.)

107005 @ 반지기밥예, 예. 그다음에 곤밥은?('반지기밥'요, 예. 그다음에 흰밥은?)

107005 #1 곤밥은 곤쏠만 놩 허난.(흰밥은 흰쌀만 놔서 하니까.)

107005 @ 으, 곤밥은 언제 헹 먹는 거?(으, 흰밥은 언제 해서 먹는 거?)

107005 #1 곤밥은 그때 시절에는 아무 디나 곤밥 먹지도 안허고 제사 때도 저기 메만 저 어제도 말헷주마는 그치룩 헹 ᄒᆞ꼼 놔근엥에 보리밥 우에 놩 메 거려 올려뒁 거 박박 젓어근에 쏠 ᄒᆞ나씩 보리쏠에 서꺼지게 헹.(흰밥은 그때 시절에는 아무 데나 흰밥 먹지도 않고 제사 때도 저기 메만 저 어제도 말했지만 그처럼 해서 조금 놔서 보리밥 위에 놔서 메 떠 올려두고 거 박박 저어서 쌀 하나씩 보리쌀에 섞어지게 해서.)

107005 @ 음.(음.)

107005 #1 ᄒᆞᆫ 사발씩 보리밥이난. 경 허영 곤밥은 그치룩 헹 먹어난 거.(한 사발씩 보리밥이니까. 그렇게 해서 흰밥은 그처럼 해서 먹었던 거.)

107006 @ 예. 조팝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예. 조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

107006 #1 조팝도 감저 놩. 모인좁쏠이나 흐린좁쏠이나 감저 놩 밥허민 건 맛서.(조밥도 고구마 넣어서. 메좁쌀이나 차좁쌀이나 고구마 놔서 밥하면 건 맛있어.)

364) '반지기밥'은 쌀을 두 가지 섞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107006 @ 음.(음.)

107006 #1 막 맛이십니다. 조팝은.(아주 맛있습니다. 조밥은.)

107006 @ 좁쏠만은 놩은 밥 안 헙니까?(좁쌀만은 놔서는 밥 안 합니까?)

107006 #1 무사 좁쏠만 놩도 저 밥을 허는디.(왜 좁쌀만 놔서도 저 밥을 하는데.)

107006 @ 예.(예.)

107006 #1 감저 놔사 이 맛이 둘큼둘큼허영 맛이 좋아. 조팝만보단.(고구마 놔야 이 맛이 달짝지근해서 맛이 좋아. 조밥만보다는.)

107006 @ 옛날에는 보리밥에 좁쏠 놀 때는 씻지도 아녓덴 허멍양?(옛날에는 보리밥에 좁쌀 놓을 때는 씻지도 않았다고 하면서요?)

107006 #1 아니 거 싯엉 먹는 걸 알앗수가?(웃음)(아니 거 씻어서 먹는 걸 알았습니까?(웃음))

107006 @ (웃음)

107006 #1 싯엉 먹는 중을 몰랏주.(씻어서 먹는 줄을 몰랐지.)

107006 @ 으, 게난 그 밥을 헤봅서, 한번. 보리밥에 좁쏠 놩 허는 밥, 헐 땐 어떤 식으로 헌 건지?(으, 그러니까 그 밥을 해보세요, 한번. 보리밥에 좁쌀 넣어서 하는 밥, 할 땐 어떤 식으로 한 건지?)

107006 #1 그 보리밥에 좁쏠. 보리쏠 거핀 보리쏠은.(그 보리밥에 좁쌀. 보리쌀 거피한 보리쌀은.)

107006 @ 으.(으.)

107006 #1 좁쏠에 ᄀᆞ찌 놔근에 밥을 허고.(좁쌀에 같이 놔서 밥을 하고.)

107006 @ 예.(예.)

107006 #1 그 통보리쏠로 허는 거는 보리쏠 삶앗다근에.(그 통보리쌀로 하는 거는 보리쌀 삶았다가.)

107006 @ 으.(으.)

107006 #1 솖앙 건져 놧당 식은 거 허영 흔듸 좁쏠에 놩 밥허주기.(삶아서 건져 놨다가 식은 거 해서 함께 좁쌀에 놔서 밥하지.)

107006 @ 음.(음.)

107006 #1 경 헤낫수다.(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06 @ 그런 식으로. 게난 그때 좁쏠은 안 싯어어예? 옛날예?(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좁쌀은 안 씻었지요? 옛날요?)

107006 #1 으, 싯으믄 무시거게.(으, 씻기는 무엇.)

107006 @ 게, 밥헨 다음에 예전에 이제 딱 그 밥허민 뜸을 들이는 거 아니우꽈예?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불 껏당은에 다시 불 솜곡.(게, 밥해서 다음에 예전에 이제 딱 그 밥하면 뜸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불 껐다가 다시 불 때고.)

107006 #1 건 보리밥. 보리밥만 헐 때.(건 보리밥. 보리밥만 할 때.)

107006 @ 아.(아.)

107006 #1 보리쏠만 놩 헐 때.(보리쌀만 놔서 할 때.)

107006 @ 건 어떤 식, 게믄 어떵 허는 거?(건 어떤 식,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107006 #1 게난 아까 식으로.(그러니까 아까 식으로.)

107006 @ 으.(으.)

107006 #1 부껑. 바각바각 부껑근엥에 뭐허민 진짜 불 껏다근에 그 뜸 들엿당 또 불 ᄒᆞ쏠 부찌는 거는 밥이 ᄒᆞ쏠 고소헌 맛나게.(끓어올라서. 바각바각 끓어올라서 뭐하면 진짜 불 껐다가 그 뜸 들였다가 또 불 조금 붙이는 거는 밥이 조금 고소한 맛나게.)

107006 @ 음.(음.)

107006 #1 이 푸끈 상태에서 뜸 물 ᄲᆞᆺ단뒝 헹 기자 퍼 놓민 창에 옛날은 검은 쒜솟이난에.(이 끓어오른 상태에서 뜸 물 밭았다고 해서 그저 퍼 놓으면 바닥에 옛날은 검은 쇠솥이니까.)

107006 @ 예, 예.(예, 예.)

107006 #1 창에 눌지도 안허곡 기대로 문짝 벗어지민 밥맛이 꼬신 맛이 엇주게.(바닥에 눋지도 않고 그대로 몽땅 벗겨지면 밥맛이 고소한 맛이 없지.)

107006 @ 아.(아.)

107006 #1 경 허민 그 두 번 불 솜앙 허민 누룽지 눌민은 누룽지도 막 쿠싱허곡 밥도 맛싯곡.(그렇게 하면 그 두 번 불 때서 하면 누룽지 눌면 누룽지도 아주 구수하고 밥도 맛있고.)

107006 @ 음.(음.)

107006 #1 경 혜영 그거 뜸 들이는 거.(그렇게 해서 그거 뜸 들이는 거.)

107006 @ 게민 두 번 불 솜는 거를 뭐렌 헷수가? 여기에서?(그러면 두 번 불 때는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107006 #1 뜸 들엿단엔 또 저 밥 음.(뜸 들였다가 또 저 밥 음.)

107006 @ 뜸 들이는 건 요즘 말이고 제주도말로 ᄀᆞᆯ아야 뒈여?(뜸 들이는 건 요즘 말이고 제주도말로 말해야 되어?)

107006 #1 아, 게메 틈제왓당.(아, 글쎄 뜸 들였다가.)

107006 @ 어, 틈제왓당.(어, 뜸 들였다가.)

107006 #1 틈제왓당.(뜸 들였다가.)

107006 @ 그다음에?(그다음에?)

107006 #1 틈제왓당은엥에 그레 불 ᄒᆞᆫ번 솜아 불라, 저.(뜸 들였다가 그리로 불 한 번 때어 버려라, 저.)

107006 @ 뿔류는 거렌 헤?(잦히는 거라고 해?)

107006 #1 물 뿔어지게, 뿔어지게.(물 잦게, 잦게.)

107007 @ 예, 경 허고 ᄑᆞᆺ밥은 언제 헷수가?(예, 그렇게 하고 팥밥은 언제 했습니까?)

107007 #1 ᄑᆞᆺ밥?(팥밥?)

107007 @ 음.(음.)

107007 #1 아, ᄑᆞᆺ밥은 그루후제 그루후제사 ᄑᆞᆺ밥사 하영. ᄑᆞᆺ밥 먹기 시작헌 때는 막

츠츰츠츰 좋아져 갈 때.(아, 팥밥은 그 이후에 그 이후에야 팥밥이야 많이. 팥밥 먹기 시작할 때는 아주 차츰차츰 좋아져 갈 때.)

107007 @ 아, 그 보통 그래도 큰일 헐 때는 풋밥 허지 안헷수가?(아, 그 보통 그래도 큰일 할 때는 팥밥 하지 않않습니까?)

107007 #1 큰일 헐 때 풋밥. 보리쏠에 풋 놩 숢앙.(큰일 할 때 팥밥. 보리쌀에 팥 놔서 삶아서.)

107007 @ 으.(으.)

107007 #1 잔치헐 때도.(잔치할 때도.)

107007 @ 예.(예.)

107007 #1 보리쏠에 풋에 놩 숢앙. 쏠은 ᄒᆞ꼼만 놓곡 헤영 가마솟듸서 밥허민 풋 물 들어근에 벌겅허주게. 벌겅허곡양.(보리쌀에 팥에 놔서 삶아서. 쌀은 조금만 넣고 해서 가마솥에서 밥하면 팥 물 들어서 벌겋지. 벌겋고요.)

107007 @ 예.(예.)

107007 #1 저 밥맛이 푸달푸달헹 그 보리쏠 주넹이보리쏠밥은 허민 푸달푸달허영 풋밥허민 맛잇주. 게민 옛날에 무신 다라가 잇어 무신거 잇어? 멩텡이에 밥을 퍼근에 잔치 때.(저 밥맛이 '푸달푸달'해서 그 보리쌀 맥주보리쌀밥은 하면 '푸달푸달'해서 팥밥 하면 맛있지. 그러면 옛날에 무신 대야가 있어 무엇 있어? 망태기에 밥을 퍼서 잔치 때.)

107007 @ 음, 음.(음, 음.)

107007 #1 멩텡이에 퍼근엥에 그거 사발에 거리멍. 경 허민 풋밥 헤나민 사발엔 막 데닥데닥허민 그거 싯어근에 소님 오민 또 허곡 허곡 허젠 허민 더 바빳주. 경 허영 풋밥은 그치룩 헹 먹엇수게. 잔치 때.(망태기에 퍼서 그거 사발에 뜨면서. 그렇게 하면 팥밥 해나면 사발엔 막 덕지덕지하면 그거 씻어서 손님 오면 또 하고 하고 하려고 하면 더 바빴지. 그렇게 해서 팥밥은 그처럼 해서 먹었습니다. 잔치 때.)

107008 @ 아, 게난 우리 어렷을 때 잔치집 가면 풋밥을 먹엇던 기억이 잇어예. 삼춘 여기는 피도 갈앗덴 허니까 피밥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잔칫집 가면 팥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삼촌 여기는 피도 갈았다고 하니까 피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08 #1 아, 피밥은. 그 피밥, 피쏠은 내우젠 허민 막 정ᄀᆞ레에서도 여라 번 ᄀᆞᆯ아사 뒈는 거. 그 여라 번 ᄀᆞᆯ민 쏠이 헤영헤근엥에 밥헤도 헤영허곡.(아, 피밥은. 그 피밥, 핍쌀은 내려고 하면 막 맷돌에서도 여러 번 갈아야 되는 거. 그 여러 번 갈면 쌀이 하얘서 밥해도 하얗고.)

107008 @ 으으.(으으.)

107008 #1 그 여라 번 안 ᄀᆞᆯ민 좀 쪼린맛이 잇어. 피는.(그 여러 번 안 갈면 좀 떫은맛이 있어. 피는.)

107008 @ 음, 피는?(음, 피는?)

107008 #1 으, 좁쏠 닮지 아녕.(으, 좁쌀 같지 않아서.)

107008 @ 음.(음.)

107008 #1 경 헌 따문에 그거는 피밥은 허민 막 피밥도 막 맛잇주. 물 맞게 잘 헤 놓민.(그렇게 하는 때문에 그거는 피밥은 하면 아주 피밥도 아주 맛있지. 물 맞게 잘 해 놓으면.)

107008 @ 음.(음.)

107008 #1 게민 혜영허난에 곤밥 닮주게.(그러면 하야니 흰밥 같지.)

107008 @ 음.(음.)

107008 #1 혜영허난.(하야니.)

107009 @ 혜영허영예, 예. 여기에 그 감저, 아까 감저밥은 어떤 식으로?(하얘서요, 예. 여기에 그 고구마, 아까 고구마밥은 어떤 식으로?)

107009 #1 감저 썰엉.(고구마 썰어서.)

107009 @ 예.(예.)

107009 #1 채로 썰어근에.(채로 썰어서.)

107009 @ 예. 아, 채 썰엉 허는 거우과?(예. 아, 채 썰어서 하는 겁니까?)

107009 #1 채 썰어근에.(채 썰어서.)

107009 @ 으, 이렇게 크게 놓는 게 아니고.(으, 이렇게 크게 놓는 게 아니고.)

107009 #1 으.(으.)

107009 @ 게민 채 썰엉 허면은 감저 형태는 엇이켜예? 젓어 불민예?(그러면 채 썰어서 하면 고구마 형태는 없겠네요? 저어 버리면요?)

107009 #1 으, 엇주게.(으, 없지.)

107009 @ 아아.(아아.)

107009 #1 엇어근에 밥만.(없어서 밥만.)

107009 @ ** 아니고.(** 아니고.)

107009 #1 으 밥맛이 맛만 잇주.(으 밥맛이 맛만 있지.)

107009 @ 아아.(아아.)

107009 #1 감저 놓난. 돌큼돌큼허영.(고구마 넣으니까. 달큼달큼해서.)

107009 @ 게믄 채 썰엉은에 쏠로 ᄀᆞ치 놩 허는 거? 아니면 나중에 허는 거?(그러면 채 썰어서 쌀로 같이 놔서 하는 거? 아니면 나중에 하는 거?)

107009 #1 ᄀᆞ치ᄀᆞ치 쏠영.(같이같이 쌀이랑.)

107009 @ ᄀᆞ치.(같이.)

107009 #1 좁쏠에 ᄀᆞ치.(좁쌀에 같이.)

107010 @ 좁쏠에 ᄀᆞ치 놩예, 예. 놈삐밥도 헷수가? 여기.(좁쌀에 같이 놔서요, 예. 무밥도 했습니까? 여기.)

107010 #1 예, 무수밥도. 무수도 채 썰엉 밥에 그치룩 감저밥 허듯이.(예, 무밥도. 무도 채 썰어서 밥에 그처럼 고구마밥 하듯이.)

107010 @ 감저밥 허듯이.(고구마밥 하듯이.)

107010 #1 예.(예.)

107011 @ 그다음에 톨밥. 여기는 톨밥 하영 헹 먹엇덴 허난?(그다음에 '톳밥'. 여기는 '톳밥' 많이 해서 먹었다고 하니까?)

107011 #1 톨밥. 톨.('톳밥'. 톳.)

107011 @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

107011 #1 톨 솖아근에 톨 칼로 썰엉 돔베에서.(톳 삶아서 톳 칼로 썰어서 도마에서.)

107011 @ 음.(음.)

107011 #1 썰어근에 쏠에 흔듸 맞촹 물 놩 밥헤영.(썰어서 쌀에 함께 맞춰서 물 놔서 밥해서.)

107011 @ 음, 요즘은 건강식으로.(음, 요즘은 건강식으로.)

107011 #1 으.(으.)

107011 @ 먹엄신디?(먹고 있는데?)

107011 #1 요즘 어디서 건강식 그거 헴신고? 톨밥 그디.(요즘 어디서 건강식 그거 하고 있는가? '톳밥' 거기.)

107011 @ 톨밥. 어느 식당에 톨 하영은 안 놩 쪼끔 놩은에.('톳밥'. 어느 식당에 톳 많이는 안 놔서 쪼끔 놔서.)

107011 #1 쪼끔, 우리 저 시니어클럽에 갓단 서귀포 정심 먹엉 가겐 헨에 식당에 들어가난에 우동[365] 먹는디.(쪼끔, 우리 저 시니어클럽에 갔다가 서귀포 점심 먹어서 가자고 해서 식당에 들어가니까 국수 먹는데.)

107011 @ 으.(으.)

107011 #1 우동 먹는디 그 톨을 하나씩 놧어. 경 헨 에 이거 톨 무신 맛으로 이거 우동에 이거 다시[366]로 놧수가? 허멍 나가 그디서 허난, 옆의 사름덜이 이디 이거 톨 놓나게, 놓나게. 아이고, 춤, 우동만 헤영 저 그자 고명 놩 주주, 무신 톨을 고명 놧수가? 허멍. (웃음) 지금도 허는 디 잇입디다. 서귀포에. (웃음).(국수 먹는데 그 톳을 하나씩 놨어. 그렇게 해서 에 이거 톳 무슨 맛으로 이거 국수에 이거 다시로 놨습니까? 하면서 내가 거기서 하니까, 옆의 사람들이 여기 이거 톳 넣어, 넣어. 아이고, 참, 국수만 해서 저 그저 고명 놔서 주지, 무슨 톳을 고명 놨습니까? 하면서. (웃음) 지금도 하는데 있습디다. 서귀포에. (웃음))

107011 @ (웃음). 예, 그건 영양으로 톨이 좋덴 허난 경허는 거예, 예. 페밥도 헨마씨? 삼춘. 페?((웃음). 예, 그건 영양으로 톳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요, 예. '패밥'도 했어요? 삼촌. 패?)

107012 #1 페는양.(패는요.)

107012 @ 예.(예.)

107012 #1 페는 밥을 헌 게 아니구.(패는 밥을 한 게 아니고.)

107012 @ 으.(으.)

---

365) '우동'은 국수의 일본어다.

366) '다시(だし)'는 멸치, 다시마, 조개 따위를 우려내어 맛을 낸 국물, 또는 재료를 뜻하는 일본어다.

107012 #1 뭇.(무릇.)

107012 @ 예.(예.)

107012 #1 뭇 숢앙, 뭇 숢으는 디. 뭇 숢으는 디 페를 하영 놔야 페가 맛 맛십네다.(무릇 삶아서, 무릇 삶는 데. 무릇 삶는 데 패를 많이 놔야 패가 맛 맛있습니다.)

107012 @ 아.(아.)

107012 #1 뭇에 뭇물 들어근에.(무릇에 '무릇물' 들어서.)

107012 @ 음.(음.)

107012 #1 페가 막 맛싯주게. 게난 폘 하영 놔사 그 뭇 쏢으는 디 허는디 뭇 막 시장에 나강 막 풀곡 헤낫수다. 할망 하나가.(패가 아주 맛있지. 그러니까 팰 많이 놔야 그 무릇 삶는 데 하는데 무릇 아주 시장에 나가서 막 팔고 했었습니다. 할머니 하나가.)

107012 @ 으음.(으음.)

107012 #1 뭇 숢앙.(무릇 삶아서.)

107012 @ 아.(아.)

107012 #1 게난 요번에도 지금 뭇 잇엄시민 이 제초제 따문에 뭇이 엇어. 뭇 잇엄시민 지금 정도에 페 헤근에 흔 가마 숢앙 오일장 날 가시민 진짜 돈 벌 거라 허멍.(그러니까 요번에도 지금 무릇 있었으면 이 제초제 때문에 무릇이 없어. 무릇이 있었으면 지금 정도에 패 해서 한 가마 삶아서 오일장 날 갔으면 진짜 돈 벌 거야 하면서.)

107012 @ 으.(으.)

107012 #1 말, 벨미로게. 거.(말, 별미로. 거.)

107012 @ 벨미로예?(별미로요?)

107012 #1 사 먹엉. 그거 그 뭇 국물에는 보릿개역 놔근에 버무려근엥에 경 헹 먹어낫수게.(사 먹어서. 그거 그 무릇 국물에는 보리미숫가루 놔서 버무려서 그렇게 해서 먹었었습니다.)

107013 @ 아, 보릿개역 놩예, 예. 경 이제 하고. 국은 어떤 거 주로 헨 먹어수가?(아, 보리미숫가루 놔서요,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국은 어떤 거 주로 해서 먹었습니까?)

107013 #1 국사 옛날에사 장국벳긔 더 잇수가?(국이야 옛날에야 장국밖에 더 있습니까?)

107013 @ 장국, 아.(장국, 아.)

107013 #1 에이고, 장국[장꾹]도 허민 요새는 진짜 버렝이 ᄒᆞ나 안 이는디 무슨 젓을 헤도.(아이고, 장국도 하면 요새는 진짜 벌레 하나 안 이는데 무슨 젓을 해도.)

107013 @ 으.(으.)

107013 #1 그런 건 없는디, 옛날엔 버렝이 오망오망 일엉 경 허민 그 장 거리레 갓당 그 버렝이 다 다듬아 뒁은에.(그런 건 없는데, 옛날엔 벌레 오망오망 일어서 그렇게 하면 그 장 뜨러 갔다가 그 벌레 다 다듬어 둬서.)

107013 @ (웃음).

107013 #1 (웃음). 게, 그거 먹을 때가 건강헷지 안허우과?((웃음). 게, 그거 먹을 때가 건강했지 않았습니까?)

107013 @ 맞아마씨. 다 자연식.(맞아요. 다 자연식.)

107013 #1 벵덜도 엇고 얼마나 건강헷수가? (웃음).(병들도 없고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웃음).)

107013 @ 음.(음.)

107013 #1 경 허영 그치룩 헹 장국 헹.(그렇게 해서 그처럼 해서 장국 해서.)

107013 @ 장국. 그다음에 장국헤도 ᄂᆞᆯ 놩은에 하고. 여기는 바당 동네니까 이제.(장국. 그다음에 장국해도 배추 놔서 하고. 여기는 바다 동네니까 이제.)

107013 #1 미역도 허곡게 ᄆᆞᆯ멩이도 허고.(미역도 하고 모자반도 하고.)

107013 @ 무시거?(무엇?)

107013 #1 ᄆᆞ음, ᄆᆞ음.(모자반, 모자반.)

107013 @ 아, ᄆᆞ음. 그걸 ᄆᆞᆯ멩이엔도 헙니까?(아, 모자반. 그걸 'ᄆᆞᆯ멩이'라고도 합니까?)

107013 #1 여기서 ᄆᆞᆯ망이엔 허주.(여기서 'ᄆᆞᆯ망'이라고 하지.)

107013 @ 어, ᄆᆞᆯ망. 맞아예. ᄆᆞᆯ망도 허곡.(어, 'ᄆᆞᆯ망'. 맞아요. 모자반도 하고.)

107013 #1 으. ᄆᆞᆯ망.(으. 모자반.)

107014 @ 그러면예, ᄂᆞ물국 끓일 때는 어떤 식으로 끓이는 거?(그러면요, 배춧국 끓일 때는 어떤 식으로 끓이는 거?)

107014 #1 아니, 그냥 뒌장 풀어놔근엥에 궤민은 ᄂᆞᆯ 놓주.(아니, 그냥 된장 풀어놔서 끓으면 배출 넣지.)

107014 @ 게민 거 끗.(그러면 거 끝.)

107014 #1 으.(으.)

107014 @ 간단허긴 허다양?(간단하긴 하네요?)

107014 #1 으, 간단헙니다.(으, 간단합니다.)

107015 @ 콩도 여기 콩주름도 놘?(콩도 여기 콩나물도 놨어요?)

107015 #1 콩지름?('콩지름'?)

107015 @ 음.(음.)

107015 #1 콩ᄂᆞ물?(콩나물?)

107015 @ 예.(예.)

107015 #1 예, 전읜 계속 놩 허연 먹엇주. 멩질 때 뒈여가도 놓고.(예, 전엔 계속 놔서 해서 먹었지. 명절 때 되어가도 놓고.)

107015 @ 예, 그러면 그걸로도 국 헙니까?(예, 그러면 그것으로도 국 합니까?)

107015 #1 콩ᄂᆞ물국은 장쿡에 허영 허민 술 먹어난 사름 해장국으로 먹곡.(콩나물국은 장국에 해서 하면 술 먹었던 사람 해장국으로 먹고.)

107015 @ 음, 것도 뒌장 헹? 우리 제주도는 다 뒌장이라예?(음, 것도 된장 해서? 우리 제주도는 다 된장이지요?)

107015 #1 으, 뒌장이 젤 좋은 거.(으, 된장이 젤 좋은 거.)

107016 @ 음,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놈뼛국은 어떵 끓여?(음, 그렇게 이제 하

고. 그다음에 뭇국은 어떻게 끓여?)

107016 #1 무수국?(뭇국?)

107016 @ 음.(음.)

107016 #1 마찬가지게.(마찬가지.)

107016 @ 음.(음.)

107016 #1 마찬가지.(마찬가지.)

107016 @ 문딱 뒌장?(몽땅 된장?)

107016 #1 으, 뒌장.(으, 된장.)

107017 @ 뒌장 놩은에 이제 끓이고. 콩국 한번 끌려 봅서. 옛날.(된장 넣어서 이제 끓이고. 콩국 한번 끓여 보십시오. 옛날.)

107017 #1 콩국[콩꾹]도, 콩국 끓일 땐 우리는 뒌장 놩 헌 게 아니고.(콩국도, 콩국 끓일 땐 우리는 된장 놔서 한 게 아니고.)

107017 @ 예.(예.)

107017 #1 장물 놘에.(간장 놔서.)

107017 @ 아아.(아아.)

107017 #1 간장. 간장 놔근에 콩국 그 영 무수영 놔근엥에 끓영.(간장. 간장 놔서 콩국 그 이렇게 무랑 놔서 끓여서.)

107017 @ 예.(예.)

107017 #1 올라오면은 콩물 물에 타근에 그 우로 삭 비와.(올라오면 콩물 물에 타서 그 위로 삭 부어.)

107017 @ 으.(으.)

107017 #1 솟듸레양.(솥으로요.)

107017 @ 예.(예.)

107017 #1 경 허영 삭헤영[367] 비와근엥에 불을 그냥 두께 톡 더껑 불을 때민은 그게 콩이 익으면서.(그렇게 해서 '삭해서' 부어서 불을 그냥 뚜껑 톡 덮어서 불을 때면 그게 콩이 익으면서.)

107017 @ 음.(음.)

107017 #1 벙뎅이지멍.(덩어리지면서.)

107017 @ 음.(음.)

107017 #1 우트레 우깍허게[368] 올라옵니다.(위로 '우깍'하게 올라옵니다.)

107017 @ 예.(예.)

107017 #1 게믄 바로 저 무신 두부ᄀᆞ치룩양?(그러면 바로 저 무슨 두부처럼요?)

107017 @ 으.(으.)

107017 #1 경 헤근에 그거 콩국[콩국].(그렇게 해서 그거 콩국.)

107017 @ 으, 게난.(으, 그러니까.)

---

367) '삭헤영'은 '삭해서'라는 의미다. 여기에서 '삭'은 물이나 가루 따위를 솥으로 부을 때 하는 모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368) '우깍허게'는 '솟아오르게'라는 의미다.

107017 #1 그 잘못 끓이면은 올라오는 것도 없곡 가르륵혜영[369] 기자 물 뒈어 불주. 기자 국 뒈 병.(그 잘못 끓이면 올라오는 것도 없고 '가르륵해서' 그자 물 되어 버리지. 그저 국 되어 버려서.)

107017 @ 으, 게난 그 토실토실허게 이렇게 벙뎅이지게 끓이는 방법을 골아 줍서.(으, 그러니까 그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덩어리지게 끓이는 방법을 말해 주십시오.)

107017 #1 게난 그것이 나 아까 골은 거. 물에, ᄀᆞ르 물에 캉.(그러니까 그것이 나 아까 말한 거. 물에, 가루 물에 타서.)

107017 @ 아, 물에 카는 거?(아, 물에 타는 거?)

107017 # 1 으.(으.)

107017 @ 그냥 안하고.(그냥 안하고.)

107017 #1 으, 물에 카근엥에 우로 비우든지 아니민 아예 언물 놩 솟듸 놩 헐 때에.(으, 물에 타서 위로 붓든지 아니면 아예 찬물 놔서 솥에 놔서 할 때에.)

107017 @ 예.(예.)

107017 #1 헐 때에 콩ᄀᆞ르 놔근에 막 젓어근에 캉.(할 때에 콩가루 놔서 막 저어서 타서.)

107017 @ 응.(응.)

107017 #1 카지게 솟듸서.(타지게 솥에서.)

107017 @ 아, 끓여 놩 놓는 거 아니?(아, 끓여 놔서 놓는 거 아니?)

107017 # 아니. 솟듸서 카지게. 끓여 놩 놔도 뒈는데.(아니. 솥에서 타지게. 끓여 놔서 놔도 되는데.)

107017 @ 예.(예.)

107017 #1 서툰 사름은 아예 언물에 ᄀᆞ를 놩 젓엉. 경 혜영 불을 때면은 그 안 젓어 불면은 눌어 불주.(서툰 사람은 아예 찬물에 가루를 놔서 저어서. 그렇게 해서 불을 때면 그 안 저어 버리면 눌어 버리지.)

107017 @ 음.(음.)

107017 #1 게난 눌기 전에는 그 영 국자로 자꾸 젓엇당.(그러니까 눋기 전에는 그 이렇게 국자로 자꾸 저었다가.)

107017 @ 예.(예.)

107017 #1 남죽으로 젓다근엥에, 요거 익어갈 만허걸랑 톡허게 내 불면은 두께 톡 더껑 놔두면 그게 우깍허게 덩어리로 올라옵니다.(죽젓개로 젓다가, 요거 익어갈 만하면 톡하게 내 버리면 뚜껑 톡 덮어서 놔두면 그게 '우깍하게' 덩어리로 올라옵니다.)

107017 @ 으.(으.)

107017 #1 게믄 그게 바로 순두부처럼.(그러면 그게 바로 순두부처럼.)

107017 @ 예.(예.)

107017 #1 국이.(국이.)

107017 @ 게믄 그 저 뭐는 언제 놔?(그러면 그 저 뭐는 언제 놔?)

---

369) '가르륵혜영'은 '(반죽 따위가) 풀기가 없이 주르륵해서'라는 의미다.

107017 #1 잘못 끓리민 흘탁탁[370].(잘못 끓이면 '흘탁탁'.)

107017 @ 그 저기 ᄂᆞ물이나 무수나?(그 저기 나물이나 무나?)

107017 #1 무수. 무수 게난 ᄒᆞ쏠 ᄒᆞᆫ 물 처음 뤨 때에 무수 놔.(무. 무 그러니까 조금 한 물 처음 끓을 때에 무 놔.)

107017 @ 아, 무수 놓곡?(아, 무 넣고?)

107017 #1 경 허곡 그 끓인 물에 놓는 거는 무수 놓곡 무수 놔근에 영 더운 짐 무수에 들어가면은 콩ᄀᆞ르[콩ᄀᆞ르] 물에 탄 거 우로 영 술허게[371] 비왕 내 불면은 젓지 말앙 비왕 내 불면은 그대로 익으멍 우깍허게 덩어리차 뒈주게.(그렇게 하고 그 끓인 물에 놓는 거는 무 놓고 무 놔서 이렇게 더운 김 무에 들어가면 콩가루 물에 탄 거 위로 이렇게 '살하게' 부어서 내 버리면 젓지 말고 부어서 내 버리면 그대로 익으면서 '우깍하게' 덩어리째 되지.)

107017 @ 아아. 게니까 이제 논 다음에.(아아. 그러니까 이제 놓은 다음에.)

107017 #1 젓어 불면은 으.(저어 버리면 으.)

107017 @ 젓지를 안 허는 거구나?(젓지를 안 하는 거구나?)

107017 #1 젓어 불민은 그냥 뭐 뒈 불어.(저어 버리면 그냥 뭐 되어 버려.)

107017 @ 아, 게난 궨 다음에야 이제 허는 거예?(아, 그러니까 끓은 다음에야 이제 하는 거요?)

107017 #1 으.(으.)

107017 @ 젓어 부난 가르륵헌 거구나게.(저어 버리니까 '가르륵한' 거구나.)

107017 #1 으, 젓어 불민 벙뎅이도 엇곡 무시거 아무 것도 엇주.(으, 저어 버리면 덩어리도 없고 무엇 아무 것도 없지.)

107018 @ 삼춘, 호박입국도 옛날 하영 헤영 먹어서예?(삼촌, 호박잎국도 옛날 많이 해서 먹었지요?)

107018 #1 호박입도 그거 그자 그치룩.(호박잎도 그거 그저 그처럼.)

107018 @ 호박입은 어느 철에 맛 좋덴 헙니까?(호박잎은 어느 철에 맛 좋다고 합니까?)

107018 #1 지금은 젤 맛싯주.(지금은 젤 맛있지.)

107018 @ 예.(예.)

107018 #1 가을에.(가을에.)

107018 @ 사름덜은 여름에 하영 먹잖아예?(사람들은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107018 #1 여름에는 막 호박입이 하난.(여름에는 아주 호박잎이 많으니까.)

107018 @ 음.(음.)

107018 #1 번성허난 허곡. 지금은 꼭데기벳긔 엇주게.(번성하니까 하고. 지금은 꼭대기밖에 없지.)

107018 @ 예.(예.)

---

370) '흘탁탁'은 물기가 많아 끈기가 없이 줄줄 흐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371) '술허게'는 '조심스럽게'라는 의미다.

107018 #1 먹을 게.(먹을 게.)

107018 @ 어.(어.)

107018 #1 꼭데기 허민 존존헌 썹 아랑아랑헌 거. 그거양?(꼭대기 하면 자잘한 잎 야들야들한 거. 그거요?)

107018 @ 예.(예.)

107018 #1 호박입 지금 헤다근엥에 싹 뿔아근에 칼로 혼번 끓려 먹을 거만씩 냉동시겻다근에.(호박잎 지금 해다가 싹 빨아서 칼로 한번 끓여 먹을 거만큼씩 냉동시켰다가.)

107018 @ 으.(으.)

107018 #1 호박입은.(호박잎은.)

107018 @ 으.(으.)

107018 #1 냉동시겻당은에 겨울이고 뭐고 국 끓여봅서. 참 맛십니다.(냉동시켰다가 겨울이고 뭐고 국 끓여 보십시오. 참 맛있습니다.)

107018 @ 아, 게민 솖.(아, 그러면 삶.)

107018 #1 그때 시절 뒈민.(그때 시절 되면.)

107018 @ 솖지 아녕 그대로 생채로.(삶지 않아서 그대로 생짜로.)

107018 #1 예, 그때 시절 뒈민 그땐 ᄂᆞ물도 하영 날 때주. 이 겨울 뒈민.(예, 그때 시절 되면 그땐 배추도 많이 날 때지. 이 겨울 되면.)

107018 @ 으음.(으음.)

107018 #1 ᄂᆞ물쿡 안 먹어. 호박입국 먹주.(배춧국 안 먹어. 호박잎국 먹지.)

107018 @ 아아, 냉동을 그 놀채로 헹 놔두는 거?(아아, 냉동을 그 생짜로 해서 놔두는 거?)

107018 #1 으, 칼로 영 썰엉 비닐종이에게.(으, 칼로 이렇게 썰어서 비닐종이에.)

107018 @ 예.(예.)

107018 #1 혼 번에[혼뻐네] 헐 거만씩 허엿당은에.(한 번에 할 거만큼씩 했다가.)

107018 @ 아.(아.)

107018 #1 우리 시에 사는 아이덜은 막 호박입 그거 헹 놔둡센 막 난리나주.(우리 제주시에 사는 아이들은 아주 호박잎 그거 해서 놔두십사고 아주 난리나지.)

107018 @ 아아, 게난 가을에가 가장 맛 좋은 거라예? 어디 강 조사허니까 가을호박입국을 먹어야 뒌덴 허더라고.(아아, 그러니까 가을에가 가장 맛 좋은 거네요? 어디 가서 조사하니까 '가을호박잎국'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107018 #1 음, 가을에, 가을에. 지금. 나 어제도 우연네 가 보난 문저 난 썹은 다 노랑케 발고 막 세여 부난에 그거 영 톧젠 헤도 가시가 쎄곡.(음, 가을에, 가을에. 지금. 나 어제도 터알에 가 보니까 먼저 난 잎은 다 노랗게 발고 막 쇠어 버리니까 그거 이렇게 뜯으려고 해도 가시가 세고.)

107018 @ 예, 예, 예. (예, 예, 예.)

107018 #1 지금 저 봉오지에만 벋어가멍 난 거는 아랑아랑허곡 이파리도 존존헙니

다게.(지금 저 봉오리에만 뻗어가면서 난 거는 야들야들하고 이파리도 잔잔합니다.)

107018 @ 음.(음.)

107018 #1 게난 그거 젤 맛신 거.(그러니까 그거 젤 맛있는 거.)

107018 @ 아아, 냉동실에 그거 허영 놔둬도 뒈는구나.(아아, 냉동실에 그거 해서 놔둬도 되는구나.)

107018 #1 막 뿔아근에.(막 빨아서.)

107018 @ 아아, 나는 냉동실에 놓는 거는 저 뭐헹 놔야 뒈는 중 알안. 쌂앙은에.(아아, 나는 냉동실에 놓는 거는 저 뭐해서 놔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삶아서.)

107018 #1 막 뿔아근에.(막 빨아서.)

107018 @ 예.(예.)

107018 #1 그걸 막 영 문직으멍 뿔아근에 물 짝 짜뒁은에 칼로 썰엉. 썰어근에 팩에 혼 번 먹을 거만씩 담앙 냉동 딱 헷당 겨울나걸랑 ᄂᆞ물쿡, ᄂᆞᄆᆞᆯ 처날 땔랑 그거 호박입국을 ᄆᆞ물카루 놓고 헤영 끓여 봐봐.(그걸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빨아서 물 짝 짜두고 칼로 썰어서. 썰어서 팩에 한 번 먹을 거만큼씩 담아서 냉동 딱 했다가 겨울나거든 배춧국, 배추 처날 때는 그거 호박잎국을 메밀가루 놓고 해서 끓여 봐봐.)

107018 @ 음, ᄆᆞᄆᆞᆯㅋ르로예?(음, 메밀가루로요?)

107018 #1 예, ᄆᆞᄆᆞᆯㅋ르 놩. 잘도 맛십니다.(예, 메밀가루 놔서. 잘도 맛있습니다.)

107019 @ 아, 기구나. 게믄 이제 막 으깽은에 씻으는 거 아니예? 예. 으깽은에. 알앗수다. 이런 식으로 호박입. ᄆᆞᆯ망국은 어떵 끓이는 거?(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막 으깨서 씻는 거 아닌가요? 예. 으깨서.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박잎. 모자반국은 어떻게 끓이는 거?)

107019 #1 게민 ᄆᆞᆯ망국[ᄆᆞᆯ망꾹]도 저 그, ᄆᆞᆯ망국은 기자 집의서 먹젠 끌이지 아녕 큰일 때에 도새기 숢아나민 그것에 대개 헙니다게.(그러면 모자반국도 저 그, 모자반국은 그저 집에서 먹으려고 끓이지 않고 큰일 때에 돼지 삶아나면 그것에 대개 합니다.)

107019 @ 음.(음.)

107019 #1 경 허민 도새기 다 숢아나민 건져뒁 ᄆᆞᆯ망 놓곡 무수이파리. 그 ᄆᆞᆯ망만 놓민 별로 또 ᄆᆞᆯ망도 경 하지 아녀곡.(그렇게 하면 돼지 다 삶아나면 건져두고 모자반 놓고 무청. 그 모자반만 놓으면 별로 또 모자반도 그렇게 많지 않고.)

107019 @ 음.(음.)

107019 #1 별로고 무수이파리 서꺼사 더 맛잇주.(별로고 무청 섞어야 더 맛있지.)

107019 @ 예.(예.)

107019 #1 게영 무수이파리 서껑 그레 가마솟듸 놩 막 허당 다 끌려지걸랑 ᄆᆞᄆᆞᆯㅋ루 카 놔근에.(그래서 무청 섞어서 그리로 가마솥에 놔서 막 하다가 다 끓여지거든 메밀가루 타 놔서.)

107019 @ 음.(음.)

107019 #1 모ᄆᆞᆯㅋ루 카 놓민. 아무튼 ᄆᆞᄆᆞᆯㅋ르가 들어가사.(메밀가루 타 놓으면. 아무튼 메밀가루가 들어가야.)

107019 @ 예.(예.)

107019 #1 ᄆᆞ작헌 거. 경 헤영 끌령 먹읍니다.(뻣뻣한 거. 그렇게 해서 끓여서 먹습니다.)

107019 @ 거난예, 이 조사를 허당 보면 이 성산부터 요쪽에는예 그 ᄆᆞᆯ망국 헐 때 꼭 무수썹을 놔.(그러니까요, 이 조사를 하다가 보면 이 성산부터 이쪽은요 그 모자반국 할 때 꼭 무청을 놔.)

107019 #1 음, 무수썹 놔야.(음, 무청 놔야.)

107019 @ 예, 시에는 무수썹 안 놓거든.(예, 제주시에는 무청 안 놓거든.)

107019 #1 몰랑 거우다.(몰라서 겁니다.)

107019 @ 예. 무수썹을.(예. 무청을.)

107019 #1 따시랑, 따시랑 무수썹 놩 허렌 헙서.(다시는, 다시는 무청 놔서 하라고 하십시오.)

107019 @ 예, 무수썹을 놩 헌 게 진짜 맛 좋덴 허멍 경 허더라고예?(예, 무청을 놔서 한 게 진짜 맛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107019 #1 무수썹, 무수썹 놔야.(무청, 무청 놔야.)

107019 @ 옛날에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ᄆᆞᆷ쿡허지만 여기는 돗국물?(옛날에 그거를 우리 제주시에서는 'ᄆᆞᆷ쿡'하지만 여기는 '돗국물'?)

107019 #1 예, 돗국물[372].(예, '돗국물'.)

107019 @ 게난 ᄆᆞᆷ쿡이렌 말은 안 썻지예?(그러니까 'ᄆᆞᆷ쿡'이라는 말은 안 썼지요?)

107019 #1 ᄆᆞᆯ망국에는 안 허주. 기자 야, 돗국물. (웃음)('ᄆᆞᆯ망국'이라고는 안 하지. 그저 야, '돗국물'.)(웃음)

107019 @ 돗국물예, 어?('돗국물'요, 어?)

107019 #1 게난 잔치나 허젠 허민 막 돗국물 헐 거 헤근에. 만약에 무수썹이 좀 엇어져 갈 때민은 미리 헤당 놔두주게. 무수썹을.(그러니까 잔치나 하려고 하면 막 '돗국물' 할 거 해서. 만약에 무청이 좀 없어져 갈 때면 미리 해다가 놔두지. 무청을.)

107019 @ 아, 보통 옛날은 잔치 겨울에 헷으니까.(아, 보통 옛날은 잔치 겨울에 했으니까.)

107019 #1 겨울에 허곡. 이딘 겨울에만 헤나난.(겨울에 하고. 여긴 겨울에만 했었으니까.)

107019 @ 예, 예.(예, 예.)

107019 #1 집의서만 허곡 허난.(집에서만 하고 하니까.)

107019 @ 음.(음.)

107019 #1 경 허영 놔둡니께. 지금도 식당에 메끼민 ᄆᆞᆷ국 나와양.(그렇게 해서 놔둡니다. 지금도 식당에 맡기면 모자반국 나와요.)

107019 @ 예.(예.)

372) '돗국물'은 돼지고기를 삶았던 육수를 말한다. 제보자가 말한 '돗국물'은 돼지고기 삶았던 육수에 모자반 따위를 넣고 끓인 'ᄆᆞᆷ국'의 의미로 쓴 것이다.

107019 #1 ᄆᆞᆯ망국 나오는디 안 뒈.(모자반국 나오는데 안 돼.)

107019 @ 으음.(으음.)

107019 #1 전의 우리 헌 것만이 맛이 안 뒈여.(전에 우리 한 것만큼 맛이 안 되어.)

107019 @ 음.(음.)

107019 #1 저 그런 무수썹도 안 서끄곡 그자 ᄆᆞᆯ망만 ᄒᆞ꼼 헤근에 허난 안 뒈여.(저 그런 무청도 안 섞고 그저 모자반만 조금 해서 하니까 안 되어.)

107019 @ 거난 ᄆᆞᆯ망국 안 허고 다 돗국물이렌?(그러니까 'ᄆᆞᆯ망국' 안 하고 다 '돗국물'이라고?)

107019 #1 예, 돗국물.(예, '돗국물'.)

107019 @ 돗국물.('돗국물'.)

107019 #1 예. 막 돗국물 먹으레 역불 가곡. 저 친척 어른덜이 무신 바빠근에 돗국물 먹는 날 못 오민 막, 아니, 어제 오커랍디게게. 어제 왕 돗국물도 먹곡게.(예. 막 '돗국물' 먹으러 부러 가고. 저 친척 어른들이 무슨 바빠서 '돗국물' 먹는 날 못 오면 막, 아니, 어제 오시지요. 어제 와서 '돗국물'도 먹고.)

107019 @ 음.(음.)

107019 #1 인사가 그거주.(인사가 그거지.)

107019 @ 예.(예.)

107019 #1 돗국물도 먹곡게. 그치룩.('돗국물'도 먹고. 그처럼.)

107020 @ 예전에 뒈지고기들을 워낙 못 먹으난 이제 돗국물. 으, 알앗수다. 그다음에 삼춘 여기는 예전에 여기 오토미도 하영 난덴 헷잖아예?(예전에 돼지고기들을 워낙 못 먹으니까 이제 '돗국물'. 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삼촌 여기는 예전에 여기 옥돔도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107020 #1 올토미.(옥돔.)

107020 @ 솔라니?('솔라니'?)

107020 #1 올토미.(옥돔.)

107020 @ 으.(으.)

107020 #1 올퉤미.(옥돔.)

107020 @ 올퉤미. 여기는 올테미헙니까? 솔나니?(옥돔. 여기는 '올테미'합니까? '솔나니'?)

107020 #1 올테미고 솔레기.('올테미'고 '솔레기'.)

107020 @ 솔레기. 솔레기국은 어떤 식으로 끓여?('솔레기'. '솔레기국'은 어떤 식으로 끓여?)

107020 #1 아이고, 솔레기국. 아, 솔레기국도[솔레기국또] 그건 무수에 끌려사 시원헙니다.(아이고, 옥돔국. 아, 옥돔국도 그건 무에 끓여야 시원합니다.)

107020 @ 예.(예.)

107020 #1 잔치 때엔 똑 무수에 끌립니다.(잔치 때엔 꼭 무에 끓입니다.)

107020 @ 아.(아.)

107020 #1 신랑상에 신부상 헐 거는 똑 무수 끌리주. 메역을 웨 하느냐? 미역 민드락헤 부난 경 허당 안 산덴. 그런 방법엔 헤근에.(신랑상에 신부상 할 거는 꼭 무 끓이지. 미역을 왜 하느냐? 미역 매끈해 버리니까 그렇게 하다가 안 산다고. 그런 비방이라고 해서.)

107020 @ 아.(아.)

107020 #1 그거엔 헤근에 미역 종륜 국에 안 허곡. 꼭 무수.(그거엔 해서 미역 종륜 국에 안 하고. 꼭 무.)

107020 @ 무수.(무.)

107020 #1 게민 시원헤근엥에 그 솔레기국 끌령.(그러면 시원해서 그 옥돔국 끓여서.)

107021 @ 여기 저 뭣도, 그 제사 때도 미역국 안 헙니까?(여기 저 뭣도, 그 제사 때도 미역국 안 합니까?)

107021 #1 아, 제사 땐 미역국 허곡.(아, 제사 땐 미역국 하고.)

107021 @ 아, 잔치 때만 미역국 안 허는구나?(아, 잔치 때만 미역국 안 하는구나?)

107021 #1 잔치 그 새각시 새스방 밥 뜨로 헙니께게.(잔치 그 새색시 신랑 밥 따로 하잖아요.)

107021 @ 예, 예.(예, 예.)

107021 #1 엿날에. 게난 그, 그때만 그 미역 안 허여.(옛날에. 그러니까 그, 그때만 그 미역 안 해.)

107021 @ 맞아. 생선만 허곡. 무 허고 두부 쪼끔 놩 헷던 거 같애예, 예.(맞아. 옥돔만 하고. 무 하고 두부 쪼끔 놔서 했던 거 같아요, 예.)

107021 #1 예, 예.(예, 예.)

107021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메역국은 어떵 허민 젤 맛 좋아마씨? 이 온평리 메역도 맛 좋는디.(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미역국은 어떻게 하면 젤 맛 좋아요? 이 온평리 미역도 맛 좋은데.)

107021 #1 장쿡 끌리는 우리 기자 보통 장쿡 끌리는 디난에 기자 미역 장 풀어놔근엥에 미역 썰엉 그자 혼듸 놔근엥에.(장국 끓이는 우리 그저 보통 장국 끓이는 데니까 그저 미역 장 풀어놔서 미역 썰어서 그저 함께 놔서.)

107021 @ 음. 그런 식으로 옛날은 다. 요즘은 뭐 저기 뒌장으로 안 허지 안헙니까? 메역국 허젠 허민?(음. 그런 식으로 옛날은 다. 요즘은 뭐 저기 된장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미역국 하려고 하면?)

107021 #1 아니, 우린 뒌장.(아니, 우린 된장.)

107021 @ 아.(아.)

107021 #1 뒌장을 병원에도 큰 병 걸련 가난에 주로 뒌장을 먹으렌 헙디다.(된장을 병원에도 큰 병 걸려서 가니까 주로 된장을 먹으라고 합디다.)

107021 @ 뒌장이 그렇게 좋은 거예?(된장이 그렇게 좋은 거요?)

107021 #1 뒌장이 그렇게 좋덴.(된장이 그렇게 좋다고.)

107021 @ 예.(예.)
107021 #1 뒌장.(된장.)
107021 @ 음, 뒌장에?(음, 된장에?)
107021 #1 게고 물장 ᄀᆞ튼 것에 끓리민 메역국은 지르륵헤영[373] 안 좋아.(그러고 간장 같은 것에 끓이면 미역국은 '지르륵해서' 안 좋아.)
107021 @ 음.(음.)
107021 #1 국물이 멀껑허영 지르륵허영.(국물이 멀게서 '지르륵'해서.)
107021 @ 음.(음.)
107021 #1 게난 뒌장 헤사 풀풀헤여근에.(그러니까 된장 해야 풀풀해서.)
107022 @ 뒌장 허영 하곡. 그다음에 옛날은 냉국 하영 헤영 먹엇어예?(된장 해서 하고. 그다음에 옛날은 냉국 많이 해서 먹었지요?)
107022 #1 예. 여름엔 기자 냉국 헤연 먹엇주. 웨도 헤영 냉국 허곡 미역냉국도 허곡 기자 여름에는 냉국만 헤연 먹엇주.(예. 여름엔 그저 냉국 해서 먹었지. 외도해서 냉국 하고 미역냉국도 하고 그저 여름에는 냉국만 해서 먹었지.)
107022 @ 우리 동네는 ᄂᆞ믈 솖앙 놨당.(우리 동네는 배추 삶아서 놨다가.)
107022 #1 으, 그 ᄂᆞ물도 솖앙 허곡게, 미역 허곡 웨냉국 하영 허고.(으, 그 배추도 삶아서 하고, 미역 하고 외냉국 많이 하고.)
107022 @ 웨냉국예, 예.(외냉국요, 예.)
107022 #1 물웨.(물외.)
107023 @ 제주도는 이렇게 냉국 하고.(제주도는 이렇게 냉국 하고.)
107023 #1 예.(예.)
107023 @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바당이니까. 이렇게 성게를 이 동네는 뭐렌 헙니까?(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바다니까. 이렇게 성게를 이 동네는 뭐라고 합니까?)
107023 #1 성겐 성게.(성겐 성게.)
107023 @ 성게.(성게.)
107023 #1 옛날엔 귀.(옛날엔 '귀'.)
107023 @ 귀.(성게.)
107023 #1 귀, 귀.(성게, 성게.)
107023 @ 귀 가졍도 국을 끓려난? 옛날도?(성게 가져서도 국을 끓였어요? 옛날도?)
107023 #1 으, 옛날도 귀. 옛날에는 사가지 안허난.(으, 옛날도 성게. 옛날에는 사가지 않으니까.)
107023 @ 예.(예.)
107023 #1 돈 주멍 사가질 아녀난에, 경 심허게 잡지도 안허곡.(돈 주면서 사가질 않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잡지도 않고.)
107023 @ 음.(음.)
107023 #1 귀 잡아다근엥에 미역 놩 끌리나 가시리.(성게 잡아다가 미역 놔서 끓이

373) '지르륵헤영'은 국물에 풀기가 없고 맛이 밍밍하여서의 의미다.

나 풀가사리.)

107023 @ 예.(예.)

107023 #1 가시리 알지예?(풀가사리 알지요?)

107023 @ 예, 예.(예, 예.)

107023 #1 가시리국에는 미역보다 더 맞아.(풀가사리국에는 미역보다 더 맞아.)

107023 @ 아.(아.)

107023 #1 성게가.(성게가.)

107023 @ 아아.(아아.)

107023 #1 성게가. 가시리국에는. 경 헤여근엥에 달래마늘이나 뭐 거릴 때 썰어놩 허민양 가시리국에는 완전 태와. 솜, 솜허고 성기는.(성게가. 풀가사리국에는. 그렇게 해서 달래나 뭐 뜰 때 썰어놔서 하면요 풀가사리국에는 완전 타고났어. 말똥성게, 말똥성게하고 성게는.)

107023 @ 음.(음.)

107023 #1 미역보단.(미역보단.)

107023 @ 미역보다. 게난 그 가시리도 종류가 으라 개렌 허멍?(미역보다. 그러니까 그 풀가사리도 종류가 여러 개라고 하면서?)

107023 #1 마카시리[374] 잇곡 대웅가시리[375] 잇곡.('마카시리' 있고 '대웅가시리' 있고.)

107023 @ 음.(음.)

107023 #1 대웅가시리는게 주로 우리 메여당 먹는 거고. 영 빨강헌 게 동글동글 이파리가.('대웅가시리'는 주로 우리 매다가 먹는 거고. 이렇게 빨간 게 동글동글 이파리가.)

107023 @ 예.(예.)

107023 #1 영 똥글락헌 게 아니고 이 질어도.(이렇게 동근 게 아니고 이 길어도.)

107023 @ 예.(예.)

107023 #1 동글랑헌 그거고. 마카시리엔 헌 거는 색깔도 거멍허주마는 막 이, 이 이파리가 막 이치룩 벋은 거.(동그란 그거고. '마카시리'라고 한 거는 색깔도 거멓지만 막 이, 이 이파리가 아주 이처럼 벋은 거.)

107023 @ 아, 옆으로?(아, 옆으로?)

107023 #1 마카시리는. 막 여라 개로 막 덥삭덥삭 벋은 거.('마카시리'는. 아주 여러 개로 막 덥석덥석 벋은 거.)

107023 @ 예, 예, 예. 게믄 그런 거는 잘 안 먹어? 마카시리?(예, 예,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잘 안 먹어? '마카시리'?)

107023 #1 그거는 옛날에 풀만 헤낫주. 이 방 볼르는 디 메여당 놧당.(그거는 옛날에 풀만 했었지. 이 방 바르는 데 메여다가 놨다가.)

---

374) '마카시리'는 풀가사리의 일종이다.

375) '대웅가시리'는 풀가사리의 일종이다.

107023 @ 마카시리로 풀허고 먹는 디는 이제?('마카시리'로 풀하고 먹는 데는 이제?)

107023 #1 대웅가시리로 먹고.('대웅가시리'로 먹고.)

107023 @ 대웅가시리로. 게난 이런 가시리 종류도 이제 헤서 먹는 거예?('대웅가시리'로. 그러니까 이런 가시리 종류도 이제 해서 먹는 거요?)

107023 #1 두 가지.(두 가지.)

107023 @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삼춘, 여기 보말? 고동. 여기 뭐렌 헤? ᄀᆞ메기?(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삼촌, 여기 고둥? 고둥. 여기 뭐라고 해? 'ᄀᆞ메기'?)

107023 #1 보말은 보말이고.(보말은 보말이고.)

107023 @ 예.(예.)

107023 #1 수두린 수두리고.(팽이고둥은 팽이고둥이고.)

107023 @ 음.(음.)

107023 #1 춤ᄀᆞ메긴 춤ᄀᆞ메기고. 문다께 문다께고.(개울타리고둥은 개울타리고둥이고. 눈알고둥은 눈알고둥이고.)

107023 @ 음, 게믄 그 보말 헤 갖고 국 허는 거는 어떤 거로 주로 헤연?(음, 그러면 그 보말 해 갖고 국 하는 거는 어떤 거로 주로 했어요?)

107023 #1 에 보말 헤근에 우리 식당 헐 때 보말 막 잘 츳아낫수다. 보말 헤영 허긴 우린 막 하영 놘 허난에 기냥 기자 식당에 강 보민게 원 그축 헌디게 우린 이녁대로 해녀덜대로 잡아다근에 허는 거난 막 풍부허게 놩 허난. 보말쿡은 허젠 허민 열앙 솖앙 열아근엥에 딱지 다 다듬아 둬근에 그 물 국 끌릴 만이 놓곡 그 양도 보말 양도 어느 만큼 헹은에 사발에서 영 조물조물 뀌여근에.(에 고둥 해서 우리 식당 할 때 고둥 아주 잘 찾았었습니다. 고둥 해서 하긴 우린 막 많이 놔서 하니까 그냥 그저 식당에 가서 보면 원 그처럼 하는데 우린 이녁대로 해녀들대로 잡아다가 하는 거니까 아주 풍부하게 놔서 하니까. '보말국'은 하려고 하면 열어서 삶아서 열어서 딱지 다 다듬어 둬서 그 물 국 끓일 만큼 놓고 그 양도 고둥 양도 어느 만큼 해서 사발에서 이렇게 조물조물 주물러서.)

107023 @ 예.(예.)

107023 #1 똥 다 헤싸야. 경 헹 놩은에 미역 놩 끌리주.(똥 다 흩어야. 그렇게 해서 놔서 미역 놔서 끓이지.)

107023 @ 보말은 메역 **. 미역 놩 끓이고예. 삼춘, 여기 넙페국도 끓여난?(고둥은 미역 **. 미역 넣어서 끓이고요. 삼촌, 여기 넓패국도 끓였어요?)

107023 #1 아이고, 넙페 오죽 좋은 거우과마는 이젠 엇어. 오염뒈 부난.(아이고, 넓패 오죽 좋은 겁니까마는 이젠 없어. 오염돼 버리니까.)

107023 @ 넙페국은 어떻게 허는 거우과?(넓패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23 #1 넙페국도게. 넙페 메여근에 바당에서 옴막헌 돌 홈텡이에 놩 막 보병 왕.(넓패국도. 넓패 매어서 바다에서 움푹한 돌 홈에 놔서 막 비벼서 와서.)

107023 @ 아.(아.)

107023 #1 막 부벼야. 막 부병 발로.(막 비벼야. 막 비벼서 발로.)

107023 @ 예.(예.)

107023 #1 발로 불랑 막 부병 물에 깨끗이 씻어뒁 와근에 솟듸 놩 쌂앙.(발로 밟아서 막 비벼서 물에 깨끗이 씻어두고 와서 솥에 놔서 삶아서.)

107023 @ 으.(으.)

107023 #1 삶아근에 푹 삶아근에 그릇에 덜어 놔둠수르 끌릴 만썩 뒌장에 놔근에 끌렁. ᄆᆞᆯᄏᆞ르 놓곡 헤근에.(삶아서 푹 삶아서 그릇에 덜어 놔두고서 끓일 만큼씩 된장에 놔서 끓여서. 메밀가루 넣고 해서.)

107023 @ 아, 거기는 ᄆᆞᆯᄏᆞ르 놔야 뒈예. 넙페국예.(아, 거기는 메밀가루 놔야 되어. 넓패국요.)

107023 #1 넙페국엔.(넓패국엔.)

107023 @ 그다음에 가시리도 아까 국 헤?(그다음에 풀가사리도 아까 국 해?)

107023 #1 예.(예.)

107023 @ 가시리도 국허곡, ᄑᆞ레?(풀가사리도 국하고, 파래?)

107023 #1 ᄑᆞ레도 먹는 ᄑᆞ레가 잇엇수다.(파래도 먹는 파래가 있었습니다.)

107023 @ 예.(예.)

107023 #1 먹는 ᄑᆞ레가 잇주, 좀진 거.(먹는 파래가 있지, 자잘한 거.)

107023 @ 음.(음.)

107023 #1 ᄑᆞ레국도 막 좋읍네다.(파래국도 아주 좋습니다.)

107023 @ 아.(아.)

107023 #1 가시리에 서껑도 막 좋고.(풀가사리에 섞어서도 아주 좋고.)

107023 @ 예, 것도 ᄑᆞ렛국이렌 헤예?(예, 것도 파랫국이라고 해요?)

107023 @ 예.(예.)

107023 #1 그다음에 물훼 같은 것도 하영 먹어서예?(그다음에 물회 같은 것도 많이 먹었지요?)

107023 #1 물훼게. 자리훼도 물훼. 셍선, 셍선엔 헌 거.(물회. 자리회도 물회. 옥돔, 옥돔이라고 한 거.)

107023 @ 음.(음.)

107023 #1 셍선으로 물훼허곡. 소라도 물훼허고.(옥돔으로 물회하고. 소라도 물회하고.)

107023 @ 음.(음.)

107023 #1 헤삼도 물훼 허고. 물훼 못허는 게 잇어? 바다, 바당에 거 다 물훼도 허곡.(해삼도 물회 하고. 물회 못하는 게 있어? 바다, 바다에 거 다 물회도 하고.)

107023 @ 이 바당에도 헤숨 많이 나마씨?(이 바다에도 해삼 많이 나요?)

107023 #1 예.(예.)

107023 @ 음. 거난 토렴 이런 식으로 써 잇더라고양.(음. 그러니까 토렴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107023 #1 겨울에 이디양. 하나에 한 이 키로짜리도 잇고.(겨울에 여기요. 하나에 한 이 킬로짜리도 있고.)

107023 @ 어.(어.)

107023 #1 이 키로 오벡짜리도 잇고.(이 킬로 오백짜리도 있고.)

107023 @ 완전 크겟네.(완전 크겠네.)

107023 #1 아이고, 이만씩 이만씩 헤여.(아이고, 이만큼씩 이만큼씩 해.)

107023 @ 아.(아.)

107023 #1 저 먼바당에 강 잡아 와. 그런 거 막 ᄒᆞ루에 막 이십 키로썩 십 키로썩 해녀가.(저 먼바다에 가서 잡아 와. 그런 거 아주 하루에 막 이십 킬로씩 십 킬로씩 해녀가.)

107023 @ 음.(음.)

107023 #1 막 경 잡주.(아주 그렇게 잡지.)

107023 @ 여긴 헤삼이 많구나. 그럼 여기는 옛날부터 토렴을 헹 먹은 거라마씨?(여긴 해삼이 많구나. 그럼 여기는 옛날부터 토렴을 해서 먹은 거네요?)

107023 #1 토렴. 옛날엔 돈 안 줄 때난게.(토렴. 옛날엔 돈 안 줄 때니까.)

107023 @ 음.(음.)

107023 #1 옛날엔 그 바당에 강 잡앙 온 게 아니고, 그 돈 안 줄 때난 심썽 잡질 아녀니까.(옛날엔 그 바다에 가서 잡아서 온 게 아니고, 그 돈 안 줄 때니까 힘써서 잡질 않으니까.)

107023 @ 음.(음.)

107023 #1 그냥 속옷만 입을 때주. 고무옷 안 입엉.(그냥 속옷만 입을 때지. 고무옷 안 입어서.)

107023 @ 예.(예.)

107023 #1 우리도 속곳만 입을 땐디 여기 저 갯것이 이디서 그 바당은 가젠 허민 ᄒᆞᆫ 아이고 전봇대 ᄒᆞᆫ 여, 그ᄁᆞ장 세와 가젠 허민 ᄒᆞᆫ 스무남은 개 세와야 그 거리라양.(우리도 속곳만 입을 땐데 여기 저 갯가 여기서 그 바다는 가려고 하면 한 아이고 전봇대 한 여, 그까지 세워 가려고 하면 한 스무남은 개 세워야 그 거리에요.)

107023 @ 아.(아.)

107023 #1 겐디 눈 올 때가 많이 나. 헤솜이.(그런데 눈 올 때가 많이 나. 해삼이.)

107023 @ 헤솜이?(해삼이?)

107023 #1 눈 파딱파딱 오는디, 이 바당에 간에 물에 들언 보난 헤삼이 이레착 저레착 이레착 저레착 막 그냥 모살 잇인 디영 머흘에영 막. 게, 속곳 입은 냥 얼만 못 살주게.(눈 파딱파딱 오는데, 이 바다에 가서 물에 들어서 보니까 해삼이 이리 저리 이리 저리 막 그냥 모래 있는 데랑 돌무더기랑 막. 게, 속곳 입은 냥 춥기만 못 살지.)

107023 @ 게니까.(그러니까.)

107023 #1 눈 올 때고 추웡은엥에.(눈 올 때고 추워서.)

107023 @ 어.(어.)

107023 #1 경 허영 기자 잠깐 잡아낭 에이구, 질구덕에 놩 그거 메삭메삭 지어아졍 오랑 돈 안 줄 때난 토렴도 헤영 먹고, 기자 쏢앙도 먹곡. 쏢으민 저 ᄒᆞ꼼 영 물 빠져근에 또락또락허민 꼬들꼬들허주.(그렇게 해서 그저 잠깐 잡아서 에이구, '질구덕'에 놔서 그거 '메삭메삭' 지어가지고 와서 돈 안 줄 때니까 토렴도 해서 먹고, 그저 삶아서도 먹고. 삶으면 저 조금 이렇게 물 빠져서 쫄깃쫄깃하면 꼬들꼬들하지.)

107023 @ 아.(아.)

107023 #1 해삼 쌂앙. 경도 헹 먹고 헤삼이 오죽.(해삼 삶아서. 그렇게도 해서 먹고 해삼이 오죽.)

107023 @ 잘도 좋은 건디?(잘도 좋은 건데?)

107023 #1 예, 아이그. 요샌 돈 주는 때문에 잡는 사름도 안 먹읍니다.(예, 아이고. 요샌 돈 주는 때문에 잡는 사람도 안 먹습니다.)

107023 @ (웃음).

107023 #1 서방도 안 줘.(서방도 안 줘.)

107023 @ 서방도 안 줘. 돈예, 아. 이거 토렴이라는 거는 살짝?(서방도 안 줘. 돈요, 아. 이거 토렴이라는 거는 살짝?)

107023 #1 데우친 거.(데친 거.)

107023 @ 데우친 거. 게난 옛날부터 이 온평리는 그 해숨 토렴이?(데친 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온평리는 그 해삼 토렴이?)

107023 #1 예, 잔치 때나 뭐헐 때도 그 해숨 토렴헤근엥에 손님덜안티 대접허곡 헤낫수게게.(예, 잔치 때나 뭐할 때도 그 해삼 토렴해서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했었습니다.)

107023 @ 음. 여기가 많으니까예?(음. 여기가 많으니까요?)

107023 #1 그만큼 많이 나고 돈은 안 주는 거난게.(그만큼 많이 나고 돈은 안 주는 거니까.)

107023 @ 그렇구나.(그렇구나.)

107023 #1 으.(으.)

107023 @ 우리는 저쪽에는 구경도 잘 못허는 건디.(우리는 저쪽에는 구경도 잘 못하는 건데.)

107023 #1 으, 경 잔치 때도 계속 그거 헤낫수게. 돈 안 줄 때.(으, 그렇게 잔치 때도 계속 그거 했었습니다. 돈 안 줄 때.)

107023 @ 아.(아.)

107023 #1 돈 주기 시작헤 부난 풀기 시작헷주.(돈 주기 시작해 버리니까 팔기 시작했지.)

107023 @ 여기에서는 이제 그, 그것도 이제 물훼 하는 거고예?(여기에서는 이제 그, 그것도 이제 물회 하는 거고요?)

107023 #1 음.(음.)

죽류

107024 @ 죽 같은 거, 옛날에는 쌀이 부족허니까 죽을 하영 헤영 먹엇잖아예? 죽은 어떤 죽들 헤영 먹엇수가? 보통은.(죽 같은 거, 옛날에는 쌀이 부족하니까 죽을 많이 해서 먹었잖아요? 죽은 어떤 죽들 해서 먹었습니까? 보통은.)

107024 #1 좁쏠로도 죽 쒕 먹곡, 보리쏠도 쒕 먹곡.(좁쌀로도 죽 쒀서 먹고, 보리쌀도 쒀서 먹고.)

107024 @ 음.(음.)

107024 #1 쏠엔 헌 건 다 죽 쒕 먹주. 겐디 피쏠로 쑨 거는 또 헤영헌 곤죽 닮앙 더 맛이 좋곡.(쌀이라고 한 건 다 죽 쒀서 먹지. 그런데 핍쌀로 쑨 거는 또 하얀 흰죽 같아서 더 맛이 좋고.)

107024 @ 헤영허곡.(하얗고.)

107024 #1 헤영허난에.(하야니까.)

107025 @ 예. 그 곤죽은?(예. 그 흰죽은?)

107025 #1 곤죽이엔 헌 건게 쌀.(흰죽이라고 한 거는 쌀.)

107025 @ 예.(예.)

107025 #1 산뒤쏠로 쑨 건 곤죽.(밭벼쌀로 쑨 건 흰죽.)

107025 @ 음, 건 아무 때나 먹지 못허지 아녕니까?(음, 건 아무 때나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107025 #1 아무 때난 엇엉 못 먹으난에게. (웃음)(아무 때난 없어서 못 먹으니까. (웃음))

107025 @ 거 곤죽.(거 흰죽.)

107025 #1 곤죽.(흰죽.)

107025 @ 예, 곤죽 맛 좋아예? 맛 좋아.(예, 흰죽 맛 좋지요? 맛 좋아.)

107025 #1 게난 어떤 사름이 그때 나도 아이고, 감기나 들려 벼시민 곤죽이나 흔번 얻어먹을 걸. (웃음) 앚안 놀멍 경 골은디 밤에 간 누난 복삭 독감 걸련.(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때 나도 아이고, 감기나 들려 버렸으면 흰죽이나 한번 얻어먹을 걸. (웃음) 앉아서 놀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밤에 가서 누우니까 폭삭 독감 걸렸어.)

107025 @ 아.(아.)

107025 #1 아이고, 게난 게메 벵이 다 알아듣는 거난 경 말허는 거 아니엔 허멍덜 헤낫주. 복삭 독감 걸련 얼먹어낫주.(웃음)(아이고, 그러니까 글쎄 병이 다 알아듣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들 했었지. 폭삭 독감 걸려서 언걸먹었었지.(웃음))

107025 @ 그 곤죽도 쒄 먹엇덴마씨? (웃음)(그 흰죽도 쒀서 먹었다고해요? (웃음))

107025 #1 오죽 어려와사.(오죽 어려워야.)

107025 @ 게난 감기 헐 때는 곤죽 같은 거 잘 쒕 준 거라예?(그러니까 감기 할 때는 흰죽 같은 거 잘 쒀서 준 거네요?)

107025 #1 으게, 밥 못 먹으난에.(으, 밥 못 먹으니까.)

107025 @ 음.(음.)

107025 #1 게곡 그것도 곤죽도 잇인 사름 쒀 줫주, 읏인 사름은 좁쌀 조축 쒕 주주.(그러고 그것도 흰죽도 있는 사람 쒀서 줬지, 없는 사람은 좁쌀 조죽 쒀서 주지.)

107026 @ 조축예?(조죽요?)

107026 #1 으.(으.)

107026 @ 게난 조축이 흔헌 거구나.(그러니까 조죽이 흔한 거구나.)

107026 #1 조축.(조죽)

107026 @ 영양으론 조축이 더 좋을 거 닮은디 이제는?(영양으론 조죽이 더 좋을 거 같은데 이제는?)

107026 #1 더 좋주게.(더 좋지.)

107026 @ 예.(예.)

107026 #1 조축 좋주.(조죽 좋지.)

107027 @ 조축 헹은에 이제 쑤곡. 풋죽은 어떵 허는 거?(조죽 해서 이제 쑤고. 팥죽은 어떻게 하는 거?)

107027 #1 풋은게. 풋, 풋도 것도 삶아사 문, 주물렁 놔야 죽이 뒈는 거난.(팥은. 팥, 팥도 것도 삶아야 문, 주물러서 놔야 죽이 되는 거니까.)

107027 @ 음.(음.)

107027 #1 동풋으론 맛이 엇주게, 두글락두글락헤영. 주물렁 놩게 쏠에 흔듸 놩 쒕.(통팥으론 맛이 없지, 두툴두툴해서. 주물러서 놔서 쌀에 함께 놔서 쒀서.)

107027 @ 평소에는 저기 풋죽은 잘 쑤지 안 허지 아념니까?(평소에는 저기 팥죽은 잘 쑤지 안 하지 않습니까?)

107027 #1 사름 죽어사만.(사람 죽어야만.)

107027 @ 음. 사름 죽어사만 풋죽 쑤는 거? 경 헹 그 사돈칩의예?(음. 사람 죽어야만 팥죽 쑤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사돈집에요?)

107027 #1 사름 죽어사만 이녁 집의서 헤도.(사람 죽어야만 이녁 집에서 해도.)

107027 @ 으.(으.)

107027 #1 죽어사만 이녁 집의서 영장낫다 허민 우선은 죽을 쑤주게. 풋죽을.(죽어야만 이녁 집에서 영장났다 하면 우선은 죽을 쑤지. 팥죽을.)

107027 @ 아아.(아아.)

107027 #1 이녁 집의서.(이녁 집에서.)

107027 @ 이녁 집의서부터?(이녁 집에서부터?)

107027 #1 들어오기 전에.(들어오기 전에.)

107027 @ 음.(음.)

107027 #1 죽으민 우선 죽을 쒀근에 그 매장[376]헌 어른덜이영 방상덜이영 다 먹엉 잇어사 죽은 성복나사 들어오주.(죽으면 우선 죽을 쒀서 그 '매장한' 어른들이랑 친척들이랑 다 먹어서 있어야 죽은 성복해야 들어오지.)

376) 여기에서 '매장'은 시신에 옷을 입히고, 베 따위로 시신을 감싸는 일을 말한다.

107027 @ 으음, 게난 아예, 이제 돌아가시면 여기는 풋죽부떠 쑤는구나예?(으음, 그러니까 아예, 이제 돌아가시면 여기는 팥죽부터 쑤는군요?)

107027 #1 음, 아파근에 안 살암직허다 허민 풋 엇이민 강 우선 사당 놔둬야지.(음, 아파서 안 살듯하다 하면 팥 없으면 가서 우선 사다가 놔둬야지.)

107027 @ 요즘도 경 헙니까?(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107027 #1 요즘도. 요즘은 저 식당에, 저 벵원에서 헤 부는 따문에 죽을 안 쒕 그디 강 돈 줭 상 허는 건디 그디 가기 전에ᄁᆞ장은 그디 가는 것도 흔 십년.(요즘도. 요즘은 저 식당에, 저 병원에서 해 버리는 때문에 죽을 안 쒀서 거기 가서 돈 줘서 사서 하는 건데 거기 가기 전에까지는 거기 가는 것도 한 십년.)

107027 @ 예, 예, 맞아.(예, 예, 맞아.)

107027 #1 그 정도벳긔 안 뒛수다. 그 전에는 집의서 꼭 죽을 쒀야 뒈여.(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집에서 꼭 죽을 쒀야 되어.)

107027 @ 으음.(으음.)

107027 #1 그 죽 쑤는 의미는 뭐냐? 상제덜이 부모가 돌아갓다 허민은 탁 가슴에 멕히거든.(그 죽 쑤는 의미는 뭐냐? 상제들이 부모가 돌아갔다 하면 탁 가슴에 막히거든.)

107027 @ 음.(음.)

107027 #1 그, 그 뜻이 그거랍니다. 탁 멕히니까, 죽은.(그, 그 뜻이 그거랍니다. 탁 막히니까, 죽은.)

107027 @ 내려가게.(내려가게.)

107027 #1 얇은 거니까 그걸 내려가기 위헤서 상제덜 가슴 멕히지 아녕 내려가기 위헤서 죽은 허는 거고.(얇은 거니까 그걸 내려가기 위해서 상제들 가슴 막히지 않아서 내려가기 위해서 죽은 하는 거고.)

107027 @ 음.(음.)

107027 #1 게난 밥은 성복 그 입관헤 분 다음이라사 관 소곱에 들여놔 분 다음이라사 밥을 먹엇수게.(그러니까 밥은 성복 그 입관해 버린 다음이어야 관 속에 들여놔 버린 다음이어야 밥을 먹었습니다.)

107027 @ 아아.(아아.)

107027 #1 영장나면.(영장나면.)

107027 @ 영장난 때.(영장난 때.)

107027 #1 예.(예.)

107027 @ 그래서 이제 죽을 쑤는 거고.(그래서 이제 죽을 쑤는 거고.)

107027 #1 예.(예.)

107028 @ 콩죽도 하영 헤 먹엇덴 허멍예?(콩죽도 많이 해 먹었다고 하면서요?)

107028 #1 예, 콩죽도 마찬가지로 기자 그치룩.(예, 콩죽도 마찬가지로 그저 그처럼.)

107028 @ 게난 콩죽 헐 땐 어떵 식으로 헤마씨?(그러니까 콩죽 할 땐 어떤 식으로

해요?)

107028 #1 콩죽 헐 때 콩ᄀᆞ르만 놩 쑤는 게 아니고 보리쌀이든 쌀이든 ᄒᆞ꼼 놔사 쑤는 거난에, 콩죽은.(콩죽 할 때 콩가루만 놔서 쑤는 게 아니고 보리쌀이든 쌀이든 조금 놔야 쑤는 거니까, 콩죽은.)

107028 @ 아.(아.)

107028 #1 으, 것만 놓는 거 아니난. 게난 그것도 언물에 카근엥에 솟듸서 언물에 카근에 아예 쑤민 뒈는 거.(으, 것만 놓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찬물에 타서 솥에서 찬물에 타서 아예 쑤면 되는 거.)

107028 @ 아, 쌀이랑 같이 것도 놩예?(아, 쌀이랑 같이 것도 놔서요?)

107028 #1 으, 젓으멍.(으, 저으면서.)

107029 @ 젓으멍은예? 여기도 모물축 같은 것도 쒄?(저으면서요? 여기도 메밀죽 같은 것도 쒔어요?)

107029 #1 예, 모물축은 이제도 모물쏠 사당 헹 먹주, 아프민.(예, 메밀죽은 이제도 메밀쌀 사다가 해서 먹지, 아프면.)

107029 @ 아아.(아아.)

107029 #1 감기 걸릴 때도양 모물축 먹엉 똠 내와사 파뿌리 놔근엥예.(감기 걸릴 때도요 메밀죽 먹어서 땀 내워야 파뿌리 놔서요.)

107029 @ 예, 예.(예, 예.)

107029 #1 경 허영 먹어사 똠 내우곡.(그렇게 해서 먹어야 땀 내우고.)

107029 @ 으음.(으음.)

107029 #1 이제도.(이제도.)

107029 @ 요즘도 삼춘은 모물축은.(요즘도 삼촌은 메밀죽은.)

107029 #1 예.(예.)

107029 @1 헹은에 쑤는 거고예?(해서 쑤는 거고요?)

107029 #1 예, 예.(예, 예.)

107029 @ 나는 저쪽 성읍에 그때 행사헐 때 간 보난 모몰축 헹은에 처음 먹어봔마씨. 맛 좋더라고.(나는 저쪽 성읍에 그때 행사할 때 가서 보니까 메밀죽 해서 처음 먹어봤어요. 맛 좋더라고.)

107029 #1 성읍리?(성읍리?)

107029 @ 예.(예.)

107029 #1 민속촌.(민속촌.)

107030 @ 그 축제헐 때. 그다음에 녹두죽?(그 축제할 때. 그다음에 녹두죽?)

107030 #1 녹두죽도 막 맛잇주. 풋죽보단 맛 좋아, 녹두죽이.(녹두죽도 아주 맛있지. 팥죽보단 맛 좋아, 녹두죽이.)

107030 @ 녹두죽이.(녹두죽이.)

107030 #1 겐디 녹두죽은 한약 먹는 사름은 못 먹는 따문에 녹두가.(그런데 녹두죽은 한약 먹는 사람은 못 먹는 때문에 녹두가.)

107030 @ 예, 예.(예, 예.)

107030 #1 으, 경 허는 따문에.(으, 그렇게 하는 때문에.)

107030 @ 옛날엔 녹두죽들도 그냥 헹 먹은 거 아니라예?(옛날엔 녹두죽들도 그냥 해서 먹은 거 아닌가요?)

107030 #1 다 밧듸 싱거근엥에. 녹두 돔비.(다 밭에 심어서. 녹두 동부.)

107030 @ 으.(으.)

107030 #1 이, 돔비. 겨울에는 앚인베기콩 두불콩엔 허영.(이, 동부. 겨울에는 강낭콩 '두불콩'이라고 해서.)

107030 @ 예.(예.)

107030 #1 그런 거 다 집의 싱것당 풀지 아녀난에 양석으로벳긘 더 먹엇수가?(웃음)(그런 거 다 집에 심었다가 팔지 않으니까 양식으로밖엔 더 먹었습니까?)(웃음)

107030 @ 으음. 맞아예.(으음. 맞아요.)

107030 #1 예.(예.)

107032 @ 경 허고 삼춘, 갱죽이렌 헌 거 들어봅디가?(그렇게 하고 삼촌, 갱죽이라고 한 거 들어봅디까?)

107032 #1 겡이?(게?)

107032 @ 으, 겡이죽도?(으, 게죽도?)

107032 #1 겡이죽이주, 겡죽이 아니고.(게죽이지, 갱죽이 아니고.)

107032 @ 으, 으.(으, 으.)

107032 #1 예, 그거 우리도 막 쒀근엥에 식당에도 풀아낫주.(예, 그거 우리도 막 쒀서 식당에도 팔았었지.)

107032 @ 겡이죽을?(게죽을?)

107032 #1 존존헌 겡이.(자잘한 게.)

107032 @ 그다음에 옛날에 웨 쏠들 귀허고 허면 막 ᄂᆞ물 하영 놩 국죽.(그다음에 옛날에 왜 쌀들 귀하고 하면 막 나물 많이 놔서 갱죽.)

107032 #1 (웃음)

107032 @ 삼춘네도 국죽 먹어봔?(삼촌네도 갱죽 먹어봤어요?)

107032 #1 (웃음). 거 (웃음) 쏠이 족곡 쉬정이 하민.((웃음). 거 (웃음) 쌀이 적고 숫자가 많으면.)

107032 @ 으.(으.)

107032 #1 거 (웃음) 국죽엔 안 헹 기자 저 죽 쑤는 디 호박입여 무시거여 놔근에 쒕 먹는, 국죽엔 말은 안 허고 기자. 으, 죽 쒄 호박입 놩 죽 쒓저 허주.(거 (웃음) 갱죽이라고 안 해서 그저 저 죽 쑤는 데 호박잎이다 무엇이다 놔서 쒀서 먹는, 갱죽이라는 말은 않고 그저. 으, 죽 쒀서 호박잎 놔서 죽 쒔지 하지.)

107032 @ 호박입도 놩 죽 쒀?(호박잎도 놔서 죽 쒀?)

107032 #1 으, 호박입도 놩 코싱헙니다.(으, 호박잎도 놔서 구수합니다.)

107032 @ 아아.(아아.)

107032 #1 그 죽 쑬 때에. (웃음)(그 죽 쑬 때에. (웃음))

107033 @ 호박입 놩 죽 쑤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뭐 여기 꿩죽 같은 경우?(호박잎 놔서 죽 쑤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뭐 여기 꿩죽 같은 경우?)

107033 #1 꿩.(꿩.)

107033 @ 으.(으.)

107033 #1 에게, 꿩게. 옛날에는 막 총 쏘앙 잡곡 약 놩 잡곡 헷수게게.(예, 꿩. 옛날에는 막 총 쏘아서 잡고 약 놔서 잡고 했습니다.)

107033 @ 예.(예.)

107033 #1 으, 꿩 잡아다근에 죽 쒕 먹주게.(으, 꿩 잡아다가 죽 쒀서 먹지.)

107033 @ 음.(음.)

107033 #1 죽 쒕 먹고. 에기덜 주리벵[377]. 옛날은 주리벵 허는 애기가 하난에. 주리벵 허는 애기덜 꿩고기 헹은에 참기름 불랑 구웡 그 애기덜 멕이면은 살로, 앞가슴살로. 경 헹 멕이면은 그 애기덜이 원기를 뒈살령이, 젤 보약이엔 허주 애기덜은.(죽 쒀서 먹고. 아기들 '주리벵'. 옛날은 '주리벵' 하는 아기가 많으니까. '주리벵' 하는 아기들 꿩고기 해서 참기름 발라서 구워서 그 아기들 먹이면 살로, 앞가슴살로. 그렇게 해서 먹이면 그 아기들이 원기를 되살려서, 젤 보약이라고 하지, 아기들은.)

107033 @ 아아, 꿩 앞가슴술 허고.(아아, 꿩 앞가슴살 하고.)

107033 #1 경 허민 그때 시절에는 개 질루멍, 사냥개 질롸근에 꿩 잡는 하르방이 잇엇어양.(그렇게 하면 그때 시절에는 개 기르면서, 사냥개 길러서 꿩 잡는 할아버지 있었어요.)

107033 @ 으음.(으음.)

107033 #1 게민 그 하르방이. 지금 막 꿩비에기가 막 너미 늙어 벳주, 지금은.(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지금 막 꿩병아리가 막 너무 늙어 버렸지, 지금은.)

107033 @ 지금은?(지금은?)

107033 #1 으, 정월에 깨운 비에기는 삼스월에 잡아야 뒈곡.(으, 정월에 깐 꿩병아리는 삼사월에 잡아야 되고.)

107033 @ 예.(예.)

107033 #1 지금은 막 큰 꿩 뒈 볏주게.(지금은 아주 큰 꿩 되 버렸지.)

107033 @ 예, 예.(예, 예.)

107033 #1 예, 게난 삼스월에 깨운 꿩이 그것도 지금 막 비둘기만씩 커 벳주.(예, 그러니까 삼사월에 깐 꿩이 그것도 지금 막 비둘기만큼씩 커 버렸지.)

107033 @ 음.(음.)

107033 #1 경 헤영 그거 개 둘앙 강, 막 그디 주문헷당.(그렇게 해서 그거 개 데려서 가서, 막 거기 주문했다가.)

107033 @ 음.(음.)

---

377) '주리벵'은 제대로 먹지 못해 걸리는 영양실조를 말한다. '주리다'의 어간 '주리'에 '병'의 제주어 '벵'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어휘다.

107033 #1 으, 꿩비에기 잡아다 줍센 헤영. 경 헤영 그거 사근엥에 에기덜 보약으로 그거 헨 멕연.(으, 꿩병아리 잡아다 주십사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 사서 아기들 보약으로 그거 해서 먹여서.)

107033 @ 삼춘도 그렇게 헤영 키왕?(삼촌도 그렇게 해서 키워서?)

107033 #1 아, 우리 애기덜은 경 허지 아년.(아, 우리 아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107033 @ 경 안하고?(그렇게 안하고?)

107033 #1 우리 애기덜은 젓이 하 부난에.(우리 아기들은 젖이 많아 버리니까.)

107033 @ 예.(예.)

107033 #1 난 놈의 애기 다 멕이멍 키와시난.(난 놈의 아기 다 먹이면서 키웠으니까.)

107033 @ 아아.(아아.)

107033 #1 우리 **이 난 땐 애기 세 개 멕엿어.(우리 **이 낳을 땐 아기 세 개 먹였어.)

107033 @ 음.(음.)

107033 #1 삼 개월 동안. **인, **이가 ᄉᆞ월 저 스무ᄋᆞ드렛날 나고, 이디 사촌 열나을날 나고 또 우리 갑장 아이 하나가 저 스무나흗날 나고 허난에 그 애기어멍이 병 걸련에 병원에 입원헤 부난.(삼 개월 동안. **인, **이가 사월 저 스무여드렛날 나고, 여기 사촌 열나흗날 나고 또 우리 갑장 아이 하나가 저 스무나흗날 나고 하니까 그 아기어머니가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버리니까.)

107033 @ 음.(음.)

107033 #1 애긴 나 놓고 입원헤 부난 그 웨할망이, 웨할망이 기자, 기자 무주건 기자 우리 눵 잠서도 애기만 울민 안앙 ᄃᆞᆯ아와.(아긴 낳아 놓고 입원해 버리니까 그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저, 그저 무조건 그저 우리 눠서 자고 있으면서도 아기만 울면 안아서 데려와.)

107033 @ 음.(음.)

107033 #1 젓 멕여 ᄃᆞ렌. 게고 저 우리 셋동세는 이 유방은 막 커도 젓이 원 없어.(젖 먹여 달라고. 그러고 저 우리 둘째동서는 이 유방은 아주 커도 젖이 전혀 없어.)

107033 @ 음.(음.)

107033 #1 물이 원 엇어. 원 엇이난에 애기덜마다 그 엿날도 우리 아지방이 워낙 부지런허난에 우유 그 저 ᄀᆞ르.(물이 전혀 없어. 전혀 없으니까 아기들마다 그 옛날도 우리 아주버니가 워낙 부지런하니까 우유 그 저 가루.)

107033 @ 예, 예, 예.(예, 예, 예.)

107033 #1 나온 거. 그 우유로 애기덜을 키와신디.(나온 거. 그 우유로 아기들을 키웠는데.)

107033 @ 으.(으.)

107033 #1 그 막내 그 ○○이영 ᄀᆞ치 난 아덜은 나가 키왓주. 육 개월 동안 젓 멕여

줜.(그 막내 그 ○○이랑 같이 난 아들은 내가 키웠지. 육 개월 동안 젖 먹여 줘서.)

107033 @ 음.(음.)

107033 #1 그 저 친구 애기는 삼 개월만 멕이고. 우리 씨어머니가 막 욕허연.(그 저 친구 아기는 삼 개월만 먹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막 욕해서.)

107033 @ 음.(음.)

107033 #1 이젠 애기가 다 큰디, 세 개 먹어나민 어멍이 살아지느넨, 것덜 튿어 먹으민.(이젠 아기가 다 컸는데, 세 개 먹어나면 어머니가 살아지느냐고, 것들 뜯어 먹으면.)

107033 @ 음.(음.)

107033 #1 게난 ○○이는 제집아이고 둘린 ᄉᆞ나이고.(그러니까 ○○이는 계집아이고 둘은 사내고.)

107033 @ 음.(음.)

107033 #1 겐디 ○○이는 제집아이, 게난 할망이 씨어멍이 왕 젓 멕을 때 왕 경 허여. 아이고, 영 허난 부젯집 사름은 암만 무시거 헤도 미두허는[378] 거주.(그런데 ○○이는 계집아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와서 젖 먹을 때 와서 그렇게 해.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부잣집 사람은 암만 무엇 해도 '미두허는' 거지.)

107033 @ 음.(음.)

107033 #1 이거 보라, 이 년의 ᄌᆞ석은 이거. 혼듸 먹으민 헤 허영 안 먹엄세, 안 먹엄시네 허멍. 난 이거 유방이 쯔끌락헤도 여물이 경 하근에양.(이거 보라, 이 년의 자식은 이거. 함께 먹으면 헤 해서 안 먹고 있네, 안 먹고 있네 하면서. 난 이거 유방이 자그마해서도 여물이 그렇게 많아서요.)

107033 @ 아.(아.)

107033 #1 여물이 하근에 것ᄀᆞ라 무신 곱젓[379]이엔 헨가. 막 애기덜 막 크는 젓이엔 곱젓.(여물이 많아서 것보고 무슨 '곱젓'이라고 하던가. 막 아기들 막 크는 젖이라고 '곱젓'.)

107033 @ 음.(음.)

107033 #1 곱젓이엔 허멍 그냥 세 갤 경 멕여시난에게.('곱젓'이라고 하면서 그냥 세 갤 그렇게 먹였으니까.)

107033 @ 음. 게난 영양이 그만큼 많은 거지. 그게 곱젓?(음. 그러니까 영양이 그만큼 많은 거지. 그게 '곱젓'?)

107033 #1 곱젓.('곱젓'.)

107033 @ 음.(음.)

107033 #1 젓 이름이 곱젓이엔 헤영.(젖 이름이 '곱젓'이라고 해서.)

107031 @ 으음, 맞수다. 그다음에 ᄃᆞᆨ죽도 하영 헤예?(으음, 맞습니다. 그다음에 닭죽도 많이 하지요?)

---

378) '미두허다'는 마음에 믿음성이 있어서 안심하다는 의미다.

379) '곱젓'은 기름기가 많은 젖이다.

107031 #1 둑죽은 이제도 쒕 먹읍니께.(닭죽은 이제도 쒀서 먹읍니다.)

107031 @ 게니까 옛날에는 유월 쓰무날은 둑죽은 꼭 헤영 먹은 거 아니?(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월 스무날은 닭죽은 꼭 해서 먹은 거 아니?)

107031 #1 예. 그 방법으로 그것도.(예. 그 방법으로 그것도.)

107031 @ 아.(아.)

107031 #1 유월 쓰무날 뭐헌 방법이냐? 옛날은 이거 해각이라 부난.(유월 스무날 뭐한 방법이냐? 옛날은 이거 해변이어 버리니까.)

107031 @ 예.(예.)

107031 #1 몸살. 이 붓는몸살[380]이엔 헌 게 잇주.(몸살. 이 '붓는몸살'이라고 한 게 있지.)

107031 @ 음.(음.)

107031 #1 바당에 이 기운으로.(바다에 이 기운으로.)

107031 @ 아아.(아아.)

107031 #1 그 체질에 따랑.(그 체질에 따라서.)

107031 @ 예, 예.(예, 예.)

107031 #1 게민이 발 흔쪽 허곡 이 풀 흔쪽 허고 손이영 막 이만큼씩 붓어양.(그러면 발 한쪽 하고 이 팔 한쪽 하고 손이랑 막 이만큼씩 부어요.)

107031 @ 아아, 경 헤낫수가?(아아, 그렇게 했었습니까?)

107031 #1 예, 그런 벵이 잇수다. 이 바다 쪽에는.(예,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 바다 쪽에는.)

107031 @ 음.(음.)

107031 #1 게영 우리도 친정어머니가 그 벵을 헤양. 그걸 허게 뒈민 몸살 시작허기 뒈민 막 털어.(그렇게 해서 우리도 친정어머니가 그 병을 해요. 그걸 하게 되면 몸살 시작하기 되면 막 떨어.)

107031 @ 음.(음.)

107031 #1 막 털민 막 이불 두 개 세 개 더꺼도 소용없어, 막. 멧 시간 동안.(막 떨면 막 이불 두 개 세 개 덮어도 소용없어, 막. 몇 시간 동안.)

107031 @ 여름에 학질?(여름에 학질?)

107031 #1 여름이라도. 막 털어 놓면은 그다음에는 막 그 열이 막 내푸끄주게.(여름이어도. 막 떨어 놓으면 그다음에는 막 그 열이 막 내뿜지.)

107031 @ 으음.(으음.)

107031 #1 경 막 열이 막 내푸껑 막 더흘헤[381]. 게난 그것에 임시 조치헐 거는 고기, 바닷고기 중에 솔치엔 헌 거 들어봅디가?(그렇게 막 열이 막 내뿜어서 아주 '더흘해'. 그러니까 그것에 임시 조치할 거는 고기, 바닷고기 중에 쑤기미라고 한 거 들어봅디까?)

---

380) '붓는몸살'은 몸이 부으면서 몸살이 동반하는 병을 말한다.

381) '더흘허다'는 '심신에 큰 고통을 받아서 회복이 안 되어 시달려' 하는 뜻이다. 달리 '더을허다'라고도 한다.

107031 @ 예, 예, 예. 솔치.(예, 예, 예. 쑤기미.)

107031 #1 솔치 가시 찔르민 혼 나는 거. 그것이 약이라양.(쑤기미 가시 찌르면 혼이 나는 거. 그것이 약이예요.)

107031 @ 아.(아.)

107031 #1 그 벵에는. 게난 그거 뱃머리 강 그거 잡아오는 사름 이시민 그거 빌어다근에 옛날은 돈 안 줘. 이젠 거 막 비싼덴 헨게. 겡 빌어다근에 그거 쭉 쒀근엥에 죽 쑤든 끌리는 헹 환자를 먹이면은, 먹어근엥에 푹허게 더껑 누민 똠이 왈락 날 거 아니우과? 게민 그걸 풀어져.(그 병에는. 그러니까 그거 뱃머리 가서 그거 잡아오는 사람 있으면 그거 빌려다가 옛날은 돈 안 줘. 이젠 거 아주 비싸다고 하던데. 그래서 빌려다가 그거 쭉 쒀서 죽 쑤든 끓이는 해서 환자를 먹이면, 먹어서 푹하게 덮어서 누우면 땀이 흠뻑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풀어져.)

107031 @ 으음.(으음.)

107031 #1 게민 그 벵이 풀어졍양, 게난 그 솔치 구허지 못헐 땐 꺼문우럭[382].(그러면 그 병이 풀어져서요, 그러니까 그 쑤기미 구하지 못할 땐 '꺼문우럭'.)

107031 @ 예, 꺼문우럭?(예, '꺼문우럭'?)

107031 #1 꺼문우럭. 그거, 그거라도 허여근에 그축 허영 허영. 우리 어머니가 그 병 따문에 유월 쓰무날 먹을 수 잇는 듹으로 큰 거 안 헤영.('꺼문우럭'. 그거, 그거라도 해서 그처럼 해서 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 병 때문에 유월 스무날 먹을 수 있는 닭으로 큰 거 안 해서.)

107031 @ 으음.(으음.)

107031 #1 쪼꼬만헌 듹 헤근엥에, 그 먹어난 거 먹어도 그 벵을 올린덴 허주.(자그마한 닭 해서, 그 먹었던 거 먹어도 그 병을 올린다고 하지.)

107031 @ 아.(아.)

107031 #1 경 허난 그걸 이제 스무날 먹을 거난에 저 아흐렛날 저냑이 밤이 잡앙. 잡앙 그 픗 담으곡 헤근엥에 그거 쌂아.(그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스무날 먹을 거니까 저 아흐렛날 저녁에 밤에 잡아서. 잡아서 그 팥 담고 해서 그거 삶아.)

107031 @ 아, 픗도 놩?(아, 팥도 놔서?)

107031 #1 으, 쌂아근엥에 물항 우의양.(으, 삶아서 물독 위에요.)

107031 @ 예.(예.)

107031 #1 옛날엔 항아리 물 놘 먹지 아녓수가? 부억에.(옛날엔 항아리 물 놔서 먹지 않았습니까? 부엌에.)

107031 @ 예, 예.(예, 예.)

107031 #1 게민 물항 우의 그걸 쌂은 걸 건졍 톡허게 놧당.(그러면 물독 위에 그걸 삶은 걸 건져서 톡하게 놨다가.)

107031 @ 으.(으.)

107031 #1 뒷날 아침에, 뒷날 아침에 해, 해가 뿔끗허게 올라올 때에, 그 정짓무뚱

382) '꺼문우럭'은 양볼락과에 속한 바닷물고기다. 색깔이 검어서 붙은 이름이다.

에 앚앙.(뒷날 아침에, 뒷날 아침에 해, 해가 뿔긋하게 올라올 때에, 그 부엌문 앞에 앉아서.)

107031 @ 예.(예.)

107031 #1 정지무뚱에 지팡에 영 걸처앚아근에. 옛날은 정지무뚱 다 지팡이.(부엌문 앞에 지방에 이렇게 걸터앉아서. 옛날은 부엌문 앞 다 지방이.)

107031 @ 예, 예.(예, 예.)

107031 #1 잇어낫주게. 지팡에 걸쳐앚앙 그걸 먹어양.(있었었지. 지방에 걸터앉아서 그걸 먹어요.)

107031 @ 아, 해 올라올 때.(아, 해 올라올 때.)

107031 #1 그걸 먹엉. 으, 해 불끗허게 올라오민 그거 그것이 방법이라양.(그걸 먹어서. 으, 해 불긋하게 올라오면 그거 그것이 비방이어요.)

107031 @ 예.(예.)

107031 #1 그축 허영 그걸 먹어근에 허민 다 못 먹으민 요새나 세멘 헷주, 옛날은 다 땅 아니우과? 마당이.(그처럼 해서 그걸 먹어서 하면 다 못 먹으면 요새나 시멘트 했지, 옛날은 다 땅 아닙니까? 마당이.)

107031 @ 으음.(으음.)

107031 #1 게믄 그 자리에 그걸 파근에 거 묻어 벼. 그 먹당 남은 거를.(그러면 그 자리에 그걸 파서 거 묻어 버려. 그 먹다가 남은 거를.)

107031 @ 음.(음.)

107031 #1 경 헤근에양 나도 역은 후제사 어머니 벵을 고쪄냇수다게.(그렇게 해서요 나도 큰 후에야 어머니 병을 고쳐냈습니다.)

107031 @ 아.(아.)

107031 #1 삼년을 헨 멕이난에 고쪄집디게.(삼년을 해서 먹이니까 고쳐집디다.)

107031 @ 아, 그렇게 헹 삼년을 멕인 거라예? 아아.(아, 그렇게 해서 삼년을 먹인 거네요? 아아.)

107031 #1 유월 스무날만 허난.(유월 스무날만 하니까.)

107031 @ 음.(음.)

107031 #1 경 허난 그 붓은 것도 돌아갈 땐 엇언엔 돌아가셧수다게.(그렇게 하니까 그 부은 것도 돌아갈 땐 없어서 돌아가셨습니다.)

107031 @ 아.(아.)

107031 #1 붓은 것도. 엔간이 못 견디주, 그거.(부은 것도. 여간 못 견디지, 그거.)

107031 @ 게민 한쪽만.(그러면 한쪽만.)

107031 #1 혼쪽만.(한쪽만.)

107031 @ 아이고야.(아이고야.)

107031 #1 양쪽 다 안 붓어. 혼쪽만.(양쪽 다 안 부어. 한쪽만.)

107031 @ 아이고야.(아이고야.)

107031 #1 혼쪽만 풀 다리.(한쪽만 팔 다리.)

107031 @ 아.(아.)

107031 #1 막 기자 민짝 붓어 막.(막 그저 밋밋 부어 막.)

107031 @ 으.(으.)

107031 #1 게민 붓으민 상에떡 잘 핀 거처럼 막 맨짝허게 붓어.(그러면 부으면 상화떡 잘 부푼 것처럼 막 밋밋하게 부어.)

107031 @ 아이고야.(아이고야.)

107031 #1 겐디 그거 아프기 시작허민 막 멧 시간 동안은 대게 얼먹주.(그런데 그거 아프기 시작하면 막 몇 시간 동안은 대게 언걸먹지.)

107031 @ 음, 게난 그렇게 헨에 붓은 병을 무슨 병이렌 헙디가? 여기서는.(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은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합디까? 여기서는.)

107031 #1 것ᄀᆞ라 허민 바당벵[383]엔 헙니다. 벵완에 가민.(것보고 하면 '바당벵'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107031 @ 바당벵.('바당벵'.)

107031 #1 바당벵엔.('바당벵'이라고.)

107031 @ 아아.(아아.)

107031 #1 쭌물 바다에. 게난 이녁 체질에 따라근에 그 벵엔 헙니다게.(짠물 바다에. 그러니까 이녁 체질에 따라서 그 병이라고 합니다.)

107031 @ 음, 처음 들어보멘.(음, 처음 들어봐요.)

107031 #1 으, 그거 붓는몸살 아녀는 지방은 아녀난에 처음 들엄실 거우다.(으, 그거 '붓는몸살' 않는 지방은 않으니까 처음 듣고 있을 겁니다.)

107031 @ 예, 처음 들고 그.(예, 처음 듣고 그.)

107031 #1 웃드르[384] ᄀᆞ뜬 딘 안허주마씨.('웃드르' 같은 덴 안하지요.)

107031 @ 그 방법 헤갖고 ᄃᆞᆨ 헹은에 먹는 것도 처음 듣는 거.(그 방법 해갖고 닭 해서 먹는 것도 처음 듣는 거.)

107031 #1 예에, 그 그치룩 헹 그 벵 고찌는 거.(예, 그 그처럼 해서 그 병 고치는 거.)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예, 그렇구나. 삼춘 어제 여기 범벅 얘기도 헤신디다가 범벅은 뭘로 헹 먹언?(예, 그렇구나. 삼촌 어제 여기 범벅 얘기도 했는데 범벅은 무엇으로 해서 먹었어요?)

107034 #1 범벅은양, 우린 그 엿날에는 딴 거 엇언에게 보릿개역[385], 보릿ᄀᆞ르.(범벅은요, 우린 그 옛날에는 딴 거 없어서 '보릿개역', 보릿가루.)

383) '바당벵'은 바다 일을 하면서 얻은 질병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쪽 팔 다리가 붓고 열이 부풀어 추위를 느끼는 증상이 있는 병이다. 달리 '붓는몸살'이라고 하였다.

384) '웃드르'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한라산 쪽 방향의 마을이다. 달리 바다 쪽 마을은 '알드르'라고 한다.

385) '보릿개역'을 보리를 볶아서 가루를 내어 만든 음식이다. 보리미숫가루다.

107034 @ 보릿ᄀᆞ르.(보릿가루.)

107034 #1 개역이 아니고 개역은 보끈 거고. 보릿ᄀᆞ르허고 밀ᄀᆞ르허고 그런 것만 잇이난에.(미숫가루가 아니고 미숫가루는 볶은 거고. 보릿가루하고 밀가루하고 그런 것만 있으니까.)

107034 @ 예.(예.)

107034 #1 게난 밀ᄀᆞ르범벅은 허민 막, 아이고, 저디 밀ᄀᆞ르범벅헨. 밀ᄀᆞ르는 그때 배급인가 무시거 헤근엥에 웨밀ᄀᆞ르[386] 웨밀ᄀᆞ르 허멍 그 어디서만 들어오는 거.(그러니까 밀가루범벅은 하면 막, 아이고, 저기 밀가루범벅했어. 밀가루는 그때 배급인가 무엇 해서 '웨밀ᄀᆞ르' '웨밀ᄀᆞ르' 하면서 그 어디서만 들어오는 거.)

107034 @ 귀헌 거예?(귀한 거지요?)

107034 #1 ᄉᆞ뭇 귀헤근에 밀ᄀᆞ르. 야, 누게네 밀ᄀᆞ르 산에이 밀ᄀᆞ르저베기 헤영 먹켄 헤라. 얼마나 부러와낫수가게.(사뭇 귀해서 밀가루. 야, 누구네 밀가루 사서 밀가루수제비 해서 먹겠다고 하더라. 얼마나 부러웠었습니까.)

107034 @ 아.(아.)

107034 #1 경 헤나신디게 그거 밀ᄀᆞ르범벅은 허민.(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밀가루범벅은 하면.)

107034 @ 으.(으.)

107034 #1 막 밀ᄀᆞ르범벅 헷젠 허멍 막 허곡. 보릿ᄀᆞ르범벅은 보통으로 다 동네서 다 헤 먹으난.(막 밀가루범벅 했다고 하면서 막 하고. 보릿가루범벅은 보통으로 다 동네서 다 해 먹으니까.)

107034 @ 음.(음.)

107034 #1 경 헹 감저 놓곡 그 보리 저 ᄀᆞ르 놓곡 감저 놔 막 둔탁둔탁 썰어놔근에 솖앙.(그렇게 해서 고구마 놓고 그 보리 저 가루 놓고 고구마 놔서 막 뭉턱뭉턱 썰어놔서 삶아서.)

107034 @ 예.(예.)

107034 #1 솖아지민 거자 솖아지민 그 ᄀᆞ르 우터레 놔.(삶아지면 거의 삶아지면 그 가루 위로 놔서.)

107034 @ 음.(음.)

107034 #1 경 놔근엥에 또 막 불 계속 때면은 그 더운물이 ᄀᆞ르 우에ᄁᆡ장 영 올라오게 뒈주.(그렇게 놔서 또 막 불 계속 때면 그 더운물이 가루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지.)

107034 @ 예.(예.)

107034 #1 게믄 그땐 이젠 남죽으로 막 젓는 거라. 감저 막 헤쓰멍 그거. 게믄 그 범벅도 얼마나 맛 좋아.(그러면 그땐 이젠 죽젓개로 막 젓는 거야. 고구마 막 으깨면서 그거. 그러면 그 범벅도 얼마나 맛 좋아.)

107034 @ 음.(음.)

386) '웨밀ᄀᆞ르'는 토종밀가루에 빗대서 국외에서 들어온 밀가루를 통칭하는 말이다.

107034 #1 지금도 허민 그건 맛 좋을 거라, 몰라도.(지금도 하면 그건 맛 좋을 거야, 몰라도.)

107034 @ 예, 웨냐하면 감저난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느젱이범벅은 여긴 안 허여?(예, 왜냐하면 고구마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느젱이범벅'은 여긴 안 해?)

107034 #1 느젱이게. ᄆᆞᆯ 골아 나민 느젱이범벅도 경 아무디나 잇어낫수가? 옛날에.(나깨. 메밀 갈고 나면 '나께범벅'도 그렇게 아무데나 있었었습니까? 옛날에.)

107034 @ 예.(예.)

107034 #1 잇인 디만 잇엇주.(있는 데만 있었지.)

107034 @ 느젱이범벅.('나깨범벅'.)

107034 #1 느젱이범벅게 ᄆᆞᆯ 골아 나민 그 우에 거.('나깨범벅' 메밀 갈고 나면 그 위에 거.)

107034 @ 음, 게난 범벅 허는 거는 감저 놩 허는 거구나예?(음, 그러니까 범벅 하는 거는 고구마 놔서 하는 거군요?)

107034 #1 감저 놔사.(고구마 놔야.)

107034 @ 아, 다른 게 아니고.(아, 다른 게 아니고.)

107034 #1 경 허곡 저 막 답지는 사름은 감저 엇인 사름은 무우 놩도 헙니다.(그렇게 하고 저 아주 메지는 사람은 고구마 없는 사람은 무 놔서도 합니다.)

107034 @ 아아.(아아.)

107034 #1 우리 흔 해양, 으, 올히ᄁᆞ장 삼년인디 올히 또 이 시월ᄃᆞᆯ 나민 그 축제허는디. 혼인지축제[387]헐 때.(우리 한 해요, 으, 올해까지 삼년인데 올해 또 이 시월 나면 그 축제하는데. 혼인지축제할 때.)

107034 @ 혼인지축제예.(혼인지축제예.)

107034 #1 그때게 옛날 음식으론 전통음식으로 헨에 ᄆᆞᆯ펌벅허고 ᄆᆞᆯ청길 지졋수게게. 하객덜 오는 사름덜 하나썩 맛보렌.(그때 옛날 음식으론 전통음식으로 해서 메밀범벅하고 '메밀정기'를 지졌습니다. 하객들 오는 사람들 하나씩 맛보라고.)

107034 @ 예.(예.)

107034 #1 아이고.(아이고.)

107034 @ 올해는 셍각?(올해는 생각?)

107034 #1 육지 사름덜토 다 먹읍디다.(육지 사람들도 다 먹습디다.)

107034 @ 음.(음.)

107034 #1 범벅이 뭐예요? 범벅이 뭐예요?(웃음)(범벅이 뭐예요? 범벅이 뭐예요?(웃음))

107034 @ 그러니까 그 저기.(그러니까 그 저기.)

107034 #1 버무리난 범벅이지. 이름이.(버무리니까 범벅이지. 이름이.)

387) '혼인지축제'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에서 열리는 축제다. 혼인지는 삼성신화에 나오는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벽랑국에서 온 세 공주를 맞아서 혼인을 한 장소라고 전해지는 전설지다. '혼인지축제'는 온평리 마을회 등에서 삼성 신과 세 공주가 혼인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내용으로 치르는 축제다.

107034 @ 으음. 버무리니까.(으음. 버무리니까.)

107034 #1 버무리니까 범벅이지.(버무리니까 범벅이지.)

107034 @ 여기는 혹시 다른 데 가면 겡이로도 범벅헤낫덴 허는디 여기는 안 헤?(여기는 혹시 다른 데 가면 게로도 범벅했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해?)

107034 #1 겡이로 범벅?(게로 범벅?)

107034 @ 예. 겡이로 반찬허는 거 뭐 잇어낫수과?(예. 게로 반찬하는 거 뭐 있었습니까?)

107034 #1 아, 반찬허는 건 우리 존 겡이 헤당은에 저 뭐 간장에 조령도 먹곡양.(아, 반찬하는 건 우리 잔 게 해다가 저 뭐 간장에 조려서도 먹고요.)

107034 @ 음.(음.)

107034 #1 간장에 둥가 놧당 지금 게장.(간장에 담가 놨다가 지금 게장.)

107034 @ 허듯이.(하듯이.)

107034 #1 허듯이. 거 막 맛잇주. 저거. 경 허고 저거 겡이는 다리 아프는 사름덜 겡이 혼 말만 먹으민 다릿벵 고친덴 헤낫수다, 옛날에.(하듯이. 거 아주 맛있지. 저거. 그렇게 하고 저거 게는 다리 아픈 사람들 게 한 말만 먹으면 다릿병 고친다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107034 @ 아.(아.)

107034 #1 경 허민 요 밑에 할무니는 겡이 잡으멍 난산리[388] 강 모물 바꽈와낫주. 겡이 잡앙 강 모물.(그렇게 하면 요 밑에 할머니는 게 잡으면서 난산리 가서 메밀 바꿔왔었지. 게 잡아서 가서 메밀.)

107034 @ 아.(아.)

107034 #1 난산린 모물 주로 가난에. 경 그 ᄆᆞ물 바꽝 오멍 헹 헤낫는디 그거 삐졍 죽도 쒕 먹고 그 저 장에 헤근엥에 젓갈도 담앙 먹고 겡이 기자 기자 솖앙도 기자 먹곡.(난산린 메밀 주로 가니까. 그렇게 그 메밀 바꿔서 오면서 해서 했었는데 그거 빻아서 죽도 쒀서 먹고 그 저 장에 해서 젓갈도 담가서 먹고 게 그저 그저 삶아서도 그저 먹고.)

107034 @ 음, 아, 솖앙도 먹곡?(음, 아, 삶아서도 먹고?)

107034 #1 으, ᄀᆞ메기 솖을 때 기자 혼듸 놩 솖앙.(으, 고둥 삶을 때 그저 함께 놔서 삶아서.)

107034 @ 아아. 겡이를예?(아아. 게를요?)

107034 #1 ᄀᆞ메기 솖을 때.(고둥 삶을 때.)

107034 @ 아?(아?)

107034 #1 ᄀᆞ메기 잡을 때 잡은 거는 따로 먹젠 안 허민은 기자 혼듸 놩 솖앙 경 허영 먹는 거.(고둥 잡을 때 잡은 거는 따로 먹으려고 안 하면 그저 함께 놔서 삶아서 그렇게 해서 먹는 거.)

107034 @ 예전에 이렇게 그 해녀식당[389] 보면 겡이 헤 갖고 이렇게 반찬덜 나오잖

388) '난산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를 말한다.

아예?(예전에 이렇게 그 해녀식당 보면 게 해 갖고 이렇게 반찬들 나오잖아요?)

107034 #1 튀경 놓곡 예.(튀겨 놓고 예.)

107034 @ 건 튀긴 거 건?(건 튀긴 거 건?)

107034 #1 우리도 경 헤낫어. 튀경.(우리도 그렇게 했었어. 튀겨서.)

107034 @ 그 해녀식당마다 가면은.(그 해녀식당마다 가면은.)

107034 #1 예, 예.(예, 예.)

107034 #1 저쪽에도 가면. 시흥[390] 가도예.(저쪽에도 가면. 시흥 가도요.)

107034 #1 지금도 시흥 쪽에 저 오조리[391]. 아니여.(지금도 시흥 쪽에 저 오조리. 아니다.)

107034 @ 시흥에 그거 나와.(시흥에 그거 나와.)

107034 #1 겡이죽 나왐주. 겡이죽 헴주. 겐디 그 겡이죽은 그거 저 뭐냐, 식으민 못 먹어양.(게죽 나오고 있지. 게죽 하고 있지. 그런데 그 게죽은 그거 저 뭐냐, 식으면 못 먹어요.)

107034 @ 아아.(아아.)

107034 #1 비린내 낭.(비린내 나서.)

107034 @ 아아, 경 허는 거구나.(아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107034 #1 으, 게난에 쒕 놧당 손님 가민 데폄실 거우다게. 데평 줘사주. 뜨뜻헌 때 먹어야주, 식으민 비린내 나.(으, 그러니까 쒀서 놨다가 손님 가면 데우고 있을 겁니다. 데워서 줘야지. 따뜻할 때 먹어야지, 식으면 비린내 나.)

107035 @ 음, 겡이는. 거고 삼춘 아까 이제 저베기 헨덴 허는데 여기 옛날 저베기는 뭘로 헨?(음, 게는. 그러고 삼촌 아까 이제 수제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옛날 수제비는 무엇으로 했어요?)

107035 #1 저베긴 밀ᄀᆞ르도 허고 보리저베기도 허고 밀처베기도 허고.(수제비는 밀가루도 하고 보리수제비도 하고 밀수제비도 하고.)

107035 @ 밀ᄎᆞ베기도 허고?(밀수제기도 하고?)

107035 #1 으, 건 기자 밀처베기 보리저베기.(으, 건 그저 밀수제비 보리수제비.)

107035 @ 그다음에 이제 모멀ᄎᆞ베기는?(그다음에 이제 메밀수제비는?)

107035 #1 ᄆᆞ물처베기도 허고. ᄆᆞ물처베기사 귀허난에 ᄆᆞ물ᄀᆞ르사.(메밀수제비도 하고. 메밀수제비야 귀하니까 메밀가루야.)

107035 @ 여기가 ᄆᆞ물은 안 나난 ᄆᆞ멀ᄎᆞ베기가 귀헌 거라에.(여기가 메밀은 안 나니까 메밀수제비가 귀한 거네요.)

107035 #1 귀헌 거.(귀한 거.)

107035 @ 게난 다른 동네는 모멀만 가난 ᄆᆞ물ᄎᆞ베기만 헤 먹는덴.(그러니까 다른 동네는 메밀만 가니까 메밀수제비만 해 먹는다고.)

107035 #1 우린 옛날에 감저저베기.(우린 옛날에 고구마수제비.)

---

389) '해녀식당'은 해녀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390) '시흥'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391) '오조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를 말한다.

107035 @ 감저저베기.(고구마수제비.)
107035 #1 감저뻿데기 헤근에.(절간고구마 해서.)
107035 @ 예.(예.)
107035 #1 뻿데기 헤근에 그거 골아당.(고지 해서 그거 갈아다가.)
107035 @ 으.(으.)
107035 #1 ᄀᆞ르로 삐졍.(가루로 빻아서.)
107035 @ 에.(에.)
107035 #1 삐져당. 그 ᄀᆞ르로 저베기허민 막 그거 잘도 쫄깃쫄깃허곡 맛싯주게.(빻아다가. 그 가루로 수제비하면 아주 그거 잘도 쫄깃쫄깃하고 맛있지.)
107035 @ 아, 그 감저뻿데기로도 ᄌᆞ베기를 헤예?(아, 그 절간고구마로도 수제비를 한다고요?)
107035 #1 뻿데기 뿌수왕.(고지 부숴서.)
107035 @ 어.(어.)
107035 #1 ᄀᆞ를.(가루.)
107035 @ 것도 처음 들엄수다.(것도 처음 듣고 있습니다.)
107035 #1 아, 처음?(아, 처음?)
107035 @ 으, 게난 이 동네는 감저를 하영 헌 거네, 그러니까.(으, 그러니까 이 동네는 고구마를 많이 한 거네, 그러니까.)
107035 #1 감저저베길 하영 헨 먹엇주.(고구마수제빌 많이 해서 먹었지.)
107035 @ 예.(예.)
107035 #1 계속.(계속.)
107036 @ 예, 감저저베기도 허고 칼국수?(예, 고구마수제비도 하고 칼국수?)
107036 #1 칼국수는 칼로 썰어 부난 칼국수주, 이름이.(칼국수는 칼로 썰어 버리니까 칼국수지, 이름이.)
107036 @ 옛날에 저베기를 하영 허는디 칼국수는 큰일 때는 칼국수 허는 거?(옛날에 수제비를 많이 하는데 칼국수는 큰일 때는 칼국수 하는 거?)
107036 #1 칼국수는 저 칼로 써난에 칼국수엔 허는 거고.(칼국수는 저 칼로 써니까 칼국수라고 하는 거고.)
107036 @ 으.(으.)
107036 #1 옛날엔 다 칼로 썰엇수게.(옛날엔 다 칼로 썰었습니다.)
107036 @ 예.(예.)
107036 #1 요즘은 기계 잇이난 기계로 확 빻민 뒈주마는.(요즘은 기계 있으니까 기계로 확 빻으면 되지만.)
107036 @ 삼춘 여기는 그 제사 멩질 때예 칼국수 제사 지냅니까?(삼촌 여기는 그 제사 명절 때요 칼국수 제사 지냅니까?)
107036 #1 안 헙니다.(안 합니다.)
107036 @ 아, 어느 동넨 가니까 새벽에 제 지내기 전에.(아, 어느 동넨 가니까 새벽

에 제 지내기 전에.)

107036 @ 으. 칼국수 헤 갖고 제 지내. 저 송당[392] 가니까 선흘[393]이랑.(으. 칼국수 해 갖고 제 지내. 저 송당 가니까 선흘이랑.)

107036 #1 문제[394] 지냄구나.('문제' 지내고 있구나.)

107036 @ 게난 문제 전에예, 그 뭐를 하는 모양이라. 칼국수. 세벽국수. 세벡국수[395]렌 헹은에.(그러니까 '문제' 전에요, 그 뭐를 하는 모양이야. 칼국수. '세벽국수'. '세벡국수'라고 해서.)

107036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36 @ 아, 이건 안 헴구나. 알아수다. 요까지 헹은에 점심 먹으레 가게.(아, 이건 안 하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요까지 해서 점심 먹으러 가요.)

107036 #1 으.(으.)

김치

107037 @ 삼춘, 이젠예, 김치. 옛날 이 동네서 그 징뀌 헤난 거?(삼촌, 이젠요, 김치. 옛날 이 동네서 그 김치 했던 거?)

107037 #1 징뀌.(웃음)(김치.(웃음))

107037 @ 징뀌는 어떤 종류 징뀌들 헷수가?(김치는 어떤 종류 김치들 했습니까?)

107037 #1 (웃음) 아니, 베추에 쏙도 안 앚인 퍼데기ᄂᆞᆯ[396] 거 퍼렁헌 거 소금에 절엿당. 그걸 그걸 김치로 혜영은에 멜젓이나 버무렷당 고춧ᄀᆞ르가 이시카.((웃음) 아니, 배추에 속도 안 앉은 '퍼데기ᄂᆞᆯ' 거 퍼런 거 소금에 절였다가. 그걸 그걸 김치로 해서 멸치젓이나 버무렸다가 고춧가루가 있을까.)

107037 @ 으.(으.)

107037 #1 그대로 경 헤영 짐끼헹 먹곡 또 무수김치는 이만씩 썰엉.(그대로 그렇게 해서 김치해서 먹고 또 무김치는 이만큼씩 썰어서.)

107037 @ 예.(예.)

107037 #1 뭉탕뭉탕 썰엉은에 것도 소금에 절엿당 기자 그거나 ᄒᆞ꼼 대산이나 놓고 그 젓갈 놔근에 버무려 놧당 그것이 김치랏주.(뭉텅뭉텅 썰어서 것도 소금에 절였다가 그저 그거나 조금 마늘이나 놓고 그 젓갈 놔서 버무려 놨다가 그것이 김치였지.)

107037 @ 그게 반찬이라예. 게난 그 베추김치.(그게 반찬이지요. 그러니까 그 배추김치.)

107037 #1 으.(으.)

---

392) '송당'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를 말한다.
393) '선흘'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를 말한다.
394) '문제'는 대문 앞에서 문전신을 위해 지내는 제다. 지역에 따라서 '문전제'라고도 한다.
395) '세벡국수'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등지에서 설날에 본 제에 앞서 새벽에 제를 지내는데, 이때 하는 음식이다.
396) '퍼데기ᄂᆞᆯ'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노란 속이 차지 않은 배추를 말한다.

107038 @ 옛날 짐장헤난 거?(옛날 김장했던 거?)

107038 #1 으.(으.)

107038 @ 그거 저기 밧 갈 때부떠.(그거 저기 밭 갈 때부터.)

107038 #1 으.(으.)

107038 @ 그거 저기 과정을 쭉 골아줘 봅서, 한번.(그거 저기 과정을 쭉 말해줘 보십시오, 한번.)

107038 #1 밧 갈앙은게 그때는 이제룩 이제ᄀᆞ치룩 모종 놩 허는 때가 아니난에.(밭 갈아서 그때는 이제처럼 이제같이 모종 놔서 하는 때가 아니니까.)

107038 @ 으.(으.)

107038 #1 씨 뿌령 헐 때 아니우과게.(씨 뿌려서 할 때 아닙니까.)

107038 @ 예.(예.)

107038 #1 씨로 뿌령 헐 때난 씨 뿌령 밧 갈민게 씨를 영 듬상듬상 뿌려놧당은에게 그거 나근에 크민 포부뜬 건 떼여 벼뒁 ᄒᆞ나씩 키왕.(씨로 뿌려서 할 때니까 씨 뿌려서 밭 갈면 씨를 이렇게 듬성듬성 뿌려놨다가 그거 나서 크면 맞붙은 건 떼어 버려두고 하나씩 키워서.)

107038 @ 으.(으.)

107038 #1 경 허영 영 쏙을 요새는 앚엉 허는디 그때 버작 퍼진 상태에서 징뀌.(그렇게 해서 이렇게 속을 요새는 앉아서 하는데 그때 뻣뻣 퍼진 상태에서 김치.)

107038 @ 으.(으.)

107038 #1 게난 이름도 징뀌. (웃음)(그러니까 이름도 '징뀌'. (웃음))

107039 @ 음, (웃음). 그다음 여기 춤ᄂᆞ물로도 짐치헤?(음, (웃음). 그다음 여기 열무로도 김치해?)

107039 #1 춤ᄂᆞ물은 저 무신 ᄎᆞ메기짐치엔 헤근에.(열무는 저 무슨 열무김치라고 해서.)

107039 @ 여름에.(여름에.)

107039 #1 여름에.(여름에.)

107039 @ 예.(예.)

107039 #1 지금도 헙니께, 건.(지금도 합니다, 건.)

107039 @ 건 무슨 김치마씨?(건 무슨 김치예요?)

107039 #1 ᄎᆞ메기엔 허영, ᄎᆞ메기김치.(열무라고 해서, 열무김치.)

107039 @ 여기는 ᄎᆞ메기렌 헙니까? 춤ᄂᆞ물엔 안 허고?(여기는 'ᄎᆞ메기'라고 합니까? '춤ᄂᆞ물'이라고 안 하고?)

107039 #1 아니, ᄎᆞ메기엔 허여.(아니, 'ᄎᆞ메기'라고 해.)

107039 @ 여긴 ᄎᆞ메기예, 예. 건 여름에 주로 허는 거.(여긴 'ᄎᆞ메기'요, 예. 건 여름에 주로 하는 거.)

107039 #1 으, 여름에.(으, 여름에.)

107039 @ 물김치도 허여, 여기?(물김치도 해, 여기?)

107039 #1 물김치. 츠메기로 물김치 허민 막 무시거나 찹쌀ᄀᆞ르나 헤 놓곡 허민 새큼ᄃᆞᆯ큼 새큼ᄃᆞᆯ콤허주, 익으민.(물김치. 열무로 물김치 하면 아주 무엇이냐 찹쌀가루나 해 놓고 하면 새큼달큼 새큼달큼하지, 익으면.)

107039 @ 예.(예.)

107039 #1 건 막 좋아헙니다.(건 아주 좋아합니다.)

107040 @ 예전에는 그 저 뭐야? 나박짐치렌 헤여근에 여긴 안 헤낫수가?(예전에는 그 저 뭐야? 나박김치라고 해서 여긴 안 했었습니까?)

107040 #1 나박짐치가 거 무수로 허는 거 아니?(나박김치가 거 무로 하는 거 아니?)

107040 @ 으.(으.)

107040 #1 무수로 나박짐치, 너박너박 써난 무수 나박짐치주게. 아, 그거 말고는 요만씩 줄게 허는 거는.(무로 나박김치, 너벅너벅 써니까 무 나박김치지. 아, 그거 말고는 요만씩 잘게 하는 거는.)

107040 @ 으.(으.)

107040 #1 나박으로 썰엉.(나박으로 썰어서.)

107040 @ 음.(음.)

107040 #1 얍찔허게 썰엉은에 물짐치 허곡.(얇게 썰어서 물김치 하고.)

107040 @ 음.(음.)

107040 #1 또 그냥 김치 양념 무쳉 먹음도 허곡.(또 그냥 김치 양념 무쳐서도 먹음도 하고.)

107040 @ 먹음도 허곡.(먹음도 하고.)

107040 #1 거는 깍두기엔 헤근에.(거는 깍두기라고 해서.)

107041 @ 건 깍두기엔 허고예, 예.(건 깍두기라고 하고요, 예.)

107041 #1 음.(음.)

107041 @ 건 요즘도 허는 거고. 그다음에 봄 뒈 가면 동지짐치 우리 옛날은 하영 헷잖아예?(건 요즘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봄 되어 가면 '동지짐치' 우리 옛날은 많이 했잖아요?)

107041 #1 동김치[397].('동김치'.)

107041 @ 아.(아.)

107041 #1 동지가 아니고 동김치.('동지'가 아니고 '동김치'.)

107041 @ 아아, 여기는 동김치엔 헙니까?(아아, 여기는 '동김치'라고 합니까?)

107041 #1 동, 나물 동이난. 나물 동.(동, 나물 동이니까. 나물 동.)

107041 @ 아아. 게문 우리 시에서는 동지렌 허거든.(아아. 그러면 우리 제주시에서는 '동지'라고 하거든.)

107041 #1 동지?('동지'?)

107041 @ 으. 건 아니네. 겨울에 이렇게 헌 거 쏙 올라온 거예?(으. 건 아니네. 겨울

397) '동김치'는 서귀포서 성산읍 온평리에서 '배추의 동으로 담근 김치'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동지김치'라고 한다.

에 이렇게 한 거 속 올라온 거요?)

107041 #1 으, 동김치.(으, '동김치'.)

107041 @ 으, 동김치. 아아, 게니까 제주도가 정말 넓대니까. 게난 이거는 옛날부떠 헤난 거 아니예?(으, '동김치'. 아아, 그러니까 제주도가 정말 넓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했던 아닌가요?)

107041 #1 지역마다 다 틀려 부난.(지역마다 다 달라 버리니까.)

107041 @ 으.(으.)

107041 #1 옛날에는 김치 종류가양 드릇, 드릇마농 잇지이?(옛날에는 김치 종류가요 들의, 달래 있지?)

107041 @ 예.(예.)

107041 #1 저 달래.(저 달래.)

107041 @ 예, 예.(예, 예.)

107041 #1 그거 막 캐레 역불 막 김치 해서 먹젠 갓수게. 다 우리 커 올 때도.(그거 막 캐러 부러 막 김치 해서 먹으려고 갔습니다. 다 우리 커 올 때도.)

107041 @ 아아.(아아.)

107041 #1 그거 밧듸 가근에엥 막 꿩마늘엔 허멍 막 그거 캐영 와근에 그거 소금에 절엿당 양념 엇일 때고 허난 그냥 또 또 그냥 소금물에 둥가놩.(그거 밭에 가서 막 달래라고 하면서 막 그거 캐어서 와서 그거 소금에 절였다가 양념 없을 때고 하니까 그냥 또 또 그냥 소금물에 담가놔서.)

107041 @ 예.(예.)

107041 #1 영 영 ᄌᆞ지찐[398] 냥.(이렇게 이렇게 'ᄌᆞ지찐' 대로.)

107041 @ 음.(음.)

107041 #1 게믄 그것이 익으민은 색깔도 누렁허곡 시큼시큼허주게.(그러면 그것이 익으면 색깔도 누렇고 시큼시큼하지.)

107041 @ 음.(음.)

107041 #1 게민 그 마농김치가 그렇게 맛셔.(그러면 그 달래김치가 그렇게 맛있어.)

107041 @ 음.(음.)

107041 #1 감저 쳐근엥에 그것에 조청은에 톨, 톨 허영 널어난 디 문디리면은[399] 비 자꾸 와나민 노랑케 발주, 톨이.(고구마 쪄서 그것에 찍어서 톳, 톳 해서 널었던 데 '문디리면' 비 자꾸 와나면 노랗게 발지, 톳이.)

107041 @ 예.(예.)

107041 #1 게민 그 톨 줏어당은에 싯어둰 그 마농짐치에 영 영 싸멍 그거 먹엉 반찬으로.(그러면 그 톳 주워다가 씻어두고 그 달래김치에 이렇게 이렇게 싸면서 그거 먹어서 반찬으로.)

107041 @ 게믄 그 짐치를 무슨 짐치렌 ᄀᆞ는 거라마씨?(그러면 그 김치를 무슨 김치

398) 'ᄌᆞ지찐'은 '기다란 것으로 가다듬어 알맞게 매듭을 지어서'의 의미다.
399) '문디리면'은 가지고 있던 물건 따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뜨리거나 잃어 버리면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07041 #1 그 마농짐치엔 허주.(그 달래김치라고 하지.)

107041 @ 그냥 마농짐치?(그냥 달래김치?)

107041 #1 그냥 김, 마농지시[400]. 지시엔 허주, 지시.(그냥 김, 마늘장아찌. 장아찌라고 하지, 장아찌.)

107041 @ 마농지시예? 그러면은 대산이로 마농지신 안 헤여?(마늘장아찌요? 그러면은 마늘로 마늘장아찌는 안 해요?)

107041 #1 대산이로는.(마늘로는.)

107041 @ 잘 안 허여?(잘 안 해?)

107041 #1 으, 대산이로는 그자 놀차 허멍 지져 먹곡 데우청 먹곡.(으, 마늘로는 그저 날짜 하면서 지져 먹고 데쳐서 먹고.)

107041 @ 음.(음.)

107041 #1 그치록 허곡. 마농지시는 그 드릇마늘 헤당은엥에.(그처럼 하고. '마늘장아찌'는 그 달래 해다가.)

107041 @ 아, 드릇마늘로만 마농지시는. 요즘은 대산이렌 허지 아녑니까?(아, 달래로만 마늘장아찌는. 요즘은 마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7041 #1 요즘은 다 대산이로. 장아찌엔 허주. 요샌 대산이.(요즘은 다 마늘로. 장아찌라고 하지. 요샌 마늘.)

107041 @ 요샌 장아찌렌 허고예? 아.(요샌 장아찌라고 하고요? 아.)

107041 #1 짱아찌렌.(장아찌라고.)

107041 @ 예전에는 마농?(예전에는 달래?)

107041 #1 마농지시.(마늘장아찌.)

107043 @ 마농지시렌 허면.(마늘장아찌라고 하면.)

107043 #1 마농[401] 캐당.(달래 캐다가.)

107043 @ 그걸 마농이렌 허는구나.(그걸 '마농'이라고 하는구나.)

107043 #1 엄, 걸 마농.(엄, 걸 '마농'.)

107043 #1 아. 마농예, 예. 그 저기 파로도 헙니까?(아. 달래요, 예. 그 저기 파로도 합니까?)

107043 #1 으. (으.)

107043 @ 파, 우리 그 쪽파?(파, 우리 그 쪽파?)

107043 #1 아, 쪽파.(아, 쪽파.)

107043 @ 예, 걸로도 짐치 헤난?(예, 걸로도 김치 했었어요?)

107043 #1 으게.(으.)

107043 @ 으, 거는 어떤 식으로 허여?(으, 거는 어떤 식으로 해?)

107043 #1 아, 그것도 마찬가지우다. 쪽파도. 이제도 경 헙니다.(아, 그것도 마찬가집

400) '마농지시'는 '마늘장아찌'를 말한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는 예전에 '마농지시'를 '달래장아찌'라고 하였다.

401) 여기에서 '마농'은 달래를 가리키는 말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는 달래를 '마농'이라고 하였다.

니다. 쪽파도. 이제도 그렇게 합니다.)

107043 @ 예.(예.)

107043 #1 이제는 양념을 버무리난 거주.(이제는 양념을 버무리니까 거지.)

107043 @ 으.(으.)

107043 #1 것도 벳경 손봐근에 소금물에 절엿당은에 음.(것도 벗겨서 손봐서 소금물에 절였다가 음.)

107043 @ 소금물에만.(소금물에만.)

107043 #1 으, 소금물만 절엿당. 요즘은 양념을 놩 허주. 그 쪽파짐치는. 패마농[402]엔 허주. 패마농.(으, 소금물만 절였다가. 요즘은 양념을 놔서 하지. 그 쪽파김치는. '패마농'이라고 하지. '패마농'.)

107043 @ 여기서는 패마농예, 예.(여기서는 '패마농'요, 예.)

107043 #1 패마농.(쪽파.)

107045 @ 그다음에 이제 베추 말고 요즘은 갓김치렌 허지마는 여기는 뭐렌 헤? 갓을?(그다음에 이제 배추 말고 요즘은 갓김치라고 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해? 갓을?)

107045 #1 아, 옛날에 저.(아, 옛날에 저.)

107045 @ 갯ᄂᆞ물?('갯ᄂᆞ물'?)

107045 #1 지금 갓ᄂᆞ물.(지금 '갓ᄂᆞ물'.)

107045 @ 으.(으.)

107045 #1 갯ᄂᆞ물엔 헤낫수다게.('갯ᄂᆞ물'이라고 했었습니다.)

107045 @ 예, 예.(예, 예.)

107045 #1 갯ᄂᆞ물.(갓.)

107045 @ 갯ᄂᆞ물. 그거는 짐치 안 헤?(갓. 그거는 김치 안 해?)

107045 #1 무사 헙니다. 이제도. 김장 헐 때는 쏙도 담고 그걸로.(왜 합니다. 이제도. 김장 할 때는 속도 담고 그걸로.)

107045 @ 예.(예.)

107045 #1 그 갯ᄂᆞ물로.(그 갓으로.)

107045 @ 갯ᄂᆞ물로도, 갯ᄂᆞ물만으로도 허지 안헙니까? 짐치?(갓으로도, 갓만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김치?)

107045 #1 그걸로 허여 놓민 그렇게 좋아양, 익으민. 경 허민 요새는 갯ᄂᆞ물 김치엔 안 허영 갓김치엔 허주. 그것ᄀᆞ라.(그걸로 해 놓으면 그렇게 좋아요, 익으면. 그렇게 하면 '갯ᄂᆞ물김치'라고 안 해서 갓김치라고 하지. 그것보고.)

107045 @ 요즘은 갓김치 허고.(요즘은 갓김치 하고.)

107045 #1 그것ᄀᆞ라 갓김치엔 허주. 옛날은 갯ᄂᆞ물인디.(그것보고 갓김치라고 하지. 옛날은 '갯ᄂᆞ물'인데.)

107045 @ 옛날은 갯ᄂᆞ물짐끼예, 예. 그다음에 세우리도 짐끼 헤?(옛날은 '갯ᄂᆞ물짐

402) '패마농'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쪽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삥이마농'이라고도 한다.

끼’요, 예. 그다음에 부추도 김치 해?)

107045 #1 예, 세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헹 먹주.(예, 부추도 지금도 마찬가지 해서 먹지.)

107045 @ 음.(음.)

107045 #1 게난 그때도 세우리엔 허고. 요샌 요즘 말론 부추엔도 허고 정구지[403]엔도 허고.(그러니까 그때도 ‘세우리’라고 하고. 요새는 요즘 말론 부추라고도 하고 ‘정구지’라고도 하고.)

107045 @ 음.(음.)

107045 #1 옛날에는 세우리.(옛날에는 ‘세우리’.)

107046 @ 세우리. 그 세우리짐치 헐 때는 어떤 식으로 헤마씨?(부추. 그 부추김치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107046 #1 아이, 그것도 우리 그건 절엿당은 안 허곡 그냥.(아니, 그것도 우리 그건 절였다가 안 하고 그냥.)

107046 @ 으.(으.)

107046 #1 절이지 아년 상태에서 양념 버무령.(절이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 버무려서.)

107046 @ 음, 뭐 어떤 양념을?(음, 뭐 어떤 양념을?)

107046 #1 양념 다. 고칫ᄀᆞ르여 마늘이여 무시거여 다 삐져 놩. 마농지시에는 마늘이 안 들어가도.(양념 다. 고춧가루다 마늘이다 무엇이다 다 빻아 놔서. 달래장아찌에는 마늘이 안 들어가도.)

107046 @ 예.(예.)

107046 #1 그런 세우리 정도ᄁᆞ장은 마늘 들어가주.(그런 부추 정도까지는 마늘 들어가지.)

107046 @ 음, 거긴 들어가고, 뭐 멜첫들 이렇게 놩 헙니까?(음, 거긴 들어가고, 뭐 멸치젓들 이렇게 놔서 합니까?)

107046 #1 예.(예.)

107042 @ 응, 멜첫 놩은에 이제 하고예? 그 ᄂᆞᆷ삐 아까 베추는 허지만 ᄂᆞᆷ삐짐치는 어떤 식으로 담아마씨?(응, 멸치젓 놔서 이제 하고요? 그 무 아까 배추는 하지만 무김치는 어떤 식으로 담가요?)

107042 #1 ᄂᆞᆷ삐짐치 저 줘 뭐냐게, 깍두기는 깍두기는 썰어근에 동글동글 썰엉은에 소금 절엿당 물에 확 초불 싯어둬근에 양념 버무령 깍두기고.(무김치 저 줘 뭐냐, 깍두기는 깍두기는 썰어서 동글동글 썰어서 소금 절였다가 물에 확 초벌 씻어둬서 양념 버무려서 깍두기고.)

107042 @ 음.(음.)

107042 #1 또 그 저 무시거냐 너박김치여 무신 통김치는.(또 그 저 무엇이냐 나박김치다 무슨 통김치는.)

403) ‘정구지’는 부추의 경상도 방언이다.

107042 @ 으.(으.)

107042 #1 그자 뭉탕뭉탕 썰엇당 소금 절엿당은에 양념허영 딱 제경 놔둬. 요즘은 고춧ᄀᆞ르 놩 허민 막 시벌겅헌 게 막 먹음직스럽주게.(그저 뭉텅뭉텅 썰었다가 소금 절였다가 양념해서 딱 쌓아서 놔둬. 요즘은 고춧가루 놔서 하면 아주 짓벌건 게 아주 먹음직스럽지.)

107042 @ 게난 옛날에는 그냥.(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107042 #1 옛날에는 그대로게. 고추 엇인 때난.(옛날에는 그대로. 고추 없을 때니까.)

107042 @ 고추 엇인 때는 그대로 헹 놔두는 거.(고추 없을 때는 그대로 해서 놔두는 거.)

107042 #1 그대로.(그대로.)

107042 @ 작년에 그 어디 갓더니 놈삐 헤 갖고 그 체에?(작년에 그 어디 갔더니 무 해 갖고 그 체에?)

107042 #1 으, 무수체.(으, 무체.)

107042 @ 으, 아니, 무수체 말고예, 그 산듸체 거기에 영 묻엉 놧당도.(으, 아니, 무체 말고요, 그 밭볏겨 거기에 이렇게 묻어서 놨다가도.)

107042 #1 아아, 그거는 다꽝 대신.(아아, 그거는 단무지 대신.)

107042 @ 으.(으.)

107042 #1 지금 다꽝 단무지 대신.(지금 '다꽝' 단무지 대신.)

107042 @ 예, 그 이름 뭐렌 헷수가?(예, 그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107042 #1 그거 단무지 여기서는 그것을 단무지에는 허는디.(그거 단무지 여기서는 그것을 단무지라고는 하는데.)

107042 @ 예.(예.)

107042 #1 그 색깔 안 놩.(그 색깔 안 놔서.)

107042 @ 안 놩.(안 놔서.)

107042 #1 으, 색깔 안 놩 기자 놈삐 ᄆᆞᆯ리왓당.(으, 색깔 안 놔서 그저 무 말렸다가.)

107042 @ 으.(으.)

107042 #1 ᄆᆞᆯ리왓당 허는 거.(말렸다가 하는 거.)

107042 @ 거난 그 김치를 뭐렌 ᄀᆞᆯ아라마는게.(그러니까 그 김치를 뭐라고 말하더라만.)

107042 #1 으음.(으음.)

107042 @ 여기는 그냥 다꽝 다꽝이렌 ᄀᆞᆯ아?(여기는 그냥 '다꽝' '다꽝'이라고 말해?)

107042 #1 기자 다꽝이렌 허주. 색깔 안 놓은 거 다꽝.(그저 단무지라고 하지. 색깔 안 놓은 거 단무지.)

젓갈

107048 @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헹 허고. 젓갈은 여기서 뭐 담갓수가?(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고. 젓갈은 여기서 뭐 담갔습니까?)

107048 #1 젓갈?(젓갈?)

107048 @ 음.(음.)

107048 #1 이 옛날은 주로 자리젓 멜첫을 헤신디양.(이 옛날은 주로 자리젓 멸치젓을 했는데요.)

107048 @ 예.(예.)

107048 #1 이 오염뒈는 통에 이, 이 부락에 자리도 그렇게 훼헤도 맛싯곡 줄곡 뻬덜막 약해근엥에.(이 오염되는 통에 이, 이 부락에 자리도 그렇게 회해도 맛있고 잘고 뼈들 아주 약해서.)

107048 @ 아아.(아아.)

107048 #1 막 보들보들 헤영 좋덴 막 세여낫수다게.(아주 보들보들 해서 좋다고 아주 세났습니다.)

107048 @ 음.(음.)

107048 #1 겐디 우리 집의 하르방[404]도 자리 거리레 멧 년 뎅겨나신디 베 이시난.(그런데 우리 집의 할아버지도 자리돔 뜨러 몇 년 다녔었는데 배 있으니까.)

107048 @ 음.(음.)

107048 #1 경 헤신디 오염뒌에 자리가 싹 도망가는 바람에 이젠 자리젓은 어렵고.(그렇게 했었는데 오염되어서 자리가 싹 도망가는 바람에 이젠 자리젓은 어렵고.)

107048 @ 음.(음.)

107048 #1 멜젓벳긔.(멸치젓밖에.)

107048 @ 요즘 멜젓?(요즘 멸치젓?)

107048 #1 멜젓 저디서 성산[405]서 오민 사근에 멜젓벳긔 엇주, 뭐.(멸치젓 저기서 성산서 오면 사서 멸치젓밖에 없지, 뭐.)

107049 @ 삼춘 자리젓 담가, 잘 담가난마씨?(삼촌 자리젓 담가, 잘 담갔었어요?)

107049 #1 자리젓은양 사 대 일 놓민 딱 맞입니다.(자리젓은요 사 대 일 놓으면 딱 맞습니다.)

107049 @ 사 대 일, 건 뭐가?(사 대 일, 건 뭐가?)

107049 #1 저 자리가 사 키로면은.(저 자리돔이 사 킬로면.)

107049 @ 예.(예.)

107049 #1 소금 일 키로 놓민 딱 맞아.(소금 일 킬로 놓으면 딱 맞아.)

107049 @ 아아.(아아.)

107049 #1 고리지도 아녀곡 짜지도 아녀곡 탁 맞앙 좁니다. 자리 거릴 때 계속 자리젓을 허난에게.(고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탁 맞아서 좋습니다. 자리 뜰 때 계속 자리젓을 하니까.)

---

404) '우리 집의 하르방'은 제보자가 남편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405) '성산'은 서귀포서 성산읍 성산리를 말한다.

107049 @ 으음. 게민 자리젓 거리레 갈 때는 뭘로 그 아까 베, 베로 간 거?(으음. 그러면 자리젓 뜨러 갈 때는 무엇으로 그 아까 배, 배로 간 거?)

107049 #1 베로, 베로.(배로, 배로.)

107049 @ 베로.(배로.)

107049 #1 으.(으.)

107049 @ 옛날 뭐 터위 아니?(옛날 뭐 떼배 아니?)

107049 #1 터위가 아니고 우린 베 쪼꼴락헌 베. 베 헤연 자리 거리레 뎅겨난. 무사 자리 거리곡 헤시넨 허민 그 벵 걸련에 간암 걸련에.(떼배가 아니고 우린 배 조그마한 배. 배 해서 자리돔 뜨러 다녔었어. 왜 자리돔 뜨고 했는가 하면 그 병 걸려서 간암 걸려서.)

107049 @ 음.(음.)

107049 #1 헐 때에 병원에서가 바당 공기를 많이 마셔라.(할 때에 병원에서가 바다 공기를 많이 마셔라.)

107049 @ 아.(아.)

107049 #1 바다 공기를 많이 마셔야 건강을 헌다. 경 허니까 이젠 이디 오란 이녁 베가 엇이난 놈의 베에 부떠 뎅기난 미안허연.(바다 공기를 많이 마셔야 건강을 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젠 여기 와서 이녁 배가 없으니까 남의 배에 붙어 다니니까 미안해서.)

107049 @ 아프고 허니까.(아프고 하니까.)

107049 #1 한두 번이 뒈지. 미안허니까 쪼꼬만 베를 산. 산에 동서[406]를 어른 둘리 부쩐.(한두 번이 되지. 미안하니까 조그만 배를 사서. 사서 '동서'를 어른 둘 붙여서.)

107049 @ 음.(음.)

107049 #1 경 허연 야 자리 하영 날 때난 자릿그물[407] 헹은에 자리 거리자 헨 자릿그물 멘들앙 자릴 거려신디.(그렇게 해서 야 자리돔 많이 날 때니까 '자릿그물' 해서 자리돔 뜨자 해서 '자릿그물' 만들어서 자리돔을 떴는데.)

107049 @ 음.(음.)

107049 #1 가민 경 거렁 오민게 또 푸는 것도 놈보단 막 더 줘 불주게.(가면 그렇게 떠서 오면 또 파는 것도 남보단 막 더 줘 버리지.)

107049 @ 예, 예.(예, 예.)

107049 #1 뒈도 막 이만씩 줘 불곡 막 그땐 또 남으민 줘 불곡 경 허민 막 또 흔듸 동서 어른은 아이, 이 ○○이 아방ᄀᆞ라 뒈지 말렌 허여. 저 나가 허커라.(되도 아주 이만큼씩 줘 버리고 아주 그땐 또 남으면 줘 버리고 그렇게 하면 막 또 함께 '동서' 어른은 아니, 이 ○○이 아버지보고 되지 말라고 해. 저 내가 하겠어.)

107049 @ 음.(음.)

107049 #1 막 기자 게난 그자 주는 성질이라 부난 경 줘 불여.(아주 그저 그러니까 그저 주는 성질이어 버리니까 그렇게 줘 버려.)

406) '동서'는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뱃일을 함께하면 '뱃동서'라고 한다.
407) '자릿그물'은 자리돔을 뜰 때 사용하는 그물이다.

107049 @ 음.(음.)

107049 #1 경 허민 아방[408]은 경 곧주게. 난 배소복에서 태어날 때부떠.(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난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107049 @ 음.(음.)

107049 #1 놈을 주라 허연 태어나 부난 안 주고는 못 산덴 이녁이 마음이 막 뭐허영.(남을 줘라 해서 태어나 버리니까 안 주고는 못 산다고 이녁이 마음이 아주 뭐해서.)

107049 @ 음.(음.)

107049 #1 지금 현재도양.(지금 현재도요.)

107049 @ 예.(예.)

107049 #1 그것도 진짜 팔준ᄀᆞ라. 무주건[무주껀] 줘야 뒈지.(그것도 진짜 팔자인지. 무조건 줘야 되지.)

107049 @ 음.(음.)

107049 #1 안 줘서는 막 마음이 불안헹 못 산덴.(안 줘서는 아주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산다고.)

107049 @ 그니까 거 팔자우다, 경허난예.(그러니까 거 팔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107049 #1 팔ᄌᆞ, 팔ᄌᆞ. 지금도 그렇게. 게난 어제도 봅서. 거 게난 나가 항상 곧주. 엇인 거는 주렌 말 허지 맙서. 골으민은.(팔자, 팔자.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어제도 보세요. 거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지. 없는 거는 주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말하면.)

107049 @ 맞수다.(맞습니다.)

107049 #1 잇어도 아이고, 아방은 주렌 헌디 안 준다. 그거 어떵 뒌 일이우꽈게? 무주건 나 막 우리 부자엔 골아 볏져 허곤데 아니.(있어도 아이고, 아버지는 주라고 했는데 안 준다. 그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조건 나 아주 우리 부자라고 말해 버렸지 하건데 아니.)

107049 @ 아들덜 잘 뒈난 부자엔.(아들들 잘 되니까 부자라고.)

107049 #1 아들덜사 잘 벌주게. 겐디 우린 나 항상 골아. 놈들이 막 아덜덜 뭐 헹 잘 뒈민 막 자랑을 헙주게. 자랑헤가민 난 경 골아. 안직 아이덜 살날이 멀엇수게.(아들들이야 잘 벌지. 그런데 우린 나 항상 말해. 남들이 막 아들들 뭐 해서 잘 되면 막 자랑을 합지요. 자랑해가면 난 그렇게 말해. 아직 아이들 살날이 멀었습니다.)

107049 @ 음.(음.)

107049 #1 자랑이랑 허지 맙서. 자랑은 허는 거 아니. 자랑허당 만약에 잘못뒈민 그 어떵 뒐 것과? 얼마나. 게난 절대로 자랑이랑 허지 말렌. 우리 아덜덜 막 잘 뒈연 혼 둘에 멧 벡만 원 받고 일 년 연봉이 멧 천이고 어떵허고 막 골아. 자랑이랑 허지 말아. 자랑은 허지 말아. 난 일절 자랑. 우리 아덜덜 경 잘 뒈도 몰른 사름이 하, 동네서.(자랑이랑 하지 마십시오. 자랑은 하는 거 아니. 자랑하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절대로 자랑이랑 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들 아주 잘 되어서

408) '아방'은 아버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남편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한 달에 몇 백만 원 받고 일 년 연봉이 몇 천이고 어떡하고 막 말해. 자랑이랑 하지 마라. 자랑은 하지 마라. 난 일절 자랑. 우리 아들들 그렇게 잘 돼도 모른 사람이 많아, 동네서.)

107049 @ 으으. 무사 여기 안 사니까예?(으으. 왜 여기 안 사니까요?)

107049 #1 으, 경 잘 뭔 중 몰른 사름이 하.(으, 그렇게 잘 된 줄 모른 사람이 많아.)

107049 @ 음.(음.)

107049 #1 겐 난 잘 아방[409] 그치룩 헤* 그런 말 허지 맙서게. 안직 가네 살 일이 구 만년인디. 사람 일이 어떵 알아집니까? 절대. 사업만 아녀민 뭔다. 사업 아녀민 뭔다 헤도 직장도 뎅기당 직장에서도 부도도 나 불 수가 잇는 거고 뭐 헐 수가 잇는 거고. 절대 자랑은 아녀는 거우다. 나 경 골아집니다. 자랑은 허는 거 아니.(그래서 난 잘 아버지 그처럼 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직 걔네 살 일이 구 만년인데. 사람 일이 어떻게 알아집니까? 절대. 사업만 않으면 된다. 사업 않으면 된다 해도 직장도 다니다가 직장에서도 부도도 나 버릴 수가 있는 거고 뭐 할 수가 있는 거고. 절대 자랑은 않는 겁니다. 나 그렇게 말해집니다. 자랑은 하는 거 아니.)

107049 @ 어쨌든 뭐 이제하고.(어쨌든 뭐 이제하고.)

107049 #1 예.(예.)

107049 @ 그다음에 아까 사 대 일로.(그다음에 아까 사 대 일로.)

107049 #1 예, 예. 거는 사 대 일.(예, 예. 거는 사 대 일.)

107049 @ 사 대 일 허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머리도 뭇앙은에도 허곡 헙니까? 어떤 식. 삼춘 어떤 식으로.(사 대 일 하지만은 옛날에 보면 머리도 마서도 하고 합니까? 어떤 식. 삼촌 어떤 식으로.)

107049 #1 머리양, 그 그냥 무시걸로 뭇는 게 아니고 자리젓 허젠 허민.(머리요, 그 그냥 무엇으로 마는 게 아니고 자리젓 하려고 하면.)

107049 @ 예.(예.)

107049 #1 옛날에 큰 전복껍덕.(옛날에 큰 전복갑.)

107049 @ 으.(으.)

107049 #1 전복껍덕으로 눌려낫수다. 전복껍덕 헤근에.(전복갑으로 눌렀었습니다. 전복갑 해서.)

107049 @ 아.(아.)

107049 #1 소금 버무려 놓은 다음에.(소금 버무려 놓은 다음에.)

107049 @ 예.(예.)

107049 #1 전복껍덕 엄지로 심어근에 영 영 영 영 영 영 눌리면은 머리가 ᄒᆞ쏠 멜싹멜싹멜싹[410] 거 웨냐, 고리카부덴.(전복갑 엄지로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머리가 조금 '멜싹멜싹멜싹' 거 왜냐, 고릴까봐서.)

---

409) '아방'은 아버지의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남편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410) '멜싹멜싹멜싹'은 단단했던 것이 물러진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표준어로 바꾸면 '물렁물렁물렁' 정도에 해당할 것 같다.

107049 @ 음.(음.)

107049 #1 소곱에 소금 안 들어강.(속에 소금 안 들어가서.)

107049 @ 음.(음.)

107049 #1 경 헤근에 영 뭇는 게 아니고 영 눌려근엥에 항아리에 담주.(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서 항아리에 담지.)

107049 @ 아, 소금헤난 다음에.(아, 소금해난 다음에.)

107049 #1 예, 소금 소금 버무려 놩.(예, 소금 소금 버무려 놔서.)

107049 @ 버무려 놩은에.(버무려 놔서.)

107049 #1 거 소금물 잘 들어가렌 영 영 허는 거.(거 소금물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107049 @ 아.(아.)

107049 #1 거 딴 걸로 겁떡으로 허나 겁떵 엇이면은 뒈약세기[411].(거 딴 걸로 전복갑으로 하나 전복갑 없으면 '뒈약세기'.)

107049 @ 음.(음.)

107049 #1 뒈약세기로. 쏠 거리는 옛날 뒈약세기.('뒈약세기'로. 쌀 뜨는 옛날 '뒈약세기'.)

107049 @ 예, 예.(예, 예.)

107049 #1 그걸로 허나 혜영 허는 거.(그걸로 하나 해서 하는 거.)

107049 @ 게난 이렇게 머리를 헌덴 허더라고예?(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07049 #1 예.(예.)

107050 @1 멜젓은 어떤 식으로 담아마씨?(멸치젓은 어떤 식으로 담가요?)

107050 #1 아, 멜젓은 기자. 소금은 그대로 놓뒈.(아, 멸치젓은 그저. 소금은 그대로 놓되.)

107050 @ 것도 사 대 일.(것도 사 대 일.)

107050 #1 마찬가지. 예, 사 대 일로 놓뒈 거는 눌리지 아녀도 뒈여. 멧젓은 뭡니다. 그대로. 건 소금이 잘 들어가는 거난.(마찬가지. 예, 사 대 일로 놓되 거는 누르지 않아도 되어. 멸치젓은 됩니다. 그대로. 건 소금이 잘 들어가는 거니까.)

107051 @ 여기는 아우셍이헙니까? 아구셍이헙니까? 여기.(여기는 '아우셍이'합니까? '아구셍이'합니까? 여기.)

107051 #1 어우셍이, 어우셍이.('어우셍이', '어우셍이'.)

107051 @ 어우셍이. 어우셍이로도 젓갈 담아봣수가?(아가미. 아가미로도 젓갈 담가봤습니까?)

107051 #1 어우셍이 그건 저 무시거냐? 갈치 어우셍이나.(아가미 그건 저 무엇이냐? 갈치 아가미나.)

107051 @ 음.(음.)

411) '뒈약세기'는 쌀을 뜰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그릇이다. 주로 쌀독에 넣어서 사용한다.

107051 #1 양, 솔레기 어우셍이나.(요, 옥돔 아가미나.)

107051 @ 아, 솔레기도마씨?(아, 옥돔도요?)

107051 #1 솔레기도 하영 사당 헐 땐 막 어우셍이가 막 하주게.(옥돔도 많이 사다가 할 땐 막 아가미가 아주 많지.)

107051 @ 아.(아.)

107051 #1 거 막 맛셔, 잘허민.(거 아주 맛있어, 잘하면.)

107051 @ 아아.(아아.)

107051 #1 갈치 **.(갈치 **.)

107051 @ 게난 솔레기 바당이난 그 말이 나오는 거. 다른 디는 안 헷덴. 갈치는 헷는데 솔레기는? 고등어도 헌덴 허더라.(그러니까 옥돔 바다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 다른 데는 안 했다고. 갈치는 했는데 옥돔은? 고등어도 한다고 하더라.)

107051 #1 어, 고등어도 그 창자 아우셍이로, 어우셍이로.(어, 고등어도 그 창자 아가미로, 아가미로.)

107051 @ 어우셍이로 하고.(아가미로 하고.)

107051 #1 예, 막 그건 저 맛은. 저 무신 것도 멩테, 멘테 어우셍이도 막 좋주.(예, 아주 그건 저 맛은. 저 무슨 것도 명태, 명태 아가미도 아주 좋지.)

107051 @ 음. 거는 멩테 사당 그건 허는 거고.(음. 거는 명태 사다가 그건 하는 거고.)

107051 #1 창지 그것 빵은에.(창자 그것 빼서.)

107051 @ 그런 식으로 아까. 그것도 소금이 사 대 일.(그런 식으로 아까. 그것도 소금이 사 대 일.)

107051 #1 예. 아니 그 어우셍인 그것 정도는 사 대 일이 안 뒈주.(예. 아니 그 아가민 그것 정도는 사 대 일이 안 되지.)

107051 @ 음.(음.)

107051 #1 건 아멩헤도 저 뭐 헤사 뒐 거라. 우린 기자 그거는 짐작 삼아 영 버무령 헤나 부난 그런 어우셍이젓은. 하영 아녀는 거난.(건 아무래도 저 뭐 해야 될 거야. 우린 그저 그거는 짐작 삼아 이렇게 버무려서 했어 버리니까 그런 아감젓은. 많이 않는 거니까.)

107051 @ 으.(으.)

107051 #1 경 헤 부난 거는 안 떠보고.(그렇게 해 버리니까 거는 안 떠보고.)

107051 @ 음.(음.)

107051 #1 멜허고 자리젓은 사 대 일 놓민 딱 맞읍네다.(멸치하고 자리젓은 사 대 일 놓으면 딱 맞습니다.)

107052 @ 게난 삼춘은 어우셍이도 헤보고. 그다음 아까 저기 겡이젓도 헤보고?(그러니까 삼촌은 아가미도 해보고. 그다음 아까 저기 게젓도 해보고?)

107052 #1 예게. 다 헤 봣주.(예. 다 해 봤지.)

107052 @ 으, 게난 겡이젓은 아까 소금 안 허고 저기?(으, 그러니까 게젓은 아까 소

금 안 하고 저기?)

107052 #1 기자 간장에.(그저 간장에.)

107052 @ 간장에만 듬으민 뒈는 거예?(간장에만 담그면 되는 거요?)

107052 #1 준준헌 거난에. 준준헌 거난 간장에 둥갓당은에게 것도 곤 맞추민 잘도 밥 먹을 때 맛십니다. 거 젠젠헌 거 그냥 씹어 먹주게.(자잘한 거니까. 자잘한 거니까 간장에 담갔다가 것도 간 맞추면 잘도 밥 먹을 때 맛있습니다. 거 자잘한 거 그냥 씹어 먹지.)

107052 @ 음.(음.)

107052 #1 그거 어금지발만 떼여뒁. 영 접는 거.(그거 집게발만 떼어두고. 이렇게 집는 거.)

107052 @ 예, 예.(예, 예.)

107052 #1 그것만 막 저 준준헌 거난에 부드러와근에.(그것만 아주 저 자잘한 거니까 부드러워서.)

107052 @ 예.(예.)

107052 #1 게민 몸에도 좋곡 그거 겡이는.(그러면 몸에도 좋고 그거 게는.)

107052 @ 키토산 허멍 막.(키토산 하면서 막.)

107052 #1 예, 키토산.(예, 키토산.)

107052 @ 예, 그 겡이 할 때는 어떤 겡이로 젓을 담아?(예, 그 게 할 때는 어떤 게로 젓을 담가?)

107052 #1 아니, 그 겡이는 기자 깃듸 강 잡는 거난 춤겡이 순ᄉᆞ겡이[412] 똥겡이[413] 지름겡이[414] 다 서꺼집니다.(아니, 그 게는 그저 가에 가서 잡는 거니까 참게 '순ᄉᆞ겡이' '똥겡이' '지름겡이' 다 섞어집니다.)

107052 @ 아, 아무 겡이라도 다 할 수 잇는 거예?(아, 아무 게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요?)

107052 #1 예. 혼 가지만 허는 게 아니고.(예.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107054 @ 그렇구나. 그다음에는 우리 옛날에 출레, 출레 영 헷잖아예?(그렇구나. 그다음에는 우리 옛날에 '출레', '출레' 이렇게 했잖아요?)

107054 #1 출레[415]. (웃음)('출레'. (웃음))

107054 @ 뭐가 출레우과?(뭐가 '출레'입니까?)

107054 #1 출레. 아니 이름이 출레. 자리젓도 지졍 먹젠 허민 옛날에 그 전복껍덕으로 고망 막앙 그걸로 냄비 노릇 헷수다.('출레'. 아니 이름이 '출레'. 자리젓도 지져서 먹으려고 하면 옛날에 그 전복갑으로 구멍 막아서 그걸로 냄비 노릇 했습니다.)

107054 @ 예.(예.)

107054 #1 막 옛날에.(아주 옛날에.)

412) '순ᄉᆞ겡이'는 게의 일종이다.
413) '똥겡이'는 게의 일종이다. 지역에 따라서 '똥깅이'라고 한다.
414) '지름겡이'는 게의 일종이다.
415) '출레'는 멸치젓, 자리젓 등 짠 반찬을 가리키는 말이다.

107054 @ 음.(음.)

107054 #1 게난 (웃음) 그 자리젓이라도 놔근에 물 놓곡 헤근엥에 보글보글 지지당 드릇마농 썰어놓곡 헤영. 출레 지지는 것에.(그러니까 (웃음) 그 자리젓이라도 놔서 물 놓고 해서 보글보글 지지다가 달래 썰어놓고 해서. '출레' 지지는 것에.)

107054 @ 아아.(아아.)

107054 #1 아이고, 반찬이 엇이난 그것이 얼마나 맛 좋다고. 출레 지졍.(아이고, 반찬이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맛 좋다고. '출레' 지져서.)

107054 @ 게니까 그 자리젓은 자리젓인디.(그러니까 그 자리젓은 자리젓인데.)

107054 #1 예.(예.)

107054 @ 그걸 갖고 반찬을 만든 것ᄀᆞ라 출레.(그걸 갖고 반찬을 만든 것보고 '출레'.)

107054 #1 예, 예, 예. 무수도 잇이민 ᄒᆞ꼼 놈삐도 썰어놓곡 헤영 그 마농 썰어놓곡 지지면양 그게 큰 반찬이랏주게.(예, 예, 예. 무도 있으면 조금 무도 썰어놓고 해서 그 달래 썰어놓고 지지면요 그게 큰 반찬이었지.)

107054 @ 게민 거기에 물을 같이 놩은에 허는 거.(그러면 거기에 물을 같이 놔서 하는 거.)

107054 #1 물 놔사주게.(물 놔야지.)

107054 @ 그게 출레구나. 다른 자리젓을 출레렌 헌 게 아니고예?(그게 '출레'구나. 다른 자리젓을 '출레'라고 한 게 아니고요?)

107054 #1 예,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예.)

107054 @ 예, 예, 예. 알앗수다.(예, 예, 예. 알았습니다.)

107054 #1 거 놩 지져사.(거 놔서 지져야.)

장아찌와 회

107055 @ 음, 그다음 삼춘, 아까 그 지시 담강 먹는 거. 지시는 뭘로 담앙 먹어난?(음, 그다음 삼촌, 아까 그 장아찌 담가서 먹는 거. 장아찌는 무엇으로 담가서 먹었어요?)

107055 #1 지시?(장아찌?)

107055 @ 으, 아까 대산이지시 허는 식으로.(으, 아까 마늘장아찌 하는 식으로.)

107055 #1 마농지시.(마늘장아찌.)

107055 @ 마농지시.(마늘장아찌.)

107055 #1 거 소금에 묻엉은에 소금물에 쫀물에 묻엇당.(거 소금에 묻어서 소금물에 짠물에 묻었다가.)

107055 @ 음.(음.)

107055 #1 또 기자 그 근 맞게 헹 쫀물에 ᄃᆞᆼ가 놓민 옛날엔 무시것이 엇이난에양.(또 그저 그 간 맞게 해서 짠물에 담가 놓으면 옛날엔 무엇이 없으니까요.)

107055 @ 으음.(으음.)

107055 #1 듕가놩 기자 쪼끄만헌 단지에나 꼭꼭 듕가 놔근엥에 돌멩이 꼽딱헌 거 성창에 강 봉가당 놔두주, 지둘르는 거. 경 헤영 대나무 헤근에 영 영 짤랑 그 단지에 영 십자로 영 허영 팔자 그 으답 가달로 헤영 우에 영 놩.(담가 놔서 그저 조그마한 단지에나 꼭꼭 담가 놔서 돌멩이 고운 거 성창에 가서 주워다가 놔두지, 지지르는 거. 그렇게 해서 대나무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그 단지에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해서 팔자 그 여덟 가닥으로 해서 위에 이렇게 놔서.)

107055 @ 예, 예.(예, 예.)

107055 #1 놔근에 이 여기다가 돌을 똑 지둘루민.(놔서 이 여기다가 돌을 똑 지지르면.)

107055 @ 예.(예.)

107055 #1 그 대나무로 이 다 돌아가난에.(그 대나무로 이 다 돌아가니까.)

107055 @ 음.(음.)

107055 #1 게믄 물이 믈른 디 엇이 다 들어갈 거 아니?(그러면 물이 마른 데 없이 다 들어갈 거 아니?)

107055 @ 예, 예.(예, 예.)

107055 #1 경 헷당 익으민게 그냥 색깔만 누렁헤근엥에 그 마농이 색깔이 누렁헙니다. 경 허민 그걸 꺼내민게 쿠스릉헌 게 기자 시큼둘큼헹 그거를 막 큰 반찬으로 그걸 먹엇수게.(그렇게 했다가 익으면 그냥 색깔만 누래서 그 마늘이 색깔이 누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꺼내면 구수한 게 그저 새큼달큼해서 그거를 아주 큰 반찬으로 그걸 먹었습니다.)

107055 @ 게난 그렇게 헤서 지시 담는 게.(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아찌 담그는 것이.)

107055 #1 그것이 지시.(그것이 장아찌.)

107055 @ 마농이 잇고.(마늘이 있고.)

107055 #1 응, 지시 담는 거.(응, 장아찌 담그는 거.)

107055 @ 그다음에 뭐 저기 믈망 이런 걸로는 안 헤봣수가?(그다음에 뭐 저기 모자반 이런 걸로는 안 해봤습니까?)

107055 #1 믈망?(모자반?)

107055 @ 으.(으.)

107055 #1 믈망으로 무신 지실 담아.(모자반으로 무슨 장아찔 담가.)

107055 @ 우리 저쪽에는 믐치렌 헤 갖고. 그거를 그 장에 묻엇당.(우리 저쪽에는 '믐치'라고 해 갖고. 그거를 그 장에 묻었다가.)

107055 #1 믈망을?(모자반을?)

107055 @ 예. 장에 묻엇당은에.(예. 장에 묻었다가.)

107055 #1 뿔아뒁.(빨아두고.)

107055 @ 거난 아니, 아니. 뿔아뒁 아니고 그 저기 믈렁예 그거를 장에 ᄀᆞ치 담앙

은에.(그러니까 아니, 아니. 빨아둬서 아니고 그 저기 말려서요 그거를 장에 같이 담가서.)

107055 #1 으.(으.)

107055 @ 걸 큰 반찬으로 허는데 이쪽은 모르더라고.(걸 큰 반찬으로 하는데 이쪽은 모르더라고.)

107055 #1 그런 건 몰라.(그런 건 몰라.)

107055 @ 예, 게난 춤몸.(예, 그러니까 '춤몸'.)

107055 #1 으, 춤몸[416].(으, '춤몸'.)

107055 @ 겡은에 몸치[417]렌 헤영은에.(그래서 '몸치'라고 해서.)

107055 #1 몸치 ᄆᆞ음치.('몸치' 'ᄆᆞ음치'.)

107055 @ 예, 으, 게난 제주도 널르데니까.(예, 으, 그러니까 제주도 너르다니까.)

107055 #1 게, 맞아.(게, 맞아.)

107055 @ 경 허영은에 허곡. 유지는 유지시는 안 헤난?(그렇게 해서 하고. 들깨장아찌는 들깨장아찌는 안 했었어요?)

107055 #1 유주시?(들깨찌꺼기?)

107055 @ 유, 유? 유입.(들깨, 들깨? 깻잎.)

107055 #1 아, 꿧입?(아, 깻잎?)

107055 @ 예.(예.)

107055 #1 꿧입. 옛날에 유 맞아.(깻잎. 옛날에 '유' 맞아.)

107055 @ 그거는 지시 안 헤봅디가?(그거는 장아찌 안 해봅디까?)

107055 #1 무사 그거 지시가 아니고 짱아찌주게.(왜 그거 '지시'가 아니고 장아찌지.)

107055 @ 거는 짱아찌로, 꿧입으로?(거는 장아찌로, 깻잎으로?)

107055 #1 으, 꿧입 콩입 다 짱아찌로 담앙 먹주. 지시가 아니고.(으, 깻잎 콩잎 다 장아찌로 담가서 먹지. '지시'가 아니고.)

107055 @ 아아, 콩입도마씨?(아아, 콩잎도요?)

107055 #1 예, 지금 지금도 지금도 콩입도 따근에 그 막 콩입은 막 부드러운 거는 안 좋주.(예, 지금 지금도 지금도 콩잎도 따서 그 아주 콩잎은 아주 부드러운 거는 안 좋지.)

107055 @ 예.(예.)

107055 #1 게난 ᄒᆞ쏠 뻐닥진 거. 늙은 거.(그러니까 조금 뻣뻣한 거. 늙은 거.)

107055 @ 으.(으.)

107055 #1 그거 허영은에양 간장에든 여름에든 담앗당 여름에 반찬 막 좁니다.(그거 해서요 간장에든 여름에든 담갔다가 여름에 반찬 아주 좁니다.)

107055 @ 아아, 옛날도 제주도에서는 콩입으로 경 헤낫수가?(아아, 옛날도 제주도에

416) '춤몸'은 모자반의 일종이다. 다른 모자반에 비교해서 먹을 수 있는 모자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417) '몸치'는 모자반으로 담근 장아찌다. 주로 제주시 서쪽에서 많이 해 먹었다.

서는 콩잎으로 그렇게 했었습니까?)
107055 #1 예에.(예에.)
107055 @ 아.(아.)
107055 #1 숭키가 콩입을 많이 먹엇주게, 옛날부떠.(푸성귀가 콩잎을 많이 먹었지, 옛날부터.)
107055 @ 예, 예, 예.(예, 예, 예.)
107055 #1 으.(으.)
107055 @ 아, 간장에 그것도.(아, 간장에 그것도.)
107055 #1 간장에도 둥가도 뒈고.(간장에도 담가도 되고.)
107055 @ 으.(으.)
107055 #1 뒌장에 헤민 묻엇당 먹을 때마다 영 꺼내영은엥에.(된장에 하면 묻었다가 먹을 때마다 이렇게 꺼내어서.)
107055 @ 으음.(으음.)
107055 #1 거 지금도 맛서.(거 지금도 맛있어.)
107055 @ 건 그 반찬을 무신거렌 헤여?(건 그 반찬을 무엇이라고 해?)
107055 #1 그 콩입 저 콩입.(그 콩잎 저 콩잎.)
107055 @ 으.(으.)
107055 #1 짱아찌로 짱아찌 묻은 거. 뒌장에 묻은 거 영 곧주. 뒌장에 묻은 거.(장아찌로 장아찌 묻은 거. 된장에 묻은 거 이렇게 말하지. 된장에 묻은 거.)
107055 @ 뒌장에 묻는 거 콩입.(된장에 묻는 거 콩잎.)
107055 #1 으, 꿧입도 그거, 뒌장에 묻은 거.(으, 깻잎도 그거, 된장에 묻은 거.)
107055 @ 아, 꿧입도 뒌장에 묻언마씨?(아, 깻잎도 된장에 묻었어요?)
107055 #1 예게, 다 묻어 다. 막 좋아.(예, 다 묻어 다. 아주 좋아.)
107055 @ 아아, 뒌장에 그것도 하는구나.(아아, 된장에 그것도 하는구나.)
107055 #1 예, 예.(예, 예.)
107055 @ 삼춘 여기 반치엔 헹 들어봔마씨?(삼촌 여기 '반치'라고 해서 들어봤어요?)
107055 #1 반치.(파초.)
107055 @ 으.(으.)
107055 #1 반치.(파초.)
107055 @ 반치도 헷잖아예?(파초도 했잖아요?)
107055 #1 으, 반치 막 저 저 큰.(으, 파초 아주 저 저 큰.)
107055 @ 으.(으.)
107055 #1 나무 뒈영 이파리 이만씩 헌 거.(나무 되어서 이파리 이만큼씩 한 거.)
107055 @ 예.(예.)
107055 #1 그거, 그것도 저 짱아찌로 헤영 먹고.(그거, 그것도 저 장아찌로 해서 먹고.)

107055 @ 음, 것도 간장에.(음, 것도 간장에.)

107055 #1 것도 저 이파리 다 다듬아 불곡 뭐 헹 남뎅이 워낙 크난게 영 영 썰어근엥에.(것도 저 이파리 다 다듬어 버리고 뭐 해서 줄기 워낙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107055 @ 음.(음.)

107055 #1 요샌 반치도 안 먹엄실 거우다.(요샌 파초도 안 먹고 있을 겁니다.)

107055 @ 게난 반치도 뒌장에 묻어?(그러니까 파초도 된장에 묻어?)

107055 #1 으.(으.)

107055 @ 게난 삼춘 뒌장에 묻고 장아찌렌 골아?(그러니까 삼촌 된장에 묻고 장아찌라고 말해?)

107055 #1 예, 옛날에.(예, 옛날에.)

107055 @ 아까 소금에 둥근 거는?(아까 소금에 담근 거는?)

107055 #1 으 징뀌.(으 김치.)

107055 @ 건 징뀌.(건 김치.)

107055 #1 마농징뀌[418]. (웃음).('마농징뀌'. (웃음).)

107055 @ 마농징뀌허고예. 그다음에 양웨로도 헤난?('마농징뀌'하고요. 그다음에 양하로도 했었어요?)

107055 #1 양웨는 저 짱아찌 허는 게 아니고.(양하는 저 장아찌 하는 게 아니고.)

107055 @ 음.(음.)

107055 #1 양에는 기자 양에 나가민 거 끊어근에 캐여근엥에 데왕도 먹곡 쌩차 먹고.(양하는 그저 양하 나가면 거 끊어서 캐어서 데쳐서도 먹고 생짜 먹고.)

107055 @ 으.(으.)

107055 #1 그 양웨는. 거 몸에 막 좋고 농약에 경 좋은 거라양.(그 양하는. 거 몸에 아주 좋고 농약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107055 @ 아.(아.)

107055 #1 농약 제 저 뭐.(농약 제 저 뭐.)

107055 @ 제허는 뭐가 잇구나, 어.(제하는 뭐가 있구나, 어.)

107055 #1 그거예, 이디서는 독 제허는 거.(그거요, 여기서는 독 제하는 거.)

107055 @ 음.(음.)

107055 #1 남밧[419]듸 약 치레 가오민 우선은 양웨 케여다근엥에 그걸로 뒌장에 찍으멍이라도 밥 먹읍네께.(나무밭에 약 치러 가오면 우선은 양하 캐어다가 그걸로 된장에 찍으면서라도 밥 먹습니다.)

107055 @ 아.(아.)

107055 #1 그 농약 치레 가온 때.(그 농약 치러 가올 때.)

107055 @ 아.(아.)

---

418) '마농징뀌'는 마늘김치라는 말이다. 제보자는 달래를 소금물에 담가서 익힌 음식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419) 여기에서 '남밧'은 귤밭을 가리킨다.

107055 #1 게영 워낙 심헌 때는 그거 독독 삐져근엥에 물 허영 혼 잔 먹어 불곡.(그래서 워낙 심할 때는 그거 독독 빻아서 물 해서 한 잔 먹어 버리고.)
107055 @ 아.(아.)
107055 #1 농약 제거허는 거.(농약 제거하는 거.)
107055 @ 농약 제거허는 거?(농약 제거하는 거?)
107055 #1 예.(예.)
107055 @ 게난 이 양에로는 헤 갖고 장아찐 안 헹 먹어?(그러니까 이 양하로는 해 갖고 장아찐 안 해서 먹어?)
107055 #1 아니, 장아찐 아니.(아니, 장아찐 아니.)
107055 @ 아니, 한 번도 안 헤봔 삼촌네?(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삼촌네?)
107055 #1 장아찐 안 허곡 기자 저 싸 먹엇주, 그때. 이파리.(장아찐 안 하고 그저 저 싸 먹었지, 그때. 이파리.)
107055 @ 이파리를 싸 먹고.(이파리를 싸 먹고.)
107055 #1 기자 밥 싸 먹엇주.(그저 밥 싸 먹었지.)
107055 @ 으, 가을에 헐 때는 그냥.(으, 가을에 할 때는 그냥.)
107055 #1 으, 장아찐 안 허고.(으, 장아찐 안 하고.)
107055 @ 그냥 데쳥 무쳥 먹어예? 음음. 우리 저 시에는 양하장아찌.(그냥 데쳐서 무쳐서 먹는다고요? 음음. 우리 저 제주시에는 양하장아찌.)
107055 #1 으.(으.)
107055 @ 양에장아찌 맛싯는데. 가을에?(양하장아찌 맛있는데. 가을에?)
107055 #1 양에, 양에 썹으로?(양하, 양하 잎으로?)
107055 @ 아니, 썹으로 말앙.(아니 잎으로 말고.)
107055 #1 양엣근[양에끈]으로 허주.(양하이삭으로 하지.)
107055 @ 으, 양엣근으로.(으, 양하이삭으로.)
107055 #1 양엣근으로 허주, 저 장아찌는.(양하이삭으로 하지, 저 장아찌는.)
107055 @ 으.(으.)
107055 #1 양엣근으로 우린 해년마다 헹 먹읍네다.(양하이삭으로 우린 해마다 해서 먹습니다.)
107055 @ 기지예.(그렇지요.)
107055 #1 양엣근, 양엣근.(양하이삭, 양하이삭.)
107055 @ 양엣근.(양하이삭.)
107055 #1 으.(으.)
107055 @ 양엣근, 양엣근으로 이제 지시.(양하이삭, 양하이삭으로 이제 장아찌.)
107055 #2 짱아찌 허는 거.(장아찌 하는 거.)
107055 @ 짱아찌 허는 거예?(장아찌 하는 거요?)
107055 #1 예.(예.)
107056 @ 그러면 이제 삼춘네도 요즘 대산이장아찌 만들멘?(그러면 이제 삼촌네도

요즘 마늘장아찌 만들어요?)

107056 #1 예, ᄒᆞ꼼썩은 허주, 다.(예, 조금씩은 하지, 다.)

107056 @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맛 좋게 만드는 방법?(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맛 좋게 만드는 방법?)

107056 #1 우린, 우린 기자 대산이 여물 까근에.(우린, 우린 그저 마늘 여물 까서.)

107056 @ 예.(예.)

107056 #1 여물 까근에 우리 작년 것도 지금 먹당 쪼금 남아신디 저 무시거냐 간장에.(여물 까서 우리 작년 것도 지금 먹다가 조금 남았는데 저 무엇이냐 간장에.)

107056 @ 음.(음.)

107056 #1 아이고, 그 이름 확 곧젠 허난. 요새 그거 짱아찌 허는 재료가 나오주.(아이고, 그 이름 확 말하려고 하니까. 요새 그거 장아찌 하는 재료가 나오지.)

107056 @ 뭐 미?(뭐 '미'?)

107056 #1 미향[420].('미향'.)

107056 @ 으.(으.)

107056 #1 미향. 어 그것에 헹은에 물에 끌령.('미향'. 어 그것에 해서 물에 끓여서.)

107056 @ 으.(으.)

107056 #1 식으민 그 대산이에 헤영.(식으면 그 마늘에 해서.)

107056 @ 으, 건 여물 까근에 허고.(으, 건 여물 까서 하고.)

107056 #1 으, 여물 깡.(으, 여물 까서.)

107056 @ 그 대로는 안 헤?(그 대로는 안 해?)

107056 #1 아, 대로는 마농 저.(아, 대로는 마늘 저.)

107056 @ 마농지시는?(마늘장아찌는?)

107056 #1 대로는 그거 저 대산이 처음 나올 때 비싸도 거 사당 요만이헌 통으로 ᄒᆞ나 헤영 기자 그 여름에 먹엉.(대로는 그거 저 마늘 처음 나올 때 비싸도 거 사다가 요만큼한 통으로 하나 해서 그저 그 여름에 먹어서.)

107056 @ 으.(으.)

107056 #1 하영은 안 허여.(많이는 안 해.)

107056 @ 음, 삼춘네는 이제 뿌리로 하영 헴구나, 그냥?(음, 삼촌네는 이제 뿌리로 많이 하고 있구나, 그냥?)

107056 #1 뿌리로.(뿌리로.)

107056 @ 음.(음.)

107056 #1 뿌리로도 그거예 간장 안 놩 헤영허게 허젠 허민 그대로 소금물에만 헤사.(뿌리로도 그거요 간장 안 놔서 하얗게 하려고 하면 그대로 소금물에만 해야.)

107056 @ 음.(음.)

107056 #1 헤영헤근엥에 맛이 보기도 좋고 맛은 잇주.(하얘서 맛이 보기도 좋고 맛은 있지.)

420) '미향'은 조미료의 일종이다.

107056 @ 소금물에?(소금물에?)

107056 #1 간장으론 허민 색깔이.(간장으론 하면 색깔이.)

107056 @ 예, 예.(예, 예.)

107056 #1 불그롱허곡.(불그레하고.)

107056 @ 게민 거기에 그 두 가지만 놔? 뭐 식초 이런 건 안 놔마씨?(그러면 거기에 그 두 가지만 놔? 뭐 식초 이런 건 안 놔요?)

107056 #1 식초 쩨끔 놔야주. 쩨끔.(식초 조금 놔야지. 조금.)

107056 @ 쩨금.(조금.)

107056 #1 하영 안 놩 쪼끔 놔야주.(많이 안 놔서 조금 놔야지.)

107057 @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바당 동네니까 훼 같은 것도 하영 먹어실 거 아니라예?(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바다 동네니까 회 같은 것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닌가요?)

107057 #1 훼.(회.)

107057 @ 으.(으.)

107057 #1 훼 여기선 엿날엔양 비께[421]에 헌 거 상언디 비께가 엇어양.(회 여기선 옛날에는요 '비께'라고 한 거 상언데 '비께'가 없어요.)

107057 @ 예.(예.)

107057 #1 줌수덜.(잠녀들.)

107057 @ 으.(으.)

107057 #1 우리도 막 그 물질헐 때 거 찔러나신디.(우리도 막 그 물질할 때 거 찔렀었는데.)

107057 @ 으.(으.)

107057 #1 그 비께를 허민 비께 사시미가 젤 맛십니다.(그 '비께'를 하면 '비께' 회가 젤 맛있습니다.)

107057 @ 음.(음.)

107057 #1 술이 또락또락허곡예. 비껠 물에 들엉 숨비당 하나 영 엉덕[422]에 눈 거 보면은.(살이 쫄깃쫄깃하고요. '비껠' 물에 들어서 숨비다가 하나 이렇게 '엉덕'에 눈 거 보면.)

107057 @ 음.(음.)

107057 #1 그 동네 숨비는[423] 사름 다 오렌 불러. 혼자만 못헤.(그 동네 '숨비는' 사람 다 오라고 불러. 혼자만 못해.)

107057 @ 음.(음.)

107057 #1 하도 쎄영.(하도 세어서.)

107057 @ 음.(음.)

107057 #1 경 허영 불러근에 허민 줌녀덜 댓이 오면은 소살 다 가졍 들어가근에 들

421) '비께'는 상어의 일종이다.
422) '엉덕'은 '바다 속 바위의 아래'의 의미다.
423) '숨비는'은 '물질을 하기 위하여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의 의미다.

어강 소살로 찔렁.(그렇게 해서 불러서 하면 잠녀들 댓이 오면 작살 다 가져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작살로 찔러서.)

107057 @ 으.(으.)

107057 #1 경 혜영 망사리에 꺼꾸로 담아아졍 곳듸 휘여 왕. 게민 그 불턱[424]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엉 이십 명의 해녀가 잇다.(그렇게 해서 망사리에 거꾸로 담아 가지고 가에 헤어 와서. 그러면 그 '불턱'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십 명의 해녀가 있다.)

107057 @ 음.(음.)

107057 #1 게민 찔러온 거 우리 다섯이만 찔러 왓다.(그러면 찔러온 거 우리 다섯만 찔러 왔다.)

107057 @ 음.(음.)

107057 #1 게문 그걸양 다섯이만 먹을 수가 없어.(그러면요 그걸요 다섯만 먹을 수가 없어.)

107057 @ 음.(음.)

107057 #1 게믄 그 자리에서 칼 헤근에 그걸 다 거기서 벳경 도막도막 다 쫄르멍 그디 잇는 사름안티 다 갈라 먹어.(그러면 그 자리에서 칼 해서 그걸 다 거기서 벗겨서 도막도막 다 자르면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다 나눠 먹어.)

107057 @ 음.(음.)

107057 #1 헌 사름만 먹엇당은 이건 뭐 왕따 당혜, 완전 안 뒈.(한 사람만 먹었다가 이건 뭐 왕따 당해, 완전 안 돼.)

107057 @ 으.(으.)

107057 #1 게난 비께, 비께다 허민은 저만이 잇인 사름도 다 준다 허는 거, 비께.(그러니까 '비께', '비께'다 하면 저만큼 있는 사람도 다 준다 하는 거, '비께'.)

107057 @ 아.(아.)

107057 #1 구경헌 사름은 다.(구경한 사람은 다.)

107057 @ 잔치네 잔치.(잔치네 잔치.)

107057 #1 예, 불턱에서. 건 경 헹 먹어. 경 허영 그거 훼 경 혜영 먹곡. 자리훼 실피 잘 헹 먹곡.(예, '불턱'에서. 건 그렇게 해서 먹어. 그렇게 해서 그거 회 그렇게 해서 먹고. 자리회 실컷 잘 해서 먹고.)

107057 @ 음.(음.)

107057 #1 자리휀 이디 건 세는 자린디 엇어져 벤에 경 허영 허곡. 휀 허는 거는게 한치훼 하영 먹곡.(자리횐 여기 건 세는 자리돔인데 없어서 버려서 그렇게 해서 하고. 횐 하는 거는 화살오징어회 많이 먹고.)

107057 @ 여기도 한치도 하영 나마씨?(여기도 화살오징어도 많이 나요?)

107057 #1 예.(예.)

107057 @ 이 바당에?(이 바다에?)

---

424) '불턱'은 해녀들이 물질하러 다닐 때 옷을 갈아입거나 언 몸을 녹일 수 있는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바닷가에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담을 네모나게 둘러서 만든다.

107057 #1 다찌도, 다찌훼 좋곡. 바닷고기는 어렝이훼 또 경 좋곡.(독가치도, 독가시치회 좋고. 바닷고기는 어렝놀래기회 또 그렇게 좋고.)

107057 @ 음.(음.)

107057 #1 어렝이훼 먹어봅디가?(어렝놀래기회 먹어봅디까?)

107057 @ 예, 물훼 맛 좋아예?(예, 물회 맛 좋지요?)

107057 #1 물훼만. 어렝이훼 좋곡. 훼는 싱싱헌 때는 다 헹 먹주게.(물회만. 어렝놀래기회 좋고. 회는 싱싱한 때는 다 해서 먹지.)

107057 @ 음, 옛날도 그렇게 헤 먹은 거라예?(음, 옛날도 그렇게 해 먹은 거네요?)

107057 #1 예. 옛날부떠 그거라.(예. 옛날부터 그거야.)

107057 @ 그다음에 여긴 방어는 안 나?(그다음에 여긴 방어는 안 나?)

107057 #1 방어, 아, 엇어 이 바당엔.(방어, 아, 없어 이 바다에는.)

107058 @ 이 바당엔 방어 없고 저 모슬포 쪽에 잇곡. 그다음에 그 이 바당 동네니까 이 계절에 따랑 그 헤먹는 이런 고기 저 조림들 잇지 아녀우꽈? 옛날도 조림엔 헨 뭐렌 헨? 자리 뭐 지졍 먹게 영 허잖아예?(이 바다에는 방어 없고 저 모슬포 쪽에 있고. 그다음에 그 이 바다 동네니까 이 계절에 따라서 그 해먹는 이런 고기 저 조림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도 조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리돔 뭐 지져서 먹게 이렇게 하잖아요?)

107058 #1 지졍 먹엇주게. 조림엔. 보깡 먹곡, 지졍 먹곡.(지져서 먹었지. 조림이라고. 볶아서 먹고, 지져서 먹고.)

107058 @ 보깡 먹고 지졍 먹곡예?(볶아서 먹고 지져서 먹고요?)

107058 #1 보깡 먹게 헌 것이 이제사 셍각헤 보민은 조림이라.(볶아서 먹자 한 것이 이제야 생각해 보면 조림이야.)

107058 @ 예.(예.)

107058 #1 그 물 엇이 바짝허게 보끄는 것이.(그 물 없이 바짝하게 볶는 것이.)

107058 @ 음, 음, 음. 지지거나예?(음, 음, 음. 지지거나요?)

107058 #1 그거 저 지지는 건 물 잇이게 지지는 것이 지지는 거고.(그거 저 지지는 건 물 있게 지지는 것이 지지는 거고.)

107058 @ 아.(아.)

107058 #1 그 물 엇이 허는 거는 그게 보깡. 야, 자리 보끄라 허주.(그 물 없이 하는 거는 그게 볶아서. 야, 자리돔 볶아라 하지.)

107058 @ 음.(음.)

107058 #1 게믄 그것도 물장에 보단 뒌장에 보까야 더 꽝이 더 부드럽곡 더 맛싯어양, 자리도.(그러면 그것도 간장에 보다는 된장에 볶아야 더 뼈가 더 부드럽고 더 맛있어요, 자리돔도.)

107058 @ 아, 자리도 뒌장에 보까마씨?(아, 자리돔도 된장에 볶아요?)

107058 #1 어, 뒌장에 보까야 꽝 까시가 더 부드럽곡.(어, 된장에 볶아야 뼈 가시가 더 부드럽고.)

107058 @ 예.(예.)
107058 #1 더 맛이 좋아.(더 맛이 좋아.)
107058 @ 아.(아.)
107058 #1 물장에 허는 거 보단.(간장에 하는 거 보다는.)
107058 @ 물장에 보단.(간장에 보단.)
107058 #1 그것에 대산이도 삐져놓곡.(그것에 마늘도 빻아놓고.)
107058 @ 예.(예.)
107058 #1 무시것도 놓곡 헹은에.(무엇도 놓고 해서.)
107058 @ 게문 그렇게 헤서 자리 한번 저기 지져 봅서.(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리돔 한번 저기 지져 보십시오.)
107058 #1 아이, 자리가 잇어게.(아니, 자리돔이 있어?)
107058 @ 아니, 게난 게난 말로?(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
107058 #1 아아, 게난 그거.(아아, 그러니까 그거.)
107058 @ 으.(으.)
107058 #1 자리 허민 야, 자리 지지라 허민 지지는 거는 물이 시난 지지는 거고.(자리돔 하면 야, 자리돔 지져라 하면 지지는 거는 물이 있으니까 지지는 거고.)
107058 @ 으.(으.)
107058 #2 보끄는 거는 그 자리 놓곡게 뒌장 물에 영 타근엥에 자리에 기자 자박허게시리 자리 우에 뜨게만 놩 대산이 썰어놓곡게 고추도 놓곡.(볶는 거는 그 자리돔 놓고 된장 물에 이렇게 타서 자리에 그저 자작하게끔 자리돔 위에 뜨게만 놔서 마늘 썰어놓고 고추도 놓고.)
107058 @ 음.(음.)
107058 #1 뭐 헤근엥에 저 기름.(뭐 해서 저 기름.)
107058 @ 예.(예.)
107058 #1 기름 쪼금 놔야 뒈예.(기름 쪼금 놔야 돼요.)
107058 @ 음.(음.)
107058 #1 쪼끔 기름 놓곡 헤근에 물 바작허게 바짝허게 보끄면은.(쪼끔 기름 놓고 해서 물 바짝하게 바짝하게 볶으면.)
107058 @ 으음.(으음.)
107058 #1 잘도 부드럽고 좁니다게. 저 물장에 헌 것보단.(잘도 부드럽고 좋습니다. 저 간장에 한 것보단.)
107058 @ 물장에 헌 거보단예. 게믄 아아, 그게 자리 지지는 거.(간장에 한 거보단요. 그러면 아아, 그게 자리돔 지지는 거.)
107058 #1 으. 자리.(으. 자리돔.)
107058 @ 게문 우리가 이제.(그러면 우리가 이제.)
107058 #1 자리 보끄는 거. 지지는 거 아니.(자리돔 볶는 거. 지지는 거 아니.)
107058 @ 보끄는 거. 이렇게 하면 계절에 따라서예, 뭐 우럭도 옛날에 조림.(볶는

거. 이렇게 하면 계절에 따라서요, 뭐 우럭도 옛날에 조림.)
107058 #1 이제도 조림헙니께.(이제도 조림합니다.)
107058 @ 우럭은 어떤 식으로 헷수가?(우럭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7058 #1 우럭도게 마찬가지주게.(우럭도 마찬가지지.)
107058 @ 음.(음.)
107058 #1 우럭은 물 잇게 헤근에 그것에 요즘은.(우럭은 물 있게 해서 그것에 요즘은.)
107058 @ 음.(음.)
107058 #1 옛날은 헤도 요즘은 물엿도 쪼끔 놓곡양. 물엿도 쪼끔 놓곡 그것에 이제 마늘 놓곡 파 놓고 무시거 놓곡 다 허영 쫄여. 고칫ᄀᆞ를 놓곡. 경 헤영 쫄여근엥에 우럭 쫄영.(옛날은 해도 요즘은 물엿도 쪼끔 놓곡양. 물엿도 쪼끔 놓고 그것에 이제 마늘 놓고 파 놓고 무엇 놓고 다 해서 졸여. 고춧가루 놓고. 그렇게 해서 졸여서 우럭 졸여서.)
107058 @ 옛날 우럭 쫄영 헐 때 허면은 보면 콩도 놩은에.(옛날 우럭 졸여서 할 때 하면 보면 콩도 놔서.)
107058 #1 콩?(콩?)
107058 @ 콩자반? 여기는 콩 같이 안 놩?(콩자반? 여기는 콩 같이 안 놔서?)
107058 #1 우린 콩 안 놔.(우린 콩 안 놔.)
107058 @ 콩하고예 마농지시하고 같이 놩은에.(콩하고요 마늘장아찌하고 같이 놔서.)
107058 #1 건 지지는 거지.(건 지지는 거지.)
107058 @ 지지는 거.(지지는 거.)
107058 #1 건 지지는 거주.(건 지지는 거지.)
107058 @ 여기도 지지는 걸 경 헤마씨?(여기도 지지는 걸 그렇게 해요?)
107058 #1 지지는 거주. 거 지지는 거.(지지는 거지. 거 지지는 거.)
107058 @ 게난 보끄는 거 하고 지지는 거하고?(그러니까 볶는 거 하고 지지는 거하고?)
107058 #1 틀리주게.(다르지.)
107058 @ 틀리게예?(다르게요?)
107058 #1 예, 보끄는 거는 물 엇이.(예, 볶는 거는 물 없이.)
107058 @ 물 엇이 허는 거.(물 없이 하는 거.)
107058 #1 고기가 바짝허게 보까 내는 거고.(고기가 바짝하게 볶아 내는 거고.)
107058 @ 음.(음.)
107058 #1 지지는 건 물 잇이 허는 거 지지는 거.(지지는 건 물 있게 하는 거 지지는 거.)
107058 @ 물 잇게. 으으, 게난 지질 때 하는 거고예?(물 있게. 으으, 그러니까 지질 때 하는 거고요?)
107058 #1 으.(으.)

107058 @ 그다음에 물, 물웨. 고사리무침 옛날 여기. 아 어제 고사리 얘기 헨 게마는. 고사리무침은 어떵 허는 거?(그다음에 물, 물외. 고사리무침 옛날 여기. 아 어제 고사리 얘기 하더니만. 고사리무침은 어떻게 하는 거?)

107058 #1 고사리 말른 거는.(고사리 마른 거는.)

107058 @ 음.(음.)

107058 #1 이 물에 담갓당.(이 물에 담갔다가.)

107058 @ 음.(음.)

107058 #1 ᄒᆞ꼼 영 퍼지면은 그걸 또 삶앙.(조금 이렇게 퍼지면 그걸 또 삶아서.)

107058 @ 예.(예.)

107058 #1 으, 쌂으민 보들보들 먹기 좋게 삶아지면은 그걸 건져. 물에 담갓당. 고사리가 독성 잇젠 헙니다게.(으, 삶으면 보들보들 먹기 좋게 삶아지면 그걸 건져. 물에 담갔다가. 고사리가 독성 있다고 합니다.)

107058 @ 예, 예, 예.(예, 예, 예.)

107058 #1 물에 담갓당은에 다 우려나 불민은 그거 건졍은에 무치는 거? 무치는 거? 게믄 거 그대로 무쳥은 안 뒈주.(물에 담갔다가 다 우러나 버리면 그거 건져서 무치는 거? 무치는 거? 그러면 거 그대로 무쳐서는 안 되지.)

107058 @ 그러니까.(그러니까.)

107058 #1 양념 다 놩 버무려근엥에 후라이팬이든 뭐든 헹은에 보까야주.(양념 다 놔서 버무려서 프라이팬이든 뭐든 해서 볶아야지.)

107058 @ 음.(음.)

107058 #1 경 허는 거우다.(그렇게 하는 겁니다.)

107058 @ 게니까, 예전에 저는예, 어렷을 때부터 우리는 고사리 막 꺼끄레 가는 거는 봐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말린 고사리. 제사 때밖에 먹는 거 안 봣거든예? 겐디 요즘은 놀고사리들 헤근에.(그러니까, 예전에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고사리 막 꺾으러 가는 거는 봐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말린 고사리. 제사 때밖에 먹는 거 안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날고사리들 해서.)

107058 #1 놀 거, 놀 거 헤영 저 겐디 놀 거는 막 헤싸져 불주, 보까 가민.(날 거, 날 거 해서 저 그런데 날 거는 막 허물어져 버리지, 볶아 가면.)

107058 @ 음.(음.)

107058 #1 퍼져 병. 겐디 그거 좋아하는 사름은 좋아허는데. 겐디 제사 때는 거 놀 거는 올리ᄌᆞ; 말렌 헙니다. 여기선.(퍼져 버려서. 그런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그런데 제사 때는 거 날 거는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107058 @ 아아.(아아.)

107058 #1 놀 거는 웨냐하면 제사 때는 산에 거니까.(날 거는 왜냐하면 제사 때는 산에 거니까.)

107058 @ 예.(예.)

107058 #1 산에서 난 거기 때문에 날 거는.(산에서 난 거기 때문에 날 거는.)

107058 @ 하지 말라.(하지 말라.)

107058 #1 말라 허주게.(말라 하지.)

107058 @ 으.(으.)

107058 #1 쌂앙 말린 거라사지 날 것도 우리도 반찬으로 그냥 헤 놧당 먹는디.(삶아서 말린 거여야지 날 것도 우리도 반찬으로 그냥 해 놨다가 먹는데.)

107058 @ 음.(음.)

107058 #2 경 거 좋아. 그거는 기자 삶아 논 거니까 물에 담갓당.(그렇게 거 좋아. 그거는 그저 삶아 논 거니까 물에 담갔다가.)

107058 @1 음.(음.)

107058 #1 그 얼음만 풀어지민 얼음 풀어지걸랑은에 양념 싹 헤근에 조물조물헹.(그 얼음만 풀어지면 얼음 풀어지거든 양념 싹 해서 조물조물해서.)

107058 @ 으.(으.)

107058 #1 서꺼놔근엥에 그대로 보깡 후라이팬에서 보깡.(섞어놔서 그대로 볶아서 프라이팬에서 볶아서.)

107058 @ 경 허니까 요즘은 그런 식으로 헤 갖고 이제 옛날은 다 말렷는데.(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옛날은 다 말렸는데.)

107058 #1 어.(어.)

107058 @ 다 그렇게 하더라고.(다 그렇게 하더라고.)

107058 #1 요즘은 그거 허민 요즘은 또 양념을 이 조개다시다 조개민 조미료.(요즘은 그거 하면 요즘은 또 양념을 이 조개다시다 조개면 조미료.)

107058 @ 예.(예.)

107058 #1 그거 놩 서껑 보끄주.(그거 놔서 섞어서 볶지.)

107058 @ 조개 같이.(조개 같이.)

107058 #1 조개다시다. 으, 메리치다시다 말고 조개다시다.(조개다시다. 으, 멸치다시다 말고 조개다시다.)

107058 @ 조개다시다 아. 것도 다 자기 테운 것이 잇인 모양이구나.(조개다시다 아. 것도 다 자기 타고난 것이 있는 모양이구나.)

107058 #1 으, 그대로 옛날식으로 아무 것도 안 놩 보깡은 별로 맛이 기름내벳긔 기름 맛벳긔.(으, 그대로 옛날식으로 아무 것도 안 놔서 볶아서는 별로 맛이 기름내밖에 기름 맛밖에.)

107058 @ 참기름.(참기름.) (웃음)

107058 #1 (웃음) 기름 맛벳긔 엇주게.((웃음) 기름 맛밖에 없지.)

107058 @ 예, 겨고 삼춘, 옛날에는 보면 우리 그 제사 때도 그 늙은호박?(예, 그러고 삼촌, 옛날에는 보면 우리 그 제사 때도 그 청둥호박?)

107058 #1 으, 늙은호박.(으, 청둥호박.)

107058 @ 늙은호박 무청은에 하영 먹지 않앗수까? 데청.(청둥호박 무쳐서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데쳐서.)

107058 #1 호박메물[425]헤근에.(‘호박메물’해서.)

107058 @ 어, 호박메물예?(어, ‘호박메물’요?)

107058 #1 제사 때 호박메물 헤영.(제사 때 ‘호박메물’ 해서.)

107058 @ 그거 어떵 허는 거 골아줘 봅서.(그거 어떻게 하는 거 말해줘 보십시오.)

107058 #1 그 거죽 벳기곡 씨 빼곡 헤뒁 동동동동 썰어근엥에 요만씩 몽클몽클허게 썰엉 물에 쌂앙.(그 껍질 벗기고 씨 빼고 해두고 동동동동 썰어서 요만큼씩 몽클몽클하게 썰어서 물에 삶아서.)

107058 @ 예.(예.)

107058 #1 쌂앙 무치는 거 건져내영.(삶아서 무치는 거 건져내어서.)

107058 @ 예, 게난 거기에는 벨 거 안 놔도 맛잇어예?(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 거 안 놔도 맛있지요?)

107058 #1 으, 호박 든 호박은 막 맛싯어. 꿰허곡 지름만 놓민 뒈는 거난게.(으, 호박 단 호박은 아주 맛있어. 참깨하고 기름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107058 @ 꿰허고 기름허고 이제 패마농. 이렇게 썰어서. 경 허믄 식겟집 가면 그거 부떠 주지 안헙니까?(참깨하고 기름하고 이제 쪽파. 이렇게 썰어서. 그렇게 하면 제삿집 가면 그거부터 주지 않습니까?)

107058 #1 옛날에 제사 때 호박메물을 헤나신디.(옛날에 제사 때 ‘호박메물’을 했었는데.)

107058 @ 예.(예.)

107058 #1 이젠 안 허여.(이젠 안 해.)

107058 @ 이만큼씩. 맞아.(이만큼씩. 맞아.)

107058 #1 이젠 안 허여.(이젠 안 해.)

장 담그기

107059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삼춘, 장은 하영 담아봅디가?(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삼촌, 장은 많이 담가봅디까?)

107059 #1 장은양 우리 처음 살렴 살 땐예.(장은요 우리 처음 살림 살 땐요.)

107059 @ 예.(예.)

107059 #1 콩 닷 말썩 담아낫수다.(콩 닷 말씩 담갔었습니다.)

107059 @ 음.(음.)

107059 #1 콩 닷 말. 콩 닷 말 솖으민 막 놉 빌엉 일허곡 헐 때난에.(콩 닷 말. 콩 닷 말 삶으면 막 놉 빌려서 일하고 할 때니까.)

107059 @ 아, 그렇지예?(아, 그렇지요?)

107059 #1 경 헤난 허고. 지금도.(그렇게 하니까 하고. 지금도.)

107059 @ 으.(으.)

425) ‘호박메물’은 호박을 데쳐서 무친 음식이다. 주로 제사 때 하는 나물이다.

107059 #1 지금도 메누리덜 다 장을 다 가져갑니다게.(지금도 며느리들 다 장을 다 가져갑니다.)

107059 @ 아, 삼춘이 다 담앙 줌구나.(아, 삼촌이 다 담아서 주고 있구나.)

107059 #1 서울이고 인천이고 딸이고. 웨냐 메누린 헨 보난, 우리가 파는 장을 일절 안 먹어집주게.(서울이고 인천이고 딸이고. 왜냐 며느린 해서 보니까, 우리가 파는 장을 일절 안 먹어지지요)

107059 @ 예, 예, 예.(예, 예, 예.)

107059 #1 거 막 뭐 놓고[노꼬] 맨 처음 밍그랑[426]만 허곡 원 안 좋아근엥에 안 먹어지는디 메누리덜토 헤연 보난 어머니가 담아준 장으로 먹엄섭데게.(거 막 뭐 놓고 맨 처음 '밍그랑'만 하고 원 안 좋아서 안 먹어지는데 며느리들도 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담가준 장으로 먹고 있습디다.)

107059 @ 음.(음.)

107059 #1 게난 파는 장을 안 먹는다는 거라.(그러니까 파는 장을 안 먹는다는 거야.)

107059 @ 예.(예.)

107059 #1 게난 이젠 게난 우린 장을 항상 묵영.(그러니까 이젠 그러니까 우린 장을 항상 묵혀서.)

107059 @ 음.(음.)

107059 #1 닷 말 숢앙 뒌장 헤 놓민 흔 말에치 흔 말에치 둘이 아져가곡 ○○이 아져가곡 서 말에치 아져가민 두 말에치는 우리 먹다근에 남으민 곧 저 새 콩 이제 저 겨울뒈민 숢앙.(닷 말 삶아서 된장 해 놓으면 한 말어치 한 말어치 둘이 가져가고 ○○이 가져가고 서 말어치 가져가면 두 말어치는 우리 먹다가 남으면 곧 저 새 콩 이제 저 겨울되면 삶아서.)

107059 @ 음.(음.)

107059 #1 그거 숢아근엥에 그거 헤, 틔왓당 그대로 그 묵은 뒌장에.(그거 삶아서 그거 해, 띄웠다가 그대로 그 묵은 된장에.)

107059 @ 서껑.(섞어서.)

107059 #1 콩 숢은, 콩 숢은 물 놓곡 헤근엥에 서꺼근에 항아리에 또 담는 거라.(콩 삶은, 콩 삶은 물 놓고 해서 섞어서 항아리에 또 담그는 거야.)

107059 @ 음.(음.)

107059 #1 담앙 놔두면은 그 방법으로 고추.(담가서 놔두면 그 비법으로 고추.)

107059 @ 예.(예.)

107059 #1 빨간 고추나 뭐 육지 사름은 숫을, 숫이영 놓는디. 숫은 엇이난 안 놓곡 빨간 고추 흔듸 서껑 헤 놓민 그게 변허지도 안 허곡 장이.(빨간 고추나 뭐 육지 사람은 숯을, 숯이랑 놓는데. 숯은 없으니까 안 놓고 빨간 고추 함께 섞어서 해 놓으면 그게 변하지도 안 하고 장이.)

426) '밍그랑'은 느끼한 모양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다.

107059 @ 예.(예.)

107059 #1 경 혜영 지금도 나도 서 말꺼장은 담아근에 뒌장 헤근에.(그렇게 해서 지금도 나도 서 말까지는 담가서 된장 해서.)

107059 @ 음.(음.)

107059 #1 가네 날라 가는 따문에 경 헙니다.(걔네 날라 가는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107059 @ 항상예?(항상요?)

107059 #1 예, 항상.(예, 항상.)

107061 @ 그 장은 게믄 언제 담아마씨?(그 장은 그러면 언제 담가요?)

107061 #1 그 장은 저기 저 섣돌에, 동짓돌에.(그 장은 저기 저 섣달에, 동짓달에.)

107061 @ 음.(음.)

107061 #1 시간 잇어근엥에 메주 일찍 헌 사름은 동짓돌에 담곡.(시간 있어서 메주 일찍 한 사람은 동짓달에 담그고.)

107061 @ 음.(음.)

107061 #1 엇인 사름은 섣돌에 나사 담곡.(없는 사람은 섣달에 되어야 담그고.)

107061 @ 음.(음.)

107061 #1 그거는 갈림은 언제 허느냐? 음력으로 이월돌에, 섣돌에. 동짓돌에 담은 거는 에 음력으로 정월 섣돌그뭄 뒈민은 갈림을 허고.(그거는 가름은 언제 하느냐? 음력으로 이월에, 섣달에. 동짓달에 담근 거는 에 음력으로 정월 섣달그믐 되면 가름을 하고.)

107061 @ 음.(음.)

107061 #1 또 이월에 못 허영 저 시월에 못 헤근에 동짓돌 낭 섣돌 낭 동짓돌 낭 메주 허여근에 흔 돌 동안 물리왕 섣돌그뭄날 담주. 장을.(또 이월에 못 해서 저 시월에 못 해서 동짓달 되서 섣달 되서 동짓달 되서 메주 해서 한 달 동안 말려서 섣달그믐날 담그지. 장을.)

107061 @ 으으.(으으.)

107061 #1 물러레 둥강. 경 허영 담은 거는 이삼월 뒈근엥에 새 갈림허곡.(물에 담가서. 그렇게 해서 담그는 거는 이삼월 돼서 새 가름하고.)

107061 @ 으음. 것도 어느.(으음. 것도 어느.)

107061 #1 개월 수가 잇어야 장물도 뭐허곡 헤야 뒈난에.(개월 수가 있어야 간장도 뭐하고 해야 되니까.)

107061 @ 게문예, 삼춘, 다시예? 우리 이제 콩 손질부떠 헤 갖고.(그러면요, 삼촌, 다시요? 우리 이제 콩 손질부터 해 갖고.)

107061 @ 으.(으.)

107061 #1 장 갈림 헐 때까지 그 과정을 생각허멍은에 그 콩 솖을 때부떠예.(장 가름 할 때까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 콩 삶을 때부터요.)

107061 #1 으음.(으음.)

107061 @ 이거 혼 번 골아 줍서. 콩 싯은 것부떠.(이거 한 번 말해 주십시오. 콩 씻은 것부터.)

107061 #1 싯은 것부떠 태작허는 거부떠.(씻은 것부터 타작하는 거부터.)

107061 @ 예, 소금은 언제 얼마큼 놔야 뒈고 허는 거예?(예, 소금은 언제 얼마큼 놔야 되고 하는 거요?)

107061 #1 그 만약에 닷 말에치 콩을 삶은다.(그 만약에 닷 말어치 콩을 삶는다.)

107061 @ 으.(으.)

107061 #1 게영 쌂은다 허면 물은 엿날엔 허벅으로 짐작헤근엥에 담아낫수다. 그 항아리에 이 육짓항아리[427]는 장맛이 엇덴 허주. 덜 난덴 허주.(그렇게 해서 삶는다 하면 물은 옛날에는 허벅으로 짐작해서 담갔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이 '육짓항아리'는 장맛이 없다고 하지. 덜 난다고 하지.)

107061 @ 예.(예.)

107061 #1 대정항[428]. 대정항 장 담을 항은 똑 대정항으로 담아낫수다. 우리도 지금도 잇어. 대정항 장 담는 항. 그거 허민 저 으슷 허벅 메주 놓곡 혜영 으슷 허벅 들 거민 그 다섯 허벅을 담아양.('대정항'. '대정항' 장 담글 항아리는 똑 '대정항'으로 담갔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있어. '대정항' 장 담그는 항아리. 그거 하면 저 여섯 동이 메주 놓고 해서 여섯 동이 들 거면 그 다섯 동이를 담아요.)

107061 @ 예.(예.)

107061 #1 물을 다섯 허벅 놔양. 다섯 허벅 놓게 뒈면은 장물이 상당히 맛싯주게.(물을 다섯 동이 놔요. 다섯 동이 놓게 되면 간장이 상당히 맛있지.)

107061 @ 음.(음.)

107061 #1 찐허영.(진해서.)

107061 @ 예.(예.)

107061 #1 잘도 맛잇엉.(잘도 맛있어서.)

107061 @ 혼 말에 혼 허벅이네, 물이.(한 말에 한 동이네, 물이.)

107061 #1 으, 그치룩헤근에 항아리 헹 담앙. 소금은 저 혼 말에 관뒈로 두 개.(으, 그처럼해서 항아리 해서 담가서. 소금은 저 한 말에 관되로 두 개.)

107061 @ 음.(음.)

107061 #1 뒈로 뒈영.(되로 되어서.)

107061 @ 예.(예.)

107061 #1 관뒈로 두 개씩 헤근엥에 처음 무시거 허는 사람은 다라에 장 담을 때 소금물 녹여근엥에 그 물을 뚤롸 놩 허곡.(관되로 두 개씩 해서 처음 무엇 하는 사람은 대야에 장 담글 때 소금물 녹여서 그 물을 따라 놔서 하고.)

107061 @ 음.(음.)

107061 #1 경 못헌 사름은 잘리 멘들아근에 소금 담는 잘리 멘들앙 장 담으멍 항아

427) '육짓항아리'는 제주도 외에서 제작한 항아리다.

428) '대정항'은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서 생산한 항아리다. 대정읍 구억리, 신평리 등지가 항아라 산지였다.

리에 들이쳐근엥에 그 잘리 옴막 들어가지 못허게 끈 둘앙은에 항부리[항뿌리]엥 영 졸라메영 소금 다 녹아시민 싱거우민은 빨리 녹주게. 경 허민 더 놓곡 더 놓곡 허는디 근은 딱 맞추젠 허면은 개랄.(그렇게 못한 사람은 자루 만들어서 소금 담는 자루 만들어서 장 담그면서 항아리에 들이뜨려서 그 자루 옴막 들어가지 못하게 끈 달아서 항아리 부리라고 해서 이렇게 졸라매서 소금 다 녹았으면 싱거우면 빨리 녹지. 그렇게 하면 더 놓고 더 놓고 하는데 간은 딱 맞추려고 하면 계란.)

107061 @ 예.(예.)

107061 #1 개랄을 들이치민은 오벡 원짜리 동전만큼 개랄이 들어가민은 장 간이 딱 맞는 거.(계란을 들이뜨리면 오백 원짜리 동전만큼 계란이 들어가면 장 간이 딱 맞는 거.)

107061 @ 음.(음.)

107061 #1 그디도 경 헴실 거우다.(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107061 @ 예, 예.(예, 예.)

107061 #1 강 헤근에 장 허는 거.(가서 해서 장 하는 거.)

107061 @ 예, 예. 그러면 메주는 언제 ᄊᆞᆲ으는 거우과?(예, 예. 그러면 메주는 언제 삶는 겁니까?)

107061 #1 메주 게게, 이거, 이거 음력으로 구시월에 솖아야 뒈는 거.(메주 그래, 이거, 이거 음력으로 구시월에 삶아야 되는 거.)

107061 @ 구시월에 ᄊᆞᆲ앙.(구시월에 삶아서.)

107061 #1 묵은 헨 뒈민 장 담는 것도 날 안 보는디 이 저 구시월에 헐 때는 날 봥. 날 봥 솖주. 겐디 우리 이디서는 ᄆᆞᆯ날이 젤 좋덴 허주. 독날허곡.(묵은 해는 되면 장 담는 것도 날 안 보는데 이 저 구시월에 할 때는 날 봐서. 날 봐서 삶지.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말날이 젤 좋다고 하지. 닭날하고.)

107061 @ 아.(아.)

107061 #1 메주 ᄊᆞᆲ는 거. 독날 담는 것도 독날에 담으민 독날에 솖으곡 독날에 담으면은 벌거지가 엇넨 허주게.(메주 삶는 거. 닭날 담그는 것도 닭날에 담그면 닭날에 삶고 닭날에 담그면 벌레가 없다고 하지.)

107061 @ 아아.(아아.)

107061 #1 옛날 어른 말이. 웨냐 닭이 그걸 줏어먹어 불기 때문에.(옛날 어른 말이. 왜냐 닭이 그걸 주워먹어 버리기 때문에.)

107061 @ 아, 그러네. 으, 벌레 먹는 거니까예.(아, 그러네. 으, 벌레 먹는 거니까요.)

107061 #1 벌레 주워 먹어 불기 때문에 독날에 솜곡 독날에 담아.(벌레 주워 먹어 버리기 때문에 닭날에 삶고 닭날에 담가.)

107061 @ 경 헤도 독날에 만약에 집안에 본명일 잇는 사름 잇이민 안 뒌덴 허멍예?(그렇게 해도 닭날에 만약에 집안에 본명일 있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107061 #1 아니 우린 게도 담아.(아니 우린 그래도 담가.)

107061 @ 아, 경 안 헷수가? 그냥 좋은 날.(아,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냥 좋은 날.)

107061 #1 우리 큰아덜이 ᄃᆞᆨ띤디.(우리 큰아들이 닭띠인데.)

107061 @ 아, 경 헤도 하고. 으음. ᄃᆞᆨ날이 젤 좋다고 헤 갖고.(아, 그렇게 해도 하고. 으음. 닭날이 젤 좋다고 해 갖고.)

107061 #1 ᄆᆞᆯ날은 우리가 ᄆᆞᆯ띠라도 그냥 담는디.(말날은 우리가 말띠라도 그냥 담그는데.)

107061 @ 아, 본명일. 건 안 ᄀᆞᆯ렴구나예?(아, 본명일. 건 안 가리고 있군요?)

107061 #1 안 ᄀᆞᆯ려.(안 가려.)

107061 @1 여기는.(여기는.)

107061 #1 안 ᄀᆞᆯ려.(안 가려.)

107061 @ 그러면 ᄆᆞᆯ날이나.(그러면 말날이나.)

107061 #1 ᄆᆞᆯ은 무사넨 허민 혀뜩헌 털을 탁탁 털어 부는 따문에.(말은 왜냐고 하면 이상한 털을 탁탁 떨어 버리는 때문에.)

107061 @1 음.(음.)

107061 #1 ᄆᆞᆯ날이 좋덴 허영 장 담는 거주.(말날이 좋다고 해서 장 담그는 거지.)

107061 @ 혀뜩헌 거 털어 부니까.(이상한 거 떨어 버리니까.)

107061 #1 ᄒᆞ꼼허민 탁탁 털어 부는 따문에 ᄆᆞᆯ은.(조금하면 탁탁 떨어 버리는 때문에 말은.)

107061 @ 장에 다른 것들 이제 안 오는, 아아.(장에 다른 것들 이제 안 오는, 아아.)

107061 #1 다 뜻이 그런 거랍디다.(다 뜻이 그런 거랍디다.)

107061 @ 예, 예. 그런 말은 누게가 ᄀᆞᆯ아주는 거우과?(예, 예. 그런 말은 누구가 말해주는 겁니까?)

107061 #1 난 이상허게.(난 이상하게.)

107061 @ 어.(어.)

107061 #1 어릴, 어릴 때부터 막 어른덜이영만.(어릴, 어릴 때부터 아주 어른들이랑만.)

107061 @ 으, 검질메레도 가곡.(으, 김매러도 가고.)

107061 #1 어른덜이영만 저 살아 부난.(어른들이랑만 저 살아 버리니까.)

107061 @ 으.(으.)

107061 #1 거 막 늙신네덜 지금 살아시민 혼 벡이십썩 벡삼십썩 난 할망덜 경 헨 헤 부난에 다 베운 거주.(거 아주 늙으신네들 지금 살았으면 한 백이십씩 백삼십씩 된 할머니들 그렇게 해서 해 버리니까 다 배운 거지.)

107061 @ 맞아.(맞아.)

107061 #1 예.(예.)

107061 @ 요즘 사름덜 몰라.(요즘 사람들 몰라.)

107061 #1 난 이상허게 유명허덴 헙니께. 어른덜토.(난 이상하게 유명다하고 합니다. 어른들도.)

107061 @ 음.(음.)

107061 #1 느 어려신디도 이상하게.(너 어렸는데도 이상하게.)
107061 @ 옛날 말 하영 알아?(옛날 말 많이 알아?)
107061 #1 거자 알아. 아는 건 다 알아.(거의 알아. 아는 건 다 알아.)
107061 @ 경 허난 나가 조사헴수게.(그렇게 하니까 내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107061 #1 (웃음)
107061 @ 이제 그치룩 헤근에 이제 장을 담고. 그 갈를 때.(이제 그처럼 해서 이제 장을 담그고. 그 가를 때.)
107061 #1 으.(으.)
107061 @1 아까 장 갈림헐 때예?(아까 장 가름할 때요?)
107061 #1 으.(으.)
107061 @1 그때도 그냥?(그때도 그냥?)
107061 #1 아니 그때는 그 물장을 갈라야 뭴 거라 부난.(아니 그때는 그 간장을 갈라야 될 거여 버리니까.)
107061 @ 예, 예.(예, 예.)
107061 #1 메주만 톡톡 건져뒁.(메주만 톡톡 건져두고.)
107061 @ 예.(예.)
107061 #1 다라더레. 메주만 톡톡 건지는 걸로 건져 놔뒁 간장은 또 솟듸 쌂아야 뒈니까.(대야에. 메주만 톡톡 건지는 걸로 건져 놔두고 간장은 또 솥에 삶아야 되니까.)
107061 @ 아아, 간장을 한번 쌂읍니까?(아아, 간장을 한번 삶습니까?)
107061 #1 간장은 쌂아야주. 안 쌂으믄 믿질 못헤양. 변허카부덴. 간장을 솟듸서 막 이빠이 이 정도로 간장이 솟에 뒈면은 요 정도로 ᄂᆞ려가게.(간장은 삶아야지. 안 삶으면 믿질 못해요. 변할까봐서. 간장을 솥에서 아주 가득 이 정도로 간장이 솥에 되면 요 정도로 내려가게.)
107061 @ 아아.(아아.)
107061 #1 딸려야 뒈여.(달여야 되어.)
107061 #1 게믄 간장이 막 엿처럼 맛이 잇입니다게.(그러면 간장이 아주 엿처럼 맛이 있습니다.)
107061 @ 음.(음.)
107061 #1 막 맛잇주. 게난 간장도 그 해 그 해 먹어 부는 게 아니고 이년 삼년 오년ᄁᆞ장 뒈도.(아주 맛있지. 그러니까 간장도 그 해 그 해 먹어 버리는 게 아니고 이년 삼년 오년까지 돼도.)
107061 @ 음.(음.)
107061 #2 색깔은 막 까망헤도.(색깔은 아주 까매도.)
107061 @ 으.(으.)
107061 #1 맛이 그대로 잇주게.(맛이 그대로 있지.)
107061 @ 음.(음.)
107061 #1 맛이 그래도 잇주게.(맛이 그래도 있지.)

107061 @ 게난 옛날 오래뒌 장이 약이렌?(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장이 약이라고?)
107061 #1 맛이 그대로 잇어.(맛이 그대로 있어.)
107061 @ 게난 삼춘네 씨어머니도 그렇게 ᄊᆞᆲ읍디가? 간장을.(그러니까 삼촌네 시어머니도 그렇게 삶습디까? 간장을.)
107061 #1 아이 다 ᄊᆞᆲ읍니다. 다. 느나.(아니 다 삶습니다. 다. 너나.)
107061 @ 서쪽은 안 ᄊᆞᆲ아.(서쪽은 안 삶아.)
107061 #1 안 ᄊᆞᆲ아.(안 삶아.)
107061 @ 예.(예.)
107061 #1 다 ᄊᆞᆲ읍니다. 다 쌂아근엥에 저 허곡.(다 삶습니다. 다 삶아서 저 하고.)
107061 @ 으.(으.)
107061 #1 간장도 우리 나도 이 잔치 때도 뭣도 다 그 간장 이녁 장[짱] 헹 놧당 고기 뒈지고기 먹을 때.(간장도 우리 나도 이 잔치 때도 뭣도 다 그 간장 이녁 장 해서 놨다가 고기 돼지고기 먹을 때.)
107061 @ 예, 예.(예, 예.)
107061 #1 이녁 장에 먹는 것광 ᄑᆞ는 장에 먹는 거 봅서. 맛이 확실히 틀려.(이녁 장에 먹는 것과 파는 장에 먹는 거 보십시오. 맛이 확실히 달라.)
107061 @ 예, 옛날에 맞아예.(예, 옛날에 맞아요.)
107061 #1 이녁 담은 장에 먹어사 고기 맛이 훨씬 틀립니다.(이녁 담근 장에 먹어야 고기 맛이 훨씬 다릅니다.)
107061 @ 으으.(으으.)
107061 #1 게난 우리 큰일 헐 때도 꼭 이녁 담은 장으로 헷주.(그러니까 우리 큰일 할 때도 꼭 이녁 담근 장으로 했지.)
107061 @ 음.(음.)
107061 #1 ᄑᆞ는 장 아녀 봣수다.(파는 장 안 해 봤습니다.)
107061 @ 게민예, 그런 식으로 허면은 간장이 하영 안 나오커라예?(그러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간장이 많이 안 나오겠네요?)
107061 #1 으.(으.)
107061 @ 거 다 솖아 부니까.(거 다 삶아 버리니까.)
107061 #1 으.(으.)
107061 @1 경 허영 하고 뒌장은?(그렇게 해서 하고 된장은?)
107061 #1 뒌장은게 뒌장 뀌여근엥에 메주 막 풀어근에 저 하영 무시거 허게 먹는 사름은 요즘은 밀ᄀᆞ르 틔운 것도 사다 놓곡.(된장은 된장 이겨서 메주 막 풀어서 저 많이 무엇 하게 먹는 사람은 요즘은 밀가루 띄운 것도 사다 놓고.)
107061 @ 으.(으.)
107061 #1 누룩도 사다 놓곡 막 그축 허영 허는디 우린 지금도 그런 건 안 놩.(누룩도 사다 놓고 막 그처럼 해서 하는데 우린 지금도 그런 건 안 놔서.)
107061 @ 다 백 프로 콩으로만?(다 백 프로 콩으로만?)

107061 #1 으, 그런 거 안 놩 기자 메주로만 뀌영 묵은 뭰장 남은 거 서꺼근엥에 기자 담아 놉니다, 우린.(으, 그런 거 안 놔서 그저 메주로만 이겨서 묵은 된장 남은 거 섞어서 그저 담가 놉니다, 우린.)

107061 @ 음, 장은 그렇게 뒈면 이제 그 영 이만큼 줓아들게까지 끓영.(음, 장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렇게 이만큼 잦아들게까지 끓여서.)

107061 #1 예, 예.(예, 예.)

107061 @ 경 허영 항아리에 담앙 놔두는 거.(그렇게 해서 항아리에 담가서 놔두는 거.)

107061 #1 경 헤여근에 식어근에. 식엉은에 요즘은 병에 질어놧당 먹읍네께.(그렇게 해서 식어서. 식어서 요즘은 병에 길어놨다가 먹습니다.)

107061 @ 요즘은예? 항아리가 없으니까.(요즘은요? 항아리가 없으니까.)

107061 #1 병에 다 질어놧당.(병에 다 길어놨다가.)

107061 @ 게영 그런 식으로 물장 헤영 먹고.(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장 해서 먹고.)

107061 #1 예, 예.(예, 예.)

107061 @ 겅 허면은 이제 한 해 동안 먹을 거를 헐 거고. 여기 청국장 식으로 그렇게도 헙니까?(그렇게 하면 이제 한 해 동안 먹을 거를 할 거고. 여기 청국장 식으로 그렇게도 합니까?)

107061 #1 청국장양. 하도 청국장 맛셔, 맛셔 그거 먹는 사름은 그것만 좋아헙니다.(청국장요. 하도 청국장 맛있어, 맛있어 그거 먹는 사람은 그것만 좋아합니다.)

107061 @ 예, 예.(예, 예.)

107061 #1 겐 나가 혼번 이젠 텔레비에 보멍 청국장을 헷어. 콩 숢앙 놩. 아니 국을 끌리난 찌갤 허난 뭰장찌갤 허니까 맛은 먹으난 좋은디 하이고, 이 냄새가, 이 문 올민 냄새가. 우리 집의 하르방[429]이 처음 헤시난 퇴근헨 오란에 문 열안 아이고, 이거 무신 냄새닌 막 헤연에. 아니 청국장찌개 헷수덴 허난. 아, 먹으난 맛은 존디 냄새 통에양.(그래서 내가 한번 이젠 텔레비전에 보면서 청국장을 했어. 콩 삶아서 놔서. 아니 국을 끓이니까 찌갤 하니까 된장찌갤 하니까 맛은 먹으니까 좋은데 하이고, 이 냄새가, 이 문 열면 냄새가. 우리 집의 할아버지가 처음 했으니까 퇴근해서 와서 문 열어서 아이고, 이거 무슨 냄새냐고 막 해서. 아니 청국장찌개 했습니다고 하니까. 아, 먹으니까 맛은 좋은데 냄새 통에요.)

107061 @ 음.(음.)

107061 #1 절대 안 뒈켄 헨에 다 놈 줘 변 따신 안 허연.(절대 안 되겠다고 해서 다 남 줘 버려서 다신 안 했어.)

107061 @ 으음.(으음.)

107061 #1 냄새만 안 헴시민.(냄새만 안 하고 있으면.)

107061 @ 우리 제주도는 그런 식으론 안 헷어예? 청국장.(우리 제주도는 그런 식으

429) '우리 집의 하르방'은 '우리 집의 할아버지'라는 의미다.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남편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다.

론 안 했지요? 청국장.)

107061 #1 예, 그 맛은 좀 좋은디 냄새가? 냄새가 무사 경 냄새 남신디 몰라. 그거.(예, 그 맛은 좀 좋은데 냄새가? 냄새가 왜 그렇게 냄새 나고 있는지 몰라. 그거.)

107061 @ 게니까.(그러니까.)

107061 #1 청국장이.(청국장이.)

107061 @ 으.(으.)

107061 #1 으, 그거 허는 것도 어렵지 아녑디다. 청국장 허는 거는. 그냥 콩 솖앙 띄와근에. 띄와근에 담는 거난 어렵지 아녀고 헌디. 아, 요즘 텔레비에 보민 청국장 막 청국장, 청국장. 아이고, 저거 냄새 팍팍헌 거 저거.(으, 그거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디다. 청국장 하는 거는. 그냥 콩 삶아서 띄워서. 띄워서 담그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하는데. 아,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청국장 막 청국장, 청국장. 아이고, 저거 냄새 팍팍한 거 저거.)

107061 @ (웃음)

107061 #1 (웃음) 아이.((웃음) 아니.)

107061 @ 고추장은 담앗지예?(고추장은 담갔지요?)

107061 #1 예.(예.)

107061 @ 아, 건 어떤 식으로 담읍니까?(아, 건 어떤 식으로 담급니까?)

107061 #1 고추장도 저기 물엿 놓곡.(고추장도 저기 물엿 놓고.)

107061 @ 예.(예.)

107061 #1 소주 놓곡. 소주 놓민은 갓을 안 써. 고추장이 오래여도.(소주 놓고. 소주 놓으면 골마지를 안 써. 고추장이 오래어도.)

107061 @ 아.(아.)

107061 #1 흰 갓을 안 써양. 소주 논 거. 설탕 놓곡.(흰 골마지를 안 쓴다고요. 소주 논 거. 설탕 놓고.)

107061 @ 예.(예.)

107061 #1 경 헤근에 다라에서 그 물 엿이여 무시거여 다 놔근에 끌여근에 그 물 식으민 다라에 고칫ᄀᆞ르 놓곡 그물 비와놩 막 젓엉.(그렇게 해서 대야에서 그 물 엿이다 무엇이다 다 놔서 끓여서 그 물 식으면 대야에 고춧가루 놓고 그물 부어놔서 막 저어서.)

107061 @ 음.(음.)

107061 #1 막 젓엉 경 허영 담앙 이녁대로 담으민 맛도 더 잇주게. ᄑᆞ는 건 무신 거 논 거라 부난예.(막 저어서 그렇게 해서 담아서 이녁대로 담그면 맛도 더 있지. 파는 건 무엇 논 거여 버리니까요.)

107061 @ 게난 맞아예. 믿을 수가 엇어.(그러니까 맞아요. 믿을 수가 없어.)

107061 #1 그거, 그거허곡예. 고추도 보민 막 나쁜 고추덜양.(그거, 그거하고요. 고추도 보면 아주 나쁜 고추들요.)

107061 @ 예.(예.)

107061 #1 혼듸 ᄀᆞᆯ앙 막 그거 게난 김치 저 허는 고춧ᄀᆞ르도 사온 거는 고추로 이녁대로 강 사근에 ᄀᆞᆯ민 허카 몰라. 아이고, 그거 보민 막 검은 거 막 ** 돋은 거 무신거 ᄀᆞᆯ앙 허는 거 보민양, 게난 우리도 계속 싱거. 먹을 거.(함께 갈아서 막 그거 그러니까 김치 저 하는 고춧가루도 사온 거는 고추로 이녁대로 가서 사서 갈면 할까 몰라. 아이고, 그거 보면 막 검은 거 막 ** 돋은 거 무엇 갈아서 하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심어. 먹을 거.)

107061 @ 아, 먹을 건 다 싱검구나예?(아, 먹을 건 다 심고 있군요?)

107061 #1 싱거근에 이녁대로 흰 장갑 쪙 고치 판찍 따까둬근엥에.(심어서 이녁대로 흰 장갑 껴서 고추 깨끗이 닦아두고.)

107061 @ 음.(음.)

107061 #1 경 허영 강 ᄀᆞᆯ주.(그렇게 해서 가서 갈지.)

107061 @ 게난 요즘은 고춧ᄀᆞ를 아닌 걸 고춧ᄀᆞ르엔 허영 ᄑᆞ는 셍이라 부난.(그러니까 요즘은 고춧가루 아닌 걸 고춧가루라고 해서 파는 모양이어 버리니까.)

107061 #1 예, 아이고, 아이고. 아무 것도 믿을 수 엇읍디다. 뉴스에 보난.(예, 아이고, 아이고. 아무 것도 믿을 수 없습디다. 뉴스에 보니까.)

107061 @ 예. 밖에.(예. 밖에.)

107061 #1 소고기든 뒈지고기든 무신 닥이든 뭐든 아무것도 먹을 거 엇입디다게.(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무슨 닭이든 뭐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습디다.)

107061 @ 다 부쳥은에.(다 부쪄서.)

107061 #1 다 무시거 막 놔 부난.(다 무엇 막 놔 버리니까.)

107061 @ 게난 먹는 거 가졍은 장난허지 말아야 뒈는데.(그러니까 먹는 거 가져서는 장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107061 #1 예, 말아야주게. 아이고 하이튼이 중국 통에 더허고양.(예, 말아야지. 아이고 하여튼 중국 통에 더하고요.)

107063 @ 으, 그리고 예전에 보면 뭐 메주 숢거나 아니면은 장 담을 때나 이렇게 금기. 뭐 허지 말라 허는 금기사항 잇지 안 허우과? 무신 날은 메주 안 숨는 거여 허는 날도 잇일 거고.(으, 그리고 예전에 보면 뭐 메주 삶거나 아니면 장 담글 때나 이렇게 금기. 뭐 하지 말라 하는 금기사항 있지 안 합니까? 무슨 날은 메주 안 삶는 거다 하는 날도 있을 거고.)

107063 #1 아아, 메주 안 숢은 날은 뱀날도 안 숢고.(아아, 메주 안 삶는 날은 뱀날도 안 삶고.)

107063 @ 으.(으.)

107063 #1 아, 소날은 안 숨고.(아, 소날은 안 삶고.)

107063 @ 아아, 소날도?(아아, 소날도?)

107063 #2 소날은 웨냐, 소가 니치름[430]을 허주게.(소날은 왜냐, 소가 '니치름'을 허주게.)

---

430) '니치름'은 어린아이나 소가 입에서 질질 흘리는 침을 말한다.

107063 @ 예, 예, 예.(예, 예, 예.)

107063 #1 영 영 영 영 골멍 니치름 잘잘허는 따문에.(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면서 '니치름' 잘잘하는 때문에.)

107063 @ 으.(으.)

107063 #1 그 메주도 솖앙 만약에 소날 솖앙 틔우는 과정에서.(그 메주도 삶아서 만약에 소날 삶아서 띄우는 과정에서.)

107063 @ 으.(으.)

107063 #1 그 끈닥끈닥 늬치름이 난덴 헙니다.(그 끈적끈적 '늬치름'이 난다고 합니다.)

107063 @ 아아.(아아.)

107063 #1 소날 안 솖주. 뱀날도 안 솜곡양. (기침) 저 쥐날도 안 삶곡 도새기날도 통시에 허는 따문에 그 날도 안 솖곡. 게, 메주 콩 솖으는 거나 담는 거는 믈날 듹날.(소날 안 삶지. 뱀날도 안 삶고요. (기침) 저 쥐날도 안 삶고 돼지날도 돼지우리에 하는 때문에 그 날도 안 삶고. 게, 메주 콩 삶는 거나 담그는 거는 말날 닭날.)

107063 @ 듹날.(닭날.)

107063 #1 기자, 기자.(그저, 그저.)

107063 @ 그날 두 번.(그날 두 번.)

107063 #1 주로 허는 거는 그날이 제일 좋은 날.(주로 하는 거는 그날이 제일 좋은 날.)

107063 @ 음. 거난 이제 니치름헤영은에 허고. 그런 거 말고 뭐 몸엣거 궂인 거 오거나 허면?(음. 그러니까 이제 '니치름'해서 하고. 그런 거 말고 뭐 몸엣것 궂은 거 오거나 하면?)

107063 #1 그 장 담는 것엔 그거는.(그 장 담그는 것엔 그거는.)

107063 @ 엇어?(없어?)

107063 #1 골려보지 아녓수다. 그런 건.(가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107063 @ 아, 장 담그는 거는 엇고예?(아, 장 담그는 거는 없고요?)

107063 #1 그런 건 안 골려봔. 산듸밧듸 검질메는 거나 거 골렷주. 안 골려봔.(그런 건 안 가려봤어. 밭벼밭에 김매는 거나 거 가렸지. 안 가려봤어.)

107063 @ 산듸밧디 것도 처음 듣는 거고. 삼춘, 지치지예.(밭벼밭에 것도 처음 듣는 거고. 삼촌, 부치지요?)

107063 #1 (웃음)

107063 @ 막 미안허영 지쳥은에. 음. 떡ᄒᆞ는 거영 이거 ᄒᆞ꼼 이신 게. 요만큼한 허지.(아주 미안해서 지쳐서. 음. 떡하는 거랑 이거 조금 있는 것이. 요만한 하지.)

107063 #1 게메게. 메틀을 헤영 이 책을 다 걷을 거라게.(글쎄. 며칠을 해서 이 책을 다 걷을 거야.)

107063 @ 게난.(그러니까.)

떡류

107064 @ 삼춘, 오늘은 떡하고 관련뒈는 거예? 옛날은 떡들 하영 헤서예? 떡은 어떤 종류들 잇어마씨?(삼촌, 오늘은 떡하고 관련되는 거요? 옛날은 떡들 많이 했지요? 떡은 어떤 종류들 있어요?)

107064 #1 그 엿날이사 떡엔 헌 게 무신 떡이 잇엇수과?(그 옛날이야 떡이라고 한 게 무슨 떡이 있었습니까?)

107064 @ 으.(으.)

107064 #1 보리, 보리만뒤[431]허곡.(보리, '보리만뒤'하고.)

107064 @ 예.(예.)

107064 #1 만뒤[432]엔 허주. 보리만두.(만두라고 하지. '보리만두'.)

107064 @ 으.(으.)

107064 #1 보리만, 보리떡 묵도 헤먹을 때 묵도 보리묵[433] 쑤곡.(보리만, 보리떡 묵도 해먹을 때 묵도 '보리묵' 쑤고.)

107064 @ 음.(음.)

107064 #1 그 옛날에는.(그 옛날에는.)

107064 @ 예.(예.)

107064 #1 예, 게 밥게 보리밥 서껑 헐 때난에.(예, 게 밥 보리밥 섞어서 할 때니까.)

107064 @ 음.(음.)

107064 #1 떡이 그거랏주. 무신 송편이 어디 잇고 무신것이 어디 잇어?(떡이 그거였지. 무슨 송편이 어디 있고 무엇이 어디 있어?)

107064 @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식게 허젠 허면.(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사 하려고 하면.)

107064 @ 음.(음.)

107064 #1 떡을 어떤 걸 만들엉 헌 거라마씨?(떡을 어떤 걸 만들어서 한 거예요?)

107064 #1 그다음에?(그다음에?)

107064 @ 으.(으.)

107064 #1 그 옛날 말고.(그 옛날 말고.)

107064 @ 예.(예.)

107064 #1 그다음에사게 시리떡도 쳥 허곡 솔벤 절벤.(그다음에야 시루떡도 쪄서 하고 솔편 절편.)

107064 @ 으.(으.)

107064 #1 그 납작헌 거.(그 납작한 거.)

107064 @ 예.(예.)

---

431) '보리만뒤'는 보릿가루를 반죽하여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찐 떡이다.
432) '만뒤'는 보릿가루나 메밀가루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안에 팥소 따위를 넣어서 찐 떡이다.
433) '보리묵'은 보릿가루로 만든 묵이다.

107064 #1 솔벤 절벤 허곡게. 묵도 모멀묵 쑤곡게.(솔편 절편 하고. 묵도 메밀묵 쑤고.)

107064 @ 음.(음.)

107064 #1 그다음부떠는.(그다음부터는.)

107064 @ 으.(으.)

107064 #1 적갈도게 영 질쭉질쭉허게 썰엉 소고기나 뒈지고기나 헌 것도 질쭉질쭉허게 썰엉 허곡. 옛날 요치록 썰엉 허곡.(산적도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한 것도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하고. 옛날 요처럼 썰어서 하고.)

107065 @ 예, 맞아. 손가락 만큼씩예. 게믄 여기 시리떡을 친떡?(예, 맞아. 손가락 만큼씩요. 그러면 여기 시루떡을 '친떡'?)

107065 #1 친떡.('친떡'.)

107065 @ 아. 게믄 친떡을 만들젠 허면 재료는 어떤 걸로 허는 거라마씨?(아. 그러면 시루떡을 만들려고 하면 재료는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107065 #1 쌀 물에 둥갓당.(쌀 물에 담갔다가.)

107065 @ 예.(예.)

107065 #1 건정 그거 옛날에는 저 방에가 엇이난.(건져서 그거 옛날에는 저 방아가 없으니까.)

107065 @ 예.(예.)

107065 #1 집의서 찍엉.(집에서 찧어서.)

107065 @ 예.(예.)

107065 #1 방에로.(방아로.)

107065 @ 으.(으.)

107065 #1 방에로 찍어근에 쪼꼬만헌 시리덜 다 이녁 집의 시리가 잇엇주. 게난 그 시리에 놩근에게 쪗주게. 풋 헤근에 새새에 놔근에.(방아로 찧어서 조그마한 시루들 다 이녁 집에 시루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 시루에 놔서 쪘지. 팥 해서 새새에 놔서.)

107065 @ 예.(예.)

107065 #1 징으로.(켜로.)

107065 @ 징으로 음.(켜로 음.)

107065 #1 경 헤영 헷수게.(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107065 @ 음, 게믄 삼춘네는 이제 식게 허젠 허면.(음, 그러면 삼촌네는 이제 제사하려고 하면.)

107065 #1 으.(으.)

107065 @ 시리는 어느 정도 큰 시리로 헌 거라마씨?(시루는 어느 정도 큰 시루로 한 거예요?)

107065 #1 기냥양 옛날엔 막 갈라먹엇주게.(그냥요 옛날엔 아주 나눠먹었지.)

107065 @ 예.(예.)

107065 #1 방상에 다. 게난 흔 말.(일가에 다. 그러니까 한 말.)

107065 @ 음.(음.)

107065 #1 혼 말 시리.(한 말 시루.)

107065 @ 혼 말씩. 거난 그 혼 말치 시리를 집에 이시는 거라예?(한 말씩. 그러니까 그 한 말어치 시루를 집에 있는 거네요?)

107065 #1 으.(으.)

107065 @ 지새시리. 아니민 어떤 시리?('지새시리'. 아니면 어떤 시루?)

107065 #1 지새시리[434], 지새시리.('지새시리', '지새시리'.)

107065 @ 지새시리.('지새시리'.)

107065 #1 옛날 지새시리.(옛날 '지새시리'.)

107065 @ 그 지새시리에 떡을 치젠 허면 그 친떡은 허젠 허면 그 허지 말라 이런 식으로도 막 허잖아예?(그 '지새시리'에 떡을 찌려고 하면 그 시루떡은 하려고 하면 그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도 막 하잖아요?)

107065 #1 아이고, 부정헤근에 부정타근에 솟듸 앚져근에 불 솜는디 부정탄 사름 딱 오민은 그 영 시리마개 막은 거.(아이고, 부정해서 부정타서 솥에 안쳐서 불 때는데 부정탄 사람 딱 오면 그 이렇게 시룻번 막은 거.)

107065 @ 예.(예.)

107065 #1 벵허게 마개 막은 것이 이상허게 어딜로 폭 터졍 짐 나와 불주게.(뱅하게 번 막은 것이 이상하게 어디로 폭 터져서 김 나와 버리지.)

107065 @ 음.(음.)

107065 #1 게민 그걸 밀ᄀᆞ르 카근에 또 부쪄도 짐 나곡, 부쪄도 짐 나오곡 떡 졸바로 안 뒈영 그쪽은 설엉.(그러면 그걸 밀가루 타서 또 붙여도 김 나고, 붙여도 김 나오고 떡 제대로 안 되어서 그쪽은 설어서.)

107065 @ 음.(음.)

107065 #1 경 헤영 막 부정은 탄 사름 왓덴 허멍.(그렇게 해서 아주 부정은 탄 사람 왔다고 하면서.)

107065 @ 거난예, 그 시리를 헹 혼 시리 치젠 허면 쏠 이제 물 ᄃᆞᆼ그는 것부터 시작헤영 쭉 ᄀᆞᆯ아 봅서. 처음에는?(그러니까요, 그 시루를 해서 한 시루 찌려고 하면 쌀 이제 물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107065 #1 물 ᄃᆞᆼ강, 혼 말 물 ᄃᆞᆼ강.(물 담가서, 한 말 물 담가서.)

107065 @ 음. ᄀᆞ는체로?(음. 가는체로?)

107065 #1 으, ᄀᆞ는체로 쳐근엥에 그 우의 거 또 ᄲᆞᆺ으곡 또 ᄲᆞᆺ으곡.(으, 가는체로 쳐서 그 위에 거 또 빻고 또 빻고.)

107065 @ 음.(음.)

107065 #1 경 허영 마지막ᄁᆞ장 ᄆᆞ딱 ᄲᆞᆺ앙 놔근엥에 물 쪼금 놩 버무령. 그걸 물 맞게.(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몽땅 빻아서 놔서 물 쪼금 놔서 버무려서. 그걸 물 맞게.)

434) '지새시리'는 색깔이 기와 색깔처럼 거무스레한 시루다. '지새시리'의 '지새'는 기와, '시리'는 시루의 제주어다.

107065 @ 예.(예.)

107065 #1 것도 물 못 맞추민 떡이 막 떡 돼 불곡 진짜로.(것도 물 못 맞추면 떡이 아주 떡 돼 버리고 진짜로.)

107065 @ 예.(예.)

107065 #1 익어근에.(익어서.)

107065 @ 으.(으.)

107065 #1 떡 돼 불곡 쪼끔 못 맞추민 쪼끔 헤삭헤삭 설어 불곡. 게난 것도 기술자라사.(떡 돼 버리고 쪼끔 못 맞추면 쪼끔 '헤삭헤삭' 설어 버리고. 그러니까 것도 기술자라야.)

107065 @ 예.(예.)

107065 #1 게난 그거. 그치룩 헤근엥에 시리떡은 경 헹 헤낫수다.(그러니까 그거. 그처럼 해서 시루떡은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107065 @ 음, 그러면 그 맨 밑에 시릿고망은 멧 개?(음, 그러면 그 맨 밑에 '시릿고망'은 몇 개?)

107065 #1 시릿고망[435] 다섯. 족은 시리에는 다섯 개.('시릿고망' 다섯. 작은 시루에는 다섯 개.)

107065 @ 예.(예.)

107065 #1 보통 다섯 개주.(보통 다섯 개지.)

107065 @ 아아. 시릿고망이.(아아. '시릿고망'이.)

107065 #1 으, 시릿고망이 다섯 개.(으, '시릿고망'이 다섯 개.)

107065 @ 시릿고망 막는 거는 뭘로 막아마씨?('시릿고망' 막는 거는 무엇으로 막아요?)

107065 #1 아니, 무수.(아니, 무.)

107065 @ 으.(으.)

107065 #1 놈삐.(무.)

107065 @ 예.(예.)

107065 #1 놈삐 영 동글둠뿍[436] 썰어근에 그걸로 고망 톡톡 놔근에.(무 이렇게 '동글둠뿍' 썰어서 그걸로 구멍 톡톡 놔서.)

107065 @ 아, 거 우에 놓는 거. 그다음에 놓면 그다음엔 뭐 헤?(아, 거 위에 놓는 거. 그다음에 놓으면 그다음엔 뭐 해?)

107065 #1 그다음엔 떡쉬 놩.(그다음엔 떡고물 놔서.)

107065 @ 예, 그.(예, 그.)

107065 #1 쉬 풋쉬 놩.(고물 팥소 놔서.)

107065 @ 예.(예.)

107065 #1 무수 고망 막은 우에.(무 구멍 막은 위에.)

---

435) '시릿고망'은 시루 밑에 뚫려 있는 구멍이다.

436) '동글둠뿍'은 제보자가 동그라면서도 통통하게 썬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107065 @ 예. 풋쉬 놩.(예. 팥고물 놔서.)

107065 #1 풋쉬 놩 그다음에 또 ᄀᆞ르 거려놩.(팥고물 놔서 그다음에 또 가로 떠놔서.)

107065 @ 예.(예.)

107065 #1 또 영 골로르 영 메꽈. 그다음에 또 쉬 놩 또 골라근에 또 ᄀᆞ르 거려놩 경 헤영 징징징징 놔근엥에 흔 시리 허면은 아옵 도리나 놩.(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메워. 그다음에 또 고물 놔서 또 골라서 또 가로 떠놓아서 그렇게 해서 켜켜켜켜 놔서 한 시루 하면은 아홉 도리나 놔서.)

107065 @ 아, 아옵 도리 정도나예?(아, 아홉 도리 정도나요?)

107065 #1 아옵 도리ᄁᆞ장 놓민은 쪼금 얍게.(아홉 도리까지 놓으면 쪼금 얇게.)

107065 @ 예.(예.)

107065 #1 얍게 뒈곡. 일곱 도리 놓민 ᄒᆞ끔 두툼투툼허게 빗[437]이 나오주.(얇게 되고. 일곱 도리 놓으면 조금 두툼두툼하게 '빗'이 나오지.)

107065 @ 음. 그러면 그거는 멧 빗이, 흔 말 허민 멧 빗 정도 나와마씨?(음. 그러면 그거는 몇 '빗'이, 한 말 하면 몇 '빗' 정도 나와요?)

107065 #1 흔 말 허민양, 에 그거 머리[438] 베고. 머리 양쪽 베민 두 빗 두 빗썩. 흔 징에.(한 말 하면요, 에 그거 '머리' 베고. '머리' 양쪽 베면 두 '빗' 두 '빗'씩. 한 켜에.)

107065 @ 음.(음.)

107065 #1 흔 징에 두 빗썩 나오곡, 이 저 영 상빗[439]은 네 개.(한 켜에 두 '빗'씩 나오고, 이 저 이렇게 '상빗'은 네 개.)

107065 @ 음.(음.)

107065 #1 경 헤영 양쪽 머리ᄁᆞ장 여섯 빗.(그렇게 해서 양쪽 '머리'까지 여섯 '빗'.)

107065 @ 음, 그럼 삼춘?(음, 그럼 삼촌?)

107065 #1 큰 시리는.(큰 시루는.)

107065 @ 예.(예.)

107065 #1 저 그보다 더 나오주게.(저 그보다 더 나오지.)

107065 @ 이렇게 허잖아예? 멧 개를?(이렇게 하잖아요? 몇 개를?)

107065 #1 으, 두 개 우알로.(으, 두 개 위아래로.)

107065 @ 예.(예.)

107065 #1 떡빗을 ᄒᆞ찡허게 허젠 허민.('떡빗'을 나란하게 하려고 하면.)

107065 @ 예.(예.)

107065 #1 그 우알로 영 똥끌락헤 부니까.(그 위아래로 이렇게 똥그래 버리니까.)

107065 @ 예.(예.)

107065 #1 그걸 영 베주게.(그걸 이렇게 베지.)

---

437) '빗'은 시루떡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썬 것을 세는 단위다.

438) 여기에서 '머리'는 시루떡의 한 켜의 둥근 모양의 부분을 자른 것을 말한다.

439) '상빗'은 시루떡을 직사각형 모양을 썬 것이다. 시루의 둥근 모양의 '머리'에서 나온 '옆빗'에 빗대서 일정하게 네모난 부분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107065 @ 이렇게 베여 불어.(이렇게 베어 버려.)
107065 #1 경 허영 양쪽으로.(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107065 @ 양쪽으로.(양쪽으로.)
107065 #1 경 헹 베여뒁은에 영 영 썰주게.(그렇게 해서 베어둬서 이렇게 이렇게 썰지.)
107065 @ 이렇게 이렇게 써는 거잖아아예.(이렇게 이렇게 써는 거잖아요.)
107065 #1 으, 으.(으, 으.)
107065 @ 그러면 이거는 질로 써는 거렌 허잖아예?(그러면 이거는 길이로 써는 거라고 하잖아요?)
107065 #1 으.(으.)
107065 @ 게믄 이.(그러면 이.)
107065 #1 그것이 상빗이엔 허주.(그것이 '상빗'이라고 하지.)
107065 @ 어느 게?(어느 게?)
107065 #1 그 가운데.(그 가운데.)
107065 @ 이게 상.(이게 상.)
107065 #1 일자로 뭰 게.(일자로 된 게.)
107065 @ 이게 상빗. 이 양쪽에 거는?(이게 '상빗'. 이 양쪽에 거는?)
107065 #1 건 옆빗[440].(건 '옆빗'.)
107065 @ 이건 옆빗. 이것도 옆빗?(이건 '옆빗'. 이것도 '옆빗'?)
107065 #1 예게. 옆에 거는 옆빗.(예. 옆에 거는 '옆빗'.)
107065 @ 옆빗.('옆빗'.)
107065 #1 가운디 상빗이 큰 시리는 여섯 빗 나오고.(가운데 '상빗'이 큰 시루는 여섯 '빗' 나오고.)
107065 @ 예.(예.)
107065 #1 그 우리 흔 말짜리 시리, 시리는 떡빗[441]을 쪼끔 크게 허면은.(그 우리 한 말짜리 시루, 시루는 '떡빗'을 쪼끔 크게 하면.)
107065 @ 예.(예.)
107065 #1 저기 저 다섯 빗 나오는데.(저기 저 다섯 '빗' 나오는데.)
107065 @ 음.(음.)
107065 #1 족게 아니 크게 허면은 네 빗.(작게 아니 크게 하면 네 '빗'.)
107065 @ 네 빗.(네 '빗'.)
107065 #1 그 상빗이.(그 '상빗'이.)
107065 @ 예.(예.)
107065 #1 상빗이 네 개 나오고. 쪼금 족게 허믄 다섯 빗 멩글주.('상빗'이 네 개 나오고. 쪼금 작게 하면 다섯 '빗' 만들지.)

---

440) '옆빗'은 시루떡의 둥근 부분 쪽을 자라낸 것을 일컫는 말이다.
441) '떡빗'은 시루떡의 한 켜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알맞은 크기로 썬 것을 일컫는 말이다.

107065 @ 으.(으.)

107065 #1 분할있게 쓰젠 허민 다섯 빗을 멩글곡.(분게 쓰려고 하면 다섯 '빗'을 만들고.)

107065 @ 예, 게민 이제 네 개나 다섯 개 상빗을 허고. 옆빗은?(예, 그러면 이제 네 개나 다섯 개 '상빗'을 하고. '옆빗'은?)

107065 #1 옆빗은게 양쪽에.('옆빗'은 양쪽에.)

107065 @ 두 개씩 허니까.(두 개씩 하니까.)

107065 #1 두 개씩 허난에게.(두 개씩 하니까.)

107065 @ 으, 게민 열 개나 뭐?(으, 그러면 열 개나 뭐?)

107065 #1 두 빗 뒐 거주. 옆빗은.(두 '빗' 될 거지. '옆빗'은.)

107065 @ 예, 예. 두 빗. 음. 경 허민 베 이상 뒐 거니까예?(예, 예. 두 '빗'. 음. 그렇게 하면 베 이상 뒐 거니까요?)

107065 #1 음.(음.)

107065 @ 게민 삼춘 아까 머리빗은 어디?(그러면 삼촌 아까 '머리빗'은 어디?)

107065 #1 아니 게난 머리, 머릿빗[442]이멍 말멍 이 양쪽 요거 영 끊으면은.(아니 그러니까 머리, '머릿빗'이며 말며 이 양쪽 요거 이렇게 끊으면.)

107065 @ 으.(으.)

107065 #1 이것ᄀᆞ라 머리 끊으는 거옌 허주게.(이것보고 머리 끊는 거라고 하지.)

107065 @ 이것도 머리고 이것도 다 머리.(이것도 머리고 이것도 다 머리.)

107065 #1 이거 영 영은 상빗이고.(이거 이렇게 이렇게는 '상빗'이고.)

107065 @ 으으, 이 머리빗 끊어내 불어야 상빗이 만들어지는 거라예?(으으, 이 '머리빗' 끊어내 버려야 '상빗'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107065 #1 으, ᄀᆞ찡허게.(으, 나란하게.)

107065 @ ᄀᆞ징허게예. 예. 아, 그런 식으로 이제.(나란하게요. 예. 아, 그런 식으로 이제.)

107065 #1 시리가 똥글락헤 부니까 옆빗 안 끊어 병은 동글락허주. 떡이, 베여도.(시루가 동그래해 버리니까 '옆빗' 안 끊어 버려서는 동그랗지. 떡이, 베어도.)

107065 @ 예, 예.(예, 예.)

107065 #1 게난 요즘 떡집이는 그 네모난 거 딱 허면은 옆빗 엇이 기자 영 영 짤르는 건데.(그러니까 요즘 떡집에는 그 네모난 거 딱 하면 '옆빗' 없이 그저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건데.)

107065 @ 예.(예.)

107065 #1 옛날은 뚱글렁헌 시리라 부난 그 옆이 항상 영 베여 벼사. 경 헤사 상빗 나오는 거.(옛날은 둥그런 시루여 버리니까 그 옆에 항상 이렇게 베어 버려야. 그렇게 해야 '상빗' 나오는 거.)

107065 @ 예, 예, 예. 게민 상빗으로 이제.(예, 예, 예. 그러면 '상빗'으로 이제.)

---

442) '머리빗'은 시루떡을 네모나게 자를 때 둥근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107065 #1 으, 제에 올리고.(으, 제에 올리고.)

107065 @ 올리고. 그 예전에 보면 제에 올리는 것도 픗쉬를 놔마씨?(올리고. 그 예전에 보면 제에 올리는 것도 팥고물을 놔요?)

107065 #1 으.(으.)

107065 @ 아, 픗쉬 다 그냥 올리는구나.(아, 팥고물 다 그냥 올리는구나.)

107065 #1 동픗은 안 놓주게.(통팥은 안 놓지.)

107065 @ 아아.(아아.)

107065 #1 픗 삐진 건 놔도 동픗은 제사헐 때 몰른 사름이 동픗 놓주. 동 거는 원래 잡귀 방법이옌 헤여근에 동픗은.(팥 빻은 건 놔도 통팥은 제사할 때 모른 사람이 통팥 놓지. 통 거는 원래 잡귀 방법이라고 해서 통팥은.)

107065 @ 으으.(으으.)

107065 #1 무신거 헤난 잡귀 뒤마무리 다울릴, 다울릴 때도 동픗으로 허주게. (무엇 했던 잡귀 뒤마무리 쫓아낼, 쫓아낼 때도 통팥으로 하지.)

107065 @ 예, 예.(예, 예.)

107065 #1 게난 동픗은 제ᄉᆞ에 안 헙니께. 상에 안 올립니께. 상에 안 올라갑니께. 삐져사, 삐져사.(그러니까 통팥은 제사에 안 합니다. 상에 안 올립니다. 상에 안 올라갑니다. 빻아야, 빻아야.)

107065 @ 삐져사? 삐진 거는?(빻아야? 빻은 거는?)

107065 #1 ᄀᆞ르로.(가루로.)

107065 @ ᄀᆞ르로?(가루로?)

107065 #1 솖아근에 닥닥 삐졍.(삶아서 닥닥 빻아서.)

107065 @ 요즘은 건디 인절미나 헐 때 허면 동픗 쓰지 안허우꽈양? 그런 거 안 올리는 거?(요즘은 그런데 인절미나 할 때 하면 통팥 쓰지 안합니까요? 그런 거 안 올리는 거?)

107065 #1 예. 게난 분시 몰르는 사름덜은 요새 기자 젊은 사름덜은 무신 옛날식 헴수가게. 하나도 안 헴지.(예. 그러니까 분수 모르는 사람들은 요새 그저 젊은 사람들은 무슨 옛날식 하고 있습니까요. 하나도 안 하고 있지.)

107065 @ 으음.(으음.)

107065 #1 엿날엔양 웨도 안 올리곡 웨로 돌아간덴 헤영.(옛날은요 참외도 안 올리고 왼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107065 @ 아아.(아아.)

107065 #1 예. 웨도 안 올려낫수다.(예. 참외도 안 올렸었습니다.)

107065 @1 춤웨 이런 것도 안 올려난?(참외 이런 것도 안 올렸었어?)

107065 #1 안 올려낫수다.(안 올렸었습니다.)

107065 @ 아아.(아아.)

107065 #1 그런 것도 안 올리고 저기 저 이 뭐냐, 이 저 바나나 ᄀᆞ뜬 것도 안 올리는 거, 원래. 바나나도 이거 원숭이 밥엔 헤근에 원래 상에 안 올라가는 건디. 그거 안

올라가고 거 올라가곡 또 안 올라가는 거 세 가질 올라가. 게민 우린 아이덜안티 아이고, 과일 한한헌 걸 저런 걸랑 말라게, 말라게 헤도 요새 젊은 아이덜 다 허니까.(그런 것도 안 올리고 저기 저 이 뭐냐, 이 저 바나나 같은 것도 안 올리는 거, 원래. 바나나도 이거 원숭이 밥이라고 해서 원래 상에 안 올라가는 것인데. 그거 안 올라가고 거 올라가고 또 안 올라가는 거 세 가질 올라가. 그러면 우린 아이들한테 아이고, 과일 많고 많은 걸 저런 걸랑 말라, 말라 해도 요새 젊은 아이들 다 하니까.)

107065 @ 예, 예, 예.(예, 예, 예.)

107065 #1 거 안 올라가는 거.(거 안 올라가는 거.)

107066 @ 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예전에는 여기는 조개솔벤 이런 건 안 만들어난마씨?(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예전에는 여기는 '조개솔벤' 이런 건 안 만들었었어요?)

107066 #1 조개솔펜[443]은 우리 대 후제사 헷주, 우리 대에사.('조개솔펜'은 우리 대 후에야 했지, 우리 대에야.)

107066 @ 아, 여기 조개솔벤은 시에 모냥이 뜻나지 아녑니까?(아, 여기 '조개솔벤'은 제주시에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107066 #1 하아, 똥글락헌 거 ᄆᆞᆯ발쿱[444]에 허영 똥글락허게 만들고.(하아, 동그란 거 'ᄆᆞᆯ발쿱'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만들고.)

107066 @ 예.(예.)

107066 #1 그 솔롬헌 거는 조개솔펜이주. 거 이름이.(그 기름한 거는 '조개솔펜'이지. 거 이름이.)

107066 @ 예, 예.(예, 예.)

107066 #1 영 만두[445]처럼 뒌 거.(이렇게 '만두'처럼 된 거.)

107066 @ 으으.(으으.)

107066 #1 조개솔펜은 만두처럼 헌 거 그거는 조게솔펜 똥글락헌 건 이 ᄆᆞᆯ말쿱엔 허주게. 똥글락허난에 그건 조개솔펜이 아니주.('조개솔펜'은 '만두'처럼 한 거 그거는 '조게솔펜' 동근 건 이 'ᄆᆞᆯ말쿱'이라고 하지. 동그라니까 그건 '조개솔펜'이 아니지.)

107066 @ 예, 예. 게난 그 여기도 ᄆᆞᆯ말쿱엔 헨 동글락헌 거 헤?(예, 예. 그러니까 그 여기도 'ᄆᆞᆯ말쿱'이라고 해서 동근 거 해?)

107066 #1 예. 동글락헌 것도 허고. 이 젊은 사름덜은 허기 좋덴 허고. 우리 정도는 우린 씨집가도 계속 이 쏠롬헌 거 조개솔펜으로.(예. 동근 것도 하고. 이 젊은 사람들은 하기 좋다고 하고. 우리 정도는 우린 시집가도 계속 이 기름한 거 '조개솔펜'으로.)

107066 @ 삼춘네는 조개솔펜으로?(삼촌네는 '조개솔펜'으로?)

107066 #1 게난 모양도 조개 닮으니까 조개솔펜 아니?(그러니까 모양도 조개 닮으니

443) '조개솔펜'은 조개 모양의 송편이다. 성산, 남원, 서귀포 등 예전의 정의 지역에서 쌀가루 따위로 만들었던 떡이다.

444) 'ᄆᆞᆯ말쿱'은 말발굽이라는 뜻이나 여기에서는 둥그렇게 만든 송편을 온평리에서 가리키는 말이다.

445) 여기에서 '만두'는 메밀가루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안에 팥소 따위를 넣어서 찌거나 삶은 후에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까 ‘조개솔펜’ 아니?)

107066 @ 예, 예, 예. 맞수다. 그냥 일반은 ᄆᆞᆯ발쿱이렌 허는구나.(예,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일반은 ‘ᄆᆞᆯ발쿱’이라고 하는구나.)

107066 #1 예.(예.)

107066 @ 게면 그 송편 허젠 허면 반죽허는 것도 뒈게 힘든덴 허멍예?(그러면 그 송편 하려고 하면 반죽하는 것도 되게 힘든다고 하면서요?)

107066 #1 으, 반죽허는 거게 그거 쏠 ᄀᆞᆯ아다근에 그 쏠ᄀᆞ르도 물 게와근엥에 반죽을 헤사 허주. 만약에 언물로 몰랑 헷당은 헤살헤살[446]헤근에 떡이 안 뒈주게.(으, 반죽하는 거 그거 쌀 갈아다가 그 쌀가루도 물 끓여서 반죽을 해야 하지. 만약에 찬물로 몰라서 했다가는 ‘헤살헤살해서’ 떡이 안 되지.)

107066 @ 음.(음.)

107066 #1 영 만들아도 깨여졍.(이렇게 만들어도 깨어져서.)

107066 @ 예.(예.)

107066 #1 짝짝 깨여졍은에 떡이 안 뒈곡. 물 팔팔 끌려근에 손 대지 못허게 헹 영 남죽으로 젓엉 반죽을 영 헤놩 막끗듸 손으로 뀌여근엥에 반죽을 헤사주.(짝짝 깨어져서 떡이 안 되고. 물 팔팔 끓여서 손 대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죽젓개로 저어서 반죽을 이렇게 해놓아서 마지막에 손으로 이겨서 반죽을 해야지.)

107066 @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그 조개솔벤 만들 때 뭐 기구를 쓰는 거우과? 아니면 다 손으로 만들어?(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그 ‘조개솔벤’ 만들 때 뭐 기구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 손으로 만들어?)

107066 #1 손으로.(손으로.)

107066 @ 거 만들어 봅서, 순서대로 헤 갖고.(거 만들어 보십시오, 순서대로 해 갖고.)

107066 #1 손으로게. 무슨 기지[447]가 잇어야 만들주게. (웃음) 조개솔편은.(손으로. 무슨 재료가 있어야 만들지. (웃음) ‘조개솔편’은.)

107066 @ 응.(응.)

107066 #1 영 영 보병.(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107066 @ 예, 손으로 보병?(예, 손으로 비벼서?)

107066 #1 영 고망 영 내와놩.(이렇게 구멍 이렇게 내어놔서.)

107066 @ 예.(예.)

107066 #1 거기 쉬 담앙.(거기 소 담아서.)

107066 @ 으.(으.)

107066 #1 픗쉬던 꿰씨, 꿰던 깻ᄀᆞ르던 담앙. 경 허영 영 허영 마주 접앙.(팥소든 참깨, 깨든 깨소금이든 담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주 집어서.)

107066 @ 예.(예.)

---

446) ‘헤살헤살’은 반죽 따위가 끈기가 없어서 반죽이 벌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447) ‘기지’는 천의 의미인 일본어다. 여기에서는 ‘조개솔편’의 재료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107066 #1 그걸 영 영 영 영 영 영 접으민 조개솔펜이 뒈주.(그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집으면 '조개솔펜'이 되지.)

107066 @ 손으로 영 조개솔펜 모냥을 만드는 거라예?(손으로 이렇게 '조개솔펜' 모양을 만드는 거네요?)

107066 #1 으 으 으, 손으로 만드는 거. (으 으 으, 손으로 만드는 거.)

107066 @ 음.(음.)

107066 #1 요새 보민 만주 ᄑᆞ는 거. 육지 사름덜은 보민 이 바위를 오그리는디.(요새 보면 만주 파는 거. 육지 사람들은 보면 이 가장자리를 오그리는데.)

107066 @ 예.(예.)

107066 #1 조개솔편을 강 영 보면. 영 오그리는 거 아니? 영 꼳짝 페와지게.('조개솔편'을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그리는 거 아니? 이렇게 곧게 펴지게.)

107066 @ 꼳짝 페와지게예?(곧게 펴지게요?)

107066 #1 페와지게 헤영 이쁘게시리 영.(펴지게 해서 예쁘게끔 이렇게.)

107066 @ 게믄 그 만약에 조개솔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냥으로 나오더라고예. 조개 모냥으로 뒈게.(그러면 그 만약에 '조개솔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조개 모양으로 되게.)

107066 @ 으으, 이렇게 꺼꿀로 하면 여기 입. 잎이렌 허여? 여길. 이건 뭐렌 허여?(으으, 이렇게 거꾸로 하면 여기 잎. 잎이라고 해요? 여길. 이건 뭐라고 해?)

107066 #1 것이 썹이주게. 썹.(것이 잎이지. 잎.)

107066 @ 썹을 페와지게 허는 거라예?(잎을 펴지게 하는 거지요?)

107066 #1 으.(으.)

107066 @ 아.(아.)

107066 #1 오그리지 안 허영.(오그리지 안 해서.)

107067 @ 오그리지 안 헹예. 경 헹 하고. 여기는 젱기떡?(오그리지 안 해서요.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는 '젱기떡'?)

107067 #1 전기[448].('전기'.)

107067 @ 전기. 전기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전기'. '전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67 #1 전기는양 ᄆᆞᆯᄀᆞ르로 헤근엥에 반죽헤영.('전기'는요 메밀가루로 해서에 반죽해서.)

107067 @ 예.(예.)

107067 #1 무우 헤영 풋 그 소곱에 쉬 담곡.(무 해서 팥 그 속에 소 담고.)

107067 @ 으.(으.)

107067 #1 그 지지는 거난에.(그 지지는 거니까.)

107067 @ 건 지졍은에.(건 지져서.)

448) '전기'는 메밀가루로 얇게 지어서 안에 참깨와 파 등을 넣어서 무친 무 숙채를 넣어서 멍석 모양으로 말아서 만든 음식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빙떡, 정기떡, 빈떡, 영빈, 멍석떡 따위로 부른다.

107067 #1 후라이팬에서 지지는 거난.(프라이팬에서 지지는 거니까.)

107067 @ 옛날에는 요즘은 후라이팬 허주만 옛날에는 어떵 헷수가?(옛날에는 요즘은 프라이팬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7067 #1 옛날에는 솟뚜껭이.(옛날에는 솥뚜껑.)

107067 @ 으.(으.)

107067 #1 껌은 솟두껭이로 이 불 솜으멍.(검은 솥뚜껑으로 이 불 때면서.)

107067 @ 예.(예.)

107067 #1 으, 삭다리 헤당 놧당 그걸로 불 베롱[449]. 솟뚜껭이로 지진 것이 맛잇엇수다.(으, 삭정이 해다가 놨다가 그걸로 불 '베롱'. 솥뚜껑으로 지진 것이 맛있었습니다.)

107067 @ 음.(음.)

107067 #1 노릇노릇 카니까.(노릇노릇 타니까.)

107067 @ 카니까예.(타니까요.)

107067 #1 전기 판에서 허민은 카지 아녕, 빨리 급허게 헤 불민 좀 민드락허곡[450]. ('전기' 판에서 하면 타지 않아서, 빨리 급하게 해 버리면 좀 '민드락하고'.)

107067 @ 음.(음.)

107067 #1 요즘, 요즘 건 전기 맛엇어.(요즘, 요즘 건 '전기' 맛없어.)

107067 @ 옛날에 전기할 때 솟두껭이 하고. 그 지름도 요즘은 식용유 허주만은 옛날에는 다른 걸로 헷덴 허멍예?(옛날에 '전기'할 때 솥뚜껑에 하고. 그 기름도 요즘은 식용유 하지만 옛날에는 다른 걸로 했다고 하면서요?)

107067 #1 옛날엔 유채지름으로 허곡게.(옛날엔 유채기름으로 하고.)

107067 @ 으.(으.)

107067 #1 유채지름, 유채지름으로 주로 헷주게.(유채기름, 유채기름으로 주로 했지.)

107067 @ 돗지름으로 헷덴 허멍?(돼지기름으로 했다고 하면서요?)

107067 #1 건 옛날 막 유채 안 난 때.(건 옛날 아주 유채 안 날 때.)

107067 @ 예.(예.)

107067 #1 안 난 땐 우리도 도새기지름으로ᄁᆞ장 헤낫수다.(안 날 땐 우리도 돼지기름으로까지 했었습니다.)

107067 @ 음.(음.)

107067 #1 헤나신디 돗지름 그 그 몰란에 분시 몰란에 도새기지름으로 제관 든 때.(했었는데 돼지기름 그 그 몰라서 분수 몰라서 돼지기름으로 제관 들 때.)

107067 @ 으.(으.)

107067 #1 제청 든 때, 그 제관칩의서 그 분실 몰르니까 제관칩의서가 다 떡 지정갑니다게.(제청 든 때, 그 '제관집'에서 그 분술 모르니까 제관집에서가 다 떡 지져서 갑니다.)

107067 @ 예.(예.)

---

449) '베롱'은 불이 약한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450) '민드락허고'는 '전기'를 지질 때 급하게 익히다 보면 '제대로 익지 않아서 물기가 남아서'라는 의미다.

107067 #1 전기떡을 헤가주, 딴 거 아녕.('전기떡'을 해가지, 딴 거 않고.)

107067 @ 으.(으.)

107067 #1 게난 도새기지름으로 정길 지졍 가 분 거라양?(그러니까 돼지기름으로 '전길' 지져서 가 버린 거예요?)

107067 @ 예.(예.)

107067 #1 게난 그 줴 받안에 얼마나 아판 혼낫수가?(그러니까 그 죄 받아서 얼마나 아파서 혼났습니까?)

107067 @ 음.(음.)

107067 #1 도새기 이디는양 이딘 본향에 뒈지고기 본향에 가젠 허민 흔 삼일 오일 전에부떠 안 먹어.(돼지 여기는요 여긴 본향에 돼지고기 본향에 가려고 하면 한 삼일 오일 전에부터 안 먹어.)

107067 @ 아아.(아아.)

107067 #1 갈 사람이. 이디 본향은 소, 소벳긔 안 먹어.(갈 사람이. 여기 본향은 소, 소밖에 안 먹어.)

107067 @ 음.(음.)

107067 #1 제청 헐 때도 소 잡지 못허민 소머리나 소다리 사당 올령 허주, 뒈지고기, 뒈지는 일절.(제청 할 때도 소 잡지 못하면 소머리나 소다리 사다가 올려서 하지, 돼지고기, 돼지는 일절.)

107068 @ 아아.(아아.)

107068 #1 먹은 사름 못 갑니다. 막 쎄덴, 쎈 본향이엔 헹은에.(먹은 사람 못 갑니다. 막 세다고, 센 본향이라고 해서.)

107067 @ 아아, 경헌디 이제 돗지름으로 헤갖고.(아아, 그런데 이제 돼지기름으로 해갖고.)

107067 #1 몰란에 헨 갓단에.(몰라서 해서 갔다가.)

107067 @ 음.(음.)

107067 #1 막 혼낫수다. (기침)(아주 혼났습니다. (기침))

107067 @ 으으, 게난 다 동네마다 그 본향에 특성에 따라서 허는 거라예?(으으, 그러니까 다 동네마다 그 본향에 특성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107067 #1 예, 틀려.(예, 달라.)

107067 @ 예, 그런 식으로 헹은에 하고. 게믄 예전에도 이제 전기를 식게나 이럴 때 올려마씨?(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러면 예전에도 이제 '전기'를 제사나 이럴 때 올려요?)

107067 #1 상에 그 양 막 옛날에는 저 그거 헤도 빙떡을 올리단에.(상에 그 여보세요 아주 옛날에는 저 그거 해도 '빙떡'을 올리다가.)

107067 @ 예.(예.)

107067 #1 왜 안 올렷느냐 허면 저 그 제사 먹으레 온 초상이.(왜 안 올렸느냐 하면 저 그 제사 먹으러 온 조상이.)

107067 @ 예.(예.)
107067 #1 친구덜 나시 받앙 가야 뒐 건디.(친구들 몫 받아서 가야 될 건데.)
107067 @ 음.(음.)
107067 #1 받앙 가당 보민 다 훌터근에 끄차쳐 벼근에 전기떡은 잘 끊어지지 아녑니까?(받아서 가다가 보면 다 훑어서 끊어져 버려서 '전기떡'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까?)
107067 @ 예, 예.(예, 예.)
107067 #1 경 허난 그 어느 사름안테 꿈에 시꽌.(그렇게 하니까 그 어느 사람한테 꿈에 나타나서.)
107067 @ 으음.(으음.)
107067 #1 그 제ᄉᆞ 먹으레 왓단 영혼이.(그 제사 먹으러 왔던 영혼이.)
107067 @ 음.(음.)
107067 #1 떡 받앙 강, 친구덜 나시 받앙 간 보난 문딱 헤싸져 부난 하나도 없더라.(떡 받아서 가서, 친구들 몫 받아서 가서 보니까 몽땅 헤어져 버리니까 하나도 없더라.)
107067 @ 음.(음.)
107067 #1 경 허연 시꽈나 부난 그다음은 전기떡 상에 안 올립니다.(그렇게 해서 나타나 버리니까 그다음은 '전기떡' 상에 안 올립니다.)
107067 @ 음.(음.)
107067 #1 친떡. 꼭 친떡 헤서 올리주.(시루떡. 꼭 시루떡 해서 올리지.)
107068 @ 친떡 헹예? 예. 그다음에 여기도 상웨떡도?(시루떡 해서요? 예. 그다음에 여기도 상화떡도?)
107068 #1 예, 상웨떡도 허여.(예, 상화떡도 해.)
107068 @ 상에떡은 뭘로 헤낫수과?(상화떡은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107068 #1 올립니다, 상웨떡은.(올립니다, 상화떡은.)
107068 @ 상웨떡은 올리고예?(상화떡은 올리고요?)
107068 #1 밀ᄀᆞ르 옛날은게 우리밀 간 거.(밀가루 옛날은 우리밀 간 거.)
107068 @ 으으.(으으.)
107068 #1 조선밀.(조선밀.)
107068 @ 예.(예.)
107068 #1 그걸로 허, 그거 상웨떡 헤사 맛은 잇주.(그걸로 해, 그거 상화떡 해야 맛은 있지.)
107068 @ 으음.(으음.)
107068 #1 저 노리롱은 헤도.(저 노르스름은 해도.)
107068 @ 노리롱은 헤도. 게난 삼춘예, 상웨떡도 동글락상웨떡도 잇고?(노르스름은 해도. 그러니까 삼촌요, 상화떡도 동근상화떡도 있고?)
107068 #1 거는 빵이엔 허주게.(거는 빵이라고 하지.)
107068 @ 아, 건 빵엔 허고. 여기는 빗상웨로.(아, 건 빵이라고 하고. 여기는 '빗상웨'로.)

107068 #1 빗상웨[451]로.(‘빗상웨’로.)

107068 @ 빗상웨로 허는 거구나. 주로 여름에 허커예?(‘빗상웨’로 하는 거구나. 주로 여름에 하겠네요?)

107068 #1 여름은 상웨떡. 경헌디 상웨떡 옛날엔양 기주.(여름은 상화떡. 그런데 상화떡 옛날엔요 기주.)

107068 @ 예.(예.)

107068 #1 쉰다리[452] 담앙 기주로 헷주, 요샌 약으로덜 헤도.(‘쉰다리’ 담아서 기주로 했지, 요샌 약으로들 해도.)

107068 @ 으음. 그 상웨떡 허는 거를 한번. 웨냐하면 그거는 잘 부꺼야 뒈지 않읍니까예? 그거 한번 ᄀᆞᆯ아 줘 봅서.(으음. 그 상화떡 하는 거를 한번. 왜냐하면 그거는 잘 부풀어야 되지 않습니까요? 그거 한번 말해 줘 보세요.)

107068 #1 게난 그 밀ᄀᆞ르 헤근에 것도 물 맞촹 제대로 안 허민 안 부끄민.(그러니까 그 밀가루 해서 것도 물 맞춰서 제대로 안 하면 안 부풀면.)

107068 @ 으.(으.)

107068 #1 시간이 부끌 흔이 넘어신디도 안 부끄민 떡이 찌면은 납작헤 불주게.(시간이 부풀 한이 넘었는데도 안 부풀면 떡이 찌면 납작해 버리지.)

107068 @ 아, 아.(아, 아.)

107068 #1 게문 것ᄀᆞ라 낭웨[453]엔 헤근에.(그러면 것보고 ‘낭웨’라고 해서.)

107068 @ 낭웨?(‘낭웨’?)

107068 #1 으. 상웨떡이 부각허게 부꺼야 뒈는디 납작헤 불어. 그거는 웨 탈이냐. 기주가 잘 안 뒌 거.(으. 상화떡이 부각하게 부풀어야 되는데 납작해 버려. 그거는 왜 탈이냐. 기주가 잘 안 된 거.)

107068 @ 예.(예.)

107068 #1 으, 부각부각 막 궤지 아년 걸 놩 ᄆᆞᆯ아 부난 피지 못헌 거 상웨떡이.(으, 부각부각 막 괴지 않은 걸 놔서 반죽해 버리니까 부풀지 못한 거 상화떡이.)

107068 @ 그걸 낭웨? 게믄 빗상웨허고 낭웨허고는 ᄐᆞ난 거우과?(그걸 ‘낭웨’? 그러면 ‘빗상웨’하고 ‘낭웨’하고는 다른 겁니까?)

107068 #1 게난 그건 올리지도 안 헙니다게. 상에.(그러니까 그건 올리지도 안 합니다. 상에.)

107068 @ 아아.(아아.)

107068 #1 아아 저 집읜 식게헐 때 저 상웨떡.(아아 저 집에는 제사할 때 저 상화떡.)

(부분 생략)

---

451) ‘빗상웨’는 상화떡을 기다랗게 만든 떡이다. 여기에서 ‘빗’은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썰어놓은 시루떡 따위를 셀 때 쓰는 말이다. 상화떡을 시루떡을 잘라놓은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은 이름이다.

452) ‘쉰다리’는 쉰밥에 누룩 따위를 넣어서 발효시킨 음료다.

453) ‘낭웨’는 밀가루나 보릿가루를 기주 따위로 부풀려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떠낸 떡이다. 잘 부풀지 않은 떡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107068 #5 우리 사촌형이 그 저 나 하나 이야기헤 줄게이.(우리 사촌형이 그 저 나 하나 이야기해 줄게.)

107068 @ 예.(예.)

107068 #5 부면장을 헷는데 아까 친떡 잇엇는데.(부면장을 했는데 아까 시루떡 있었는데.)

107068 @ 예.(예.)

107068 #5 친떡은 땅.(시루떡은 땅.)

107068 @ 예.(예.)

107068 #5 그다음 영 둘반착 잇잖아. 건 달. 그다음 헤.(그다음 이렇게 솔편 있잖아. 건 달. 그다음 해.)

107068 #1 벨, 벨.(별, 별.)

107068 #5 그다음은 우주시.(그다음은 웃기떡.)

107068 #1 우주시가 벨.(웃기떡이 별.)

107068 #5 우주시가 별.(웃기떡이 별.)

107068 @ 예.(예.)

107068 #5 경 헤서 그 츠례로.(그렇게 해서 그 차례로.)

107068 #1 달 헤 벨 맞아.(달 해 별 맞아.)

107068 #5 *** 막 똥그락 것이 아래 갓다.(*** 막 똥그란 것이 아래 갔다.)

107068 #1 우에 갓닥.(위에 갔다가.)

107068 #5 둘반착이 우에 갓다 영 안 헷는데. 우리 집안은 통일헤서. 땅하고 달하고 헤하고 별 그 차례로 놓메.(솔편이 위에 갔다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집안은 통일해서. 땅하고 달하고 해하고 별 그 차례로 놓아.)

107068 @ 예.(예.)

107068 #1 친떡 두 빗 놔놩은에 그다음에 솔변 쫙허게 영 놔놩.(시루떡 두 '빗' 놔놔서 그다음에 솔편 쫙하게 이렇게 놔놔서.)

107068 @ 예.(예.)

107068 #1 그다음에 그 저.(그다음에 그 저.)

107068 @ 절벤.(절편.)

107068 #1 절벤 놔놩 우지시는 건 벨떡[454]엔 헤근에 젤 우에.(절편 놔놔서 웃기떡은 건 '별떡'이라고 해서 젤 위에.)

107068 @ 예.(예.)

107068 #1 경 놉니다, 우린.(경 놓읍니다, 우린.)

107068 @ 네 가지로 올리는 거라예?(네 가지로 올리는 거네요?)

107068 #1 으으, 이디는 경 올려.(으으, 여기는 그렇게 올려.)

107068 #5 ** 수산[455]은 상웨렌 헤근에 상 우에 제 보레 가면 옆에만 논덴 헤라.(**

454) '벨떡'은 별 모양의 떡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주로 웃기떡으로 쓰는 기름떡을 말한다.
455) '수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를 말한다.

수산은 상화라고 해서 상 위에 제 보러 가면 옆에만 놓는다고 하더라.)

107068 @ 예에, 게난 삼춘 게난 여기에 빗상웨허고 낭웨를 다른 걸로 보는 거?(예, 그러니까 삼촌 그러니까 여기에 '빗상웨'하고 '낭웨'를 다른 걸로 보는 거?)

107068 #1 아니, 딴 걸로 봐근에 그거 막 게난 사름덜이 막 욕허고 웃주게.(아니, 다른 걸로 봐서 그거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고 웃지.)

107068 @ 예에.(예에.)

107068 #1 이거 무신 상웨떡 헌 상아리닌 허멍.(이거 무슨 상화떡 한 모양이냐고 하면서.)

107068 @ 으.(으.)

107068 #1 기주 아니 부끈 때 영 먹는 것도 찔각찔각[456] 즈베기처록.(기주 아니 부풀 때 이렇게 먹는 것도 '찔각찔각' 수제비처럼.)

107068 @ 으으.(으으.)

107068 #1 경 헙니다게.(그렇게 합니다.)

107068 @ 게연 그치룩 안 뒌 거를 낭웨렌 허는 거예?(그래서 그처럼 안 된 거를 '낭웨'라고 하는 거라고요?)

107068 #1 그거 그치룩 뒈 부난 낭웨지.(그거 그처럼 돼 버리니까 '낭웨'지.)

107068 @ 낭웨.('낭웨'.)

107068 #1 납작헤 부난.(납작해 버리니까.)

107068 @ 아아.(아아.)

107068 #1 피지 안헹 영 납, 납작헤 부난.(부풀지 않아서 이렇게 납, 납작해 버리니까.)

107068 @ 으음.(으음.)

107068 #1 요즘 낭웨는 기계로 강 헤오는 낭웨는 따로 잇입니께.(요즘 '낭웨'는 기계로 가서 해오는 '낭웨'는 따로 있습니다.)

107068 @ 예.(예.)

107068 #1 영 상웨떡치록 부각허게 피는 거.(이렇게 상화떡처럼 부각하게 부푸는 거.)

107068 @ 예, 예, 예.(예, 예, 예.)

107068 #1 그것이 낭웨.(그것이 '낭웨'.)

107068 @ 거 기증펜 허는 게 그거.(거 증편 하는 게 그거.)

107068 #1 음. 요즘은 그런 거.(음. 요즘은 그런 거.)

107068 @ 예.(예.)

107068 #1 옛날엔 그 기주떡[457] 헤근에 안 피민 낭웨렌 허영.(옛날엔 그 '기주떡' 해서 안 부풀면 '낭웨'라고 해서.)

107068 @ 안 핀 거를 낭웨렌 허고 핀 거는 그냥 빗상웨.(안 부푼 거를 '낭웨'라고

456) '찔각찔각'은 수제비 따위를 먹을 때의 느낌을 표현한 말이다.

457) '기주떡'은 밀가루 따위의 가루에 기주를 넣어서 부풀게한 후에 찐 떡을 말한다. 증편에 해당하는 말이다.

하고 부푼 거는 그냥 ‘빗상웨’.)

107068 #1 으 상웨.(으 상화.)

107068 @ 상웨렌 하고예, 예. 예. 게영 그런 식으로 허고 아까 기주.(상화라고 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기주.)

107068 #1 으.(으.)

107068 @ 기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마씨?(기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107068 #1 기주는 누룩.(기주는 누룩.)

107068 @ 으.(으.)

107068 #1 누룩 사단에 저 밥 식은, 밥 식게 헤근에 석석헌 밥에 헤영 물 놩 그 누룩을 버물영. 뜻뜻헌 디 ᄒᆞ루만 놔두민 그거 막 뀁니다게.(누룩 사다가 저 밥 식은, 밥 식게 해서 서늘한 밥에 해서 물 놔서 그 누룩을 버무려서. 따뜻한 데 하루만 놔두면 그거 막 뀝니다.)

107068 @ 예.(예.)

107068 #1 경 허는디 그것도 맞추지 못허는 사람이 잇어근엥에.(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107068 @ 으음.(으음.)

107068 #1 기주가 잘 안 뒈는 거주게.(기주가 잘 안 되는 거지.)

107068 @ 잘 안 뒈니까.(잘 안 되니까.)

107068 #1 우리 제청 들면은 초헌, 초헌 각시가 가근엥에 그, 그 술을 담주.(우리 제청 들면 초헌, 초헌 각시가 가서 그, 그 술을 담그지.)

107068 @ 음.(음.)

107068 #1 요즘은 재료를 좁썰 사오곡 누룩 사오곡 뭐 헹 그거 저 좁쏠 죽 쒀근에.(요즘은 재료를 좁쌀 사오고 누룩 사오고 뭐 해서 그거 저 좁쌀 죽 쒀서.)

107068 @ 음.(음.)

107068 #1 경 허영 담는.(그렇게 해서 담그는.)

107069 #1 그것도예, 웃제관 초헌 초헌 제관.(그것도요, ‘웃제관’ 초헌 초헌 제관.)

107069 @ 으.(으.)

107069 #1 젤 웃제관. 그 제관 앚은 옆에다가 그 술 단지도 놔야 뒈여.(젤 ‘웃제관’. 그 제관 앉은 옆에다가 그 술 단지도 놔야 되어.)

107069 @ 음.(음.)

107069 #1 경 헤영 뭐 더꺼야 뒈여.(그렇게 해서 뭐 덮어야 되어.)

107069 @ 거난 그것도 다 정헤진 거라예. 위치도예.(그러니까 그것도 다 정해진 거예요. 위치도요.)

107069 #1 예.(예.)

107070 @ 경 헤영 하고. 그다음에 그 제사 때, 제사 때 떡허고 상례헐 때 떡허고 영장헐 때 떡허고 뚜나잖아예?(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제사 때, 제사 때 떡하고 상례할 때 떡하고 영장할 때 떡하고 다르잖아요?)

107070 #1 솔펜 절펜은 마찬가지고. 저 사름 영장나근엥에 성복에 못, 아니 써난 떡이든 저 제숙이던은.(솔편 절편은 마찬가지고. 저 사람 초상나서 성복에 못, 아니 썼던 떡이든 저 제육이든.)

107070 @ 음, 제사에.(음, 제사에.)

107070 #1 펭상시에 못 쓴덴 헙니다.(평상시에 못 쓴다고 합니다.)

107070 @ 예.(예.)

107070 #1 성복에 아녀난 건.(성복에 않았던 건.)

107070 @ 게니까 옛날 상낭은에 영장헐 땐 정성을 다헌 거라예?(그러니까 옛날 초상나서 영장할 땐 정성을 다한 거지요?)

107070 #1 으, 게난 그디 그거 허민 그디 무시거꼬장 다 허주게.(으, 그러니까 거기 그거 하면 거기 무엇까지 다 하지.)

107070 @ 음.(음.)

107070 #1 진짜로 낭웨로게 영 고망 영 영 뚤라근엥에. 밀ᄀᆞ르로 밀어근에 납작허게 헹 튀길 걸로.(진짜로 '낭웨'로 이렇게 구멍 이렇게 이렇게 뚫어서. 밀가루로 밀어서 납작하게 해서 튀길 걸로.)

107070 @ 예.(예.)

107070 #1 경 헤영 낭웨 송웨[458] 다 허영 요만씩 쏠랑쏠랑허게도 허곡.(그렇게 해서 '낭웨' '송웨' 다 해서 요만씩 기름기름하게도 하고.)

107070 @ 으.(으.)

107070 #1 네모나게 기자 영 요 요 정도로 요 정도로 네모나게.(네모나게 그저 이렇게 요 요 정도로 요 정도로 네모나게.)

107070 @ 으.(으.)

107070 #1 요만씩도 만들고. 또 요치룩 ᄒᆞ썰 크게 헌 건 고망을 젓가락으로 영 영 찔러양.(요만씩도 만들고. 또 요처럼 조금 크게 한 건 구멍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찔러요.)

107070 @ 예.(예.)

107070 #1 고망 내와. 경 허영 허곡 세 가지 헙니다게. 옛날에는.(구멍 내. 그렇게 해서 하고 세 가지 합니다. 옛날에는.)

107070 @ 영장?(영장?)

107070 #1 영장 때.(영장 때.)

107070 @ 예, 게믄 삼춘예 그 이 이런 이름은 뭐엔 헤?(예, 그러면 삼촌요 그 이 이런 이름은 뭐라고 해?)

107070 #1 이거 허민 낭웨엔 허주. 이것이 낭웨주. 상에 올리는 그 원칙대론.(이거 하면 '낭웨'라고 하지. 이것이 '낭웨'지. 상에 올리는 그 원칙대론.)

107070 @ 으.(으.)

107070 #1 경 헤근에 이거 세 가지 헤근엥에 요치록 쏠랑허게 헤근에에.(그렇게 해

458) '송웨'는 떡의 일종이다. 정확히 어떤 떡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서 이거 세 가지 해서 요처럼 기름하게 해서.)

107070 @ 게난 그 중계 약궤 이런 말 들어봔마씨?(그러니까 그 중계 약과 이런 말 들어봤어요?)

107070 # 1 음, 음.(음, 음.)

107070 @ 중궤 약궤는 뭐?(중계 약과는 뭐?)

107070 #1 중궤 약궤주, 이것이.(중계 약과지, 이것이.)

107070 @ 이게 중궤 약궤. 으, 경 하고 튀기는 것도 잇잖아예? 이렇게 중계 약궤 헤영은에 튀기는 거?(이게 중계, 약과. 으, 그렇게 하고 튀기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중계 약과 해서 튀기는 거?)

107070 #1 이걸로 튀기주.(이걸로 튀기지.)

107070 @ 이걸로 튀기는 거?(이걸로 튀기는 거?)

107070 #1 이거 만들아 놩 튀기주.(이거 만들어 놔서 튀기지.)

107070 @ 이 동네도 과질은 헷수과?(이 동네도 과줄은 했습니까?)

107070 #1 과질은 이제도 허곡.(과줄은 이제도 하고.)

107070 @ 아, 과질은 이제도 헤마씨?(아, 과줄은 이제도 해요?)

107070 #1 이제도 제사 때 과질은 허고.(이제도 제사 때 과줄은 하고.)

107070 @ 과질은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과줄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107070 #1 과질은 저 우리도 기계 헤다 놘에 부녀훼에서 나 부녀훼장 헐 때 헤나신디. 떡 미는 기계가 다 나오난. 옛날엔 안 나온 땐 영 밀엉.(과줄은 저 우리도 기계 해다 놔서 부녀회에서 나 부녀회장 할 때 했었는데. 떡 미는 기계가 다 나오니까. 옛날엔 안 나온 땐 이렇게 밀어서.)

107070 @ 예.(예.)

107070 #1 밀엉은엥에 칼로 허영 짐작헤영 그걸 말류와.(밀어서 칼로 해서 짐작해서 그걸 말려.)

107070 @ 예.(예.)

107070 #1 그걸 널엉 말륜 다음에 고슬고슬 ᄆᆞᆯ르면은 그게 기름에 튀경.(그걸 널어서 말린 다음에 고슬고슬 마르면 그게 기름에 튀겨서.)

107070 @ 음.(음.)

107070 #1 튀겨근에 그레 엿 ᄇᆞᆯ라근엥에 쏠 튀긴 거 ᄇᆞᆯ랑. 경 허영 과질.(튀겨서 그리로 엿 발라서 쌀 튀긴 거 발라서. 그렇게 해서 과줄.)

107070 @ 그게 과질 헤 갖고. 이 동네는 이제 제사나 이런 때는 항상 과질을 허는 거라예?(그게 과줄 해 갖고. 이 동네는 이제 제사나 이런 때는 항상 과줄을 하는 거예요?)

107070 #1 예, 과질 헙니다.(예, 과줄 합니다.)

107070 @ 과질 허는 허지 않은 동네덜도 잇어예.(과줄 하는 하지 않은 동네들도 있어요.)

107070 #1 이 이 부락에는 이젠 그거 설러 부난에 요 신산이[459].(이 이 부락에는 이

젠 그거 그만둬 버리니까 요 신산리.)

107070 @ 예.(예.)

107070 #1 신산이 과질 허는 사름이 잇주.(신산리 과줄 하는 사람이 있지.)

107070 @ 으음.(으음.)

107070 #1 게난 그디 강 맞촹덜.(그러니까 거기 가서 맞춰서들.)

107070 @ 맞촹은에 아, 요즘도 과질은 헴구나?(맞춰서 아, 요즘도 과줄은 하고 있구나?)

107070 #1 성복에 옛날에부터 성복게 영장 때 헤나 부난 걸 꼭 헤여.(성복에 옛날에부터 성복 영장 때 했어 버리니까 걸 꼭 해.)

107070 @ 아아, 게믄 예전에 웨 성복.(아아, 그러면 예전에 왜 성복.)

107070 #1 아녀난 딘 안 허고.(않았던 덴 안 하고.)

107070 @ 영장헐 때는 막 곶인 제숙. 떡도 막 여러 가지 허는 거 잖아예?(영장할 때는 아주 갖춘 제육. 떡도 아주 여러 가지 하는 거 잖아요?)

107070 #1 으.(으.)

107070 @ 그거를 뭐 불르는 일름이 잇어마씨?(그거를 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107070 #1 영장, 영장 때 떡이.(영장, 영장 때 떡이.)

107070 @ 귀 곶춘 거 으?(귀 갖춘 거 으?)

107070 #1 귀 곶추는 것이 그것이 그거주게, 무신게.(귀 갖추는 것이 그것이 그거지, 무슨.)

107070 @ 맨 밑에는?(맨 밑에는?)

107070 #1 아, 시리떡 놓곡.(아, 시루떡 놓고.)

107070 @ 시리떡 놓고.(시루떡 놓고.)

107070 #1 올릴 때?(올릴 때?)

107070 @ 예.(예.)

107070 #1 으, 맨 밑에 시리떡 놓곡게. 그다음 시리떡 두 빗 놓주.(으, 맨 밑에 시루떡 놓고. 그다음 시루떡 두 '빗' 놓지.)

107070 @ 예.(예.)

107070 #1 하면은 두 빗씩 열, 저 네 빗을 올려도.(하면은 두 '빗'씩 열, 저 네 '빗'을 올려도.)

107070 @ 보통은 두 개?(보통은 두 개?)

107070 #1 보통은 기자 아래 두 개.(보통은 그저 아래 두 개.)

107070 @ 으.(으.)

107070 #1 두 개 놩 그다음은 솔벤.(두 개 놔서 그다음은 솔편.)

107070 @ 멧 개 놔?(몇 개 놔?)

107070 #1 돌반착[460].(솔편.)

---

459) '신산이'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를 말한다.

460) '돌반착'은 쌀가루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만든 떡이다. 이를 지역에 따라서는 '솔벤', '솔펜'이라고 한다.

107070 @ 음.(음.)

107070 #1 그거 세 개씩.(그거 세 개씩.)

107070 @ 여섯 개.(여섯 개.)

107070 #1 여섯 개 짝 맞게 안 허주.(여섯 개 짝 맞게 안 하지.)

107070 @ 일곱 개.(일곱 개.)

107070 #1 경 허민 영 머리맛듸 요렇게 영 돌아가게 놔양.(그렇게 하면 이렇게 머리맡에 요렇게 이렇게 돌아가게 놔요.)

107070 @ 예.(예.)

107070 #1 요렇게 가다[461]가 뭔 거니까.(요렇게 모양이 된 거니까.)

107070 @ 으으.(으으.)

107070 #1 영허영 머리맛듸 영 놩.(이렇게 해서 머리맡에 이렇게 놔서.)

107070 @ 으.(으.)

107070 #1 경 허영 우에 영 놓곡 헤영은에 그다음에는 솔벤 절벤.(그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놓고 해서 그다음에는 솔편 절편.)

107070 @ 절벤 동글락헌 거.(절편 동그란 거.)

107070 #1 절벤 영 허영 양쪽으로.(절편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107070 @ 예.(예.)

107070 #1 요딘 말고.(여긴 말고.)

107070 @ 예.(예.)

107070 #1 양쪽으로만 이 펜틀에 ᄀᆞ칭허게.(양쪽으로만 이 편틀에 나란하게.)

107070 @ 예.(예.)

107070 #1 경허영 영 궤여 놩.(그렇게 해서 이렇게 괴어 놔서.)

107070 @ 으.(으.)

107070 #1 그다음에 요 복판에는 벨떡.(그다음에 요 복판에는 '별떡'.)

107070 @ 으.(으.)

107070 #1 벨떡 영 헤영은엥에 떡빗[462]이 쫄르면은 벨떡은 세 개만 올라갑니다.('별떡' 이렇게 해서 '떡빗'이 짧으면 '별떡'은 세 개만 올라갑니다.)

107070 @ 으.(으.)

107070 #1 세 개 올라가민 딱 맞아.(세 개 올라가면 딱 맞아.)

107070 @ 절벤은 멧 개 올려마씨?(절편은 몇 개 올려요?)

107070 #1 아, 절벤은 다섯 개 으섯 개. 그 이거 놔 부난에.(아, 절편은 다섯 개 여섯 개. 그 이거 놔 버리니까.)

107070 @ 예.(예.)

107070 #1 그 머리맛듸 놔 부난 욜로 요레만 허는 따문에 짝수는 아니 올려.(그 머리맡에 놔 버리니까 욜로 요리만 하는 때문에 짝수는 아니 올려.)

---

461) '가다'는 모양의 뜻인 일본어다.

462) '떡빗'은 제상에 올리기 좋게 알맞은 크기로 자른 시루떡의 하나다.

107070 @ 예.(예.)
107070 #1 홀수로 올리주.(홀수로 올리지.)
107070 @ 홀수로. 모든 떡은 다 홀수로 올리는 거.(홀수로. 모든 떡은 다 홀수로 올리는 거.)
107070 #1 예.(예.)
107070 @ 저기 친떡만 빼고.(저기 시루떡만 빼고.)
107070 #1 예. 경 허난 다섯 개.(예. 그렇게 하니까 다섯 개.)
107071 @ 다섯 개. 게영은에 이제 그 우지시.(다섯 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웃기떡.)
107071 #1 벨떡.('별떡'.)
107071 @ 벨떡도 세 개나 다섯 개.('별떡'도 세 개나 다섯 개.)
107071 #1 벨떡은 세 개나 다섯 개나.('별떡'은 세 개나 다섯 개나.)
107071 @ 예, 다 홀수로 올리는 거예? 그다음에 삼춘, 여기는 설귀떡이렌은 안 헙니까?(예, 다 홀수로 올리는 거요? 그다음에 삼촌, 여기는 '설귀떡'이라고는 안 합니까?)
107071 #1 설기떡은 혜영헌 거.(백설기는 하얀 거.)
107071 @ 어.(어.)
107071 #1 벡시리.(백시루떡.)
107071 @ 벡시리. 벡시리는 안 혜?(백시루떡. 백시루떡은 안 해?)
107071 #1 벡시리 허는 집인 헙니다. 지금도.(백시루떡 하는 집엔 합니다. 지금도.)
107071 @ 아, 벡시리 게민 그건.(아, 백시루떡 그러면 그건.)
107071 #1 제사에도 지금도 헤여. 그.(제사에도 지금도 해. 그.)
107071 @ 쉬 안 놔갖고 벡시리.(고물 안 놔갖고 백시루떡.)
107071 #1 쉬 안 놩 벡시리. 그 영장 때는 벡시리 역불 허는 거.(고물 안 놔서 백시루. 그 영장 때는 백시루떡 부러 하는 거.)
107071 @ 으, 영장 때는 폿 안 헹은에 벡시리로 그걸로 허는 거?(으, 영장 때는 팥 안 해서 백시루떡으로 그걸로 하는 거?)
107071 #1 벡시리로 역불로 허는 거.(백시루떡으로 부러 하는 거.)
107071 @ 예전에 뭐 송이떡, 송에기떡 허는 말도 들어봔?(예전에 뭐 '송이떡', '송에기떡' 하는 말도 들어봤어요?)
107071 #1 송에기떡이 뭐라?('송에기떡'이 뭐야?)
107072 @ 아, 그런 거는 아니 들어보고, 여기는예, 예? 그 은절미도 헤마씨?(아, 그런 거는 아니 들어보고, 여기는요, 예? 그 인절미도 해요?)
107072 #1 예, 은절미사게.(예, 인절미야.)
107072 @ 은절민 어떤 식으로?(인절민 어떤 식으로?)
107072 #1 은절민 지금도 허는 거. 은절미 쉬도 안 놓고 아무 것도 안 놔근에 기자떡 물앙 밀어근에 트는 거.(인절민 지금도 하는 거. 인절미 소도 안 놓고 아무 것도 안 놔서 그저 떡 반죽해서 밀어서 뜨는 거.)

107072 @ 으.(으.)

107072 #1 터근에 기자.(떠서 그저.)

107072 @ 다 기냥 텅은에 그냥 허는 거. 건 모냥이 어떤 식으로?(다 그냥 떠서 그냥 하는 거. 건 모양이 어떤 식으로?)

107072 #1 인절미 네모나게.(인절미 네모나게.)

107072 @ 옛날엔 네모나게. 아까 그 낭웨허듯이.(옛날엔 네모나게. 아까 그 '낭웨'하듯이.)

107072 #1 으, 네모나게.(으, 네모나게.)

107072 @ 은절미는 거는 뭘로 멘들안, 옛날에.(인절미는 거는 뭘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107072 #1 쌀로, 쌀로.(쌀로, 쌀로.)

107072 @ 다예. 요즘처럼 인절미렌 헤영은에 저기 찹쌀로 만든 건 아니지예? 옛날엔예?(다요. 요즘처럼 인절미라고 해서 저기 찹쌀로 만든 건 아니지요? 옛날엔요?)

107072 #1 아니.(아니.)

107072 @ 게믄 그 식게 때 인절미는 어느 자리에 놓는 거?(그러면 그 제사 때 인절미는 어느 자리에 놓는 거?)

107072 #1 인절미 식게 땐 이 저 옛날에나 떡 하영덜 아녈 때난 헷주. 요즘은 인절미 안 헙니다.(인절미 제사 땐 이 저 옛날에나 떡 많이들 않을 때니까 했지. 요즘은 인절미 안 합니다.)

107072 @ 이제는 안 하고. 우리 저쪽에는예.(이제는 안 하고. 우리 저쪽에는요.)

107072 #1 이제도 허여.(이제도 해.)

107072 @ 인절미도 올리고, 그다음에 솔벤 절벤 그다음 웃지시 헨 다섯 종류.(인절미도 올리고, 그다음에 솔편 절편 그다음 웃기떡 해서 다섯 종류.)

107072 #1 음.(음.)

107072 @ 건디 여기는 네 종류 올리는 거 아니라예? 으음. 그다음에 그 절벤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우꽈? 그 저기 돌반착허고는 ᄒᆞ꼼 뜨나지 안헙니까?(그런데 여기는 네 종류 올리는 거 아닌가요? 으음. 그다음에 그 절편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 저기 솔편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107072 #1 돌반착허고 절벤?(솔편하고 절편?)

107072 @ 응. 똥글락헌 거.(응. 동그란 거.)

107072 #1 아, 응 똥글락헌 거 보시로나 뭐로 술잔으로나 터근에.(아, 응 동그란 거 보시기로나 뭐로 술잔으로나 떠서.)

107072 @ 예.(예.)

107072 #1 요즘은 기계로 나오난 똑똑 트주마는.(요즘은 기계로 나오니까 똑똑 뜨지만.)

107072 @ 으.(으.)

107072 #1 그걸로 영 텅 똥글락헌 거 아니. 게민 그것도 이 손봉오지[463]만 부쪄근

에 영 허영 꼭꼭 벨을 접는 거라.(그걸로 이렇게 떠서 동그란 거 아니. 그러면 그것도 이 '손봉오리'만 붙여서 이렇게 해서 꼭꼭 별을 집는 거야.)

107072 @ 예.(예.)

107072 #1 똥글락허게.(동그랗게.)

107072 @ 응.(응.)

107072 #1 경 헤근에 접아근에 벨 모양으로 헤영 벨떡[464]허주.(그렇게 해서 집어서 별 모양으로 해서 '벨떡'하지.)

107073 @ 건 벨떡이고. 그것 말고 웨 동글랑헌 저 솔벤 말고.(건 '벨떡'이고. 그것 말고 왜 동그란 저 솔편 말고.)

107073 #1 아, 그거.(아, 그거.)

107073 @ 절벤? 으.(절편? 으.)

107073 #1 동글락헌 절벤. 그거 대나무 헤근에.(동그란 절편. 그거 대나무 해서.)

107073 @ 예.(예.)

107073 #1 동글락허게 만들안.(동그랗게 만들어서.)

107073 @ 으.(으.)

107073 #1 솔벤본[465]은 만들기가 좋주게.('솔벤본'은 만들기가 좋지.)

107073 @ 예.(예.)

107073 #1 기자 영 쏠롬허게 영 오그라지기만 허믄 뒈는 거고. 저거는 똥글랑헌 거라 부난에이.(그저 이렇게 기름하게 이렇게 오그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저거는 동그란 거여 버리니까.)

107073 @ 솔벤본은 이렇게 생긴 거라예.('솔벤본'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107073 #1 어.(어.)

107073 @ 절벤본은 어떵 셍견?('절벤본'은 어떻게 생겼어요?)

107073 #1 똥글락헌 거주게. 똥글랑헌 거난 그 옛날에는 대나무로 만들앙.(동그란 거지. 동그란 거니까 그 옛날에는 대나무로 만들어서.)

107073 @ 예.(예.)

107073 #1 대나무로 영 똥글랑허게 만들앙.(대나무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107073 @ 응.(응.)

107073 #1 경 헤근에게 그거.(그렇게 해서 그거.)

107073 @ 이제 이제 그치룩 헤 갖고예, 이제 뭰 거고. 그다음 그 절벤은 낭 대나무로 만든 거?(이제 이제 그처럼 해 갖고요, 이제 된 거고. 그다음 그 절편은 나무 대나무로 만든 거?)

107073 #1 대나무로.(대나무로.)

---

463) '손봉오지'는 떡 따위에 손으로 봉오리처럼 만든 것을 의미한다.

464) 쌀가루나 찹쌀가루로 별 모양으로 둥그렇게 만든 떡이다. 쌀가루로 만들 때는 쪄서 만들고, 찹쌀가루로 만들 때는 지져서 만든다. 별 모양이어서 '벨떡'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름에 지져서 '지름떡'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465) '솔벤본'은 '솔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떡살이다. 알루미늄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만든다.

107073 @ 이렇게 십자로? 이 말 골아**.(이렇게 십자로? 이 말 골아**.)

107073 #1 그거. 그거 뽄으로 막 이뻐.(그거. 그거 본으로 아주 이뻐.)

107073 @ 이런 식으로 영 헹 뽄 헹 영 눌르는 거 아니?(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본 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

107073 #1 으으.(으으.)

107073 @ 건 멧 개로 헹 부치는 거? 똥글랑헌 거 두 개로 부쳥 허는 거 아니우꽈?(건 몇 개로 해서 붙이는 거? 동그란 거 두 개로 붙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107073 #1 두 개로 두 개로. 영 보병은에 두 개. 두 개 허는 집이 잇곡 또 ᄒᆞ쏠 좀 못 사는 집의는 또 ᄒᆞ쏠 두껍게 헹 하나로, 하나로 멩글고.(두 개로 두 개로. 이렇게 비벼서 두 개. 두 개 하는 집이 있고 또 조금 좀 못 사는 집에는 또 조금 두껍게 해서 하나로, 하나로 만들고.)

107073 @ 아, 하나로 허는 데도 잇어마씨?(아, 하나로 하는 데도 있어요?)

107073 #1 음.(음.)

107073 @ 아, 어딘 간 보난 두 개로 허는 거예.(아, 어딘 가서 보니까 두 개로 하는 거요.)

107073 #1 두 개 헤사주.(두 개 해야지.)

107073 @1 건 떼영 안 먹는덴.(건 떼서 안 먹는다고.)

107073 #1 그거로 먹어사.(그거로 먹어야.)

107073 @ 예, 그 떼영 먹으민 무슨 뭐 곧는 말 이십디다.(예, 그 떼서 먹으면 무슨 뭐 말하는 말 있습디다.)

107073 #1 떼영 먹는 것이 아니고 건 기자 먹는 거.(떼서 먹는 것이 아니고 건 그저 먹는 거.)

107073 @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헹 건 절벤본?(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건 '절벤본'?)

107073 #1 응. 영 영 만들앙 막 좋아낫주.(응.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좋았었지.)

107074 @1 고와예. 딱 찍으면 모냥 저기를 잇고. 그 다음에 솔벤, 솔벤은?(곱지요. 딱 찍으면 모양 저기를 있고. 그 다음에 솔편, 솔편은?)

107074 #1 솔벤 저거 아니?(솔편 저거 아니?)

107074 @ 예, 이거로 헤 갖고.(예, 이거로 해 갖고.)

107074 #1 그거도 그치룩 손잡이영 잘 기려신게게.(그거도 그처럼 손잡이랑 잘 그렸는데.)

107074 @ 예.(예.)

107074 #1 게민 손잡이로 잡고 요짝은 요영 잡앙은에 영 허영 뜨민 딱딱 그차지주.(그러면 손잡이로 잡고 요쪽은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뜨면 딱딱 끊어지지.)

107074 @ 양쪽으로 이렇게.(양쪽으로 이렇게.)

107074 #1 영 허민 영 영 허민 딱딱 끊어졍 나오주게.(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딱 끊어져서 나오지.)

107074 @ 딱딱 뜨는 거? 게민 절벤 솔벤은 물에 솖앗수가 아니면은 익여 놩은에 모냥 만들엇수가?(딱딱 뜨는 거? 그러면 절편 솔편은 물에 삶았습니까 아니면 익혀 놔서 모양 만들었습니까?)

107074 #1 아니. 저 절벤 솔벤은 엿날엔 아주 엿날에는 솔입.(아니. 저 절편 솔편은 옛날엔 아주 옛날에는 솔잎.)

107074 @ 예.(예.)

107074 #1 솔입 빠다근엥에 그거 데우쳐뒁 징징이 놓멍 쪗주.(솔잎 뽑아다가 그거 데쳐두고 층층이 놓으면서 쪘지.)

107074 @ 음.(음.)

107074 #1 거 징징이 놓멍 쪙 허민 솔 냄새 나곡 그렇게 맛이 좋아낫주게.(거 층층이 놓으면서 쪄서 하면 솔 냄새 나고 그렇게 맛이 좋았었지.)

107074 @ 예, 예, 예.(예, 예, 예.)

107074 #1 우리 게난 엿날에 경 헤나난에 한국부인훼로 저 요리 시합 나간에 다 떡으로 그날은 헷어.(우리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한국부인회로 저 요리 시합 나가서 다 떡으로 그날은 했어.)

107074 @ 음.(음.)

107074 #1 경 허난 우린 솔입 혜영 간 헨 허난 대상 받아낫주.(그렇게 하니까 우린 솔잎 해서 가서 해서 하니까 대상 받았었지.)

107074 @ 음.(음.)

107074 #1 게난 우리 떡만 다 먹어 비연에 그디 막 어디 도에서여 높은 사름덜 온 사름덜 우리 것만 다 먹어 비연. 솔 내음새 막 좋아근에. 경 헤사 솔 그뭇도 영영 나곡.(그러니까 우리 떡만 다 먹어 버려서 거기 막 어디 도에서랑 높은 사람들 온 사람들 우리 것만 다 먹어 버렸어. 솔 내 아주 좋아서. 그렇게 해야 솔 금도 이렇게 이렇게 나고.)

107074 @ 나고. 떡에.(나고. 떡에.)

107074 #1 솔입 영 꼴안에.(솔잎 이렇게 깔아서.)

107074 @ 아, 칭칭이 놩은에 이제 솖은 게 아니라 여기는 쪄예?(아, 층층이 놔서 이제 삶은 게 아니라 여기는 찐다고요?)

107074 #1 예, 쪄낫수다. 솖앙 안 헤, 솖앙 안 헤.(예, 쪘었습니다. 삶아서 안 해, 삶아서 안 해.)

107074 @ 게영 쪙은에 내면 다 기름도 불르지 아녑니까?(그래서 쪄서 꺼내면 다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까?)

107074 #1 으, 기름만 불르주게.(으, 기름만 바르지.)

107074 @ 춤지름예?(참기름요?)

107074 #1 기름 불르멍 기자 촉촉 놔근에 상당히 맛싯고.(기름 바르면서 그저 촉촉 놔서 상당히 맛있고.)

107075 @ 그다음에 아까 이제 웃지시렌 헤 갖고.(그다음에 아까 이제 웃기떡이라고 해 갖고.)

107075 #1 음.(음.)

107075 @ 벨떡은 주로 뭘로 멘들아마씨?('벨떡'은 주로 무엇으로 만들어요?)

107075 #1 거 다 기자 그 쏠로 헙니다.(거 다 그저 그 쌀로 합니다.)

107075 @ 아아, 흰. 그냥.(아아, 흰. 그냥.)

107075 #1 흰쏠로.(흰쌀로.)

107075 @ 요즘은 찹쌀로 허지 아녑니까? 지름떡?(요즘은 찹쌀로 하지 않습니까? 기름떡?)

107075 #1 아, 지름떡 요샌 찹쌀이라도 게난 찹쌀도 흰 거난게 흰쏠로.(아, 기름떡 요샌 찹쌀이어도 그러니까 찹쌀도 흰 거니까 흰쌀로.)

107075 @ 옛날에는 그냥 다 그 산듸쏠로.(옛날에는 그냥 다 그 밭벼쌀로.)

107075 #1 멥쌀로.(멥쌀로.)

107075 @ 멥쌀로예?(멥쌀로요?)

107075 #1 찹쏠이고 뭐여 엇이난.(찹쌀이고 뭐다 없으니까.)

107075 @ 무사 그건 웃지시렌 허는 거라마씨?(왜 그건 웃기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107075 #1 젤 우에 올라가는 거 아니?(젤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

107075 @ 아아, 열굿떡에 우지시.(아아, '열굿떡'에 웃기떡.)

107075 #1 으, 열굿떡[466].(으, '열굿떡'.)

107075 @ 열굿은 뭐우꽈?('열굿'은 뭡니까?)

107075 #1 떡이 열 가지라도.(떡이 열 가지여도.)

107075 @ 으.(으.)

107075 #1 우지시가 잇어야 뒌다 이 말이주게.(웃기떡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107075 @ 음.(음.)

107075 #1 열굿떡에 우지시.('열굿떡'에 웃기떡.)

107075 @ 게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안테 아이고, 그 사름 끗마무리를 못헷다 허면은 열굿떡에 우지시 이런 말을 허는 거구나?(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 사람 끝마무리를 못했다 하면 '열굿떡'에 웃기떡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107075 #1 으으.(으으.)

107075 @ 으.(으.)

107075 #1 아무것도 엇어도 열굿떡에 우지시를 헤사 뒌다.(아무것도 없어도 '열굿떡'에 웃기떡을 해야 된다.)

107075 @ 으, 열굿떡에 우지시는 헤야 뒌다. 마무리를 잘 헤라, 이렇게.(으, '열굿떡'에 웃기떡은 해야 된다. 마무리를 잘 해라, 이렇게.)

107075 #1 제사에도 꼭 헤사.(제사에도 꼭 해야.)

---

466) '열굿떡'은 열 가지의 떡을 가리키는 말이다.

107076 @ 예. 그리고 이거는 영장이나 식게 때 허는 떡 아니우꽈예? 근데 여기는 옛날에 당에덜 하영 뎅겻잖아예?(예. 그리고 이거는 영장이나 제사 때 하는 떡 아닙니까요? 근데 여기는 옛날에 당에들 많이 다녔잖아요?)

107076 #1 당에?(당에?)

107076 @ 으, 본향당에?(으, 본향당에?)

107076 #1 아, 으, 으, 으.(아, 으, 으, 으.)

107077 @ 그때도 떡 허영 가지 아녀마씨?(그때도 떡 해서 가지 않아요?)

107077 #1 본향당엔양.(본향당엔요.)

107077 @ 예.(예.)

107077 #1 저 칠월 칠성에 허곡예.(저 칠월 칠석에 하고요.)

107077 @ 예.(예.)

107077 #1 시월에.(시월에.)

107077 @ 으.(으.)

107077 #1 시월이 상돌이주.(시월이 상달이지.)

107077 @ 으.(으.)

107077 #1 게난 시월은 뒈민 곡석 산듸고 뭐고 다 헤들일 때 아니우꽈?(그러니까 시월은 되면 곡식 밭벼고 뭐고 다 해들일 때 아닙니까?)

107077 @ 예.(예.)

107077 #1 경 허난 곡석 영 헨 헤들엿수다 헤근에 초상 나시 떡 헤영 가는 거.(그렇게 하니까 곡식 이렇게 해서 해들였습니다 해서 조상 몫 떡 해서 가는 거.)

107077 @ 으.(으.)

107077 #1 돌레떡.(도래떡.)

107077 @ 돌레떡. 그때는 돌레는 뭘로 멘들아?(도래떡. 그때는 도래는 무엇으로 만들어?)

107077 #1 그, 그 곡석 헌 걸로 쌀로.(그, 그 곡식 한 걸로 쌀로.)

107077 @ 으음.(으음.)

107077 #1 산듸.(밭벼.)

107077 @ 산듸로. 여기는 모멀덜을 하영 안 가니까 ᄆᆞ멀돌레는 안 허는구나?(밭벼로. 여기는 메밀들을 많이 안 가니까 메밀도래는 안 하는구나?)

107077 #1 모멀돌레는양 그것도 집안으로 가근에 안 허는 집안은 안 허는 거. 모멀돌레. 이 문전 대접허는 것도 깨끗허게 맑은 떡으로 헤영 허주, ᄆᆞ멀은 검지 아녀우과? 떡 허민 검기 때문에 안 허여.(메밀도래는요 그것도 집안으로 가서 안 하는 집안은 안 하는 거. 메밀도래. 이 문전 대접하는 것도 깨끗하게 맑은 떡으로 해서 하지, 메밀은 검지 않습니까? 떡 하면 검기 때문에 안 해.)

107077 @ 아, 문전상 허거나 이럴 때도.(아, 문전상 하거나 이럴 때도.)

107077 #1 흰 걸로 허주.(흰 걸로 하지.)

107077 @ 흰 걸로만.(흰 걸로만.)

107077 #1 흰 걸로 허주.(흰 걸로 하지.)

107077 @ 정말 엇인 사름덜은 홀 수 엇이 허주마는.(정말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하지만.)

107077 #1 예.(예.)

107077 @1 으음. 게문 그 굿헐 때. 삼춘 여기 굿도 헷덴 헷잖아? 굿헐 때도 굿떡들도 뜨나지 안합니까? 돌레떡 말고도 올리는 거?(으음. 그러면 그 굿할 때. 삼촌 여기 굿도 했다고 했잖아? 굿할 때도 '굿떡'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도래떡 말고도 올리는 거?)

107077 #1 올리는 거 시리, 사발시리[467]도 잇고.(올리는 거 시루, '사발시루떡도 있고.)

107077 @ 어, 사발시리도 잇고.(어, '사발시루떡'도 있고.)

107077 #1 사발시린 사발에 놩 뽄 허여근에 사발에 준준헌 사발에 놩 치는 거. 그거 잇곡게. 돌, 친떡.('사발시루떡'은 사발에 놔서 본 해서 사발에 자잘한 사발에 놔서 찌는 거. 그거 있고. 돌, 시루떡.)

107077 @ 예.(예.)

107077 #1 관뒈로 하나짜리 벡시리로.(관되로 하나짜리 백시루떡으로.)

107077 @ 벡시리로?(백시루떡으로?)

107077 #1 으, 그건 영 놀리는 거 이 대신[468] 허민.(으, 그건 이렇게 놀리는 거 이 '대신' 하면.)

107077 @ 예, 예. 그 시리는 무신 시리렌 헙니까?(예, 예. 그 시루는 무슨 시루라고 합니까?)

107077 #1 대신왕[469]에 시리.('대신왕'에 시루.)

107077 @ 으.(으.)

107077 #1 그거 대신왕에 치는 떡시리엔 기자 경 곧주.(그거 '대신왕'에 찌는 떡시루라고 그저 그렇게 말하지.)

107077 @ 게영 영 무껑 막 놀리는 거예?(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막 놀리는 거요?)

107077 #1 놀리는 거.(놀리는 거.)

107077 @ 뭐 나까시리 이런 말은 안 헙니까?(뭐 '나까시리' 이런 말은 안 합니까?)

107077 #1 아, 그것이 나까시리[470]주. 그것이.(아, 그것이 '나까시리'지. 그것이.)

107077 @ 으, 건데 요즘은 헷지만 옛날 삼춘네는 나까시리렌 말은 안 썻지예?(으, 그런데 요즘은 했지만 옛날 삼촌네는 '나까시리'라는 말은 안 썼지요?)

107077 #1 무사 나까시리엔 어른덜은 골앗주.(왜 '나까시리'라고 어른들은 말했지.)

107077 @ 아아, 곧긴 헷수가?(아아, 말하긴 했습니까?)

107077 #1 나가 튿내지 못헨 그거주.(내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거지.)

107077 @ 나까시리 허고. 거는 벡시리로 하나로. 그런 거 말고 쪼꼬만허게.('나까시

467) '사발시리'는 사발에 쌀가루를 넣어서 시루에서 쪄낸 떡이다.
468) '대신'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하는 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왕'의 다른 말이다.
469) '대신왕'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하는 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달리 '대신', '시왕'이라고도 한다.
470) '나까시리'는 굿의 '나까시리놀림' 재차에서 높이 던져 올리며 놀리는 시루떡을 말한다.

리’ 하고. 거는 백시루로 하나로. 그런 거 말고 조그맣게.)

107077 #1 쪼꼬만허게 사발시리로 헌 거.(조그마하게 ‘사발시루’로 한 거.)

107077 @ 으.(으.)

107077 #1 큰상 놔근에 이거 상에 다 올립니다. 게난 그거는 초상들 나시 저 올리는 뜻이주.(큰상 놔서 이거 상에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상들 몫 저 올리는 뜻이지.)

107077 @ 아아, 사발시리는?(아아, ‘사발시루’는?)

107077 #1 사발시리. 으, 경 허영 올립니다.(‘사발시루’. 으,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107077 @ 그다음에 준준허게 영 동글랑허게 멘드는 떡들은 엇어마씨?(그다음에 자잘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떡들은 없어요?)

107077 #1 저 무신거넨 허민. 그것ᄀᆞ라 아이고, 확 곧젠 허난 잊어 볏저. 동글랑허게 멘드는 게 아니고.(저 무엇이라고 하면. 그것보고 아이고, 확 말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렸다. 동그랗게 만드는 게 아니고.)

107077 @ 예.(예.)

107077 #1 돌레떡 말고.(도래떡 말고.)

107077 @ 예.(예.)

107077 #1 돌레떡 말고 ᄌᆞ메떡[471].(도래떡 말고 ‘ᄌᆞ메떡’.)

107077 @ ᄌᆞ메떡.(‘ᄌᆞ메떡’.)

107077 #1 음, ᄌᆞ메떡.(음, ‘ᄌᆞ메떡’.)

107077 @ ᄌᆞ메떡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건? 이것도 굿떡?(‘ᄌᆞ메떡’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건? 이것도 ‘굿떡’?)

107077 #1 굿떡. 굿헐 때 ᄌᆞ메떡 쓰주. 딴 땐 안 쓰주게.(‘굿떡’. 굿할 때 ‘ᄌᆞ메떡’ 쓰지. 다른 땐 안 쓰지.)

107077 @ 아, 게민 ᄌᆞ메떡은 어떤 모양이우꽈?(아, 그러면 ‘ᄌᆞ메떡’은 어떤 모양입니까?)

107077 #1 모양이 저 무시거냐. 만두식 닮으뒈.(모양이 저 무엇이냐. 만두식 닮되.)

107077 @ 예.(예.)

107077 #1 준준허게 딱 만두ᄀᆞ치록은 아녀도 그거 닮게시리 헤근엥에 준준허게 만든 거.(자잘하게 딱 만두처럼 않아도 그거 닮게끔 해서 자잘하게 만든 거.)

107077 @ 아, 손으로 ᄍᆞ메ᄍᆞ메[472] ‘ᄌᆞ메떡’ 꼭꼭 잡앙예?(아, 손으로 ‘ᄍᆞ메ᄍᆞ메’ ‘ᄌᆞ메떡’ 꼭꼭 집어서요?)

107077 #1 으, ᄌᆞ메떡.(으, ‘ᄌᆞ메떡’.)

107077 @ 게영 ᄌᆞ메떡 허면 그 속에도 뭐 놔?(그래서 ‘ᄌᆞ메떡’ 하면 그 속에도 뭐 놔?)

107077 #1 그 굿헐 때?(그 굿할 때?)

---

471) ‘ᄌᆞ메떡’은 굿떡의 한 종류다. 손으로 꼭꼭 집어서 만들어서 붙은 이름 같다.

472) ‘쪼메쪼메’는 반죽을 한 손에 잡아서 잼잼하고 놀리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107077 @ 예.(예.)

107077 #1 안 놓주.(안 놓지.)

107077 @ 아니, 하얀 걸로 이렇게 헤서. 으으, 즈메떡 하고. 그것 말고 엿 묻히는 떡도 잇지 아녀우꽈?(아니, 하얀 걸로 이렇게 해서. 으으, '즈메떡' 하고. 그것 말고 엿 묻히는 떡도 있지 않습니까?)

107077 #1 떡에다가 엿을 묻힌다.(떡에다가 엿을 묻힌다.)

107077 @ 으, 뭐 연주청에 오물떡, 뭐 이런 말은 안 들어봔?(으, 뭐 '연주청에 오물떡', 뭐 이런 말은 안 들어봤어?)

107077 #1 아니.(아니.)

107077 @ 아니? 여기는 즈메떡?(아니? 여기는 '즈메떡'?)

107077 #1 그게 '즈메떡'.(그게 '즈메떡'.)

107077 @ 그러면 상에 올리는 게.(그러면 상에 올리는 게.)

107077 #1 으. 시리떡.(으. 시루떡.)

107077 @ 시리떡 올리고 그 큰 거예. 그다음에?(시루떡 올리고 그 큰 거요. 그다음에?)

107077 #1 즈메떡허곡 돌레떡허곡.('즈메떡'하고 도래떡하고.)

107077 @ 돌레떡도 허고. 돌레떡도 허고. 사발시리 올리고.(도래떡도 하고. 도래떡도 하고. '사발시루' 올리고.)

107077 #1 사발시리 올리고.('사발시루' 올리고.)

107077 @ 즈메떡을 하는 거고. 그다음. 아, 당에 갈 때 그 돌레떡은 멧 개 정도 가져가마씨?('즈메떡'을 하는 거고. 그다음. 아, 당에 갈 때 그 도래떡은 몇 개 정도 가져가요?)

107077 #1 멧 개가 아니주. 혼 뒈치 헤근엥에 기냥 다 가졍 가주.(몇 개가 아니지. 한 되어치 해서 그냥 다 가져서 가지.)

107077 @ 아. 혼 뒈치 헤 갖고 그냥 가져가는 거.(아. 한 되어치 해 갖고 그냥 가져가는 거.)

107077 #1 으.(으.)

107077 @ 아, 게민 보통 당에 갈 때 혼 뒈치 헙니까?(아, 그러면 보통 당에 갈 때 한 되어치 합니까?)

107077 #1 혼 뒈치 헤영 가주.(한 되어치 해서 가지.)

107077 @ 당에 갈 때는 다 돌레만 허고 시리는 안 헹 가는 거예?(당에 갈 때는 다 도래만 하고 시루는 안 해서 가는 거요?)

107077 #1 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니.)

107077 @ 그냥 무조건.(그냥 무조건.)

107077 #1 돌레떡.(도래떡.)

107078 @ 돌레떡 헤 갖고 이제 가고. 이런 거 말고 예전에는 웨 먹을 거 엇이난 큰 일 때 하영씩 헹 막 이웃집에도 나눠주고 헷지 아녀우과? 떡들 헹은에.(도래떡 해 갖고

이제 가고. 이런 거 말고 예전에는 왜 먹을 거 없으니까 큰일 때 많이씩 해서 막 이웃집에도 나눠주고 했지 않습니까? 떡들 해서.)

107078 #1 아이그, 옛날에 무신 떡 헤근에 경 나놔 주곡.(아이고, 옛날에 무슨 떡 해서 그렇게 나눠 주고.)

107078 @ 경 안 헤낫수가?(그렇게 안 했었습니까?)

107078 #1 이딘 그런 거 엇엇수다.(여긴 그런 거 없었습니다.)

107078 @ 아아, 우리 저쪽에는 허민 막 조침떡도 헹은에 가져가곡.(아아, 우리 저쪽에는 하면 아주 좁쌀시루떡도 해서 가져가고.)

107078 #1 잘사난 거주.(잘사니까 거지.)

107078 @ 여기.(여기.)

107078 #1 이딘 완전.(여긴 완전.)

107078 @ 그 막예, 열 말씩 떡을 헷덴 헤? 그 영장헐 때.(그 아주요, 열 말씩 떡을 했다고 해? 그 영장할 때.)

107078 #1 영장헐 때 그건 뭐 피력[473]이나 뭐헐 때주, 뭐 헌 떡이주.(영장할 때 그건 뭐 '피력'이나 뭐할 때지, 뭐 한 떡이지.)

107078 @ 으, 피력떡?(으, '피력떡'?)

107078 #1 피력떡[474].('피력떡'.)

107078 @ 여기도 피력떡 헤? 헤?(여기도 '피력떡' 해? 해?)

107078 #1 어.(어.)

107078 @ 여기 피력떡은 게믄 뭘로 헤?(여기 '피력떡'은 그러면 무엇으로 해?)

107078 #1 피력떡 허고 비역부찜[475] 허고.('피력떡' 하고 '비역부찜' 하고.)

107078 @ 으. 그거는 영장떡.(으. 그거는 '영장떡'.)

107078 #1 으, 그거는 영장에, 영장에.(으, 그거는 영장에, 영장에.)

107078 @ 아, 영장에.(아, 영장에.)

107078 #1 으.(으.)

107078 @ 게민 영장에 허민.(그러면 영장에 하면.)

107078 #1 나도 우리 씨아버지 돌아가난에 족은아덜이라 부난.(나도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니까 작은아들이어 버리니까.)

107078 @ 으.(으.)

107078 #1 큰아덜 저 떨어뒁 큰아덜허곡 셋아덜 조반 출리곡, 아, 뚤덜.(큰아들 저 떨어두고 큰아들하고 둘째아들 조반 차리고, 아, 딸들.)

107078 @ 예.(예.)

107078 #1 뚤덜 조반 정심 헤 불민.(딸들 조반 점심 해 버리면.)

---

473) '피력'은 장례 때 장지에 가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답례로 주는 떡이나 물품 따위를 말한다.

474) '피력떡'은 장지에 가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답례로 주는 떡을 말한다.

475) '비역부찜'은 장지에서 중간에 수고한 사람들에게 답례의 마음으로 주는 떡이나 물품 따위를 말한다. 제보자는 '피력'은 장지에서 장례가 다 끝난 후에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는 떡이나 물품을 말하고, '비역부찜'은 장사를 지내는 중간에 장지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떡이나 물품이라고 말했다.

107078 @ 예.(예.)

107078 #1 경 허난 아들은 족은아덜이나 비역이 젤 큰 거주.(그렇게 하니까 아들은 작은아들이나 '비역'이 젤 큰 거지.)

107078 @ 으.(으.)

107078 #1 게난 비역부찜허난에게 우리 그때 쏠 스무 말 둥간 헤신디.(그러니까 '비역부찜'하니까 우리 그때 쌀 스무 말 담가서 했는데.)

107078 @ 아, 그때 게민 무신 떡을 헌 거?(아, 그때 그러면 무슨 떡을 한 거?)

107078 #1 친떡.(시루떡.)

107078 @ 친떡으로.(시루떡으로.)

107078 #1 으.(으.)

107078 @1 으음. 경 헤근에 이제 친떡으로 헤영은에 비역부찜 하는 거고?(으음. 그렇게 해서 이제 시루떡으로 해서 '비역부찜' 하는 거고?)

107078 #1 피력, 피력.('피력', '피력'.)

107078 @ 피력.('피력'.)

107078 #1 피력허곡, 비역, 비역부찜은 또 딴 사름이 허고.('피력'하고, '비역', '비역부찜'은 또 딴 사람이 하고.)

107078 @ 비역부찜은 뭐우과?('비역부찜'은 뭡니까?)

107078 #1 피역부찜은 그 피력은 다 끗나근엥에 헤어질 때 안네는 거고. 비역부찜은 중간에.('피역부찜'은 그 '피력'은 다 끝나서 헤어질 때 드리는 거고. '비역부찜'은 중간에.)

107078 @ 중간에?(중간에?)

107078 #1 으, 진투도 허곡.(으, 진토도 하고.)

107078 @ 진투도 허곡. 게믄 진투헐 때도 멕이고.(진토도 하고. 그러면 진토할 때도 먹이고.)

107078 #1 진투헐 때도 멕이고.(진토할 때도 먹이고.)

107078 @ 피력헐 때도 멕이고.('피력'할 때도 먹이고.)

107078 #1 비역부찜도 멕이고.('비역부찜'도 먹이고.)

107078 @ 게문 비역부찜헐 때는 뭘로 멕이는 거?(그러면 '비역부찜'할 때는 무엇으로 먹이는 거?)

107078 #1 그때 당시엔 다 떡 종류고예?(그때 당시엔 다 떡 종류고요?)

107078 @ 예.(예.)

107078 #1 저 그루후제 그루후제사 아이고 잘 살 때사 비역부찜은 둑이여 뭐여 요샌 막 빵이여 뭐 헤당 멕이주마는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엇인 때난에 떡으로 헤근엥에게.(저 그 이후에야 그 이후에야 아이고 잘 살 때야 '비역부찜'은 닭이다 뭐다 요샌 막 빵이다 뭐 해다가 먹이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는 때니까 떡으로 해서.)

107078 @ 으음.(으음.)

107078 #1 그때 무신 빵이 잇이꽈? 뭐가 잇수가게? 경 헐 때난 떡으로 헤근에.(그때

무슨 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니까 떡으로 해서.)

107078 @ 친떡 허기도 허고 돌레떡 허기도 허고 헹은에.(시루떡 하기도 하고 도래떡 하기도 하고 해서.)

107078 #1 으.(으.)

107078 @ 게난 옛날은 영장밧듸 가면 떡을.(그러니까 옛날은 장지에 가면 떡을.)

107078 #1 막 받앙 오고.(막 받아서 오고.)

107078 @ 예, 구덕으로 하나씩 받앙 왓어예?(예, 바구니로 하나씩 받아서 왔지요?)

107078 #1 예, 막 받왕 와낫주.(예, 막 받아서 왔었지.)

107078 @ 아, 그러면 영장헐 때는 피력이 뜻난 거고.(아, 그러면 영장할 때는 '피력'이 다른 거고.)

107078 #1 으.(으.)

107078 @ 비역부찜도 뜻나고.('비역부찜'도 다르고.)

107078 #1 으.(으.)

107078 @ 진투?('진투'?)

107078 #1 진투굿[476].('진투굿'.)

107078 @ 진투굿 헐 때도 그다음 또 떡 멕이고?('진투굿' 할 때도 그다음 또 떡 먹이고?)

107078 #1 진투[477] 허는 거는 그 사름덜 강 막 힘들게 땅 파곡 요샌 기계로 파난 허주마는 삽으로만 다 허지 안허우과?('진투' 하는 거는 그 사람들 가서 막 힘들게 땅 파고 요샌 기계로 파니까 하지만 삽으로만 다 하지 않습니까?)

107078 @ 그 상뒤들예?(그 상두들요?)

107078 #1 으, 그 경 허민 떡도 허고 술안주허고 술이영 그 사름덜 또 그거 멕여사 술 힘으로 그 일을 헐 거난에.(으, 그 그렇게 하면 떡도 하고 술안주하고 술이랑 그 사람들 또 그거 먹여야 술 힘으로 그 일을 할 거니까.)

107078 @ 으으.(으으.)

107078 #1 경 허영 진투굿을.(그렇게 해서 '진투굿'을.)

107078 @ 피력 헌 거는 다 모든 사름안티 다 나놔주는 거 아니예?('피력' 한 거는 다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거 아닌가요?)

107078 #1 피력은 다 주고.('피력'은 다 주고.)

107078 @ 으, 애기도. 저도 강 영장밧듸 가난 주더라고예?(으, 아기도. 저도 가서 장지에 가니까 주더라고요?)

107078 #1 으. 몬딱, 몬딱.(으. 몽땅, 몽땅.)

107078 @ 비역부찜도 몬딱?('비역부찜'도 몽땅?)

107078 #1 몬딱.(몽땅.)

107078 @ 거난 진투만 그?(그러니까 '진투'만 그?)

---

476) '진투굿'은 장사를 치르는 날 봉분을 등그스름하게 만드는 데 쓰일 흙을 파내는 구덩이를 말한다. 달리 '진토굿'이라고 한다.

477) '진투'는 장사를 치르는 날 봉분을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데 쓰일 흙을 말한다. 달리 '진토'라고 한다.

107078 #1 진투만 남자덜만 먹주. 그 일허는 사름덜 허곡 남저 상뒤덜만.(‘진투’만 남자들만 먹지. 그 일하는 사람들 하고 남자 상두들만.)

107078 @ 아, 남자 상뒤들만 이렇게 헤서 멕이고예. 게민 보통 보면은 그런 비역부찜이나 피력이나 진투는 누게가 멕이는 거마씨? 상제들?(아, 남자 상두들만 이렇게 해서 먹이고요. 그러면 보통 보면 그런 ‘비역부찜’이나 ‘피력’이나 ‘진투’는 누구가 먹이는 거예요? 상제들?)

107078 #1 자식들이?(자식들이?)

107078 @ 다 나놔?(다 나눠?)

107078 #1 으, 다 나놩. 식구가 막 하민 둘이썩[둘리썩] 어울엉도 허는디.(으, 다 나눠서. 식구가 아주 많으면 둘이씩 어우러져서도 하는데.)

107078 @ 예.(예.)

107078 #1 식구 엇이민 혼 사름이 하나씩.(식구 없으면 한 사람이 하나씩.)

107078 @ 젤 큰 게 뭐우과?(젤 큰 게 뭡니까?)

107078 #1 젤 큰 게 정심이주게. 정심.(젤 큰 게 점심이지. 점심.)

107078 @ 정심?(점심?)

107078 #1 조반 정심.(조반 점심.)

107078 @ 음, 게민 그거는 뭐 큰상제가 허고. 으.(음, 그러면 그거는 뭐 큰상제가 하고. 으.)

107078 #1 뚤덜, 뚤덜.(딸들, 딸들.)

107078 @ 아, 다 뚤이 헙니까?(아, 다 딸이 합니까?)

107078 #1 정심, 조반 정심은 딸덜이 허주.(점심, 조반 점심은 딸들이 하지.)

107078 @ 예.(예.)

107078 #1 대개 딸이 엇이민 하나만 잇엉은 헤도. 우리, 우리 경우에는 서이난에 딸이 서이난에 족은뚤 혼듸 셋뚤에 부쪈에 조반 정심덜. 큰뚤 정심허곡.(대개 딸이 없으면 하나만 있어서는 해도. 우리, 우리 경우에는 셋이니까 딸이 셋이니까 작은딸 함께 둘째 딸에 붙여서 조반 점심들. 큰딸 점심하고.)

107078 @ 음.(음.)

107078 #1 족은뚤 두 번차 뚤허곡 조반허곡. 옛날엔 조반헐 땐 상뒤덜이 막 하난에.(작은딸 두 번째 딸하고 조반하고. 옛날엔 조반할 땐 상두들이 아주 많으니까.)

107078 @ 예.(예.)

107078 #1 옛날은 다 집의서 먹엇수게게.(옛날은 다 집에서 먹었습니다.)

107078 @ 예, 맞아예?(예, 맞아요?)

107078 #1 으, 기자 영장밧듸 갈 사름은 문딱 왕 집의서 먹기 때문에 둘이[둘리] 어울렁은에 조반허고.(으, 그저 장지에 갈 사람은 몽땅 와서 집에서 먹기 때문에 둘이 어우러져서 조반하고.)

107078 @ 그다음에 이것 말앙예, 그 헹 먹어난 떡 일름들. 우리 뭐 식게나 영장에 안 헤 갖고 허는 떡들은 어떤 거 잇어난?(그다음에 이것 말고요, 그 해서 먹었던 떡 이

름들. 우리 뭐 제사나 영장에 안 해 갖고 하는 떡들은 어떤 거 있었어요?)

107078 #1 영장 때 아녀난 떡덜사 요새사 다 영장 때 아녀난 떡들이주.(영장 때 않았던 떡들이야 요새야 다 영장 때 않았던 떡들이지.)

107078 @ 으, 요새 그런 거지예, 예?(으, 요새 그런 거지요, 예?)

107078 #1 요즘 제는 떡은 옛날 아녀난 떡덜.(요즘 제는 떡은 옛날 않았던 떡들.)

107078 @ 게난 일반적으로 뭐?(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107078 #1 문딱 저 기계[478]에 강 맞추와 오는 따문에 무신. 송편덜토 허민 기계로 나온 거 기자 똥글락헌 거만 나오곡.(몽땅 저 기계에 가서 맞춰 오는 때문에 무슨. 송편들도 하면 기계로 나온 거 그저 동그란 거만 나오고.)

107078 @ 예.(예.)

107078 #1 물발콥[479] 그것만 나오고. 또 경 아녀민 어느 집안엔 보민 조 젊은 아이덜이라 놓난 그 무신 생일 떡 허는 거 그런 것도 헤영 색깔 그런 거 헤영 허곡.('물발콥' 그것만 나오고. 또 그렇게 않으면 어느 집안엔 보면 조 젊은 아이들이어 놓으니까 그 무슨 생일 떡 하는 거 그런 것도 해서 색깔 그런 거 해서 하고.)

107078 @ 음.(음.)

107078 #1 아이고, 또 쑥떡헤근에 빠는 거. 절펜 빠근엥에.(아이고, 또 쑥떡해서 뽑는 거. 절편 뽑아서.)

107078 @ 절펜 빵은에 허고.(절편 뽑아서 하고.)

107078 #1 그런 것도 요즘사 거 기자 한걸허게만 허젠 헤 놓난에.(그런 것도 요즘에야 거 그저 한가하게만 하려고 해 놓으니까.)

소와 고물

107079 @ 예, 맞아. 예전엔 집에서 그 상웨떡 치고 허젠 허민 엄청 노력하고예. 다 불 솜으멍. 그다음에 떡 헐 때 쉬는 어떤 것덜 놘마씨?(예, 맞아. 예전엔 집에서 그 상화떡 찌고 하려고 하면 엄청 노력하고요. 다 불 때면서. 그다음에 떡 할 때 소는 어떤 것들 놔요?)

107079 #1 쉬는 여기서 대개 풋 숢앙 허곡 앚인베기콩도 숢앙 허고, 꿰 보까근에 설탕 서꺼근에 꿰도 담곡 기자 그치룩.(소는 여기서 대개 팥 삶아서 하고 강낭콩도 삶아서 하고, 참깨 볶아서 설탕 섞어서 참깨도 담고 그저 그처럼.)

107079 @ 옛날도 그런 식으로?(옛날도 그런 식으로?)

107079 #1 옛날엔 그 어디 꿰영 설탕영 하근엥에 그런 거 담곡 헷수과?(옛날엔 그 어디 참깨랑 설탕이랑 많아서 그런 거 담고 했습니까?)

107079 @ 그냥 보통 풋쉬예?(그냥 보통 팥소요?)

---

478) 여기에서 '기계'는 방앗간의 떡을 만드는 기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떡을 손으로 만들 때와 '기계'를 이용하여 떡을 만드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말이다.

479) '물발콥'은 말발굽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둥근 모양의 송편을 말발굽에 비유하여 한 말이다. 제주에서 송편은 둥근 모양의 것과 조개 모양의 것 두 가지가 있다.

107079 #1 예, 엿날사 어디?(예, 엿날이야 어디?)

107080 @ 으. 그다음에 이거는 안에 담는 거고.(으. 그다음에 이거는 안에 담는 거고.)

107080 #1 으.(으.)

107080 @ 밖에 뿌리는 것들은?(밖에 뿌리는 것들은?)

107080 #1 뿌리는 거 그 저 콩 풋 뻣앙은엥에 막 ᄀᆞ르로 그것도 막 ᄀᆞ르 영 체로 쳐근엥에 줌진 거 영 뿌리주게. 우에. 부뜨지 말렌.(뿌리는 거 그 저 콩 팥 빻아서 막 가루로 그것도 막 가루 이렇게 체로 쳐서 자잘한 거 이렇게 뿌리지. 위에. 붙지 말라고.)

107080 @ 그것도 쉬[480]고.(그것도 '쉬'고.)

107080 #1 예, 것도 쉬고 그것도 쉬고.(예, 것도 '쉬'고 그것도 '쉬'고.)

107080 @ 다 속에 담는 것도 쉬고. (웃음)(다 속에 담는 것도 '쉬'고. (웃음))

107080 #1 게고 만뒤[481], 만뒤 헤근엥에 저 보리만뒤[482] 헹 제물이나 헤 가는 사름은.(그러고 '만뒤', '만뒤' 해서 저 '보리만뒤' 해서 제물이나 해 가는 사람은.)

107080 @ 으.(으.)

107080 #1 감자, 고구마.('감자', 고구마.)

107080 @ 예.(예.)

107080 #1 그거 담은 것이 또 그렇게 맛잇어. 감자 담으난.(그거 담은 것이 또 그렇게 맛있어. 고구마 담으니까.)

107080 @ 으음.(으음.)

107080 #1 그거 감저 담앙. 감저를 쉬로 담아근엥에.(그거 고구마 담아서. 고구마를 소로 담아서.)

107080 @ 으.(으.)

107080 #1 그, 그 떡은 이제도 우리 생각나집네다. 맛잇어.(그, 그 떡은 이제도 우리 생각나집디다. 맛있어.)

107080 @ 아아, 그러면 그 속에는 감자만 담는 거라마씨?(아아, 그러면 그 속에는 고구마만 담는 거예요?)

107080 #1 으, 감자 쪄근에 담앙 그 만뒤 속에.(으, 고구마 쪄서 담아서 그 '만뒤' 속에.)

107080 @ 아. 보릿ᄀᆞ르 헹은에.(아. 보릿가루 해서.)

107080 #1 진짜, 진짜 맛잇어, 거.(진짜, 진짜 맛있어, 거.)

107080 @ 으, 거는 언제 제물헹 가는 거라, 그런 거는?(으, 거는 언제 제물해서 가는 거야, 그런 거는?)

---

480) '쉬'는 떡이나 빵 안에 담는 '소', 시루떡 위에 뿌리는 '고물'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순메'라고도 한다.

481) '만뒤'는 메밀가루나 보릿가루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만들고 안에 팥소 따위를 넣어서 찐 후에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482) '보리만뒤'는 보릿가루를 반죽하여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따위를 넣어서 찐 후에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107080 #1 아니 게난 뚤덜이라도.(아니 그러니까 딸들이라도.)

107080 @ 으.(으.)

107080 #1 부모 제사에 뒈민 씨집간 사름덜.(부모 제사에 되면 시집간 사람들.)

107080 @ 예.(예.)

107080 #1 제사 때에나 무시거 헐 때 그 막 것도 생각헹 오는 거주, 만뒤.(제사 때에나 무엇 할 때 그 막 것도 생각해서 오는 거지, '만뒤'.)

107080 @ 으.(으.)

107080 #1 집의서 만들앙.(집에서 만들어서.)

107080 @ 집의서 만뒤 헤갖고예?(집에서 '만뒤' 해 갖고요?)

107080 #1 만들앙.(만들어서.)

107080 @ 만뒤도 막 크게 헨게예?('만뒤'도 아주 크게 하던데요?)

107080 #1 으게, 홁은 거.(으, 굵은 거.)

107081 @ 홁은 거예? 그다음에 예전에 그 떡에 얽힌 속담허고 금지 사항?(굵은 거요? 그다음에 예전에 그 떡에 얽힌 속담하고 금지 사항?)

107081 #1 금지 사항?(금지 사항?)

107081 @ 예.(예.)

107081 #1 아이고, 떡에 얽힌 속담 금지 사항이 무시거엔 허니?(아이고, 떡에 얽힌 속담 금지 사항이 무엇이라고 하니?)

107081 @ 우리 보통 보면 맨 마지막에 만든 떡은 아이덜 안 먹은덴 이런?(우리 보통 보면 맨 마지막에 만든 떡은 아이들 안 먹는다고 이런?)

107081 #1 아, 막떡[483].(아, '막떡'.)

107081 @ 으.(으.)

107081 #1 막떡, 그것ᄀᆞ라 막떡이엔 허주게.('막떡', 그것보고 '막떡'이라고 하지.)

107081 @ 예.(예.)

107081 #1 막떡은 안 주주게.('막떡'은 안 주지.)

107081 @ 아이덜은예. 그런 것도 잇고.(아이들은요. 그런 것도 있고.)

107081 #1 그런 것도 잇고. 어 막떡 말고는 무신거 잇어게, 금지 사항이게.(그런 것도 있고. 어 '막떡' 말고는 무엇 있어, 금지 사항이.)

107081 @ 침떡 칠 때?(시루떡 찔 때?)

107081 #1 친떡 칠 때게게 부정 타근에 친떡 안 익고.(시루떡 찔 때게 부정 타서 시루떡 안 익고.)

107081 @ 으.(으.)

107081 #1 그 여자덜 몸엣거[484] 온 때 몰랑 들어강 헤도 허곡, 불 솜앙 치는 거난에 짐 시리에 불 저 짐 아니 올른 때에 그 부억으로 확허게 문에 베꼇듸서 안티레 들어와 불민 것도 부정 타근에 경 아니 익어근에 막. 게영 어떤 때 막 저 신착으로 시리 두

483) '막떡'은 마지막에 만든 떡을 말한다.

484) '몸엣거'는 월경으로 나오는 피를 말한다.

드리멍.(그 여자들 '몸엣거' 올 때 몰라서 들어가서 해도 하고, 불 때서 찌는 거니까 김 시루에 불 저 김 아니 오른 때에 그 부엌으로 확하게 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것도 부정 타서 그렇게 아니 익어서 막. 그래서 어떤 때 막 저 신짝으로 시루 두들기면서.)

107081 @ 뭘로마씨?(무엇으로요?)

107081 #1 신착으로 막 시리 막 때려.(신짝으로 막 시루 막 때려.)

107081 @ 아아.(아아.)

107081 #1 숭보지 말렌 막 때리멍도 헤도.(흉보지 말라고 막 때리면서 해도.)

107081 @ 아, 신착으로예? 어떵허면 신착으로 때리는 거라마씨?(아, 신짝으로요? 어떡하면 신짝으로 때리는 거예요?)

107081 #1 그 막 바각바각바각 옆으로 짐 나와 불멍 떡이 부정 타난에 아니 뒈여가난.(그 막 바각바각바각 옆으로 김 나와 버리면서 떡이 부정 타니까 아니 되어가니까.)

107081 @ 예.(예.)

107081 #1 게민 막 신 벗어근에 신착으로 착착 부치멍.(그러면 막 신 벗어서 신짝으로 착착 붙이면서.)

107081 @ 시리레?(시루에?)

107081 #1 으. 영 허민 어떨 거니? 곱게 익어줘사주. 어떵헐 거니? 허멍 막 두드려?(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니? 곱게 익어줘야지. 어떡할 거니? 하면서 막 두들겨?)

107081 @ 아아, (웃음) 삼춘네도 그런 거 이제 봣구나?(아아, (웃음) 삼촌네도 그런 거 이제 봤구나?)

107081 #1 예.(예.)

107081 @ 그다음에 또 잘 막 ᄇᆞ름 헤영 안 허면 그 푸는체도 막 세운덴 허멍예?(그다음에 또 잘 막 바람 해서 안 하면 그 키도 막 세운다고 하면서요?)

107081 #1 아, 푸는체는 안 세와 봣수다.(아, 키는 안 세워 봤습니다.)

107081 @ 아, 그거는 아니고.(아, 그거는 아니고.)

107081 #1 신착으로 두드림만 헷주.(신짝으로 두들기기만 했지.)

107081 @ 신착으로 두드리는 것만 보고예, 예. 이런 식으로 게난 옛날에는 떡을 하나 허더라도 다 정성예?(신짝으로 두들기는 것만 보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떡을 하나 하더라도 다 정성요?)

107081 #1 예, 정성.(예, 정성.)

107081 @ 게민 만약에 식게 출리젠 헤영은에 몸엣거나 와 불면은 식게 못 출릴 거 아니?(그러면 만약에 제사 차리려고 해서 '몸엣거'나 와 버리면 제사 못 차릴 거 아니?)

107081 #1 못사 출려?(못이야 차려?)

107081 @ 어.(어.)

107081 #1 쉬정이 원 엇이민 허주마는 다 동세덜도 잇고 메느리덜도 잇고 허난 못사 출립니까게. 난 무사 저 경 헤시닌 그거 저거 다 뭐허느넨 허민 우리 씨아부지가.(숫자가 전혀 없으면 하지만 다 동서들도 있고 며느리들도 있고 하니까 못이야 차립니까.

난 왜 저 그렇게 했느냐면 그거 저거 다 뭐 하노라고 하면 우리 시아버지가.)

107081 @ 예.(예.)

107081 #1 살아계실 때 보리떡을 헤도 정성 들영 자기 손으로 헤라.(살아계실 때 보리떡을 해도 정성 들여서 자기 손으로 해라.)

107081 @ 음.(음.)

107081 #1 거 기계에 강 뭐 어떤 사름덜사 헌 것산디 뭐 개고기 먹은 사름사 헤신디 물고기 먹은 사름사 떡을 헴신디 그거는 정성이 아니다. 경 허영 골아나 부난양 그걸 꼭 그치룩 허겔 헤지는디.(거 기계에 가서 뭐 어떤 사람들이야 한 것인지 뭐 개고기 먹은 사람이야 했는지 말고기 먹은 사름이야 떡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정성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말해버려 버리니까요 그걸 꼭 그처럼 하겔 해지는데.)

107081 @ 음.(음.)

107081 #1 우리 조카메누리 헤 부난 큰집의.(우리 조카며느리 해 버리니까 큰집에.)

107081 @ 음.(음.)

107081 #1 야, 이거 절대 아니다. 송편이라도이 ᄀᆞ를 흔 뒈만 골아 오라, 우리가 허저. 우리가 허켜 앚앙, 노느니 허켜, 허켜 헤도 안 골앙 그자 그레 헹 메껴병 흔 멧 번 헐 때ᄁᆞ장은 막 시켜도.(야, 이거 절대 아니다. 송편이라도 가루를 한 되만 갈아 와라,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앉아서 노느니 하겠다, 하겠다 해도 안 갈아서 그저 그리로 해서 맡겨 버려서 한 몇 번 할 때까지는 막 시켜도.)

107081 @ 으.(으.)

107081 #1 안 들언. 싹싹 더운디 헤집네껭 허멍 안 들언에 경 헤 부난 기자 내 불언. 야, 하르방 막 톧아진[485] 하르부지여, 이축 헹 안 뒌다. 우린이 아부지 씨아버지 씨어머니 곧는 말을 꼭 그대로 들엉 헤신디.(안 들었어. 싹싹 더운데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안 들어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그저 내 버렸어. 야, 할아버지 아주 까다로운 할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우린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말하는 말을 꼭 그대로 들어서 했는데.)

107081 @ 으.(으.)

107081 #1 이거 요샛 아이덜은 허긴. 요새, 요새 허는 통에 이거 원 뒈지 안헴저마는. 경 허멍 곧당 안 들어 주난 내 비연.(이거 요즘 아이들은 하긴. 요새, 요새 하는 통에 이거 전혀 되지 안하고 있다만. 그렇게 하면서 말하다가 안 들어 주니까 내 버렸어.)

107081 @ 삼춘네 집에서는 안 헤마씨?(삼촌네 집에서는 안 해요?)

107081 #1 우린 족은아덜이라 부난.(우린 작은아들이어 버리니까.)

107081 @ 아, 아무 것도 안 하고 음.(아, 아무 것도 안 하고 음.)

별식

107082 @ 그다음에 이제 별식으로 헤영 옛날에 뭐 수에예?(그다음에 이제 별식으로

485) '톧아진'은 '뜰어진'의 제주어다. 여기서는 '까다로운'의 의미로 쓰였다.

해서 옛날에 뭐 순대요?)

107082 #1 으.(으.)

107082 @ 잔치 때나 이럴 때 수에 담앗지예? 그 수에는 어떤 식으로 담읍니까?(잔치 때나 이럴 때 순대 담았지요? 그 순대는 어떤 식으로 담습니까?)

107082 #1 아이고, 수에. 수에 그거 아이고 요샌 곤 ᄀᆞ르로 헴주마는 옛날엔 그 느젱이 ᄀᆞ르로 헤근에.(아이고, 순대. 순대 그거 아이고 요샌 곤 가루로 하고 있지만 옛날엔 그 나깨 가루로 해서.)

107082 @ 예.(예.)

107082 #1 ᄆᆞᄆᆞᆯ느젱이 강 사다근에 양념 놩 담는디. 잔치허젠 허민 옛날에 도새기 뒈지고기 똑 저 돔박낭 썹만이. 이 부락엔 경 헷수다. 저 똑 돔박낭 썹 이파리만큼 썰어 근에이.(메밀나깨 가서 사다가 양념 놔서 담는데. 잔치하려고 하면 옛날에 돼지 돼지고기 똑 저 동백나무 잎만큼. 이 부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 똑 동백나무 잎 이파리만큼 썰어서.)

107082 @ 예.(예.)

107082 #1 그거 혼 점 놓곡 수에 혼 점 놓곡 저 무신 준베설.(그거 한 점 놓고 순대 한 점 놓고 저 무슨 작은창자.)

107082 @ 으.(으.)

107082 #1 수에 못 담는 베설.(순대 못 담는 창자.)

107082 @ 예.(예.)

107082 #1 그거 썬 거 요만썩 짤른 거 하나 놓곡 헤근에 반 줘낫수게.(웃음)(그거 썬 거 요만큼씩 자른 거 하나 놓고 해서 반기 줬었습니다.(웃음))

107082 @ 게민 뒈지고기도 혼 점만 놔?(그러면 돼지고기도 한 점만 놔?)

107082 #1 으.(으.)

107082 @ 석 점이 아니고?(석 점이 아니고?)

107082 #1 아이, 석 점은 어디, 석 점은 우리 막 커사 석 점이주.(웃음)(아니, 석 점은 어디, 석 점은 우리 아주 커야 석 점이지.(웃음))

107082 @ 아아.(아아.)

107082 #1 그거 놔낫수게. 그거 경 헨. 막 경 허민 얼마나 맛 좋을 것꽈? 그.(그거 놨었습니다. 그거 그렇게 했어.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맛 좋을 것입니까? 그.)

107082 @ 게니까.(그러니까.)

107082 #1 고기.(웃음)(고기.(웃음))

107082 @ 준베설을 반에 논 거라예?(작은창자를 반기에 놓은 거라고요?)

107082 #1 으, 그 수에 못 담는 베설, 준베설이 잇주게, ᄀᆞ는베설.(으, 그 순대 못 담는 창자, 작은창자가 있지, 작은창자.)

107082 @ 예.(예.)

107082 #1 그거 혜영 그거 썰엉 그거 하나 놓곡 그 수에 혼 점 놓곡 고기 혼 점 놓곡.(그거 해서 그거 썰어서 그거 하나 놓고 그 순대 한 점 놓고 고기 한 점 놓고.)

107082 @ 음, 게 반.(음, 게 반기.)

107082 @ 으.(으.)

107082 #1 게난 그게 삼춘 언제까지 그런 반 허엿수가?(그러니까 그게 삼촌 언제까지 그런 반기 했습니까?)

107082 #1 우리도 그거 얻어먹언. 우리, 우리.(우리도 그거 얻어먹었어. 우리, 우리.)

107082 @ 으, 삼춘네도예?(으, 삼촌네도요?)

107082 #1 우리도 그거 먹언.(우리도 그거 먹었어.)

107082 @ 게난 옛날 온평리는 잘도 못살아난 모냥이라예?(그러니까 옛날 온평리는 잘도 못살았던 모양이네요?)

107082 #1 음, 토지가 나빠 놓난.(음, 토지가 나빠 놓으니까.)

107082 @ 게니까 토지가 나쁘니까.(그러니까 토지가 나쁘니까.)

107082 #1 토지가 나쁘니까게 뭐 바당에 것만 울엉[486] 사난에 못 살앗주게.(토지가 나쁘니까 뭐 바다에 것만 의지해서 사니까 못 살았지.)

107083 @ 음. 둠비 지난번에 헷는데 둠비 만드는 거 한 번 더 골아줘 봅서?(음. 두부 지난번에 했는데 두부 만드는 거 한 번 더 말해줘 보십시오?)

107083 #1 두부 만드는 거 이디서는 그 쫀물[487] 바당이 잇이난. 먼 동네도 질어 갑니다게. 쫀물을 통 아정왕. 경 허영 그거 궤면은 저 뭣이거냐 솟듸 놔근에 헐 때 콩ᄀᆞ르ᄀᆞ찌 놩 막 젓어근에 불솜앙 그거 다 익어가민 우깍허게[488] 틉니께게.(두부 만드는 거 여기서는 그 '짠물' 바다가 있으니까. 먼 동네도 길어 갑니다. 바닷물을 통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그거 괴면 저 무엇이냐 솥에 놔서 할 때 콩가루 같이 놔서 막 저어서 불때서 그거 다 익어가면 '우깍'하게 뜹니다.)

107083 @ 예.(예.)

107083 #1 그거 두부가. 그 우깍허게 트면은 그거 게난 두부 먹어도 심심허지 아녀는 거 이쪽에서 헌 거는.(그거 두부가. 그 '우깍하게' 뜨면 그거 그러니까 두부 먹어도 심심하지 않는 거 이쪽에서 한 거는.)

107083 @ 예, 예. 쫀물 허니까예?(예, 예. 바닷물로 하니까요?)

107083 #1 이쪽에서 헌 거는 심심 안 허는 거. 그거 건지멍게 그 떡 건지는 걸로 건지멍 그 영 판 놔근에 그레 험벅 끈 것에 담아놔근에 눌리민 두부 뒈는 거주게.(이쪽에서 한 거는 심심 안 하는 거. 그거 건지면서 그 떡 건지는 걸로 건지면서 그 이렇게 판 놔서 그리로 헝겊 깐 것에 담아놔서 누르면 두부 되는 거지.)

107083 @ 음, 게난 옛날에는 이런 둠비가 잔치 때만 헌 거우과? 아니면 영장 때도 헙니까?(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두부가 잔치 때만 한 겁니까? 아니면 영장 때도 합니까?)

107083 #1 영장 때 안 헤봣수다.(영장 때 안 해봤습니다.)

107083 @ 아, 영장 때는 안 헤보고예? 잔치 때.(아, 영장 때는 안 해보고요? 잔치

486) 여기에서 '울엉'은 '의지해서'의 의미로 쓰였다.
487) '쫀물'은 '짠물'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바닷물의 의미로 쓰였다.
488) '우깍허게'는 위로 끓어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때.)

107083 #1 잔치 때.(잔치 때.)

107083 @ 잔치반은 어떻게 놔?(잔치반기는 어떻게 놔?)

107083 #1 잔치반, (웃음) 잔치반이, (웃음) 에이, 잔치반은양.(잔치반기, (웃음) 잔치반기, (웃음) 에이, 잔치반기는요.)

107083 @ 예.(예.)

107083 #1 두 점 놓곡 궤기.(두 점 놓고 고기.)

107083 @ 아, 궤기 두 점 놓고.(아, 고기 두 점 놓고.)

107083 #1 으, 두 점 놓곡 수에 놓곡 거 두부 혼 모, 혼 점 놓곡.(으, 두 점 놓고 순대 놓고 거 두부 한 모, 한 점 놓고.)

107083 @ 그게 잔치반?(그게 잔치반기?)

107083 #1 으.(으.)

107083 @ 게도 영장 때보다는 궤기를 하나 더 놤구나.(그래도 영장 때보다는 고기를 하나 더 놓고 있구나.)

107083 #1 어, 경 헨 막 헤여 오단에 우리, 우리 결혼헐 때 뒈난에 우리보단 혼 댓 해 앞서부떠는 뒈지 잔치허젠 허민 두 머리 잡앗저 세 머리 잡앗저 허멍덜 헤낫주.(어, 그렇게 해서 막 해 오다가 우리, 우리 결혼할 때 되니까 우리보단 한 댓 해 앞서부터는 돼지 잔치하려고 하면 두 마리 잡았다 세 마리 잡았다 하면서들 했었지.)

107083 @ 예.(예.)

107083 #1 경 헤영 허민 석 점 놘에 줘낫수다. 경 헐 땐. 그때 당시 석 점 놘에 주단에, 우리 결혼헐 때는 다섯, 다섯 머리 잡앗저 누게는 네 머리 잡앗저. 이치룩 허멍 헤근에양.(그렇게 해서 하면 석 점 놔서 줬었습니다. 그렇게 할 땐. 그때 당시 석 점 놔서 주다가, 우리 결혼할 때는 다섯, 다섯 마리 잡았다 누구는 네 마리 잡았다. 이처럼 하면서 해서요.)

107083 @ 으.(으.)

107083 #1 우린 게난 어디 잔치허민 멧 점 놧어라, 뭣헤라 막 곧주.(우린 그러니까 어디 잔치하면 몇 점 놨더라 무엇했더라 막 말하지.)

107083 @ 음.(음.)

107083 #1 게민 난 결혼헐 때 에, 우리 온평리만 열두 사름이난양, 신랑 신부허난양.(그러면 난 결혼할 때 에, 우리 온평리만 열두 사람이니까요, 신랑 신부하니까요.)

107083 @ 예, 예.(예, 예.)

107083 #1 열두 사름이난에 그 중에서 내가 젤 잘허켄 헨 우리 오빠가 단스[489]를 헤주켄 허대.(열두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 내가 젤 잘하겠다고 해서 우리 오빠가 장롱을 해주겠다고 하데.)

107083 @ 음, 음.(음, 음.)

489) '단스(たんす)'는 의복·소도구 등을 정리·보관하는 데에 사용하는 가구의 총칭으로 쓰는 일본어다. 제주에서는 '장롱'을 가리킬 때 많이 쓴다.

107083 #1 단스 헤주켄 허길래 나가 단스 허지 말고예, 도새기 흔 머리 더 잡아줍서.(장롱 해주겠다고 하기에 내가 장롱 하지 말고요, 돼지 한 마리 더 잡아주십시오.)

107083 @ 음,(음.)

107083 #1 뒈지 흔 머리 더 잡아줘근엥에 손님덜 나시. 그때 부줏돈 이십 원 받을 때.(돼지 한 마리 더 잡아줘서 손님들 몫. 그때 부좃돈 이십 원 받을 때.)

107083 @ 아아, 이십 원 받을 때?(아아, 이십 원 받을 때?)

107083 #1 십 원짜리라도, 이십 원. 경 헨에 이백 원, 이백 원. 그치룩 허멍 헨에 친척 어른덜안티 나 막 착허덴 말 들으고 헷주. 착허다. 딴 아이 ᄀᆞ트민 욕심 쎄어근엥에 소님이 뭐 기영 헷던 저영 헷든 단스 헤영 갈 건디. 단스는예 다 아무도 아녀고 허난 놈 친구보단 궤 ᄒᆞ나 더 허고 찬장 허고 헤시난 단스 허지 말앙 도새기 ᄒᆞ나 당헤 줍센 헨에 경 헨에 막 그때 석 점 넉 점 놘 헤 부난에 그게.(십 원짜리여도, 이십 원. 그렇게 해서 이백 원, 이백 원. 그처럼 하면서 해서 친척 어른들한테 나 아주 착하다는 말 듣고 했지. 착하다. 딴 아이 같으면 욕심 세서 손님이 뭐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장롱 해서 갈 건데. 장롱은요 다 아무도 않고 하니까 남 친구보단 궤 하나 더 하고 찬장 하고 했으니까 장롱 하지 말고 돼지 하나 당해 주십사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막 그때 석 점 넉 점 놔서 해 버리니까 그게.)

107083 @ 소문낫구나.(소문났구나.)

107083 #1 예, 소문난에 그 다음부떠는 ᄎᆞᄎᆞᄎᆞᄎᆞ 그 다음부떠는 이제 넉 점으로 계속 가단에.(예, 소문나서 그 다음부터는 차차차차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넉 점으로 계속 가다가.)

107083 @ 으.(으.)

107083 #1 이젠 다섯 점으로 가단 이젠 뭐 ᄋᆞ섯 점이여 무신 요즘은 세지 아녕 막.(이젠 다섯 점으로 가다가 이젠 뭐 여섯 점이다 무슨 요즘은 세지 않고 막.)

107083 @ 예, 세지 아녕 막 놔 가지고 갖다 주고.(예, 세지 않고 막 놔 가지고 갖다 주고.)

107083 #1 우리 아덜덜 풀[490] 땐양, 우린 ○○이 풀 땐 열네 머리 잡고, 도새기.(우리 아들들 팔 땐요, 우린 ○○이 팔 땐 열네 마리 잡고, 돼지.)

107083 @ 웨냐허면 무사 조합장 허고 허니까 또 얼마나 사람 하실 거라예?(왜냐하면 왜 조합장 하고 하니까 또 얼마나 사람 많았을 거예요?)

107083 #1 함만 헷수가게. 일뤠잔치[491] 헤낫수게.(많기만 했습니까. 이레잔치 했었습니다.)

107083 @ 아.(아.)

107083 #1 열네 머리 잡고 큰아들 풀 때 열두 머리 잡고 족은아덜 풀 땐 열 머리 잡앗수다.(열네 마리 잡고 큰아들 팔 때 열두 마리 잡고 작은아들 팔 땐 열 마리 잡았습니다.)

---

490) 여기에서 '아덜덜 풀다'는 '아들들을 혼인시키다'는 의미다.
491) '일뤠잔치'는 이레 동안 치르는 잔치를 말한다.

107083 @ 음, 맨 쳇잔치난 처음에는 엄청낫구나.(음, 맨 '첫잔치'니까 처음에는 엄청났구나.)

107083 #1 쳇잔치고예 저 이 아덜덜은 육지 사둔이니까.('첫잔치'고요 저 이 아들들은 육지 사돈이니까.)

107083 @ 아.(아.)

107083 #1 육지 사둔이니까 그걸 차이가 잇엇고. 아이고, 부지.(육지 사돈이니까 그걸 차이가 있었고. 아이고, 부조.)

107083 @ 부지도 하영 들어왓지예?(부조도 많이 들어왔지요?)

107083 #1 부지 봉투 까젠 허난에 우리 저 방상 아이덜 이거 뭐 투표함 까는 거우과? 뭐 까는 거우과? 헤낫어.(부조 봉투 까려고 하니까 우리 저 방상 아이들 이거 뭐 투표함 까는 겁니까? 뭐 까는 겁니까? 했었어.)

107083 @ 음.(음.)

107083 #1 그때 막 췌고로 받아사 흔 천오백 이천만 원 이천 얼마 영 받앗젠 헤신디 우린 오천만 원 돈을 받으난에게.(그때 아주 최고로 받아야 한 천오백 이천만 원 이천 얼마 이렇게 받았다고 했는데 우린 오천만 원 돈을 받으니까.)

107083 @ 아아.(아아.)

107083 #1 막 아이고.(막 아이고.)

107083 @ 그 동안 다 저기 베푼 것들 다 헌 거지예?(그 동안 다 저기 베푼 것들 다 한 거지요?)

107083 #1 예, 그치룩 경 헤낫수다.(예, 그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83 @ 세상에 뒈지를.(세상에 돼지를.)

107083 #1 췌고로 먹주. 경헌 디 엇덴 헤낫어.(최고로 먹지. 그런 데 없다고 했었어.)

107083 @ 뒈지를 열네 마리 잡아시민 뭐.(돼지를 열네 마리 잡았으면 뭐.)

107083 #1 열네 머리 잡안.(열네 마리 잡았어.)

107083 @ 제주도 사름 다 와신게예.(제주도 사람 다 왔는데요.)

107083 #1 게난 으, 쵀도 하영 졋주. 목숨 열네 개 뚤 ᄒᆞ나 풀멍.(그러니까 으, 죄도 많이 지었지. 목숨 열네 개 딸 하나 팔면서.)

107083 @ (웃음)

107083 #1 목숨을 경 죽어시난. 게난 전기[492] 지지는 것도 저 스물 말에치 헤단에.(목숨을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전기' 지지는 것도 저 스물 말어치 해다가.)

107083 @ 으음.(으음.)

107083 #1 그 떡판. 그때 처음으로 전기를 우리 시작헤 부난에.(그 떡판. 그때 처음으로 '전기'를 우리 시작해 버리니까.)

107083 @ 잔치 때.(잔치 때.)

---

492) '전기'는 메밀가루를 얇게 반죽한 후에 프라이팬에 넣어서 둥글게 지진 후 안에 익힌 무채 따위를 넣고 말아서 만든 음식이다. 지역에 따라서 '빈', '빈떡', '빙', '빙떡', '멍석떡' 따위라고 한다.

107083 #1 어 시작헤 부난 그 지금은 겨울 때 전기 헙니다덜게.(어 시작해 버리니까 그 지금은 겨울 때 '전기' 합디다들.)

107083 @ 아아.(아아.)

107083 #1 경 헤연 허젠 허난 스물 말에치 ᄆᆞ물쏠을 사레 가난.(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스물 말어치 메밀쌀을 사러 가니까.)

107083 @ 으.(으.)

107083 #1 아니, 무슨 잔치에 스무 말을 헴수겐. 닷 말 일곱 말 헙니덴.(아니, 무슨 잔치에 스무 말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닷 말 일곱 말 합니다라고.)

107083 @ 으음.(으음.)

107083 #1 경 허는 거라게.(그렇게 하는 거야.)

107083 @ 으.(으.)

107083 #1 어쨋든 남으민 우리 먹쿠덴 헨에 이젠 스무 말에치 헤단 허난 떡, 떡 지지는 반 도새기 잡는 날 게난 일뤠잔치 헷주게. 무사넨 허민게, 아이고, 도새기 잡, 도새기도 ᄒᆞ루에 못허영 ᄒᆞ루 잡앙 뒷날은 또 다 못 숢안 다 못 숢으난 또 뒷날ᄁᆡ장 숢곡 허당 보난 일뤠 걸려신디.(어쨌든 남으면 우리 먹겠다고 해서 이젠 스무 말어치 해다가 하니까 떡, 떡 지지는 반기 돼지 잡는 날 그러니까 이레잔치 했지. 왜냐고 하면, 아이고, 돼지 잡, 돼지도 하루에 못해서 하루 잡아서 뒷날은 또 다 못 삶아서 다 못 삶으니까 또 뒷날까지 삶고 하다가 보니까 이레 걸렸는데.)

107083 @ 음.(음.)

107083 #1 경 허난 그 떡판을양 ᄋᆞ섯 개 놩 지졋수게. 하나에 ᄒᆞᆫ 판에 네 개씩 나오는 거 여섯 개 놘.(그렇게 하니까 그 떡판을요 여섯 개 놔서 지졌습니다. 하나에 한 판에 네 개씩 나오는 거 여섯 개 놔서.)

107083 @ 으.(으.)

107083 #1 경 헤도 들라 못 지젼. 들라 못 지젼 시에서 온 사름덜은 이 방에 앚아도 밥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줘렌 허멍 기자 나갓덴 헨에 거 넘어나사 또 사례허곡.(그렇게 해도 마구 못 지졌어. 마구) 못 지져서 시에서 온 사람들은 이 방에 앉아도 밥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더라고 하면서 그저 나갔다고 해서 거 넘어나야 또 사례하고.)

107083 @ 으음.(으음.)

107083 #1 소님이 그만큼 몰려놓난양 저 집 우리 집 다 터놘 헤도예.(손님이 그만큼 몰려놓으니까요 저 집 우리 집 다 터놔서 해도요.)

107083 @ 음.(음.)

107083 #1 에이그.(에이그.)

107083 @ 완전 대잔치를 헤신게예?(완전 대잔치를 했는데요?)

107083 #1 예.(예.)

107083 @ 음.(음.)

107083 #1 아이그, 진짜 그치룩, 그치룩 허는 디 원 없어.(아이그, 진짜 그처럼, 그처럼 하는 데 전혀 없어.)

107083 @ 으.(으.)
107083 #1 몰라, 육지더레 놉은 사름덜 헐 때나.(몰라, 육지로 높은 사람들 할 때나.)
107083 @ 육지는 더 안 헙니다.(육지는 더 안 합니다.)
107083 #1 놉은 사름 헐 때나 헴신가.(높은 사람 할 때나 하고 있는가.)
107083 @ (웃음)
107083 #1 아이그, 세 번을 허젠 허난.(아이고, 세 번을 하려고 하니까.)
107083 @ 그렇게 헤연 집에서 다 헌 거예?(그렇게 해서 집에서 다 한 거예요?)
107083 #1 집의서 헷수게. 그때 시절에.(집에서 했습니다. 그때 시절에.)
107083 @ 예.(예.)
107083 #1 게난 요즘 잇엄시민 우리도 식당에 강 혼 번 헤볼컬. 한걸리.(그러니까 요즘 있었으면 우리도 식당에 가서 한 번 해볼걸. 한가하게.)
107083 @ 아아. (웃음)(아아. (웃음))
107083 #1 집의 줌자당 가곡.(집에 잠자다가 가고.)
107083 @ 음.(음.)
107083 #1 아이고.(아이고.)
107084 @ 그 ᄆᆞ멀묵은, 식게 때도 ᄆᆞ멀묵 헷수가, 여기는?(그 메밀묵은, 제사 때도 메밀묵 했습니까, 여기는?)
107084 #1 예. ᄆᆞ멀묵 헙니다.(예. 메밀묵 합니다.)
107084 @ 그 ᄆᆞ멀묵은 어떤 식으로 쑤는 거우꽈?(그 메밀묵은 어떤 식으로 쑤는 겁니까?)
107084 #1 거 쑤곡양.(거 쑤고요.)
107084 @ 예.(예.)
107084 #1 쑤는 딘 쑤곡.(쑤는 덴 쑤고.)
107084 @ 으.(으.)
107084 #1 지지는 딘 기자 지져 불곡.(지지는 덴 그져 지져 버리고.)
107084 @ 아아, ᄆᆞ멀묵도 여기는 지졍은에 헤예?(아아, 메밀묵도 여기는 지져서 해요?)
107084 #1 간세허민 지져 벼.(게으르면 지져 버려.)
107084 @ 아, 게민 삼춘은 어떻게 헤?(아, 그러면 삼촌은 어떻게 해?)
107084 #1 원래 ᄆᆞ멀묵은 쒀야 뒈주게.(원래 메밀묵은 쒀야 되지.)
107084 @ 음.(음.)
107084 #1 우린 큰동세ᄀᆞ라 쑵센 허영 쒀.(우린 큰동서보고 쑤십사고 해서 쒀.)
107084 @ 아, 어떤 식으로 쑵니까? 쑤는 거는?(아, 어떤 식으로 쑵니까? 쑤는 거는?)
107084 #1 ᄆᆞ멀묵?(메밀묵?)
107084 @ 으.(으.)

107084 #1 ᄆᆞ멀묵도 거 언물에 ᄀᆞ르 캉. 전기 지지는 것보다 쪼끔 두덥게 쪼끄만 두덥게 카면은 딱 맞주게.(메밀묵도 거 찬물에 가루 타서. '전기' 지지는 것보다 쪼끔 두껍게 쪼끄만 두껍게 타면은 딱 맞지.)

107084 @ 예.(예.)

107084 #1 경 혜영 솟듸 아시에 놩은에 건 안 젓으민 ᄒᆞ꼼이라도 안 젓으민 솟듸 막 눌어 부는 따문에.(그렇게 해서 솥에 미리에 놔서 건 안 저으면 조금이라도 안 저으면 솥에 막 눌어 버리는 때문에.)

107084 @ 음.(음.)

107084 #1 익을 때ᄁᆞ장 젓어사.(익을 때까지 저어야.)

107084 @ 으음.(으음.)

107084 #1 익을 때ᄁᆞ장 젓어사.(익을 때까지 저어야.)

107084 @ 음.(음.)

107084 #1 다 익으면은 그거 영 밥잘 들르면은 그게 툭툭 떨어져근엥에 아예 안 부뜨민 익은 거고.(다 익으면 그거 이렇게 밥잘 들면 그게 툭툭 떨어져서 아예 안 붙으면 익은 거고.)

107084 @ 음.(음.)

107084 #1 거 ᄒᆞ꼼 영 떨어지멍 이레 영 둥긴 거는 설주게. 경 허민 경 허도록 그거 막 계속 젓어.(거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리로 이렇게 늘어진 거는 설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도록 그거 막 계속 저어.)

107084 @ 음.(음.)

107084 #1 경 헹 차판이나 뭣에 퍼놩 싹 다렁 놔두민 금방 얼리난에.(그렇게 해서 차반이나 뭣에 퍼놔서 싹 다려서 놔두면 금방 얼리니까.)

107084 @ 음.(음.)

107084 #1 경 혜영 마끗데 화릿불에 굽곡.(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화롯불에 굽고.)

107084 @ 묵도 또 궈마씨?(묵도 또 구워요?)

107084 #1 궈야주. 츰지름 ᄇᆞᆯ르멍.(구워야지. 참기름 바르면서.)

107084 @ 아, 우리는 안 궝은에 그냥 허던데.(아, 우리는 안 구워서 그냥 하던데.)

107084 #1 화릿불에. 아니주.(화롯불에. 아니지.)

107084 @ 음.(음.)

107084 #1 안 구는 거 닮아도 궘수다. 후라이판에라도.(안 굽는 거 같아도 굽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에라도.)

107084 @ 아아. 구어.(아아. 구워.)

107084 #1 궈삽니다게.(구워야 합니다.)

107084 @ 으.(으.)

107084 #1 기자 혜영케 아니 허주.(그저 하얗게 아니 하지.)

107084 @ 아아.(아아.)

107084 #1 민드락허곡.(미끄럽고.)

107084 @ 아, 게 옛날엔 다 화리에, 돌화리에?(아, 게 옛날엔 다 화로에, 돌화로에?)

107084 #1 옛날에는 화리에 숫불 헹은에 그축 헹은에 귓주. 요즘은 후라이판에 전기 지지는 판에서 영 영 놔근에 뒈쓰멍 굽니다. 요즘도.(옛날에는 화로에 숯불 해서 그처럼 해서 구웠지. 요즘은 프라이팬에 '전기' 지지는 판에서 이렇게 이렇게 놔서 뒤집으면서 굽니다. 요즘도.)

107085 @ 으으, 청묵은?(으으, '청묵'은?)

107085 #1 청묵[493]은 ᄆᆞ멀쏠로 허는 거.('청묵'은 메밀쌀로 하는 거.)

107085 @ 으. 게민 ᄆᆞ멀묵은 ᄀᆞ르 굴앙 허곡?(으. 그러면 메밀묵은 가루 갈아서 하고?)

107085 #1 으, 청묵은 쏠 물에 ᄃᆞᆼ갓다근엥에 푹 줄루민 잘리에 놩 막 주물뢍 짱.(으, '청묵'은 쌀 물에 담갔다가 푹 절면 자루에 놔서 막 주물러서 짜서.)

107085 @ 으.(으.)

107085 #2 짜근에 그 물 쑤민은?(짜서 그 물 쑤면?)

107085 @ 청묵 뒈는 거.('청묵' 되는 거.)

107085 #1 묵이 뒈는 거.(묵이 되는 거.)

107085 @ 게민 보통 청묵은 언제 허는 거마씨?(그러면 보통 '청묵'은 언제 하는 거예요?)

107085 #1 아니, 언제가 아니고 겨울에라사주. 여름엔 헤도 얼리질 안허주, 잘.(아니, 언제가 아니고 겨울이어야지. 여름엔 해도 얼리질 않지, 잘.)

107085 @ 아.(아.)

107085 #1 게곡 쉬어 불고. 여름엔 허당 잘못허민 쉬여 불곡게.(그러고 쉬어 버리고. 여름엔 하다가 잘못하면 쉬어 버리고.)

107085 @ 보통 게문 묵은 겨울에 하는구나예?(보통 그러면 묵은 겨울에 하는군요?)

107085 #1 겨울에.(겨울에.)

107085 @ 게난 청묵을 허든 모멀묵을 허든 아무거나 헤도 뒈는 거? 게난 그 청묵이 힘들켜 아무래도예?(그러니까 청묵을 하든 메밀묵을 하든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청묵'이 힘들겠다 아무래도요?)

107085 #1 청묵은 원래는 반찬으로 먹는 거주게.('청묵'은 원래는 반찬으로 먹는 거지.)

107085 @ 아아, 기우꽈?(아아, 그럽니까?)

107085 #1 간장 찍으멍.(간장 찍으면서.)

107085 @ 으음.(으음.)

107085 #1 간장 양념간장 헤근에 찍으멍 그치룩 허는 거주. 겐디 정성 들영 허노렌 청묵을 허주. 이디도 흔 집이만 청묵을 헤여.(간장 양념간장 해서 찍으면서 그처럼 하는 거지. 그런데 정성 들여서 하노라고 '청묵'을 하지. 여기도 한 집에만 '청묵'을 해.)

107085 @ 아, 게난 원래 그냥?(아, 그러니까 원래 그냥?)

493) '청묵'은 메밀쌀을 물에 불려 그 앙금으로 쑨 묵을 말한다.

107085 #1 다 쑤는디.(다 쑤는데.)

107085 @ 다 쑤는디?(다 쑤는데?)

107085 #1 ᄀᆞ르로 다 쑤는디.(가루로 다 쑤는데.)

107086 @ 어어. 옛날은 이제 또 개역? 우리 개역?(어어. 옛날은 이제 또 미숫가루? 우리 미숫가루?)

107086 #1 보릿개역.(보리미숫가루.)

107086 @ 으, 옛날에 그거 한 번 더 ᄀᆞᆯ아줘 봅서.(으, 옛날에 그거 한 번 더 말해 줘 보십시오.)

107086 #1 보리개역. 주넹이보릿개역은 껍덕이 두꺼우난 거주 둬 불 까까둬근에 ᄀᆞᆯ민 막 ᄆᆞᆫ작헌 게 맛잇고. 술보리는 껍덕차 껍떡이 얄부난 껍덕차 보깡 ᄀᆞ는 따문에 주넹이보리 만큼은 ᄏᆞ시는 건 ᄒᆞᆫ 가지라도 입에 먹는 거는 주넹이보린 ᄆᆞᆫ작허곡 술보린 쪼끔 쪼끔 거친 뭐가 잇주.(보리미숫가루. 맥주보리미숫가루는 껍질이 두꺼우니까 거지 두어 벌 깎아둬서 갈면 아주 매끈한 게 맛있고. 쌀보리는 껍질째 껍질이 얇으니까 껍질째 볶아서 가는 때문에 맥주보리 만큼은 구수한 건 한 가지여도 입에 먹는 거는 맥주보린 매끈하고 쌀보린 쪼끔 쪼끔 거친 뭐가 있지.)

107086 @ 음.(음.)

107086 #1 거친 뭣이 잇어.(거친 뭣이 있어.)

107086 @ 거친 것이 잇어예? 경 허영 ᄀᆞᆯ앙은에?(거친 것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갈아서?)

107086 #1 ᄀᆞᆯ앙 체로 막 쳐.(갈아서 체로 막 쳐.)

107086 @ 체로 쳐.(체로 쳐.)

107086 #1 요샌 하릉방에 허주마는 그때는 ᄀᆞᆯ앙. 정ᄀᆞ레에.(요샌 정미소에 하지만 그때는 갈아서. 맷돌에.)

107086 @ 정ᄀᆞ레에 ᄀᆞᆯ앙예?(맷돌에 갈아서요?)

107086 #1 경 헹 그 뭇 솖아근에 뭇국물[494]에 개역 ᄆᆞᆯ앙 먹곡. 아이고, 또 쌩보리쏠 ᄀᆞᆯ아 나민 그 ᄀᆞ르 뭇국물에 놔근엥에 비병 먹곡.(그렇게 해서 그 무릇 삶아서 '뭇국물'에 미룻가루 말아서 먹고. 아이고, 또 '날보리쌀' 갈고 나면 그 가루 '뭇국물'에 놔서 비벼서 먹고.)

107086 @ 음.(음.)

107086 #1 우리도 거 먹언.(우리도 거 먹었어.)

107086 @ 게니까. 경 허고 삼춘 그, 여기는 콩으로는 개역을 안 헙니까?(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삼촌 그, 여기는 콩으로는 미숫가루를 안 합니까?)

107086 #1 콩개역[495].('콩개역'.)

107086 @ 으.(으.)

107086 #1 콩개역, 그 콩개역은 그자 이 무시거 헐 때 양념 먹젠 허주. 경 주로 그

494) '뭇국물'은 무릇을 푹 삶아서 얻은 국물을 말한다.

495) '콩개역'은 콩을 볶아서 곱게 간 음식을 말한다. 보리를 볶아서 만든 '보리개역'에 견주어서 한 말이다.

걸로 때 먹게는 안 헤봣수다.(‘콩개역’, 그 ‘콩개역’은 그저 이 무엇 할 때 양념 먹으려고 하지. 그렇게 주로 그걸로 때 먹게는 안 해봤습니다.)

107086 @ 으, 옛날에 콩개역 헤영은에 무사 우미 헹은에?(으, 옛날에 ‘콩개역’ 해서 왜 우무묵 해서?)

107086 #1 어, 이제도 우미는 그거 헙니다.(어, 이제도 우무묵은 그거 합니다.)

107086 @ 아아, 지금도.(아아, 지금도.)

107086 #1 우미 솖을 땐 지금도 콩개역 헙니다.(우무 삶을 땐 지금도 ‘콩개역’ 합니다.)

107086 @ 아, 지금 콩개역 허고예?(아, 지금 ‘콩개역’ 하고요?)

107086 #1 걸아당 허는 거난게.(갈아다가 하는 거니까.)

107086 @ 콩개역도 보깡은에 갈믄 뒈는 거마씨?(‘콩개역’도 볶아서 갈면 되는 거예요?)

107086 #1 보깡 걸민 뒈는 거.(볶아서 갈면 되는 거.)

107086 @ 무사 그 예전에 일 끝나거나 이치룩 허면 그 친정어멍이나 저기 씨어멍안티 개역 허영 가곡 허는 이런 말도 들어봔마씨?(왜 그 예전에 일 끝나거나 이처럼 하면 그 친정어머니나 저기 시어머니한테 미숫가루 해서 가고 하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107086 #1 (웃음) 아, 씨어멍네 개역 헐 정도가 안 뒈면은.(아, 시어머니네 미숫가루 할 정도가 안 되면.)

107086 @ 으.(으.)

107086 #1 늙엉.(늙어서.)

107086 @ 으. (웃음)(으. (웃음))

107086 #1 경 허민 헤영 아져가사주게.(그렇게 하면 해서 가져가야지.)

107086 @ 음.(음.)

107086 #1 예, 아져가사주.(예, 가져가야지.)

107086 @ 게난 보리 끝나면 일 년에 흔 번 허는 거라예?(그러니까 보리 끝나면 일 년에 한 번 하는 거라고요?)

107086 #1 장마에.(장마에.)

107086 @ 장마에?(장마에?)

107086 #1 오월장마에.(오월장마에.)

107086 @ 음, 게난 동네, 그치룩 허영 가졍갓덴 허더라고예?(음, 그러니까 동네, 그처럼 해서 가져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107086 #1 오월장마에.(오월장마에.)

107087 @ 그다음에 여기도 지짐이 ᄀᆞ튼 것도 헤영 먹엇수가?(그다음에 여기도 지짐이 같은 것도 해서 먹었습니까?)

107087 #1 지짐이도.(지짐이도.)

107087 @ 옛날도.(옛날도.)

107087 #1 지짐이사게, ᄒᆞ꼼 허민 무시거 헤여근엥에 이거 지짐이 허라 헤근에 지짐

이 먹엇주게.(지짐이야, 조금 하면 무엇 해서 이거 지짐이 해라 해서 지짐이 먹었지.)

107087 @ 음, 그때는 뭐 놩은에 허는 거라?(음, 그때는 뭐 놔서 하는 거야?)

107087 #1 것도 여라 가지주. 아무 거라도게. 찌짐이 허는 것사게 무신 해산물도 잇이민 찌졍 그런 것도 헤영 찌짐이 허곡.(것도 여러 가지지. 아무 거라도. 지짐이 하는 것이야 무슨 해산물도 있으면 찢어서 그런 것도 해서 지짐이 하고.)

107087 @ 으.(으.)

107087 #1 문어 ᄀᆞ뜬 것도 줌녀덜 쳐잡으난 풀 디 엇이난 그런 것도 줌질게 썰어놩 지짐이 헹 먹곡.(문어 같은 것도 잠녀들 처잡으니까 팔 데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자잘하게 썰어놔서 지짐이 해서 먹고.)

107087 @ 아아, 옛날도 그런 식으로. 역시 바다 동네니까?(아아, 옛날도 그런 식으로. 역시 바다 동네니까?)

107087 #1 으. 바다난. 순 바다 걸로.(으. 바다니까. 순 바다 걸로.)

107087 @ 게민 거기는 가루는 어떤 가루를 쓰는 거?(그러면 거기는 가루는 어떤 가루를 쓰는 거?)

107087 #1 가루게 그땐 ᄆᆞ멀 막 그땐 헐 때난 ᄆᆞ물ᄏᆞ르주, 다.(가루 그땐 메밀 막 그땐 할 때니까 메밀가루지, 다.)

107087 @ 다 ᄆᆞ멀ᄏᆞ르예?(다 메밀가루요?)

107087 #1 밀ᄀᆞ르허곡.(밀가루하고.)

107087 @ 으음.(으음.)

107087 #1 밀가루허고 ᄆᆞᆯᄀᆞ르 두 가지벳긔 엇주게.(밀가루하고 메밀가루 두 가지밖에 없지.)

107087 @ 예, 예. 게믄 바당에 거 놩도 지짐이를 헴구나, 여기선.(예, 예. 그러면 바다에 거 놔서도 지짐이를 하고 있구나, 여기선.)

107087 #1 바당에 거 놩. 지금은 해물전엔 허주마는 그땐 찌짐이.(바다에 거 놔서. 지금은 해물전이라고 하지만 그땐 지짐이.)

107087 @ 으음. 뭐 놩 헌 게 가장 맛 좁니까? 이제.(으음. 뭐 놔서 한 게 가장 맛좋습니까? 이제.)

107087 #1 아, 해물 논 것사 맛잇주게.(아, 해물 놓은 것이야 맛있지.)

107087 @ 예.(예.)

107087 #1 이 문어 놩 헤도 맛잇고게. 문어도 줌질이 썰엉.(이 문어 놔서 해도 맛있고. 문어도 자잘하게 썰어서.)

107087 @ 음.(음.)

107087 #1 그 줌질이 썰엉 눈 떼여 벼뒁. 눈이랑 떼여뒁은에 줌질이 납작납작납작허게 찌짐이 허민 얼마나 맛 좋아게. 문어도게.(그 자잘하게 썰어서 눈 떼어 버려두고. 눈이랑 떼어두고 자잘하게 납작납작납작하게 지짐이 하면 얼마나 맛 좋아. 문어도.)

107087 @ 으음.(으음.)

107087 #1 경 허영 먹주.(그렇게 해서 먹지.)

107087 @ 우리는 문어로 지짐이 허는 거를 못 보니까.(우리는 문어로 지짐이 하는 거를 못 보니까.)

107087 #1 바당 아니라 부난.(바다 아니어 버리니까.)

107087 @ 예.(예.)

107087 #1 산에난.(산이니까.)

107087 @ 아, 게믄 그거는 무사 눈은 무사 텐덴 허는 거?(아, 그러면 그거는 왜 눈은 왜 뗀다고 하는 거?)

107087 #1 아니 건 그디 흔듸 놔봐야 무시거 뿔룩뿔룩 뿔룩뿔룩 보기나 싫주, 무신.(아니 건 거기 함께 놔봐야 무엇 불룩불룩 불룩불룩 보기나 싫지, 무슨.)

107087 @ 으, 먹을 때도 눈은 안 먹읍니까?(으, 먹을 때도 눈은 안 먹습니까?)

107087 #1 먹을 땐 맛은 잇주게.(먹을 땐 맛은 있지.)

107087 @ 먹긴 허고.(먹긴 하고.)

107087 #1 먹긴 허고.(먹긴 하고.)

107087 @ 지짐이 헐 때만.(지짐이 할 때만.)

107087 #1 뿔룩뿔룩헤근에게.(불룩불룩해서.)

107087 @ 지짐이 헐 때만 그렇게 허는 거라예, 예?(지짐이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예?)

107087 #1 문어죽 쒀도 막 맛 좁니다.(문어죽 쒀도 아주 맛 좋습니다.)

107087 @ 으.(으.)

107087 #1 독죽 닮주.(닭죽 같지.)

107087 @ 아, 기우과?(아, 그럽니까?)

107087 #1 큰, 큰 문언 이디서 심엉.(큰, 큰 문언 여기서 잡아서.)

107087 @ 너무 질기잖아예? 으.(너무 질기잖아요? 으.)

107087 #1 심어지민 안 질겨. 큰 문어 심어지민양?(잡아지면 안 질겨. 큰 문어 잡아지면요?)

107087 @ 예.(예.)

107087 #1 집의 와근에 그 먹 떼여뒁 옛날에 불치예.(집에 와서 그 먹 떼어두고 옛날에 재요.)

107087 @ 으.(으.)

107087 #1 불만 솜으난. 불치에 버무려근에 작작 밀어근에 싯으민.(불만 때니까. 재에 버무려서 작작 밀어서 씻으면.)

107087 @ 으.(으.)

107087 #1 그게 붉은 껍덕 싹 벗어져고. 헤영허게 저 술만 나오주게.(그게 붉은 껍질 싹 벗어지던데. 하얗게 저 살만 나오지.)

107087 @ 아아.(아아.)

107087 #1 이 술만.(이 살만.)

107087 @ 으.(으.)

107087 #1 게영 술만 나오민 솟듸 놩 딸리민.(그래서 살만 나오면 솥에 놔서 달이면.)

107087 @ 예.(예.)

107087 #1 완전 닭고기 닮주.(완전 닭고기 같지.)

107087 @ 아아.(아아.)

107087 #1 거 벳겨 불민 짜지도 안허곡 아무 것도 아녀곡 **** 비삭비삭 독고기ᄀᆞ치록 찔각찔각허멍. 문어죽 잘헨덜 먹엇주. 저 풀지 아넌 때.(거 벗겨 버리면 짜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않고 **** '비삭비삭' 닭고기처럼 쫄깃쫄깃하면서. 문어죽 잘해서들 먹었지. 저 팔지 않을 때.)

107087 @ 풀지 안헐 때는.(팔지 않을 때는.)

107087 #1 예.(예.)

107087 @ 그러면은 그 문어죽은 그 겉에 거를 다 뗑은에 허는 거?(그러면은 그 문어죽은 그 겉에 거를 다 떼어서 하는 거?)

107087 #1 으, 기자 허민 뻘겅허주, 죽이.(으, 그저 하면 뻘겋지, 죽이.)

107087 @ 예, 예.(예, 예.)

107087 #1 겁떡차 허민 벌겅허는 때문에 그거 빼여둥.(껍질째 하면 벌게는 때문에 그거 빼어두고.)

107087 @ 근데 그 벌겅헌 게 더 몸에 좋덴 허는 건디?(근데 그 벌건 게 더 몸에 좋다고 하는 건데?)

107087 #1 하하. (웃음) 옛날엔 좋은 거 궂인 거 몰라 부난 게도 먹엇일 테주.(하하. (웃음) 옛날엔 좋은 거 궂은 거 몰라 버리니까 그래도 먹었을 테지.)

107087 @ 게난 그거 이제 하면은 맛이 덜 하는가 보다예. 뻘겅헌 게.(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면 맛이 덜 하는가 보네요. 뻘건 게.)

107087 #1 덜하고 무신거 헌 거는 건 몰르곡.(덜하고 무엇 한 거는 건 모르고.)

107087 @ 음.(음.)

107087 #1 건 몰르주. 기자, 건 몰르주. 그축만 헤영 먹어나난. 몰르곡, 보기는 좋주, 헤영허게. 독죽 닮앙.(건 모르지. 그저, 건 모르지. 그처럼만 해서 먹었었으니까. 모르고, 보기는 좋지, 하얗게. 닭죽 같아서.)

107087 @ 예, 예. 요즘도 문어죽덜 헹 먹읍니까?(예, 예. 요즘도 문어죽들 해서 먹습니까?)

107087 #1 예, 요즘도 무시거 헌 때는 무시거 헌 사름덜은 먹읍니다. 죽 쑤켄 허멍 사가곡 헙니다.(예, 요즘도 무엇 한 때는 무엇 한 사람들은 먹습니다. 죽 쑤겠다고 하면서 사가고 합니다.)

107087 @ 으음.(으음.)

107087 #1 해녀들신디 왕.(해녀들한테 와서.)

107087 @ 몸에 좋은 거난예?(몸에 좋은 거니까요?)

107087 #1 죽 쒕 먹젠. 산모덜도 좋곡게.(죽 쒀서 먹으려고. 산모들도 좋고.)

107087 @ 아아, 문어도 산모 좋아?(아아, 문어도 산모 좋아?)

107087 #1 산모 좋곡양, 임신뒌 때 자꾸 유산뒈는 사름 잇지 안허우꽈?(산모 좋고요, 임신된 때 자꾸 유산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107087 @ 예.(예.)

107087 #1 경 헌 사름도 역불 문어 멕입네께. 부뜨는 거난.(그렇게 한 사람도 부러 문어 먹입니다. 붙는 거니까.)

107087 @ 아아.(아아.)

107087 #1 바짝바짝 부뜨는 거난.(바짝바짝 붙는 거니까.)

107087 @ 예.(예.)

107087 #1 부뜨는 거옌 헤근에 그거 헤영 먹입네께. 그거나 전복이나.(붙는 거라고 해서 그거 해서 먹입니다. 그거나 전복이나.)

107087 @ 전복이영. 아, 게니까 임신하기 그런 식으로?(전복이랑. 아, 그러니까 임신하기 그런 식으로?)

107087 #1 암 걸린 사름만 안 먹주. 오년 동안은.(암 걸린 사람만 안 먹지. 오년 동안은.)

107087 @ 아, 문어는?(아, 문어는?)

107087 #1 암에 수술헤난 사름은 문어광 전복은 오년 동안은 안 먹어사.(암에 수술했던 사람은 문어랑 전복은 오년 동안은 안 먹어야.)

107087 @ 아.(아.)

107087 #1 우리도 지금ᄁᆞ장 아방[496] 안 안녭네께.(우리도 지금까지 아버지 안 드립니다.)

107087 @ 아, 기우과? 무사 경 허는 거?(아,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

107087 #1 부뜨는 거라 부니까.(붙는 거여 버리니까.)

107087 @ 으.(으.)

107087 #1 암세포가 어디 천리만리 잇당이라도 그런 걸 먹으민 부떠서 재발헌다.(암세포가 어디 천리만리 있다가도 그런 걸 먹으면 붙어서 재발한다.)

107087 @ 음.(음.)

107087 #1 경 허기 때문에 거 부뜨는 음식은 안 먹읍네다. 오년 동안은.(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 붙는 음식은 안 먹습니다. 오년 동안은.)

107087 @ 오년 동안은?(오년 동안은?)

107087 #1 예, 암 혼 번 수술허민 기간이 딱 오년이거든.(예, 암 한 번 수술하면 기간이 딱 오년이거든.)

107087 @ 으.(으.)

107087 #1 게니까 오년 동안은 안 먹어.(그러니까 오년 동안은 안 먹어.)

107087 @ 아.(아.)

107087 #1 지금도 안 줘.(지금도 안 줘.)

---

496) '아방'은 아버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남편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다.

107087 @ 아, 지금은 딱 혜영 금기허영.(아, 지금은 딱 해서 금기해서.)

107087 #1 지금 딱 사년인디 지금도 난 안 줍니다.(지금 딱 사년인데 지금도 난 안 줍니다.)

107087 @ 딱 이제 뭐 허지 말라 헌 건 딱 지켬구나예?(딱 이제 뭐 하지 말라 한 건 딱 지키고 있군요?)

107087 #1 예.(예.)

107087 @ 직허렌 허는 건 지켜 불민 좋아예?(지키라고 하는 건 지켜 버리면 좋지요?)

107087 #1 난 딱 직헙니다. 게난 요번에도 검사 가니까 아이고 막 완전 깨끗허게 그것엔 뭐 걱정 안 헤도 뒈쿠덴.(난 딱 지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검사 가니까 아이고 아주 완전 깨끗하게 그것엔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107087 @ 음.(음.)

107087 #1 경 원장이 곧건데 나가 이제 일 년만 그대로 허민 죽기 셍전 뭘 거우다게 허멍 헤신디.(그렇게 원장이 말하기에 내가 이제 일 년만 그대로 하면 죽기 생전 될 겁니다 하면서 했는데.)

107087 @ 경 헤도 그런 거를 따라주니까 허지 만약에 밖에 강도 먹을 수 잇지 아녀 우광게.(그렇게 해도 그런 거를 따라주니까 하지 만약에 밖에 가서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7087 #1 안 따르민 어떵헐 거우꽈? 이거 멧 번이우꽈? 우리 대수술 네 번 헷수게.(안 따르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몇 번입니까? 우리 대수술 네 번 했습니다.)

107087 @ 경 허난 안 할 수도 엇이커라예?(그렇게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겠어요?)

107087 #1 안 헐 수도 엇주. 아이고.(안 할 수도 없지. 아이고.)

107087 @ 죽은덴 헤신디 다 살렷인디.(죽는다고 했는데 다 살렸는데.)

107087 #1 지금 이제 이 허리 요디 아판에 뻬가 오그라져 부난에 수술헤사켄 요번에 벵원에 가난 헙디다. 아방이 나 이번은 수술 안 허켜. 다섯 번을 어떵 대수술을 헐 거니? 허관. 나, 제발 허지 말앙 이제랑 나이도 들고 헷이메 기냥 즘자멍 놀멍 살당 가주, 나 어떵 심부름 헙니까 또. (웃음)(지금 이제 이 허리 여기 아파서 뼈가 오그라져 버리니까 수술해야겠다고 요번에 병원에 가니까 합디다. 아버지가 나 이번은 수술 안 하겠다. 다섯 번을 어떻게 대수술을 할 거니? 하니까. 나, 제발 하지 말고 이제는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그냥 잠자면서 놀면서 살다가 가지, 나 어떻게 심부름 합니까 또. (웃음))

107087 @ 음.(음.)

107087 #1 웃음.(웃음.)

107087 @1 경 허여도 헤야 뭘 상황이민 헤야주.(그렇게 해도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지.)

107087 #1 헤야주게. 아이고.(해야지. 아이고.)

107088 @ 경 혜영 이제 삼춘 또 오메기술?(그렇게 해서 이제 삼촌 또 '오메기술'?)

107088 #1 오메기술[497]. 오메기[498] 헤영 놩 흐린좁쌀에.(‘오메기술’. ‘오메기’ 해서 놔서 차좁쌀에.)

107088 @ 거니까.(그러니까.)

107088 #1 으, 오메기 헤 놩 술 허는 거. 오메기 헤 놩 그 막 뀌여근엥에.(으, ‘오메기’ 해 놔서 술 하는 거. ‘오메기’ 해 놔서 그 막 이겨서.)

107088 @ 으.(으.)

107088 #1 막 뀌영 물 놩 헹 누룩 놩 놔두민 오메기술 뒈는 거.(막 이겨서 물 놔서 해서 누룩 놔서 놔두면 ‘오메기술’ 되는 거.)

107088 @ 오메기떡도 먹잖아예?(‘오메기떡’도 먹잖아요?)

107088 #1 예, 오메기떡. 흐린조 검은흐린조[499]헤영 오메기 헤근에.(예, ‘오메기떡’. 메조 ‘검은흐린조’해서 ‘오메기’ 해서.)

107088 @ 그 오메기를 멘들아 봅서.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 오메기는?(그 ‘오메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오메기’는?)

107088 #1 오메긴 무신거. 물앙게 절벤 허듯이 영 영 영 영 허멍 놩 솖을 거주.(‘오메기’는 무엇. 반죽해서 절편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놔서 삶을 거지.)

107088 @ 으, 거는 솖을 거?(으, 거는 삶을 거?)

107088 #1 으, 솖을 거. 술 허는 것도 솖을 거.(으, 삶을 거. 술 하는 것도 삶을 거.)

107088 @ 다 솖을 거 으.(다 삶을 거 으.)

107088 #1 솖아근엥에 그 떡 솖은 물도 식으민 그 술 담을 때 ᄀᆞ찌 그 오메기 뀌여 놔근엥에 헐 때 ᄀᆞ찌 놩 담는 거. 더 맛 좋주.(삶아서 그 떡 삶은 물도 식으면 그 술 담글 때 같이 그 ‘오메기’ 이겨서 할 때 같이 놔서 담는 거. 더 맛 좋지.)

107088 @ 옛날에 떡 솖으는 물 헤 갖고 뭐 국을 끌이거나 영은 안 헷수가?(옛날에 떡 삶는 물 해 갖고 뭐 국을 끓이거나 이렇게는 안 했습니까?)

107088 #1 아고게, 무사게 이제도 헙니다게.(아고, 왜 이제도 합니다.)

107088 @ 아, 이제도 헙니까?(아, 이제도 합니까?)

107088 #1 어, 집에 무시거 허젠 떡 솖아나민게 거 미역국 끌렁 먹읍니다게.(어, 집에 무엇 하려고 떡 삶아나면 거 미역국 끓여서 먹읍니다.)

107088 @ 아아.(아아.)

107088 #1 풀풀허게시리.(풀풀하게끔.)

107088 @ 게난 것도 영양가잖아예? 그추룩 헹 오메기 솖아난 물에.(그러니까 것도 영양가잖아요? 그처럼 해서 ‘오메기’ 삶았던 물에.)

107088 #1 우리 쉬정 엇어 부난 허주 허영 먹읍니다게.(우리 숫자 없어 버리니까 하지, 해서 먹습니다.)

---

497) ‘오메기술’은 차좁쌀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만든 후 삶아낸 떡인 ‘오메기떡’에 누룩과 물을 섞어서 발표시킨 음식이다.

498) ‘오메기’는 차좁쌀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만든 후 삶아낸 떡이다.

499) ‘검은흐린조’는 좁쌀 색깔은 검은 빛을 띠는 차조를 말한다.

107088 @ 무우 놓고 놓곡 영 헤근에 헷던 거 같애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오메기술 멘들젠 허면 그 순서?(무 놓고 놓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메기술' 만들려고 하면 그 순서?)

107088 #1 순서가게 그.(순서가 그.)

107088 @ 맨 처음 쏠 물 담글 때부터 술 뒐 때까지 쭉 골아 봅서?(맨 처음 쌀 물 담글 때부터 술 될 때까지 쭉 말해 보십시오?)

107088 #1 으, 좁쏠 물 둥갓당. 좁쏠은 쏠만큼 오래 안 둥가도 뒈주.(으, 좁쌀 물 담갔다가. 좁쌀은 쌀만큼 오래 안 담가도 되지.)

107088 @ 으.(으.)

107088 #1 경 헷당은에 그거 방에에서 막 뿟앙.(그렇게 했다가 그거 방아에서 막 빻아서.)

107088 @ 으.(으.)

107088 #1 뿟아근에 이제 또 이제 물 메지근허게 뒈와근에 놩 그거 반죽 뀌여근에.(빻아서 이제 또 이제 물 미지근하게 데워서 놔서 그거 반죽 이겨서.)

107088 @ 으.(으.)

107088 #1 게영 영 영 허영 앚앙덜 만들앙, 경 헹 또 걸 이제 물에 숢앙.(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앉아서들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또 걸 이제 물에 삶아서.)

107088 @ 으.(으.)

107088 #1 숢앙 다 흘탁, 다 흐린 거난 막 다 흘탁탁허주.(삶아서 다 헐렁, 다 차진 거니까 막 다 흘렁하지.)

107088 @ 음.(음.)

107088 #1 게민 건정은에 이제 흑꼼 식어가민은 그걸 막 뀌여. 더운 때는 막 남죽으로 막 영 영 밥자로 눌리멍 허당. 경 헤영 뀌여근엥에 그 숢아난 물 놓곡 기자 물 놓곡 헤영 누룩.(그러면 건져서 이제 조금 식어가면 그걸 막 이겨. 더운 때는 막 죽젓개로 막 이렇게 이렇게 밥주걱으로 누르면서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겨서 그 삶았던 물 넣고 그 저 물 넣고 해서 누룩.)

107088 @ 으.(으.)

107088 #1 누룩 서꺼근엥에게 뚜뜻헌 디 놩 이불 폭 더껑 놔두민 바글바글 궤주게.(누룩 섞어서 따뜻한 데 놔서 이불 폭 덮어서 놔두면 바글바글 괴지.)

107088 @ 음.(음.)

107088 # 1 경 허는 거우다. 경 헤영 뚤랑 먹는 거.(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서 먹는 거.)

107088 @ 게니까 메칠 뒈면은 그건 먹을 수 잇어마씨?(그러니까 며칠 되면 그건 먹을 수 있어요?)

107088 #1 거 흔 사흘. 뚜슨 디 막 놩은 흔 사을 흔 뒛 새 뒈민 다 먹주.(거 한 사흘. 따뜻한 데 막 놔서는 한 사흘 한 닷 새 되면 다 먹지.)

107088 @ 아, 술이 빨리 만들어지는구나.(아, 술이 빨리 만들어지는구나.)

107088 #1 예, 뜨신 디 놓민 경 허주게.(예, 따뜻한 데 놓으면 그렇게 하지.)

107089 @ 옛날에 쉰다리덜도 하영 먹지 안 허우꽈?(옛날에 '쉰다리'들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107089 #1 예, 순다리[500]게 밥 쉬민게 어려운 때난게 순다리라도 헤영 걸로 때 먹곡 헷수게.(예, '순다리' 밥 쉬면 어려운 때니까 '순다리'라도 해서 걸로 때 먹고 했습니다.)

107090 @ 쉰다린 어떤 식으로 만들어?('쉰다리'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107090 #1 쉰다리도 밥 쉬민 물 놔근에 그 누룩. 그거 항상 누룩은 집의서 보리덜 골멍 허난에 만드니까.('쉰다리'도 밥 쉬면 물 놔서 그 누룩. 그거 항상 누룩은 집에서 보리들 갈면서 하니까 만드니까.)

107090 @ 예.(예.)

107090 #1 이녁대로. 만들엉 놧당 허니까 마음대로 쓴 거주게. 만들민 누룩도예, 깨끗헌 사름 헤근에 만들아 놓민.(이녁대로. 만들어서 놨다가 하니까 마음대로 쓴 거지. 만들면 누룩도요, 깨끗한 사람 해서 만들어 놓으면.)

107090 @ 으.(으.)

107090 #1 누룩이 잘 뒈영은에 꼿이 피여양.(누룩이 잘 되어서 꽃이 피어요.)

107090 @ 예.(예.)

107090 #1 빨간 꽃. 누룩이. 그거는 진짜 좋은 거고. 시장에 강 만약에 살 때라도 그 꼿 핀 건 허민 좋은 거고.(빨간 꽃. 누룩이. 그거는 진짜 좋은 거고. 시장에 가서 만약에 살 때라도 그 꽃 핀 건 하면 좋은 거고.)

107090 @ 으.(으.)

107090 #1 꼿 안 피는 게 이십네다. 좀 부정헌 사름이나 문직아 불민.(꽃 안 피는 게 있습니다. 좀 부정한 사람이나 만져 버리면.)

107090 @ 아아.(아아.)

107090 #1 꼿 안 피영 그대로 말라 부는 거.(꽃 안 피어서 그대로 말라 버리는 거.)

107090 @ 으.(으.)

107090 #1 검은 저 무신 곰팡이나 아쓱 앚아 뎅기곡. 그추룩헙니다. 게난 몰른 사름은 그자 누룩이엔 허민 막 사도.(검은 저 무슨 곰팡이나 조금 가져 다니고. 그처럼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저 누룩이라고 하면 막 사도.)

107090 @ 으.(으.)

107090 #1 우린 아난에 강 영 딱 봐근엥에 무시거 허민 허곡 엇이민 기자 오주.(우린 아니까 가서 이렇게 딱 봐서 무엇 하면 하고 없으면 그저 오지.)

107090 @ 으음, 경 허영은에 그 누룩만 놓면?(으음, 그렇게 해서 그 누룩만 놓으면?)

107090 #1 삐져. 으. 걸 막 ᄀᆞ르로 또 삐져.(빻아. 으. 걸 막 가루로 또 빻아.)

---

500) '순다리'는 쉬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켜 만든 음료다.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서 '쉰다리'라고도 한다.

107090 @ 예.(예.)

107090 #1 경 혜영 그걸 ᄀᆞ찌 먹어야 뒈기 때문에 ᄀᆞ르로 막 삐정 ᄀᆞ는체로 또 쳥. 쳐근에 ᄀᆞ르로 서끌 거주. 그레.(그렇게 해서 그걸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루로 막 빻아서 가는체로 또 쳐서. 쳐서 가루로 섞을 거지. 그리로.)

107090 @ ᄀᆞ르로예?(가루로요?)

107090 #1 거 기자 먹을 거난.(거 그저 먹을 거니까.)

107090 @ 먹을 거난 아.(먹을 거니까 아.)

107090 #1 ᄀᆞ르로.(가루로.)

107090 @ 경 허영 허면 그 쉰다리 하면은 건 숣앗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헤연 먹엇수가?(그렇게 해서 하면 그 '쉰다리' 하면 건 삶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먹었습니까?)

107090 #1 숣앙 먹어사주. 저 쉰다리 쌩차 먹는 거는 건 막걸리나 마찬가지난에 쉰다리로, 쉰다린 숣아사.(삶아서 먹어야지. 저 '쉰다리' 날짜 먹는 거는 건 막걸리나 마찬가지니까 '쉰다리'로, '쉰다리'는 삶아야.)

107090 @ 쏣아사?(삶아야?)

107090 #1 쏣앙 먹어사주, 베 아파.(삶아서 먹어야지, 배 아파.)

107090 @ 아, 기구나. 게난 웨냐하면 숣지 아녀 갖고 먹는 디도 잇입디다.(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삶지 않아 갖고 먹는 데도 있습디다.)

107090 #1 그거는 막걸리 대신 먹는 거주게.(그거는 막걸리 대신 먹는 거지.)

107090 @ 거 막걸리 대신?(거 막걸리 대신?)

107090 #1 으, 쌩차 먹는 건 막걸리 대신 먹는 거.(으, 생짜 먹는 건 막걸리 대신 먹는 거.)

107091 @ 삼춘, 옛날에 엿도 직접 멘들아 봔마씨?(삼촌, 옛날에 엿도 직접 만들어 봤어요?)

107091 #1 엿 멩글안. 독엿[501]도 멘들곡.(엿 만들었어. '닭엿'도 만들고.)

107091 @ 독엿 만들젠 허민 것도 잘도 공정이, 예, 공정이 정말 복잡헤예?(닭엿 만들려고 하면 것도 잘도 공정이, 예, 공정이 정말 복잡하지요?)

107091 #1 독엿도 그거 엿기름 사당 그거 다 재료가 이시난에 사다근에 독 딸려근에 꽝이영 뭐영 다 털어뒁.(닭엿도 그거 엿기름 사다가 그거 다 재료가 있으니까 사다가 닭 달여서 뼈랑 뭐랑 다 떨어두고.)

107091 @ 으.(으.)

107091 #1 경 혜뒁 그 엿 놩 막 딸리민게 영 밥자 들르민 진득진득헹 허민 그게 다 익은 거난에 퍼 놓고. 다 뒈지고기도 엿 딸령.(그렇게 해두고 그 엿 놔서 막 달이면 이렇게 밥주걱 들면 진득진득해서 하면 그게 다 익은 거니까 퍼 놓고. 다 돼지고기도 엿 달여서.)

107091 @ 으.(으.)

501) '독엿'은 닭고기를 넣어서 곤 엿을 말한다.

107091 #1 그 오널 하르방.(그 오늘 할아버지.)

107091 @ 예.(예.)

107091 #1 훼장 하르방. 그 하르방은 큰각시 살 때 그 뒈지엿[502]만 먹언 살앗수다.(회장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큰각시 살 때 그 '돼지엿'만 먹어서 살았습니다.)

107091 @ 아.(아.)

107091 #1 힘 나렌. 각신.(힘 나라고. 각신.)

107091 @ 일 허니까.(일 하니까.)

107091 #1 물질허레만 가 부난에. 저 어른은 남ᄌᆞ라도 어디 ᄒᆞᆫ 번 나가 보지도 못허곡 기자 오로지 일만 헨. 일만 허지 아녀십디가?(물질하러만 가 버리니까. 저 어른은 남자라도 어디 한 번 나가 보지도 못하고 그저 오로지 일만 해서.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107091 @ 예, 예. 손이 보민 일만 일만 헤십디다게.(예, 예. 손이 보면 일만 일만 했습디다.)

107091 #1 일만 헨 살앗어.(일만 해서 살았어.)

107091 @ 음.(음.)

107091 #1 지금ᄁᆞ장이라도. 각시옌 헤봐야 뭐 요만은 거 ᄒᆞ나 도와주지 안허고 그축헹 사난에양, 각시가 어 재산이 엇이난 물질을 그 무신, 기계물질[503]을 헷어.(지금까지라도. 각시라고 해봐야 뭐 요만한 거 하나 도와주지 않고 그처럼 해서 사니까요, 각시가 어 재산이 없으니까 물질을 그 무슨, '기계물질'을 했어.)

107091 @ 머구리[504]허는 거?('머구리'하는 거?)

107091 #1 거 허난 돈을 많이 벌엇주. 많이 벌언 밧도 ᄒᆞᆫ 대ᄋᆞ섯 개 막 큰 밧덜 다 사곡 저 집도 그 각시가 벌언 산 오고.(그거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지. 많이 벌어서 밭도 한 대여섯 개 아주 큰 밭들 다 사고 저 집도 그 각시가 벌어서 사서 오고.)

107091 @ 으.(으.)

107091 #1 그 부모덜이 재산이 엇이민 물려올 게 엇입니께. 아덜이.(그 부모들이 재산이 없으면 물릴 게 없습니다. 아들이.)

107091 @ 예, 맞아.(예, 맞아.)

107091 #1 게난 두 번차 아덜이고 허난에 무시거 벨로 물릴 것도 엇이난 물질만 허레 뎅기멍 그치룩 헨 헷우게게. 경 허단 결국은 죽어 벳주마는. 재산 ᄆᆞ딱 일롸놔둰에 우리도 막 아이고, 언니 이제랑 그만 갑서, 그만 갑서. 이제는 그만 재산 안 모두아도 에기덜 삽니다. 서 오누이주게. 아덜 둘허고 그.(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고 하니까 무엇 별로 물릴 것도 없으니까 물질만 하러 다니면서 그처럼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어 버렸지만. 재산 몽땅 일으켜두고 우리도 막 아이고, 언니 이제는 그만 가십시오, 그만 가십시오. 이제는 그만 재산 안 모아도 아기들 삽니다. 세 오누이지. 아들 둘하고 그.)

---

502) '뒈지엿'은 돼지고기를 넣어서 곤 엿을 말한다.

503) 여기에서 '기계물질'은 바다에서 헬멧식 잠수기를 이용하여 전복 따위를 따는 일을 말한다.

504) '머구리'는 헬멧식 잠수기를 입고 물질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머구리'는 '잠수'를 의미하는 일본어 '潛り(모구리)'에서 온 말이다.

107091 @ 예. 예.(예. 예.)

107091 #1 그치룩 헙서, 헙서 허난. 나 이번만 강 완 안 가켜, 이젠 안 가켜 허멍 헌 것이.(그처럼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니까. 나 이번만 가 와서 안 가겠다, 이젠 안 가겠다 하면서 한 것이.)

107091 @ 사고로.(사고로.)

107091 #1 그때 간 죽어 분디. 저 보약 헤당 헹 멕여둥 가젱 그 뒈지도 숭이나 딴 고기도 안 허여. 숭[505]이나 이 목도리나.(그때 가서 죽어 버렸는데. 저 보약 해다가 해서 먹여두고 가려고 그 돼지도 '숭'이나 딴 고기도 안 해. '숭'이나 이 목살이나.)

107091 @ 음.(음.)

107091 #1 기름기 잇는 거.(기름기 있는 거.)

107091 @ 음.(음.)

107091 #1 그런 걸로 헤영 엿 담앙근엥에 기자 복삭 일 년 먹으렌 헤둥 가민, 그것이 췌고 보약인ᄀᆞ라양 저 아저씨는 그것만 먹언 살앗수게.(그런 걸로 해서 엿 담아서 그 저 푹 일 년 먹으라고 해두고 가면, 그것이 최고 보약인지요 저 아저씨는 그것만 먹어서 살았습니다.)

107091 @ 지금 딱 봐도예 어디 아플 거 닮지 안 헤? 탱탱헤?(지금 딱 봐도요 어디 아플 거 같지 안 해? 단단해?)

107091 #1 탱탱허여.(단단해.)

107091 @ 예, 지금도 그런 ** 탱탱허더라고.(예, 지금도 그런 ** 단단하더라고.)

107091 #1 그치룩 헌 어른이라, 저 어른.(그처럼 한 어른이야, 저 어른.)

107091 @ 아까 삼춘, 숭은 어느 부분을 숭이렌 헤여?(아까 삼촌, '숭'은 어느 부분을 '숭'이라고 해?)

107091 #1 이 베.(이 배.)

107091 @ 벳살을?(뱃살을?)

107091 #1 벳살이 숭이주.(뱃살이 '숭'이지.)

107091 @ 목도리는?('목도리'는?)

107091 #1 목도리가 휘양도레기[506].(목살이 '휘양도레기'.)

107091 @ 휘양도레기.('휘양도레기'.)

107091 #1 휘양, 휘양.('휘양', '휘양'.)

107091 @1 으음, 목도리를 휘양도레기엔 헙니까? 여기서.(으음, 목살을 '휘양도레기'라고 합니까? 여기서.)

107091 #1 으, 목도리.(으, 목살.)

107091 @ 으, 여기 목살, 요즘도 목살이 맛 좋덴 허는 게 그거구나게.(으, 여기 목살, 요즘도 목살이 맛 좋다고 하는 게 그거구나.)

107091 #1 그거. 엿 허젠 허민 그거벳긔 안 허여. 그거 허영 골 엿기름 사다근엥에

505) '숭'은 한자어 '흉(胸)'의 구개음이다. 돼지를 잡았을 때 가슴 부위 아래쪽에서 복부까지의 부위를 일컫는다.

506) '휘양도레기'는 돼지를 잡았을 때 목둘레의 부위를 일컫는 말이다. 흔히 '목살'이라고 한다.

으 그거 허영 쒀근에 허민 딸리민 엿 뒐 거난에. 밥 먹을 때마다 그것에 먹읍센 허영.(그거. 엿 하려고 하면 그거밖에 안 해. 그거 해서 엿기름 엿기름 사다가 으 그거 해서 쒀서 하면 달이면 엿 될 거니까. 밥 먹을 때마다 그것에 먹으십시오 해서.)

107091 @ 게난 그 엿기름 헤영 헐 때 골예, 골도 삼춘 직접 만들어 봔?(그러니까 그 엿기름 해서 할 때 엿기름도요, 엿기름도 삼촌 직접 만들어 봤어요?)

107091 #1 예게.(예.)

107091 @ 골은 어떵 만드는 거?(엿기름은 어떻게 만드는 거?)

107091 #1 그거 물 ᄃᆞᆼ갓다근에 막 ᄌᆞ늘앙은 안 나주.(그거 물 담갔다가 너무 'ᄌᆞ늘' 아서는 안 나지.)

107091 @ 음.(음.)

107091 #1 게난 어느 정도 기자 ᄌᆞ눌민[507]은 아 요 정도믄 뒈겟다 헤근엥에. 다라나 무시거나 놩 기자 더껑 내 불민 ᄒᆞᆫ 댓새 뒈민 콩ᄂᆞ물 나듯이 납니다. 그게.(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저 'ᄌᆞ늘민' 아 요 정도면 되겠다 해서. 대야나 무엇에나 놔서 그저 덮어서 내 버리면 한 닷새 되면 콩나물 나듯이 납니다. 그게.)

107091 @ 예.(예.)

107091 #1 게민 그때사 ᄆᆞᆯ률 거주게.(그러면 그때야 말릴 거지.)

107091 @ 음, 게영 ᄆᆞᆯ류왕은에?(음, 그래서 말려서?)

107091 #1 ᄆᆞᆯ류왕은엥에 삐정은엥에 걸 반죽헐 거.(말려서 빻아서 걸 반죽할 거.)

107091 @ 으음.(으음.)

107091 #1 경 허영 동글동글허게 반죽헤영 ᄆᆞᆯ률 거.(그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반죽해서 말릴 거.)

107091 @ 음.(음.)

107091 #1 요새 ᄑᆞ는 것덜 다 그치룩 허영 나오는 거.(요새 하는 것들 다 그처럼 해서 나오는 거.)

107091 @ 게믄 그런 식으로 허는데 그때는 그 보리는 무슨 보리로 헤?(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는 그 보리는 무슨 보리로 해?)

107091 #1 주넹이보리.(맥주보리.)

107091 @ 주넹이보리가 좋구나, 맛은예?(맥주보리가 좋구나, 맛은요?)

107091 #1 주넹이보리. 껍덕이 여라 불 잇어 부난 거주. 주넹이보리.(맥주보리. 껍질이 여러 벌 있어 버리니까 거지. 맥주보리.)

107091 @ 예, 골 헐 때도 주넹이보리로?(예, 엿기름 할 때도 맥주보리로?)

107091 #1 으, 주넹이보리.(으, 맥주보리.)

107091 @ 그다음에 그, 그 골 놓을 때.(그다음에 그, 그 엿기름 놓을 때.)

107091 #1 으.(으.)

107091 @ 그 이 뿌리들예, 그거는 다 보병은에 헤야 뒈는 거 아니?(그 이 뿌리들요, 그거는 다 비벼서 해야 되는 거 아니?)

---

507) 'ᄌᆞ눌민'은 '물기가 알맞게 스며들어 무르면'의 의미다.

107091 #1 무신 뿌리? 겁덕?(무슨 뿌리? 껍질?)

107091 @ 어, 겁덕이나 뭐 헐 때. 골 헐 때 그냥.(어, 껍질이나 뭐 할 때. 엿기름 할 때 그냥.)

107091 #1 아니, 그냥 그냥 그것차 헤사주.(아니, 그냥 그냥 그것째 해야지.)

107091 @ 그냥 그것차 허는 거라예?(그냥 그것째 하는 거지요?)

107091 #1 거 벳겨 불민 나질 안허주.(거 벗겨 버리면 나질 않지.)

107091 @ 게난 엿 헐 때도 그 밥은 뭘로 헤? 어떤 걸로 헤?(그러니까 엿 할 때도 그 밥은 무엇으로 해? 어떤 걸로 해?)

107091 #1 밥은 기자 조팝 헤영 허는 사름. 게, 대개게 조팝 헤영 허곡. 보리쏠 서껑도 허곡 기자 이녁 먹는 거.(밥은 그저 조밥 해서 하는 사람. 게, 대개 조밥 해서 하고. 보리쌀 섞어서도 하고 그저 이녁 먹는 거.)

107091 @ 먹는 거?(먹는 거?)

107091 #1 으, 먹는 쏠로.(으, 먹는 쌀로.)

107091 @ 으, 옛날 엿 허젠 허멘 보통.(으, 옛날 엿 하려고 하면 보통.)

107091 #1 예게. 조팝 보리밥.(예. 조밥 보리밥.)

107091 @ 조팝으로. 보리밥으로도 엿을 헤마씨?(조밥으로. 보리밥으로도 엿을 해요?)

107091 #1 예게, 조팝 보리밥이난에. 아니 엿 허는 건 안 뒈고 보리밥은.(예, 조밥 보리밥이니까. 아니 엿 하는 건 안 되고 보리밥은.)

107091 @ 엿 허는 건 안 뒈고.(엿 하는 건 안 되고.)

107091 #1 좁쏠은 뒈도.(좁쌀은 되어도.)

107091 @ 좁쏠은 뒈고예?(좁쌀은 되고요?)

107091 #1 좁쏠은 흐린좁쏠이라사.(좁쌀은 차좁쌀이어야.)

107091 @ 흐린좁쏠로 헷어, 엿은?(차좁쌀로 했어, 엿은?)

107091 #1 엿 허는 건 좁쏠도 흐린좁쏠.(엿 하는 건 좁쌀도 차좁쌀.)

107091 @ 음, 이렇게 하고?(음, 이렇게 하고?)

기타

107092 @ 이거 말고, 이 마을에 특별허게 아무래도 바당 동네고 허니까 이 마을에 뭐 특별허게 헤 먹엇던 음식 잇이카마씨? 이런 거 말앙?(이거 말고, 이 마을에 특별하게 아무래도 바다 동네고 하니까 이 마을에 뭐 특별하게 해 먹었던 음식 있을까요? 이런 거 말고?)

107092 #1 이런 거 말앙 특별, 옛날엔 특별헌 뭐가 엇엇수다게. 지금에야 잇주. 옛날이사 무시거. 아이고, 그런 것도 마음대로 막 토지나 좋곡 뭐헌 사름이라사 ᄆᆞ음대로 헷주. 어디 경.(이런 거 말고 특별, 옛날엔 특별한 뭐가 없었습니다. 지금에야 있지. 옛날이야 무엇. 아이고, 그런 것도 마음대로 아주 토지나 좋고 뭐한 사람이어야 마음대로

했지. 어디 그렇게.)

107092 @ (웃음) 맞아.((웃음) 맞아.)

107092 #1 우리, 우리 어머니네보단 우리 할머니네 대에가 그렇게 살앗수게게.(우리, 우리 어머니네보단 우리 할머니네 대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107092 @ 예, 할머니네예?(예, 할머니네요?)

107092 #1 예, 우리 증조할머니네 대가 완전 그렇게 산 거 아니우꽈?(예, 우리 증조할머니네 대가 완전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107092 @ 음.(음.)

107092 #1 경 허영 허난에 또 우리 우리 어머니네 대에도 그 기자 진짜 감저로 양식허곡게. 감저만 먹곡게. 마농[508] 캐당 징뀌 담앙 마농징뀌 헤영 아무 것도 안 논 거 기자 새금새금헌 거 그것만 먹곡 헷수게게.(그렇게 해서 하니까 또 우리 우리 어머니네 대에도 그 그저 진짜 고구마로 양식하고. 고구마만 먹고. 마늘 캐다가 김치 담가서 달래 김치 해서 아무 것도 안 놓은 거 그저 새콤새콤한 거 그것만 먹고 했습니다.)

107092 @ 게난 어쨋든 삼춘네도 결혼헐 때도 그렇게 산 거 아니라예?(그러니까 어쨌든 삼촌네도 결혼할 때도 그렇게 산 거 아닌가요?)

107092 #1 아니, 우리 결혼헐 때ᄁᆞ장은 그치룩은 안 살앗주.(아니, 우리 결혼할 때까지는 그처럼은 안 살았지.)

107092 @ 그치룩은 안허고.(그처럼은 않고.)

107092 #1 그 자락은 안 살앗주. 으, 우리 결혼헐 때ᄁᆞ장은.(그 정도는 안 살았지. 으, 우리 결혼할 때까지는.)

107092 @ 음, 게난 ᄒᆞ꼼 그때는 세상 펼 때예?(음, 그러니까 조금 그때는 세상 펼 때요?)

107092 #1 으, ᄒᆞ꼼 페울 때.(으, 조금 펼 때.)

107092 @ 페울 때. 게도 이제 삼춘네는 이제 우리 남자 삼춘이 밖에 강도 돈도 벌어오고 영 하니까 헌 거고. 정말 그 시절에도 못 먹엉 산 사름이 하지?(펼 때. 그래도 이제 삼촌네는 이제 우리 남자 삼촌이 밖에 가서도 돈도 벌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한 거고. 정말 그 시절에도 못 먹어서 산 사람이 많지?)

107092 #1 음, 우리 시절에도.(음, 우리 시절에도.)

107092 @ 예.(예.)

107092 #1 우리 시절에도 경 잇수다. 아, 지금은 마찬가지. 지금은 나라에서덜 막 살려주난 거주.(우리 시절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아, 지금은 마찬가지. 지금은 나라에서들 막 살려주니까 거지.)

107092 @ 예.(예.)

107092 #1 지금도 나라에서나 협조 안 헤 줌시민 못허는 사름이 하주게.(지금도 나라에서나 협조 안 해 주고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많지.)

107092 @ 기지예?(그렇지요?)

---

508) '마농'은 표준어 '마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 '마농'은 달래의 의미로 쓰였다.

107092 #1 잇주게.(있지.)

107092 @ 으, 알앗수다. 잠깐만예? 이제 또 다른 거를.(으,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또 다른 거를.)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3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9년 12월 24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